金剛心論 읽기

* 금타金陀 대화상大和尙 당시 운문암雲門庵

편집 무주선원無住禪苑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511-2
010-9266-5361

들어가는 글

벽산당碧山堂 금타金陀 대화상님(1898~1948)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해방의 혼돈 속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철저히 감추시고 불같이 사시다 가신 분입니다. 스님의 친척 되는 노 보살님의 증언證言으로는 그분의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얼굴에 약간의 얽은 자국이 있었으며 어릴 적부터 천재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타金陀 스님의 남아있는 자취는 당신의 깨달음의 세계를 메모지에 남겼던 것을 청淸자 화華자 청화 큰스님께서 편집한 『금강심론金剛心論』 뿐입니다. 그러나 『금강심론金剛心論』은 한문漢文과 전문용어로 되어있어 현대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제가 비천卑賤한 살림살이를 가지고 신심信心 하나로 해석하고 자료를 모으고 사전을 찾아가며 주註를 달고 정리하여 『금강심론金剛心論 읽기』라는 이름으로 본서를 내놓기까지는 수년數年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편으로는 『금강심론金剛心論 읽기』가 해석解釋의 오류誤謬로 인하여 대화상님께 누累가 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비천한 알음알이로 『금강심론金剛心論』을 정리하면서 그 분의 박학다식博學多識함에 감탄할 뿐입니다. 그리고 박학다식함이 그냥 이론理論으로만이 아니라 경전經典에 근거한 철저한 수행과 깨달음의 경지境地에서 나온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금강심론金剛心論』 한 구절 한 구절 속에는 금타金陀 스님의 일인전一人傳에 일인도一人度의 서원誓願이 서려있습니다. 특히 2장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은 중생에서 부처의 길까지 간결簡潔하고 확실하게 일러준 법문입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오르신 분이 올라가는 길을 지도를 보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일러주듯이 범부에서부터 부처가

되는 길까지를 철저히 경전에 근거根據하여 말씀하였고 경전의 폭은 소승小乘 경전부터 대승大乘 밀교密敎까지 총 망라하였습니다.

"『금강심론金剛心論』 한 권 읽는 것이 모든 경전을 다 읽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큰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금강심론金剛心論』 한 권이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다. 특히 '해탈解脫 16지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 '해탈解脫 16지地'를 의지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금강심론金剛心論 읽기』가 좀 어렵더라도 천천히 한 대목 한 대목 숙독熟讀한다면 수행修行에 정안正眼을 갖춘 나침판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 비천한 살림살이로 신심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번역 · 정리한다고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읽으시다가 의문점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금강심론金剛心論 읽기』를 출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광륜사 주지스님, 광륜출판사 여러분, 수 년數年의 세월동안 인연 맺은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2009년 여름 고내토굴에서 비구比丘 본연本然 합장合掌

1차 출판 2009년 10월
2차 교정출판 2019년 여름

* 전남 곡성 태안사에서 청화淸華 큰스님을 은사恩師로 수계受戒.
* 승보종찰 송광사松廣寺 강원講院 졸업.
* 선원 안거와 기도 수행.
* 현재는 제주시 항파두리 근처 무주선원 개원 정진.

머리말

동양문화東洋文化를 대표代表하는 불교佛教가 있어 온 지 이천오백여년二千五百餘年의 성상星霜을 두고, 직접적直接的으로는 동방민족東方民族의 무지無知를 계몽啓蒙하고, 간접적間接的으로는 서구문화西歐文化의 저류底流에 불멸不滅의 광망光芒[1]을 끼쳐 왔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현대現代에 이르러 모든 동서문화東西文化를 융합融合한 보편적普遍的이고 궁극적窮極的인 문화文化를 이룩함은 불교교리佛教教理의 당위當爲일 뿐 아니라, 인류문화人類文化 자체自體의 필연적必然的인 역사적歷史的 귀추歸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실현實現에는 어디까지나 인간존재人間存在의 숙명적宿命的 제약制約인 시간時間・공간空間과 인과율因果律의 사슬을 벗어난 무한無限 절대絶對의 진여자성眞如[2]自性에서 제시提示되는 지도원리指導原理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불교佛教의 방대尨大하고 현묘玄妙한 교리教理가 우주宇宙의 실상實相인 불성佛性을 자각自覺한 각자覺者의 경계境界에서는 직절直截간명簡明한 하나의 묘리妙理로 환원還元될 것이지만, 제대諸大 선각자先覺者들의 각기各其 역사적歷史的 시대時代에 있어서 그들 자각내용自覺內容의 심천深淺과, 이른바 응병시약應病施藥하는 대인적對人的인 선교善巧의 묘妙에 연유緣由하여 대승大乘과 소승小乘, 현교顯教와 밀교密教, 권교權教와 실교實教, 선종禪宗과 교종教宗 등이 발생發生하게 되었음은 정正히 필연必然한 결과結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

1) 광망(光芒) : 비치는 빛살.

2) 진여(眞如) :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뜻으로, 우주 만유의 본체인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절대의 진리를 이르는 말.

따라서, 불성佛性에 미료未了한 범부중생凡夫衆生에게는 팔만사천八萬四千을 헤아리는 왕양汪洋[3]한 불교교리佛敎敎理가 지극至極히 번쇄煩瑣하고 난해難解하게 여겨짐은 사실事實이며, 그래서, 현대現代에 이르러 불법佛法의 전모全貌를 달관達觀하지 못하고 추상적抽象的으로 어느 일방一方만을 확집確執하여 분열分裂 침체沈滯하고, 위기危機에 직면直面한 현대사회現代社會에 보다 적극적積極的이고 참신斬新한 구제救濟의 소임所任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普遍的인 지도원리指導原理를 간구懇求하는 시대적時代的 요청要請은 다행多幸히도 우리 한국불교계韓國佛敎界에서 고故 벽산당碧山堂 금타화상金陀和尙의 굴기崛起[4]로 말미암아 불교자체佛敎自體 내內의 분운紛紜한 논의論議와 문화사상文化史上의 형이상[5]形而上과 형이하[6]刑而下, 유물唯物과 유심唯心등, 양극兩極의 치열熾烈한 쟁론爭論들이 법이法爾 도리道理에 입각立脚한 철저徹底한 변증辨證으로써, 홍로점설[7]紅爐點雪의 해결解決을 보게 됨은 비단非但 불교계佛敎界의 공헌貢獻에만 그칠 뿐 아니라, 당래當來할 인류人類의 복지福祉를 위爲하여 고귀高貴한 금자탑金子塔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불후不朽의 가치價値가 있는 화상和尙의 진귀珍貴한 역작力作들이 현하現下 불교계佛敎界의 혼돈불모混沌不毛한 분위기雰圍氣 속에서 부연선양敷衍宣揚되지 못하고, 다만 산승山僧과 같은 천학淺學 비재菲才한 후학後學에 의해서 간신히 그 원고原稿만 보존保存되어 왔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遺憾된 일이 아닐 수 없다.

---

3) 왕양(汪洋) : 미루어 헤아리기 어려움.

4) 굴기(屈起) : 몸을 일으킴.

5) 형이상(形而上) : 이성적 사유 또는 직관에 의해서만 포착되는 초 경험적이며 근원적인 영역.

6) 형이하(形而下) : 형체를 갖추어 나타나 있는 물질의 영역.

7) 홍로점설(紅爐點雪) :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 위에 한 송이의 눈을 뿌리면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는 데에서, 도를 깨달아 의혹이 일시에 없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금타화상金陀和尙께서는 일찍이 십수년十數年의 좌선坐禪을 감행敢行하여 본분本分 자성自性의 실상實相을 확철廓徹히 증오證悟하고, 석존釋尊 이후 가장 소상昭詳히 형이상적形而上的 경계境界를 천명闡明하였으며, 또한, 그 실상實相을 견증見證하는 방법계제方法階梯를 실증과학實證科學과 대비對比하여 체계화體系化하는 등等 형이상하形而上下를 지양止揚 종합綜合한 점點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문화사상文化史上 희유稀有한 일대성사一大盛事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화상和尙은 원효元曉, 보조普照, 서산西山 등等 제대諸大 선각자先覺者들이 한결같이 창도唱導 선양宣揚한 바, 한국불교韓國佛敎의 정통正統인 통불교通佛敎의 제창提唱에 그칠 뿐만 아니라, 정법正法을 호지護持하는 의미意味의 호법단護法團을 조직組織하여, 종교일반宗敎一般의 일원화一元化를 도모圖謀한 웅지雄志는 참으로 종교중흥宗敎中興의 여명黎明을 밝히는 찬연燦然한 서광瑞光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화상和尙은 우리 한글의 보완補完에도 각별恪別한 연구硏究를 하였으며, 과학적科學的 분야分野에 대하여서도 깊은 조예造詣를 표명表明하였으니, 특特히 『우주宇宙의 본질本質과 형량形量』이라는 저술著述에서 화상和尙이 말하기를 「양핵陽核은 수대水大 곧 인력引力이며, 전자電子는 화대火大 곧 척력斥力이고, 그 동력動力은 풍대風大, 중성진中性塵은 지대地大이다. 이와 같이 불설佛說의 이른바 소조사대所造四大(물질物質)는 과학科學에 의하여 해부解剖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후今後의 문제問題는 능조사대能造四大(심心)를 철학哲學을 통하여 구명究明하고, 진속眞俗을 타파打破케 할지니 중생衆生으로 하여금 먼저 간혜지[8]乾慧地에 오르게 하여 대오大悟의 기초基礎를 쌓게 할 필요必要가 있다. 그리고 과학科學의 범주範疇를 확대擴大하지 않

8) 간혜지(乾慧地) : 간혜는 마른 지혜라는 뜻으로, 이 위(位)는 5정심・별상념처・총상념처의 관(觀)을 닦아 지혜는 깊으나, 아직도 온전한 진제(眞諦) 법성(法性)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으므로 간혜지라 함.

으면 현대現代에 있어 구求하는 바 원자핵原子核의 본질本質은 발견發見하기 어렵다.

그것은 불설佛說의 금진金塵에 해당하며 천안天眼에 의依해서만 비로소 발견發見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금진金塵을 영점零點으로 하고, 그 이상을 형이상形而上, 이하를 형이하形而下라고 하면,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 여실如實이 증명證明되어 원래元來 둘이 아닌 사실事實이 명백明白해진다...」고 갈파喝破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귀중貴重한 독창적獨創的인 저술著述들이 주主로 자증自證된 진여연기眞如緣起의 경계境界를 간결簡潔하게 제시提示한 압축壓縮된 문장文章일 뿐 아니라, 종교宗教와 철학哲學과 과학科學을 혼연渾然히 망라網羅한 웅편雄篇이기 때문에 후학인後學人에 있어서도 이를 음미吟味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지眞摯한 구도인求道人의 입장立場에서 삼매三昧를 통한 직관실증直觀實證의 연찬研鑽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불신不信과 불안不安과 파멸破滅의 역사적歷史的 위기危機에 처處한 현대적現代的 상황狀況에 있어서 행幸히 화상和尙의 저술著述이 인류人類의 무명無明과 반목反目을 초극超克하여, 상락아정常樂我淨한 새 세대世代 건설建設의 드높은 이정표里程標가 되고, 몽매夢寐에도 사무친 조국祖國의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위한 진정眞正한 지도指導 원리原理가 될 수 있다면, 어찌 다만 불교인佛敎人의 수도법문修道法門에만 그치고 말 것인가?

그리고, 화상和尙의 저작著作 또는 찬술撰述들이 한결같이 금강삼매金剛三昧에 입각立脚한 금구서술金口敍述임을 인연因緣하여, 화상和尙의 유고遺稿를 한데 모아『금강심론金剛心論』이라 표제表題하여 상재上梓하기로 하였으며 본문本文에 보이는 난해難解한 문장文章이나 불교술어

佛敎述語를 평이平易하게 주해註解하여 편술編述하려 하였으나, 원저原著의 본의本義를 이아칠까 저어하여 후일後日로 미루고, 우선于先 원문原文 그대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끝으로, 이번 간행불사刊行佛事에 동참同參하여 주신 여러 불자佛子님들께 충심衷心으로 감사感謝의 합장合掌을 드리는 바이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관세음보살南無觀世音菩薩

불기佛紀 2천5백36년[9]二五三十六年 임신壬申 2월二月 망일望日

동리산桐裏山 태안사泰安寺 금강선원金剛禪院에서

후학後學 청화淸華 합장合掌

9) 1992년.

일러두기

1. 제1편第一篇 「일인전一人傳에 일인도一人度」는 문자文字 그대로 이 법문法門을 전傳하고 받는 사람마다 반드시 제도濟度한다는 저자著者의 대확신大確信과 서원誓願이 넘쳐흐르고 있음을 감득感得하고 남음이 있다.

제1장第一章에서, 반야심경般若心經의 독특獨特한 해설解說로써 먼저 제법개공諸法皆空의 이理를 역설力說하여 선오후수先悟後修의 정견正見을 천명闡明,하고 제2장第二章 1절一節 「아미타불阿彌陀佛」에서는 「보리방편문菩堤方便門」의 실상염불선實相念佛禪으로써, 정혜균등定慧均等과 자력타력自力他力 겸수兼修의 염불선念佛禪을 제창提唱하여 이 수법修法이 바로 성불成佛의 피안彼岸에 이르는 첩경捷徑임을 강조强調하였으며, 4절四節의 「오지여래五智如來」에서는 불성佛性의 체성體性을 철저徹底히 구명究明하였는데 기타其他 각절各節마다 시대성時代性에 상응相應한 저자著者의 독창적獨創的인 교설敎說은 다른 불서佛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귀珍貴한 법문法門 임을 부인否認할 수 없다.

2. 제2편第二篇 「해탈解脫 십육지十六地」는 불조佛祖의 경론經論에서 밝히신 바 성불成佛의 계제階梯를 보살십지菩薩十地를 근간根幹으로 하여 대비對比 회통會通한 수행과정修行過程의 체계體系로서 무릇 수행修行의 방법계제方法階梯도 모르고 암중모색暗中摸索하는 암증선暗證禪이나, 또는 실수實修를 소홀疎忽히 하고 경론經論의 문자文字만을 섭렵涉獵하여 오득연悟得然 하는 문자선文字禪이나, 혹은 미증未證을 증證으로 하고 미오未悟를 오悟로 하는 야호선野狐禪의 증상만增上慢 등等을 물리치고, 스스로 법사法師가 되어 구경究竟을 성취成就할 수 있는 현대現代 과학시대科學時代에 시기적응時期適應한 돈오점수頓悟漸修의 교설敎說이다.

3. 제3편第三篇 「수릉엄삼매도결首楞嚴三昧圖訣」은 불성佛性의 상징도象徵圖인 수릉엄삼매도首楞嚴三昧圖를 요해了解케 하기 위하여 불조佛祖의 명구문名句文을 원문原文 또는 찬문撰文으로써 인증引證하여 해설解說하였는데, 각各 절節마다 그 말미末尾에는 저자著者 특유特有한 참정절철[10]斬釘截鐵의 간결簡潔한 회통會通의 결어結語가 빛나고 있음을 간과看過할 수 없다.

특히 석존釋尊께서 성도시成道時와 열반시涅槃時에 몸소 체현體現하시고 또한 삼승성자三乘聖者가 다 한결같이 공수共修한다는, 근본선根本禪인 사선정四禪定과 멸진정滅盡定의 필수必修를 역설力說함은, 현하現下 불교계佛教界가 해오解悟만을 능사能事로 하는 무기력無氣力한 풍토風土임을 감안할 때 정해탈定解脫을 위한 불가결不可缺한 수도修道 법문法門임을 절감切感케 한다. 그리고 화상和尙께서 상편上篇만을 탈고脫稿하고 입적入寂하심은 참으로 유감遺憾된 일이 아닐 수 없다.

4. 제4편第四篇 「우주宇宙의 본질本質과 형량形量」은 일본어日本語로 된 원문原文을, 산승山僧이 편역編譯하여 단행본單行本으로 발간發刊한 바도 있는데, 이제 화상和尙의 유고遺稿를 『금강심론金剛心論』으로써 망라網羅하는 계제에 한데 수록收錄하기로 하였으며, 서문序文 또는 본편本篇의 머리말에서 약간若干의 해제解題를 곁들였기에 여기서는 생략省略하기로 한다.

10) 참정절철(斬釘截鐵) : 못을 부러뜨리고 쇠를 자른다는 뜻으로, 과감하게 일을 처리함을 이르는 말.

목차目次

* 머리말・・・・・・・・・・・・・・・・・
* 일러두기・・・・・・・・・・・・・・・・

제1편 第一篇 일인전에 일인도 一人轉에 一人度・・・・・

제1장第一章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의 독해讀解・・・・

제2장第二章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
제1절第一節 아미타불阿彌陀佛 ・・・・・
제2절第二節 인원과만因圓果滿・・・・・
제3절第三節 삼신요별三身了別・・・・・
제4절第四節 오지여래五智如來・・・・・
제5절第五節 묘유현상妙有現象・・・・・
제6절第六節 석공관析空觀・・・・・
제7절第七節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제8절第八節 아누보리阿耨菩提의 실상해實相解・・・・・
제9절第九節 오륜성신관五輪成身觀・・・・・
제10절第十節 금강삼매송金剛三昧頌・・・・・
제11절第十一節 삼륜단공송三輪但空頌・・・・・
제12절第十二節 관음자륜송觀音字輪頌・・・・・

제3장第三章 관음문자觀音文字・・・・・
제1절第一節 관음문자觀音文字 공포公布 취지문趣旨文・・・・・
제2절第二節 부화음게父和音偈 모애음게母愛音偈・・・・・
제3절第三節 관음자륜觀音字輪・・・・・
1. 17자모十七字母・・・・・

2. 자륜화字輪化의 기수자基數字・・・・・
3. 87자륜八十七字輪・・・・・
제4절第四節 기수묘게基數妙偈・・・・・
제5절第五節 문서왕래文書往來・・・・・

제4장第四章 석존釋尊 일대一代의 경개梗槪・・・・・
제1절第一節 룸비니원園에서 탄생誕生・・・・・
제2절第二節 도道를 구求하사 선림仙林에 입入함・・・・・
제3절第三節 정각正覺을 대성大成함 ・・・・・
제4절第四節 오십년五十年 교화敎化의 행각行脚・・・・・
제5절第五節 추상追想・・・・・

제5장第五章 호법단護法團 4차四次 성명서聲明書・・・・・

제6장第六章 현기懸記・・・・・
1. 유통流通・・・・・
2. 사조思潮・・・・・
3. 정치政治・・・・・
4. 합류合流・・・・・
5. 주의主義・・・・・
6. 의무義務・・・・・

제7장第七章 만덕송卍德頌과 십여시十如是・・・・・

제2편第二篇 해탈십육지解脫十六地・・・・・
초初. 삼귀지三歸地・・・・・
2. 신원지信願地・・・・・

3. 습인지習忍地・・・・・
4. 가행지加行地・・・・・
5. 금강지金剛地・・・・・・・・・・
6. 희락지喜樂地・・・・・・・・・・
7. 이구지離垢地・・・・・・・・・・
8. 발광지發光地・・・・・・・・・・
9. 정진지精進地・・・・・・・・・・
10. 선정지禪定地・・・・・・・・・・
11. 현전지現前地・・・・・・・・・・
12. 나한지羅漢地・・・・・・・・・・
13. 지불지支佛地・・・・・・・・・・
14. 보살지菩薩地・・・・・・・・・・
15. 유여지有餘地・・・・・・・・・・
16. 무여지無餘地・・・・・・・・・・

제3편第三篇 수릉엄삼매도결首楞嚴三昧圖訣 상편上篇・・・・・・
* 수릉엄삼매도首楞嚴三昧圖의 축도縮圖・・・・・・・・・・
제1장第一章 수릉엄首楞嚴・・・・・・・・・・
제1절第一節 일행一行과 일상一相・・・・・・・・・・
제2절第二節 삼매三昧・・・・・・・・・・

제2장第二章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제1절第一節 반야般若・・・・・・・・・・
제2절第二節 바라밀波羅蜜・・・・・・・・・・
제3절第三節 십바라밀十波羅蜜과 보살십지菩薩十地・・・
제4절第四節 십지十地의 폐립廢立・・・・・・・・・・
제5절第五節 삼독三毒 육적六賊・・・・・・・・・・

제3장第三章　사제四諦・・・・・・・・・・
제1절第一節　팔정도八正道・・・・・・・・・・
제2절第二節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
제3절第三節　육취六趣(도途)・・・・・・・・・・

제4장第四章　금강삼매金剛三昧・・・・・・・・・・
제1절第一節　사자후삼매獅子吼三昧・・・・・・・・・・
제2절第二節　사륜四輪・・・・・・・・・・
제3절第三節　석공관析空觀・・・・・・・・・・
제4절第四節　사상四相・・・・・・・・・・
제5절第五節　금강계金剛界 오부五部・・・・・・・・・・
제6절第六節　오불좌五佛座・・・・・・・・・・
제7절第七節　오지五智・・・・・・・・・・

제5장第五章　불성佛性・・・・・・・・・・
제1절第一節　삼인불성三因佛性과 오불성五佛性・・・・・・・・・・
제2절第二節　불성계佛性戒・・・・・・・・・・

제6장第六章　삼신三身과 사토四土・・・・・・・・・・
제1절第一節　법신法身의 체성體性・・・・・・・・・・
제2절第二節　사종四種의 오법신五法身・・・・・・・・・・
제3절第三節　법신法身의 무상無相과 유상有相・・・・・・・・・・
제4절第四節　법신法身 설법說法・・・・・・・・・・

제7장第七章　본적이문本迹二門・・・・・・・・・・
제1절第一節　적문십묘迹門十妙・・・・・・・・・・

제2절第二節 경境・・・・・・・・・・
제3절第三節 본문십묘本門十妙・・・・・・・・・・
제4절第四節 본적상섭本迹相攝・・・・・・・・・・

제8장第八章 십불이문十不二門・・・・・・・・・・
제1절第一節 십무애十無碍・・・・・・・・・・
제2절第二節 십무진장十無盡藏・・・・・・・・・・
제3절第三節 지장십륜地藏十輪・・・・・・・・・・
제4절第四節 십현문十玄門・・・・・・・・・・
제5절第五節 현문무애십인玄門無碍十因・・・・・・・・・・
제6절第六節 십무이十無二・・・・・・・・・・
제7절第七節 십무의행十無依行・・・・・・・・・・

제9장第九章 법계法界・・・・・・・・・・
제1절第一節 사종법계四種法界와 입법계入法界의 삼관三觀・・・・
제2절第二節 십법계十法界와 구계九界・・・・・・・・・・

제10장第十章 십신十身・・・・・・・・・・

제11장第十一章 진여眞如・・・・・・・・・・
제1절第一節 삼진여三眞如와 칠진여七眞如・・・・・・・
제2절第二節 보살십지菩薩十地 소득所得의 십진여十眞如・・

제12장第十二章 인忍・・・・・・・・・・
제1절第一節 삼인三忍과 사인四忍・・・・・・・・・・
제2절第二節 오인五忍과 십삼관문十三觀門・・・・・・・
제3절第三節 십인十忍과 십사인十四忍・・・・・・・

제13장第十三章　56위五十六位와 사만성불四滿成佛・・・・・・
제1절第一節　가행加行의 사선근四善根・・・・・・・・・・
제2절第二節　십신十信・・・・・・・・・・
제3절第三節　십주十住・・・・・・・・・・
제4절第四節　십행十行・・・・・・・・・・
제5절第五節　십지심十地心・・・・・・・・・・
제6절第六節　십회향十廻向과 등묘等妙・・・・・・・・・・

제14장第十四章　삼계三界・・・・・・・・・・
제1절第一節　사선정四禪定・・・・・・・・・・
제2절第二節　멸진정滅盡定・・・・・・・・・・
제3절第三節　도솔내원兜率內院・・・・・・・・・・

제15장第十五章　수미산須彌山・・・・・・・・・・
제1절第一節　수미사층급須彌四層級・・・・・・・・・・
제2절第二節　지옥地獄・・・・・・・・・・
제3절第三節　사주지옥四洲地獄・・・・・・・・・・
제4절第四節　전법륜轉法輪의 윤왕만다라輪王曼荼羅 사륜四輪・

제16장第十六章　만다라曼荼羅・・・・・・・・・・

제4편 第四篇　우주宇宙의 본질本質과 형량形量・・・・・・・・

제1편第一篇

일인전一人傳에 일인도一人度

제1장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11]의 독해讀解

반야바라밀다심경을 읽고 풀이함

(심경心經은) 근본이 되는 스승本師 석가모니불께서 사리자舍利子[12]에게 하신 수도修道 법문法門이니라.

경전 글經文 만을 그대로 읽음素讀이 1.이오
2. 토吐를 달아 소리 내어 읽음音讀과
3. 글자의 뜻을 새기어 읽음訓讀이라.
4. 약해略解(반야심경 약해)를 풀어 읽음解讀만으로 깨달아 알고了知
5. 두 번째(토吐를 달아 소리 내어 읽음音讀)와 네 번째(약해略解를 풀어 읽음解讀)로 함께 읽다가 * 略解 ~ 대략의 뜻을 풀어 밝힘.

6. 세 번째(훈독訓讀: 글자의 뜻을 새기어 읽음)와 네 번째(해독解讀: 풀어 읽음)로 합하여 읽으니
7. 뜻으로만 읽음意讀으로 마치고
8. 이를 모두 바르게 해석義釋 할지라.
9. 이치를 깨달아 관찰觀解하고 비추어서 다 알고照了
10. 묵묵히 비출默照[13]새,

---

11)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반야심경(般若心經)] : 당나라 현장 번역. 『반야심경(般若心經)』·『심경(心經)』이라 약칭. 5온(蘊)·3과(科)·12인연(因緣)·4제(諦)의 법을 들어 온갖 법이 다 공(空)하다는 이치를 기록하고, 보살이 이 이치를 관찰할 때는 일체 고액(苦厄)을 면하고, 열반을 구경(究竟)하여 아누보리를 증득한다 말하고, 이것을 요약하여 아제아제(揭帝揭帝) 등의 대신주(大神呪)를 말한다. 전문(全文) 14항(行)의 작은 경이나 『대반야경』의 정요(精要)를 뽑아 모은 것으로서 여러 나라에 널리 유통.

12) 사리자(舍利子)[사리불(舍利弗)] : 부처님 제자 가운데 지혜제일 이웃의 목건련과 함께 외도스승을 섬기다가 뒤에 마승비구로 인하여 석존께 귀의. 자기 수행에 정진함과 동시에 남을 교화하기에 노력하다 부처님보다 먼저 죽음.

13) 묵조(默照) : 묵(默)은 침묵의 뜻으로 담연적정(湛然寂靜)한 심지본연(心地本然)의 체(體)를 말하고, 조(照)는 조료(照了)의 뜻으로 소소영영(昭昭靈靈)한 심체(心體)의 용(用)을 말한다. 즉, 정혜원명(定慧圓明)의 뜻으로서 많은 인연에 응하여도 제유(諸有)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함.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如實[14] 믿는信 원만한 믿음信滿[15]으로서 진리法에 머무르며, 있는 그대로如實 이해解하는 원만한 이해解滿로, 있는 그대로 수행하고實行, 있는 그대로 수행如實修行[16]하는 원만한 수행行滿으로, 있는 그대로 증득實證[17] 하되,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증명하는身證[18]心悟 깨달음이 원만證滿함으로 부처를 이룰成佛진저.

14) 여실(如實) : 진실한 이치에 계합하는 것.

15) 사만성불(四滿成佛) : 신만(信滿)・해만(解滿)・행만(行滿)・증만(證滿)성불을 말함. ①신만성불은 10신(信)의 만위(滿位) 곧 최상위에서 만법이 불생불멸하고 청정하고 평등함을 믿어 구할 것이 없는 것. ②해만성불은 10주(住)의 만위(滿位)에서 모든 법의 체성인 진여를 깨달아 생사・열반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두려운 마음과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 ③행만성불은 등각위(等覺位)에서 무명 번뇌가 모두 끊어져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것과 수행이 완성되는 것. ④증만성불은 묘각위(妙覺位)에서 부사의한 불과(佛果)를 얻는 것.

16) 여실수행(如實修行) : 실답게 수행함. 실(實)은 진여. 진여를 증득한 위에서 닦는 수행. 실(實)은 부처님의 교법. 여법(如法)수행・여설(如說)수행이라는 것과 같은 것. 교법대로 수행하여 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

17) 실증(實證) : 실제로 수행하여서 깨닫는 것.

18) 신증(身證) : 27현성(賢聖) 가운데 하나. 성문(聲聞) 사과(四果)의 제삼(第三). 불환과(不還果)의 성자(聖者)로서 멸진정(滅盡定)에 들어간 사람. 이 성자(聖者)는 무심정(無心定)에 있으므로 몸으로 적정락(寂靜樂)을 증득(證得)한 불환과(不還果)의 성자(聖者)임.

반야심경般若心經의 원문原文 (현장법사玄奘法師[19] 번역본)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행심반야바라밀다시行深般若波羅蜜多時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 사리자舍利子 색불이공色不異空 공불이색空不異色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수상행식受想行識 역부여시亦復如是 사리자舍利子 시제법공상是諸法空相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 시고是故 공중무색空中無色 무수상행식無受想行識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香味觸法 무안계내지무의식계無眼界乃至無意識界 무무명無無明 역무무명진亦無無明盡 내지무노사乃至無老死 역무노사진亦無老死盡 무고집멸도無苦集滅道 무지無智 역무득亦無得 이무소득고以無所得故 보리살타菩提薩埵 의반야바라밀다고依般若波羅蜜多故 심무가(괘)애心無罣碍 무가(괘)애고無罣[20]碍故 무유공포無有恐怖 원리전도몽상遠離顚倒夢想 구경열반究竟涅槃 삼세제불三世諸佛 의반야바라밀다고依般若波羅蜜多故 득아누다라삼먁삼보리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고지반야바라밀다故知般若波羅蜜多 시대신주是大神呪 시대명주是大明

---

19) 현장(玄奘) : 600년-664년. 중국의 법상종 승려. 속성은 진(陳)씨. 속명은 위(褘). 낙주(洛州) 구씨현(緱氏縣) 사람으로 12세에 낙양 정토사에서 출가함. 혜경(慧景)・도기(道基)・보천(寶遷)・법상(法常)・승변(僧辨)・도심(道深)・도악(道岳)・엄법사(嚴法師)・진법사(震法師) 등에게서 『열반경』・『섭론』・『발지론』・『비담론』・『구사론』・『성실론』 등을 배움. 629년(당 정관 3년 8월) 29세에 혼자서 길을 떠나 고창(高昌) 구자국(龜玆國)을 지나서 인도에 들어가 성적(聖蹟)을 두루 참배하고 고승 대덕들을 찾아서 불교와 아울러 학문 예술을 연구. 특히 나란타사의 계현(戒賢)에게서 『유가론』・『인명론』・『구사론』 등을 5년 동안 배움. 마침내 온 인도의 유력(遊歷)을 마치고 우전국 등 여러 나라를 지나서 645년 1월 장안에 돌아옴. 가지고 온 불사리 150립(粒), 불상(佛像) 8구, 대승과 소승의 경・율・논 520질 657부(部)를 홍복사에 모심. 『대반야경』등 75부 1335권을 번역 완성하였음. 특히 『인명론』・『구사론』・『유식론』 을 홍통(弘通)하기에 힘씀. 당 인덕 1년 2월 대자은사에서 입적함. 세수 63세. 그의 여행기인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12권은 역사가들의 중요한 자료가 됨.

20) 가애(罣碍)~시공불교사전 괘애(罣碍)~동국역경원 가애(罣碍)~한국대장경. 불교사전에는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써 있지만 습관상 "가"로 읽습니다.

呪 시무상주是無上呪 시무등등주是無等等呪 능제일체고能除一切苦 진실불허眞實不虛 고설반야바라밀다주故說般若波羅蜜多呪 즉설주왈卽說呪曰

아제아제揭帝揭帝 바라아제波羅揭帝 바라승아제波羅僧揭帝 보디사바하菩提娑婆訶

반야심경般若心經의 현토懸吐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관자재觀自在의 보살菩薩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行深般若波羅蜜多時에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하야,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이니

사리자舍利子야 색불이공色不異空이오 공불이색空不異色일새 색즉시공色卽是空이오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 수상행식受想行識도 역부여시亦復如是니 사리자舍利子야 시제법공是諸法空의 상相이 불생불멸不生不滅이며 불구부정不垢不淨이며 부증불감不增不減일새 시고是故로 공중空中에 무색無色이라 무수상행식無受想行識이니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요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香味觸法이오 무안계無眼界요 내지무의식계乃至無意識界일새

무무명無無明이라 역무무명진亦無無明盡이며 내지무노사乃至無老死라 역무노사진亦無老死盡이며 무고집멸도無苦集滅道니 무지無智라 역무득亦無得하야 이무소득以無所得일새

고故로 보리살타菩提薩埵—의반야바라밀다依般若波羅蜜多니 고故로 심무괘(가)애心無罣碍요 무괘(가)애고無罣碍故로 무유공포無有恐

怖라 원리전도몽상遠離顚倒夢想하고 구경열반究竟涅槃하나니 삼세제불三世諸佛도 의반야바라밀다고依般若波羅蜜多故로 득아누다라삼먁삼보리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시니라

고지故知하라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蜜多가 시대신주是大神呪며 시대명주是大明呪며 시무상주是無上呪며 시무등등주是無等等呪니 능제일체고能除一切苦요 진실불허眞實不虛라 고故로 설반야바라밀다주說般若波羅蜜多呪일새 즉설주왈卽說呪曰

아제아제揭帝揭帝 바라아제波羅揭帝 바라승아제波羅僧揭帝 보디사바하菩提娑婆訶라시니라

반야심경般若心經의 약해略解

반야심경의 뜻을 간략히 밝히다.

서분序分[21] 제1第一

(심경心經에 토를 달다)

관자재觀自在의 보살菩薩이

세 가지 몸三身[22]과 네 가지 지혜四智[23]에 온갖 덕萬德을 갖춘 한 위대한 사람一大人의 대자재한 경계大自在境[24]를 관찰觀察하는 보살菩薩[25]

---

21) 서분(序分) : 3분의 1 경문 가운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한 서론.

22) 삼신(三身) : 불신을 그 성질상으로 보아 셋으로 나눔. 법신(法身)・보신(報身)・응신(應身). ①법신 : 법은 영겁토록 변치 않는 만유의 본체, 적취(積聚)의 뜻으로, 본체에 인격적 의의(意義)를 붙여 법신이라 하니, 빛깔도 형상도 없는 이불(理佛). ②보신 : 인(因)에 따라서 나타난 불신. 아미타불과 같음. 곧 보살위(菩薩位)의 곤란한 수행을 견디고, 정진 노력한 결과로 얻은 영구성이 있는 유형(有形)의 불신. ③응신 : 보신불을 보지 못하는 이를 제도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불신. 역사적 존재를 인정하는 석가모니와 같음.

* 삼신 가운데 청정법신은 네 성품이며 원만보신이란 너의 지혜이며 천백억화신이란 너의 행(行)을 가리킨다. "자성이 삼신(三身) 갖춤을 밝히면 사지(四智)를 이루리. 보고 듣는 것 떠나지 않고 한번 뛰매 불지(佛地)에 오르리"『육조단경(六祖壇經)』

23) 사지(四智) : 법상종에서 세운 여래의 네 가지 지혜. 범부의 8식(識)이 변하여 여래의 4지(智)가 된다. ①대원경지(大圓鏡智) : 유루(有漏)의 제8식이 변하여 얻는 무루(無漏)의 지혜. 이것은 거울에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추어 모자람이 없는 것과 같이 원만하고 분명한 지혜이므로 대원경지라 한다. 불과(佛果)에서 처음으로 얻는 지혜. ②평등성지(平等性智) : 제7식이 변하여 얻은 무루의 지혜. 통달위(通達位)에서 그 일부를 증득하고, 불과에 이르러 그 전분(全分)을 증득한다. 일체 모든 법과 자기나 다른 유정들을 반연하여 평등일여한 이성(理性)을 관하고 나다 남이다 하는 차별심을 여의어 대자대비심을 일으키며, 중생을 위하여 가지가지로 교화하여 이익케 하는 지혜를 말함. ③묘관찰지(妙觀察智) : 제6식이 변한 것. 모든 법의 상을 묘관찰하여 설법을 베풀고 의혹을 끊는 데 사용되는 지혜를 말함. 묘는 불가사의한 힘의 자재를 말함. 관찰은 모든 법을 살피는 것. ④성소작지(成所作智) : 불과에 이르러 유루의 전5식(前五識)과 그 상응심품을 전사(轉捨)하고 얻는 지혜. 10지(地) 이전의 보살. 2승(乘)・범부 등을 이락(利樂)케 하기 위하여 시방에서 3업으로 여러 가지 변화하는 일을 보여 각기 이락을 얻게 하는 지혜를 말함.

24) 대자재(大自在) : ①장애나 속박 없는 참된 자유. ②광대한 신통력(神通力)을 지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이름.

25) 보살(菩薩) : 보리살타(菩提薩埵)의 준말. 부살(扶薩)・살타(薩埵)라고도 하고, 각유정(覺有情)·개사(開士)·대사(大士)·시사(始士)·고사(高士)라 번역. 성불하기 위하여 수행에 힘쓰는

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行深般若波羅蜜多時에

깊고 세밀한深密 바른 지혜正智로써 저 언덕彼岸[26]에 이르는 가르침法을 수행修行할 때에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 하여

먼저 부질없는 생각妄情으로 마음대로 분별하던 색법色法[27]인 물질 무더기色蘊[28]와 마음의 법心法[29]인 수受(느낌)·상想(인식작용)·행行(의지의 작용)·식識(마음의 작용)의 네 가지 무더기四蘊는 일찍이 거짓 모습假相, 거짓 이름假名으로서 이름과 모양이 본래 공空일새 다섯 무더기五蘊[30]가 다 공空[31]함을 비추어보아照見

이의 총칭. 넓은 의미로는 대승불교에 귀의한 이. 보살이란 것은 큰마음을 내어 불도에 들어오고, 사홍서원을 내어 육바라밀을 수행하며,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3아승지 100겁의 긴 세월에 자리(自利)·이타(利他)의 행을 닦으며, 51위(位)의 수양 계단을 지나 드디어 불과(佛果)를 증득하는 이. 다만 지장보살과 같이 중생 제도를 위하여 영영 성불하지 않는 이도 있으니, 이를 대비천제(大悲闡提)라 한다. 소승에서는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최상의 증과(證果)로 삼고, 부처님은 오직 석가모니불과 미래에 성불할 미륵보살 뿐이라고 하므로, 보살은 석가모니불이 성불하기 전의 호명 보살과, 앞으로 성불할 미륵보살 밖에는 없다고 하지마는, 대승에서는 성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석가모니불 한 분만이 아니고 한없는 부처님을 말하고, 또 재가(在家)·출가(出家)를 막론하고 대승 법을 수행하는 이는 모두 보살이라 한다.

26) 피안(彼岸) : 구족하게는 도피안(到彼岸). 범어 바라밀다의 번역. 모든 번뇌에 얽매인 고통의 세계인 생사고해를 건너서, 이상경(理想境)인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하는 것.

27) 색법(色法) : ↔심법(心法). 물질을 말함. 우주의 만유를 분류한 5위(位). 또는 5온(蘊)의 하나.

28) 색온(色蘊) : 5온의 하나. 색(色)은 스스로 생멸 변화하고 또 다른 것을 장애한다. 온(蘊)은 모여서 뭉친 것으로 화합하여 한 덩어리가 된 것.

29) 심법(心法) ↔색법(色法). 우주 만유를 색(色)·심(心)의 둘로 분류할 때는 심왕(心王)·심소(心所)를 말하고, 5위(位)로 분류할 때는 심왕만을 말함.

30) 오온(五蘊) : 5취온(取蘊)·5음(陰)·5중(衆)·5취(聚)라고도 한다. 온(蘊)은 모아 쌓은 것. 곧 화합하여 모인 것. 모든 생멸하고 변화하는 것을 종류대로 모아서 5종으로 구별. ①색온(色蘊) : 스스로 변화하고 또 다른 것을 장애하는 물체. ②수온(受蘊) : 고(苦)·락(樂)·불고불락(不苦不樂)을 느끼는 마음의 작용. ③상온(想蘊) : 외계(外界)의 사물을 마음속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이니

태어남生과 늙음老과 병듦病과 죽음死의 네 가지 고통을 주主로 한 일체 고통과 액난의 고해 바다苦海를 넘나니

제2第二 정종분正宗分[32]

사리자舍利子야 색불이공色不異空이오 공불이색空不異色일새 색즉시공色卽是空이오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

사리자야 색色(물질)이란 비어있는 성품空性[33]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如如[34]相으로서 색色의 본체體가 달리 있지 아니함이요, 공空(빔)의 본체體가 허깨비 꽃幻華일새 색色(물질)이 공空(빔)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空이 색色과 다르지 아니하여 공空(빔) 그대로 색色(물질)이오 색色(물질) 그대로 공空(빔)이라.

수상행식受想行識도 역부여시亦復如是니

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상상하여 보는 마음의 작용. ④행온(行蘊) : 인연으로 생겨나서 시간적으로 변천함. ⑤식온(識蘊) : 의식(意識)하고 분별함.

31) 공(空) : 순야(舜若)라 음역. ①물건이 없는 곳. 보통 말하는 공간·공허·공무(空無)의 뜻. ②유(有)가 아니란 뜻. 실체가 없고 자성(自性)이 없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종류는 매우 많으나 이를 크게 나누면, 실답지 않은 자아(自我)에 실재(實在)라고 인정하는 미집(迷執)을 부정하도록 가르치는 아공(我空)과, 나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항상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미집을 부정하도록 가르치는 법공(法空)의 두 가지가 있다.

32) 정종분(正宗分) : 또는 정설분(正說分). 한 경전의 글을 3분으로 나누고 경문의 중요한 부분을 말함.

33) 공성(空性) : 진여(眞如)의 다른 이름. 진여는 우리의 이지(理智)로는 파악 할 수 없고 온갖 것은 모두 실체와 자성이 없다는 공한 이치를 체득 할 때에 번뜩 나타나는 것. 공(空)에 의하여 나타나는 실성(實性)이므로 공성이라 하는 것이고 진여 자체가 공이라는 것은 아니다.

34) 여여(如如) : 5법(法)의 하나. 바른 지혜(正智)에 계합하는 이체(理體), 곧 진여. 만유제법(萬有諸法)의 이체는 동일 평등하므로 여(如). 한 여(如)에 일법계만차(一法界萬差)의 제법을 갖추어 어느 것이든지 체(體)로 말하면 여(如), 여(如)의 뜻이 하나만이 아니므로 여여(如如)라 한다. 여하고 여하다는 뜻.

네 가지 무더기四蘊 [受(느낌)・想(인식작용)・行(의지의 작용)・識(마음의 작용)]도 또한 그러하니

사리자舍利子야 시제법공是諸法空의 상相이

사리자야 이러한 다섯 가지 무더기五蘊. [色(물질)・受(느낌)・想(인식작용)・行(의지의 작용)・識(마음의 작용)]의 모든 존재諸法가 본래 공本空[35]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36]은

불생불멸不生不滅이며

원래 나지生도 않았으니 소멸滅하지도 못하고

불구부정不垢不淨이며

원래 더럽게 물들지染垢 않았으니 깨끗하게 세척洗淨하지 못하고

부증불감不增不減일새

---

35) 본공(本空) : 본래 공(空)인 것, 일체만물의 본성은 공(空)이라 하는 것.

36) 실상(實相) : 실(實)은 허망(虛妄)이 아니라는 뜻. 상(相)은 무상(無相)이다. 이는 만유본체(萬有本體)를 지칭(指稱)한 말. 법성(法性)이라 하고 진여(眞如)라 하고 실상(實相)이라 함은, 그 체(體)가 진실상주(眞實常住)하는 뜻에 따라 말하면 진여(眞如)가 되며 이 진실상주(眞實常住)함이 만법실상의 뜻에 따라 말하면 실상이 된다. 그 밖에 일실(一室)・일여(一如)・일상(一相)・무상(無相)・법신(法身)・법증(法證)・법위((法位)・열반(涅槃)・무의(無爲)・진제(眞諦)・진성(眞性)・진공(眞空)・실성(實性)・실제(實諦)・실제(實際)라 함은 모두 실상의 다른 이름이다. 또한 명(名)에 의하여 덕용(德用)을 따라 삼제(三諦)로 말하면 공제(空諦)가 진여(眞如)가 되고 가제(假諦)가 실상(實相)이 되며 중제(中諦)가 법계(法界)가 된다.『법화경(法華經)』은 실상(實相)을 설(說)하고『화엄경(華嚴經)』은 법계(法界)를 설(說)하고『해심밀경(解深密經)』은 진여(眞如) 혹은 무위(無爲)를 설(說)하며『반야경(般若經)』은 반야(般若) 불모(佛母)를 설(說)하고『능가경(楞伽經)』은 여래장(如來藏)을 설(說)하고『열반경(涅槃經)』은 불성(佛性)을 설(說)하며『아함경(阿含經』은 열반(涅槃)을 설(說)하였다. 화엄(華嚴)의 시교(始敎)와 천태(天台)의 통교(通敎) 이하에 있어서는 불변(不變)의 공진여(空眞如)가 실상(實相)이 되고 화엄(華嚴)의 종교(終敎) 이상과 천태(天台)의 별교(別敎) 이상에 있어서는 불변(不變)과 수록(隨錄)의 만법(萬法)이 실상(實相)이 된다. 화엄(華嚴)에는 수록(隨錄)의 만법(萬法)이 실상(實相)이 되고 천태(天台)의 진언(眞言)에는 성구(性具)의 제법(諸法)이 실상(實相)이 되며 소승(小乘)은 아공(我空)인 열반(涅槃)이 실상(實相)이 되고 대승(大乘)은 아법이공(我法二空)인 열반(涅槃)이 실상(實相)이 된다고 함.

원래 모자람 없이欠縮 원만圓滿하니 늘어나고 줄어들지增減 못할지라.

시고是故로 공중空中에 무색無色이라 무수상행식無受想行識이니

그러므로 모든 존재가 비어있는諸法空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 가운데는 색色이란 거짓 모양도 없고, 수受(느낌) 상想(인식작용) 행行(의지의 작용) 식識(마음의 작용)이란 거짓 이름도 없으며, 무명無明이란 거짓 모양과 거짓 이름의 총 대명사로서 근본무명根本無明[37]**[**(色(물질)·受(느낌)·想(인식작용)·行(의지의 작용)·識(마음의 작용)]이 없으니

* 근본무명 : 뿌리가 되는 무명. 5온의 무명.

* 지말무명 : 가지가 되는 무명. 6근의 무명.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요

여섯뿌리六根[38](감각기관 : 눈眼·귀耳·코鼻·혀舌·몸身·인식意)도 없고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香味觸法이오

지말무명枝末無明[39](六根)이 없으니 여섯 티끌六塵[40](빛깔色·소리聲·냄새香·맛味·촉감觸·법法)도 없으며

무안계無眼界요 내지乃至 무의식계無意識界일새

---

37) 근본무명(根本無明) : 지말무명(枝末無明)의 반대어. 또는 근본불각(根本不覺)·무시무명(無始無明)·원품무명(元品無明). 진여의 실성을 알지 못하는 불각(不覺) 미망(迷妄)의 마음.

38) 육근(六根) : 6식(識)의 의지할 바 대상이 되어 6식을 일으키어, 대경(對境)을 인식케 하는 근원. 안근(眼根)·이근(耳根)·비근(鼻根)·설근(舌根)·신근(身根)·의근(意根). 곧 6관(官). 근(根)은 낸다는 뜻. 안근은 안식(眼識)을 내어 색경(色境)을 인식하고. 의근은 의식을 내어 법경(法境)을 인식하므로 근(根)이라 한다.

39) 지말무명(枝末無明) : 근본무명의 반대.『대승기신론』에서 중생이 일법계(一法界)의 이치에 도달하지 않고 홀연히 망념을 일으키는 것을 근본무명이라 하고, 이 근본무명에서 일어나는 업상(業相)·견상(見相)·경계상(境界相)의 삼세(三細)를 지말무명이라 함.

40) 육진(六塵) : 6경(境)을 말한다. 이 6경은 6근을 통하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청정한 마음(淨心)을 더럽히고, 참 성품(眞性)을 덮어 흐리게 하므로 진(塵)이라 한다.

이미 뿌리와 티끌根塵[41](六根·六塵)이 없으니 전오식前五識[42]으로 인식되어진 객관대상 경계所智境界(눈의 인식경계眼識界・귀의 인식경계耳識界・코의 인식경계鼻識界・혀의 인식경계舌識界・몸의 인식경계身識界)도 없으며, 주관 인식주체能智인 마음의 인식경계意識界[43]도 없어서

무무명無無明이라 역무무명진亦無無明盡이며

무명無明[44]이란 도무지 본래 없기 때문에 무명無明이 다盡할 것도 없으며

내지乃至 무노사無老死라 역무노사진亦無老死盡이며

따라서 행함行・인식識・마음과 물질名色・육근의 형성六處・감촉觸・느낌受・애착愛・취함取・있음有・삶生도 없으며, 나아가 늙음老과 죽음死이 다할 것도 없으며

무고집멸도無苦集滅道니

이와 같이 과거・현재・미래三世의 고통의 결과苦果와 그 고통이 모인 원인集因을 밝히신 12지十二支의 인연법因緣法이란 곧 다섯 무더기법五蘊法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에는 본래

---

41) 근진(根塵) : 근(根)은 감각기관의 눈・귀・코・혀・몸・뜻의 6종류(六根). 진(塵)은 이들의 인식대상이 되는 것. 색・소리・향기・맛・촉감・법의 6종(六境) 6경(境)은 번뇌를 일으키는 외적 원인이므로 진(塵)이라 함.

42) 전오식(前五識) : 유식종(唯識宗)에서 우리의 대경(對境)을 인식하는 마음 작용을 여덟 가지로 나눈 가운데서, 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의 5식을 총칭.

43) 의식(意識) : 6식(識)의 하나. 8식(識)의 하나. 의근(意根)에 의한 식이란 뜻, 곧 제6식. 제7말나식에 의속(依屬)한 식(識). 물심(物心)의 모든 현상의 총상(總相)을 요별(了別)함이 그 성능(性能). 의식은 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날 적, 무상정(無想定)을 얻을 적, 멸진정(滅盡定)에 들 적, 숙수시(熟睡時), 민절시(悶絶時)를 제하고 다른 때에는 언제든지 기존(起存).

44) 무명(無明) : 사물의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불여실지견(不如實智見)을 말함. 곧 진리에 어둡고 미혹하여 사물에 통달치 못하고 사물과 현상이나 도리를 확실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달불해불료(不達不解不了) 정신 상태로 우치(愚癡)를 그 내용으로 하며, 12연기(十二緣起)의 제1지(第一支) 무명지(無明支)이다.

없기 때문에, 도를 닦아 열반을 증득修道證滅할 것도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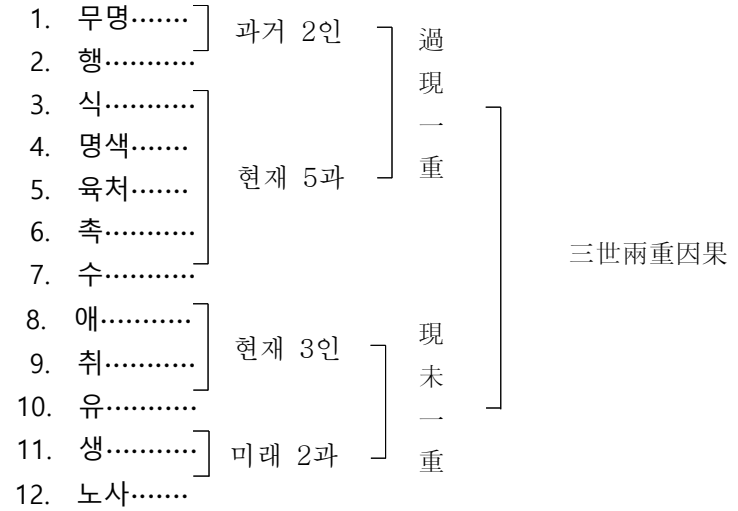
무지無智라 역무득亦無得하야 이무소득以無所得일새 고故로

이상 다섯 무더기법五蘊法의 범부의 지혜凡夫智[45]와 12연기법十二因緣法[46]의 연각의 지혜緣覺智[47]와 사제법四諦法[48]의 성문의 지혜聲聞智[49]

---

45) 범부(凡夫) : ↔성자(聖者). 지혜가 얕고, 우둔한 중생. 불교에서는 대승(大乘)·소승(小乘)은 물론하고, 견도(見道) 이전으로 올바른 이치를 깨닫지 못한 이는 다 범부라 한다.

46) 십이연기(十二緣起) : 또는 십이인연(十二因緣)·십이유지(十二有支)·십이지(十二支)·십이인생(十二因生)·십이연문(十二緣門)·십이견련(十二牽連)·십이극원(十二棘園)·십이중성(十二重城)·십이형극림(十二刑棘林). 3계에 대한 미(迷)의 인과를 12로 나눈 것. ①무명(無明) : 미(迷)의 근본인 무지(無知). ②행(行) : 무지로부터 다음의 의식 작용을 일으키는 동작. ③식(識) : 의식 작용. ④명색(名色) : 이름만 있고 형상이 없는 마음과 형체가 있는 물질. ⑤육처(六處) :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 5관(官)의 의근(意根). ⑥촉(觸) : 사물에 접촉함. ⑦수(受) : 외계(外界)로부터 받아들이는 고(苦)·낙(樂)의 감각. ⑧애(愛) :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구함. ⑨취(取) : 자기가 욕구하는 물건을 취함. ⑩유(有) : 업(業)의 다른 이름. 다음 세상의 결과를 불러올 업. ⑪생(生) : 이 몸을 받아 남. ⑫노사(老死) : 늙어서 죽음. 또 어떤 때는 연기를 해석할 적에 일찰나(一剎那)에 12연기를 갖춘다는 학설과, 시간적으로 3세(世)에 걸쳐 설명하는 2종이 있다. 뒤의 뜻을 따르면 양중인과(兩重因果)가 있다. 곧 식(識)으로 수(受)까지의 5를 현재의 5과(果)라 하고, 무명·행을 현재의 과보를 받게 한 과거의 2인(因)이라 함(過現一重因果). 다음에 애·취는 과거의 무명과 같은 혹(惑)이요, 유(有)는 과거의 행과 같은 업(業)이니, 이 현재의 3인(因)에 의하여 미래의 생·노사의 과(果)를 받는다 함(現未一重因果).



47) 연각(緣覺) : 2승(乘)의 하나. 발랄예가불타(鉢剌翳迦佛陀)·필륵지저가불(畢勒支底迦佛)이라 음역. 벽지가불(辟支迦佛). 줄여서 벽지불(辟支佛)이라 번역. 부처님의 교화에 의하지 않고 홀로 깨달아 자유경(自由境)에 도달한 성자. 독각(獨覺)이라고도 한다. 연각(緣覺)·인연각(因緣覺)이라 하는 것은 12인연의 이치를 관찰하여 홀로 깨달았다는 뜻. 부행(部

등 일체 유위법有爲法[50]의 유루지有漏智[51]란 꿈夢과 허깨비幻・물거품泡・그림자影를 헤아려 집착함과 같아서 모두 다 허망虛妄함일새 일체一切 유루有漏의 지혜智가 없으며, 따라서 유루有漏[52]의 얻음도 없으며 생사유루生死有漏를 얻을 바가 없으므로

보리살타菩提薩埵는

모든 모양諸相의 무명無明구름을 걷고 모양이 아닌非相 불성의 빛佛性[53]日을 보는 개사開士[54]는

行)・인각유(麟角喩)의 2종이 있다.

48) 사제(四諦) : 고집멸도(苦集滅道). 불교의 강격(綱格)을 표시한 유력한 것이 되어 있다. 제라는 뜻은 불변여실(不變如實)한 진상의 뜻이다. ①고제(苦諦)라 하는 것은 현실의 상을 지시함이니 현실의 인생을 고(苦)라고 보는 것이요, ②집제(集諦)라 하는 것은 고의 이유 근거 혹은 원인인데 고의 원인은 번뇌이지마는 특히 애욕(愛慾)과 업(業)이 되어 있는 것이요, ③멸제(滅諦)라는 것은 깨달을 목표인데 이상적 열반의 이름이다. ④도제(道諦)라는 것은 열반(涅槃)에 이르는 방법과 실천의 수단이다. 고(苦)・집(集) 2제는 12인연의 순관(順觀)에 해당하고, 멸(滅)・도(道) 2제는 그 역관(逆觀)에 해당한다.

49) 성문(聲聞) : 3승의 하나. 가장 원시적 해석으로는 석존의 음성을 들은 불제자를 말함. 대승의 발달에 따라서 연각과 보살에 대할 때는 석존의 직접 제자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교법에 의하여 3생(生) 60겁(劫) 동안 4제(諦)의 이치를 관하고, 스스로 아라한 되기를 이상(理想)으로 하는 일종의 저열(低劣)한 불도 수행자를 말함. 그러므로 대승에서는 성문을 소승의 다른 이름처럼 보고, 성문으로 마치는 이와 대승으로 전향(轉向)하는 이를 구별하여 우법(愚法)·불우법(不愚法)의 2종으로 나눔. 또 3종 성문, 4종 성문의 말도 있다.

50) 유위(有爲) : ↔무위(無爲). 위는 위작(爲作)・조작의 뜻. 이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조작되는 모든 현상. 이런 현상에는 반드시 생(生)・주(住)・이(異)・멸(滅)의 형태가 있다.

51) 유루지(有漏智) : ↔무루지(無漏智). 이 지혜는 유위(有爲)↔무위(無爲)의 모든 법을 대상으로 하거니와, 흔히는 세속의 사물에 작용하는 지혜이므로 세속지라고도 한다. 아무리 수련하여도 번뇌를 끊지 못하는 지혜. 여기에 생득혜(生得慧)・문혜(聞慧)・사혜(思慧)・수혜(修慧)의 구별이 있다.

52) 유루(有漏) : 번뇌를 가진 것, 누(漏)는 흘러나오는 것, 흘러나오는 일. 새는 것의 뜻으로 6근(根: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의 마음)으로 부터 새어나온다고 설명되며 번뇌의 다른 이름.

53) 불성(佛性) : (1)진리를 깨달은, 부처의 본성. (2)중생이 본디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성질.

54) 개사(開士) : 보살을 번역한 이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정도(正道)를 열어 중생을 인도하는 사부(士夫).

의반야바라밀다依般若波羅蜜多니 고故로

무위법無爲法[55]의 무루지無漏智[56]로써 열반涅槃[57] 언덕에 이르는 가르침法에 의지 하므로

심무괘(가)애心無罣碍요 무괘(가)애고無罣碍故로 무유공포無有恐怖라 원리전도몽상遠離顚倒夢想하고 구경열반究竟涅槃하나니

마음에 유루有漏의 거리낌罣碍이 없고 거리낌罣碍이 없으므로 무명심無明心의 맨 끝極端인 죽음死厄의 공포가 없어짐에 따라서 일체의 잘못되고 꿈같은 생각顚倒夢想을 멀리 여의고 열반涅槃에 구경究竟[58]하나니(도달하니)

삼세제불三世諸佛도 의반야바라밀다고依般若波羅蜜多故로 득아누다라삼먁삼보리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시니라

과거·현재·미래三世에 출연하는 모든 부처님도 이와 같이 수행修行하여 위없는 깨달음無上菩提[59]을 증득證得하셨느니라.

*"耨"자 보통 뇩자로(김맬 누) 읽습니다. 그러나 원음은 누에 가깝습니다.

---

55) 무위(無爲) : 인연에 의하여 생성되지 아니하는 존재. 생사의 변화를 초월한 상주불변하는 일. 열반의 세계.

56) 무루(無漏) : 빠뜨림이 없음. 번뇌를 벗어난 청정무구의 경지.

57) 열반(涅槃) : 불교의 최고 이상. 니원(泥洹)·열반나(涅槃那)라 음역. 멸(滅)·적멸(寂滅)·멸도(滅度)·원적(圓寂)이라 번역. 또는 무위(無爲)·무작(無作)·무생(無生).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하고, 진리를 궁구하여 미(迷)한 생사를 초월해서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법을 체득한 경지. 소승에서는 몸과 마음이 죄다 없어지는 것을 이상으로 하므로, 심신이 있고 없음에 따라 유여의(有餘依)·무여의(無餘依)의 2종 열반을 세우고, 대승에서는 적극적으로 3덕(德)과 4덕을 갖춘 열반을 말하여, 실상(實相)·진여(眞如)와 같은 뜻으로 본체(本體) 혹은 실재(實在)의 의미로도 쓴다.

58) 구경(究竟) : 최상(最上)·필경(畢竟)·구극(究極)의 뜻. 지상(至上)의 오(悟),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경각이라 하고, 성자의 가장 높은 지위를 구경위라 한다. 궁극의 경지에 도달하다. 이르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다. 최후의 점까지 다다르다.

59) 무상보리(無上菩提) : 오종보리의 하나. 등각보살(大乘階位中 51位 菩薩)이 도량에서 모든 번뇌를 단진(斷盡)하고 불과원만(佛果圓滿)한 증오(證悟)를 이룬 것. 또는 성문(聲聞)·연각(緣覺)·불(佛)이 증득(證得)한 보리(菩提). 이 가운데 불(佛)이 증득(證得)한 보리(菩提)는 그 위에 더할 수 없으므로 무상(無上)이라고 함.

큰스님께서도 누자로 읽으시기에 저도 누자로 하였습니다.

유통분流通分[60] 제3第三

고지故知하라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蜜多가 시대신주是大神呪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蜜多[61]가 완전한 깨달음究竟覺[62]까지 성취成就하는 묘妙[63]하여 가히 생각할 수 없고不可思議 커서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는 법문大總相法門[64]이며

시대명주是大明呪며

인식과 인식대상과 인식주체根塵識[65]의 모든 의혹을 끊고 적멸寂滅[66]을 증득證得하니 미혹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

---

60) 유통분(流通分) : 3분(分)의 하나 일경(一經)의 정종분 다음에 설한 교법(敎法)을 후세에 유전하기 위하여 제자에게 위촉하는 장단(章段) 그 경의 결론에 해당.

61)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密多) : ①완전한 지혜(智慧). 완성된 최고의 지혜(智慧). 탁월한 지성(知性)의 지고(至高)의 경지. 지혜 행. 인간이 진실한 생명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根源的)인 지혜. 육바라밀(六波羅蜜)의 하나. 『반야심경(般若心經)』, ②십바라밀다(十波羅蜜多)의 하나. 반야(般若)로써 사람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어서 해탈(解脫)시키는 뜻, ③초기(初期) 대승불교(大乘佛敎) 시대(時代)에 성립된 경전(經典)의 이름.『이교론(二敎論)』

62) 구경각(究竟覺) : 4각(覺)의 하나. 수행이 끝나서 얻는 구경의 깨달음, 곧 부처되는 자리.

63) 묘(妙) : 불가사의(不可思議)·절대(絶待)·무비(無比)의 뜻. 『법화유의(法華遊意)』에 「묘(妙)는 정미심원(精微深遠)함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대일경소(大日經疏)』 1에 「묘(妙)는 명의상(名義上)으로나 무엇에 비겨도 이를 지나침이 없다」 하였음.

64) 대총상법문(大總相法門) : 진여(眞如)의 실제 진여가 광대하여 모든 것을 포섭한 것을 대(大)라 하고, 일미평등(一味平等)하여 차별의 모양을 여읜 것을 총상(總相), 수행하는 이의 모범이 되는 것을 법(法), 관하는 지혜가 드나드는 것을 문(門)이라 한다.

65) 근경식(根境識) : 근(根)·경(境)·식(識)의 병칭(倂稱). 또는 근진식(根塵識)이라 한다. 발식취경(發識取境)의 용(用)이 있는 것을 근(根)이라 하며 소연(所緣)을 경(境)이라 하고 능연(能緣)을 식(識)이라 한다. 오근(五根)·오경(五境)·오식(五識)을 전십오계(前十五界), 육근(六根)·육경(六境)·육식(六識)을 십팔계(十八界)라 한다. 안식(眼識)은 안근(眼根)을 의지하여 색경(色境)에 인연하며 의식(意識)은 의근(意根)을 의지하여 법경(法境)을 인연한다는 것.(『구사론』·『성실론』)

66) 적멸(寂滅) : 열반의 번역. 생사(生死)하는 인(因)·과(果)를 멸하여 다시 미(迷)한 생사(生死)를 계속하지 않는 적정(寂靜)한 경계.

는度無極[67] 삼명三明과 육통六通[68]이 일어나는 큰 방편大方便[69]이며

시무상주是無上呪며

팔만장경八萬藏經을 처음부터 다 읽고 천칠백 공안公案[70]을 입증立證함보다 수승한 법法이며

시무등등주是無等等呪니

가장 수승最上하여 비길 데無比 없는 총지總持[71]니

능제일체고能除一切苦요

이와 같이 그대로의 뜻을 풀어 수행解義修行함이 견고堅固하면 다라니신통장多羅尼[72]神通藏[73]에 머물러 모든 마魔가 침범하지 못함이요

---

67) 도무극(度無極)[바라밀다(波羅密多)] : 구역(舊譯)은 도무극(度無極). 신역은 도피안(到彼岸)이라 번역. 도(度)는 피안에 이르다. 무극(無極)은 행법(行法)의 제한이 없음을 뜻함.

68) 삼명(三明) : 불타와 아라한이 얻는 3종의 신통. 지혜의 광명을 가지고 어둡고 어리석음을 깨뜨리기 때문에 3명이라 하고, 3달(達)이라고도 한다. ①숙주지증명(宿主智證明) : 자타의 과거세(숙세)의 상을 밝게 아는 지혜, 숙명명(宿命明)이라고도 한다. ②생사지증명(生死智證明) : 미래에 중생의 생사에 대한 상을 밝게 아는 지혜로 천안명(天眼明)이라고도 한다. ③누진지증명(漏盡智證明) : 4제(諦) 이치. 불교의 진리를 밝게 증지(證知)하고 누(漏), 곧 번뇌를 단멸(斷滅)하는 지혜로, 누진명(漏盡明)이라고도 한다.

*삼명육통(三明六通) : 3명(三明)과 6통(六通). 아라한이 갖고 있는 불가사의한 힘. ①신족통(神足通) : 자유로이 원하는 곳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 ②천안통(天眼通) : 미래의 상태를 간파하는 능력. ③천이통(天耳通) :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를 듣는 능력. ④타심통(他心通) : 다른 이의 마음을 간파하는 능력. ⑤숙명통(宿明通) : 자타(自他)의 과거세의 상태를 아는 능력. ⑥누진통(漏盡通) : 번뇌를 제거하는 능력. 이상의 여섯 가지 초인적 능력을 6통이라 하고, 이 가운데 천안(天眼)·숙명(宿明)·누진(漏盡)의 셋을 특히 삼명이라 한다.

69) 대방편(大方便) : 불(佛)·보살(菩薩)의 광대한 수단과 방법. 중생의 근기(根機)에 맞도록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지도하여 구제하는 것.

70) 천 칠백칙(千七百則): 또는 천 칠백 공안(公案). 선가(禪家)에서 불·조사가 교화 제도할 기연(機緣)에 응하여 제기(提起)한 월격(越格)한 말. 그 수가 모두 천 7백. 인연·화두라고도 한다.

71) 총지(總持) : 다라니의 음역. 선을 지켜 잃지 않도록 하고, 악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 제불의 말하는 바를 잘 지켜 잃지 않는 것. 뛰어난 기억(력)·기억술.

72) 다라니(陀羅尼) : 총지(總持)·능지(能持)·능차(能遮)라 번역. 무량무변한 뜻을 지니고 있

진실불허眞實不虛라

일체의 허망한 모양虛妄相을 여읜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의 지혜智慧라.

고故로 설반야바라밀다주說般若波羅蜜多呪일새

그러므로 실상지實相智[74]인 반야般若[75]로서 저 언덕에 이르는 가르침法을 간략히 거듭 말할새

즉설주왈卽說呪曰

반야바라밀다 의 화두話頭[76]요 공안公案[77]이라 이를 더욱

어, 모든 악한 법을 버리고 한량없이 좋은 법을 가지는 것. 보통 다라니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①지혜 혹은 삼매. 이것은 말을 잊지 않고 뜻을 분별하며, 우주의 실상에 계합하여 수많은 법문을 보존하여 가지기 때문이다. ②진언(眞言). 범문(梵文)을 번역하지 않고 음(音) 그대로 적어서 외우는 것. 이를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원문의 전체 뜻에 한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과, 밀어(蜜語)라 하여 다른 이에게 비밀히 하는 뜻이 있다. 이것을 외우는 사람은 한량없는 말을 들어도 잊지 아니하며, 끝없는 이치를 알아 학해(學解)를 돕고 모든 장애를 벗어나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등, 많은 공덕이 있으므로 다라니라 한다. 흔히 범문(梵文)의 짧은 구절을 진언(眞言) 또는 주(呪)라 하고, 긴 구절로 된 것을 다라니 또는 대주(大呪)라 한다.

73) 신통장(神通藏) : 천수다라니경에서 설(說)한 십장(十藏)의 하나.

74) 실상지(實相智) : 여여(如如)의 지(地)에서 여여(如如)의 경(境)을 관(觀)하는 것이 지(智)라는 뜻.

75) 반야(般若) : 반야(班若)・바야(波若)・발야(鉢若)・반라야(般羅若)・발랄야(鉢剌若)・발라지양(鉢羅枳孃)이라고도 쓰며, 혜(慧)・명(明)・지혜(智慧)라 번역. 법의 실다운 이치에 계합한 최상의 지혜. 이 반야를 얻어야만 성불하며, 반야를 얻은 이는 부처님이므로 반야는 모든 부처님의 스승, 또는 어머니라 일컬으며, 또 이는 법의 여실한 이치에 계합한 평등・절대・무념(無念)・무분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대 차별을 관조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 이를 보통 2종・3종・5종 등으로 나눈다.

76) 화두(話頭) : 선종에서 고칙(古則)・공안(公案)등의 1절(節)이나 1칙(則)을 가리켜서 화두라 한다. 종장(宗匠)의 말에서 이루어진, 참선자가 연구하여야 할 문제 또는 어조사.

77) 공안(公案) : 또는 고칙(古則) 화두(話頭). 관공서의 문서, 곧 공정하여 범치 못할 법령이며 그 법령에 의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표준이라는 뜻. 선종의 큰스님네가 심지(心地)를 밝게 깨달은 기연(機緣). 또는 학인을 인도하던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공부하는 규범이 된 것. 선문에서 수양하는 데는 조사스님네의 말과 행동이 모범이 되어서

하여 총괄하면,

아제아제揭帝揭帝 바라아제波羅揭帝 바라승아제波羅僧揭帝
보디사바하菩提娑婆訶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디 사바하」라 하시니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蜜多 주문呪이 그대로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蜜多의 원인因이 되고 결과果가 됨을 깨달아 알지니라了知.

대저 마음을 밝히어明心 성품을 봄見性[78]이요, 성품을 보아見性 도를 깨닫기悟道때문에, 먼저 닦고 뒤에 깨닫는 수행先修後悟은 미혹한 수행迷修이요, 먼저 깨닫고 난 뒤에 닦는先悟後修 수행은 깨달은 수행悟修이니 수행법法에 있어 경을 읽으나講經(또는 經을 講論하나) 주문呪[79]을 외우나 참선參禪하거나 관법觀法[80]을 하거나 그 외의 방법方法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미혹함迷과 깨달음悟의 경계境는 하나一요, 증證이란 몸이 증명身證함이요, 깨달음悟이란 마음이 깨달음心悟일새,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증명함身證心悟을 증오證悟[81]라 말 하니라.

1944년 봄 甲申 春

한가로운 사람閒人 벽산碧山 지음撰

범치 못할 권위를 가졌고, 또한 학인의 깨치고 못 깨치고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세속에 비유하여 공안이라 한다.

78) 견성(見性) : 선가(禪家)에서 견성성불(見性成佛)이란 숙어로 쓰임. 자기의 심성(心性)을 사무쳐 알고 모든 법의 실상인 당체(當體)와 일치하는 정각(正覺)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것.

79) 주(呪) : 다라니를 말한다. 중국에서 쓰던 본래의 뜻으로는 용을 항복받고 귀신을 제어(制御)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나 인도의 다라니와 비슷하므로 같은 뜻으로 쓰게 됨.

80) 관법(觀法) : ①법을 관함, 곧 마음으로 진리를 관념하는 것. 불교에 대한 실천수행을 가리키는 말. 관심(觀心)은 주관인 마음을 관하는 것. 관법은 객관대상을 관하는 것으로 불교관념론 철학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서로 융통하고 상즉(相卽)하므로 관심과 같다. ②관심을 수행하는 방법이란 뜻.

81) 증오(證悟) : 올바른 지혜로써 진리를 증득하여 깨달음.

제2장 보리방편문菩提[82]方便門[83]

이의 보리菩提란 깨달음覺의 뜻으로서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은 본성품을 보아見性, 도를 깨닫는[84]悟道 방편方便(수단)이라. 정定과 혜慧[85]를 가지런히 지니며 마음을 한 경계一境에 머물게 하는 불가사의 한 비결妙訣이니 익숙하도록 읽어서熟讀 뜻을 이해了義한 후 고요한 寂靜 곳에 자리 잡고 한 마디第一節만 써서 단정히 앉아 바로 보이는 벽면에 붙여서 관찰觀하고 생각念하되 한결같이 관찰觀[86]하여 일상삼매一相三昧[87]로 본 성품을 보고見性 한결같이 생각念[88]하여 일

82) (菩提) : 각(覺) 지(智)·지(知)·도(道)라고 번역한다. 불(佛)·연각(緣覺)·성문(聲聞)이 각각 그 과(果)에 따라 얻는 깨달음의 지혜를 말한다. 이 세 가지 보리 가운데 불타의 보리가 더할 나위 없는 최상 최고의 궁극적인 것이므로 이것을 아누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라고 부르며, 번역하여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무상보리(無上菩提)라고 한다. 『지도론(智度論)』 53에는 불타의 보리에 대해서, (1)보살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발심하는 것을 그 마음은 보리의 과(果)에 이르는 인(因)이라는 뜻으로 발심보리(發心菩提), (2)번뇌를 누르고 모든 바라밀을 행하는 것을 복심보리(伏心菩提), (3)제법실상을 깨달은 반야바라밀의 상(相)을 명심보리(明心菩提), (4)반야바라밀에 의한 방편력(方便力)을 얻었지만 반야바라밀에 잡히지 않고 번뇌를 끊어서 일체지(一切智 : 薩婆若)에 이르는 것을 출도보리(出到菩提), (5)불과(佛果)의 각지(覺智)를 무상보리(無上菩提)라고 한다. 이를 합해 5종 보리라 한다.

83) 방편문(方便門) : 참되고 성실한 도(道)를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권도(權道)로 시설한 교문(敎門)을 말함.

84) 견성(見性) : 모든 망념과 미혹을 버리고 자기 본래의 성품인 자성을 깨달아 앎.

85) 정혜(定慧) : 선정(禪定)과 지혜(智慧). 삼학중(三學中)의 이법(二法)임. 어지러운 뜻을 거두는 것이 정(定)이 되고, 사(事)·이(理)를 관조(觀照)하는 것이 혜(慧)가 됨. 또는 지관(止觀)이라 함. 『법화경(法華經)』 서품<序品>에 「불자(佛子)는 정(定)·혜(慧)를 구족(具足)하다」 하였고, 『무량수경(無量壽經)』 상上에 「여래(如來)의 정혜는 구창(究暢)하면 끝이 없다」 하였으며, 『육바라밀경(六波羅蜜多經)』 8에 「불과대보살(佛果大菩薩)은 정혜(定慧)로 근본(根本)을 밝힌다」 하였으며, 『육조단경』에 「사(師)가 대중에게 보여 말하기를 선지식인 나의 이 법문은 정(定)·혜(慧)가 근본이 된다」 하였음.

86) 관(觀) : 비발사나(毘鉢舍那), 비파사나(毘波奢那)라 음역. 지(止) 선정에 들어서 지혜로써 상대되는 경계를 자세히 식별하는 것.

87) 일상삼매(一相三昧) : 선정(禪定)의 이름. 또는 진여삼매(眞如三昧)·일행삼매(一行三昧)라고도 한다. 진여(眞如)의 세계는 평등하여 한결같고 차별이 없는 한 상(相)이라고 관(觀)하는 삼매(三昧). 육조단경(六祖壇經)』에 「진실로 일체처(一切處)에 주착(住着)하지 않는 상(相)을 가져야 한다. 그 상(相) 속에는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고 또한 취(取)하거나 버리는 것도 없으며 이익(利益)되는 거나 성(成)·괴(壞) 등의 일도 생각지 말고 안한(安閒)하고 활정(活靜)해서 텅 비고 잡된 것이 없는 상태를 일상삼매라고 한다」라고 하였음.

88) 염(念) : (1)주관(主觀)인 마음이 객관(客觀)인 대경(對境)을 마음에 분명히 기억하여 두고 잊지 않는 정신 지나간 일을 기억할 뿐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도 행하여져서 마음으로 객관대상을 분명히 할 때 반듯이 존재하는 것. (2)관념(觀念) : 관찰하는 것. 불체(佛體)와 제법(諸法)의 이치 등을 마음에 생각하여 보는 작용. (3)칭념(稱念) : 부처님의 명호 등을 일컫는 것.

행삼매一行三昧[89]로 도를 깨달을悟道지이다.

제1절 아미타불阿彌陀佛[90]

심心은 허공虛空과 등等할새 편운척영片雲隻影이 무無한 광대무변廣大無邊의 허공적虛空的 심계心界를 관觀하면서 청정법신淸淨法身인달하야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염念하고 차此 허공적虛空的 심계心界에 초일월超日月의 금색광명金色光明을 대帶한 무구無垢의 정수淨水가 충만充滿한 해상적海象的 성해性海를 관觀하면서 원만보신圓滿報身인달하야 노사나불盧舍那佛을 염念하고 내內로 염기염멸念起念滅의 무색중생無色衆生과 외外로 일월성수日月星宿 산하대지山河大地 삼라만상森羅萬象[91]의 무정중생無情衆生과 인축내지人畜乃至 준동함

---

89) (一行三昧) : 마음을 일행(一行)에 정(定)하여 닦는 삼매(三昧)를 말함. 또는 진여삼매 혹은 일상삼매라 함.『삼장법수(三藏法數)』4에「일행삼매는 오직 일행으로 수습하는 삼매다」하였음. 이것에 사(事)와 이(理)의 이종이 있다. 이(理)의 일행삼매는 마음을 정하여 진여의 일리(一理)를 관(觀)하는 것.『문수반야경(文殊般若經)』하(下)에「법계의 일상을 법계에 연(緣)으로 묶는 것을 일행삼매라 한다. (중략) 일행삼매에 들어가는 이는 항사(恒沙)의 모든 불법계가 차별상이 없음을 다 안다」하였고,『기신론(起信論)』에「이 삼매에 의하기 때문에 법계일상(法界一相)을 안다. 일체의 제불법신(諸佛法身)과 중생신(衆生身)이 평등무이(平等無二)함을 말하며 곧 일행삼매라 하여 진여가 삼매의 근본임을 알게 된다」하였으며,『육조단경(六祖壇經)』에「만약 일체처(一切處)의 행·주·좌·와에 순일한 직심(直心)으로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곧 정토를 이루는 것을 일행삼매라 한다」하였음. 사(事)의 일행삼매 곧 염불삼매의 다른 이름으로 일심염불(一心念佛)하는 것.『문수반야경(文殊般若經)』하(下)에「선남자와 선여인이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면 허공(虛空) 한(閑)에 응하여 모든 어지러운 마음을 상모(相貌)에 취하지 않고 마음을 일불(一佛)에 묶어 오로지 이름만 칭하여 불(佛)의 방소(方所)를 따라 몸을 단정히 하고 바로 향하여 능히 일불(一佛)을 염념상속(念念相續)하면 곧 이 염(念) 가운데 능히 과거 미래·현재의 제불을 본다」하였음.

90) 아미타불(阿彌陀佛) :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한 분. 아미타파(阿彌陀婆 : 無量光)· 아미타유사(阿彌陀庾斯 : 無量壽)라 음역한다. 이중에서 파(婆)는 광명(光明)의 뜻이며, 유사(庾斯)는 수(壽)의 뜻이다. 또는 무량청정불(無量淸淨佛)·무량(無量)·진시방무애광여래(盡十方無碍光如來)라고도 한다. 아미다(阿彌多)·아미타(阿弭)·아미타(阿弭嚲)라고도 쓰며 서방극락세계의 교주의 이름이다. 이 부처님과 그 곳의 극락정토를 주로 하여『무량수경(無量壽經)』·『관경(觀經)』·『아미타경(阿彌陀經)』에 설하며, 화엄·법화·열반 등의 대승경전 이외에도 2백 수 십부의 경전에 설해지고 있다. 정토 3부경에 있는 이 부처님의 역사는 오랜 옛적 과거세에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의 감화를 받은 법장(法藏)비구가 2백 10억의 많은 국토에서 훌륭한 나라를 택하여 이상국을 건설하기를 기원. 또 48원을 세워 자기와 남들이 함께 성불하기를 소원하면서 장구한 수행을 지나 성불하였으니 이가 아미타불이다. 오랜 옛적에 성불한 아미타불(本佛)에 대하여, 이 부처님을 10겁 전에 성불한 아미타불(迹佛)이라 한다. 밀교에서는 교주 대일여래와 동체로 하고 또 그 별덕(別德)인 묘관찰지(妙觀察智)를 나타낸다고도 말하며, 5불(五佛), 오지여래(五智如來)의 하나로서 서방에 배당되어지며, 금(金)· 태(胎), 양부(兩部) 만다라의 중앙의 한원에 계신다.

91) 삼라만상(森羅萬象) : 우주 간에 존재하는 무수(無數)한 일체(一切)의 것. 상(象)은『역경

령蠢動含靈의 유정중생有情衆生과의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성해무풍性海無風 금파자용金波自涌인 해중구海中漚로 관觀하면서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92]인달하야 석가모니釋迦牟尼佛을 염念하고 다시 피彼 무량무변無量無邊의 청공심계淸空心界와 정만성해淨滿性海와 구상중생漚相衆生을 공空·성性·상相 일여一如의 일합상一合相[93]으로 통관通觀하면서 삼신일불三身一佛[94]인달하야 아阿(化)미彌(報)타陀(法)불佛[95]을 상념常念하고 내외생멸상內外生滅相인 무수중생無數衆生의 무상제행無常[96]諸行을 심수만경전心隨萬境轉[97]인달하야 미타彌陀의 일대행상

(易經)』에 의하면 나타난다는 뜻.

92)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 : 오교(五敎) 불신(佛身)의 하나. 『화엄경(華嚴經)』에서 말하는 시교(始敎)의 부처. 부처님이 대승의 시교(始敎)를 설(說)하실 때에 천백억의 세계에 갖가지 색신(色身)을 나타내어 보살들을 교화(敎化) 이익하게 하고 겸(兼)하여 삼승(三乘)들도 교화(敎化)함을 말한다. 이것은 중생들이 보는 것이 다르므로 천백억 화신이라 함. 곧 보리수 아래서 성도하신 불신(佛身), 곧 팔상성도(八相成道)의 불신(佛身)을 말함.

93) 일합상(一合相) : 이 세계는 미진(微塵)들이 집합하여 된 것이므로 세계를 일합상(一合相)이라고 한다. 『화엄경대소연의(華嚴經大疏演義)』 초(鈔)에 「일합상이라는 것은 많은 인연이 화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미진(微塵)이 합하여 색(色)이 이루어지고 오음(五陰) 등이 합하여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일합상(一合相)이라 한다」 하였음.

94) 삼신즉일불(三身卽一佛) : 불신에 삼신의 공덕과 성능을 갖춘 것.

95) 아미타불(阿彌陀佛) : 아미타(阿彌陀) 3자(三字)는 공가중삼제(空假中三諦)·법보응삼신(法報應三身)임. '阿'자는 본불생(本不生)의 뜻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는 공제(空諦)이며, '彌'자는 나란 뜻이므로 이는 인연을 따라 태어나는 가제(假諦)이며, '陀'자는 여(如)란 뜻으로 이는 중제(中諦)이다. 또 삼신(三身)이라 아(阿)자의 제오전방편구경(第五轉方便究竟)의 뜻을 취하여 응신(應身) 혹은 화신(化身)이 되고, 미(彌)는 보신(報身)이 되며 타(陀)는 법신(法身)이 된다.

96) 무상(無常) : 세간(世間)의 일체법(一切法)은 생멸전변(生滅轉變)하여 잠깐도 상주(常住)함이 없는 것을 무상(無常)이라 한다. 이에 두 가지가 있으니, (1)찰라무상(刹那無常) : 찰라와 찰라 사이에 생주이멸(生住異滅)의 변화가 있는 것. (2)상속무상(相續無常) : 한 동안 상속하는 가운데 생주이멸의 사상(四相)이 있는 것 『열반경(涅槃經)』 1에 몸은 무상하여 생각 생각이 주(住)하지 아니함이 전광(電光)·폭수(瀑水)·환염(幻炎)과 같다 하였고, 『지도론(智度論)』 23에 「일체(一切)의 유의법(有爲法)이 무상함이 새로 또 새로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므로 인연에 속한다」 하였으며, 『육조단경』에 「생사(生死) 일은 크고 무상(無常)은 신속하다」 하였음.

97) 심수만경전(心隨萬境轉) : 마음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변전(變轉)한다는 말.
* 큰스님께서는 이 부분이 보리방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마음의 변전에 따라 창조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법문을 하셨습니다.

一大行相[98]으로 사유관찰思惟觀察할지니라.

보리(진리)를 깨닫는 방편문

마음은 허공과 같을 새, 한 조각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淸淨法身인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생각하고, 이러한 허공 같은 마음세계에 해와 달을 초월한 금색 광명을 띤 한없이 맑은 물이 충만한 바다와 같은 성품바다를 관찰하면서 원만보신圓滿報身인 노사나불盧舍那佛을 생각하며,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형체 없는無色 중생과 밖으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내와 대지 등 삼라만상森羅萬象의 뜻이 없는無情 중생과, 또는 사람과 축생과 꿈틀거리는 뜻이 있는有情 중생 등의 모든 중생들을 금빛 성품바다에 바람 없이 금빛 파도가 스스로 뛰노는 거품으로 관찰하면서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인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생각하고, 다시 저 한량없고 끝없이 맑은 마음세계와 청정하고 충만한 성품바다와 물거품 같은 중생들을 공(空)과 성품(性)과 현상(相)이 본래 다르지 않는 한결같다고 관찰하면서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의 삼신三身이 원래 한 부처인 아미타불을 항시 생각하면서 안팎으로 일어나고 없어지는 모든 현상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덧없는 행동들을 마음이 만 가지로 굴러가는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 모습으로 생각하고 관찰할지니라.

(淸자 華자 청화 큰스님의 번역입니다.)

98) 행상(行相) : 심식(心識)의 각자 고유한 성능(性能)을 행상(行相)이라 함. 심식(心識)은 각자의 성능(性能)으로 경상(境相) 위에 유행(遊行)하여 또한 소대경(所對境)의 상장(相狀)에 행하므로 행상(行相)이라 함.『유식론(唯識論)』2에「마음(識)이 분별하여 아는 것은(了別) 행상(行相) 때문이다」하였음. 심식(心識)이 사물의 경(境)을 대할 때 반드시 그 영상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거울의 물과 같다. 그 마음속의 영상을 가리켜 행상(行相)이라 함.

제2절 인원과만因圓果滿[99]

* 원인이 원만하면 결과가 만족하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間斷 마음을 오로지 다하여專心全力 관찰觀하고 생각念하면 습인習忍(修習安忍[100])이 생기면서 상사각相似覺[101]을 성취成就하는 동시에 명득정明得定[102](밝음을 얻는 정)과 명증정明增定[103](밝음이 증장하는 정)인 성인 수행단계位인 성지性地[104]를 거쳐 인순정印順定[105]에서 비로소 도종인道種[106]忍[107]이 생기며 순수하여 섞임이

---

99) (因圓果滿) : 불도수행을 원만히 완성하여 부처를 이룸.

* 오인(五忍) : 보살의 계단을 5종으로 나눈 것. ①복인(伏忍) : 번뇌를 끊지 못하였으나 관해(觀解)를 익혀 이를 굴복시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지위. 곧 10주(住) 10행(行)·10회향(廻向)의 보살. ②신인(信忍) : 관하는 마음이 진전되어 증득(證得)할 법을 믿고 의심치않는 지위. 곧 초지(初地)·이지(二地)·삼지(三地)의 보살. ③순인(順忍) : 전의 믿음에 의하여 다시 나은(勝) 지혜를 연마하여 무생(無生)의 증과(證果)에 순하는 지위. 곧 4지(地)·5지·6지의 보살. ④무생인(無生忍) : 제법 무생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지위. 곧 7지(地)·8지·9지의 보살. ⑤적멸인(寂滅忍) : 종종의 번뇌를 끊어버리고 청정무위(淸淨無爲) 담연적정(湛然寂靜)에 안주(安住)하는 지위. 곧 10지(地)·등각(等覺)·묘각(妙覺)의 지위.

100) 수습안인(修習安忍) : 수행이 몸에 익어 안심(安心)하고 인내함.

101) 상사각(相似覺)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각(覺)을 설명하되 무명 번뇌를 끊는 작용으로 보아 시각(始覺)의 4위(位)를 나눈 중에 제2각. 참말 각이 아니고 비슷한 각이란 뜻. →사각(四覺).

102) 명득정(明得定) : 4정(四定)의 하나. 4선근위(四善根位) 중 난위(煖位)에서 하품(下品)의 심사관(尋伺觀)을 발하여 취할 바 대상경계가 공무(空無)한 것임을 관하는 선정. 이 정(定)에 의하여 처음으로 무루지혜(無漏智慧)의 전상(前相)을 얻으므로 명득정이라 한다.

103) 명증정(明增定) : 4정(四定)의 하나. 4선근위(四善根位) 중, 정위(頂位)에서 상품의 심사관(尋伺觀)을 발하여 취할 바 대상 경계가 공무(空無)함을 관하는 선정. 이 정에서는 지혜의 밝은 모양이 점점 심하여짐으로 명증정이라 한다.

104) 성지(性地) : 삼승공십지(三乘共十地)의 제2위(第二位). 내범(內凡)의 위(位)인데 장교(藏敎)의 4선근(四善根)에 해당한다.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경지(境地). 성(性)은 종성(種性)이란 뜻. 비슷한 무루지(無漏智)를 얻어 법성(法性)의 이(理)를 조금 발견한 위(位).『사교의주(四敎儀註)』

105) 인순정(印順定) : 유식가(唯識家)에서 가행위(加行位) 4선근(四善根)의 체(體)로 세우는 4정(四定)의 하나. 인위(忍位)에 있어서 열(劣)한 여실지(如實智)를 일으켜 소취(所取)의 경(境)인 명(明)·의(義)·자성(自性)·차별(差別)의 네 가지는 내 마음의 변한 바로서 가유실무(假有實無)한 것이라 인가(印可)하고, 또 능취(能取)의 식(識) 중에 있는 명(明)·의(義)·자성(自性)·차별(差別)도 공무(空無)한 것이라 인가(印可)하는 정(定).

106) 도종지(道種智) : 일체의 도법(道法)을 배워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의 지혜.

107) 인(忍) : (1)인내(忍耐)하는 뜻.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에 대하여 진심(瞋心)을 내지 않음. 또 안인(安忍)의 뜻, 도리에 안주(安住)하여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 (2)선근(善根)의 하나.

.* 인위(忍位) : 4선근(四善根)의 하나. (1)소승의 제3위. 번뇌 중의 지혜로 다시 나아가 4제(四諦)의 도리를 분명하게 승인하고, 요해(了解)하는 자리. 이 자리에 하·중·상의 3품(品)이 있다. 하품·중품

, 한마음뿐인一心支 무간정無間定[108]에 들어가며 마음이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明鏡止水[109]과 같은지라.
오직 힘써 수행한 가행공덕加行[110]功德으로써 짐작으로 관찰하는假觀的 일상삼매一相三昧에서 성품을 보는見性的 실상삼매實相三昧[111]로, 생각으로 닦는念修的 일행삼매一行三昧에서 도를 증득하는證道的 보현삼매普賢三昧[112]로, 이와 같은 관찰과 생각에서觀念 실증實證[113]으로 사유思惟하여 닦아 얻나니, 이렇게 되어야 몸으로 증명身證하고 마음을 깨달음心悟으로써 바른 깨달음正覺의 첫 걸음인 신인信忍[114]을 성취하고 순인順忍[115]으로써 금강유정金剛喩定[116]에 머물러서 수행자의 원력願力에 따라 수분각隨分覺[117]으로써 무생인無生忍[118]을 거쳐 적멸

정위(頂位)와 같이 4제의 도리를 구족하게 관하여, 욕계의 4제와 색계 무색계의 4제에 관하여 각각 16행상(行相)이 있다. 곧 상·하 8제 32행상을 닦음. 그러나 중품위(品位)에서는 점차로 그 행상을 감하여 상품위로 나아가는 것. 그러나 상품은 세제일위에 인접하였으므로 욕계의 고제(苦諦)만을 관한다. (2)대승에서는 제10회향의 만심(滿心)에서 4선근을 세우는데 4정(四定)인 명득정(明得定)·명증정(明增定)·인순정(印順定)·무간정(無間定) 중의 인순정에 의하여 여실지관(如實智觀)을 일으키고, 하인위(下忍位)에서는 소취(所取)의 경계가 공무(空無)한 줄을 확실히 승인하고, 중인위(中忍位)에서는 능취(能取)의 식(識)도 공무한 줄로 관하며, 상인위에서는 중인위에서 관하던 능취의 식이 공무한 것을 확실히 승인하고서 다음의 무간정(無間定)에 들어간다.

108) 무간정(無間定) : 4정(四定)의 하나. 4선근위(四善根位) 중, 세제일위(世第一位)에서 상품의 상여실지(上如實智)를 발하여 쌍으로 소취(所取)·능취(能取)가 공무(空無)한 것을 인가하는 것. 이로부터 바로 견도(見道)에 들어가 진리를 비춰 봄으로 무간정이라 한다.

109) 명경지수(明鏡止水) : 잡념과 가식과 헛된 욕심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

110) 가행(加行) : 방편(方便)·방편도(方便道) 정위(定位)에 들어가기 전에 한층 힘을 더 가(加)해 수행하는 것.

111) 실상삼매(實相三昧) : 공(空)·무상(無相)·무작(無作) 세 가지 삼매를 행하는 것을 말함.

112) 보현삼매(普賢三昧) : (1)보현보살을 본존으로 하고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이치를 관하여 죄장罪障을 참회하는 삼매. 이 삼매를 이루면 흰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이 도량에 나타난다고 한다. (2)몸·입·뜻의 3밀(密)이 부처님의 3밀과 상응하면 즉시에 보현보살의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함. (3)보현·문수 두 보살은 한 쌍의 법문으로 보현은 온갖 삼매를 주로하고, 문수는 온갖 반야를 주로하여 부처님의 교화를 도우므로 문수반야에 대하여 보현삼매라 한다.

113) 실증(實證) : 실제로 수행해서 깨닫는 것.

114) 신인(信忍) : (1)3인(忍)의 하나. 아미타불을 염(念)하여 구원함을 믿어 의심치 않음. (2)5인의 하나. 무루의 진지(眞智)가 일어나는 동시에 3보(寶)를 믿는 마음이 일어남.

115) 순인(順忍) : 지혜로 온갖 법을 생각하고 관찰하여 진리에 수순(隨順)함.

116) 금강유정(金剛喩定) : 또는 금강정(金剛定)·금강삼매(金剛三昧)·금강심(金剛心)·정삼매(頂三昧). 금강이 견고하여 다른 것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모든 번뇌를 끊어 없애는 선정을 말한다. 이 정(定)은 성문·보살들이 수행을 마치고 맨 마지막 번뇌를 끊을 때에 드는 것.

117) 수분각(隨分覺) : 4각의 하나. 보살은 초지(初地)에 이르면 처음으로 진여의 실성(實性)에 접촉하여

인寂滅忍[119]인 구경각究竟覺[120]에 도달하는 것이 본각의 경지本覺境地[121]인 열반涅槃언덕에 이르는 빠른 길이니, 정진하는 대중은勤策衆[122] 이와 같이 관찰觀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果를 증득證得할지니라.

제3절 삼신요별 三身了別[123]

법신法身이란 청정한 마음自性淸淨心[124]이 체대體大[125](본체)요 진眞(있는 그대로)이며, 보신報身이란 원융圓融[126]하여 거리낌 없는 지혜無碍智

(理)와 지(智)가 명합(冥合)한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증득하고, 법신의 이체(理體)에 일분증입(一分證入)하며, 2지(地) 3지(地) 등은 차례로 그 지위에 응하여 진여의 이치를 증득하여 드디어 제10지(地)의 맨 끝 위(位)에 이르러 전분(全分)의 진여를 증득하게 된다. 이 10지(地)의 사이에서 분별추념(麤念)의 모양을 여의어 각 지(地)마다 조금씩 진여의 진상을 증현(證顯)함을 말함.

118) 무생법인(無生法忍) : (1)불생불멸하는 진여법성을 인지(忍知)하고, 거기에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 보살이 초지(初地)나 7·8·9지에서 얻는 깨달음. (2)희인(喜忍)·오인(悟忍)·신인(信忍)이라고 이름 하는 위(位).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로 결정된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은 생즉무생(生卽無生)의 왕생을 인득(忍得)한 것이므로 이같이 이름. 이 자리는 10신위(十信位) 중에 있다.

119) 적멸인(寂滅忍) : 종종의 번뇌를 끊어 버리고 청정무위(淸淨無爲) 담연적정(湛然寂靜)에 안주(安住)하는 지위. 곧 10지(十地) 등각(等覺) 묘각(妙覺)의 지위.

120) 구경각(究竟覺) : 4각의 하나. 수행이 끝나서 얻은 구경의 깨달음. 곧 부처가 되는 자리.

121) 본각(本覺) : ↔시각(始覺). 근본 각체(覺體). 온갖 유정(有情)·무정에 통한 자성의 본체로서 갖추어 있는 여래장 진여(如來藏眞如). 곧 우주 법계의 근본 본체인 진여의 이체(理體).

122) 근책(勤策) : 사미(沙彌). 넓게는 비구 전체를 말함.

123) 요별(了別) : 인식(認識). 구별하여 아는 것. 대상을 각각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

124)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 : (1)본래 있는 나의 마음. 자성은 청정하여 일체망염(一切妄染)을 여의었기 때문에 자성청정심이라 함. (2)여래장심(如來藏心). 진심(眞心)이라 하며, 곧 사람의 보리심임. 『기신론의기(起信論義記)』 중본(中本)에 「자성청정심을 여래장이라 한다」 하였고, 『대일경소(大日經疏)』 1에 「본불생제자(本不生際者)가 곧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며 자성청정심이 곧 아지문(阿字門)이다」 하였음.

125) 삼대(三大) : 체대(體大)·상대(相大)·용대(用大). 한 물건의 본체와 속성(屬性)과 작용이 절대(絶大)인 뜻. 『기신론(起信論)』의 삼대(三大)는 다음과 같다. ①체대(體大) : 진여가 절대 평등한 본체로서 일체 모든 법을 그 중에 섭진(攝盡)하는 불변 상주의 실체(實體). ②상대(相大) : 진여가 현상 위에 실현하여 만유의 활동을 일으키는 성능 공덕을 그 자신에 갖춘 것. ③용대(用大) : 성능 공덕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 비유를 들면, 금으로 만든 사자에서 금은 체(體), 금이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성능이 있는 것은 상(相), 사자가 되는 것은 용(用)이다.

126) 원융(圓融) : 원(圓)은 모자람이 없이 원만한 뜻. 융(融)은 융통·융화의 뜻. 차별상을 인정하지 않고, 무애無碍한 것. 불교에서 사사물물(事事物物)의 차별적 현상의 실재(實在)를 인식하는 것과, 사물의 본성에 소급(遡及)하여 평등상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평등상을 주장. 사(事)는 이치[理]에서 생긴 것이므로, 이치[理]를 여의고 사(事)가 없어

인 상대相大(속성)요 여如며, 화신化身이란 인연을 따르되 변함없는 마음隨緣不變識[127]이 용대用大(작용)요 여여如如(그대로 진실한 모습)니, 첫째는 청정한 마음淨識이오, 두 번째는 물든 마음染識으로서 물든 마음染識이란 인연을 따르는 진여隨緣眞如[128]요, 깨끗한 마음淨識이란 변하지 않는 진여不變眞如[129]라.

두 이름을 가진 하나의 진여一眞如[130]가 인연 따라 진여如[131]를 물들이되 진여如가 깨끗하여 변하지 아니하여, 물들은 진여如染와 청정한 진여淨如인 여여상如如[132]相의 진여성품如性이 곧 진공眞空[133]인지라, 하나도 아니요非一, 둘도 아니요非二[134], 또한 셋도 아니非三나

한결같이 평등하여 이(理)와 사(事)가 걸림이 없다. 평등계에서 나타난 차별적 현상계의 사물도 서로서로 무애 원융하다고 말하는 것이『화엄경(華嚴經)』과 같음.

127) (隨緣不變) : ↔불변수연(不變隨緣).. 연(緣)을 따라 일(事)을 일으키는 동작이 있는 불변(不變)의 것이란 뜻으로 진여를 가리킴. 진여는 그 자체가 변치 않는 것이지만, 외연(外緣)을 만나면 만유를 내므로 이렇게 이름. →수연진여(隨緣眞如).

128) 수연진여(隨緣眞如) : ↔불변진여(不變眞如). 진여 곧 우주의 본체는 불변 부동하는 것이나 마치 물이 외연(外緣)인 바람에 의하여 물결이 일어남과 같이 외부의 무명인 연에 응하여 삼라만상을 내고, 또 물결이 물의 성질을 잃지 아니함과 같이 삼라만상의 사상(事相)은 마침내 불변하는 진여의 성이 변한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만법이 곧 진여요, 진여가 곧 만법인 것. 이 외연에 의하여 만법을 내는 부문에서 진여를 수연이라 함.

129) 불변진여(不變眞如) : ↔수연진여(隨緣眞如). 일체 평등하고 불생불멸하여 변함이 없는 진여.

130) 일진여(一眞如) : 일진법계(一眞法界)는 차별이 없음을 말함.『기신론(起信論)』에서 이른바「참으로 미분의 일심을 생한다.」함이 바로 이것임.

131) 여(如) : (1)시간・공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은 자체. 제법(諸法)의 본체(本體). 이체(理體).이성(理性).진여(眞如) 등을 말하는 경우 (2)현상 그대로의 모양. 본래 있는 자연 그대로 그렇다(法爾如然)는 것을 말하는 경우. (3)평등하여 차별이 없다는 뜻. 일여(一如)・여동(如同)이라 말하는 경우

132) 여여(如如) :『능가경(楞伽經)』에서 설(說)한 오법(五法)의 하나. 법성(法性)의 이체(理體)가 불이(不二) 평등하므로 여(如)라 하고 이것과 저것의 제법(諸法)이 모두 여(如)하므로 여여(如如)라 하며 이는 정지(正智)에 계합하는 이체(理體)를 말하는 것.『지도론(智度論)』에「사람이 등(等)한 세계이므로 유(有)라 하고 제일의(第一義)로 무(無)라 한다. 여여법성(如如法性)은 실제세계(實際世界)이므로 무(無)라하고 제일의(第一義)이므로 유有라 한다」하였고,『대승의장(大乘義章)』3에「여여(如如)라 말하는 것은 앞의 정지(正智)에 매인 것이기 때문이다. 제법(諸法)의 체(體)가 같으므로 여(如)라 하고 일여一如)한 중체(中體)가 법계(法界)의 항사불법(恒沙佛法)을 구비하고 법을 따라 변여(辨如)하므로 여(如)의 뜻은 하나가 아니다. 피(彼)와 차(此)가 모두 여(如)하므로 여여(如如)라 함.

133) 진공(眞空) : (1)소승의 열반. 거짓이 아니므로 진, 상(相)을 여의었으므로 공. 아무것도 없는 편진단공(偏眞單空). (2)진여의 이성(理性)은 일체 미(迷)한 생각으로 보는 상(相)을 여의었으므로 진공. (3)유(有) 아닌 유를 묘유(妙有)라 함에 대하여 공 아닌 공을 진공이라 하니, 대승지극(大乘至極)의 진공.

진眞(法)·여如(報)가 삼계육도三界六途[135](化)에서 인연 따라 다르게 성숙하기에隨緣異熟 이름이 염식수용染識受用(번뇌에 물든 마음을 가지는)의 범부凡夫요 중생衆生이며, 인연 따라 다르게 성숙하되隨緣異熟 참 성품은 변하지 아니眞性不變할새 이름이 정식수용淨識[136]受用(청정한 마음을 가지는)의 성인聖人이요 부처佛이니, 인연을 따르는 끝隨緣邊은 물듦染[137]이고 변하지 않는 끝不變邊은 청정함淨으로서 청정함과 물듦을 가진 여여淨染如如의 여여상如如相(진여의 모습)이 화신化身이요, 청정한 진여淨如와 물들은 진여染如의 한결같은 성품一如性이 보신報身이며, 성품의 모습性相[138]이 본래 공本空[139]한 경지境地가 법신法身이라.

법신 끝法身邊은 허공虛空과 같고 보신 끝報身邊은 가득한 바다滿海와 같고 화신 끝化身邊은 바다 가운데 거품海中漚과 같으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은 공空도 아니요, 있는 것有도 아니요, 참 부처眞佛[140]는 또한 삼신三身도 아니니 수행자修者는 진실한 뜻을 이해하여 깨닫고了解 말과 글은 버릴지어다.

---

134) 비이(非二) : (1)어느 것도 아닌 것. (2)유위(有爲)와 무위(無爲)의 어느 쪽도 아닌 것.

135) (三界六道) : 삼계(三界)는 생사유전(生死流轉)이 쉴 새 없는 미계(迷界)를 셋으로 분류한 것. 욕계 색계·무색계. ①욕계(欲界) : 욕은 탐욕이니, 특히 식욕·음욕·수면욕(睡眠欲)이 치성한 세계. ②색계(色界) : 욕계와 같은 탐욕은 없으나, 미묘(微妙)한 형체가 있는 세계. ③무색계(無色界) : 색계와 같은 미묘한 몸도 없고 순 정신적 존재의 세계. 이 3계를 6도(道)·25유(有)·9지(地)로 나누기도 함. 육도(六道) : 중생이 업인(業因)에 따라 윤회하는 길을 여섯으로 나눈 것. 지옥도·아귀도·축생도·아수라도·인간도·천상도.

136) 정식(淨識) : (1)무루(無漏)의 식(識). (2)청정한 아마라식을 말함. (3)청정한 근본식(根本識).

137) 염(染) : (1)불순(不純)한 것. 번뇌(煩惱) 오염심(汚染心). 더럽혀진 마음. (2)마음이 유혹되는 것. 사로잡힘. (3)사로잡히는 것. 집착. 염착(染着)의 뜻. (4)탐내는 것. 탐냄.

138) 성상(性相) : 성(性)이라 함은 불변(不變), 평등·절대, 진실의 본체(本體)나 도리(道理) 또 사물(事物) 그 자체(自體), 상(相)이라 함은 변화(變化), 차별(差別), 상대(相對)의 현상적인 모습. 상장(相狀).

139) 본공(本空) : 모든 법이 본래 성품이 공함. 제법본래성공(諸法本來性空)을 말함. 『무량수경(無量壽經)』 하(下)에 「정혜지(淨慧知) 본공(本空)이라.」 함.

140) 진불(眞佛) : 보신불(報身佛)에 대하여 화신불(化身佛)을 진불(眞佛)이라 함. 또한 무상(無相)한 법신을 말하는 것. 『무량수경(無量壽經)』에 「광명상(光明相)이 좋으면 진불(眞佛)과 같이 구족하다」 하였고, 『임제록(臨濟錄)』에 「진불(眞佛)은 형(形)이 없고 진법(眞法)은 상(相)이 없다」 하였음.

제4절 오지여래 五智如來[141]

비로자나毘盧遮那[142]를 광명변조光明徧照, 노사나盧舍那를 정만淨滿, 그리고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능인적묵각能仁寂默覺이라고 번역譯하니, 부처님能仁 같은 좋은 마음良心을 가지고 고요한 곳에서 몸身과 입口과 생각意 이 세 가지를 거둔三緘 후 청정하고 가득한淨滿 성품의 바

---

141) 오지여래(五智如來) : 밀교(密敎)에서 오지(五智)에 오불(五佛)을 배치하여 [오지여래(五智如來라)] 한다. 금강계오불(金剛界五佛)이 이것이다. ①대일여래(大日如來) :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가 되는 것. ②아촉여래(阿閦如來) : 대원경지(大圓鏡智)가 되는 것. ③보생여래(寶生如來) : 평등성지(平等性智)가 되는 것. ④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 : 묘관찰지(妙觀察智)가 되는 것. ⑤불공성취여래(不空成就如來) : 성소작지(成所作智)가 되는 것. 오지(五智) :『보리심론(菩提心論)』에 동방아촉불(東方阿閦佛)은 대원경지(大圓鏡智)로 인하여 성취하며 또한 금강지(金剛智)라 하고, 남방보생불(南方寶生佛)은 평등성지(平等性智)를 따라서 성취하며 또한 관정지(灌頂智)라 하고, 서방아미타불(西方阿彌陀佛)은 묘관찰지(妙觀察智) 따라 성취하며 연화지(蓮華智)라 하고 또한 전법륜지(轉法輪智)라 하고, 북방불공성지불(北方不空成智佛)은 성소작지(成所作智)를 따라서 성취하며 또한 갈마지(羯磨智)라 하고. 중방中方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은 법계지(法界智)를 따라서 성취한다 하였음.

* 마음의 본성을 다섯 가지 서로 다른 힘 또는 지혜를 가진 거울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의 무사(無私)함과 광대함은 <모든 것을 에워싸는 공간과 같은 지혜>, 즉 자비가 생겨나는 근원이다. 그 앞에 있는 무엇이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비출 수 있는 능력은 <거울 같은 지혜>이다. 어떠한 느낌에도 치우침이 없는 것은 <평등하게 하는 지혜>이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혼동하지 않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분별의 지혜>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미 이루었으며 완벽한 잠재력과 자발적으로 현현하는 능력은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이다.

142) 비로자나(毘盧遮那) : 비로사나(毘盧舍那)・비로절나(毘盧折那)・폐로자나(吠 遮那)・노사나(盧舍那)・자나(遮那)라고도 쓰며, 변일체처(遍一切處)・광명변조(光明遍照)라 번역. 변조(遍照)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진신(眞身)을 존칭(尊稱)하는 말.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제가(諸家)가 각각 다름. 천태(天台)에서는 비로사나(毘盧舍那)와 노사나(盧舍那)와 석가(釋迦)를 차례로 법(法)・보(報)・응(應) 삼신(三身)에 배(配)한다. 비로사나는 번역하여 변일체처(徧一切處), 노사나는 번역하여 정만(淨滿)이라 함.『법화문구회본(法華文句會本)』25에「법신여래의 이름은 비로(毘盧). 이를 번역하여 변일체처(徧一切處)라 함. 보신여래의 이름은 노사나(盧遮那) 번역하여 정만(淨滿). 응신여래의 이름은 석가(釋迦)다」하였고,『법화현의(法華玄義)』6에「경(境)의 묘(妙)를 구경(究竟)하여 현(顯)함을 비로자나(毘盧遮那)라 하고 지(智)의 묘(妙)를 구경(究竟)하여 노사나(盧舍那)라 하며 행(行)의 묘(妙)를 구경(究竟)하여 채움을 석가모니라」함. 구경(舊經 : 진역晋譯)에는 노사나(盧舍那)라 하고 신경(新經 : 당역唐譯)에는 비로자나(毘盧遮那)라 말하였다. 밀교에서는 비로사나불을 이(理)와 지(智)의 불이不二인 법신불의 칭호가 된다 하며 번역하여 대일(大日) 혹은 변조(遍照)혹은 최고현광안장(最高顯廣眼藏)이라 한다.『대일경소(大日經疏)』1에「범음(梵音) 비로자나는 일(日)의 별명(別名)이다. 곧 어둠을 제거하고 두루 밝힌다는 뜻이다」하였고, 동(同)『대일경소(大日經疏)』16에「비로자나는 세간(世間)의 해와 같아 일체의 만물을 생장시키며 일체중생의 사업(事業)을 성취시킨다. 법신여래도 이와 같으므로 비유한 것이다」하였음.

다性海를 증득하여見證 마지막 깨달음究竟覺을 성취함일새, 자신自身이 곧 큰 빛大日[143]이라. 마음이 허공虛空과 같아서 그 본체의 성품體性은 장애도 없고無障 거리낌도 없으므로無碍 첫 번째 지혜의 이름을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144]라 이르고 그 거리낌 없는無碍 광명光明이 해日와 같이 두루 비추므로 부처님 명호를 대일여래大日如來[145] 곧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라 이르는 바 사바세계의 태양器界日은 한 작은 세계를 밝게 비추되照明 거리낌 있고有障 장애도 있으나有碍 마음의 해心界日는 삼천대천세계大天沙界를 두루 비추되 거리낌도 없고無障 장애도 없어서無碍 대일大日이라 이르며, 마음心이 허공虛空과 같되 다만 공但空[146]이 아니요, 바람 성품風性的의 한 기운一氣이 평등하고 원만함等量平滿으로 두 번째 지혜의 이름을 평등성지平等性智[147]라 이르고 부처님 명호를 *불공여래不空如來라 이르며,(**?**. 사전에는 **보생여래寶生如來[148]**)

---

143) (大日) : 진언종의 본존. 마하비로자나(摩訶毘盧遮那)라 음역. 마하는 대(大), 비로자나는 일(日)의 별명이므로 대일이라 한다. 예전부터 학자들이 마하비로자나를 대일이라 번역한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1)제암변명(除暗遍明). (2)능성중무(能成衆務). (3) 광무생멸(光無生滅)의 뜻. 이것은 태양이 가진 세 가지 큰 속성을 나타낸 것이나 지금 이 여래의 덕성이 태양과 조금 비슷하므로 여기에 대(大)자를 더하여 대일이라 한다.

144)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 : 5지(智)의 하나. 만유제법의 체성인 지체(智體). 제9식(識)을 굴려 얻은 지혜로서 6대(大) 가운데 공대(空大)에 해당하며, 5불(佛)에 배대하면 중앙의 대일여래(大日如來)를 말함.

145) 대일여래(大日如來) : 마하비로자나(摩訶毘盧遮那)의 번역된 말. 밀교의 본존(本尊). 마하(摩訶)는 크다(大)는 뜻. 비로자나(毘盧遮那)는 일(日)의 별명(別名). 그러므로 번역하여 대일(大日)이라 한다. 또한 비로자나는 광명변조(光明遍照)의 뜻으로 변조여래(遍照如來)라 함. 『대일경소(大日經疏)』 1에 의하면 허공의 태양은 별(別)과 방(方)으로 나뉜다. 만일 빛이 밖에 비치면 안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밝음은 한쪽 변(邊)만 도달하고 다른 한 면(面)은 갈 수가 없으므로 음(陰)과 양(陽)이 생긴다. 또한 빛이란 낮에만 있고, 밤에는 비추지 않으나 여래(如來)의 지혜 일광(日光)은 그렇지 않고 두루 일체처를 크게 조명하여 내외(內外)·방소(方所)·주야(晝夜)의 구별이 없다. 「세간(世間의 해는 말할 것이 없으나 다만 조금은 서로 같으므로 마하비로자나란 대명(大名)을 붙인다」 하였음.

146) 단공(但空) : 대소승(大小乘)에서 보는 공리(空理)에 두 가지가 있는데 소승에서는 제법(諸法)이 다만 공(空)한 것만 보고 불공(不空)의 이치는 보지 못하므로 단공(但空)이라 함. ↔부단공(不但空).

147) 평등성지(平等性智) : 5지(智)의 하나. 제7식을 전(轉)하여 얻은 무루의 지혜니, 통달위(通達位)에서 그 일분을 증득하고, 불과(佛果)에 이르러 그 전분(全分)을 증득한다. 일체 모든 법과 자기나 다른 유정들을 반연하여 평등 일여(一如)한 이성(理性)을 관하고 너라 나라 하는 차별심을 여의어 대자대비심을 일으키며, 중생을 위하여 가지가지로 교화하여 이익케 하는 지혜.

148) 보생불(寶生佛) : 라달낭삼바박(囉怛囊三婆縛)이라 음역. 금강계 만다라 8엽련대(葉蓮臺)의 남방월륜(南方月輪) 중앙 위치에 있는 부처님. 대일여래의 평등성지(平等性智)에서 유출(流出)하여 금강보·

한 기운의 평등하고 원만한一氣平滿 허공과 같은等虛空 마음의 세계心界에 불의 성품火性的인 지혜의 빛智光과 지혜의 불꽃慧焰이 평등하여 원만히 빛나고等量炯滿 어둡고 밝음이 없되 능히 일어나고 소멸起滅함을 보이는 사바세계沙界의 차별된 모습差別相을 통하여 진여眞如가 인연을 따르되 변치 않는 성품隨緣不變性을 관찰觀察할새 세 번째 지혜의 이름을 묘관찰지妙觀察智[149]라 이르고 부처님 명호를 미타여래彌陀如來라 이르며, 갓도 없는 한량없는無邊無量 허공과 같은等虛空的 마음의 세계心界에 해와 달을 초월하는超日月 금색광명金色光明을 두른帶 물의 성품水性的과 물 같은 마음識水이 청정하고 가득함淨滿으로 네 번째 지혜 이름을 대원경지大圓鏡智[150]라 이르고 부처님 명호를 아촉여래阿閦如來[151]라 이르며,

저 청정한 빛淨光의 땅 성품地性的과 같은 금색金色을 우두머리主로 네 가지 보석 색四寶色을 둘렀으니帶 고요한 본체寂體에는 바람 성품과 같은風性的 검은 금색黑金色과 불 성품과 같은火性的 붉은 금색赤金色과 물 성품과 같은水性的 흰 금색白金色 과 땅 성품과 같은地性的 누런 금색黃金色이 순수하게 섞여서純一混和 자마금색紫磨金色[152]의 한 줄기 광명一道光明이 항상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그 쓰고 비춤照用에

·금강소의 4보상을 거느리고 일체 재물과 보배를 맡는 부처님이라 함.

149) 묘관찰지(妙觀察智) : 4지(智)의 하나. 제 6식을 바꾸어 얻은 지혜. 묘(妙)는 불가사의한 힘의 자재를 말함. 관찰은 모든 법을 살피는 것. 모든 법을 관찰하여 정통하고,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불가사의 자재한 힘을 나타내며, 공교하게 법을 설하여 여러 가지 의심을 끊게 하는 지혜. 5불(佛) 중에서는 아미타불에 해당.

150) 대원경지(大圓鏡智) : 4지(智)의 하나. 유루(有漏)의 제 8식을 정화하여 얻는 무루(無漏)의 지혜. 이것은 거울에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추어 모자람이 없는 것과 같이, 원만하고 분명한 지혜이므로 대원경지라 한다. 불과(佛果)에서 처음으로 얻는 지혜.

151) 아촉(阿) : 부처님 이름. 아촉비(阿閦鞞)·아촉파(阿閦婆)·아추비야(阿芻鞞耶)·악걸추비야(噁乞芻毘也)라 음역. 부동(不動)·무동(無動)·무노불(無怒佛)이라 번역. 옛적에 이 세계에서 동방으로 1천 불국을 지나 아비라데국이 있고, 대일여래(大日如來)가 주불(主佛)이 되었다. 아촉은 그 부처님께서 무진에(無瞋恚)의 원을 발하고 수행을 완성하여 아비라데국에서 현재 설법하는 부처님. 아촉의 국토를 선쾌(善快) 환희(歡喜)·묘락(妙樂)이라 함은 아비라데 Abhirata의 번역. 밀교에서는 금강계 만다라 8엽 연대의 동방월륜의 주존(主尊).

152) 자마금색(紫磨金色) : 보라색(紫色)을 띤 황금색(金色). 부처님의 몸에 대하여 말한 것.

네 가지 보배 색四寶色 광명光明이 각각 그 성능性能의 한없는 공덕功德을 발휘發揮하여 밝은 빛을 서로 통하고 주고받을交徹炳煥 새,

한낮 빛正午當陽의 마니보주摩尼寶珠[153]가 휘황찬란輝煌燦爛하여 수 없는 보배의 빛無數寶光이 한없는 붉은 빛無邊爀曜과 같으므로 다섯 번째 지혜 이름을 성소작지成所作智[154]라 이르고 부처님 이름을 *보생여래寶生如來라 이르니,(**?**. 사전에는 **불공여래不空如來**[155])

첫 번째 지혜는 법신法身의 근본 지혜總智이요, 기타는 나눈 지혜라別智.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세 지혜는 보신報身의 능지能智[156](주체)요, 다섯 번째 지혜는 화신化身의 소지所智(대상)인 바 달리 이름하여 오지여래五智如來라 이르고 전체를 묶어서 아미타불阿彌陀佛이라 이르니 모든 부처님 가운데 우두머리요首班, 미타彌陀의 묘관찰지인妙觀察智印인 △인印[157]이 일체여래지인一切如來智印[158]의 원형原

153) (摩尼) : 또는 말니(末尼). 번역하여 주(珠)·보(寶)·무구(無垢)·여의(如意)·보주(寶珠) 혹은 여의주(如意珠)를 말한다. 이 구슬은 용왕의 뇌 속에서 나온 것이라 하며, 사람이 이 구슬을 가지면 독이 해칠 수 없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공덕이 있다고 한다. 혹은 제석천왕이 가진 금강저. 아수라와 싸울 때에 부서져서 남섬부주에 떨어진 것이 변하여 이 구슬이 되었다고도 한다. 또는 지나간 세상의 모든 부처님의 사리가 불법이 멸할 때에 모두 변하여 이 구슬이 되어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154) 성소작지(成所作智) : 4지(智)의 하나. 불과(佛果)에 이르러 유루(有漏)의 전오식(前五識)과 그 상응심품(相應心品)을 전사(轉捨)하고 얻은 지혜. 10지 이전의 보살·2승·범부 등을 이락(利樂)케 하기 위하여 시방(十方)에서 3업으로 여러 가지 변화하는 일을 보여 각기 이락을 얻게 하는 지혜.

155) 불공성취(不空成就) : 금강계(金剛界) 5불의 하나. 아목카실지(阿目佉悉地)라 음역. 금강계 만다라 북방월륜(北方月輪)의 주존(主尊). 이 부처님은 성소작지(成所作智)로 이룬 것으로 자리(自利)·이타(利他)의 행을 성취하므로 불공성취라 이름한다.

156) 능(能)·소(所) : 능(能)은 능동으로 동작하는 것. 소(所)는 수동으로 동작을 받는 것.

157) 인(印) : 우단나(優檀那)·모다라(母陀羅)의 음역. 표장(標章)이란 뜻. (1)인계(印契)·인상(印相). 부처님네의 자내증(自內證)의 덕을 표시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으로 가지가지 모양을 만드는 표상. 다섯 손가락을 소지(小指)로부터 차례로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에 배당. 왼손을 정(定). 오른손을 혜(慧)라 한다. (2)불·보살네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구. 삼매야형(三昧耶形)이라고도 함. 도검(刀劍)·윤(輪)·색(索)·저(杵) 등. (3)교의(敎義)의 규범(規範) 또는 표장(標章).

* 금강계(金剛界) : 태장계(胎藏界)의 밀교에서는 우주의 모든 것이 대일여래의 나타남이라고 했으며 그 지덕(智德)을 나타내는 쪽을 금강계(金剛界), 이성(理性 : 본래 가지고 있는 영원한 깨달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쪽을 태장계(胎藏界)라 했다. 곧 지혜(智慧)가 완벽하여 모든 번뇌를 쳐부술 수 있는 것을 금강에 비유하여 지(智)·과(果)·시각(始覺)·자증(自證)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금강계(金剛界)이고, 이성(理性)이 모든 것에 내재(內在)하여 대비(大悲)의 힘으로 잘 지켜져서 잘 자라게 되어 마치 태아가 모태(母胎) 안에서 자람과 같고 연꽃 씨가 꽃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데

型이니 아자阿字는 무無의 뜻으로 화신化身, 미자彌字는 만滿의 뜻으로서 보신報身, 타자陀字는 법法의 뜻으로서 법신法身을 의미하며 본래 세 가지 몸을 갖춘本具三身 아미타불阿彌陀佛에 합하며總該 법계 본체의 성품法界體性인 하나의 법신一法身[159]에 평등한 성품平等性으로 불가사의함을 관찰妙觀察[160]하는 크고 둥근 거울 같은大圓鏡的 능지보신

이(理)・인(因)・본각(本覺)・화타(化他) 등의 뜻을 나타낸 것이 태장계(胎藏界)이다. 금강계(金剛界)를 오지(五智)에 해당시켜 불(佛)・금강(金剛)・보(寶)・연화(蓮華)・갈마(羯磨)의 오부(五部)로 나눈다. 태장계(胎藏界)를 다른 이를 가르쳐 인도하는 삼덕三德(대정大定・대비大悲・대지大智)에 해당시켜 불(佛)・연화(蓮華)・금강(金剛)의 삼부(三部)로 나눈다. 또『금강정경(金剛頂經)』의 설(說)에 입각하여 금강계(金剛界)를 도시(圖示)한 것을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대일경설(大日經說)에 입각하여 태장계를 도시(圖示한 것을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라 한다. 이 양계(兩界)는 진언양부(眞言兩部)・금태양부(金胎兩部)라 하여 밀교(密敎)의 근본적인 양면(兩面)인데 이것을 대립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양부상대(兩部相對), 일체(一體)로 보는 것을 양부불이(兩部不二)라 한다. 또 동밀(東密)에서는 양부(兩部)가 서로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불이(不二)의 법(法)을 세우지 않지만 대밀(台密)에서는 따로 불이(不二)의 법(法)을 세워서 이를 소실지법(蘇悉地法)이라 한다.

* 금강계오부(金剛界五部) : 금강계는 시각상전(始覺上轉)의 법문(法門)이 되어 미(迷)에 있는 9식(識)이 변하여 5종의 과지(果智)를 이루기 때문에 오부(五部)로 분류한다. ①연화부(蓮華部. :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있는 청보리심(淨菩提心). 청정한 이치가 6도 생사의 진흙 속에 돌아다니면서도 물들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는 것이,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 나면서도 물들지 않고 더럽지 않음과 같음을 말하는 것. 이것이 5불(佛) 중에는 서방 아미타불, 5지(智) 중에는 묘관찰지, 3밀(密) 중에는 어밀(語密)에 해당한다. ② 금강부(金剛部) : 금강에 속한 부문이란 뜻으로, 중생의 마음 가운데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견고한 지혜는 생사 속에서 영겁을 지나도 썩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며, 능히 번뇌를 깨뜨림이 금강과 같으므로 금강부(金剛部)라 한다. ③불부(佛部) : 5불(佛)중의 중앙에 있는 대일여래(大日如來)에 해당함. 이치와 지혜가 구족하고 수도를 완성하여 원만함을 말한다. 5지(智)에는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에 해당하고, 3밀(密) 중에는 신밀(身密)을 표시한다. ④보부(寶部) : 부처님은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또 다른 이를 깨닫게 하여 자각(自覺)・타각(覺他)의

中	法界體性智	大日	佛部
東	大圓鏡智	阿閦	金剛部
南	平等性智	寶生	寶部
西	妙觀察智	阿彌陀	蓮華部
北	成所作智	不空成就	羯磨部

행이 원만하여 세상의 귀중한 보배와 같으므로 이같이 이름한다. ⑤갈마부(羯磨部.) : 자업(作業)의 부문이란 뜻.

158) 일체여래지인(一切如來智印) : 태장계(胎藏界)의 만다라(曼多羅) 제2편(第二遍) 지원중(知院中)의 삼매야형(三昧耶形)이다. 연화 위에 있으면서 삼각형을 짓는 자. 이 삼각형은 4종법신(四種法身). 삼매야형은 4지인(四智印)의 총표(總標)다. 일체여래의 지인이 되고 불(佛)의 자수용지신(自受用智身)을 표현하는 것.

159) 일법신(一法身) : 한 개의 법신(法身).『화엄경(華嚴經)』13에「일체(一切)의 모든 불신(佛身)은 오직 일법신(一法身) 뿐이다」하였음.

160) 묘관찰(妙觀察) : 묘(妙)는 불가사의 한 힘의 자재를 말함. 관찰함은 모든 법을 잘 살피는 것.

能智報身(주체)과 지은 바를 이루는成所作 소지화신所智化身(대상)을 겸하고 네 가지 지혜四智에 온갖 덕萬德을 갖추니라.

제5절 묘유현상 妙有現象

묘유妙有[161]의 극치極致[162]를 인허隣虛[163]라 이르며 이는 물질色의 본체와 작용體用[164]에 있음이 아니요, 오직 지혜慧로써 겨우 분석하여 다시 나눌 수 없는 마지막究竟에 이른 것으로서 눈으로 보아 현량現量[165]得으로 얻음이 아니요, 혜안慧眼[166]의 소행일새,

『정리론正理論』(因明入正理論[167])에서는 거짓假[168]의 극미極微[169]라 말하고 『광기光記』[170]에서는 극미極微의 미微[171]라 이름하여 물질이 모

161) (妙有) : 모든 것이 실체가 없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모양.

162) 극치(極致) :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취나 경지.

163) 인허(隣虛) : 또는 인허진(隣虛塵)이라 함. 신역(新譯)은 극미(極微)라 하며 색법의 가장 극소분(極小分)을 말한다. 인(隣)은 허공과 같은 것으로 색법의 근본이 된다.

164) 체용(體用) : 사물(事物)의 본체(本體)와 작용(作用). 일미(一味)의 실상(實相)이 체(體)가 되고 인과(因果)의 제법(諸法)이 용(用)이 된다. 『법화문구(法華文句)』 3에 「체(體)는 곧 실상(實相)이다. 분별이 없고 용(用)은 곧 일체법(一切法)을 세워 차강(差降)이 같지 않다. 대지는 하나이나 여러 가지 싹이 틈과 같다」 하였음.

165) 현량(現量) : 인명(因明) 3량의 하나. 심식(心識) 3량의 하나. 비판하고 분별함을 떠나서 외계(外界)의 사상(事象)을 그대로 각지(覺知)하는 것. 예를 들면, 맑은 거울이 무슨 형상이나 그대로 비추는 것 같이, 꽃은 꽃으로 보고, 노래는 노래로 듣고, 냄새는 냄새로 맡고, 매운 것은 매운 대로 맛보고, 굳은 것은 굳은대로 느껴서, 조금도 분별하고 미루어 구하는 생각이 없는 것.

166) 혜안(慧眼) : 5안의 하나. 우주의 진리를 밝혀보는 눈. 곧 만유의 모든 현상은 공(空)하다, 무상(無相)하다, 무작(無作)이다, 무생(無生)이다, 무멸(無滅)이다 보아, 모든 집착을 여의고, 차별의 현상계를 보지 않는 지혜. 이것은 이승(二乘)이 얻는 지혜이므로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

167)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 : 진나(陳那)의 제자 상갈라주(商羯羅主)가 지은 것을 당나라 현장(玄奘)이 번역한 것. 일권(一卷). 진능립(眞能立), 진능파(眞能破), 진현량(眞現量), 진비량(眞比量), 사능립(似能立), 사은파(似能破), 사현량(似現量), 사비량(似比量)의 입문을 밝혀서 자오(自悟)와 오타(悟他)의 양익(兩益)을 말한 것.

168) 가(假) : 허(虛)하다는 뜻. 만유는 제각기 실체가 없고 서로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가(假)라 한다.

169) 극미(極微) : 최극미세(最極微細)란 뜻. 색법(色法), 곧 물질을 가장 작게 분석한 것으로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분자(分子)와 같은 것. 극유진(隙遊塵)의 823,543분의 1에 해당. 견(堅)·습(濕)·난(煖)·동(動)의 4성질을 가짐. 구사종(俱舍宗)에서는 모든 색법(色法)은 모두 이 극미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인 것色聚의 미微에 대한 실체實의 극미極微라 하고 열 가지 물질十色(빛色・소리聲・냄새香・맛味・접촉觸. 오경五境[172](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대상)과 눈眼・귀耳・코鼻・혀舌・몸身의 오근五根[173] (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최극미분最極微分(가장 미세한)이라 말하나 인허隣虛란 공空(빔)도 아니고 색色(물질)도 아닐 새, 물질의 가장자리色邊에 치우쳐 말하여偏稱 『극미極微』의 이름을 붙이기 어렵고 인허隣虛의 7배인 물질 모인 것色聚의 미微야말로 열 가지 물질十色의 최극미분最極微分(가장 미세한)이 조화롭게 모여서和聚 비로소 물질色의 그림자影子를 구성構成한 물질色의 시초原始요, 마지막究竟일새,

진실로 극미極微[174]라 이름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물질色의 본체와 작용體用이 있음이 아니요, 눈으로 보아 얻은眼見所得 현량의 본체現量體가 아니므로 『정리론正理論』에서는 역시 인허隣虛와 같은 모양同樣인 거짓假의 극미極微라 하여 실제 물질實色이 아님을 말하였고, 『광기光記』에서는 인허隣虛가 실제 물질實色임에 대하여 이를 거짓假의 극미極微라 이르고 『구사론俱舍論[175]』에서는 팔사구생하여 수일불멸八事俱生隨一不滅[176]이라 말하였는바 물질色이란 원래 거짓 모양假相으

170) 『광기(光記)』 : 30권. 당(唐) 보광법사(普光法師)가 지음. 『구사론기(俱舍論記)』를 말함.

171) (微) : 색법(色法)의 극히 작은 것을 극미(極微)라 하고, 극미를 7배 한 것을 미(微)라 한다. 극미는 단지 한 개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7개의 극미가 1단이 되어야 존재하므로 이것을 1미라 한다.

172) 오경(五境) : 5진(塵)・5묘욕경(妙欲境)이라고도 한다. 5근(根)의 대상이 되고, 5식(識)에 의하여 알게 되는 5종의 바깥 경계. 곧 빛・소리・냄새・맛・촉하는 것 등.

173) 오근(五根) : 곧 보고・듣고・맡고・맛보고・접촉하는 5감각 기관인 눈・귀・코・혀・몸의 5근.

174) 극미(極微) : 색이나 형체를 가지고 있는 현상세계를 가장 작게 분석한 것.

175)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구사론(俱舍論)』] : 30권. 인도 세친 지음. 대법론장(對法論藏)이라 번역. 줄여서 『구사론(俱舍論)』. 구사종의 근본 전적(典籍). 9품(品)으로 나누니, 계(界)품・근(根)품・세간(世間)품・업(業)품・수면(隨眠)품・현성(賢聖)품・지(智)품・정(定)품・파계(破戒)품. 전 8품은 유루・무루의 법을 밝히고, 후 1품은 무아(無我)의 도리를 밝혔다. 더 세분(細分)하면 계・근 2품은 총괄적으로 유루・무루의 모든 법을 밝히고, 다음 6품은 따로 유루・무루의 법을 밝혔는데, 세친은 이 논 중에서 일체 제법의 실재를 주장하는 유부종(有部宗)의 학설에 대하여 경부(經部)의 설을 채택하여 색법 11종 중 4대 종만을 실재라 하고 다른 것은 가법(假法)이라 하고, 극미무분설(極微無分說)에 대하여 유분설(有分說)을 채택하였고, 삼세실유(三世實有)・법체항유설(法體恒有說)에 대하여 현재유체(現在有體)・과미무체설(過未無體說)을 채택하였으며, 심소(心所)와 불상응법(不相應法)에 대하여는 가재설(假在說)을 취하는 등 그의 극단적인 다원설(多元說)에 대하여 1분만 그 실재를 허락, 유부(有部)의 교의(教義)에서 보면 이단이라 할 것은 당연하다.

로서 물질色의 실체實體가 달리 있지別有 않음이요, 물水에 대한 파도波가 그대로 물일새

만일 물질色의 실체實體를 구명究明한다면 그의 마지막究竟 빈 모습空相[177]이 완성된圓成實[178] 하나의 모습一相[179]이라. 물질色이란 곧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의 음적陰的[180] 묘유妙有현상으로서 인허隣虛란 묘유妙有의 극치極致인 빔도 아니非空며 있음도 아닌非有[181] 경계라 혜안慧眼으로 대對하는 극치極致요, 인허隣虛의 7배인 극미極微란 물질色의 시초原始요 마지막究竟일새니 법안法眼[182]으로 대對하는 극치極致요, 극미極微의 7배인 미진微塵[183]이란 미微라고 간단히 이름單稱함도 있으나 이는 천안天眼[184]으로 대對하는 극치極致요, 미微의 7배인 금진金塵[185]은 금金 가운데서 왕래하되 장애도 없고無障 거리낌도 없는

176) 팔사구생수일불멸(八事俱生隨一不滅) : 어떤 원자(原子)에도 지(地)·수(水)·화(火)·풍(風)의 4원소(四元素)와 색(色)·향(香)·미(味)·촉(觸)의 4종류의 대상對象)과의 팔사(八事)가 모두 존재하여 하나도 멸(滅)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구사론(俱舍論)』

177) 공상(空相) : (1)제법(諸法)이 개공(皆空)한 모양. 모든 법(法)은 인연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그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이를 공(空)의 상(相)이라 함. (2)진공(眞空)의 체상(體相)을 공상(空相)이라 함.

178) (圓成實) : 완성(完成)된 것.

179) 일상(一相) : 무이(無二)의 상(相)을 말함. 곧 차별이 없는 제상(諸相)은 평등일미(平等一味)다.『법화경(法華經)』<비유품>에「이는 모두 일상일종(一相一種)이며 성(聖)이 칭탄하는 것이다」하였다.

180) 음(陰) : 색(色) 성(聲) 등의 유위법(有爲法)을 말함. 천태종(天台宗)에서는 음(陰)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함. (1)음(陰)은 음복(蔭覆)의 뜻이며 색(色)·성(聲) 등의 유위법(有爲法)이 그 이치를 덮어 버림. (2)적취(積聚)의 뜻으로 색(色)·성(聲) 등의 유위법(有爲法)이 생사의 고과(苦果)를 쌓아서 모이게 함.

181) 유(有) : 있다는 것. 공(空)·무(無) 여기에 실유(實有)·가유(假有)·묘유(妙有)가 있다.

182) 법안(法眼) : 5안(眼)의 하나. 일체 법을 분명하게 비춰보는 눈. 보살은 이 눈으로 모든 법의 진상을 잘 알고 중생을 제도함.

183) 미진(微塵) : 범어 rajas. 물질의 극소(極少)를 극미(極微)라 하고, 극미(極微)를 7배한 것을 극진(極塵)이라 하며, 극진(極塵)을 7배 한 것은 금진(金塵)이며, 금진(金塵)은 금(金) 가운데의 미세한 틈을 다닐 수 있다.

184) 천안(天眼) : 5안의 하나. 천취(天趣)에 나거나 또는 선정(禪定)을 닦아서 얻게 되는 눈. 미세한 사물까지도 멀리 또 널리 볼 수 있으며, 중생들이 미래에 생사하는 모양도 미리 알 수 있다. 이에 수득(修得)과 생득(生得)의 2종이 있으니, 인간에서 선정을 닦아 천안을 얻은 것을 수득 천안, 색계천에 나므로 얻는 것을 생득 천안.

無碍 정도로서 육안肉眼[186]으로 대對하는 극치極致(마지막)니라.

그리고 금진金塵의 7배를 수진水塵[187], 수진水塵의 7배를 토모진兎毛塵[188], 토모진의 7배를 양모진羊毛塵, 양모진 7배를 우모진牛毛塵, 우모진 7배를 극유진隙遊塵[189] 또는 일광진日光塵이라고 이름하니 일광진日光塵은 벽간이나 창틈을 통한 햇빛에 의지하여 떠다니는 것을 겨우 인식할 정도인 진애塵埃[190]의 하나의 본체單體[191]를 이름한 것으로서 곧 극미極微의 823,543(7의 7거듭제곱七乘冪數) 배倍에 해당할 새, 이를 미루어 각각자리各位의 미량微量을 가히 상상할지나 미微를 모아서積 적은 것에서 큰 것으로 불어난다增는 것이 아니라 요컨대要 미혹한 사람迷人에 있어 색음色陰[192]을 지워 버리는銷却정도를 보인 것으로서 네 가지 모습四相[193](我·人·衆生·壽者)을 부수기破 위한 석공관析空觀을 이룸에 충족하니 수행자修者는 이에 의지하여 색色이 곧

---

185) (金塵) : 또는 동진(銅塵) 철진(鐵塵)·투금진(透金塵). 인도에서 쓰던 수량의 단위. 금의 가장 작은 가루로 자유롭게 몸속을 지나갈 만큼의 크기를 말한다. 극미(極微)의 49배. 미(微)의 7배. 지절(指節)의 40,354,307분의 1에 해당.

186) 육안(肉眼) : 5안(眼)의 하나. 중생의 육신에 갖추어 있는 눈.

187) 수진(水塵) : 물속을 자유로 통행할 수 있으리 만큼 작은 티끌. 금진(金塵)의 7배. 극미진(極微塵)의 343배.

188) 토모진(兎毛塵) : 토끼의 털끝에도 앉을 수 있을 만치 작은 체적(體積)을 말함. 양모진(羊毛塵)의 7분의 1. 극미(極微)의 1,401배.
양모진(羊毛塵) : 양모(羊毛)의 끝에 머물 수 있을 정도의 극히 작은 미진(微塵). 토모진(兎毛塵)의 7배. 극미(極微)의 16,807배.
우모진(牛毛塵) : 소털 끝에 붙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티끌 극미(極微)의 117,649곱. 양모진(羊毛塵)의 7배.

189) 극유진(隙遊塵) : 또는 향유진(向遊塵)·일광진(日光塵). 공중에 날아 흩어져 겨우 눈으로 알아 볼 만한 정도의 티끌. 극미(極微)의 823,543배, 1지절(指節)의 2,401분의 1에 해당.

190) 진애(塵埃) : 티끌먼지, 망상과 미정(迷情)을 티끌에 비유.

191) 단체(單體) : 단 한 가지의 원소(元素)로만 이루어진 물질(物質).

192) 색음(色陰) : 5온의 하나. 색(色)은 스스로 생멸 변화하고 또 다른 것을 장애한다. 온(蘊)은 모여서 뭉친 것으로 화합하여 하나가 된 것. 어느 면으로 화합하여 하나가 된 것. 어느 면으로 보아도 한 무더기라고 볼 수 있는 것. 5근(根)과 5감관(感官)의 대상이 되는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의 5경(境)과 무표색(無表色)의 11을 말함.

193) 사상(四相) : ①아상(我相) : 5온(蘊)이 화합하여 생긴 몸과 마음에 실재의 아(我)가 있다고 하고, 또 아(我)의 소유(所有)라고 집착하는 소견. ②인상(人相) : 아(我)는 인간이어서 축생취(畜生趣) 등과 다르다고 집착하는 소견. ③중생상(衆生相) : 아(我)는 오온법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집착하는 소견. ④수자상(壽者相) : 아(我)는 일정한 기간의 목숨이 있다고 집착하는 소견.

공空이요 공空이 곧 색色임을 모두 깨달은了達 후『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을 철저徹底하고 또 그와 같이 수행修行하여서 마지막 깨달음을 성취究竟成就함에 편의便宜를 얻으면 다행이라.

*色陰(新譯) = 色蘊(舊譯)

제6절 석공관析空觀[194]

* 분석적分析的으로 공空을 관찰觀察함.

수행자修者는 먼저 해와 달과 별과日月星宿 산과 내와 대지山河大地 삼라만상森羅萬象과 사람과 가축 또는人畜乃至 꿈틀거리는蠢動含靈 일체 중생一切衆生을 남김없이 파괴하여 일광진日光塵(공중에 흩어져 겨우 눈으로 인식할 정도의 티끌)으로 되게化하고 차차 나아가서漸進 인허隣虛인 백척 장대 끝百尺竿頭에서도 오히려 일보一步를 전진前進하여 진공眞空[195]의 경계境界에 이를지니,

오로지 힘써 수행加行하는 도중에 흙비土雨와 같은 티끌 같은 무상한 세상紅塵世界이 바로 관찰直觀되거든 색의 장애色碍가 거칠고 큰麤大[196] 장벽을 돌파突破하고 극유진隙遊塵으로 변화한 경계境界인 줄 짐작하고 황혼천지黃昏天地가 꿈속에 나타나거든 색음色陰이 우모진牛毛塵으로 변화化한 경계境界요, 7색이 앞에 나타나거든 색음色陰이 양모진羊毛塵으로 변화化한 각 원소경계元素界[197]인 줄 체득體得하고, 달빛 같은月色 마음의 빛識光이 일어나거든 색음色陰이 토모진兎毛塵으로 변화化한 경계境界로서 곧 난법煖法[198]의 모습相이요, 마음의 달心

194) (析空觀) : 구족하게는 석색입공관(析色入空觀). 또 석법관(析法觀) 생멸관(生滅觀)·졸도관(拙度觀)이라고도 함. 천태종에서 말하는 4교(敎)의 처음인 장교(藏敎)의 관법으로서 물(物)·심(心) 모든 현상이 그때 그때 생멸하는 것을 관(觀)하고, 이를 분석하여 공(空)이라 관달(觀達)하는 것.

195) 진공(眞空) : (1)진여의 이성(理性)은 일체 미(迷)한 생각으로 보는 상(相)을 여의었으므로 진공. 곧『기신론(起信論)』에서 말한 공진여(空眞如).『유식론(唯識論)』에서 말한 이공진여(二空眞如),『화엄경(華嚴經)』에서 말한 3관(觀) 중의 진공관(眞空觀). (2)유(有)아닌 유를 묘유(妙有)라 함에 대하여 공 아닌 공을 진공이라 하니 대승지극(大乘至極)의 진공.

196) 추대(麤大) : 번뇌에 속박되어 있는 것.

197) 원소(元素) : 두 가지 이상으로 분석할 수 없는 물건.

月[199]이 홀로 드러나거든獨露 색음色陰이 수진으로 변화水塵化[200]한 욕계정천欲界頂天[201]의 경계境界로서 곧 정법頂法[202]의 모습相이요, 마음의 달心月이 변하여 자마금색체紫磨金色體인 태양日輪[203]과 같은 금강륜金剛輪[204]이 드러나거든現露 장차 바른 깨달음正覺에 오르기 위한 조짐前兆인 금강좌金剛座[205]인 줄 시인是認하고,

컴컴한 밤에 대낮 같이 지혜의 빛智光이 일어나거든 천안天眼[206]이

---

198) (煖法) : 4선근(善根) 4가행위(加行位)의 첫 자리인 난위(煖位)를 법으로 이름하여 난법이라 한다.
* 사가행위(四加行位) : 사선근위(四善根位)라고도 함. 보살의 계위(階位)인 5위(位)의 제2. 난(煖)·정(頂)·인(忍)·세제일(世第一). 이 4위는 10회향의 지위가 원만하여 다음 통달위(通達位)에 이르기 위하여 특히 애써서 수행하는 자리. 또 이를 순결택분(順決擇分)이라고도 한다.

199) 심월(心月) : 심성(心性)이 밝고 깨끗함을 달에 비할 수 있다는 것.『보리심론(菩提心論)』에 「본심(本心)을 소견(昭見)하니 담연청정(湛然淸淨)하여 만월(滿月)과 같다 광명(光明)이 허공을 두루 비추어도 분별(分別) 됨이 없다」 하였음.

200) 수진(水塵) : 물속을 자유로 통행할 수 있으리 만큼 작은 티끌. 금진(金塵)의 7배. 극미진(極微塵)의 343배.

201) 욕계(欲界) : 3계(界)의 하나.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아수라(阿修羅)·인간(人間) 6욕천의 총칭. 이런 세계는 식욕·수면욕(睡眠欲)·음욕이 있으므로 욕계라 한다.

202) 정위(頂位)[정법(頂法)] : 4선근(善根)의 하나. (1)소승 구사종에서는 4제(諦)를 관하는 데 있어 16행상(行相)을 닦는 것은 난위(煖位)와 같으면서도 여기서 다시 1선근(善根)을 일으킨 위이니, 나아가면 다음의 인위(忍位)에 들어가며 물러나면 난위에 떨어지는 위라 한다. 이와 같이 나아가고 물러나는 중간에 있는 것이 마치 산정(山頂)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중간인 것과 같다고 비유하여 이름한 것. 이 정위에 들어가면 선근(善根)을 끊는 사람이 될 염려는 없다. (2)대승 유식종에서는 4선근의 체(體)가 되는 4정(定) 중의 명증정(明證定)에 의하여 상품(上品)의 심사관(尋伺觀)을 일으키고, 심사의 대상인 명(名)·의(義)·자성(自性)·차별(差別)은 모두 자기 마음이 변해 나타난 것이므로 가(假)로 있는 것이라고 미루어 생각하여 완전히 이 명(名) 등의 넷을 없이함을 말한다. 이것을 심사관의 종극(終極)이라 한다.

203) 일륜(日輪) : 태양을 말함. 항상 허공중에 있어서 수미산의 허리를 돌면서 차례로 수미산의 동·남·서·북에 있는 4대주(四大洲)를 비춘다. 이것은 중생의 업력(業力)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의지하여 공중에 떴다 함.

204) 금강륜(金剛輪) : (1)땅 밑으로 160만 유순을 지나서 수륜(水輪) 위에 있는 세계를 받든다는 기(器)세계의 한 지층인 금륜(金輪). (2)석존이 성도할 때에 앉았던 금강좌(金剛座). 이는 금강륜이 땅 위로 나타난 것이므로 이같이 말한다. →금강좌(金剛座). (3)금강의 법륜(法輪)이란 뜻. 진언 밀교를 말한다. 밀교를 금강승(乘)이라 하는 데서 이름. →금강승(金剛乘).

205) 금강좌(金剛座) : 또는 금강제(金剛齊). 중인도 마갈타국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있는 석존이 성도할 때에 앉았던 견고한 자리. 위는 땅 위에 드러나고 아래는 금륜(金輪)에 의지하였다고 한다. 지금 보리수 아래에 있는 금강좌는 후세에 만든 것이고, 당초에 있던 금강좌는 대탑(大塔) 속에 있다 한다.

206) 천안(天眼) : 5안의 하나. 천취(天趣)에 나거나 또는 선정(禪定)을 닦아서 얻게 되는 눈. 미세한 사물까지도 멀리 또 널리 볼 수 있으며, 중생들이 미래에 생사하는 모양도 미리 알 수 있다. 이에 수

생기어 아누색阿耨色[207]을 바로 보는直見 경계境界요, 광명光明을 두른 아주 세밀한 극미精細極微의 아지랑이陽焰와 같은 경계境界가 앞에 나타나거든 색色(물질)의 마지막究竟인 줄 스스로 알自認 따름이오, 앞뒤 경계境界를 사람에게 말할 수 없으며 이어서 다시 보현普賢[208]의 진경眞境(진리의 경계)의 의미를 새겨서 깊이 연구吟味할지니,

그리고 만 가지 형상萬象을 극유진隙遊塵으로 변화한 성분成分에서 우모진牛毛塵으로 변화化한 분자分子로, 분자分子에서 양모진羊毛塵으로 변화化한 각 원소元素로 원소에서 다시 토모진兎毛塵으로 변化한 전자電子로 수진水塵으로 변화化한 양핵陽核으로 이렇게 비추어 비교對照하여 거짓생각假想인 원자핵原子核이란 곧 간격間隔없는 금진金塵인 금강륜金剛輪이니 원소 이하 분자分子·성분成分·물체物體 (등) 이와 같이 만물萬物 곧 해와 달과日月 별星宿, 산과 강山河大地 등 일체중생一切衆生이

(修得)과 생득(生得)의 2종이 있으니, 인간에서 선정을 닦아 천안을 얻은 것을 수득 천안, 색계천에 나므로 얻는 것을 생득 천안이라 한다.

207) 아누(阿耨) : 극미(極微)라 번역.

208) 보현(普賢) : 필수발타(邲輸跋陀) 또는 삼마다발타라(三曼多跋陀羅). 의역(意譯)으로는 보현 또는 편길(徧吉)이라 함. 일체제불의 이덕(理德)·정덕(定德)·행덕(行德)을 맡고 문수보살의 지덕(智德)·증덕(證德)과 상대를 이루어서 이지일쌍(理智一雙)·행증일쌍(行證一雙). 삼매반야일쌍(三昧般若一雙)이됨. 석가여래의 양협사로 문수는 사자를 타고 부처님 우측에서 모심. 지금 지(智)는 바른쪽, 이(理)는 왼쪽의 설(說)은 이(理)와 지(智)가 융통(融通)한다는 뜻. 또한 태장계(胎藏界)의 차례는 바른쪽은 연화계(蓮花界), 왼쪽은 금강계(金剛界)임. 이처럼 이(理)와 지(智)가 상즉(相卽)하고 행(行)과 증(證)이 상응(相應)하여 삼매와 반야가 완전한 것은 비로자나(毘盧遮那)의 법신불이다. 화엄(華嚴) 일경(一經)에서 밝힌 것은 이 일불(一佛)과 이보살(二菩薩)의 법문으로 돌아가므로 화엄삼성(華嚴三聖)이라 하며, 일체공덕(一切行德)의 본체(本體)가 되므로 화엄의 자리에서 대원(大願)을 설(說)하고 법화삼매(法華三昧)의 도량에서 스스로 그 몸을 나타내었다. 『대일경소(大日經疏一)』에「보현보살은 보(普)는 변일체처(遍一切處)이며, 현(賢)은 최묘선(最妙善)의 뜻. 보리심(菩提心)으로 원행(願行)을 일으켜 신구의(身口意)에 미치며, 모두 평등하여 일체처(一切處)에 주변(周遍)하므로 순일묘선(純一妙善)이 되며, 많은 덕(德)을 구비하므로 보현(普賢)이라 하였다」하였고, 『탐현기(探玄記)』 18에「명(名) 가운데 먼저 상수이명(上首二名)을 표(標)한 것은 그가 화주(化主)를 돕기 때문이다. 해석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 보현은 법문계(法門界)를 맡으니 들어가는 것이요, 문수는 반야문(般若門)을 맡으니 들어간 것이다. 둘째, 보현은 삼매가 자재하고 문수는 반야가 자재하다 셋째, 보현은 광대(廣大)의 뜻을 밝혔고 문수는 심심(甚深)하다는 뜻이다.」

모두 공空에 돌아옴을歸 체득體得하여 원소元素 이하 세계가 곧 허공세계虛空世界[209]인 허공륜虛空輪이요,

전자電子가 곧 풍륜風輪[210]이요, 양핵陽核이 곧 수륜水輪[211]이요, 원자핵原子核이란 곧 금륜金輪(금진金塵인 금강륜金剛輪의 간략한 이름)인 줄 본체를 인식體認한 후 불교佛敎의 기세계器世界[212]를 관찰觀함에 있어 허공륜虛空輪 위에 풍륜風輪이 있고, 풍륜風輪위에 수륜水輪이 있고, 수륜水輪위에 금륜金輪이 있다는 사륜설四輪說을 입증立證하는 동시同時에 금륜金輪[213]과 수륜水輪과의 경계의 선界線이 부처님이 설說하신 수제水際(수면)에 해당하며, 수미산須彌山[214]의 절반 아래下半란 곧 수진水塵 이하以下요, 절반 위上半란 곧 금진金塵 이상以上으로서 절반 아래下半가 곧 욕계欲界요, 절반 위上半가 곧 위로 두 세계上二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일새, 삼계三界[215]란 곧 색음色陰을 지워버리는銷却 정도程度에 구별 된 것이니 한 생각一念 삼계三界를 뛰어넘어超脫 여래의 집如來

---

209) (虛空界) : (1)우리의 눈에 보이는 허공(虛空)을 말한다. (2)진여(眞如)를 말한다. 빛도 없고 모양도 없으면서 일체만유를 온통 휩싸고 있는 것이 허공과 같으므로 이렇게도 이름.

210) 풍륜(風輪) : 3륜의 하나. 이 세계를 붙들어 받치고 있는 3륜의 맨 밑에 있는 륜. 넓이는 무수(無數). 두텁기는 16억 유순(由旬). 풍륜의 밑은 허공. 이것을 공륜(空輪)이라 하니 모두 합하여 4륜.

211) 수륜(水輪) : 3륜의 하나. 땅 밑에 있어 대지를 받치고 있는 물. 풍륜 위에 있으며 깊이는 11억 2만 유순, 넓이는 지름 12억 3천 4백 5십 유순, 둘레는 36억 1만 3백 5십 유순이라 함.
* 삼륜(三輪) : ①풍륜(風輪) 수륜(水輪)·금륜(金輪 : 地輪이라고도 함)의 셋. 수미산설(須彌山說)에 의거한 물질적 세계 곧 기세간(器世間)의 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풍륜(風輪)은 맨 아래에, 금륜(金輪)은 맨 위에 있고, 이 위에 현실의 세계가 구조되어 있다고 한다.

212) 기세간(器世間) : 또는 기세계(器世界)·기계(器界)·기(器). 3종 세간의 하나. 중생을 수용(受容)하는 세간이란 뜻. 우리가 살고 있는 산하(山河)·대지(大地) 등의 세계.

213) 금륜(金輪) : 금성지륜(金性地輪)이라고 한다. 4륜(輪)의 하나. 수륜 위에 있어 세계를 받들었다는 한 지층(地層). 수륜이 엉기어 맺혀서 이룬 금의 윤위(輪圍)를 말한다. 둘레 3억 2만 유순, 직경 12억 3,450 유순, 둘레 36억 10,350 유순. 이 금륜 위에 수미산 등이 산(山)·8해(海)·4주(洲)를 실었다 한다. 금륜의 맨 밑을 금륜제(金輪際)라 한다.

214) 수미산(須彌山) : 또는 수미루(須彌樓·修迷樓)·소미로(蘇迷盧). 줄여서 미로(迷盧). 번역하여 묘고(妙高)·묘광(妙光)·안명(安明)·선적(善積). 4주 세계의 중앙, 금륜(金輪) 위에 우뚝 솟은 높은 산. 둘레에 7산(山)·8해(海)가 있고 또 그 밖에 철위산(鐵圍山)이 둘려 있어 물속에 잠긴 것이 8만 유순, 물 위에 드러난 것이 8만 유순이며 꼭대기는 제석천, 중턱은 4왕천의 주처(住處)라 한다.

215) 삼계(三界) : 생사유전(流轉)이 쉴 새 없는 미계(迷界)를 셋으로 분류한 것. 욕계·색계·무색계. ① 욕계(欲界) : 욕은 탐욕이니 특히 식욕·음욕·수면욕(睡眠欲)이 치성한 세계. ②색계(色界) : 욕계와 같은 탐욕은 없으나 미묘(微妙)한 형체가 있는 세계. ③무색계(無色界) : 색계와 같은 미묘한 몸도 없고 순 정신적 존재의 세계. 이 3계를 6도(道)·25유(有)·9지(地)로 나누기도 함.

바로 이르게直到 할지니라.

* 상반(上半) : 아래위로 절반 나눈 그 위쪽 부분 ⇔ 하반(下半)

제7절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216]

색色(물질)이 곧 공空(빔)이라 제법공諸法空(모든 존재는 실체성이 없는 것)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을 증득證함에 일상삼매一相三昧로써 하고, 공空이 곧 색色이라 거리낌 없는 마음無碍心의 무상행無常行[217]을 증득함에는 일행삼매一行三昧로써 할지니, 모든 존재諸法를 녹錆(산화작용으로 쇠붙이의 표면에 생기는 물질)에 비유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을 쇠鐵에 비유함은 일상삼매一相三昧를 수행修하는 하나의 예요, 거리낌 없는 마음無碍心을 마니보주摩尼寶珠[218]에 비유하고 무상행無常行을 한량없는 보배 빛無量寶光에 비유함은 일행삼매一行三昧를 수행修하는 하나의 예요, 실상삼매實相三昧와 보현삼매普賢三昧란 각 그 얻은 수행단계果位[219]이며,

녹錆과 같은 무명無明이요 쇠鐵와 같은 참 성품實性[220]일새, 『증도가證道歌[221]』의 이른바 무명無明의 참 성품實性이 곧 불성佛性이요, 허깨

---

216) 색즉시공(色卽是空) : 색(色)에 의하여 표현된 온갖 현상은 평등무차별한 공(空). 곧 실상(實相)과 상즉(相卽)하여 둘이 없다는 뜻.
공즉시색(空卽是色) : 진여실상(眞如實相)인 공(空)은 색(色)인 모든 법(法)의 차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空)의 자체 그대로가 모든 법(法)이라고 하는 것.

217) 무상행(無相行) : 사제(四諦)의 진리를 관(觀)하면서도 그것을 절대 부정하는 것. 27현성(賢聖)의 하나. 세제일법(世第一法)의 뒤에서 예류과(預流果)에 이르는 견도십오심(見道十五心)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

218) (摩尼) : 말니(末尼)라고도 하고 주(珠) 보주(寶珠)라고 번역하며 마니보(摩尼寶)·마니주(摩尼珠)라고도 한다. 주옥(珠玉)의 총칭. 일반으로 마니(摩尼)에는 불행·재난을 없애주고 탁수(濁水)를 청정하게 하며, 물을 변하게 하는 등의 덕(德)이 있다고 한다. 특히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대로 가지가지의 진보(珍寶)를 내는 덕(德)이 있는 보주(寶珠)를 여의보주(如意寶珠)라고 일컫는다.

219) 과위(果位) : 인위(因位). 과지(果地)라고도 함. 인행(因行)을 성취하여 증득하는 불과의 자리. 깨달은 지위.

220) 실성(實性) : 진여(眞如)의 다른 이름이다. 『인왕경중(仁王經中)』「제법실성(諸法實性)이 청정평등(淸淨平等)하여 유(有)도 아니고 무(無)도 아니다」고 하였음.

221) 증도가(證道歌) : 1권. 당나라 현각(玄覺) 지음. 선종의 깨닫는 내용을 7언(言)의 운문(韻文)으로 읊

비 꽃幻華이 보광寶光이요, 공신空身인 보주寶珠(如意寶珠)일새 허깨비 꽃幻華의 공신空身이 즉 법신法身이라. 실상삼매實相三昧란 견성見性[222]의 경지境地요, 보현삼매普賢三昧란 도를 증득 하는證道 경지境地로서 법法에 의지하여 수행함依法修之에 수행자는 반드시 증득하나行者必證 수행자修者가 애써 수행加行 중 어떠한 좋은 경계善境라도 집착하면 악화惡化하고, 어떠한 나쁜 경계惡境라도 집착하지 아니하면 장애가 없으니無妨 「범소유상凡所有相이 개시허망皆是虛妄이니 약견제상若見諸相이 비상非相이면 즉견여래卽見如來니라 - 무릇 있는 바 모양이 모두 다 헛되고 망령되니 만약에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니라」 하신 사구게四句偈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지니라.

그리고 문득 뛰어 넘으면頓超 순서次第가 없으나 중간 중간 뛰어 넘거나間超 점차 닦아 가는 수행漸修에는 순서次第가 없지 아니하니 별도의 해탈16지解脫十六地를 참고할진저.

제8절 아누보리阿耨菩提[223]의 실상해實相解

아누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224]란 오직 부처님만이 지니신唯佛一人 지혜智慧를 이름한 위 없는 큰 도임無上大道을 보이시어 무상정변도無上正遍道 또는 무상정변지無上正遍智라 예전에 번역했고舊譯[225] 무

것. 참동계(參同契)』·『보경삼매(寶鏡三昧)』 등과 함께 널리 쓰임.

222) 견성(見性) : 선가(禪家)에서 견성성불(見性成佛)이란 숙어로 쓰임. 자기의 심성(心性)을 사무쳐 알고 모든 법의 실상인 당체(當體)와 일치하는, 정각(正覺)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것.

223) 아누보리(阿耨菩提) : 아누다라삼먁삼보리의 약어. 『열반경(涅槃經)』 35에 「아누보리는 신심(信心)이 인(因)이 된다」 하였고, 『지도론(智度論)』 34에 「중생이 나의 이름을 듣게 되면 반드시 아누보리를 얻는다」 하였다.

224) 아누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 : 불지(佛智)의 이름임. 구역(舊譯) 무상정변지(無上正徧智)라 하며 무상정변도(無上正徧道)·진정변지(眞正徧智)라 하며 일체진리(一切眞理)의 무상지혜(無上智慧)를 말함. 『유마경(維摩經)』 <불국품(佛國品)> 승조(僧肇) 스님의 주(註)에 「아누다라는 진언(秦言)으로 무상(無上)이며 삼먁삼보리는 진언(秦言)으로 정변지(正徧智)라 함. 도(道)가 더 큼이 없는 것은 무상(無上)이며 그 도(道)가 진정(眞正)하여 어떠한 법도 알지 못함이 없는 것을 정변지(正徧智)라 한다」 하였음. 『정토론(淨土論)』 주(註)에 「불(佛)이 얻는 법(法)은 아누다라삼먁삼보리다. 아는 무(無), 누다라는 상(上), 삼먁은 정(正), 삼은 변(徧), 보리는 도(道)가 된다. 통합하여 해석하면 무상정변지(無上正徧道)라 한다」 하였음. 신역(新譯)에서는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진정평등각지(眞正平等覺智)라 하며 일체진리(一切眞理)의 무상지혜(無上智慧)임.

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라 새롭게 번역新譯하여 그 지혜의 덕智德[226]만을 뜻으로 풀었을意譯 뿐이요 그 지혜의 모양智相[227]을 풀이함이 없음은 유감이니라.

그러나 아누阿耨는 아나阿拏 또는 아노(토/도)阿菟라고도 이르며 색계色界의 색법色法인 금진金塵 이상의 극미極微라고도 번역譯하며 『대일경소大日經疏[228]』1에서 『소분자小分者를 말하는 것을 범어梵에 이르되 아누阿耨이니 곧 7가지 미세한 것이 모여서 이룸七微合成[229]이라』 이르며 진공眞空·인허隣虛·극미極微·미微를 함축한 7가지 미세한 것이 모여서 이루어진七微合成 금진金塵을 가리켜 부름指稱이니,
곧 아누阿耨란 진공眞空의 본체體에 묘유妙有의 네 가지 성품四性과 네 가지 모습四相을 구비한 금강륜金剛輪의 하나의 본체單體인 금진金塵 이상을 합하여 부름合稱을 의미한 아누색阿耨色이라 말하며,

다라多羅는 저라咀囉라고도 이르며 안眼(눈)이라 안동眼瞳(눈동자)이라고도 번역譯할새 『소바호경蘇婆呼經』하下[230] 에서는 다라多羅[231]는 이

---

225) 구역(舊譯) : 경(經)은 후한(後漢)때 부터 원(元)나라에 이르는 천여 년 동안 번역되었는데 그 번역사상 한 시기를 이룬 당나라 현장(玄奘, 600~664) 이후를 신역(新譯)이라 함에 대하여 그 이전의 번역을 구역(舊譯)이라 함.

226) (智德) : 3덕의 하나. 여래가 평등한 지혜로 일체 만법을 모두 비추는 덕.

227) 지상(智相) : 지혜의 모양. 부처님의 광명을 말하니, 부처님의 광명은 지혜가 밖으로 나타나는 모양인 탓.

228) 『대일경소(大日經疏)』: 20권. 선무외(善無畏) 삼장이 현종(玄宗) 황제를 위하여 이 경을 강설한 것. 일행(一行) 아사리가 기록함.

229) 칠미(七微) : 일체유부종(一切有部宗)에서 설한 것. 욕계(欲界)의 유형질(有形質)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것으로 팔사구생(八事俱生) 수일불멸(隨一不滅)이라 이른다. 능조(能造)의 지 수··화·풍인 4대(四大)와 소조(所造)의 색·성·향·미·촉인 4경(四境)과 서로 화합해서 일미체(一微體)를 이룬다. 이 8사(八事 : 4대·4경))는 다시 분리할 수 없으며 이는 색취(色聚)의 최극(最極)이 되므로 미취(微聚)라 하고 또한 극미(極微)라 한다. 이 극미는 6방(方) 가운데 심(心)과 칠미(七微)가 모여 비로소 천안(天眼) 등의 소구(所具)가 된다. 이것을 아노색(阿菟色) 또는 아누(阿耨)라 하며 번역하여 미(微)라 한다.

230) 『소바호동자청문경(蘇婆呼童子請問經)』: 3권. 당(唐)의 수파가라(輸婆迦羅) 번역. 조송(趙宋)의 법현(法賢)이 번역한 『묘비보살소문경(妙臂菩薩所問經)』과 동본(同本)이다. 밀삼장(密三藏)가운데 비니장(毘尼藏)의 비경요전(秘經要典)이다. 『개원록(開元錄)』 9에 「소바호동자(蘇婆呼童子)는 번역하여 묘비동자(童子)이다」 하였음.

에 묘목정妙目精이라 했고, 『불공견삭심주왕경不空羂索心呪王經』에서는 다라多羅는 이周[232]에 이르되 눈동자瞳子라 했으며, 『대일경소大日經疏』 5에서는 다라多羅는 눈의 뜻眼義이라 했으니, 아누다라阿耨多羅란 곧 범부凡夫의 안견眼見을 얻은所得 수진水塵 이하의 현세顯界가 본래 성품이 공本空[233]한 지성地性(단단한 성품)의 최저층最低層인 금강륜金剛輪 곧 금진金塵을 증득하여 보는證見 수행인修行人이 육안肉眼을 성취成就함에 따라 본격적 미微의 아누색阿耨色을 능히 보는能見 천안天眼이 생기며, 극미極微의 색구경천色究竟天[234]에 앉을 새 아뢰야阿賴耶[235]의 모든 존재諸法의 불가사의함을 관찰妙觀察하는 법안法眼[236]이 생기면서, 큰 세계大界의 인허隣虛 경계境界를 꿰뚫어 관찰하는通觀 혜안慧眼[237]이 생

---

231) (多羅) : 또는 달라(囉). 번역하여 안동(眼瞳) 동자(瞳子)·묘목정(妙目精). 관음(觀音)의 눈에서 나온 여신(女身)의 보살 이름. 태장계 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1존으로 첫째 줄에 있고, 형상은 청백색으로 중년의 여인상(女人像), 두 손을 합장하고 갈마의(羯磨衣)를 입은 보살, 이 보살을 본존으로 하는 수법(修法)은 출산(出産)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 티베트의 탕카(티베트의 탱화)에서 초록색 눈에 흰 솔을 걸치신 분이 바로 '녹색따라보살'이다. 티베트와 네팔에서는 녹색따라보살에 대한 신앙이 아주 대단하다. '따라보살'은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눈물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은 지옥 중생들까지도 다 제도하리라는 큰 원력을 세우셨는데, '만약 퇴굴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몸이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지리라' 하고 서원을 발하셨다. 그리고 해마다 지옥에 가서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여 극락세계로 보냈다. 그러나 갈 때마다 지옥에는 여전히 전과 같이 많은 중생들이 있었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께서 중생들을 다 극락으로 보내고 하늘을 올려다 보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생들이 겨울에 눈송이가 내리듯 수없이 많았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순간 퇴굴하는 마음이 일어나 「저 끝없이 많은 중생들을 어떻게 다 제도하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그의 서원 그대로 몸이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져 버렸다.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시방에 계신 부처님들께서 보시고는 신통력으로 관세음보살의 몸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손이 천개에 눈이 천개가 있도록 해주셨다. 또한 그때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양쪽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화현하여 '따라보살'이 되었다. 오른쪽 눈물이 화현한 '녹색따라보살'은 일체중생의 사업과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본존으로서 모든 수행자를 수호하는 여자호법신의 대표 여신으로 신봉되어진다. 그리고 왼쪽 눈물이 화현한 '백색따라보살'은 중생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보살이다. 티베트에서는 장수를 기원할 때 '백색따라보살'에게 장수관정을 청하고 '백색따라만트라' 기도를 많이 한다.

232) 주(周)자는 이 차(此)자와 동일. 명나라 이전에는 주(周)자로 사용함.

233) 본공(本空) : 진경(塵境)의 마음을 여의고, 자체(自體)가 없으므로 본공이라 함.

234) 색구경천(色究竟天) : 색계 18천의 하나. 색계 4선천(禪天)의 맨 위에 있는 하늘[天] 그 의처(依處).

235) 뢰야(賴耶)[아뢰야(阿賴耶)] : 8식 가운데 아뢰야(阿賴耶)의 약칭.

236) 법안(法眼) : 5안(眼)의 하나. 일체법을 분명하게 비춰 보는 눈. 보살은 이 눈으로 모든 법의 진상을 잘 알고 중생을 제도함.

237) 혜안(慧眼) : 5안(眼)의 하나. 우주의 진리를 밝혀 보는 눈. 곧 만유의 모든 현상은 공(空)하다, 무

기며, 일보를 전진前進하여 진공眞空의 훌륭하고 완전한圓明 부처님 눈佛眼[238]을 얻으니, 묘유妙有의 일체법一切法을 원통圓通[239]하는 공안空眼의 묘목정妙目精이 이것이며, 삼먁삼보리三藐三菩提란 삼먁삼불타三藐三佛陀라고도 이르고 정변지일체법正遍知一切法이라 번역譯하니 곧 『지도론智度論[240]』에서 설說한 바 부처님의 지혜佛智인 일체종지一切種智[241]가 이것이니라.

그러한즉 이에 아누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을 풀어서 해석解譯하여 이를 간략히 옮기자면 오안五眼을 구비具備한 아누다라阿耨多羅의 일체종지一切種智라. 또는 공안空眼인 묘목정妙目精의 바른 견해正見인 바른 선정正定의 바른 지혜正智라 함이 필요緊하니, 지혜의 모습智相을 풀어서 해석解譯함이 경과 논經論에 빠진 바가 없다.

제9절 오륜성신관五輪成身觀[242]

(공空) (풍風) △(화火) ◯(수水) □(지地) 이와 같은 오륜성신도五輪成身圖를 하나의 바퀴— 합작하여 으로 그림으로 그려 보일 새,
그 둘레輪廓가 금강령金剛鈴[243]과 동일同一하니라.

(無相)하다, 무작(無作)이다, 무생(無生)이다, 무멸(無滅)이다고 보아 모든 집착을 여의고 차별의 현상계를 보지 않는 지혜. 이것은 이승(二乘)이 얻는 지혜이므로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

238) 불안(佛眼) : 5안(眼)의 하나. 모든 법의 진성(眞性)을 비쳐보는 부처님의 눈.

239) 원통(圓通) : 주원융통(周圓融通)하다는 뜻. 불 보살이 깨달은 경지.

240) 『대지도론(大智度論)』 [『지도론(智度論)』] : 100권. 용수 보살 지음. 구마라집 번역. 또는 『지론(智論』·『대론(大論)』·『마하반야석론(摩訶般若釋論)』·『대지석론(大智釋論)』이라고도 함.

241) 일체종지(一切種智) : 3지(智)의 하나. 일체만법의 개별성을 낱낱이 정밀하게 아는 지혜.

237) 오륜성신(五輪成身) : 오륜관으로써 이 몸을 성취하여 대일여래가 됨

243) 금강령(金剛鈴) : 밀교에서 사용하는 법기(法器)의 하나. 또는 금령(金鈴)이라고도 함. 제존(諸尊)을 경각시키고 또는 기쁘게 하기 위하여 수법[修法, 밀교에서 가지기도(加持祈禱)를 실천하는 것] 중에 흔드는 방울로 금강저의 한 끝에 매어 있음.

오륜관五輪觀[244]이란 땅地・물水・불火・바람風・공空의 오대五大로써 자재自在[245]를 얻는 선정禪定의 이름으로서 곧 오지여래五智如來를 성취成就하는 가르침法인 바 앞의 그림을 나누어 관찰別觀 대상對象으로 하고 뒤의 그림을 모두 관찰總觀하는 대상對象으로 하니,

『대일경소大日經疏』14에서 「지륜地輪은 정사각형正方, 수륜水輪은 원圓, 화륜火輪은 삼각형三角, 풍륜風輪은 반월형半月形, 최상最上의 허공虛空은 점 하나一點 찍음作이라」 말하였음에 의지하여 뒷 그림 중앙中央의 원심일점圓心一點으로써 ○의 둥근 모양團形을 대신하며, 일승관一乘觀의 일륜一輪에서 오륜五輪[246]을 나누어 관찰別觀할 수 있고, 또

---

244) 오륜관(五輪觀) : 오륜성신관(五輪成身觀)의 준말.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을 오륜이라 하며 그 종자(種子)는 다섯 자임. 그 형은 방(方)・원(圓)・삼각(三角)・반월(半月)・단형(團形)이며 그 색은 황(黃)・백(白)・적(赤)・흑(黑)・청(靑)이다. 각각 원만하여 많은 덕(德)을 구비하였으므로 륜(輪)이라 함. 오륜(五輪)은 곧 오지(五智)며 관(觀)하여 그 관(觀)이 성취하면 자신이 곧 오지여래가 된다. 또한 법(法)을 닦을 때에 나의 몸(吾身)으로 금강륜(金剛輪)을 성취하고자 하여 이 오자(五字)를 신중(身中)의 오처(五處)에 배(配)하고 오신(吾身)을 가지(加持)함을 오자엄신관(五字嚴身觀)이라 함. 그 법(法)과 차례는 자신의 요하(腰下)・제륜(臍輪)・심상(心上)・이마(額)・정상(頂上)의 다섯 곳이 된다.『대일경소(大日經疏)』14에「아사리(阿闍梨)가 대비태장(大悲胎藏)을 제자에게 건립하고자 할 때 먼저 유가(瑜伽)에 주(住)하여 자신을 보고 요(腰 : 허리) 이하에 금강륜(金剛輪)을 지으며 그 빛은 누렇거나 굳게 하고 요(腰 : 허리) 이상에서 부터 심(心)에 이르면 수륜(水輪)을 지으며 그 빛은 희다. 다음 마음에서부터 인후(咽喉)까지 이르면 화륜(火輪)을 지으며 그 빛은 붉다. 다음은 목에서부터 이마에 이르면 풍륜(風輪)을 지으며 그 빛은 검다. 다시 지륜(地輪)은 정방(正方)이며 수륜(水輪)은 둥글고 화륜(火輪)은 삼각이며 풍륜(風輪)은 반원형이고 최상의 허공은 일점(一點)이 되어 여러 가지 색(色)을 갖추고 정십자(頂十字) 위에 둔다. 이 륜(輪)의 형(形)은 정(正)히 신분(身分)과 상칭(相稱)된다. 이 오위(五位)는 곧 앞에 설(說)한 오자(五字)다. 방중(方中)에는 아(阿)자를 두고 원중(圓中)에는 박(口縛)자를 두며 삼각 가운데에는 라(囉)자를 두고 반월 가운데에는 함(唅)자를 두며 점(點) 가운데에는 흠(欠)자를 둔다」 하였고,『대일경의석(大日經義釋)』8에「행자(行者)가 관(觀)을 닦을 때 먼저 유가좌(瑜伽座)에 주(住)하여 아박라하거법(阿口縛囉賀佉法)의 오자(五字)로 자체를 가지(加持)한다」 하였음.

245) 자재(自在) : 무애(無碍)・종임(縱任) 이라고도 한다. 자유자재 하고자 하는 바 마음 따라 어떠한 일이든지 장애 없이 이루어지는 것. 모든 부처님과 상위(上位) 보살님이 갖춘 공덕. 부처님 또한 자재인(自在人)이라 말한다.

246) 오륜(五輪) : 모든 덕을 갖추고 있는 5가지란 뜻. 밀교(密敎)에선 5지륜(智輪)이라고도 한다.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의 5대(大)를 가리키고 중생(衆生)의 육신(肉身)과

오륜五輪이 곧 일륜一輪이라는 일승一乘[247]의 이치理(道理)를 모두 관찰總觀할 수 있는 동시에 오지여래五智如來를 오방五方[248] 오불五佛로 짝할 바가 아니라 곧 무방無方[249] 한 부처一佛임을 체험體驗할 수 있으니, 수행자修者는 마땅히 도리道理를 깨달아理會 자신自身의 오지五智로써 바른 깨달음正覺을 성취成就할진저.

그리고 별도의 『수릉엄삼매도결首楞嚴三昧圖訣』을 섭렵涉獵함으로써 별첨한別葉 『수릉엄삼매도首楞嚴三昧圖』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會得 이를 항상 관찰觀하고 항상 생각念하여 마지막 깨달음究竟成就[250]의 편의便宜를 얻을지니라.

1943년 겨울 癸未 冬

벽산한인 지음 碧山閒人 撰

5대(大)를 대응시켜 자기 몸 안에 정(頂 : 空)・면(面 : 風)・촉(觸 : 火)・배꼽(水)・무릎(地)의 5처(處)에 5륜자(五輪字)를 배당하여 관하는 5법을 5륜관(五輪觀) 또는 5륜성신관[(五輪成身觀)→5자엄신관(五字嚴身觀)]이라고 한다. 이것은 육신 그대로가 불신(佛身)이라는 것을 체득(體得)시키는 법(法)이며, 금강계법(金剛界法)으로 행하는 5상성신관(五相成身觀)과 태장계법(胎藏界法)에서 행하는 이 5륜성신관(五輪成身觀)이란 상대(相對)의 법(法)인 것이다.

247) (一乘) : 일불승(一佛乘). 승은 타는 것, 곧 수레나 배(船). 우리들을 깨닫는 경계에 운반함. 부처님의 교법(敎法). 교법에는 소승 대승・3승・5승의 구별이 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한다는 견지에서 그 구제하는 교법이 하나뿐이고, 또 절대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승. 『법화경(法華經)』을 일승경 또는 일승의 묘전(妙典). 이것을 의거(依據)하는 천태종(天台宗)을 원종(圓宗)이라 함은 이 뜻.

248) 오방오지(五方五智) : 밀교에서 오방(五方)・오불(五佛)에 오지(五智)를 나누는 것을 말함. 동방(東方) 아촉불은 대원경지(大圓鏡智), 남방(南方) 보생불(寶生佛)은 평등성지(平等性智), 서방(西方) 아미타불(阿彌陀佛)은 묘관찰지(妙觀察智). 북방(北方) 불공여래(不空如來)는 성소작지(成所作智). 중앙의 대일여래(大日如來)는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에 배치함.

249) 무방(無方) : 방(方)은 방소(方所)와 방법(方法)의 뜻. 부처님이 베푸는 교화가 자재(自在)하여 일정한 방소(方所)와 일정한 방법(方法)이 없다는 뜻.

250) 구경(究竟) : 최상(最上)・필경(畢竟), 궁극(窮極)의 뜻. 지상(地上)의 오(悟),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경각이라 하고 성자(聖者)의 가장 높은 지위를 구경위(究竟位)라 한다.

제10절 금강삼매송金剛三昧頌[251]

(도피안到彼岸의 백십성수百十城數로 결구結句함.)

* 結句 : 詩. 文 등의 마지막 句

일체一切[252]의 모든 보살菩薩들이
장차 바른 깨달음正覺[253]에 오를 새
위로 지제地際(땅끝)를 다窮하고
아래로 금륜金輪에 의거한
주위가 백여보百餘步라 하신
금강金剛을 좌座[254] 한다 하시니
바른 깨달음正覺에 오른 자의 앉는 곳坐處이라
또한 이르되 도량道場[255]이라 하시고
처음 닦는初修 소승보리小乘菩提[256]나
중간에 닦는中修 중승보리中乘菩提[257]나

---

251) (金剛三昧) : 금강유정(金剛喩定) 금강정(金剛定)과 같음. (1)금강과 같이 일체 걸림이 없이 모든 법의 삼매를 통달한 것을 말함. (2)삼승(三乘)이 최후에 일체의 번뇌를 끊고 각각 구경의 과(果)를 증득한 삼매.

252) 일체(一切) : 살바(薩婆)의 번역. 만물의 전체. 곧 온갖 것·모든 것·원통의 뜻. 2종이 있다. 사물의 전체를 말할 때의 일체[全分의 一切]와 제한된 범위의 전부를 말하는 일체[少分의 一切].

253) 정각(正覺) : 부처님 10호(號)의 하나. 등정각(等正覺)의 준말. 부처님은 무루정지(無漏正智)를 얻어 만유의 실상(實相)을 깨달았으므로 정각이라 함.

254) 좌(座) : 앉을 만한 장소. 앉아있는 장소.

255) 도량(道場) : "도량"이라고 읽음. 또는 보리도량(菩提道場). 모든 불·보살이 성도(聖道)를 얻거나 또는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 중인도 마갈타국 니련선하 가의 보리수(菩堤樹) 아래는 석존의 도량.

256) 소승(小乘) : ↔대승(大乘). 승(乘)은 싣고 운반한다는 뜻. 사람을 태워 이상경(理想境)에 이르게 하는 교법. 이 교법 중에서 교(敎)·리(理)·행(行)·과(果)가 모두 심원(深遠) 광대하고 따라서 수행하는 이도 대기이근(大器利根)인 기류(機類)를 요하는 것을 대승이라 하고, 이에 반대되는 것을 소승이라 함. 소승에는 성문승·연각승 둘이 있다. (1)성문승(聲聞乘) : 4제(諦)의 이치를 관하여 성문의 4과(果)를 증득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을 교리로 함. (2)연각승(緣覺乘) : 12인연을 관하여 벽지불과(辟支佛果)에 이르는 것을 교체(敎體)로 함. 이것은 모두 회신멸지(灰身滅智)의 공적한 열반에 이르는 것을 최후 목적으로 여김.

257) 중승(中乘) : 연각승(緣覺乘)의 다른 이름. 이것은 삼승(三乘)의 중위(中位)에 있으므로 중승(中乘)이라 함. 『다론(多論)』 1에 「소승에서 얻은 것은 삼승(三乘)이 같이 알고 중승(中乘)에게 얻은 것은 이승(二乘)이 같이 알며 오직 불(佛)이 얻은 것은 이승(二乘)은 알지 못하고 불(佛)만 혼자 스스로 알 뿐이다」 하였고, 『법화문구(法華文句)』 4에 「사리불(身子) 가섭존자(迦葉) 등은 모두 중승(中乘)의 근성(根性)이다」 하였음. * 사리불을 신자(身子)라고도 함.

마지막에 닦는後修 대승보리大乘菩提나
삼승성자三乘聖者[258]의 마지막 마음末後心[259]이
금강삼매金剛三昧라 하셨으니
자리座란 입각立脚(근거)의 견처見處[260]요
삼매三昧[261]란 곧 바른 사유正思惟라
금강金剛을 보고 근거立脚하여
도의 이치道理를 사유思惟하라 하신
불세존佛世尊의 가르침敎勅일새
마음에 일어나고 소멸心生滅함이 소멸하여 마치면滅已
적멸寂滅의 즐거움이 되리라 하심寂滅爲樂[262]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다가銘佩
고요한 마음寂靜心 적처適處를 골라

---

258) (三乘) : (1)성문・연각・보살에 대한 세 가지 교법(敎法). 승(乘)은 물건을 실어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니, 부처님의 교법도 중생을 실어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데 비유. ①성문승(聲聞乘) : 4제(諦)의 법문이니, 부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관하여 해탈을 얻음. ②연각승(緣覺乘) : 12인연의 법문이니, 스승에게 가지 않고 스스로 잎이 피고 꽃이 지는 등의 이치를 관하여 깨닫는 것. ③보살승(菩薩乘) : 6바라밀의 법문이니, 보살은 이 법문에 의하여 스스로 해탈하고 남을 해탈케 하여 부처를 이룸. (2)3승법에 의하여 각기 수행을 마치고 얻은 성문과・연각과・보살과를 말함.

259) 말후(末後) : 최후와 같음. 구경(究竟)・필경(畢竟)・구극(究極),・지극(至極)의 뜻

260) 견처(見處) : (1)(틀린) 견해가 생기는 곳이라는 뜻. 유루법(有漏法)의 다른 이름. (2)보는 입장. 파악하고 있는바. 견식(見識). 견(見)은 견해・세계관이라는 뜻.

261) 삼매(三昧) : 구역舊譯)에서는 삼매(三昧)・삼마제(三摩提)・삼마제(三摩帝)라 하며 번역하여 정(定)・정수(正受)・조식정(調直定)・정심행처(正心行處)・식려응심(息慮凝心)이라 한다. 마음을 일처(一處)에 정(定)하여 움직이지 아니함으로 정(定)이라 함. 소관(所觀)하는 법(法)을 정수(正受)하였으므로 수(受)라 함. 심(心)의 사나움[暴]을 조어(調御)하며 마음이 굽은 것을 곧게 하며 마음이 흩어진 것을 안정시키므로 조직정(調直定)이라 하고, 정심(正心)의 행동이 법(法)의 의처(依處)에 합하므로 정심행처(正心行處)라 하며, 연려(緣慮)를 쉬게 하며 심념(心念)을 응결(凝結)시키므로 식려응심(息慮凝心)이라 함.『지도론(智度論)』5에「신심(善心)은 일처(一處)에 주(住)하여 부동(不動)하므로 삼매라 한다」하였고, 같은 책 28에「일체의 선정(禪定)을 또한 정(定)이라 하며 또한 삼매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책 20에「제행(諸行)이 화합한 것을 모두 삼매라 한다」하였고, 동(同) 23에「일체선정이 섭심(攝心)하는 것을 모두 삼마제라 한다. 번역하여 정심행처라 함. 이 마음은 무시세계(無始世界)로부터 와서 항상 굽고 단정치 못하나 이 정심행처(正心行處)를 얻으면 마음이 단직(端直)하여진다. 비유하면 뱀은 항상 굽게 가지만 죽간(竹簡) 가운데 들어가면 곧아진다」하였고,『지관(止觀)』2에「통칭삼매라 함은 곧게 조정하는 정(定)이다.『대론(大論』)에 이르기를 선심(善心)이 일처(一處)에 주(住)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을 삼매(三昧)라 한다」하였다.

262) 적멸위락(寂滅爲樂) : 적멸은 열반의 번역. 생멸 변화가 없는 적멸한 경지를, 생사 변천이 있는 미(迷)한 세계에 대하여 낙(樂)이라 한 것.

마음을 한 경계一境에 머무르면
일어나고 소멸하는 마음生滅心이 소멸해 버린
적멸寂滅의 허공虛空(空) 가운데서
허망妄인 검은 안개(風)만 일다가
약간一分의 밝음을 열어 얻은
이른바 명득정明得定이라는
난법상煖法相[263](火)을 얻은 뒤에
명증정明增定 모습相의 정위頂位인
가을 하늘秋天의 밝은 달과 같고
가벼운 안개 가운데輕霧中에 숨은 듯한
마음의 달心月(水)이 앞에 나타나니
애월삼매愛月三昧[264]의 대상對象이오
오상성신법五相成身法[265]에 있어

---

263) (煖位) : 4선근(四善根)의 하나. (1)소승에서는 내범(內凡)의 초위(初位). 외범(外凡)인 3현위(三賢位)의 다음에 바로 지혜를 증득하려고 준비하는 자리를 말한다. 난(煖)은 따뜻하다는 뜻으로 불에 가까이하면 따뜻함을 느끼는 것과 같이, 견도무루지화(見道無漏智火)의 전상(前相)으로 수승한 유루(有漏)의 4제관지(四諦觀智)가 일어나는 자리. (2)대승에서는 보살의 제10회향위(十廻向位)의 만심(滿心)에서 4선근위(四善根位)를 세운 것. 선정에 의하여 맨 처음의 4심사관(四尋伺觀)을 일으켜서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는 경계를 없다고 관찰하는 자리.

* 사가행위(四加行位) : 사선근위(四善根位)라고도 함. 보살의 계위(階位)인 5위(位)의 제2. 난(煖)·정(頂)·인(忍)·세제일(世第一). 이 4위는 10회향의 지위가 원만하여 다음 통달위(通達位)에 이르기 위하여 특히 애써서 수행하는 자리. 또 이를 순결택분(順決擇分)이라고도 한다.

264) 애월삼매(愛月三昧)[월애삼매(月愛三昧)] : 월애삼매로 추정『대지도론(大智度論)』에 있음. 달을 사랑할 때에 열뇌(熱惱)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 정광(淨光)을 놓아 중생의 탐(貪) 진(瞋)의 열뇌를 없애므로 월애삼매라고 한다.

265)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 : 밀교(密敎)의 관행(觀行). 오전성신(五轉成身)·오법성신(五法成身)이라고도 한다. 오상(五相)을 구비하고 본존(本尊)의 불신(佛身)을 행자(行者)의 현보(現寶)의 몸 위에 완성하는 것을 관(觀)하는 것. 삼밀관(三密觀)과 같이 금강계법(金剛界法)에 있어서 중요한 관행(觀行)으로, 삼밀관(三密觀)이 횡(橫으로 본존(本尊)과 행자(行者)가 서로 들어와 합하는 것을 관(觀)하는 데 대해서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은 종(縱)으로 오상(五相)의 순서를 관(觀)한다. 이것은 또 태장계(胎藏界)의 오륜성신관(五輪成身觀)에 상대한다. 오상(五相)은 순차로 대원경지(大圓鏡智)·평등성지(平等性智)·묘관찰지(妙觀察智)·성소작지(成所作智)·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의 오지(五智)에 배속되어 (1)통달보리심(通達菩提心)[(자기의 본성(本性) 곧 보리심(菩提心)을 이론상으로 깨달음)]. (2)수보리심(修菩提心)[(그것을 실증(實證)한다)]. (3)성금강심(成金剛心)[(본존(本尊)의 삼매야형(三昧耶形)을 관(觀)하여 광금강(廣金剛)과 감금강(斂金剛)의 양관(兩觀)에 의해서 자신과 제불(諸佛)간의 융통무애(融通無礙)한 것을 증득(證得)한다)]. (4)증금강신(證金剛身)[(행자(行者)의 몸이 곧바로 본존(本尊)의 삼매야신(三昧耶身)이 된다)]. (5)불신원만(佛身圓滿)[(관행(觀行)이 완성되어 바야흐로 나와 부처가 일치한다)]의 다섯이다.

첫 번째 보리심을 통달하는通達菩提心[266] 자리位라
넓히고 좁히고 자유자재自在인 인순정印順定[267]인
두 번째 보리심을 닦는修菩提心 자리位에서
세 번째 금강심金剛心을 이루는成 자리位라는
무간정無間定[268]에 들어갈새
무간정無間定에 들어갈 찰나刹那[269]에서
가장 귀한最貴 보랏빛 황금색紫磨金色인
마치 태양日輪 같기도 하고
고요하고 텅 빈寂寂寥寥 고요한 빛寂光[270]의
금강륜金剛輪[271](地)을 보고 증득見證할새
(몸에) 떨림動 가려움痒 가벼움輕 무거움重
서늘함冷 뜨거움煖 깔깔함澁 미끄러움滑의
여덟 가지 촉감八觸[272]들이 일어나면서

---

266) (菩提心) : 상세히 말하면, 아누다라삼먁삼보리심(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이라고 하며 무상정진도의(無上正眞道意)라 번역한다.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 무상도심(無上道心)·무상도의(無上道意)를 약칭하여 도심(道心)·도의(道意)·도념(道念)·각의(覺意)라고 한다. 불과(佛果)에 이르러 깨달음의 지혜(智慧)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말함. 이 마음을 일으켜 많은 수행(修行)을 쌓아 불과(佛果)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보살([菩薩 : 보리살타菩提薩)]은 반드시 처음부터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보리심(菩提心)을 나타내는 것을 발보리심(發菩提心)·발심(發心)·발의(發意)라 하고 처음으로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초발심(初發心)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보리심(菩提心)의 본체(本體)는 중생이 다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청정심성(淸淨心性)이라고도 하며 여러 가지 연(緣)에 따라 나타난다고 한다. 크게 나누어 구체적인 사상(事象)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수사발심隨事發心)]와 이치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순리발심順理發心)]가 있다. 또 보리심(菩提心)의 내용을 사홍서원(四弘誓願)이라고 한다.

267) 인순정(印順定) : 유식가(唯識家)에서 가행위(加行位) 4선근(四善根)의 체(體)로 세우는 4정(四定)의 하나. 인위(忍位)에 있어서 열(劣)한 여실지(如實智)를 일으켜 소취(所取)한 경(境)인 명(名)·의(義)·자성(自性)·차별(差別) 네 가지는 내 마음의 변한 바로서 가유실무(假有實無)한 것이라 인가(印可)하고, 또 능취(能取)의 식(識) 중에 있는 명·의·자성·차별도 공무(空無)한 것이라 인가(印可)하는 정(定).

268) 무간정(無間定) : 4정(四定)의 하나. 4선근위(四善根位) 중 세제일위(世第一位)에서 상품의 상여실지(上如實智)를 발하여 쌍으로 소취(所取)·능취(能取)의 공무(空無)한 것을 인가하는 것. 이로부터 바로 견도(見道)에 들어가 진리를 비춰 봄으로 무간정이라 한다.

269) 찰나(刹那) : 차나(叉拏)라고도 음역. 일념(一念)이라 번역. 지극히 짧은 시간을 말한다. 120찰나가 1달찰나(怛刹那), 60달찰나가 1납박(臘縛), 30납박이 1모호율다(牟呼栗多), 30모호율다가 1주야(晝夜)이므로 1주야인 24시간을 120×60×30×30으로 나눈 것이니, 곧 75분의 1초(秒)가 된다.

270) 적광(寂光) : 번뇌를 끊고 적정(寂靜)한 자리에서 발하는 진지광명(眞智光明).

271) 금강륜(金剛輪) : (1)땅 밑으로 160만 유순을 지나서 수륜(水輪)위에 있는 세계를 받든다는, 기(器)세계의 한 지층인 금륜(金輪). (2)석존이 성도할 때에 앉았던 금강좌. 이는 금강륜이 땅 위로 나타난 것이므로 이같이 말한다. →금강좌(金剛座). (3)금강의 법륜(法輪)이란 뜻. 진언밀교(眞言密敎)를 말한다. 밀교를 →금강승(金剛乘).

빔空 밝음明 선정定 지혜智 즐거움喜 기쁨樂
해탈解脫 좋은 마음善心 부드러움柔軟 경계가
어우러져相應 열 가지 공덕功德들이 일어나니
밀교密[273]의 금강보장金剛寶藏[274]이라
네 번째 금강의 몸을 이룬金剛身[275] 자리요
모든 승乘[276]의 네 번째 견지見地[277]니
중승中乘의 적멸寂滅을 증득하는 자리位며
보살승菩薩乘의 금강자리金剛座요
성문승聲聞乘의 예류과預流果[278]라

---

272) 팔촉(八觸) : 몸에 감촉이 있는 것을 촉(觸)이라 함. 선정(禪定)을 얻으려고 할 때 몸 가운데 여덟 가지 감촉이 생기는 것을 '팔촉'이라 함. ①동촉(動觸) :. 좌선할 때 조금 있으면 몸을 일으키려는 동난(動亂)의 상(象)이 생기는 것을 말함. ②양촉(痒觸) : 조금 있으면 몸이 가려워서 몸을 가누지 못할 것 같음. ③경촉(輕觸) : 몸의 가벼움이 구름이나 먼지 같아서 날아갈 듯한 감이 생기는 것. ④중촉(重觸) : 조금 있으면 몸이 무겁기가 대석(大石)과 같아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것. ⑤냉촉(冷觸) : 조금 있다가 몸이 물과 같이 찬 것, ⑥난촉(暖觸) : 몸이 뜨겁기가 불과 같은 것. ⑦삽촉(澁觸) : 몸이 나무껍질과 같은 것, ⑧활촉(滑觸) : 몸이 미끄럽기가 젖과 같은 것. 이 팔촉이 발생하는 원인을 상고(詳考)해보니. 초선정을 얻으려할 때 상계(上界)의 극미(極微)가 욕계의 극미(極微)에 들어와서 서로 바뀌면서 지(地)·수(水)·화(火)·풍(風)이 광란하여 이같이 발동하는 것. 이 법상(法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화닥닥 일어나며 두렵고 놀라서 나는 지금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치회(馳廻)함을 그치지 않고 혈도(血道)를 어지럽혀서 참으로 미쳐 버린다(이것은 『지관(止觀)』 9와 『지관(止觀)』 8에 동양(動痒)의 두 가지와 연추(軟麤)의 두 가지에 의한 것).

273) 밀(密) : 진언밀교(眞言密敎)의 해석에 의하면 장엄한 우주의 생명이란 뜻.
*밀교(密敎) : (1)비밀교(秘密敎)의 준말 불교의 교설(敎說) 중에 최고 심원(深遠)하여 그 경지에 도달한 자 이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뜻. (2)신(身)·구(口)·의(意)의 삼령역(三領域)이 청정하여 불(佛)과 평등하게 된 것. 불(佛)의 깨달음 자체를 말하는 것.

274) (金剛寶藏) : 대열반(大涅槃)과 중생심지(衆生心地)의 청정한 보리심을 모두 금강과 같이 견고한 보장(寶藏)에 비유한 말.

275) 금강신(金剛身) : 금강불괴(金剛不壞)의 법신. 즉 불신(佛身)을 말함.

276) 승(乘) : 실어서 운반한다는 뜻. 범어의 연나(衍那) 연(衍)의 번역. 사람을 실어 이상(理想)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교법. 이에 1승·2승·3승·4승·5승의 종류가 있다.

277) 견지(見地) : 삼승공십지(三乘共十地)의 하나. 견도(見道)의 제16심(心)인 도류지(道類智)를 얻는 위(位). 장교(藏敎)의 예류과(預流果)에 해당. 이 위(位)에서 3계(界)의 견혹을 끊어 없애고 무생(無生)의 4제리(四諦理)를 분명하게 보는 것이므로 견지라 한다.

278) 예류과(預流果) : 성문(聲聞) 4과(四果)의 하나. 범어로 수다원(須陀洹). 입류(入流)·역류(逆流)·예류(預流)라 번역. 초과(初果) 3계(三界)의 견혹(見惑)을 끊고 처음으로 무루도(無漏道)에 드는 지위. 견

앙산仰山과 도오화상道吾和尙이
당대當代 드문 일稀有이라 갈파喝破한
과상열반果上涅槃[279]이 이것이며
지자智者[280]대사가 말한 초견성初見性일새
처음 닦는 금강삼매金剛三昧란
자기 개성自己個性의 보리菩提요
중간에 닦는 금강륜삼매金剛輪三昧[281]란
일체중생一切衆生의 두루 비춤輪照이요
마지막에 닦는 여금강삼매如金剛三昧[282]란
금강金剛의 견고堅固함 같은
대승보살大乘菩薩의 깨달음菩提이요
다섯 번째 불신원만佛身[283]圓滿 자리位라
앞 세 자리位와 뒤 두 자리位를
간별하여揀別 나누어 가지런히分齊하나
속제俗諦 진제眞諦[284]가 한결같으며—如

(見道) 16심 중의 제16심. 이것은 수도위(修道位)의 처음으로 견도 수도의 두 가지를 갖춘 최초가 된다.

279) 과상(果上) : 수행하는 기간을 인위(因位)라 하고, 수행하는 공(功)에 의하여 얻어지는 지위(位)를 과지(果地)라 한다. 이 과지(果地)가 인위(因位)의 상(上)이 되므로 과상(果上)이라 한다.

280) 지자(智者)[천태(天台)][지의(智)] : 천태대사(天台大師) 지의(智顗)가 진왕에게 받은 호.

281) 금강륜삼매(金剛輪三昧) : 삼종(三種) 금강삼매(金剛三昧)의 하나. 선정(禪定)에 들어 모든 번뇌를 끊어 없앤 뒤 무학과(無學果)를 증(證)하는 선정. 이 선정은 무엇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온갖 번뇌를 끊어 없애는 것이 마치 금강(金剛)과 같으므로 이같이 말함. →금강삼매.

282) 여금강삼매(如金剛三昧) : 금강이 모든 사물을 관통하도록 지혜를 갖고 모든 제사상(諸事象)에 통달하는 삼매.

283) 불신(佛身) : 무상정각(無上正覺)을 증득한 불타(佛陀)의 신체(身體)를 말함. 이 가운데 법신(法身)·화신(化身)·응신(應身) 등의 분별이 있다. 이걸 모두 불신(佛身)이라 함.

284) 진속이제(眞俗二諦) : 진제와 속제. 제는 제리(諦理)니 변치 않는 진리. 이 2제론(二諦論)의 발달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그 근본은 원시불교로부터 진리의 표준이 되어 있는 사제(四諦), 곧 고와 집과 멸과 도 중에서 고와 집은 현재에 나타난 미(迷)한 세계의 사실이라 하여 속제라 하고, 진지(眞智)에 의하여 처음으로 알게 되는 진리인 멸을 진제라 한다. 또 도는 관찰하는 점이 다름에 따라 진과 속에 통한다. 그러나 2제를 이원적(二元的)으로 보아서 진제는 전혀 속제를 초월한 것인가, 또 일원적으로 보아서 진제만을 진으로 보느냐에, 1제의 양면으로 보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안으로 공한 마음內心空과 바깥 세계의 공外界空이
원통圓通[285]한 진공眞空 가운데에서
능조能造[286] 사대四大[287]의 지혜의 성품慧性과
소조所造인 사대四大의 지혜의 모습智相이
한 둥근 구슬一圓球이 되어 가지고
팔각八角의 금강그릇金剛盤에서
이것 저것彼此 없이 궁굴어야
진실로眞 이른바 금강삼매金剛三昧라
마음心과 물질物이 한결같으며一如
공空 가운데서 바람이 일어나고起風
바람 위에서風上 불이 일어나고起火
불 위에서火上 물이 일어나고起水
물 위에서水上 땅이 일어나니起地
내공內空[288]에서의 능조能造요
금륜金(剛)輪(原子核)소조所造[289]의 수륜水輪(陽核)은
삼음三陰 오양五陽 칠동七動이라
그의 7배인 풍륜風輪(電子)이
안으로 음양陰陽[290]의 불의 성품火性을 머금고

---

285) 원통(圓通) : 주원융통(周圓融通)하다는 뜻. 불・보살이 깨달은 경계.

286) 능조(能造) : 인(因)이 되어 만들어내는 것. 지(地)・수(水)・화(火)・풍(風) 사대(四大)는 모든 물체를 형성하므로 능조(能造)라고 일컬음.

287) (四大種) : 사대(四大)라고도 함. 물질계를 구성하는 4대원소(四大元素). 지(地)·수(水)·화(火)·풍(風). 대종이라 함은 체(體)・상(相)・용(用)이 모두 커서 물질계를 내는 원인이 되는 뜻. ①지대(地大) : 굳고 단단한(堅) 것을 성(性)으로 하고, 만물을 실을 수 있고 또 질애(質礙)하는 바탕. ②수대(水大) : 습윤(濕潤)을 성(性)으로 하고, 모든 물(物)을 포용(包容)하는 바탕. ③화대(火大) : 난(煖)을 성(性)으로 하고, 물(物)을 성숙(成熟)시키는 바탕. ④풍대(風大) : 동(動)을 성(性)으로 하고, 물(物)을 성장케 하는 바탕. 구사종(俱舍宗)에서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색(顯色)·형색(形色)을 가사대(假四大)라 하고, 사대에 의하여 된 것을 신근(身根)의 소촉(所觸)으로 하여 실사대(實四大)라 하며, 성실종(成實宗)・법상종(法相宗)에서는 지금의 사대도 가법(假法)이라 한다.

288) 내공(內空) : 18공(空)의 하나. 눈 귀・코・혀・몸・뜻의 6근(根)이 공함을 말한다. 6근은 인연에 따라 생긴 것이므로 필경에 공한 것이고, 실제의 자성은 없으므로 내공이라 한다.

289) 능조소조(能造所造) : 무엇을 창조하고 만드는 인(因). 주체를 능조(能造)라 하고 만들어진 피조물을 소조(所造)라 함. 『구사론(俱舍論)』 등에 나옴.

290) 음양(陰陽) : 역학에서 이르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상반된 성질을 가진 두 가지의 것.

움직이고 부림動用이 자재自在함일새
허공륜虛空輪(元素以下)에 능히 구르니能轉
이 기세간器世間[291] 이대로가
외공外空[292]인 허공세계虛空世界[293]라
오륜성신선혜도五輪成身禪慧圖의
네모진 모양方形(□)은 땅의 성품地性인 네모진 곳方所이요
원형圓形(○)은 식해識海[294](水)인 둥근 거울圓鏡이고
삼각형(△)은 번쩍이는 빛閃光的인
지혜智火[295]의 형상象相임과 동시에
원이삼점추형圓伊三點雛形[296]이며
반월형半月形( )은 인허隣虛의 바람이고
둥근형團形( )은 공상空相[297]을 향한 모습이라
둥근 마음圓心[298] 한 점一點으로 대신하고
오륜상五輪相을 종합綜合하여
이에 심인心印[299]을( ) 새로 지으니新作

해와 달, 낮과 밤, 물과 불, 여자와 남자.

291) (器世間) : 기세계(器世界). 중생을 포용(包容)하여 살게 하는 국토세계.

292) 외공(外空) : 18공(空)의 하나. 6근의 대경(對境)인 색(色) 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의 6경. 곧 객관의 사물은 다 파악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293) 허공세계(虛空世界) : (1)우리의 눈에 보이는 허공을 말한다. (2)진여(眞如)를 말한다. 빛도 없고 모양도 없으면서 일체만유를 온통 휩싸고 있는 것이 허공과 같으므로 이렇게도 이름.

294) 식해(識海) : 진여를 여래장식이라 칭하고 진여가 연(緣)에 따라 제사상(諸事象)을 일으키는 것이 바다의 물결에 비유되어지므로 식해라 함.

295) 지화(智火) : 지혜와 동일. 지혜가 번뇌를 태워버리는 것을 불에 비유해서 말함.

296) 원이삼점추형(圓伊三點雛形) : 이자삼점(伊字三點). 범서(梵書) 이자(伊字) (∴)의 형은 삼점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자삼점이라 한다. 그 배열하는 위치는 가로 서지도 세로로 서지도 않고 삼각관계를 이루었으므로 삼즉일(三卽一)·일즉삼(一卽三)·불일불이(不一不異)·비전비후(非前非後)를 말하는 데 비유『열반경(涅槃經)』에서는 법신·반야·해탈에 비유한다. 추형은 원모양을 줄여서 만든 본.

297) 공상(空相) : 온갖 법이 모두 공한 모양. 모든 법은 모두(죄다) 인연으로 생긴 것이므로 어느 것이고 그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제법(諸法)의 공상이라 한다.

298) 원심(圓心) : 완전 원만한 열반을 구하는 마음.

299) 심인(心印)) : 밀교에서『대일경(大日經)』의 소설(所說)을 말함. 심(心)은 정요(精要), 인(印)은 결정이라는 뜻. 이 신체상에 그대로 모든 부처님의 마음작용을 실현하는 것. 일체

금강령金剛鈴[300]의 뼈骨가 되고
자륜字輪[301] 또한 겸兼한지라
일승관一乘[302]觀의 대상對象일새
오륜五輪을 별도로 관찰別觀할 뿐 아니라
오지총관원도五智總觀原圖이니
지혜 있는 자智者는 스스로 증득自證 할진저.

1947년 설날 丁亥 元旦
벽산한인 지음 碧山閒人 作

의 부처님의 심(心)활동 그 자체. 부처님의 마음. 심(心)은 진여(眞如) 내지 진여의 깨달음을, 인(印)은 결정하는 것을 뜻함.

300) 금강령(金剛鈴) : 밀교에서 사용하는 법구의 하나. 또는 금령(禁令)이라고도 함. 제존(諸尊)을 경각시키고 또는 유정(有情)을 경계하기 위해 흔드는 방울을 말함.

301) (字輪) : 륜(輪)은 전생(轉生)의 뜻. 진언의 하나하나의 문자가 일자(一字)에서 부터 다자(多字)로 전생(轉生)한 것을 자륜이라 함.『대일경소(大日經疏)』14에「자륜이라는 것은 륜전(輪轉)에서 부터 제자(諸字)가 생한 것을 말한다.」륜(輪)은 생(生)의 뜻.

*자륜관(字輪觀) : 밀교에서 심장(心臟)인 심월륜(心月輪) 위에 글자를 자재하게 관하는 관법. 본존(本尊)의 의밀(意密)과 중생의 의밀이 일체무이(一體無二)라고 관하는 것. 먼저 법계정인(法界定印)이나 미타정인(彌陀定印)에 주(住)하여, 나의 심월륜 위에 아(阿)・바(縛)・라(羅)・하(賀)・카(佉)의 다섯 글자가 우(右)로 돌아간다 하고 명상(冥想)하여 아자(阿字) 제법본불생불가득(諸法本不生不可得)인 까닭에 바자(縛字) 자성언설불가득(自性言說不可得)이며, 바자 자성언설불가득이므로 라자(羅字) 진구불가득(塵垢不可得)이며, 라자 진구불가득이므로 하자(賀字) 인업불가득(因業不可得)이며, 하자 인업불가득이므로 카자(佉字) 등허공불가득(等虛空不可得)이라 순관(順觀)하고, 다음 카자 등허공불가득이므로 하자 인업불가득이며, 이렇게 하여 아자 제법본불생불가득이라 역관(逆觀)하여 드디어 아자 본불생의 이(理)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통관(通觀)이라 하며, 별관(別觀)이라 함은 본존의 소주(小呪)를 관하는 것과 본존의 종자를 관하는 것과, 제존(諸尊)의 범명(梵名)을 관하는 것이 있다.

302) 일승(一乘) : 모든 중생이 부처와 함께 성불한다는 석가모니의 교법. 일체(一切) 것이 모두 부처가 된다는 법문이다.

제11절 삼륜三輪[303]단공但空[304]송頌

* 번뇌煩惱 즉卽 보리菩提라 백팔百八로 결구結句함.

과거세過去世의 나한羅漢[305]들이
현대現代 과학가科學家로 태어나
비록 속세俗世에 머무르나處
낮晝과 밤夜을 가리지 아니하고不撤
석공析空(물질을 분석하는)하는 버릇이란
전생宿世부터 행업行業[306]이라
모든 물질物質을 파괴破壞하여
석공析空함에 종사從事할새
만상萬象은 곧 물체物體라
물체物體를 성분화成分化하고
성분成分을 분자화分子化하여
물질物質 조직組織을 알고자
또 원소元素로 분석分析하니
과학체계科學體系가 선지라
물리物理[307]의 원칙原則에 따라
그 법칙法則을 입론立論하며
다시 변칙變則을 설명說明하고자

---

303) (三輪) : 이 세계를 받치고 있는 세 가지의 기반. 금륜(金輪)·수륜(水輪)·풍륜(風輪)을 이른다.

304) 단공(但空) : 모든 사물에 공(空)의 도리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반면 동시에 불공(不空)의 도리가 아울러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단공(但空) 또는 편공(偏空)이라 하며, 공(空)과 동시에 불공(不空)의 이치가 있음을 깨닫는 것을 부단공(不但空) 또는 불가득공(不可得空)이라 한다. 곧 공(空)에 집착하는 것이 단공(但空)이며, 공(空)도 또한 불가득이라 하여 공(空)에 고집하지 않는 것이 부단공이다. 단공(但空)과 불가득공(不可得空)이라는 말은『지도론(智度論)』37에 있으며, 중국에서는 삼론종의 길장(吉藏)이 단공·부단공을 소승과 대승과의 교의상의 구분의 하나로 삼았다. 천태종에서도 공관(空觀)에 단공관(但空觀)과 부단공관(不但空觀)의 구별이 있다고 했다.

305) 나한(羅漢)[아라한(阿羅漢)] : 아라한(阿羅漢).

306) 행업(行業) : 고락의 과보를 받을 선악의 행위. 곧 몸·입·뜻으로 짓는 모든 행위이다.

307) 물리(物理) : (1)모든 사물의 이치. (2)사물에 대한 이해나 판단의 힘.

물리적物理的 원칙原則인 원인因과
화학적化學的 변칙變則인 결과緣[308]에
의존依存한 변증辨證[309]으로써
물질物質 불멸不滅을 말唱하여
과학만능科學萬能을 제일冠로 하자
몸에 이른 벌레에게
먹힌다는 사자獅子같이
과학대가科學大家의 가운데中에서
과학科學 자체自體 논란論難하여
부인론否認論을 주장提唱하고
사계斯界[310]의 의망疑網[311]을 해결解決함이
오래지 않아未久 출현出現함을 단언斷言하며
석공가析空家의 호기심好奇心인지
원소元素 다시 파괴破壞할새
형적形迹조차 찾지 못할
완공頑空[312]의 세계世界였구나
근본根本원소元素가 공空이라
물질세간物質世間 이대로가
허공세계虛空世界 그대로다
다시 이에 의외意外에도
전자電子 양핵陽核[313] 발견發見되니
허공륜虛空輪 위上에 풍륜세계風輪世界

---

308) (緣) : 원인을 도와 결과를 낳게 하는 작용.

309) 변증(辨證) : (1)직관 또는 경험에 의하지 않고,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을 연구함. (2)변론으로써 증명함.

310) 사계(斯界) : 이 도(道)의 사회. 어떠한 일에 관계되는 사회. 그 전문의 방면.

311) 의망(疑網) : 의심이 마음을 얽맴을 그물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312) 완공(頑空) : 겉은 단단하나 속은 비어 있는 것.

313) 양핵(陽核) : 양전기를 띤 핵이라는 뜻으로, '원자핵'을 이르는 말.

수륜세계水輪世界가 아닌가
원자핵原子核을 발견發見하고자
원자原子끼리 서로 치니相撲
위력威力만 보일 뿐으로
두 근원兩元이 함께 없어짐俱亡인지라
어허 풍륜風輪도 공空이요
수륜水輪도 공空일세 그려
전자電子의 집합체集合體로서
내內 우주宙 중앙中央의 태양太陽과
외外 우주宇 수성군水星[314]群 빛나는 무수한 별星霧과
서로 당기는互引 세력勢力의 중간中間인
지란地卵(卵 : 알 난)의 궤도지대軌道地帶를
중심中心으로 「코일[315]」삼아
지란地卵을 당기고引 회전廻走하는
풍륜風輪 동력動力의 월변月弁(달의 뾰죽한 부분?. 弁 : 고깔 변) 곧
지장보살地藏[316]菩薩 태에 머무르는處胎 사실事實
화신化身 모태母胎[317]인 월月이나
양핵陽核의 집합체集合體로서
화신化身 모복母腹(腹:배 복)인 일구日球나
가족家族같은 수성군水星群과

---

314) (水星) :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공전 주기는 87.98일, 자전 주기는 59일, 반지름은 2,439km, 질량은 지구의 18분의 1, 태양과의 평균 거리는 5,791만 km이다.

315) 코일(coil) : 나사 모양이나 원통꼴로 여러 번 감은 도선. 이것에 전류를 통하여 강한 전자기 마당을 만든다. 감줄・권선( )・회선.

316) 지장(地藏) : 지지(持地)・묘당(妙幢)・무변심(無邊心)으로 번역. 곧 지장보살로 통칭된다. 도리천에서 석존의 부촉을 받고 매일 새벽 항하사의 정(定)에 들어 중생의 갖가지 근기를 관찰하고 이불(二佛)의 중간인 무불(無佛)세계에서 육도중생을 교화하는 대비(大悲)보살이다. 안인(安忍) 부동(不動)하여 대지(大地)와 같으며, 정려(靜慮)・심밀(深密)하여 비장(秘藏)과 같으므로 지장(地藏)이라 이름했다고 한다.

317) 모태(母胎) : (1)어미의 태 안. (2)사물의 발생・발전의 근거가 되는 토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화성군火星群 기타其他 별자리星宿들
어느 가산집물家産什物이나
사바세계娑婆世界의 중생衆生은
모두無非 두 근본兩元의 결과果일새
자연自然 도태淘汰의 괴겁壞劫[318]엔
위력威力만 남길 뿐임을
현대인現代人이 예상豫想한다
108 번뇌煩惱에 영합迎合한
원소수元素數가 모두 공皆空일새
인연법因緣法도 실공實空[319]이라
이제는 적은 것을 돌려回小 큰 것으로 향할向大
시절인연時節因緣은 왔건만
원자핵原子核만 발견發見되면
흙으로以土 금을 이룬다고成金 꿈꾸나夢想
금륜金輪이란 욕심을 여읜 사람離欲漢의
청정淸淨 눈眼에 한정限한지라
이는 신통神通의 경계境界니
108의 수번뇌隨煩惱[320]들을
완전完全히 끊어 없애버릴斷盡진저
화성火星에 대對하여서는
지나간 일이라往事 말할 것 없거毋論니와

318) 겁(壞劫) : 사겁(四劫)의 하나. 세계가 파괴되는 기간. 즉 주겁(住劫)에서 공겁(空劫)에 이르는 이십 중겁(中劫)의 사이를 말함. 괴겁에는 유정괴(有情壞)와 외기괴(外器壞)의 두 가지가 있다. (1)유정괴 : 십구겁(劫) 동안 살던 생류, 곧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천상계에 살던 이들 중에서 가장 나쁜 지옥에 있던 이로부터 차례로 파멸되는 것. (2)외기괴 : 마지막 일중겁(一中劫)에 일곱 해가 나타나 큰 불을 일으켜 먼저 지옥에서부터 색계 초선천까지를 태워버리고, 다음은 큰물로써 색계 이선천(二禪天) 이하를 떠내려 보내고, 다음엔 큰 바람을 일으켜 색계 제삼선천(第三禪天) 이하를 불어 없애는 것을 말함.

319) 실공( ) :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실공(實空)이라 한다.

320) 수번뇌(隨煩惱) [수혹(隨惑)] : 수혹(隨惑)이라고도 한다. (1)마음의 향방에 따라 유정(有情)을 교란시키는 일체의 번뇌를 말함 (2)근본번뇌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번뇌[枝末煩惱]를 말함.

기타其他 별자리星宿 여행旅行도
이런 되풀이에 불과하지 않을까
또 무색無色의 투명체透明體인
태양太陽 일구日球에 대對하여
외색外色을 발견發見하고자 하는
쓸데없는「스펙트럼[321](spectrum)」도
취하지 말라莫取 크게 피해야 할 것大禁物이니
7색七色[322]은 지륜계地輪界 내內의
부동浮動된 잡색雜色들이오
일구日球가 빛의 근원이 아니며非光源
또는 열의 근원熱源도 아니라
지란地卵이 냉열冷熱 합성合成의
두 근원兩元으로 되었을 새
태양太陽 수체水體를 대對하면
전열광電熱光이 스스로 발自發하고
월변月弁 화체火體를 대對하면
양냉광陽冷光이 스스로 발自發하여
지地의 반경半徑을 연장延長한
지륜地輪이란 경계선界線에서
휘어屈折[323] 전반사全反射[324]하거니
7요七曜[325] 어느 별자리星宿든지

---

321) (spectrum) : 가시광선 자외선·적외선 따위가 분광기로 분해되었을 때의 성분.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다르므로 분산을 일으키는데, 이것들은 파장의 순서로 배열된다.

322) 칠색(七色) : 태양광을 스펙트럼으로 나눌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빛깔. 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남빛·보라를 이른다.

323) 굴절(屈折) : 광파, 음파, 수파 따위가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들어갈 때 경계면에서 그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

324) 전반사(全反射) :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굴절할 때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굴절하지 아니하고 전부 반사되는 현상. 온반사·전체 반사.

325) 칠요(七曜) : 일(日)·월(月)과 화(火)·수(水)·목(木)·금(金)·토(土)의 오성(五星)을 말한다. 곧

자기自己 발광發光의 광량光量은
지륜地輪같이 탈선脫線을 허락하지 아니하며不許
벗어나면脫 허공虛空 사칠似漆(似 : 같을 사, 漆:검을 칠)임.
세세世世 생생生生의 소승小乘인
삼륜三輪의 단공但空을 떠나
금강륜金剛輪의 부단공不但空[326]인
대승문大乘門에 들지어다.

1947년丁亥 음력 정월 초이레人日 벽산한인碧山閒人 작作

(五曜)에 일정(: 태양)·월정(月精)을 더한 것.

326) 부단공(不但空) : 필경공(畢竟空)·무소득공(無所得空)이라고도 한다. 유(有)를 인정치 않은 공(空)을 단공(但空)이라 함에 대하여, 그 공(空) 역시 공(空)하다는 절대 부정(否定)의 공을 부단공(不但空)이라 한다.

제12절　관음자륜송觀音字輪頌

* 백사십百四十의 불공법수不共法[327]數로 결구結句함.

사바세계娑婆世界는 음성불사音聲佛事라
중생衆生의 음성音聲을 관찰觀察하되
먼저 탐貪·진嗔·치痴를 감별鑑別하고
그 성품을 이끌어引其性 다스릴지니導之
육무위六無爲[328]의 81 사혹思惑[329]을
훈민정음正音의 증보增補 글자 수字數 87
관음자륜觀音字輪이 대치對治함일세
만법萬法이 근경根境[330]일 따름而已인지라
심소유법心所有法[331]이 46이니
근음根音 법수法數도 46이라

---

327) (　　) : 자세하게는 불공불법(不共佛法)이라고 한다. 공통이 아닌 공덕법의 뜻. 불타나 보살에게만 갖추어져 있고 범부나 이승(二乘)에게는 갖추어져 있지 않는 훌륭한 특질을 말함. 일반적으로 불타의 십력(十力)과 불타의 사무소외(四無所畏)와 불타의 삼념주(三念住)와 불타의 대비(大悲)를 합해서 십팔불공불법(十八不共佛法)이라고 한다.

328) 육무위(六無爲) : 유식종(唯識宗)에서 무위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설(假說)로 6종의 이름을 세움. ①허공무위(虛空無爲) : 걸림 없음을 성품으로 하여 다른 것을 장애하거나 다른 것에 장애됨이 없어 허공·공간과 같은 무위. ②택멸무위(擇滅無爲) : 지혜로 간택(簡擇)·판정(判定)하는 힘에 따라 얻는 무위. ③비택멸무위(非擇滅無爲) : 지혜의 힘에 의하지 않고, 생길 인연이 없어서 나타나는 무위. ④부동무위(不動無爲) : 제4선(禪)에 들어가서 선정의 장애를 여의고 얻는 무위. ⑤상수멸무위(想受滅無爲) : 멸진정(滅盡定)에 들어 상(想)과 수(受)를 멸한 곳에 나타나는 무위.　진여무위(眞如無爲) : 진여가 곧 무위임을 말한다.

329) 사혹(思惑) : 수혹(修惑)이라고도 하며, 사물(事物)의 차별적인 진상(眞相)을 알지 못하므로 일어나는 번뇌.

330) 근경(根境) : 또는 근진(根塵). 육근(六根)·육경(六境), 또는 십이처(十二處)·십이입(十二入)이라 함.

331) 심소유법(心所有法) :　심소(心所). 심수(心數)라고도 번역하여 심(心)에 속한 것이란 뜻. 자세히는 심소유법(心所有法)·심소법(心所法)·심수법(心數法)이라 함. 5위(五位)의 하나. 심(心)과 상응(相應)하여 심(心)과 동시에 존재하고 심(心)에 종속하는 가지가지의 정신 작용을 말함. 심소(心所)는 심(心)을 따라다니므로 심소(心所)에 대해 심(心)을 심왕(心王)이라고도 한다. 심왕(心王)과 심소(心所)와의 사이에는 오의평등(五義平等)의 의미가 있어「상응(相應)」의 관계가 있다. 이런 까닭에 심소(心所)를 상응법(相應法)·심상응법(心相應法)이라고도 일컫는다. 또 심왕(心王)을 떠나서 별도로 심소(心所)의 체(體)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유부(有部)에서 별체설(別體說)을 주장하고 있다.

눈眼 귀耳 비鼻 혀舌 몸身 생각意 육식음六識音인
ㅏ(아) ㅓ(어) ㅗ(오) ㅜ(우) ㅡ(으) ㅣ(이)가 시초始로서
미혹과 깨달음迷悟 사이間의 보고 들음見聞이 같음이라一也
안이眼耳 주음主音이 각各 하나一씩이오
탐貪·진嗔·치痴의 비설鼻舌이 같을새同
비설鼻舌 주음主音이 각各 삼三씩이며
극미極微도 20 사구성事俱成일새
신주음身主音이 20을 이루고成
의주음意主音에 의한 수依數[332]가 6六이라
호용互用[333]음音의 정수正數도 육六이오
깨달은 이의悟人 분경分境이 41四十一일새
정正인 경음境音도 41四十一이라
일왈一曰 11의 색경음色境音이니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꼭지 이응) ㅈ(지읒) ㅎ(히읗)
ㅇ(이응)이라 오근五根[334] 오진五塵[335]에 무표無表요
오근五根이 오진五塵에 대對해 일으키는 탐음貪音은
ㄲ(쌍기역) ㄸ(쌍디귿)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병음竝音이 이것是이며
ㆆ(히읗)음音이 근본根本의 진음嗔音이라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4진음四嗔音이 이것是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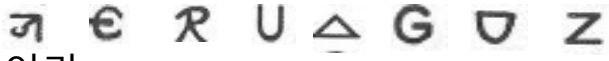
332) (依數) : 일정한 수(數)대로 함.

333) 호용(互用) : 서로 넘나들면서 이쪽으로도 쓰고 저쪽으로도 씀.

334) 오근(五根) : 다섯의 뿌리. 근(根)이라 함은 훌륭한 작용이 있다[이것을 증상(增上)]이라고 한다)는 뜻.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 오근(五根).

335) 오진(五塵) : (1)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인 다섯 가지 대상. 인간(人間)의 본성(本性)을 더럽히므로 진(塵)이라 한다. (2)수론(數論)학파에서 주장하는 오유(五唯)와 같다. (3)수론(數論)학파에서 주장하는 오종(五種)의 대상. 발성(發聲)기관을 제외한 다른 네 가지 기관[수(手)·족(足)·배설(排泄)기관·생식(生殖기관)]은 음(音)·촉(觸)·색(色)·미(味)·향(香)의 다섯 가지 대상(對象)에 관계가 있다.

색음色音의 반 또는半又 간음間音[336]이 치痴니



이라

팔식八識 수數의 8치음痴音이 이것是이며

그리고 5탐五貪 종음終音 외外에도

다시 7극七極 반수返數 중종음重終音인

들이요

하나로 합치는歸一[337] 일체一竝의 마지막 소리終音인 라

소리의 한줄기一條 종소리鐘聲란

중생衆生 계몽啓蒙의 대방편大方便일새

종소리의 울림一音響에는 삼신三身을 겸兼하니

종소리 시작音始 직전直前과 종소리가 끝난音終 직후直後에는

허공虛空과 같은等 법신경계法身境요

천만율동千萬律動은 화신경계化身境이며

처음과 끝始終을 통通함은 보신경계報身境임

먼저 법신경계法身境에 안주安住하여

보신 화신報化의 경계境를 간별揀別할지라

『연명십구관음경延命十句觀音經』[338]에서 일러 말하되云曰

관세음觀世音하고 나무불南無佛하라

본래本來부터 부처님佛과 인因이 있고

부처님佛과 연緣이 있는 중생衆生일새

불법승佛法僧에 인연緣있는 것이 곧

상락아常樂我[339]의 정연淨緣 사덕四德이니

---

336) (間音) : 한 단어 또는 한 어절 안의 두 모음이 상호 동화하여 변한 음.

337) 귀일(歸一) : (1)여러 갈래로 나뉘거나 갈린 것이 하나로 합쳐짐. (2)여러 가지 현상이 한 가지 결말이나 결과로 돌아감.

338) 연명관음(延命觀音) : 33관음의 하나. 『보타락해회궤(補陀落海會軌)』에 「정상(頂上)에 대보관(大寶冠)이 있고 그 가운데 불신(佛身)이 주(住)하는데 신상(身相)은 심황색(深黃色)이며 자비유연상(慈悲柔 相)이고 구세(救世)의 20개의 팔로 군생류(群生類)를 인도 한다」고 하였음.

아침朝으로 관세음觀世音을 염念하고
저녁暮으로 관세음觀世音을 염念하면
염念과 염念이 마음心에서 일어나起
염念과 염念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不離心
관자재세음觀自在世音의 보살菩薩이란
자재세음自在世音을 능히能 관찰觀察하고
능能(주체)과 소所(객체)가 없어야無
부처님께 귀의歸依佛하는 것이니
능能(나와)과 소所(너)가 있으면有 즉시卽是 중생衆生일새
스스로自作 범부凡夫라 지음이라
중생과 부처生佛가 한결같으니一如
바로 삼보三寶에 귀의歸依할지라
출가出家에는 4종류種別가 있으니有
마음과 몸心身이 함께 출가俱出家하는 것이 1이요
마음은 출가하고心出家 몸身은 출가하지 않음不出家이 2며
몸은 출가하고身出家 마음心은 출가하지 않음不出家이 3이고
마음과 몸心身이 모두俱 출가하지 않음이不出家 4라
110구百十句의 금강삼매송金剛三昧頌은
먼저 견혹見惑[340]을 모두 끊은斷盡 후後에
사혹思惑[341]을 모두 끊을斷盡 준비準備일새
점수漸修의 위수位數가 55라
각위各位의 입출入出이 각각 있으니各有
도피안到彼岸에 110의 성수城數라

---

339) 상락아정(常樂我淨) : 열반(涅槃)의 사덕(四德). 즉 열반(涅槃)의 경지(境地)는 생멸(生滅) 변천(變遷)함이 없음을 뜻하는 상(常)과 괴로움을 떠나서 무위(無爲) 안락(安樂)한 것을 뜻하는 낙(樂), 자재무애인 진아(眞我)와 번뇌(煩惱)의 더러움을 여의어 잠연청정을 뜻하는 정(淨)의 네 가지.

340) 견혹(見惑) : 사제(四諦)를 명료하게 주시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번뇌.

341) 사혹(思惑) : 사물(事物)의 차별적인 진상(眞相)을 알지 못하여 생기는 번뇌.

신해행증信解行證 사만성불四滿成佛이오
108구百八句의 삼륜三輪 단공송但空頌은
먼저 단공但空의 경계界를 여의라는離
과학科學 만능시대萬能時代의 경책警策이라
이에 의지하여依此 깨달음에 들어가면入道 다행多幸이오
본문本文의 관음觀音 자륜송字輪頌이란
견혹見惑을 끊는斷 후득지後得智[342]로써
사혹思惑을 끊게斷하는 방편方便이라
오직 부처님唯佛 한 분이一人 홀로 수행하시고獨行
중생衆生과 더불어 수행하지 않는不共行 법法
140법百四十法에 입각立脚함으로써
중생제도衆生濟度의 방편方便인 동시同時에
수도修道에도 역시 필요必要하나니
중생衆生 몸 가운데로身中 흘러 들어가면서도流注
중생衆生 몸身에 염오染汚되지 않는
불성佛性 곧 진실아眞實我인 자아自我가
세간世間의 자재음自在音을 관찰觀察하고
그 근본을其本 돌아보는還 것이 부처님佛이라
이와 같이如此 수행修行하여서 견혹見惑[343]을
문득 끊고頓斷 물들었던染 사혹思惑[344]을
점점 끊는漸斷 것이 수도修道일새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6무위행六無爲行
전오前五 30에 무착無着 무상無相인

---

342) (後得智) : 여량지(如量智)・권지(權智)・속지(俗智). 근본지(根本智)에 의하여 진리를 깨달은 뒤에, 다시 분별하는 얕은 지혜를 일으켜서 의타기성(依他起性)의 속사(俗事)를 아는 지혜. 즉 불타가 대비를 일으켜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후득지다.

343) 견혹(見惑) : 불도(佛道)를 수행(修行)하는 가운데 우선(于先) 사제의 이치(理致)를 깨달음으로써 없어지는 번뇌(煩惱).

344) 사혹(思惑) : 사물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여 생기는 번뇌.

청정淸淨 무구無垢의 32상相과
10은 만수滿數라 물들은 마음染識의 정화淨化요
원만圓滿인 80 종호種好인지라
몸身·인연緣·마음心·지혜智의 네 가지가 청정淨하여야
법력法力이 만족滿足한 십력十力[345]일새
설진고도說盡苦道[346] 설장도說障道[347] 누진漏盡[348]의
일체지一切智[349]인 사무외四無畏[350]이시니

---

345) (十力) : 여래만이 갖춘 10종의 지력(智力). ①처비처지력(處非處智力) : 여실(如實)히 모든 리(理)와 비리(非理)를 아는 힘. ②업이숙지력(業異熟智力) : 여실히 삼세의 업(業)과 그 보(報)의 인과(因果)관계를 아는 힘. ③정려해탈등지등지지력(精慮解脫等持等至智力) : 여실히 모든 선정이나 삼매의 순서나 천심(淺深)을 아는 힘. ④근상하지력(根上下智力) : 여실히 중생의 능력이나 성질의 승열(勝劣) 등을 아는 힘. ⑤종종승해지력(種種勝解智力) : 여실히 중생의 요해(了解)단정(斷定)을 아는 힘. ⑥종종계지력(種種界智力) : 여실히 중생의 소성(素性)·소질(素質)이나 그 행위 등을 아는 힘. ⑦편취행지력(遍趣行智力) : 여실히 인천(人天) 등의 모든 세계에 태어나는 행(行)의 인과를 아는 힘. ⑧숙주수념지력(宿住隨念智力) : 여실히 과거세의 여러 가지의 일을 기억해 내어 다 아는 힘. ⑨사생지력(死生智力) : 여실히 천안(天眼)을 가지고 중생의 사생(死生)의 때나 미래생의 선악의 세계 등을 아는 힘. ⑩누진지력(漏盡智力) : 스스로 모든 번뇌가 다하여 다음의 생존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번뇌를 끊는 것을 틀림없이 아는 힘.

346) 고도(苦道) : 삼도(三道)의 하나 혹(惑)·업(業)·고(苦)가 서로 통하여 혹은 업을 일으키고 업은 고를 일으키며, 고는 다시 혹을 일으키므로 고도(苦道)라고 한다. 즉 삼계·육도의 중생이 고과(苦果)를 받는 것.

347) 장도(障道) : 불도 수행을 방해 하는 것.

348) 누진(漏盡) : 범인(凡人)이 6근문(根門)에서 번뇌를 누설(漏泄)하므로 번뇌를 누(漏)라 하고, 삼승(三乘)의 극과(極果)에 이르러 성지(聖智)로써 이 번뇌를 끊으므로 누진(漏盡)이라 한다.

349) 일체지(一切智) : 도종지(道種智). 일체종지(一切種智)·살바야(薩婆若)라 음역하고 그 지혜의 깊고 넓은 것을 바다에 비유해서 살바야해(海)라고도 한다. 모든 존재에 관하여 해괄적(該括的)으로 아는 지혜가 일체지(一切智)이고,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도(道)의 종별(種別)을 다 아는 지혜가 도종지(道種智)이고, 모든 존재에 관해서 평등의 상에 즉하여 차별의 상을 다시 정세(精細)하게 아는 지혜가 일체종지로서 각기 성문 및 연각·보살불의 지혜로 한다.

350) 사무외(四無畏) : 무외(無畏)는 설법함에 있어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뜻. 여기에 4가지가 있어 사무외(四無畏)라 하고, 사무소외(四無所畏)라고도 함. (1)불의 사무소외(四無所畏) ①제법현등각무외(諸法現等覺無畏)·일체지무소외(一切智無所畏)·정등각무외(正等覺無畏)라고도 한다. 나는 일체법을 각증(覺證)했다」고 하는 두려움이 없는 자신. ②일체누진지무소외(一切漏盡智無所畏)·누영진무외(漏永盡無畏)·누진무소외(漏盡無所畏)라고도 하며 「일체의 번뇌를 아주 끊었다」고 하는 두려움이 없는 자신. ③장법불허결정(障法不虛決定)·수기무외(授記無畏)·설장법무외(說障法無畏)·설장도무소외(說障道無所畏)라 하여 「수행에 장애되는 것은 이미 다 설하였다」고 하는 두려움 없는 자신. ④위증일체구족출도여성무외(爲證一切具足出道如性無畏)·설출도무외(說出道無畏)·설진고도무소외(說盡苦道無所畏)라 하여 「고계(苦界)의 미망의 세계에서 벗어나 해탈에 들어가는 길을 설하였다」고 하는 두려움 없는 자신. (2)보살의 사무소외(四無所畏) ①능지무소외(能持無所畏) : 설법을 잘 기억하여 잊지 않고 뜻을 설함에 두려움 없는 자신. ②지근무소외(知根無所畏) : 중생의 근기를 알고 그에 맞춰 적절히 설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는 자신. ③결의무소외(決疑無所畏) : 중생의 의문을 해결하는 데 두려움 없는 자신. ④답보무소외(答報無所畏) : 모든 물음에 대해 자유자

삼업三業을 허물없이不失 막아 지키는防護 삼불호三不護[351]와
일체一切의 번뇌煩惱 습기習를 끊고斷
분별하지 않음으로써無謀 항상常 잊어버리지 않을새不忘失
방일하지 않음不放逸과 희열하지 않음不喜의 사심捨心[352]인
삼념처三念處[353]로써 갑옷과 투구甲冑를 삼아
일체중생一切衆生을 구제救濟하고자
불굴不屈의 대비원력大悲願力을 갖고
일체종지一切種智로 돌진突進하시니
140수百四十數의 불공법不共法이라
그리고 서자西字를 상징象徵하니
자형字形들과 그의 의의意義들을
종합綜合한 통일統一의 관觀이 있어
바야흐로方 가히 이르자면可謂之 세계적世界的 문자文字라
표음表音[354] 표의表意[355]의 겸용兼用이 되어
만방萬邦의 어음語音은 물론勿論이요
곤충昆蟲과及 자연계自然界의 소리도
모두 다 기록記錄할 수 있으며
각各 어족語族과 개별적個別的 어조語調와
짐승禽獸의 소리라도 들으면
그 성질性質을 감별鑑別하게 되니

대답할 수 있어 두려움 없는 자신.

351) 삼불호(三不護) : 여래의 신(身)·구(口)·의(意)의 삼업(三業)은 청정하여 과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알지 못하게 감추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 바로 신불호(身不護)·어불호(語不護)·의불호(意不護)요 이것을 여래의 삼불호라고 한다.

352) 사심(捨心) : 사무량심(四無量心)의 하나. 무탐(無貪)을 체(體)로 하여 중생을 평등하게 보아 원(怨)·친(親)의 구별을 두지 않으려는 마음. 일체를 버리고 착념(着念)이 없는 것.

353) 삼념처(三念處) : 훼(毁)·예(譽)(칭찬하고 헐뜯는 것)에 동요함이 없는 불타(佛陀)의 평정(平靜)을 세 가지로 나눈 것. 바로 초념처(初念處)(住)·제이념처(第二念處)(住)·제삼념처(第三念處)(住)다.

354) 표음(表音) : 문자나 부호로 소리를 나타내는 일.

355) 표의(表意) : 문자나 부호로 뜻을 나타내는 일.

탐심貪心이 많은多 조류鳥類에게 탐음貪音이 많음多과
맹수猛獸의 근본本 진음嗔音인 ㅎ(히읗) 소리가 많음과音多
충류蟲類의 치음痴音이 많음多을 보고
소위所謂 약소민弱少民들 색음色音이 많음多과
재물財物 인색가吝嗇家들 탐음貪音이 많음多과
호투好鬪 예시가睨視家들 진음嗔音이 많음多과
투기投機 선정가善政家들 치음痴音이 많음多을
관찰觀察하여 참작參酌할지라
현재現下 만국萬國의 상호간交互 통화通話도
그리고 세종世宗이 사람을 보내어送人
명나라明國 *몽운학자蒙韻學者 황찬黃瓚[356]에게
음音을 문의問하심을 보면 알 것이다
근경根境 화합和合의 관음觀音 글자 수字數가
54,096이 되니
탐심貪心이 많은 사람은多人 부정관不淨觀이요
진심嗔心이 많은 사람은多人 자비관慈悲觀이며
치심痴心이 많은 사람은多人 인연관因緣觀일새
그 성품을其性 확인認하고 스스로 제도自度할진저

1947년丁亥 대보름날上元 벽산한인碧山閒人 작作

356) (黃瓚) : 요동(遼東)에 귀양 왔던 명(明)나라 초엽(初葉)의 한림학사(翰林學士)・음운학자(音韻學者). 조선(朝鮮) 4대(代) 임금 세종(世宗)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創製)할 때에 음운(音韻)을 묻기 위(爲)하여 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 등(等)으로 하여금 13차례(次例)나 그를 방문하게 하였음.

* 몽운학자(蒙韻學者)는 아마도 음운학자(音韻學者)로 추정.

제3장 관음문자觀音文字

제1절 관음문자觀音文字 공포公布 취지문趣旨文 한자漢字 폐지설廢止說에 대對한 관견管見[357]

한문자漢文字가 수입輸入된 이래以來 동방東方 문화사상文化史上에 획기적劃期的 사실事實을 주어 곧 조선朝鮮 문자화文字化한지라, 이를 폐지廢止함은 곧 조선문화朝鮮文化의 반감半減일새, 반드시 준비準備가 있고 포용包容이 있어 보다 더 진전進展된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할지라. 필자筆者가 감敢히 이에 유의留意하고 30여 년간의 연찬硏鑽[358]을 거듭하여 이르자면, 동서문자東西文字를 통일統一한 글자 모양字形과 의의意義를 깊이 연구考究하여 표음表音·표의表意를 함께 갖추고雙具 사성四聲[359]을 겸비兼備한 훈민정음訓民正音 본래의 기능本能을 발휘發揮하여 『증보정음增補正音 관음문자觀音文字』라 신제新題하고, 다시 새롭게更新 역경譯經 일례一例와 저서著書 일례一例를 예시 들어 보여준擧示 별도別途의 그 결정結晶안 『일인전一人傳에 일인도一人度』라고 함을 공포公布하오니, 뜻이 있는 분들諸彦[360]은 깊이 음미吟味하신 후後 더구나 국민國民의 정신함양精神涵養에 상응相應됨을 기대企待하옵고 이만 그침.

불기佛紀 2657년 1947년丁亥 2월 8일

장성長城 백양산白羊山 운문도량雲門道場 법주法主[361] 석금타釋金陀

---

357) (管見) : 대롱 구멍으로 사물을 본다는 뜻으로, 좁은 소견이나 자기의 소견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358) 연찬(硏鑽) : 학문 따위를 깊이 연구함.

359) 사성(四聲) : 훈민정음에서, 중세 국어의 성조를 중국의 전통적 술어인 평성·상성·거성·입성을 그대로 적용하여 네 종류로 나눈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글자 왼쪽 곁에 사성을 표기함.

360) 제언(諸彦) : 여러 점잖은 분들. 제군자 제언(諸彦).

361) 법주(法主) : 불법을 잘 알아서 어떤 불사(佛事)나 회상(會上)에 높은 어른으로 추대된 이를 가리킨다.

서序

국어표준國語標準이 없이無 그대로 수천년數千年동안 각各 지방어地方語가 혼화混和하여 반자연적半自然的 국어화國語化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未免 내적內的으로 지방地方의 「ᄉᆞ(사)투리」가 변함없이仍然 따를 새附隨 동일同一 어족語族 중中에서 각各 지방적地方的 분파分派가 생기어生 세음細音[362]이 되어 독립적獨立的 국어國語 통일統一이 되지않은 이유로末由 천여 년 간千餘年間 한문漢文에 중독中毒되어

중국식中國式의 영웅풍英雄風에 의지한伴 「졈쟌(점잔)」만 늘 뿐 아니라 간음間音[363]이 많은 원음原音을 따르고자 하나 정음적正音的 천성天性을 어기지 못함이라未逆 본本 국문國文이 실제實際에 있어 대중층大衆層의 발음發音 가능可能인 「극는듣를」 독법讀法이 내재內在함에 따라할隨從 뿐으로서 졈쟌(점잔)할수록

상자上字 음독音讀에는 능能하나 학자學者라야 가능可能할 「긱닌딛릴」 독법讀法이 불능不能하여 하자下字 음독音讀에는 미달未達한 불규칙不規則의 언어言語 그대로 행세行世하다가 일정日政의 포학暴虐을 입어 소학小學부터 「ᄀᆞᄂᆞᄃᆞᄅᆞ」 횡렬橫列 자음字音이 폐지廢止되므로 직접적直接的 간접적間接的으로 물러나고 위축되어退縮 스스로 없어져自沒 말의 소리語音가 반이나 없어지게半失 되었을새.

가급적可及的 이를 충당充當코자 일一은 간접間接의 한자漢字에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고還本 이二는 「긱닌딛릴」 독법讀法의 학자學者에 호소訴하여 「ㅣㅡ」의 합중음合中音인 「十」의 중심점中心

362) (細音) : 발음 할 때 구강의 공명이 비교적 작은 개음(i)이 들어가는 소리.

363) 간음(間音) : 한 단어 또는 한 어절 안의 두 모음이 상호 동화 하여 변한 음.

點 「、(아래아)」를 사색査索하고, 사문난적斯文亂賊[364] 저술所述이 풍속이 되어버린成俗 국문독법國文讀法을 폐지廢止하여 「、(아래아)」 음音을 찾는 동시同時에 스스로 없어짐自沒을 방지防止하며,

폐지廢止 된지 이미 오래된已久「 ᄀᆡ ᄂᆡ ᄃᆡ ᄅᆡ 」 등等은 부득이不得已 「개내대래」 등等으로 대신代하여 유공인有功人 소저所著 『자전석요字典釋要』[365]에 근거憑據하되 한 점一點을 더加하고 혹或 두 점二點을 더加하는 등等의 부호符號란 문자文字의 자격資格을 불허不許하는 모욕侮辱일새

의주음意主音과 신주음身主音으로써 상성上과 거성去(四聲 중에서) 두 성二聲 외外 예성曳聲을(曳:끌 예) 조절調節하여 반상형적半像形的 자형字形과 처음初 가운데中 끝終의 음의音義를 관찰觀察하는 학자적學者的 고구考究[366]에 호소한訴 『관음문자觀音文字』 하나의 소책자小冊子가 곧 국어독본國語讀本이오니 뜻이 있는 분들은有志諸彦 살펴 헤아려諒下주소서

1947년丁亥 음력 2월仲春[367] 상순上浣[368]
벽산한인碧山閒人 석금타釋金陀 삼가 기록함謹誌

364) 사문난적(斯文亂賊) : 성리학에서, 교리를 어지럽히고 사상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365) (字典釋要) : 조선 융희(隆熙) 3년(1909)에 지석영이 펴낸 자전(字典). 글자의 소리와 뜻을 한글로 달고, 책 끝에 그림을 많이 넣어 한자로 풀이하였다. 1책의 인본(印本).

366) 고구(考究) : 자세히 연구함.

367) 중춘(仲春) : 봄이 한창인 때라는 뜻으로, 음력 2월을 달리 이르는 말.

368) 상완(上浣) : 상순(上旬).

제2절 부화음게父和音偈 모애음게母愛音偈

1. 부화음게父和音偈

ㅏ(아)란 시선視線 주어 아我를
표시表示하는 안식眼識이요
ㅓ(어)란 청각聽覺을 표시表示한
반反의 상대相對 이식耳識이며
ㅗ(오)란 수긍首肯[369] 비식鼻識이고

ㅜ(우)란 설식舌識 방패防牌인양
함성喊聲의 웃소리[370] 같고
ㅡ(으)란 신어身語 신식身識이며
ㅣ(이)란 견인牽引 의식意識이라
융화融和 식근識根 본음本音일새
부성父性[371]을 상징象徵함이오

2. 모애음게母愛音偈

ㄱ(기역)은 횡재橫在[372]한 만상萬象을
분별分別하는 안근眼根이오
ㄴ(니은)은 성진聲塵을 분별分別하는
대상對象의 일一 이근耳根이며
ㄷ(디귿)은 향진香塵을 분별分別하는
비근鼻根인 내內포장包障이요

---

369) (首肯) : 옳다고 인정함. '옳게 여김'으로 순화.

370) 웃소리 : 높은 소리로 서울의 범패소리.

371) 부성(父性) : 아버지로서 가지는 성질.

372) 횡재(橫在) : 가로 놓임.

ㄹ(리을)은 미진味塵에 촉감觸感된
설근舌根의 경상境相[373]으로서
곧 감촉感觸의 신근身根이라
춥고 덥고를寒熱 함께 느끼는同感 끄트머리末梢며
ㅁ(미음)은 전사근前四根 방각方角을
함축含蓄함이 신근身根일새
함상含相의 ㅂ(비읍)이 바로 이것이며卽是
ㅅ(시옷)은 쌍지雙支 의근意根이오

ㆁ[374](꼭지 이응)은 환화幻華 색진色塵이며
ㅈ(지읒)은 의생意生[375] 염기厭棄[376]일새
성진聲塵의 장본음障本音이고
ㅎ(히읗)은 견犬 등等 탐향貪香에서
발견發見할 향진香塵으로서
ㅇ(이응)은 무표無表 애음愛音인저

---

373) (境相) : 능견상(能見相)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망현(妄現)하는 인식대상(客觀.).

374) 꼭지이응 : 훈민정음 28자모 가운데의 한 글자인 ㆁ.'꼭지이응'이라 하기도 한다. 1443년(세종 25)에 훈민정음이 창제될 때부터 1500년대 초기까지 쓰이었다. 그 뒤로도 ㅇ자와 혼용되어 쓰이어오다가,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1933)에서는 완전히 ㅇ자로 통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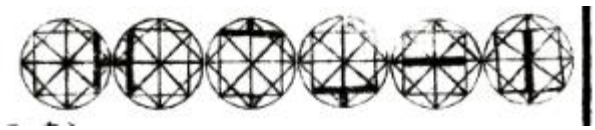
375) 의생(意生) : 마음으로 사량(思量)하는 것.

376) 염기(厭棄) : 싫어서 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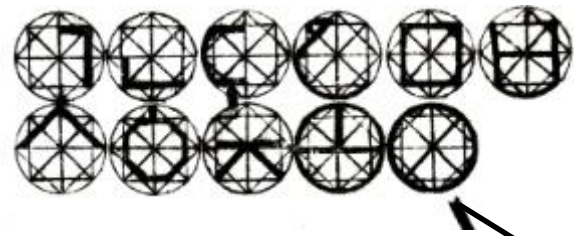
제3절　관음자륜觀音字輪

1. 17자모十七字母[377] (이취회理趣會 17존十七尊[378] 위수位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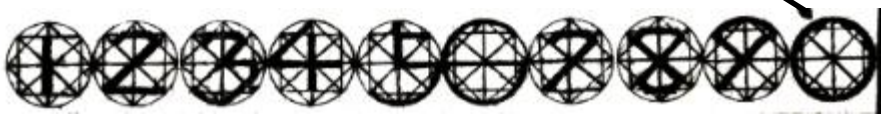
a. 육식六識 부음父音



b. 11색十一色 모음母音



2. 자륜화字輪化의 기수자基數字



3. 87자륜字輪 (증보정음增補正音 관음자륜觀音字輪 87)

〔箇(개) 字(자)（낱자）의 略稱(약칭)임〕

a. 46근음根音

---

377) (字母) : 한 개의 음절을 자음과 모음으로 갈라서 적을 수 있는 낱낱의 글자. 자음 자모와 모음 자모, 쌍자모와 복자모 등이 있다.　낱자(一字)　모자(母字).

378) 17존(尊) :『이취경(理趣經)』에서 설한 근본 진언 17자구(字句). 즉 17존의 종자를 말함.

*『이취경(理趣經)』: 1권. 당나라 불공(不空) 번역. 자세히는 『대락금강불공진실삼매야경』. 내제(內題)는 <반야바라밀다이취품>. 번역은 746 - 774년 사이『대반야경』10회 <반야이취분>의 다른 번역. 금강살타(金剛薩　)의 내증(內證)인 대탐염(大貪染) 삼매를 설한 것.

(1) 6 식음識音 : ㅏ(아) ㅓ(어) ㅗ (오) ㅡ (으) ㅣ(이)

(2) 6 의주음意主音 : ㅑ(야) ㅕ(여) ㅛ(요) ㅠ(유) ㆍ(아) ‖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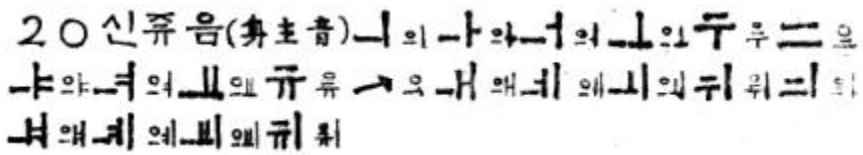
(3) 1 안주음眼主音 : ㅐ(애)

(4) 1 이주음耳主音 : 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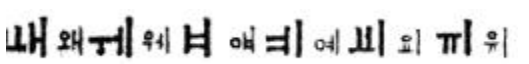
(5) 3 비주음鼻主音 : ㅚ(외) ㅘ(와) ㅝ 워

(6) 3 설주음舌主音 : ㅟ위 ㅢ의 ㅝ워

(7) 20 신주음身主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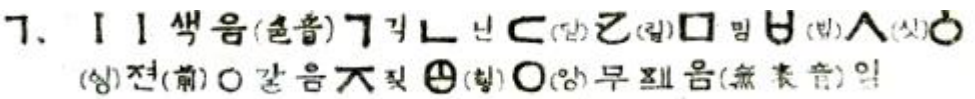


(8) 6 호용음互用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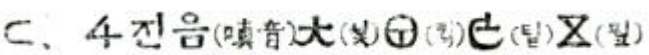
b. 41경음境音

(1) 11색음色音 :



(2) 5 탐음貪音 :

(3) 4 진음嗔音 :



(4) 8 치음痴音 : ㅋ (ㅋ) (ㄱ의 반음半音이며 반半아음牙音[379]인 일어日語 「ガ(가)」행음行音) ㄷ (ㄷ) (ㄷ의 반음半音이며 경설음輕舌音인 일어日語 「ダ(다)」행음行音) ᖇ (ᖇ) (ㄹ의 반음인 반반半半설음舌音[380])인 로마자字 「R(아르)」음音) ᑌ (ᑌ) (ㅂ의 반음半音이며 경순

379) (牙音) : 훈민정음에서 'ㄱ' 'ㄲ'·'ㅇ'·'ㅋ'을 이르는 말. 아성(牙聲)·어금닛소리.

380) 설음(舌音) : 혀끝과 잇몸의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ㄴ'·'ㄷ'·'ㅌ' 따위가 있다. →설성(舌聲)·혓소리.

음輕脣音[381]인 로마자字「**V**(브이)」음音) △(ㅿ) (ㅅ의 반음이며 반치음半齒音[382]인 일어日語「**ザ**(자)」행음行音 ㅿ (ㅿ) (ㅈ의 반음半音이며 정치음正齒音인 로마자 반半G(지)음音) ㅿ (ㅿ) (ㅿ의 반음半音이며 후음喉音[383]인 로마자字「F(에프)」음音) **Z**(ㅿ) (ㅅ· ㅈ의 간음間音이며 정치음正齒音인 로마자「Z(제트)」음音)

(5) 5 탐종음貪終音 : ㄱ(ㄱ) ㄷ(ㄷ) ㅸ(ㅸ) ㅁ(ㅁ) ㅹ(ㅹ)

(6) 7 중종음重終音 :

ㄱㄱ종음(重終音) ㄱㄱ(ㄱㄱ) ㄱㄴ(ㄱㄴ) ㄱㄷ(ㄱㄷ) ㄱㅂ(ㄱㅂ) ㅂㅅ(ㅂㅅ) ㅈㅈ(ㅈㅈ) ㅸㅸ(ㅸㅸ)

(7) 1 병종음竝終音 : ㅇㅡ

제4절 기수묘게其數妙偈

일시불공만법기언 一是不空萬法起焉
만십구공비공이공 滿十俱空非空而空
이가상응비본비적 二假相應非本非迹
삼법전전인과동시 三法輾轉因果同時
본구사대거상오위 本具四大居常五位
사대호인이팔성실 四大互因二八成實
칠의일실육륜상전 七依一實六輪常轉
이사삼삼호위인과 二四三三互爲因果
오위삼법함장일실 五位三法含藏一實
구과팔인포화상주 九果八因包和常住

---

381) (輕脣音) : 순경음. 고어에서, 입술을 거쳐 나오는 가벼운 소리. 《훈민정음》에서 순음 아래 'ㅇ'을 연서(連書)하여 표시한 음인 'ㅱ' 'ㅸ'·'ㅹ'·'ㆄ' 등이다. 가벼운입술소리·입술가벼운소리·

382) 치음(齒音) : 혀끝과 윗니 또는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국어의 'ㅅ'·'ㅆ'·'ㅈ', 'ㅉ'·ㅊ' 등이 있다. →잇소리·치리음·치성.

383) 후음(喉音) : 목구멍소리.

태장십육수연비주 胎藏十六隨緣比周
일지삼수오화칠풍 一地三水五火七風
삼오위본일칠시적 三五爲本一七示迹
칠삼만수오일과반 七三滿數五一過半
만자욕평과반생의 滿者欲平過半生歪[384]
이구일지십오금강 離垢一地十五金剛
좌전수지인동척이 左轉水地引同斥異
우전풍화인이척동 右轉風火引異斥同
지하풍동수탐화진 地下風動水貪火嗔
연기약존연멸약망 緣起若存緣滅若亡
은성현상이명일실 隱性顯相二名一實
욕은무내욕현무외 欲隱無內欲顯無外

* 금강심론에 수묘게는 두 곳에 있는데「우주의 본질과 형량」권두(卷頭)에 있는 수묘게(數妙偈)를 제4절 기(其) 수묘게(數妙偈)에서는 10줄을 누락시키었습니다. 아래 수묘게에서 누락 부분을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번역은 큰스님의 수묘게 법문으로 대신합니다.

수묘게 (數妙偈)

數妙渴

一是不空萬法起焉　　滿十俱空非空而空
二假相應非本非迹　　三法輾轉因果同時
本具四大居常五位　　四大互因二八成實
七依一實六輪常轉　　二四三三互爲因果
五位三法含藏一實　　九果八因包和常住
胎藏十六隨緣比周　　一地三水五火七風
三五爲本一七示迹　　七三滿數五一過半
滿者欲平過半生歪　　離垢一地十五金剛

384) '의'로 표시? (歪) 기울 '왜'. 기울 '외'.

等體金塵遍滿十方　一切萬有隨器分資
雖現此身內外正依　地水火風四界攝持
金塵合空性相難分　細根鹿境隱顯左右
金塵一七便成水塵　三七陰火五七陽性
七七起風又七化土　地塵五分四水一火

左轉水地引同斥異　右轉風火引異斥同
地下風動水貪火嗔　緣起若存緣滅若亡
隱性顯相二名一實　欲隱無內欲顯無外

수묘게(數妙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치에 묘한 진리가 포함돼 있다는, 말하자면 수(數) 자체가 바로 우주에 있는 생명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로서는 그리스의 피타고라스(Pythagoras)가 수(數)가 생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였다는데 주역(周易)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바로 수(數)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소리나 또는 사이클(cycle) 즉 단파, 장파 같은 주파수(周波數) 등 어떻게 진동하는가? 하는 것이 모두 수입니다. 우리는 수라는 것에 신비로운 영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사, 현대는 기술 문명, 기술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기술이란 것이 모두가 다 수에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을 못하면 물리학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 철학을 할 때도 수학은 항시 기본이 됩니다.

수묘게(數妙偈)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數)의 원리를 풀이한 것입니다.

일시불공(一是不空) 만법기언(萬法起焉)이라, 하나〔一〕 이것은 공(空)이 아니어서 만법이 일어나나,

만십구공(滿十俱空) 비공이공(非空而空)이라, 만수(滿數)인 십(十)이 되면 공이 되는데 공이 아니면서 바로 공이 되는 것이다. 즉 본래 공이 아닌 존재가 어느 한계에 이르러 만수(滿數)가 갖추어지면 공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성겁이 되고 주

겁이 되고 괴겁 동안에는 (-), (+)가 차이가 있으니까 활동이 되는 것이지 합해져 버리면, 다 차버리면 공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싸이클이 완전히 (-), (+)가 동등이 되어서 합(合)해져버리면 공겁이 되는 것입니다.

이가상응(二假相應) 비본비적(非本非迹)이라, 공과 공이 아닌 것 즉 공(空)도 유(有)도 가(假)인데 두(二) 가(假)가 서로 같이 응하면서 결국은 근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이 말은 공이 근본이 되거나 또는 유가 근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색(色:有) 즉 공(空)이요 공즉색이니 서로 같이 겸해있다는 말입니다. 인연에 따르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인연이 소멸되면 공이 되는 것입니다.

삼법전전(三法輾轉) 인과동시(因果同時)라, 혹(惑)·업(業)·고(苦)를 삼법(三法)이라 합니다. 혹은 번뇌요, 업은 번뇌 따라서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으로 짓는 행위요, 업으로 받는 과가 고(苦)입니다. 번뇌에서 업을 짓고 고를 받는 3법이 전전(輾轉)이라, 구르고 굴러서 같이 인이 되고 또는 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사, 우리가 누구를 미운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미운 생각이 혹이고, 미운 이를 비방하거나 때리는 행위 등이 업이며 그 업으로 인하여 받는 보복 등이 고(苦)입니다. 그러한 번뇌와 업은 또한 우리 잠재의식에다 미운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도리로 본다면 밉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생리에 전자를 더 증가를 시키고 좋다고 생각하면 양자를 증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진심(嗔心)을 많이 내면 낼수록 더욱 더 증가되다가 욕심이나 진심(嗔心)이나 굳어지면 응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을 많이 내고 욕심을 많이 내면 결국은 응어리가 생겨 몸의 조화가 깨져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암(癌) 등도 역시 욕심이나 진심이 모이고 모여서 응어리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구사대(本具四大) 거상오위(居常五位)라, 본래 지·수·화·풍 4대가 근본 성품(불성)에 갖추어 있고 일체 만법을 5위(位)로 포괄하는데 그 5위도 또한 근본 성품에 온전히 갖추어 있다

는 것입니다. 5위는 근본 불교의 법상(法相)풀이로서 색법(色法)·심법(心法)·심소유법(心所有法)·심부상응법(心不相應法)·무위법(無爲法)입니다.

사대호인(四大互因) 이팔성실(二八成實)이라, 지수화풍 사대가 서로 이끌어서 2×8=16, 16의 도리로 실상(實相) 세계가 이루어지도다. 16의 수치(數値)는 1지(地) 3수(水) 5화(火) 7풍(風)을 합하여 16이 되는데 밀교(密敎)에서 원만무진(圓滿無盡)을 의미합니다.

칠의일실(七依一實) 육륜상전(六輪常轉)이라, 순수한 일금진(一金塵)이 제7식〔末那識〕 또는 7풍에 의지하여 육도중생으로 항시 윤회한다는 말입니다. 본래는 순수 생명인 금진자리인데 제7 말나식〔末那識〕인 망식(妄識)에 의하여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천상 등 6도(六途)를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이사삼삼(二四三三) 호위인과(互爲因果)라, 2×4=8의 팔식(八識)과 3×3=9의 9식(九識)이라, 9식은 청정식(淸淨識)으로 근본 바탕인 진여불성이고 8식은 아뢰야식(阿賴耶識)으로서 일체 유정(有情)의 근본심식(根本心識)을 말하는데 이 8식과 9식이 서로 인이 되고 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위삼법(五位三法) 함장일실(含藏一實)이라, 아까 말한 심법・색법・심소유법・심부상응법 . 무위법의 5위(五位)와 혹업고(惑業苦)의 3법(三法)이 돌고 돈다 하더라도 일실(一實)인 청정한 금강불성은 다 언제나 갖추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과팔인(九果八因) 포화상주(包和常住)라, 청정식인 9식은 과(果)이고 8식인 아뢰야식은 일체 업(業)을 갈무리하는 장식(藏識)인 인(因)인데 항시 서로 포함하여 조화롭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태장십륙(胎藏十六) 수연비주(隨緣比周)라, 태장계는 16수로

되어 있다는 말인데 16수는 1지(地)・3수(水)・5화(火)・7풍(風)의 수를 합하면 16이 됩니다. 이런 법수(法數)는 여기서 설명을 다할 수는 없고 하여튼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공덕수(功德數)가 16입니다. 태장계란 밀교(密敎)에서 말하는 원리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본체인 성품 공덕이 인연 따라 두루 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지삼수(一地三水) 오화칠풍(五火七風)이라, 생명적인 수치 곧 태장계 수치로 봐서 1은 지(地)에 해당하고 3은 수(水)에 해당하고 5는 화(火)에 해당하고 7은 풍(風)에 해당합니다.

삼오위본(三五爲本) 일칠시적(一七示迹)이라, 3인 수(水)와 5인 화(火)가 근본이 되고 1인 지(地)와 7인 풍(風)이 자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칠삼만수(七三滿數) 오일과반(五一過半)**이라, 7인 풍과 3인 수(水)가 합하면 만수인 10이고 또는 5인 화(火)와 1인 지(地)가 합하면 6이 되니 반(半)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만자욕평(滿者欲平) 과반생의(過半生歪)라, 7과 3이 합해진 만수(滿數)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5와 1인 즉 화(火)와 지(地)가 6이 되어서 반수를 넘으니까 삐뚜름하게 반발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음양이 같으면 역동적(力動的)인 성겁(成劫)이 안 되나 우주 에너지가 똑같지가 않으니까 움직이고 결합하고 하여 성겁(成劫)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와 같이 똑같지 않으니까 사람으로 나와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같았으면 항시 공겁에 머물러 인간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구일지(離垢一地) 십오금강(十五金剛)이라, 1인 지(地)에서 모든 번뇌를 여의면 15금강이라, 15야(夜) 만월같이 일체 공덕을 갖춘 훤히 트인 금강세계가 된다. 그래서 태장계 16공덕은 변함이 없습니다.

등체금진(等體金塵) 변만시방(遍滿十方)이라, 우주와 같은 체

성(體性)인 금진이 온 세계에 편만해 있으니 우주가 바로 금진 세계입니다.

일체만유(一切萬有) 수기분자(隨器分資)라, 일체 만유는 각기 그릇 따라서 곧 업(業) 따라서 공덕을 달리 받고 있습니다.

수현차신(雖現此身) 내외정의(內外正依)라, 비록 이 몸을 나투어도 정신과 육체, 성품과 환경을 다 갖추었으며

지수화풍(地水火風) 사계섭지(四界攝持)라, 우주란 것은 지와 수와 화와 풍과 이런 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구성이 되었다.

금진합공(金塵合空) 성상리분(性相離分)이라, 금진은 본래 허공과 합해 있으니 성품과 상(相)을 나누기 어렵다.

세근추경(細根麁境) 은현좌우(隱顯左右)라, 세근은 성품으로 있는 능조사대(能造四大)에 해당하는 것이고 추경은 현상으로 나툰 소조사대(所造四大)인데 능조사대와 소조사대가 서로 인연 따라 나타났다 숨었다 자유자재로 한다는 뜻입니다. 상(相)과 성품이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생이란 업력으로 상(相)이 나타나는 것이고 업력이 다하면 성품으로 숨어지는 것입니다.

금진일칠(金塵一七) 변성수진(便成水塵)이라, 1금진이 7풍(七風)으로 동(動)하면 수진(水塵)이 되고

삼칠음화(三七陰火) 오칠양성(五七陽性)이라, 3수(三水)가 7풍(七風)으로 동(動)하면 음화(陰火)요 5화(五火)가 7풍(七風)으로 동(動)하면 양성(陽性)이다.

칠칠기풍(七七起風) 우칠화토(又七化土)라, 7풍(七風)이 7풍을 만나면 더욱 풍(風)이 세고 다시 7풍(七風)을 더하면 토(土)가 된다.

지진오분(地塵五分) 사수일화(四水一火)라, 토(土)를 구성한 지진(地塵)을 분석해 본다면 5분지 4가 수(水)가 되고 5분지 1이 화(火)가 된다.

좌전수지(左轉水地) 인동척이(引同斥異)라, 금진(金塵)이 좌편으로 진동하면 수(水)와 지(地)가 되는데 같은 것은 서로 이끌어 수(水)가 되고 다른 것은 배척하여 지(地)가 되며,

우전풍화(右轉風火) 인이척동(引異斥同)이라, 금진(金塵)이 오른편으로 돌면 풍(風)과 화(火)가 되는데 다른 것은 이끌어 풍(風)이 되고 같은 것은 배척하여 화(火)가 된다.

지하풍동(地下風動) 수탐화진(水貪火嗔)이라, 지진(地塵)경계에 수(水)가 동하면 탐(貪)이 되고 화(火)가 동하면 진(瞋)이 된다.

연기약존(緣起若存) 연멸약망(緣滅若亡)이라, 인연이 있으면 존재하는 것 같고 인연이 멸(滅)하면 없는 것 같으니 실제로 멸하는 실멸(實滅)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실유(實有)가 아니다.

은성현상(隱性顯相) 이명일실(二名一實)이라, 숨어 있는 성품과 나타난 현상이 이름만 둘이지 본래로는 하나인 실상(實相)이다.

욕은무내(欲隱無內) 욕현무외(欲顯無外)라, 숨고자 해도 안이 없고 나타나고자 해도 밖이 없거니 본래 진리란 상하 내외가 없는 원만구족(圓滿具足)한 진여실상(眞如實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수묘게를 저자로부터 설명들은 일이 없기 때문에 산승의 해설이 미흡한 데가 많을 것입니다.

제5절　문서래왕文書來往

1.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385]에서 온 서신書信

운문도량 귀중　(답장)

보이어 주신 관음문자는 반가이 받았습니다. 요사이 봄철 일기 따뜻하온대 귀사 제위가 모두 안녕하십니까? 본회도 고렴하옵신 덕택으로 아무 일 없이 지냅니다.

보내주신 관음문자는 거룩하신 연구의 결정이라 반가이 보관하고 참고하겠사오나 귀사에서 보내주신 의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겠사오니 혹시 본회에 단순히 일부 기증하시는 것인지 또한 본 후에 도로 반송하여 달라는 뜻인지 아무 명시하신 편지가 없사와 궁금하옵기에 몇 자 올리오니 미안하오나 답장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四二八○　4월10일　서울시 청진동 일팔팔번지

조선어학회

385) (朝鮮語學會) : 1931년 11월에 조선어연구회를 고친 이름. 국어의 연구 발전을 목적으로 한 민간 학술 단체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꾸준히 우리말을 연구·보급해 왔으며, 뒤에 한글학회로 이름을 고쳤다.

2.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로 보내는 답장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 관하館下

4월 10일 보낸附 답장答狀을 오늘에야 봉독奉讀하옵는 직시直時에 다시 또 이 글월을 올리나이다.

물으신 의도意圖란 이 글斯文의 연구研究 깊으신 귀회원貴會員 여러분僉位의 선구先驅되실 것을 전제前提하고 대중大衆의 요구要求에 응應하야 설혹設或 한자漢字를 폐지廢止한다하더라도 오히려 분파적分派的인 전全 어족語族의 통일統一을 선도先圖할 뿐 아니라 더욱 더 진전進展될 여부與否를 고찰考察들하시라는 동시同時에 물질物質의 극단極端인 원자폭탄原子爆彈이 고종선포告終宣布한 물질문명物質文明의 폐허廢墟 위에 조선朝鮮이 앞으로 정신문명精神文明 곧 심문명心文明을 지도指導 건설建設할 만한 자부自負로써 견성오도見性悟道를 권장勸奬하는 의미意味의 『일인전一人傳에 일인도一人度』라고 함을 공포公布하옵고 지도적 책임指導的責任을 가진 조선대중朝鮮大衆이 먼저 초견성初見性에 있어 신심이 굳음信心牢固을 기준基準 삼아 백일百日 내외內外에 상응相應되는 경계境界이오니 국어통일國語統一에 당임當任하신 귀회원貴會員부터 앞서 선도先導하심을 기대企待할 뿐입니다.

1947년丁亥 양6월 1일 장성長城 백양산白羊山 운문도량雲門道場

제4장 석존釋尊 일대 一代의 경개梗槪[386]

제1절 룸비니원園에서 탄생誕生하심

인도국印度國 가비라성城의 교외郊外에 룸비니 동산園이라는 별궁別宮이 있었는데, 동산園에는 연못蓮塘이 있어 백련白蓮과 청련靑蓮의 향기가 어우러져交香 널리 향기가 퍼지니放香 꽃 사이花間에는 순수하고 아름다운淨美 흰 새가白禽 날아와서 춤추며來舞 맑은 흥과 운치淸興를 일으키고發 향기 나는 언덕에는香岡 무우수화無憂樹花[387]가 활짝 피어滿開 풍부豊富한 꽃망울花房을 늘어뜨릴 새垂 나무사이樹間를 날아다니는飛翔 진귀한 새奇禽의 특이한 노래 소리가異聲 낭자浪藉한 가운데 맑고 깨끗하며淸趣 그윽한幽雅 내원內苑에서 시녀들侍女衆의 간호看護를 받으며 한 걸음一步 두 걸음二步을 신중愼重히 옮기시는 귀부인貴婦人이 나투시니 곧 가비라성城의 정반왕후淨飯王后이신 마야부인夫人으로서 왕자王子의 탄생誕生이 가까움에迫近 무거운 몸重身을 안보安保하시기 위爲하여 이 궁宮에서 정양靜養하시니라.

앞서却說 천지天地에 꽃향기芳香가 그윽한馥郁 올해 봄今春 4월月 8일日의 경사慶事로다. 천기天氣가 온화穩和한 이 룸비니동산園에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상서로운 빛瑞光이 비추고 응함에照應 따라 좋은 향기가異香 멀리까지 퍼지는遠聞지라. 설산雪山(히말라야 山)에서 한적閒寂히 명상冥想의 생활生活을 계속하던 아사다 선인仙人은 이와 같이如斯 기이한 상서로움이奇瑞 뒤섞여 있어間有 놀라 이상히 여기는驚異 동시同時에 반드시 성태자聖太子 탄생誕生의 조짐

386) (梗槪) : 개요(槪要) 대략(大略)·대강.

387) 무우수(無憂樹) : 석존은 룸비니 동산의 이 나무 아래서 탄생하셨고 과거의 비바시불도 이 나무 아래서 성도(成道)함.

兆朕인 줄 마음으로 점찍고心點 선제仙弟 나라다를 대동帶同하여 왕궁王宮에 내방來訪하니 과연果然이라. 태자太子이신 싯다르타悉達多는 이제 출세出世하셨도다.

선인仙人은 우러러仰目 빛나는 얼굴炯顔이신 태자太子의 성상聖相을 보고는 눈물을 머금고含淚 왕王께 고告하되 태자太子께서 왕위王位에 오르시면 전全 세계世界를 통치統治하실 성주聖主가 되실 터이나 태자太子께서는 반드시 출가出家하여 성불成佛하신 후, 널리 중생을 제도廣度衆生하실 것임을 아뢰言上면서 자기自己는 연로年老하여 이렇듯 거룩하신 그의 가르침尊教을 받들어 들을 수奉聞 없음을 슬퍼悲感하니라.

그其 후後 태자太子께서는 선인仙人의 예언豫言과 같이 세간世間의 태양太陽으로 출흥出興하셔 전全 세계世界를 비추시니照了(현현顯現) 멸후滅後 2천 5백여 년餘年의 세월歲月이 지난 금일今日에도 오히려 숭앙崇仰하여 마지않는 삼계三界의 도사導師이신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 되셨으며 매년每年 4월月 8일日에는 세계世界를 통通하여 태자太子의 탄생誕生을 축하祝賀하느니라.

특特히, 우리 쪽我邦에서는 관등회觀燈會[388]라 이름 하여 집집마다家家 팔각八角의 등롱燈籠[389]을 달고 영구永久 불멸不滅을 상징象徵하는 광명光明을 우러러 보면서仰見 성탄聖誕을 축하祝賀함이 상례恒例가 되었느니라.

---

388) (觀燈) : 석존의 탄일(음력 4월 8일)을 기념하기 위해 집집마다 등을 달고, 큰 거리에 등대를 세워 대 끝에 꿩의 꼬리를 묶어 물들인 비단으로 기를 달고 가족 수 만큼 등을 달아 불을 밝혔다. 또 작은 민가에서는 노송(老松) 가지를 등대 끝에 매기도 한다.

389) 등롱(燈籠) : 등명(燈明)을 밝히는데 쓰는 초롱.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고 재료에 따라서 석등롱(石燈籠) 금등롱(金燈籠) 등이라고 한다.

제2절 도道를 구求하셔 선림仙林에 입入하심

탄생誕生하신 지 7일日만에 모후母后 마야부인夫人이 입적入寂하시니 이모姨母 바사바제가 대신 양육하신代育 바, 태자太子께서는 타고난 자질이天資 총명聰明하여 성장成長하신지 7세歲에 언어言語를 능통能通하실 뿐 아니라 산술算術 천문天文 궁술弓術 또는 마술馬術을 각기各其 뛰어난 스승優師에게서 수학受學하시되 때때로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人不及 질문質問에는 가르치는 스승師授도 감당勘當하지 못하였느니라.

부왕父王께서는 태자太子의 총명聰明을 기뻐하면서도 일찍이 아사다 선인仙人의 관상설觀相說이 떠오를 때는憶想 장래將來를 염려念慮하여 여러 가지種種의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하시나니 미美와 재덕才德을 겸비兼備한 야수다라 왕녀王女를 황태자비로 받아들여納妃 화려華麗한 전당殿堂에 머무르게住 하는 한편 국정國政 간섭干涉을 허락許與하여 출가코자하는 마음出家心을 억제抑制하고자 했다.

그러나 태자太子는 성외城外에 나가서 노닐出遊 때마다 혹은 노쇠하여 허리가 굽은老衰屈腰 사람 혹은 병고에 난감病苦難堪인 사람 혹은 죽은 이를 보내는葬送 것과 죽은 사람을 목격目睹하신 인상印象이 없어지지湮滅 않고 사람은 다 늙고 사람은 다 병들며 사람은 다 죽는 것이라 이를 면免할 수가 없을까 하는 통감痛感이 심화深化함에 따라 마음이 답답鬱鬱하신 그대로 궁에 돌아오심歸宮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其 후後 또 다시 성문城門을 나갔을 때 노상路上에서 한 사

람의 수도행자修道行者를 보시고 그의 비범非凡함에 감동感心되어 출가出家의 이유理由를 물으시니 늙고 병들고 죽음老病死을 면免한 자유自由를 얻을 수 있고 자비심慈悲心을 일으켜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을生類 구救한다는 답答이 장엄하고 엄숙儼然함에 태자太子께서는 깊이 감동深感하여 마음으로 말心言하사되 이에 인간人間의 진실眞實한 도道가 있다고 자신自信하시고 궁중宮中에 기쁘게 돌아오시니喜歸 왕손王孫인 라훌라의 탄생 경사生慶가 있어 전중殿中의 경사의 바람喜風이 궁정 가득한溢庭지라. 후손世嗣을 얻으신 태자太子께서는 출가出家의 결심決心이 더욱 견고堅固하시니라.

때는 마침 초여름初夏의 달밤月夜이었다. 출가出家의 시절時節은 바로正 지금只今이라 생각하시고 편안히 잠자는安眠 라훌라와 야수다라비妃를 남기시고 홀로 애마愛馬 건척을 지팡이 삼아旅笻 질풍疾風과 같이 성문城門을 나가시어 설산雪山을 향向하실 따름이었다. 태자太子는 도중途中에 말에서 내리시고下馬 착용하신 의관衣冠은 부왕父王과 비妃에 대對한 신표信標로 마부御者 차익에게 벗어주시고 자신의 손으로自手 삭발削髮하신 후, 선인仙人들이 많이 머무르는多留 삼림森林 내內의 모든諸 학자學者들을 차례로 방문歷訪하셔 도를 배우는學道 데 노력努力하시니라.

제3절 정각正覺을 대성大成함

태자太子께서는 설산雪山의 산기슭山麓과 우루빈라 숲林에서 6년간六年間이나 난행고행難行苦行을 체험體驗하시면서 오직 일심一心으로 도道를 구求하셨다.

그로 인因하여 색신色身이 수척하고 쇠약瘦衰하여 눈은 깊이 패이고眼深 뼈는 드러나니骨露 그 극極에 달達하여 사람이 한 번

봄一見에 눈물垂淚을 금禁할 수 없을 지경地境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깨달음覺의 광명光明은 나투지 않았다.

어느 날 근촌近村의 처녀處女가
「줄(현絃)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줄이 너무 느슨하면 안 울린다.」라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태자太子께서는 「아! 그렇다. 나는 광명光明의 세계世界를 구求하고자 먼저 오욕五慾의 집을家 버리고捨離 선림仙林에 들어왔다. 그러나 번뇌煩惱는 아직도 다 끊치斷盡 못한 채, 구도求道의 결심決心만은 부단不斷히 계속되지만 색신色身의 고뇌苦惱가 그 극極에 달達함에 따라 마음의 줄心絃이 끊어질斷絶 지경地境이다. 이래서야 진실眞實한 도道를 구求할 수가 없다. 오욕五慾에 붙잡혀捕捉 향락享樂의 생활生活도 이체理體[390]에 부당不當하려니와 이렇게 스스로 힘써自强 색신色身을 손상損하고 정신精神을 괴롭히는 극단極端한 고행苦行도 이체理體에 부당不當하다. 미혹迷을 떠나고 깨달음覺에 나아가는進 진리道는 두二가지의 극단極端(향락享樂과 고행苦行)이 아닌 중도中道라야 된다.」고 사유思惟하시고 「이제는 다만 색신色身을 먼저 다스리고早養 심신心身을 고요하고 평온히靜穩 하여 중도中道를 발견發見할 만한 실안實眼을 깨닫게開 할 따름이라.」 생각生覺하셨다.

그리하여 태자太子께서는 먼저 니련선 강가尼連禪河에 들어가셔서 색신色身부터 깨끗이 닦으시고淸洗 수자다須闍多 소녀少女가 두 손으로 올리는捧上 우유죽乳糜을 받으시고受 원기元氣를 회복回復하신 후後 붓다가야의 대大보리수菩提樹 아래에서 수바사제 소

390) (理體) : 이성(理性)으로 파악되는 사유의 대상. 본체(本體).

년少年이 두 손으로 올리는捧上 길상초吉祥草로 자리를 펴고敷座 「내 만일萬一 깨달음覺을 얻지 못하는 한限에는 단연斷然코 이 자리此座를 일어나지 않으리라不起.」 스스로 맹서自誓하시고 일심정념一心正念으로 마음을 집중하여凝心 고요히 사유靜慮하셨다.

이것을 본 욕계欲界의 대마왕大魔王은 이제야말로 마계魔界에 큰 위기危機가 왔으니 끝까지 태자太子의 성도成道를 방해妨害해야 한다고 벼르며 먼저 세 사람三人의 마녀魔女를 보내어 태자太子의 마음을 미혹하고 혼란迷亂케 하였으나, 태자太子는 마음에 조금도心少 부동不動이라. 경악驚愕한 마왕魔王은 천둥과 번개 바람과 비雷電風雨로써 대지大地를 요동搖動하며 1억億 8천千의 군세軍勢를 크게 꾸짖어叱咤 전후前後 좌우左右에서 돌진突進하면서 접근接近하되, 이미 깨달음覺의 자리座는 미동微動을 발견發見할 수 없는지라.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자리座를 중심中心으로 빛 수레가光輪 점점 증가하면서漸增 휘황輝煌케 할 따름이었다.

모든 사마邪魔를 극복克服하시고 마음의 평화平和를 온전히 잘 지키신保持 태자太子의 마음에는 한밤중에夜闇 새벽 햇빛曉光을 대代함과 같이 미혹의 구름迷雲이 아름답게奇麗 맑게 개여捲晴 지혜의 빛이慧光 낭연朗然히 조료照了(현현顯現)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자기自己의 전생前世을 알아보시고 나아가 일체一切 생명이 있는 모든 종류生類의 생멸상生滅相을 두루 앎에周知 따라 미迷의 근원根源과 혹惑을 끊어 제거하는斷除 방법方途을 대오大悟하셔서 광명光明이 밝게 빛나는輝曜 대각위大覺位에 오르시고 원만히 청정圓淨하신 지혜智慧와 원만圓滿한 자비慈悲를 구족具足하신 무상존無上尊의 불타佛陀 곧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 되셨느니라. 그 때 석존釋尊의 보령寶齡(나이)이 만30세滿三十歲(35세설歲說도 전傳함)에 당當하

신 12월月 8일日 먼동이 틀 무렵曉晨의 사실事實이었다. 현재現在 경주慶州 석굴암石窟庵에 봉안奉安한 신라시대新羅時代의 대석상大石像은 진실實로 이 새벽此晨의 성인의 용모聖姿이시니라.

제4절 5십년五十年 교화 敎化의 행각行脚

석존釋尊께서는 수일간數日間 스스로 지혜를 터득開明하신 대각오大覺悟의 환희歡喜를 즐기면서自樂 어떻게 하면 이러한 깨달음道을 전傳하여 미혹迷惑의 오뇌懊惱로 고통 받는受苦 중생衆生을 제도濟度할까 하는 자비심慈悲心이 불길같이 타오르셨다. 그래서 다시 5주간五週間이나 보리수菩提樹 아래下에 그대로 앉아 계시며 이제 얻은 바, 이 깨달음을道 어떻게 설說하여야 중생衆生들이 깨우쳐 얻게解得될까 또는 이를 이 세상此世에 실행實行케 함에는 어이해야 될까 심사숙고深思熟考하시다가 필경畢竟 정각正覺하신 보좌寶座에서 떠나셔 교화행각敎化行脚을 시작始作하셨다.

맨 처음劈頭에 먼저 고행苦行의 같은 도반同侶이었던 5비구五比丘를 베나레스의 교외郊外에 찾아가往訪「너희들은 귀가 있으면 들어라 내 죽지 않는不死 진리道를 말說하리라」 하시고「중생衆生은 밥을 위爲하여 업業을 지으면서作 늙고老, 병病의 고통苦과 싸우다가 사액死厄[391]이 당면當前할 뿐이다. 그것은 여러 겁歷劫의 집인集因이 윤전輪轉하는 업력業力 때문이니 고과苦果의 집인集因인 미혹迷惑을 끊어 중생衆生의 사고四苦(生·老·病·死)를 여윈離 자성불自性佛[392]에 귀의歸依할지라. 이치를 증득함을證理 목적目的하고 의혹을 끊음에斷惑 노력努力하는 것이 열반涅槃에 도달達하는 길道이니라.」고 교훈敎訓하셨다.

391) (死厄) : 죽음으로 이끌 모질고 사나운 운수.

392) 자성불(自性佛) : 자성(自性)이 곧 불(佛)이라는 뜻.

이를 들은聽受 다섯 사람은五人 선인仙人의 수행법行法을 즉시卽時에 버리고捨離 부처님佛 도道에 들어가니入 베나레스 상인商人의 아들 야사도 출가出家함에 따라 그 부모父母와 애처愛妻와 친구 54인人도 더불어同入 신앙信仰하였나니라.

그리고 우루빈라촌村에 있는 가섭파迦葉波 삼형제三兄弟와 아울러 그의 천인千人 제자弟子도 교화敎化하시고 왕사성王舍城에서 마갈타국왕國王을 위하여 설법說法하시는 한편 사리불舍利佛과 목건련目犍連 등等을 가르쳐 이끌어주시며化導 다시 고향故鄕인 가비라바소도에 귀향歸鄕하셔서 부왕父王을 위시爲始하여 그 일족一族을 교화敎化하실새, 비妃 야수다라와 아들子 라훌라와 이종동생姨弟 난다와 사촌동생從弟 아난 등等도 다 제자弟子가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귀족貴族이나 천민賤民이나 사문沙門이나 악한惡漢이나 또는 학자學者나 농민農民이나 상인商人이나 그 계급階級과 직업職業과 남녀男女의 차별差別이 없이 다 평등平等으로 동일同一 교훈敎訓에 훈도薰陶[393]되어 무상無上의 도道에 들었느니라.

석존釋尊께서는 매년每年 하절夏節의 긴 장마기간長霖期에는 한 처소一處所에 제자弟子들을 한 곳에 모이게會集하여 도道를 전수專修케 하시다가 기한이 지나過期 해제解制하면 제방諸方에 유행遊行하여 교칙敎勅을 널리 펴는廣布 바, 도처到處에 국왕國王 대신大臣으로부터 빈부貧婦 걸인乞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투어 환영歡迎할 뿐 아니라 정사精舍를 제공提供하고 의식衣食을 헌공獻供하면서 가르침을 청하여請敎 공손하게 들을願聞새, 교만한 자驕者는 겸손遜讓하고 상심한 자悲者는 위안慰安하고 번뇌자惱者는 편안함을 얻

393) (薰陶) : 덕의(德義)로써 사람을 교화함.

으며得穩 미친 자는狂者 다시 회복蘇醒하니 가르침을 받들어奉敎 한번 듣는一聞 자者는 불사不死의 감로甘露를 얻어 마심得飮과 같이 새로운 생명新生命을 은혜로 입어蒙惠 영생永生의 열반涅槃에 향向케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전쟁하는 나라戰國가 평화平和하고 말 못하는不言 짐승禽獸도 서로 아끼며相愛 이와 같이 전도傳道에 전심專心하여 최후最後의 일각一刻에 이르기까지 전교傳敎 아니심이 없었느니라.

제5절 추상追想

석존釋尊께서는 스스로 어두컴컴한 길에昏衢 등불과 촛불燈燭이 되셨으며 이제 회상回想하면 진실實로 석존釋尊의 일생一生은 마음 가운데自心中 밝고 깨끗한明淨 등화燈火를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신 불심佛心으로써 세간世間의 사람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으니分與 아니 지금只今도 오히려 행화行化하심이 분명分明하니라.

그래서 석존釋尊의 교훈敎訓을 신수봉행信受奉行하는 사람들이 이 지혜智慧의 등화燈火를 높이 받들어奉戴 나날이 수용受用하는 바, 「내 죽지 않는不死 진리道를 설說하리라.」 하심은 진실實로 사람마다의 등심燈心에 점화點火하심이니라.

석존釋尊의 화신化身은 멸滅하신 지 이미 2천千 5백百여 년餘年의 세월歲月이 흘렀으나 석존釋尊의 지법신智法身[394] 곧 영원永遠히 불멸不滅하는 그 지혜智慧의 등화燈火는 끊임間斷없이 전傳하고 전傳하여 더욱더욱 무수無數한 사람들人人 마음 가운데心中에 밝게

394) (智法身) : 이법신(二法身)의 하나. 삼법신(三法身)의 하나. 수행에 의해서 시각(始覺)의 지혜가 완성되므로 본각(本覺)의 경지에 계합하고, 이(理)와 지(智)가 융통하며 색(色)과 심(心)이 하나의 경지인 법신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빛날輝曜새, 이 광명光明 중中에서 우리는 석존釋尊의 존귀하고 또한 위대한尊且大 자비慈悲의 용모와 자태容姿를 삼가 공손히 살피는拜察 동시同時에 우리의 생명生命을 일체一切 유정有情의 생명生命과 크게 화합하는大和 가운데中에서 영생永生의 은택恩澤을 입는 바이다.

1946년丙戌 승랍일僧臘[395]日 (음력 7월15일 하안거 해제일)
운문암雲門庵에서於 벽산한인碧山閒人 찬역撰譯

395) (臘) : 비구가 입산하여 비구계를 받은 후에 해마다 하안거를 마치는 것을 납(臘)이라 한다. 이 납(臘)에 따라 비구의 출가한 뒤의 나이를 세고 이 나이를 법랍(法臘)·하랍(夏臘)·계랍(戒臘)이라 한다.

제5장 호법단護法團 4차四次 성명서聲明書

본本 호법단護法團은 세계世界 사성설四聖說을 타파打破하는 동시同時에 보살십지菩薩十地를 중심으로 하여 노자老子[396]를 7지七地, 기독基督과 공자孔子[397]를 5지五地, 마호메트[398]와 소크라테스[399]를 4지四地 등等 재가在家 보살위菩薩位에 안배按排하고 출가보살出家菩薩인 원효元曉[400]와 진묵震默[401]이 8지八地, 보조普照[402]와 서산西山[403]이 4지四地, 공해空海[404](日本)가 3지三地일새, 동포同胞는 참작參酌하신 후後 인습에 젖어因襲的 신성적神聖的 미신관념迷信觀念을 타파打

396) (老子) :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 ?). 성(姓)은 이(李). 이름은 이(耳). 자(字)는 담( )·백양(伯陽). 도가(道家)의 시조로서, 상식적인 인의와 도덕에 구애되지 않고 만물의 근원인 도를 좇아서 살 것을 역설하고, 무위자연을 존중하였다.

397) 공자(孔子) :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학자(B.C.551 - B.C.479). 이름은 구(丘). 자(字)는 중니(仲尼). 노나라 사람으로 여러 나라를 주유하면서 인(仁)을 정치와 윤리의 이상으로 하는 도덕주의를 설파하여 덕치(德治) 정치를 강조하였다. 만년에는 교육에 전념하여 3,000여 명의 제자를 길러 내고, 『시경(詩經)』과 『서경(書經)』 등의 중국 고전을 정리하였다. 제자들이 그의 언행을 기록해 놓은『논어(論語)』 7권이 있다.

398) 마호메트 : 이슬람교의 창시자(?570 - 632). 메카(Mecca) 교외의 히라(Hira) 언덕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 유일신 알라에 대한 숭배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정치적·역사적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399) 소크라테스 :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B.C.470~B.C.399). 문답을 통해 상대의 무지(無知)를 깨닫게 하고, 시민의 도덕의식을 개혁하는 일에 힘썼다. 신(神)을 모독하고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독배(毒杯)를 받고 죽었다. 그의 사상은 제자 플라톤의 『대화편(對話篇)』에 전하여진다.

400) (元曉) : 신라의 스님(617~686). 속성은 설(薛). 신라 십성의 한 사람으로 꼽히며, 해동종(海東宗)을 제창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으며, 불교 사상의 융합과 그 실천에도 노력하였다. 저서로『금강삼매경논소(金剛三昧經論疏)』·『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화엄경소(華嚴經疏)』 등이 있다.

401) 진묵(震) : 조선 인조 때의 스님(1562 - 1633). 이름은 일옥(一玉). 석가의 소화신(小化身)으로 추앙받았으며, 술을 잘 마시기로 유명하고 신통력으로 많은 이적(異跡)을 행하였다고 한다. 저서에 『어록(語錄)』이 있다.

402) 보조국사(普照國師) : 고려 신종 때의 스님(1158 - 1210). 속성(俗姓)은 정(鄭). 이름은 지눌(知訥). 호는 목우자(牧牛子). 시호는 불일보조(佛日普照). 선(禪)·교(敎) 양종(兩宗)의 합일을 주장하여, 그 전의 구산선문을 조계종으로 통합하였다. 저서에 『진심직설(眞心直說)』·『수심결(修心訣)』 등이 있다.

403) 서산대사(西山大師) : 조선 선조 때의 스님(1520~1604). 속성(俗姓)은 최(崔). 자는 현응(玄應). 법호는 청허(淸虛)·서산(西山). 임진왜란 때 승병(僧兵)의 총수가 되어 서울을 수복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유(儒)·불(佛)·도(道) 3교 통합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종(敎宗)을 선종(禪宗)에 포섭하였다. 저서에 『청허당집』·『선가귀감』 등이 있다.

404) 공해(空海) : 일본 진언종의 시조. 홍법대사(弘法大師)의 법호(法號).

破하시고 정도正道에 귀의歸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교道敎[405] 가운데 도덕경道德經[406]을 제除한 외外에 타他는 간별揀別하며 대종교大倧敎[407]와 신도神道란 화엄신華嚴神을 신앙信仰의 대상對象으로 하는 시절時節까지 정도正道임을 보류保留하고 타他의 제諸 종교宗敎란 모두皆是가 도道 아님非을 성명聲明합니다.

1945년乙酉 9월九月 19일十九日

호법단장護法團長 석 釋 금타金陀

---

405) (道敎) : 무위자연설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의 다신적 종교. 황제(黃帝)와 노자를 신격화한 태상 노군을 숭배하며, 노장 철학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음양오행설과 신선 사상을 더하여 불로장생을 추구하였는데, 후한 말기 때 장도릉(張道陵)에 의해 그 종교적인 틀이 갖추어져 중국의 민간 습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도덕교・도학(道學)・현문(玄門)・황로학(黃老學).

406) 『도덕경(道德經)』 : 중국의 도가서. 춘추 시대 말기에 노자가 난세를 피하여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 윤희(尹喜)가 도를 묻는 데에 대한 대답으로 적어준 책이라 전하나, 실제로는 전국 시대 도가의 언설을 모아 한(漢)나라 초기에 편찬한 것으로 추측된다. 내용은 우주 간에 존재하는 일종의 이법(理法)을 도(道)라 하며, 무위(無爲)의 치(治), 무위의 처세훈(處世訓)을 서술하였다. →『노자(老子)』・『오천언(五千言)』.

407) 대종교(大倧敎) : 단군 숭배 사상을 기초로 한 민속 신앙으로서 조화신(造化神)인 환인(桓因), 교화신(敎化神)인 환웅(桓雄), 치화신(治化神)인 환검(桓儉)의 삼위일체인 '한얼님'을 신앙적 대상으로 삼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 종교. 1909년에 대종사(大倧師) 나철이 처음으로 열었는데, 성(性)・명(命)・정(精)의 삼진귀일과 지(止)・조(調)・금(禁)의 삼법(三法)을 근본 교리로 하며, 『삼일신고(三一神誥)』・『천부경(天符經)』 등을 경전으로 한다. →한검교・환검교.

제6장 현기懸記[408]

1. 유통流通

세계世界 일원一圓의 반경적半徑的인 현재現在의 조선인구朝鮮人口 2,880만萬의 갑절倍數인 5,760만인萬人의 삼승성중三乘聖衆이 인연因緣 깊은 일곱 나라七個 국민國人으로 더불어 윤계적輪界的인 정신精神의 세계世界에 두루 가득遍滿할새, 후後에 간행刊行할 수릉엄삼매도首楞嚴三昧圖는 차치且置하고 이 『일인전一人傳에 일인도一人度』만으로써 본래 모습法爾的[409]으로 보살성중菩薩聖衆인 1,880만인萬人 외外에 우선爲先 연각緣覺과 성문聲聞의 이승二乘 성중聖衆인 3,880만인萬人을 제도度함.

2. 사조思潮[410]

본래 모습法爾的으로 만법萬法이 두 가지를 지닐새持雙. 합법合法과 비합법非合法의 2대二大 사조思潮가 유포流布함.

3. 정치政治

본래 모습法爾的으로 천지天地를 통일統一함은 진공眞空이요 묘유妙有함은 지地·수水·화火·풍風 4대四大일새. 세계世界는 4대四大의 정치분야政治分野로써 조직組織됨.

---

408) (懸記) : 아주 멀리 있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부처의 예언을 이르는 말. 『능가경(楞伽經)』에서 말한 용수보살의 출세(出世)나 『마야경(摩耶經)』에서 말한 마명보살의 출생 따위이다.

409) 법이(法爾) : 법연(法然)·자연(自然)이라고도 한다. 만상(萬象) 제법(諸法)이 천연자연(天然自然)으로 그대로의 상태로 있는 것.

410) 사조(思潮) :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

4. 합류合流

대중적大衆的으로 범인을 초월하여超凡 성인에 들어가는入聖 시대時代라, 본체體·속성相·작용用인 3대三大[411]의 분야分野가 본류本流에 합合함.

5. 주의主義

개벽開闢[412] 이래以來 주主로 같은 수레바퀴인同軌(軌 : 법도) 과거過去의 1,004불佛과 미래未來의 1,996불佛이며 종從으로 동철同轍[413]인 무수억無數億 보살菩薩의 처음부터 끝까지一貫的 호법주의護法主義를 주장主張하고 호지護持함.

6. 의무義務

사람의 공덕功德됨이 미정迷情[414]을 구救함보다 더함이 없으니 이의 「일인전一人傳에 일인도一人度」를 마음에 새겨 생각銘念할지어다. 모든 과보總報가 같은齊同 세계동포世界同胞여! 동포同胞여! 동포同胞여!

1947년丁亥 정월正月 20일念日

벽산碧山 한인閒人 석釋 금타金陀 고告

---

411) (三大) : 체대(體大)·상대(相大)·용대(用大)의 세 가지. 만유의 본체와 속성과 작용이 절대(絶大)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412) 개벽(開闢) : (1)세상이 처음으로 생겨 열림. (2)세상이 어지럽게 뒤집힘. (3)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13) 동철(同轍) : 같은 수레바퀴 자국. 전하여, 같은 길.

414) 미정(迷情) : 미(迷)한 마음.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 어리석은 범부의 미혹한 마음과 바르지 못한 생각. 정(情)은 사량분별(思量分別).

제7장 만덕송卍德頌과 십여시十如是[415]

[만덕송卍德頌]

자수비화慈水悲火 무위생기無爲生起
희풍사지喜風捨地 십계구현十界具現
사심무량四心無量 사계무변四界無邊
심무괘애心無罣碍 실성원융實性圓融
열반묘심涅槃妙心 상락아정常樂我淨
수연이숙隨緣異熟 불수이과不隨異果
사섭만덕四攝卍德 성상일여性相一如
수현차신雖現此身 내외의정內外依正
심왕안주心王安住 동어허공同於虛空

[십여시十如是]

여시상如是相 여시성如是性 여시체如是體 여시력如是力 여시작如是作 여시인如是因 여시연如是緣 여시과如是果 여시보如是報 본말구경등本末究竟等……

※ 여자如字를 기점起點으로 하면 가제假諦[416], 시자是字를 기점起點으로 하면 공제空諦[417], 상자相字를 기점起點으로 하면 중제中諦[418]가 됨.

---

415) (十如是) :『법화경(法華經)』에서,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참다운 모습을 열 가지의 여시(如是)로서 파악하려 한 것. 상(相)·성(性)·체(體)·역(力)·작(作)·인(因)·연(緣)·과(果)·보(報)·본말구경(本末究竟)이다.

416) 가제(假諦) : 삼제(三諦)의 하나. 만유일체가 모두 그 본체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라만상의 현상은 뚜렷하게 실재한다는 진리를 이른다. 가제(假諦).

417) 공제(空諦) : 삼제의 하나. 만물은 모두 인연에 의하여 생긴 것일 뿐, 어느 것도 실(實)은 없고 공(空)이라는 진리를 이른다. →공제(空諦).

418) 중제(中諦) : 삼제(三諦)의 하나. 모든 존재의 본체는 유(有)와 공(空), 공(空)과 가(假)를 초월한 중정절대(中正絶對)라는 천태종의 교의(敎義)를 이른다.

* 만덕송 번역

〈卍[419]德頌〉

자수비화慈水悲火 무위생기無爲生起

* 자慈[420](수水)비悲(화火)는 무위無爲[421]에서 일어나며

희풍사지喜風捨地 십계구현十界俱現

* 희喜(풍風)사捨(지地)는 십계十界[422]에 모두 나타나네.

사심무량四心無量 사계무변四界無邊

* 이 네 마음(慈·悲·喜·捨)이 무량無量하며 사계四界[423]에도 끝이

---

419) (卍) : 萬字・万字・卍字라고도 쓴다. 길상해운(吉祥海雲)・길상희선(吉祥喜旋)이라고도 쓴다. 길상(吉祥)[호희가량(好喜嘉良)]의 표시이다. 삼십이상(三十二相)의 하나로 불타(佛陀)의 가슴에 이 덕상(德相)이 있고 또 불타의 수족(手足)・두발(頭髮)과 허리에도 있다고 한다. 이에 상당한 범어는 네 가지가 있지만 śrivatsa[실리말차(室利靺瑳)]란 말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말은 모발이 말리어 겹치고 합해져 해운(海雲) 같은 모양이란 뜻이다. 따라서 만자(卍字)란 길상만덕(吉祥萬德)이 모이는 곳을 뜻한다. 이는 인도의 신(神) 비슈누의 가슴에 있는 선수(旋手)가 기원이라고도 한다. 상서로운 조짐 또는 길상을 나타내는 덕의 모임을 의미한다고 한다. 불타의 깊은 내용을 구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만다라(曼荼羅)로 볼 수 있다. 또한 만[(卍)자는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불교나 절을 나타내는 기호나 표시로 쓰이고 있다. 모양은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우만자[ ]와 왼쪽으로 도는 좌만자[卍]로 크게 나누어진다. 인도의 옛 조각에는 만(卐)자가 많으나, 중국・한국・일본에서는 굳이 구별하지 않는다. 또 좌우 만자의 각 끝부분이 다시 꺾인 모양이 있다. 이러한 만자는 아시리아・그리스・로마・인도・중국 등 고대 문명이 찬란하였던 곳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420) 사무량심(四無量心) : 사무량(思無量)・사등심(四等心)・사범주(四梵住)・사범당(四梵堂)이라고 한다. 무량(無量)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苦)의 미혹을 없애주기 위해 자(慈)・비(悲)・희(喜)・사(捨)의 네 가지 마음을 일으켜, 혹은 자(慈) 등의 4가지 선정(禪定)에 들어가는 것. 곧 자무량심(慈無量心)・비무량심(悲無量心)・희무량심(喜無量心)・사무량심(捨無量心)의 넷. 이 가운데 즐거움을 주는 것은 자(慈), 고(苦)를 없애는 것은 비(悲),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희(喜), 타인에 대해 애증친원(愛憎親怨)의 심(心)이 없이 마음이 평등(平等) 한 것은 사(捨)이다. 이것을 범주(梵住)・범당(梵堂)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를 닦음으로써 대범천(大梵天)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421) 무위(無爲) : ↔유위(有爲)에 상대된다. 인연(因緣)에 의해서 작위(作爲)되는 것이 아니고, 생멸변화를 여읜 상주절대(常住絶對)의 법(法)을 일컬으며, 자세히는 무위법(無爲法)이라고 한다. 본래는 열반(涅槃)의 이명(異名)이지만 뒤에는 열반이란 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무위(無爲)를 세워서 삼무위(三無爲)・육무위(六無爲)・구무위(九無爲) 등의 설이 있게 되었다.

422) 십계(十界) :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나누는 10가지 경지. 미계(迷界)의 지옥계・아귀계・축생계・아수라계・인간계・천상계와 오계(悟界)의 성문계・연각계・보살계・불계이다. 십법계.

423) 사계(四界) :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물질의 세계. 지계(地界)・수계(水

없네.

심무괘애心無罣碍 실성원융實性圓融
* 마음에 괘애罣碍[424]가 없어야 실성實性[425]이 원융圓融[426]하며

열반묘심涅槃妙心 상락아정常樂我淨
* 열반涅槃[427]묘심妙心이 상常락樂아我정淨[428]이라.

수연이숙隨緣異熟 불수이과不隨異果
* 이숙異熟[429]은 인연을 따르나隨緣[430] 이과異果[431]는

)・화계(火界)・풍계(風界)를 이른다.

424) 괘애(罣碍) : 덮고 막는 것. 덮어 방해하는 것. 마음을 덮는 것.

425) 실성(實性) : 진여(眞如)의 다른 이름.

426) 원융(圓融) : 모든 법의 이치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융합하여 구별이 없다.

427) 열반(涅槃) :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적이다. 니르바나・대적정・멸도(滅度).

428) 상락아정(常樂我淨) : 열반(涅槃 : 깨달음)의 덕은 절대 영원하며 [상(常)], 즐거움이며[락(樂)], 능동적인 자재자(自在者)이며 [아(我)], 청정한 것[정(淨)]임을 가리킬 때도 있다. 이때는 이것을 4덕(德) 또는 열반(涅槃)의 4덕(德)이라 한다.

429) 이숙(異熟) : (1)과보(果報)라고도 번역하고 비파가(毘播迦)라 음역(音譯)한다. 선(善) 또는 악(惡)의 업인(業因)에 의해서 이것과 성질이 다른 무기(無記)・비선비악(非善非惡)인 결과(結果)를 산출(産出)하는 것. 또 그 결과를 말함. 그와 같은 무기(無記)를 이숙무기(異熟無記)라고 한다.

(2)이숙(異熟)의 과(果)를 초래하는 선(善)・불선(不善)의 유루법(有漏法)을 이숙인(異熟因)이라 부르고, 능작(能作)・구유(俱有)・동류(同類)・상응(相應)・변행(遍行)의 제인(諸因)과 같이 육인(六因)의 하나로 본다. 그 이숙인(異熟因)에서 생긴 결과를 이숙과(異熟果) 또는 보과(報果)라 하고 증상(增上)・사용(士用)・등류(等流)・이계(離繫)의 모든 과(果)와 같이 오과(五果)의 하나로 삼는다. 또 이숙과(異熟果)를 이숙생(異熟生)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이숙과(異熟果)를 생(生)하는 힘이 있는 것을 유이숙(有異熟)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무이숙(無異熟)이라 한다.

430) 수연(隨緣) : 연(緣)에 따라 생멸변화(生滅變化)가 있는 것을 수연(隨緣)이라 하며, 영원히 변치 않고 존속(存續)하는 것을 불변(不變)이라 한다. 진여(眞如)에는 이 양면(兩面)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진여(眞如) 그것 자체(自體)를 현상한 미오염정(迷悟染淨)의 존재로 본다. 또 부처님이 연(緣)에 따라 중생(衆生)을 교화(敎化)하는 것을 수연화물(隨緣化物)이라 한다. 물(物)은 중생의 뜻.

431) 이숙과(異熟果) : 5과(果)의 하나. 과보(果報)가 다른 때에 성숙(成熟)함을 말하며 곧 제8식이다. 이 식(識)은 능히 일체의 제법종자(諸法種子)를 함장(含藏)하여 제근식(諸根識)의 과(果)를 성숙시키는 것.

따르지 않네.

사섭만덕四攝卍德 성상일여性相一如
* 만덕卍德은 사섭四攝[432]을 갖추고 성상性相[433]은 한결같네.

수현차신雖現此身 내외의정內外依正
* 비록 이 몸에 나타내나 안과 밖이 의정依正[434]일세.

심왕안주心王安住 동어허공同於虛空
* 심왕心王[435]에 안주安住하니 마음이 허공虛空과 같네.

---

432) (四攝) : 사섭법, 또는 사섭보살을 말함.
(1)사섭법(四攝法) : 사섭사(四攝事)·사사섭법(四事攝法), 축약하여 사섭(四攝)이라고 한다. 보살이 중생을 섭수(攝手)·친애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보살을 믿게 하여 결국은 불도(佛道)에 끌어들이는 네 가지 행위. ①보시(布施 : 재물과 법을 베푸는 것). ②애어(愛語 :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③이행(利行 : 중생을 이롭게 하는 여러 가지 행위). ④동사(同事 : 중생에 가까이 하여 중생 속으로 들어가 중생과 고락(苦樂)을 같이 하고 중생과 삶을 같이 하는 것).
(2)사섭보살(四攝菩薩) :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삼십칠존(三十七尊) 중의 금강구(金剛鉤)·금강색(金剛索)·금강쇄(金剛鏁)·금강령(金剛鈴)의 4보살을 말한다. 고기를 잡을 때면 먼저 낚시를 물에 던지고[구(鉤)], 고기가 물리면 줄을 끌어 당겨서[색(索)], 고기를 잡아놓고[쇄(鏁)], 기뻐하는 것[령(鈴)]에 비유하여,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方便), 구(鉤)]으로 중생을 유인하고 법계궁(法界宮), 즉 대일여래의 궁전으로 끌어들여[색(索)], 이들이 달아나지 않도록 묶어놓고[쇄(鏁)], 기뻐하는 모양[령(鈴)]을 보인 것. 현교(顯教)에 있어서 사섭법(四攝法)에 해당한다.

433) 성상(性相) : 성(性)이라 함은 불변(不變)·평등(平等)·절대(絶對)·진보(眞寶)의 본체(本體)나 도리(道理). 또 사물(事物) 그 자체(自體). 상(相)이라 함은 변화(變化)·차별(差別)·상대(相對)의 현상적(現象的)인 모습.

434) 의정(依正) : 과거의 업(業)에 의해 이 몸과 마음을 받는 것을 정보(正報)라 하고, 그 심신(心身)이 의정(依正)하는 일체 세간(世間)의 사물을 의보(依報)라 한다.

435) 심왕(心王) : 마음에 작용의 주체(主體)가 된다. 식(識)을 심왕(心王)이라 한다. 심왕(心王)과 같이 작용하는 종속적인 심(心)의 작용을 심소[(心所), 심소유법(心所有法)의 약칭]라 함. 심왕(心王)은 대상(對象)의 전체[全體, 곧 총상(總相)]를 포착하고, 심소(心所)는 대상(對象)의 전체(全體) 밑 부분[部分, 곧 별상(別相)]에 대해서 작용한다. 그래서 양자(兩者)는 반드시 상응(相應)해서 일어나고 그 상응(相應)의 관계를 구사종(俱舍宗)에선 오의평등(五義平等)을 가지고 설명한다. 심왕(心王)은 육식(六識)·팔식(八識) 등으로, 심소(心所)는 대지법(大地法) 등으로 나눈다.

內 四 攝 卍 德 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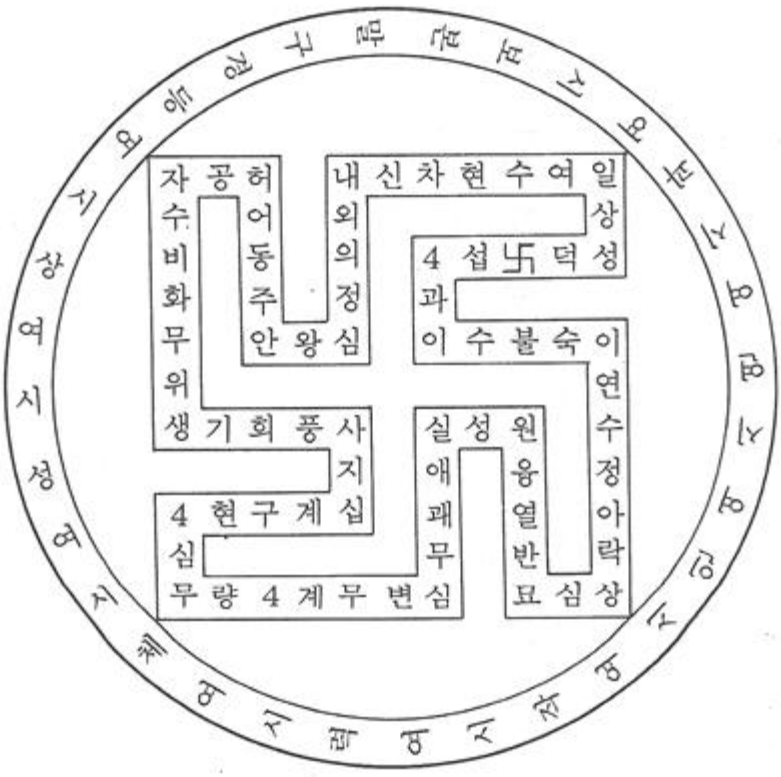
外引用十如是

內起慈水終虛空

外起如是相三轉終等如是

내 四 섭 卐 덕 송

외인용십여시



내기자수 종허공

외기여시상3전종등여시

* 만(卍)자 번갈아 사용.

제2편第二篇 해탈16지解脫十六地

제2편 해탈16지 解脫[436]十六地

초初. 삼귀지三歸[437]地

일체一切의 불타佛陀[438]는 불보佛寶[439], 불타佛陀께옵서 말씀하신 가르침 법敎法은 법보法寶[440], 그 가르침 법敎法에 의지하여 수업修業하는 자는 승보僧寶[441]라 이르니. 불佛이란 깨달음覺知의 뜻이요, 법法이란 가르침의 길法軌이란 뜻이요, 승僧이란 화합和合의 뜻이며, 보寶란 그 성품의 밝고 깨끗함明淨과 세력勢力의 위대함이 최상最上으로 비교할 바 없어 능히 세간世間을 장엄莊嚴하되 영구히 변함이 없어 세계世界에 희유한稀有 까닭이라.

삼보三寶[442]에는 여섯 가지의 뜻이 있으니

1에 동체삼보同體三寶를 일체삼보一體三寶 또는 동상삼보同相三寶라고도 이르니, 삼보三寶 하나하나의 본체體에 삼보三寶의 뜻이 있으

---

436) (解脫) : 비목차(毘木叉)·비목뎌(毘木底)·목뎌(木底)라 음역. (1)번뇌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운 경계에 이르는 것. (2)열반의 딴 이름. 열반은 불교 구경의 이상이니, 여러 가지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이므로 해탈. (3)선정의 딴 이름. 속박을 벗고 자재함을 얻는 것이 선정의 덕이므로 해탈이라 한다.

437) 삼귀(三歸) : 또는 삼귀의(三歸依)·삼자귀(三自歸)·삼귀계(三歸戒) 불문에 처음 귀의할 때 하는 의식. 불·법·승에 귀의함을 말함.

438) 불타(佛陀) : 부도(浮圖·浮屠)·부타(浮陀·部陀)·부두(浮頭)·발타(勃馱)·모타(母馱)·몰타(沒馱)라고도 음역. 각자(覺者)라 번역. 불(佛)이라 약칭. 미망(迷妄)을 여의고 스스로 모든 법의 진리를 깨닫고, 또 다른 중생을 교도하여 깨닫게 하는 자각(自覺)·각타(覺他)의 2행(行)을 원만히 성취한 이. 이 말은 처음 보리수나무 아래서 성도한 석존에 대한 칭호로 쓴 것. 불타는 석존뿐이었으나 뒤에 불교의 교리가 발달함에 따라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있게 되고, 시방(十方)의 모든 부처님으로 발전하여 드디어 그 수가 한량없게 되었다. 처음은 역사적 인물이던 것이 점점 이상화(理想化)되어 유형·무형 온갖 방면으로도 원만한 인격적 존재가 되었다.

439) 불보(佛寶) : 3보(寶)의 하나. 부처님은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또 다른 이를 깨닫게 하여 자각(自覺)·각타(覺他)의 행(行)이 원만하여 세상의 귀중한 보배와 같으므로 이같이 이름.

440) 법보(法寶) : 3보(寶)의 하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법은 소중하기가 세간의 값비싼 보배와 같으므로 법보라 한다. 곧 불법의 경전을 통틀어 일컫는 말.

441) 승보(僧寶) : 3보(寶)의 하나. 불법을 실천 수행하는 스님들. 귀중하고 존경할 바라 하여 보배에 비유하여 승보라 한다.

442) 삼보(三寶) : 불보(佛寶)·법보(法寶)·승보(僧寶). ①불보(佛寶) : 여러 부처님 네, 깨달았다는 뜻. ②법보(法寶) : 부처님이 말씀한 교법, 모범된다는 뜻. ③승보(僧寶) : 교법대로 수행하는 이. 화합이란 뜻. 보(寶)는 귀중하다는 의미.

며, 불佛의 본체 위體上에 깨달아 비추覺照는 뜻이 있다 함은 불보佛寶, 법칙軌則의 뜻이 있다 함은 법보法寶, 이기고 다투는 허물이 없으면 승보僧寶며, 또는 승僧에 법을 관하는 바른 지혜觀智가 있다 함은 불보佛寶, 법칙軌則이 있다 함은 법보法寶, 화합和合함은 승보僧寶요

2에 별상삼보別相三寶는 화상삼보化相三寶 또는 별체삼보別體三寶라고도 이르니, 모든 부처님의 삼신三身을 불보佛寶, 육도六度를 법보法寶, 십성十聖[443]을 승보僧寶라 이르는 대승삼보大乘三寶며, 장육丈六[444]의 화신化身을 불보佛寶, 사제四諦 · 십이인연十二因緣의 법法을 법보法寶, 사과四果[445] · 연각緣覺을 승보僧寶라 말함은 소승삼보小乘三寶요

3에 일승삼보一乘三寶란 마지막究竟의 법신法身을 불보佛寶, 일승一乘의 법法을 법보法寶, 일승一乘[446]의 보살대중 승보僧寶라 말하니, 이는『승만경勝鬘經[447]』과『법화경法華經[448]』등의 뜻이요

---

443) (十聖) : 10지위(地位) 보살(菩薩).

444) 장륙상(丈六像) : 1장 6척의 불상이라는 뜻. 부처님 당시 사람들의 키는 8척. 부처님은 그 곱인 1장 6척이었다 한다. 이것은 주척(周尺). 부처님 등상을 조각하거나 탱화를 그리는 데는 사바세계에 나타난 열응신(劣應身)의 키에 의지할 것이므로, 옛부터 불상의 높이를 1장 6척으로 한 것은 이러한 까닭. 만일 이것을 좌상으로 한다면 입상의 5분의 3, 곧 9척 정도가 될 것이나 이것도 장륙상이라 한다.

445) 사과(四果) : 소승 증과(證果)의 4계위(階位). 과(果)는 무루지(無漏智)가 생기는 지위. 수다원과・사다함과・아나함과・아라한과.

446) 일승(一乘) : 일불승(一佛乘). 승(乘)은 타는 것, 곧 수레나 배. 우리들을 깨닫는 경계에 운반함. 부처님의 교법에는 소승・대승・3승・5승의 구별이 있다.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한다는 견지에서 그 구제하는 교법이 하나뿐이고, 또 절대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승.『법화경(法華經)』을 일승경 또는 일승의 묘전(妙典), 이것을 의지(依支)하는 천태종을 원종(圓宗)이라함.

447) 승만경(勝鬘經) : 1권. 유송(劉宋)의 구나발다라 번역.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의 약칭. 사위국 바사닉왕의 딸로서 아유사국으로 시집 간 승만부인이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 것을 경의 내용으로 한다.

448)『법화경(法華經)』[『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대승 경전의 대표. 7권 28품. 일불승(一佛乘)・회삼귀일(會三歸一)・제법실상(諸法實相)을 말한 경전.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번역 출판, 천태 지자는『법화경(法華經)』을 불교의 중심 사상으로 한다. 천태종・법상종의 소의(所依) 경전.

4에 삼승삼보三乘三寶란 삼승자三乘者[449]를 위해서 나타나신 불佛의 삼신三身을 불보佛寶, 삼승三乘의 법法을 법보法寶, 삼승三乘의 대중衆을 승보僧寶라 말함도 역시 『승만경勝鬘經』과 『섭론攝論[450]』등의 뜻이요

5에 진실삼보眞實三寶란 불佛의 삼신三身을 불보佛寶, 일체一切 번뇌 없는無漏 교리행과敎理行果[451]를 법보法寶, 견제見諦[452] 이상의 삼승성중三乘聖衆을 승보僧寶라 말함이요

6에 주지삼보住持三寶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세간世間에 머무르는 삼보三寶로서 목불木佛 · 화상畵像 등을 불보佛寶, 삼장三藏[453]의

449) (三乘) : (1)성문・연각・보살에 대한 세 가지 교법(敎法). 승(乘)은 물건을 실어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니, 부처님의 교법도, 중생을 실어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데 비유. ①성문승(聲聞乘) : 4제(諦)의 법문이니, 부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관하여 해탈을 얻음. ②연각승(緣覺乘) : 12인연의 법문이니, 스승에게 가지 않고, 스스로 잎이 피고, 꽃이 지는 등의 이치를 관하여 깨닫는 것. ③보살승(菩薩乘) : 6바라밀의 법문이니, 보살은 이 법문에 의하여 스스로 해탈하고, 남을 해탈케 하여 부처를 이룸. (2)3승법(三乘法)에 의하여 각기 수행을 마치고 얻은 성문과・연각과・보살과를 말함.

450) 섭대승론(攝大乘論) : 인도 무착보살 지음. 당나라 진제(眞諦) 번역. 줄여서 『섭론(攝論)』 또 『광포대승론(廣苞大乘論)』이라고도 하니, 1종의 불교통일론으로 섭론종의 근본성전. 10장(章)으로 나뉘며 각 장의 대의(大意)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응지의지상(應知依止相)에서는 만유의 근본 식(識)인 아뢰야식을 설명. 제2장 응지승상(應知勝相)에서는 3성(性)을, 제3장 응지입승상(應知入勝相)에서는 만법유식(唯識)의 이치를, 제4장 입인과승상(入因果勝相)에서는 보살의 행인 6바라밀을, 제5장 입인과수차별승상(入因果修差別勝相)에서는 10종의 계위(階位)를, 제6장 - 제8장에서는 계・정・혜의 3학을, 제9장에서는 열반을, 제10장 차별승상(智差別勝相)에서는 불과(佛果)의 3신(三身)을 말하다. 요컨대 만유는 필경에 유심에 돌아간다는 이론(理論)과 이에 의한 종교적 실천을 말하며, 대승의 교리가 소승의 교리보다 수승한 소이(所以)를 주장한다. 그 가운데 요점은 아뢰야식(阿賴耶識)과 3성[三性,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의타기성(依他起性), 원성실성(圓成實性)]이다. 그러나 아뢰야를 유식에서는 일반적으로 망식(妄識)이라 하는데, 여가서는 진망화합식(眞妄和合識)이라 하고, 일면으로는 차별적 미망(迷妄)의 세계를 나타내어 그 망(妄)을 일소하는 곳에 진정한 깨달음이 나타난다고 한다.

451) 교리행과(敎理行果) : 4법이라 한다. 구경목적에 이르는 종교적 수양의 과정을 네 단계로 분류한 것. 교(敎)는 언어문자로써 말하는 교설. 이(理)는 교의 내용인 도리. 행(行)은 그 도리에 따라 실천하는 수행. 과(果)는 수행의 결과로 체득하는 결과, 곧 깨닫는 것. 교는 이를 나타내고, 이는 행을 일으키고, 행은 과를 얻는 순서로 어떤 종의(宗義)에도 통용되며, 그 중 교(敎)・이(理)・행(行)은 문(聞)・사(思)・수(修)에 각각 배당된다.

452) 견제(見諦) : 도리를 깨달아 증득함. 성문의 예류과(預流果) 이상 보살로 초지(初地)이상의 성자.

453) 삼장(三藏) : 불교 전적(典籍)의 총칭. ①경장(經藏) :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을 모은 부류의 전적. ②율장(律藏) : 부처님이 제정하신 일상생활에 지켜야할 규칙을 말한 전적. ③논장(論藏) : 경에 말

문구文句를 법보法寶,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은 이剃髮染衣를 승보僧寶라 말함이니,

1・3・5의 세 가지는 대승大乘[454]에 국한局限하고 2・4・6의 세 가지는 대소승大小乘에 통通하니라. 비록 삼귀계三歸戒를 처음 받더라도 해탈解脫을 목적으로 할진댄 반드시 대승삼보大乘三寶에 귀의할진저. 계戒[455]란 도道에 들어가는 방편方便(수단)이라 빠뜨릴 수 없으니, 계상戒相[456]으론 율의律儀[457]를 겸攝하고 계율의 공덕戒德으론 대도大道에 통通할새, 오계五戒[458]는 계경戒經의 으뜸지위首位로서 우선爲先 첫 번째 불살생계不殺生戒[459]에 나고 없어짐이 없는 [460] 이치를 증득證하면 대승大乘이오, 그러지 아니하면 소승小乘이니라.

의리를 밝혀 논술한 전적.

454) 대승(大乘) : ↔소승(小乘). 마하연나(摩訶衍那)라 음역. 사람을 싣고 이상경(理想境)에 이르게 하는 교법 가운데서 교리 교설과 이상경에 도달하려는 수행과 그 이상・목적이 모두 크고 깊은 것이므로, 이것을 받는 근기도 또한 큰 그릇인 것을 대승이라 한다. 바로 보살의 큰 근기가 불과(佛果)의 대열반을 얻는 법문. 여기에는 권대승(權大乘)과 실대승(實大乘)이 있다.

455) 계(戒) : 3학[三學, 계정혜(戒定慧)]의 하나. 6도[六度,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지혜(智慧)]의 하나. 3장(三藏) 중 율장에서 말한 것. 불교 도덕의 총칭. 계(戒)의 범어 시라(尸羅)는 금제(禁制)의 뜻으로 소극적으로는 방비(防非)・지악(止惡)의 힘, 적극적으로는 만선(萬善) 발생의 근본이라 하여 흔히 그 작용에 따라 해석, 또 계는 율장에서 말한 것이므로 비나야(毘奈耶)와 같이 생각하거니와, 율은 경장(經藏)에 대한 일부의 총칭이고, 시라(尸羅)는 비나야 중에서 하나하나 계와 율장 이외에 여기저기에서 말한 것으로 두 가지 사이에 구별이 있다. 일반적으로 계는 계법(戒法)・계체(戒體)・계행(戒行)・계상(戒相)의 네 항목으로 설명. 계법은 부처님이 제정한 법을, 계체는 계를 일러 주는 작법에 의하여 마음에 받아들인 법체로서 방비(防非)・지악(止惡)하는 작용이 있는 것을, 계행은 이 계체를 낱낱이 행동에 나타내는 것을, 계상은 그 행에 따른 여러 가지 차별상(差別相)을 말한다. 종류에는 대승계・소승계의 구별이 있다. 대승계는 3귀계(歸戒)・3취정계(聚淨戒)・10중금계(重禁戒)・48경계(輕戒) 등이고, 소승계는 5계・8계・10계 등의 재가계(在家戒)와 비구의 250계, 비구니의 348계, 사미계, 사미니계 등을 말한다.

456) 계상(戒相) : 네 가지 항목의 계[戒, 계법(戒法)・계체(戒體)・계행(戒行)・계상(戒相)] 가운데 하나. 계법의 조규(條規)에 따라 실지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 모양의 여러 가지 차별.

457) 율의(律儀) : 계율을 말한다. 부처님이 제정한 규모를 지켜 위의(威儀)를 엄정하게 하는 율법.

458) 오계(五戒) : 불교에 귀의하는 재가(在家) 남녀가 받을 5종의 계율. 불교도 전체가 지켜야 할 계율. ①중생을 죽이지 말라. ②훔치지 말라. ③음행하지 말라. ④거짓말 하지 말라. ⑤술 마시지 말라.

459) 불살생계(不殺生戒) : 재가・출가・소승・대승의 일체(一切) 계(戒) 가운데 유정(有情)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금지시킨 계율을 말함.

460) 무생(無生) : (1)무생멸(無生滅)・무생무멸(無生無滅). 모든 법의 실상은 생멸이 없다는 것. (2)아라한・열반의 뜻. 번역하면 다시 미계(迷界)의 생을 받지 않는다는 뜻.

2. 신원지信願地

깨닫기證 전에는 미혹된迷 믿음이요, 깨달은證 후에는 바른 믿음正信이니 원願[461]도 미혹迷된 믿음에 근거根據하면 속인俗人의 원願이요, 바른 믿음에 입각立脚하면 도인道人의 원願이며 비록 바른 믿음의 발원發願이라도 작은 법小法에 그치면 소승小乘이요, 다시 큰 원大願을 일으켜 동요가 없으면 대승大乘이니 믿음信과 원願에 있어 그 참 뜻을 얻어서 거듭 성취成就할지니라.

성문십지聲聞十地[462]에 있어 처음 삼귀계를 받는 경지初受三歸地가 곧 초初. 삼귀지三歸地며, 혹은 2. 신지信地와 3. 신법지信法地가 곧 신원지信願地와 같으나 법을 믿음信法에 있어 생멸사제生滅四諦[463]나 무생사제無生四諦[464]에 국한하지 않고 무량사제無量四諦[465] 또는 무작사제無作四諦[466]를 믿어 장藏[467] · 통通[468] · 별別[469] · 원圓[470]의 사교의四教義[471]

461) (願) : 니려(尼底)라 음역. 바란다는 뜻으로 결정코 얻으려는 희망.

462) 성문승십지(聲聞乘十地) : ①수삼귀지(受三歸地) : 처음에 삼귀계(三歸戒)를 받는 자리. ②신지(信地) : 신근(信根)이 성취하는 자리. ③신법지(信法地) : 사제(四諦)의 이치를 믿게 되는 자리. ④내범부지(內凡夫地) : 오정심관(五停心觀) 등을 닦는 자리. ⑤학신계지(學信戒地) : 계·정·혜 삼학(三學)을 성취하는 자리. ⑥팔인지(八忍地) : 견도(見道)의 자리. ⑦수다원지(須陀恒地) : 예류과(預流果)의 자리. ⑧사다함지(斯陀含地) : 일래과(一來果)의 자리. ⑨아나함지(阿那含地) : 불환과(不還果)를 말함. ⑩아라한지(阿羅漢地) : 무학과(無學果)를 말함.

463) 생멸사제(生滅四諦) : 사종사제[四種四諦, 천태종에서 말하는 네 종류의 사제(四諦). 생멸사제(生滅四諦)·무생사제(無生四諦)·무량사제(無量四諦)·무작사제(無作四諦)]의 하나. 천태종에서 말하는 삼장교(三藏教)의 사제. 삼장교는 사제[四諦, 고집멸도(苦集滅道)], 즉 미(迷)와 오(悟)의 인과(因果)가 실체(實體)가 있으며 진실한 생멸이 있다고 봄.

464) 무생사제(無生四諦) : 사종사제(四種四諦)의 하나. 천태종에서 말하는 통교(通教)의 사제. 통교에서는 인연으로 생긴 본체가 공무(空無)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생멸이 없다고 하는 것.

465) 무량사제(無量四諦) : 사종사제(四種四諦)의 하나. 천태종에서 말하는 별교(別教)의 사제. 별교(別教)에서는 진여(眞如)가 무명(無明)의 훈습(熏習)에 의하여 한량없는 미(迷)·오(悟), 인(因)·과(果)의 모든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사제(四諦)에도 한량없는 모양이 있다고 봄.

466) 무작사제(無作四諦) : 사종사제(四種四諦)의 하나. 천태종에서 말하는 원교(圓教)의 사제. 원교(圓教)에서는 번뇌와 보리(菩提)가 상즉(相卽)하여, 끊을 번뇌도 증득(證得)할 증과(證果)도 없으므로 무작(無作)이라고 봄.

467) 장교(藏教)[삼장교(三藏教)] : 장교(藏教) : 천태종(天台宗)의 교설(教說)인 화법사교[化法四教, 장교(藏教)·통교(通教)·별교(別教)·원교(圓教)]의 하나. 삼장교(三藏教)의 준말. 천태종에서 소승교(小乘教)를 가리키는 말

468) 통교(通教) : 천태종의 교설인 화법사교의 하나. 성문·연각·보살의 3승(乘)이 함께 받는 법. 얕고

를 회통會通하여 벌써 이 경지此地에서 삼귀를 하나로 회통會三歸一하는 이理(道理)를 통달하고 마지막究竟(깨달음) 성취를 목적目的하여 먼저 신심信心과 원력願力을 성취成就하니라.

3. 습인지習忍地

복인伏忍 · 신인信忍 · 순인順忍 · 무생인無生忍 · 적멸인寂滅忍 등 오인五忍[472]가운데 앞 사인四忍에 각각 상上 · 중中 · 하下 삼품三品이 있고, 뒤에 하나의 인忍에 상上 · 하下 이품二品이 있으니, 특히 복인伏忍에 있어 상上을 도종인道種忍, 중中을 성인性忍, 하下를 습인習忍이라 말하는 바, 성문승聲聞乘의 4.내범부지內凡夫地[473] (오정심관五停心觀[474]을 수행

법을 함께 말한 것이므로, 사람의 근성이 영리하고 둔함에 따라서 얕게도 해석하고, 깊게도 해석할 수 있는 교(敎). 근기가 둔한 사람이 이 교를 얕게 해석하면 장교(藏敎)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고, 영리한 사람이 이 교를 높게 해석하면 별교(別敎)와 원교(圓敎)에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 근기에 따라 앞으로는 장교에, 뒤로는 별교와 원교에 통하는 교이므로 통교, 이 교의 세계관은 좁으나 그 밝혀 놓은 이치는 깊다. 체(體)가 공한 것이 그 근본 사상이다.

469) 별교(別敎) : 천태종의 교설인 화법사교의 하나. 근기가 둔한 중생들의 소견(所見)으로 보는 만유(萬有)는 사(事) 방면(方面)에서는 차별이 있지만, 이(理) 방면으로 보면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므로 이 미견(迷見)을 벗어나서 평등한 이치를 깨달으라고 가르치신 교법(敎法).

470) 원교(圓敎) : 천태종의 교설인 화법사교의 하나. 천태대사 지의(智)는 오시팔교(五時八敎)의 교판(敎判)에서는 원(圓)은 불편(不偏)의 뜻이라고 했다. 또 원교(圓敎)는 화엄·방등·반야의 설법에 있어서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미개현(未開顯)의 원(圓)이고 순수한 원교(圓敎)가 아니며 순전히 원교(圓敎)만을 설(說)한 법화(法華)가 오직 개현(開顯)의 원교(圓敎)로서 금원(今圓)이라고 보고, 그 이전은 차원(昔圓)이라고 했다.

471) 사교의(四敎儀) : (1)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의 약칭. (2)책명. 6권. 수(隋)나라 천태대사 지의(智顗)의 저술. 화의화법(化儀化法)의 사교(四敎)의 뜻을 밝힌 것. 제관(諦觀)이 지은 『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와 구별하기 위하여 『대본사교의(大本四敎儀)』라 함. 장(藏)·통(通)·별(別)·원(圓)의 사교(四敎)에 대하여 석존 교화의 대강(大綱)을 적은 것. 처음에 사교(四敎)의 이름을 해석하고, 다음에 사교(四敎)에서 말한 이치를 서술하여 사문입리(四門入理)·판위부동(判位不同)·권실(權實)·관심(觀心) 등의 뜻을 밝힌 것.

472) 오인(五忍) : 보살의 계단을 5종으로 나눈 것. ①복인(伏忍) : 번뇌를 끊지 못하였으나 관해(觀解)를 익혀 이를 굴복시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지위. 곧 10주(住)·10행(行)·10회향(廻向)의 보살. ②신인(信認) : 관하는 마음이 진전되어 증득(證得)할 법을 믿고 의심치 않는 지위. 곧 초지(初地)·이지(二地)·삼지(三地)의 보살. ③순인(順忍) : 전의 믿음에 의하여 다시 나은(勝) 지혜를 연마하여 무생(無生)의 증과(證果)에 순하는 지위. 곧 4지(地)·5지·6지의 보살. ④무생인(無生忍) : 제법 무생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지위. 곧 7지(地)·8지·9지의 보살. ⑤적멸인(寂滅忍) : 종종의 번뇌를 끊어버리고 청정무위(淸淨無爲) 담연적정(湛然寂靜)에 안주(安住)하는 지위. 곧 10지(地)·등각(等覺)·묘각(妙覺)의 지위.

473) 내범(內凡) : 진증(眞證)을 체득하지 못한 것을 모두 범부(凡夫)라 칭하며 이것을 내(內)·외(外) 둘로 나누어 그 가운데 진(眞)의 깨우침에 가까운 범부를 내범(內凡), 그렇지 못

하는 지위位)나 5.학신계지學信戒地(삼학三學[475]을 성취成就하는 지위位)에 속하고, 연각승緣覺乘의 1.고행을 구족하는 경지苦行具足地(계행戒行을 수행하는 지위位), 2.깊고 깊은 십이인연법을 스스로 깨닫는 경지自覺甚深十二因緣地(12연기十二因緣의 관법觀法을 수행하는 지위位), 3.사성제를 깨달아 아는 경지覺了四聖諦地(사제四諦를 관觀하는 지위位) 등에 속하나 3. 습인지習忍地란 소승小乘의 수행법法에 국한하지 않고 한량없는 법문無量法門으로써 근기에 따라隨機 그릇의 크기에 응하여應量 수행이 몸에 익어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편안함 성취成就함이니라.

4. 가행지加行地

어느 수행법修法이든지 바름을 얻으면得正 좋으나 습인習忍을 성취成就한 후 법에 의지하여 결제結制하고(동안거冬安居가 가장 좋음絶好) 경험자의 외호지도外護指導 아래서 일심一心으로 혼란하지 아니不亂하여 삼밀三密[476]을 지키며 용맹정진勇猛精進으로 끊임없이 힘써加行 행하

한 것을 외범(外凡)이라 함. 소승에서는 오정심(五停心)·별상염처(別相念處)·총상염처(總相念處)의 삼현위(三賢位)를 외범(外凡),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의 사선근(四善根)을 내범(內凡)이라 하고, 대승에서는 십신위(十信位)를 외범(外凡), 심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回向)의 삼현위(三賢位)를 내범(內凡)이라 함. 천태의 육즉(六卽)에서는 관행즉(觀行卽) 이전을 외범(外凡), 상사즉(相似卽)을 내범(內凡)이라 함.

474) (五停心觀) : 또는 오도관문(五度觀門)·오도문(五度門)·오문선(五門禪)·오문(五門)·오관(五觀)·오념(五念). 마음의 다섯 가지 허물을 정지시키는 5종의 관법. 부정관(不淨觀)·자비관(慈悲觀)·인연관(因緣觀)·계분별관(界分別觀)·수식관(數息觀). 혹은 계분별관은 인연관과 서로 같으므로 이를 없애고 관불관(觀佛觀)을 더하여 5관이라고도 한다.

475) 삼학(三學) : 불교를 배워 도를 깨달으려는 이가 반드시 닦아야 할 세 가지. ①계학(戒學) : 행위와 언어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몸을 보호하는 계율. ②정학(定學) : 심의식(心意識)의 흔들림을 그치고,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를 나타내는 법. ③혜학(慧學) : 번뇌를 없애고, 진리를 철견(徹見)하려는 법. 계정혜.

476) 삼밀(三密) : 진언밀교(眞言密敎)에서 신(身)·구(口)·의(意)의 3업(業)을 말함. 통불교에서는 부처님 3업의 이름만으로 해석하지만, 밀교에서는 불·중생의 두 방면으로 두 가지 해석을 한다. (1)부처님 3업의 활동은 매우 미묘하여 범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계이므로 밀(密)이라 함. 밀교에서는 우주의 본체인 6대(大)를 인격화한 것이 대일법신여래이므로 그 신밀(身密)은 우주의 전체적 활동이며, 어밀(語密)은 우주간의 온갖 언어·음성의 활동이며, 의밀(意密)은 우주간의 온갖 정신 활동을 말함. 그리하여 3밀은 각각 서로 섭입(涉入)하여 찰나의 신밀도 그 당체에 어밀·의밀을 갖추고, 잠깐의 의밀에도 그 당념(當念)에 신밀·어밀을 갖추었다 함. 이렇게 한 법(法)의 3밀이 서로 섭입할 뿐만 아니라 낱낱 모든 법의 3밀도 서로 갖추고 서로 융통하여 끝이 없다 함. (2)부처님과 중생은 그 체

면 반드시 난위煖位에서 명득정明得定(밝음을 얻는 정), 정위頂位에서 명증정明增定(밝음이 증장하는 정), 인위忍位에서 인순정印順定, 세제일법위世第一法位[477]에서 무간정無間定을 차례로 성취하나니 이를 오상성신위五相成身位에 배치配하면 명득정明得定은 통달심通達心의 전상前相(원인)이요,

명증정明增定은 곧 첫 번째 보리심을 통달하는 지위通達菩提心位며, 인순정印順定은 두 번째 보리심을 닦는 지위며修菩提心位, 무간정無間定은 세 번째 금강심을 이루는 지위成金剛心位를 성취하니 곧 사선四禪[478]을 통관通貫한 일심지一心支로서 그 맨 끝極點이 멸진정滅盡定일새, 무간도無間道[479] 다음이直後 해탈도解脫道[480]니라.

그리고 명득정明得定과 명증정明增定에서 성인性忍을 성취成就하나니 이가 공십지共十地의 두 번째 성지性地요, 인순정印順定에서 도종인道

( )에서 일체불이(一體不二)이므로 중생도 부처님과 같이 미묘한 3업의 활동이 있지마는 오직 수련(修練)한 이만이 아는 세계이고, 범부로서는 알 수 없는 작용이므로 밀(密)이라 함.

477) 세제일법(世第一法) : 대승의 말. 보살 수행의 계위(階位)인 52위(位) 중, 10회향의 만심(滿心)에서 무간정(無間定)에 의하여 상품(上品)의 4여실지(如實智)를 내어, 취착(取着)할 바 경계의 4법(法)은 오직 자심(自心)의 변현한 것으로서 가유실무(假有實無)하다고 아는 동시에, 취착하는 식상(識上)의 4법도 내식(內識)을 여의고는 실유(實有)한 것 아니라고 요지(了知)하는 지위. 바로 10지(地)의 초지인 환희지에 나아가 견도(見道)에 들어감.

478) 사선정(四禪定) : 줄여서 사선(四禪). 신역(新譯)에서는 사정려(四靜慮)라고 한다. 사선정(四禪定)을 닦아서 색계의 사선천(四禪天)에 태어났다 함. ①초선(初禪) : 초선의 전행(前行)에 조주(粗住)·세주(細住)·욕계정(欲界定)·미도정(未到定)이 있다. 그 정선(正禪)은 팔촉(八觸)과 십공덕(十功德)을 갖춘다. 먼저 수행자는 편안히 앉아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흩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호흡의 기운이 조화되며, 심로(心路)가 열려 안은(安穩)하게 된다. ②이선(二禪) : 초선(初禪)의 각관(覺觀)을 버리면 이 선(禪)을 얻는다. 초선에서 이미 색계의 사대전환(四大轉換)을 마쳤으므로 이선(二禪) 이상에는 팔촉(八觸)과 십공덕(十功德)이 없다. 이선(二禪)의 사지(四支)는 내정지(內淨支)·희지(喜支)·락지(樂支)·일심지(一心支) 등이다. ③삼선(三禪) : 이선(二禪)의 희수(喜受)를 버리면 삼선(三禪)을 얻는다. 이 선(禪)에는 오지(五支)가 갖추어져 있다. 사지(捨支)·혜지(慧支)·염지(念支)·낙지(樂支)·일심자(一心支) ④사선(四禪) : 삼선(三禪)의 낙수(樂受)를 버린다. 사지(四支)는 불고불낙지(不苦不樂支)·사지(捨支)·염지(念支)·일심지(一心支). 초선(初禪)의 오지(五支) 또는 사선(四禪)의 사지(四支)는 행체(行體)를 말한다.

479) 무간도(無間道) : 사도(四道)의 하나. 다시 노력정진한 공이 현저하여 진지(眞智)를 바라고 한창 번뇌를 끊는 자리. 번뇌 때문에 간격(間隔)되지 않으므로 무간이라 한다.

480) 해탈도(解脫道) : 사도(四道)의 하나. 무간도(無間道) 후에 생기는 일념의 정지(正智)가 한창 진리를 증오(證悟)하는 자리.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지혜이므로 해탈도(解脫道)라 함.

種忍을 성취成就하나니, 이가 공십지共十地[481]의 세 번째 팔인지八忍地인 동시에 성문승聲聞乘의 여섯 번째 팔인지八忍地(성문聲聞 견도見道의 지위位)며 성인性忍과 도종인道種忍이 아울러 연각승緣覺乘의 네 번째 심심이지지甚深[482]利智地(심심甚深의 무상지無相智가 생기는 지위位)와 다섯 번째 팔성도지八聖道地(팔성도八聖道를 수행하는 지위位)와 여섯 번째 각료법계허공계중생계지覺了[483]法界虛空界衆生界地(이의 삼계三界를 깨달아 아는 지위位) 등에 해당該當하니라.

5. 금강지金剛地

보살菩薩이 장차 바른 깨달음正覺에 오를 새 모두 금강좌金剛座에 앉는다고 말씀하신 금강좌金剛座란 곧 금강지金剛地로서 오상성신五相成身 위차位次의 4번째 금강의 몸을 이루는成金剛身 지위位(수행단계)니 해탈도解脫道에 제일보를 증명印한지라 공십지共十地의 4번째 견지見地요, 또 성문승聲聞乘의 7번째 수다원지須陀洹地[484](예류과預流果의 지위位)며, 연각승緣覺乘의 7번째 적멸寂滅을 증득證하는 경지地(연각緣覺 견도見道의 지위位)인 동시에 8번째 6통지六通地(육신통六神通을 얻는 지위位)의 첫 걸음이니

다시 말하면 5五 금강지金剛地란 지층地層의 가장 밑인 금강륜金剛輪이 홀로 드러난獨露 경지境地로서 담금질한 철鍛鐵의 녹을 제거함과 같고 새장의 새가 탈출함과 같이 죽고 사는 그물을 벗어나 중생衆

---

481) (共十地) : 성문・연각・보살이 함께 닦는 열 가지 계위(階位). 이는『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에서 설한 것으로 천태종에서는 통교(通敎)의 계위라 한다. 건혜지(乾慧地)・성지(性地)・팔인지(八忍地)・견지(見地)・박지(薄地)・이욕지(離欲地)・이판지(已辦地)・벽지불지(辟支佛地)・보살지(菩薩地)・불지(佛地) 등을 말함. →십지(十地).

482) 심심(甚深) : 법의 유묘(幽妙)한 것을 심(深)이라 하고, 심(深)의 극(極)한 것을 심(甚)이라 함.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가 매우 깊음을 뜻하는 말. 『법화경(法華經)』<방편품(方便品)>에「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심심(甚深)하고 무량하다」하였음.

483) 각료(覺了) : 이사(理事)를 각지(覺知)하여 요달(了達)함.

484) 수다원(須陀洹) : 성문(聲聞) 4과(果)의 하나. 예류과(預流果)의 범명(梵名). 무루도(無漏道)에 처음 참례하여 들어간 지위.

生 몸 가운데의 금강불성金剛佛性을 증명하는見證 자者이니 진실로 본격적으로 육안肉眼을 성취할 새, 점차漸次 천안天眼 · 법안法眼 · 혜안慧眼 · 불안佛眼을 얻을지라. 수행자修者가 이 경지地를 성취하여야 비로소 금강살타金剛薩埵[485]라 이름 하니라.

6. 희락지喜樂地

삼계三界를 9지九地[486](미혹의 세계)로 구분區分할새, 욕계欲界는 오취五趣[487]가 같지 아니하나不同 같은同一 산지散地[488](욕계欲界의 과보果報에 정심定心[489]이 없음無으로 써라)이므로 일지一地(동일한 경지)로 합하고 색계色界와 무색계無色界를 각각 4지四地로 나누어 1에 욕계오취지欲界五趣地니 욕계欲界 안에 지옥地獄 · 아귀餓鬼 · 축생畜生 · 사람人 · 하늘天의 오취五趣(아수라阿修羅는 하늘天에 포섭攝함)가 있는 바, 이를 합하여 일지一地(동일한 경지)를 이룬 것이며, 2에 이생희락지離生喜樂地[490]니

욕계欲界의 태어남을 여의고離 그것을 원인因으로 하여 기쁨喜受[491]

---

485) (金剛薩) : 박왈라살타(嚩曰囉薩埵)라 음역. 금강수(金剛手) 집금강비밀주(執金剛秘密主)·지금강구혜자(持金剛具慧者)·금강상수(金剛上首)·일체여래보현(一切如來普賢)·대요금강(大樂金剛)·보현살타(普賢薩埵)라고도 한다. 밀교에서 말하는 부법(付法)의 제2조. 본존대일여래가 법신의 자내증(自內證)을 설한 것을 상수(上首)인 이 금강살타가 이를 결집 편찬하여 남천축의 철탑 속에 넣어둠. 뒤에 용수(龍樹)가 이탑을 열게 되자 금강·태장 양부(兩部)의 비경(秘經)을 받았다고 전한다. 또 금강살타는 금강계 만다라에서는 아촉여래 4근친(近親)의 하나로 나타난다.

486) 삼계구지(三界九地) : 욕계·색계·무색계의 3계를 다시 9지로 나눔. 오취잡거지(五趣雜居地)·이생희락지(離生喜樂地)·정생희락지(定生喜樂地)·이희묘락지(離喜妙樂地)·사념청정지(捨念淸淨地)·공무변처지(空無邊處地)·식무변처지(識無邊處地)·무소유처지(無所有處地)·비상비비상처지(非想非非想處地).

487) 오취(五趣) : 5악취(惡趣)·5도(道)·5유(有)라고도 한다. 취(趣)는 중생의 업인(業因)에 의하여 나아간다는 곳. 여기에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인간(人間)·천상(天上)의 5종이 있다.

488) 산지(散地) : 정지(定地)와 대칭되는 말. 욕계를 가리킨다.

489) 정심(定心) : 의식을 통일하여 한 곳에 집중하는 마음.

490) 이생희락지(離生喜樂地) : 삼계구지(三界九地)의 하나. 곧 색계(色界)의 초선천(初禪天). 욕계(欲界)의 악을 여의고 희(喜)·낙(樂)의 이수(二受)를 받는 곳이므로 이렇게 이름.

491) 희수(喜受) : 마음이 순경(順境)에서 받는 흔열(忻悅)하는 기쁨이다. 오수(五受)의 하나.

과 즐거움樂受[492]이 생기는 경지地로서 눈眼 · 귀耳 · 몸身 · 생각意의 네 가지 인식四識만이 있고 코鼻 · 혀舌 두 가지 인식二識이 없으므로 분별이 없는無分別 즐거움이樂受 상응相應(일치)하여 의식意識에 분별이 있는有分別 기쁨喜修이 상응相應(일치)하니 곧 색계色界의 초선천初禪天[493]이며, 3에 정생희락지定生喜樂地[494]니 초선정初禪定의 기쁨과 즐거움喜樂을 원인因으로 하고 다시 완전하고 훌륭한勝妙 기쁨과 즐거움喜樂이 일어나는 경지地로서 이 경지地 이상已上에는 모두 다섯 가지 인식五識(보는 인식眼識 · 듣는 인식耳識 · 냄새 맡는 인식鼻識 · 맛보는 인식舌識 · 닿는 인식身識)을 여의고離

다만 의식意識만이 있으므로 혹 기쁨과喜受 상응相應하고 혹 즐거움이樂受 상응相應하니 곧 이선천二禪天[495]이며, 4에 이희묘락지離喜妙樂地[496]니 기쁨喜受이 오히려 거친 마음麤心이므로 2선二禪의 기쁨을喜 여의고離 오로지 고요하고 미묘한靜妙 무분별無分別의 즐거움樂에 머무르는 경지地로서 곧 3선천三禪天[497]이며,

5에 사념청정지捨念淸淨地[498]니 즐거움樂受이 오히려 거친 마음粗心으로 이를 여의고離 청정淸淨하고 무위無爲한 사수捨受[499]의 생각念에

---

492) 낙수(樂受) : 삼수(三受)의 하나. 외계(外界)와의 접촉에 의하여 마음과 몸으로 받는 즐거운 감각.

493) (初禪天) : 사선천(四禪天)의 하나. 욕계(欲界) 위에 있는 색계사선천(色界四禪天) 중 제 1의 하늘. 여기에 범중천(梵衆天) · 범보천(梵輔天) · 대범천(大梵天)의 삼천(三天)이 있다.

494) 정생희락지(定生喜樂地) : 색계(色界)의 제이선천(第二禪天). 삼계구지(三界九地) 가운데 하나. 이곳 하늘의 중생은 뛰어나게 기묘한 선정(禪定)에 머물며 선정(禪定)으로부터 심식(心識)의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생기므로 정생희락지(定生喜樂地)라고 말한다.

495) 이선천(二禪天) : 색계제천(色界諸天)을 4선천(禪天)으로 나눈 가운데 제이선천(第二禪天). 이선정(二禪定)을 닦은 이가 나는 천상세계. 소광천(少光天) · 무량광천(無量光天) · 광음천(光音天) 등이다.

496) 이희묘락지(離喜妙樂地) : 삼계구지(三界九地)의 하나. 색계(色界)의 삼선천(三禪天)을 말함. 이 하늘은 이선천(二禪天)의 희(喜)가 성하던 것을 여의고, 마음을 거두어 승묘(勝妙)의 낙수(樂受)에 머무는 경계이므로 이와 같이 부른다.

497) 삼선천(三禪天) : 색계의 제삼선천(第三禪天)을 말함. 제 2선의 기쁨을 여의고, 다시 정묘(靜妙)한 즐거움을 낸다는 뜻. 여기에 소정천(少淨天) · 무량정천(無量淨天) · 변정천(遍淨天)이 있다.

498) 사념청정지(捨念淸淨地) : 삼계구지(三界九地)의 제5(第五). 제사선천(第四禪天).

499) 사수(捨受) : 3수(受) · 5수(受)의 하나.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라고도 함. 몸과 마음에 고

머무르는 경지地로서 곧 사선천四禪天이며, (이상以上 사지四地는 색계色界임) 6에 공무변처지空無邊處地[500]니 색계色界의 색色을 싫어하여厭 공空을 사유思하되 공空에 끝邊際이 없다는 관해觀解[501]를 짓는作자가 이루는生 경지地로서 곧 무색계無色界의 첫 번째 하늘第一天이며, 7에 식무변처지識無邊處地[502]니 앞의 외공外空[503]을 싫어하여 내식內識[504]을 사유思하되 마음識에 끝邊際이 없다는 관해觀解를 짓는作자가 이루는生 경지地로서 곧 무색계無色界의 두 번째 하늘第二天이며,

8에 무소유처지無所有處地[505]니 앞의 내식內識을 싫어하고 무소유無所有를 사유思하여 무소유無所有의 관해觀解를 짓는作자가 이루는生 경지地[506]로서 곧 무색계無色界의 세 번째 하늘第三天이며, 9에 비상비비상처지非想非非想處地[507]니 앞 경지前地와 같은 거친 모습麤相[508]은 없고無(비상非想) 지극히極 미세한微細 생각想念(비비상非非想)이 있는 경지地라, 곧 무색계無色界의 네 번째 하늘第四天로서 삼계三界 가운데

통도 즐거움도 느끼지 않는 일종의 감각작용.

500) (空無邊處地) : 무색계(無色界)의 제1천(第一天). 물질인 이 육신을 싫어하고 가없는 허공의 자재(自在)함을 기뻐하며 공(空)이 가없다는 이치를 알고 수행하여 태어나는 곳이므로 공무변처라 한다.

501) 관해(觀解) : 진리(眞理)를 관념(觀念)하여 요해(了解)함.

502) 식무변처지(識無邊處地) : 9지(地)의 하나. 무색계의 제2천. 식지천(識知天) 식처천(識處天)이라고도 함. 앞의 지(地)에 대한 공(空)이 무변함을 싫어하여, 마음을 돌려 식(識)을 반연하며, 식과 상응하여 마음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아니하고, 3세(世)의 식이 다 정중(定中)에 나타나 청정하고 적정(寂靜)한 과보(果報)를 말함.

503) 외공(外空) : 십팔공(十八空)의 하나. 육근(六根)의 대경(對境)인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은 실체(實體)가 없는 공(空)임을 뜻함.

504) 내식(內識) : 심(心)·의(意)·식(識)을 말한다.

505) 무소유처지(無所有處地) : 9지(地)의 하나. 무색계의 제 천(天). 공(空)은 끝이 없다고 관하여 공을 파한 사람이 다시 식(識)이 3세에 걸쳐 끝이 없는 것을 싫어하고 소연(所緣)이 모두 소유(所有)가 없다고 관하여 어렵게 수행한 힘으로 나는 곳이므로 이같이 이름.

506) 지(地) : 미오(迷悟)의 경계. 지위를 나타낸다. 불지(佛地), 보살지(菩薩地) 등.

507) 비상비비상처지(非想非非想處地) : 비유상비무상처(非有想非無想處)라고도 한다. 무색계의 제4천(天). 이 하늘은 3계(界)의 맨 위에 있으므로 유정천(有頂天)이라고도 한다. 이 하늘에 나는 이는 하지(下地)와 같은 거친 생각이 없으므로 비상(非想) 또는 비유상(非有想)이라 한다. 그러나 세밀한 생각이 없지 아니하므로 비비상(非非想) 또는 비무상(非無想)이라 한다. 비유이므로 외도들은 진열반처(眞涅槃處)라 하고, 비무상이므로 불교에서는 이것도 생사하는 곳이라 한다.

508) 추상(麤相) : 기신론에서 무명을 3종의 세상(細相)과 6종의 추상(麤相)으로 분별한 것.

최고第一의 과보果報니라.

*상념(想念) : 의식에 인상印象되는 일체의 심적 현상.

대개 무색계無色界를 식계識界, 색계色界를 근계根界, 욕계欲界를 경(진塵)계境界로 구분區分할 수 있으나 각각의 세계各界가 각각의 삼계三界를 갖추어 횡橫(가로)으론 구분區分할 수 없고, 종縱(세로)으로 지위를 나눈다면分位 욕경계欲境界를 거친 번뇌가 있는 삼계麤塵三界, 색근계色根界를 미세한 번뇌가 있는 삼계細塵三界, 무색식계無色識界를 극히 미세한 번뇌가 있는 삼계極微三界라 말할까. 어찌 하였든지如何間 삼계三界란 근根[509](인식작용) · 경境[510](인식작용의 대상) · 식識[511](인식)을 달리 말한 것으로서 모양相的[512]으로는 경境(인식작용의 대상)이요, 성품性的[513]으로는 근根(인식작용)이며 분별적分別的으론 식識(인식)일새 다섯 무더기五蘊가 각각 다섯 무더기五蘊를 갖추어 구별하기 어려우나, 한결같은一如[514] 가운데에 성품과 모양性相[515]이 분명하니 요별了

509) (根) : 5관(官) 등의 기관이란 뜻으로 증상(增上)하고 능생(能生)하는 작용이 있는 것을 말함. 5근 22근 등이 이것. 기근(機根)이란 근도 또한 이런 능력이 있다는 뜻.

510) 경(境) : 경계(境界)라고도 한다. 인식작용의 대상, 혹은 대경(對境)의 뜻. 5식(識) 또는 6식에 대한 5경 혹은 6경을 말한다.

511) 식(識) : (1)요별(了別)하는 뜻. 경계를 대하여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 심왕(心王)에만 말하고, 심소(心所)는 별개(別個)로 함. 이에 6식(識)·8식·9식의 구별이 있다. (2)마음의 작용을 심(心)·의(意)·식(識)으로 나누어 말하기도 함.

512) 상(相) : 외계(外界)에 나타나 마음의 상상(想像)이 되는 사물의 모양. 곧 모양·꼴·겉매 등이라 함. 유루(有漏)를 말함.

513) 성(性) : 사물의 자체·본체. 현상 차별의 상대적 모양에 대하여 5온 또는 평등진여를 말함.

514) 일여(一如) : 둘이 아니라는 뜻이며 여(如)는 다르지 않다는 뜻.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음을 일여(一如)라 하며, 곧 진여(眞如)란 뜻이다. 삼장법수(三藏法數)4에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음을 일여(一如)라 하며 곧 진여眞如)의 뜻이다」 하였고, 『문수반야경(文殊般若經)』에 「부사의한 불법은 무분별과 같다. 모두 일여(一如)를 타고 최정각(最正覺)을 성취한다」 하였으며, 『찬미타게(讚彌陀偈)』에 「일여(一如)를 함께 타는 것을 정각(正覺)이라 부른다」하였고, 『교행신증(敎行信證)』 4에 「법성(法性)은 곧 진여(眞如)이며 진여(眞如)는 곧 일여(一如)다」 하였음. 밀교는 사사(事事)와 물물(物物)을 이(理)라 하며, 그리고 이것과 저것이 서로 같은 일여(一如)라 하므로 현교(顯敎)의 체법(體法)과 동체(同體)인 일여(一如)와 차이가 있다. 현교(顯敎)의 일여(一如)는 일법계(一法界)이며, 밀교(密敎)의 일여(一如)는 다법계(多法界)다.

515) 성상(性相) : 성(性)은 법(法)의 자체(自體)로 안에 있으면서 고치지 못하는 것. 상(相)은

別(대상을 각각 구별하여 인식하는 깨달음)이 없지 아니 하니라不無.

수행자修者가 금강자리金剛座에 앉아서 공무변처空無邊處를 관찰觀하고 생각念하면 이생희락지離生喜樂地에 이르고 식무변처識無邊處를 관찰觀하고 생각念하면 정생희락지定生喜樂地에 무소유처無所有處를 관찰觀하고 생각念하면 이희묘락지離喜妙樂地에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에 머무르면 사념청정지捨念淸淨地에 이를 새,

6. 희락지喜樂地란 이생희락離生喜樂과 정생희락定生喜樂이 이루는生 경지地로서 성문승聲聞乘의 8번째 사다함지斯陀含地(일래과一來果의 위位 : 한번 오는 지위)와 공십지共十地의 5번째 박지薄地[516]에 해당하고 5. 금강지金剛地와 6. 희락지喜樂地를 합한 것이 보살승菩薩乘[517]의 초 환희지初歡喜地[518]에 해당當하니라.

7. 이구지離垢地

이희묘락離喜妙樂[519]의 경계境界를 거쳐 사념청정지捨念淸淨地에 이르

상모(相貌)로 밖에 나타나서 분별되는 것. 유의(有爲)와 무의(無爲)가 상대하면 무의법(無爲法)은 성(性)이 되고 유위법(有爲法)은 상(相)이 되며, 유위와 무위는 모두 성상(性相)이 있어 자체를 성(性)이라 하며 가식(可識)을 상(相)이라 함.『지도론(智度論)』31에「성(性)은 그 체(體)를 말하고 상(相)은 가식(可識)을 말한다」하였고,『법화경(法華經)』<방편품(方便品)>에「여시상(如是相) 여시성(如是性)이라」 하였으며,『열반경(涅槃經)』 2에「네 지금 제행(諸行)의 성상(性相)을 보라」 하였음.

516) (薄地) : 삼승공십지(三乘共十地)의 하나. 3승인(三乘人)은 사혹(思惑)이 곧 공(空)하다고 알고, 6품의 무간도지(無間道智)를 일으켜 욕계사혹(欲界思惑)의 6품을 끊고 제6의 해탈을 증득하니, 그 혹(惑)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욕계의 혹(惑)이 점점 적어지므로 박지라 하니, 장교(藏敎)의 2과(果)와 같다.

517) 보살승(菩薩乘) : 3승의 하나. 성불하기를 이상(理想) 목적으로 삼는 보살들이 수행하는 6도(度) 등의 법문. 승(乘)은 싣고 옮겨 간다는 뜻. 이 법문은 보살로 하여금 번뇌의 세계를 벗어나 이상(理想)의 불과에 이르게 하므로 이렇게 이름함. 그러므로 보살의 기류(機類)를 바로 보살승이라 한다.

518) 초환희지(初歡喜地) : 10지(地)의 제1위(位). 환희지와 같다.

519) 이희묘락지(離喜妙樂地) : 삼계구지(三界九地)의 하나. 색계(色界)의 제삼선천(第三禪天)을 말함. 이 하늘은 제이선천(第二禪天)의 추동(麤動)의 희수(喜受)를 여의고 승묘(勝妙)한 락(樂)을 받는 지위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는 경지地니, 성문승聲聞乘의 9 아나함지阿那含地(불환과不還果의 위位 : 돌아오지 않는 지위)에 해당當하고, 보살승菩薩乘의 제2지第二地에 합合하며, 공십지共十地의 6번째 이욕지離欲地에 해당當하니라.

8. 발광지發光地

힘써 수행한 공덕加行功德으로 일시적으로 삼계三界를 벗어나出離 마음의 빛心光[520]이 나타나 9차제정九次第定[521]의 마지막 지위極位인 멸수상정滅受想定(멸진정滅盡定)을 비로소 음미吟味하는 경지地니 보살승菩薩乘의 3지三地에 일치合하니라.

9. 정진지精進地

보살십지菩薩十地[522]에서 십바라밀十波羅蜜[523]을 성취하고 십진여十眞

520) 심광(心光) : 색광(色光)·내광(內光)·지혜광(智慧光)이라고 함. 지혜의 밝음을 광명에 비유.

521) (次第定) : 또는 무간선(無間禪)·연선(鍊禪). 차례로 이어서 닦는 9종의 선정. 초선차제정(初禪次第定)·이선차제정·삼선차제정·사선차제정·공처차제정·식처차제정·무소유처차제정·비상비비상처차제정·멸수상차제정. 이는 초선(初禪)에서 일어나 차례로 제2선(禪)에 들어가고, 여심(餘心)으로 하여금 들지 못하게 하면서 차례차례로 멸진정(滅盡定)에 드는 것.

522) 십지(十地) :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階位)인 52위(位) 중 제41위로부터 제50위까지. 이 10위는 불지(佛智)를 생성(生成)하고, 능히 주지(住持)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온갖 중생을 짊어지고 교화 이익 하는 것이 마치 대지(大地)가 만물을 싣고 이를 윤익(潤益)함과 같으므로 지(地)라 이름. ①환희지(歡喜地) : 처음으로 참다운 중도지(中道智)를 내어 불성(佛性)의 이치를 보고, 견혹(見惑)을 끊으며 능히 자리이타(自利利他)하여 진실한 희열(喜悅)에 가득 찬 지위. ②이구지(離垢地) : 수혹(修惑)을 끊고 범계(犯戒)의 더러움을 제하여 몸을 깨끗하게 하는 지위. ③발광지(發光地) : 수혹을 끊어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지위. ④염혜지(焰慧地) : 수혹을 끊어 지혜가 더욱 치성하는 지위. ⑤난승지(難勝地) : 수혹을 끊고 진지(眞智)·속지(俗智)를 조화하는 지위. ⑥현전지(現前地) : 수혹을 끊고 최승지(最勝智)를 내어 무위진여(無爲眞如)의 모양이 나타나는 지위. ⑦원행지(遠行地) : 수혹을 끊고 대비심을 일으켜, 2승의 오(悟)를 초월하여 광대무변한 진리 세계에 이르는 지위. ⑧부동지(不動地) : 수혹을 끊고 이미 전진여(全眞如)를 얻었으므로 다시 동요되지 않는 지위. ⑨선혜지(善慧地) : 수혹을 끊어 부처님의 10력(力)을 얻고, 기류(機類)에 대하여 교화의 가부(可否)를 알아 공교하게 설법하는 지위. ⑩법운지(法雲地) : 수혹을 끊고 끝없는 공덕을 구비하고서 사람에 대하여 이로운 일을 행하여 대자운(大慈雲)이 되는 지위. 또, 이것을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방편·원·역(力)·지(智)의 10바라밀에 배대하기도 함. 그런데 보살 수행의 기간인 3대 아승기겁 중, 처음 환희지까지에 제1대 아승기겁, 제7지까지의 수행에 제2대 아승기겁을 요한다 함. 이밖에 3승을 공통하여 세운 삼승공십지(三乘共十地)인 간혜지(乾慧地)·성지(性地)·인지(八忍地)·견지(見地)·박지(薄地)·이구지(離垢地)·이판지(已辦地)·지불지(支佛地)·보살지(菩薩地)·불지(佛地)도 있다.

523) 십바라밀(十波羅蜜) : 바라밀은 도(度)·도피안(到彼岸)이라 번역. 보살은 이를 수행하여 중생을 제

如[524]를 증득證하니 환희지歡喜地에서 시바라밀施波羅蜜을 성취하고 변행진여遍行眞如(아我·법法 이공二空의 소현所顯으로서 제법諸法에 통행通行함으로)를 증득證하며, 이구지離垢地에서 계바라밀戒波羅蜜을 성취하고 최승진여最勝眞如[525](끝없는無邊 덕德을 구족하여 일체법一切法에서 가장 우수最勝함으로)를 증득證하며,

발광지發光地에서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을 성취하고 승류진여勝流眞如(이 진여眞如에서 유출所流되는 가르치는 법敎法이 지극히 뛰어남殊勝으로)를 증득證하며, 염혜지燄慧地에서 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을 성취하고 무섭수진여無攝受眞如(소속돼 매임繫屬 바 없어서 아집我執등에 의지하고 또 취하는 바 아니므로)를 증득證하며,

난승지難勝地에서 선정禪定(정려靜慮) 바라밀波羅蜜을 성취하고 무별진여無別眞如(차별差別의 종류類가 없어 눈眼 등의 다른 종류異類가 있다有 하거나 같다如함이 아니므로)를 증득證하며, 현전지現前地에서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을 성취하고 무염정진여無染淨眞如(본성本性이 물듦이 없는無染지라 뒤後에 다시 깨끗해진淨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를 증득證하며,

---

생사의 미해(迷海)를 벗어나고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함. ①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 ②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 ③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 ④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 ⑤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 ⑥지혜바라밀(智慧波羅蜜). ⑦방편바라밀(方便波羅蜜). ⑧원바라밀(願波羅蜜). ⑨역바라밀(力波羅蜜). ⑩지바라밀(智波羅蜜).

524) 십진여(十眞如) : 우주 만유에 가득한 본체인 진여는 본래 절대이므로 나눌 수 없는 것이나 그 덕상(德相)을 나타내며, 또 이를 증지(證知)하는 과정에 구별이 있으므로 분류하는 일이 있음. 이 10진여는 보살이 10지(地)에서 진여를 분증(分證)하는 승덕(勝德)으로 보아서 가립(假立)한 것. ①변행진여(遍行眞如) : 초지(初地)에 들어갈 때에 아집(我執)·법집(法執)을 끊고 깨닫는 진여. ②최승진여(最勝眞如) : 제2지에서 사행장(邪行障)을 끊고, 깨닫는 진여. ③승류진여(勝流眞如) : 제3지에서 암둔장(暗鈍障)을 끊고 깨닫는 진여. ④무섭수진여(無攝受眞如) : 제4지에서 미세번뇌현행장(微細煩惱現行障)을 끊고 깨닫는 진여. ⑤유무별진여(類無別眞如) : 제5지에서 어하승반열반장(於下乘般涅槃障)을 끊고 깨닫는 진여. ⑥무염정진여(無染淨眞如) : 제6지에서 추상현행장(麤相現行障)을 끊고 깨닫는 진여. ⑦법무별진여(法無別眞如) : 제7지에서 세상현행장(細相現行障)을 끊고 깨닫는 진여. ⑧부증감진여(不增減眞如) : 제8지에서 무상중작가행장(無相中作加行障)을 끊고 깨닫는 진여. ⑨지자재소의진여(智自在所依眞如) : 제9지에서 이타중불욕행장(利他中不欲行障)을 끊고 깨닫는 진여. ⑩업자재등소의진여(業自在等所依眞如) : 제10지에서 어제법중미득자재장(於諸法中未得自在障)을 끊고 깨닫는 진여.

525) 최승진여(最勝眞如) : 10진여의 제1지 이구지(離垢地)에서 증득(證得)하는 진여. 이 진여에 무한한 덕이 있어 일체 제법 가운데 비할 것이 없다는 뜻.

원행지遠行地에서 방편선교方便善巧(회향방편선교廻向方便善巧와 발제방편선교拔濟方便善巧) 바라밀波羅蜜을 성취하고 법무별진여法無別眞如(많은 수多數의 법法에 가지가지種種로 안립安立[526]하되 개별적인 다름別異이 없으므로)를 증득證하며,

부동지不動地에서 원願(보살菩薩의 보리를 구하는 원願과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케 하려는 원利樂他願) 바라밀波羅蜜을 성취하고 부증감진여不增減眞如(더하고增 감함減의 집착함을 여의어 깨끗함淨과 물듦染에 따라 더함增과 감함減됨이 아니므로)를 증득證하는 동시에, 또 상토자재소의진여相土自在所依眞如를 증득證할 수 있으니 이를 증득證得하여 마치면 몸의 모습身相을 나타내고 국토國土를 보임示이 자재自在하며,

선혜지善慧地에서 역力(수습력修習力과 사택력思擇力) 바라밀波羅蜜을 성취하고 지智(수용법락지受用法樂智와 성숙유정지成熟有情智) 자재소의진여自在所依眞如를 증득證하니 이를 증득證得하여 마치면 거리낌 없는 지혜無碍解[527]의 자재自在를 얻으며, 법운지法雲地에서 지바라밀智波羅蜜을 성취하고 업자재등소의진여業自在等所依眞如를 증득證得하여 마치면 널리 모든一切 신통神通[528]의 작업다라니정문作業陀羅尼定門에서 모든 자재自在를 얻느니라.

---

526) 안립(安立) : 안치건립(安置建立)한다는 뜻. 『승만보굴(勝鬘寶窟)』에 「안립(安立)은 처음 세우는 것을 안(安), 끝에 이루는 것을 립(立)이라 한다」 하였음.

527) 사무애(四無碍) : 사무애해(四無碍解) 혹은 사무애변(四無碍辯)의 약칭.
사무애해(四無碍解)는 사무애지(四無碍智)·사무애변(四無碍辯)이라고도 함. ①법무애(法無碍) : 명구(名句)나 문(文)이 능전(能詮하는 교법(敎法)을 법(法)이라 하고 교법(敎法)이 무체(無滯)함을 법무애(法無碍)라 함. ②의무애(義無碍) : 교법(敎法)이 소전(所詮)하는 의리(義理)를 알아서 걸림이 없는 것을 의무애라 함. ③사무애(辭無碍) : 또는 사무애(詞無碍)라 하며 제방(諸方)에 언사(言辭)가 통달자재함을 사무애라 함. ④낙설무애(樂說無碍) : 또는 변설무애(辯說無碍). 이전의 세 가지 지혜가 중생을 위하여 낙설자재(樂說自在)함을 낙설무애라 하며, 또는 정리(正理)에 합치하여 무체(無滯)한 언설(言說)을 기(起)함을 변무애(辯無碍)라 함. 무체(無滯)의 언설(言說)은 곧 변(辯)이다.

528) 신통(神通) : 우리 마음으로 헤아리기 어렵고 생각할 수 없는 무애자재(無碍自在)한 통력.

진여의 성품眞如性은 실제로實 차별이 없으나 뛰어난 덕勝德에 따라 열 가지를 잠시 세우니假立 보살초지菩薩初地 가운데에서 이미 일체一切에 통달達하여 능히 증득하여 행證行[529]할 수 있지만 아직 원만圓滿치 못하므로 원만圓滿하기 위爲함인저.

해탈16지解脫十六地에 있어 7・8・11의 3지三地는 보살십지菩薩十地의 2・3・6의 3지三地 이름名 그대로, 9・10의 2지二地는 십바라밀十波羅蜜 가운데 4·5의 머리말冠詞을 인용引用하고, 12・13・14・15・16의 5지五地는 유가17지瑜伽十七地[530] 가운데 13. 성문지聲聞地 14. 독각지獨覺地 15. 보살지菩薩地 16. 유여의지有餘依地 17. 무여의지無餘依地 등과 공십지共十地의 7. 성문지聲聞地 8. 지불지支拂地 9. 보살지菩薩地 10. 불지佛地 등을 참작參酌한 것이니 비추어 비교對照할진져.

10. 선정지禪定地

보살승菩薩乘의 5. 난승지難勝地[531]에 해당當함.

11. 현전지現前地

보살승菩薩乘의 6. 현전지現前地[532]에 일치合함.

---

529) 증행(證行) : 대상(對象)의 개별성(個別性)을 아는 작용.

530) (瑜伽十七地) : 유가의 관행(觀行)을 닦는 이의 소의(所依)・소행(所行)・소섭(所攝)의 경계. 17지(地)가 있다. 오식신상응지(五識身相應地)・의지(意地)・유식유사지(有識有伺地)・무심유사지(無尋唯伺地)・무심무사지(無尋無伺地)・삼마희다지(三摩 多地)・비삼마희다지(非三摩呬多地)・유심지(有心地)・무심지(無心地)・문소성지(聞所成地)・사소성지(思所成地)・수소성지(修所成地)・성문지(聲聞地)・독각지(獨覺地)・보살지(菩薩地)・유여의지(有餘依地)・무여의지(無餘依地).

531) 난승지(難勝地) : 보살의 행위(行位). 십지(十地)의 제오위(第五位). 보살이 이 지위에 이르러서 능히 일체의 정견(情見)을 타파하고, 일체의 법을 통달하여 제불(諸佛)의 경계(境界)에 들므로 누구도 이길 자가 없는 자리를 난승지(難勝地)라 함.

532) 현전지(現前地) : 보살승십지(菩薩乘十地)의 제6지. 진여의 정성(淨性)이 나타나는 지위. 최승(最勝)의 반야가 나타나는 지위.『능엄경(楞嚴經)』8에「무위(無爲)의 진여의 성(性)이 깨끗하고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현전지(現前地)라고 한다」하였음.

12. 나한지羅漢地

성문승聲聞乘의 마지막 과極果[533]인 10. 아라한지阿羅漢地[534], 곧 무학과無學果[535]의 지위位와 연각승緣覺乘의 9. 철화밀지徹和蜜地, 곧 무학과無學果를 증득證하는 지위位와 보살승菩薩乘의 7. 원행지遠行地와 공십지共十地의 7. 이변지已辨地, 곧 아라한과阿羅漢果의 지위位에 해당當하니라.

13. 지불지支佛地[536]

연각승緣覺乘의 마지막 과極果인 10. 습기점박지習氣漸薄地로서 습기習氣를 침해侵害하는 지위位니 공십지共十地의 8. 지불지支佛地에 일치하고 원리를 증명하는 의미證理邊에서는 보살승菩薩乘의 8. 부동지不動地에 해당當하니라.

---

533) (果) : 열매란 뜻. 원인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생기는 법을 말한다. 온갖 법은 모두 원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만, 열반과 같은 무위법(無爲法)은 인(因)에서 생긴 과가 아니고 오랜 수행 끝에 증득되는 것이므로 열반의 묘과(妙果)라 한다. 유식종(唯識宗)에서는 果의 종류를 5과·9과 등으로 나눈다. 5과는 등류(等流)·이숙(異熟)·사용(士用)·증상(增上)·이계(離繫). 9과는 5과 위에 안립(安立)·가행(加行)·화합(和合)·수습(修習)의 4과를 더한 것. 인(因)이 되어 뒤에 자과(自果)를 취하는 것을 취과(取果), 힘을 주어 생기게 함을 여과(與果), 습관에 따라 이루는 것을 습과(習果), 업을 따라 얻은 것을 보과(報果), 선한 인에 따라 나는 법을 선과(善果), 악한 인에 따라 나는 법을 악과(惡果), 괴로운 과보를 고과(苦果), 즐거운 과보를 낙과(樂果)라고 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수(受)를 현재 5과에 생(生)·노사(老死)를 미래 2과, 수다원·사다함·아나함·아라한을 4사문과(四沙門果), 독각(獨覺)의 과를 독각과(獨覺果), 부처의 과를 불과(佛果) 혹은 묘과(妙果)·무상과(無上果)라고도 한다.

534) 아라한(阿羅漢) : 소승의 교법을 수행하는 성문(聲聞). 4과의 가장 윗자리. 응공(應供)·살적(殺賊)·불생(不生)·이악(離惡)이라 번역.

535) 무학과(無學果) : 소승사고(小乘四果)의 하나. 즉 아라한과(阿羅漢果).

536) 지불지(支佛地) : 벽지불지(辟支佛地)의 준말. 천태종 4교중 통교(通教)에서 세운 수행의 차례인 10지의 제8. 이 지위는 제7 이판지(已辦地)에서 3계의 견혹(見惑)·사혹(思惑)을 끊고 다음 생에서 받을 2혹의 습기(習氣). 곧 종자(種子)까지 끊는 지위.

14. 보살지菩薩地

보살승菩薩乘의 9. 선혜지善慧地와 공십지共十地의 9. 보살지菩薩地에 합당合當하니라.

15. 유여지有餘地

유가17지瑜伽十七地 가운데 제第 16. 유여의지有餘依地를 줄여 말한略稱 것으로서 보살승菩薩乘의 마지막 경지終地인 10. 법운지法雲地에 해당當하고 공십지共十地로는 9. 보살지菩薩地를 겸攝하며, 또 등각等覺 지위位도 이에 받아들이나含容 인위因位[537]의 등각等覺[538]이란 50위位의 총대명사라總代名詞 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생략略한다.

16. 무여지無餘地

유가17지瑜伽十七地의 마지막 수행단계終位인 무여의지無餘依地를 간략히 설명略稱하였는데, 이것이 공십지共十地의 10. 불지佛地에 해당하는 묘각妙覺의 지위位니, 4가지 깨달음四覺[539] 가운데 본각本覺을

537) (因位) : 부처가 되려고 수행하는 기간.

538) 등각(等覺) : (1)부처님의 다른 이름. 등(等)은 평등. 각(覺)은 각오(覺悟)의 뜻.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한결같이 평등하므로 등각이라 한다. (2)등정각(等正覺)·금강심(金剛心)·일생보처(一生補處)·유상사(有上士)라고도 한다. 보살이 수행하는 지위 점차 중에서 제51위(位)의 이름. 이는 보살의 극위(極位)로서 그 지혜가 만덕(萬德) 원만한 부처님과 대개 같다는 뜻으로 등각이라 한다. 또 등(等)은 등급(等級)의 뜻으로 이 보살의 각(覺)은 부처님의 묘각(妙覺)까지 1등급이 있으므로 등각이라 한다.

539) 사각(四覺) : ①본각(本覺) : 일체중생의 자성과 청정한 마음이 본래 망념(妄念)을 여의고 조명(照明)의 덕(德)이 있으므로 본각이라 함. ②상사각(相似覺) : 견(見).사(思)의 양혹(兩惑)을 지각(知覺)하여 단(斷)하고 유사(類似)한 각오(覺悟)를 얻는 것. 이는 시각(始覺)하는 처음에 오히려 무명(無明)의 세혹(細惑)이 남아 진각(眞覺)을 얻지 못하므로 상사각이라 함. 진각(眞覺)과 유사하다는 것. 이는 별교別教)의 삼현위(三賢位)와 원교(圓教)의 십신위(十信位)이다. ③수분각(隨分覺) : 분분단무명(分分斷無明)과 분분득진각(分分得眞覺)은 별교(別教)의 십지(十地)이며 원교圓教)의 십주(十住)이상이다. ④구경각(究竟覺) : 이미 근본무명(根本無明)을 단진(斷盡)하고 구경(究竟)의 진각(眞覺)을 얻는 것. 곧 여래지(如來地).

제외하고 16지地에 잘 배치按配하면 이것이 마지막 깨달음究竟覺이요. 4지四地까지가 상사각相似覺, 5지五地부터 수분각隨分覺이며, 오인五忍으로 잘 배치按配하면 4지四地까지 복인伏忍, 8지八地까지 신인信忍, 11지十一地까지 순인順忍, 14지十四地까지 무생인無生忍, 마지막終 2지二地가 적멸인寂滅忍으로서 3지三地까지가 하복인下伏忍(습인習忍), 4. 가행지加行地 가운데 명득정明得定과 명증정明增定이 중복인中伏忍(성인性忍), 인순정印順定이 상복인上伏忍(도종인道種忍), 5·6의 합지合地가 하신인下信忍, 7지七地가 중신인中信忍, 8지八地가 상신인上信忍, 9지九地가 하순인下順忍, 십지十地가 중순인中順忍, 11지十一地가 상순인上順忍, 12지十二地가 하무생인下無生忍, 13지十三地가 중무생인中無生忍, 14지十四地가 상무생인上無生忍, 15지十五地가 하적멸인下寂滅忍, 16지十六地가 상적멸인上寂滅忍인 바, 이를 십사인十四忍[540]이라고도 말하고 상적멸인上寂滅忍을 제외除하여 십삼관문十三觀門[541]이라고도 말하나니,

또한 공空·성性·상相 삼종三宗은 원래 횡적橫的으로는 간별揀別할 바 아니오, 종적縱的으로 그 정도程度를 각각 보인다면 복伏·신信·순順 등 삼인三忍은 상종相宗[542]이요, 무생인無生忍은 성종性宗[543]이며, 적멸인寂滅忍은 공종空宗[544]이니라. 그리고 사가행위四加行位·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 등 모든 지위를諸位 모두 합한都合 56위설五十六位說, 등각위等覺位를 제외除한 55위설五十五位說, 사가행위四加行位를 제외한除 52위五十二

---

540) (十四忍) : 삼현십성(三賢十聖)을 십삼인(十三忍)이라 하고. 정각인(正覺忍)을 더하여 십사인(十四忍)이라 함. [『인왕경(仁王經)』]

541) 십삼관문(十三觀門) : 『인왕경(仁王經)』에서 말하는 삼현(三賢)·십성(十聖)의 행법(行法)을 십삼관문(十三觀門)이라 한다. 이 십삼관문(十三觀門)을 닦은 자는 대법왕이 되며 마땅히 부처님처럼 공양하여야 한다.

542) 상종(相宗) : ↔성종(性宗). 천태종·화엄종과 같이 본체의 문제보다도 만유의 모든 현상의 모양(相)을 주로 연구하는 종지(宗旨). 구사종·법상종과 같은 것.

543) 성종(性宗) : ↔상종(相宗). 현상 차별의 세계를 초월하여 만유 제법의 진실한 체성(體性)을 논하는 종지(宗旨). 삼론종·화엄종 등. 성상이종.

544) 공종(空宗) : 삼라만상은 모두 참으로 있는 것이라고 고집하는 그릇된 소견을 물리치고, 교화하기 위하여 온갖 것이 모두 공하다는 교리를 종지(宗旨)로 한 것. 예를 들면, 성실종(成實宗)·삼론종(三論宗) 등.

位[545] 혹 51위설五十一位說[546], 십신위十信位를 외범부위外凡夫位[547]라 하여

이를 제외한除 42위位 혹 41위설位說 등이 있고 또 십주十住 · 십행十行 · 십회향十廻向을 내범부위內凡夫位[548] 혹 삼현위三賢位라 이르며, 십지十地를 십성위十聖位라 말하는 삼현십성설三賢十聖說[549], 초初 · 2 · 3지三地를 삼현위三賢位, 4지四地를 성인에 들어가는 문入聖之門, 5지五地부터 십지十地까지를 육성위六聖位라 말하는 삼현육성설三賢六聖說 등이 있는 바, 필자筆者는 55위설五十五位說과 삼현육성설三賢六聖說을 지지支持하는 동시에, 55위五十五位를 점차漸次한 차례次第 점수설漸修說을 깨뜨리고打破 안으로의 50위五十位에 있어 오위십중五位十重 또는 십위오중十位五重으로 종횡縱橫 관찰觀察하여 다섯 무더기가 다 공함五蘊皆空을 증득證하는 경지境地로서 곧 오지여래五智如來를 성취成就하는 방편方便(수단)이라 이르니,

삼계三界 사대四大[550]의 색음色陰을 걷고 제법공諸法空[551]을 증득證하면 비로소 바른 믿음正信이 생기므로 처음 믿음初信이요, 수음受陰을 걷

---

545) (五十二位) : 보살수행의 계위를 52로 나눈 것. 곧 10신(信)·10주(住)·10행(行)·10회향(廻向)·10지(地)·등각(等覺)·묘각(妙覺). 전(前)의 51위는 수행의 인(因). 후의 1위는 수행의 과(果).

546) 오십일위(五十一位) : 불도를 수행하는 보살의 향상 수양하는 계급을 51로 나눈 것. 곧 10신(信)·10주(住)·10행(行)·10회향(廻向)·10지(地)·등각(等覺).

547) 외범(外凡) : ↔견도(見道) 이전의 1종의 계급. 소승에서는 5정심(停心). 별상념처(別相念處)·총상념처(總相念處)의 수행위(修行位). 대승에서는 52위의 처음인 10신위(信位).

548) 내범위(內凡位) : ↔외범위(外凡位). 내범의 위(位)를 소승에서는 7방편 중에서 4선근(善根), 곧 난(煖)·정(頂)·인(忍)·세제일(世第一)의 4위로 정하고, 대승에서는 보살의 계위(階位) 중에서 10신(信)의 위(位)를 외범위라 하고, 10주(住)·10행(行)·10회향(廻向)의 위를 내범위라 한다.

549) 삼현십성(三賢十聖) : 대승에서 세운 것. 『인왕경(仁王經)』에 「삼현(三賢)과 십성(十聖)은 인(忍) 가운데 행하고,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능히 그 근원을 다하여 안다」 하였고, 또한 삼현(三賢)과 십성(十聖)은 과보에 주(住)하고, 오직 부처님 한 분 만이 능히 정토에 주(住)한다 하였음.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의 삼위(三位)가 삼현(三賢)이 되고, 초지(初地) 이상에서 십지(十地)까지의 보살이 십성(十聖)이 된다. →현성(賢聖)

550)사대(四大) : 물질계를 구성하는 4대원소 지수화풍(地水火風) 4대종이라 함. 체상용(體相用)이 모두 커서 물질계를 내는 원인이 된다는 뜻.

551) 법공(法空) : ↔아공(我空). 색(色)·심(心)의 모든 법인 만유는 모두 인연이 모여 생기는 가짜 존재로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만유의 체(體)가 공무(空無)한 것을 말한다.

고 이무아二無我[552]를 증득證하면 초발심初發心의 환희지歡喜地에 머무를새住 초발심주初發心住요, 상음想陰을 걷고 분별하는 마음分別心을 제거하면 여래如來의 뛰어난 덕妙德으로써 시방十方에 수순隨順하여 환희歡喜로 행行할새 초환희행初歡喜行이요, 행음行陰을 걷고 일체一切를 통通하면 일체중생一切衆生을 구호救護할새 초구호일체중생회향初救護一切衆生廻向이요, 식음識陰을 걷고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正覺에 올라 환희용약歡喜踊躍할새 초환희지初歡喜地며,

또 힘써 수행한 공덕加行功德으로써 초지初地를 성취하면 처음 믿음初信과 같은 믿음信이 일어나고 초주初住[553]와 같은 경지地에 머무르고住 초행初行과 같이 행行하고 초회향初廻向과 같이 회향廻向하나니 나머지는 다餘皆 이와 같을 것이오做此. 이에 더해서 초初 · 2지二地란 색음色陰, 3 · 4지三, 四地란 수음受陰, 5 · 6지五, 六地란 상음想陰, 7 · 8지七, 八地란 행음行陰, 9 · 십지九, 十地란 식음識陰을 걷는 등의 과위果位로서, 힘써하는 수행加行[554]이란 인위因位일새,

*因位·果位~부처가 되려고 수행하는 기간

부지런히 수행하여勤策修行 이와 같이此等 50위五十位를 원만히圓滿 성취하면 곧 묘각妙覺이라 이름 하니 해탈16지解脫十六地란 보살10지菩薩十地를 근간根幹으로 하고 성문10지聲聞十地, 연각10지緣覺十地, 삼승공10지三乘共十地, 밀교10지密教十地, 유가17지瑜伽十七地, 신信[555] · 주住[556] · 행行[557] · 회향廻向[558] 등 4四의 십위十位, 오상성신위五相成身位,

552) (二無我) : 인무아(人無我)와 법무아(法無我)..

553) 초주(初住) : 보살이 수행하는 계단인 52위 가운데 10주위(住位)에 들어가는 첫 계단인 발심주(發心住).

554) 가행(加行) : 방편이라고도 한다. 공용(功用)을 더 행한다는 뜻으로 목적을 이루는 수단을 가지고 더욱 힘을 써서 수행하는 일.

555) 십신(十信) :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階位) 52위 중, 처음의 10위(位). 부처님의 교법을 믿어 의심이 없는 지위. 신심(信心)·염심(念心)·정진심(精進心)·혜심(慧心)·정심(定心)·불퇴심(不退心)·호법심(護法心)·회향심(廻向心)·계심(戒心)·원심(願心).

556) 십주(十住) :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階位)인 52위 중. 제11위(位)에서 제20위까지. 10신위(信位)를 지나서 마음이 진제(眞諦)의 이치에 안주(安住)하는 위치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주(住)라 함. ①발심주(發心住) : 10신(信)의 종가입공관(從假入空觀)의 관법이 완성되어 진무루지(眞無漏智)를 내고, 마

오인五忍, 13관문十三觀門, 사가행도四加行道 등을 가지와 잎枝葉으로 하여 현교와 밀교顯密[559]를 회통會通한지라, 수행자修者는 처음 삼귀지三歸地를 내고 이어乃至 16생무여지十六生無餘地를 얻어 마지막 깨달음究竟을 성취成就할지니 바로正 16생성불설十六生成佛說[560]에 일치合 하니라.

(성문聲聞 + 연각緣覺 + 보살菩薩 = 해탈십사지解脫十四地까지)

진제의 이치에 안주하는 지위. ②치지주(治地住) : 항상 공관(空觀)을 닦아 심지(心地)를 청정하게 다스리는 지위. ③수행주(修行住) : 만선(萬善) 만행(萬行)을 닦는 지위. ④생귀주(生貴住) : 정히 부처님의 기분(氣分)을 받아 여래종(如來種)에 들어가는 지위. ⑤구족방편주(具足方便住) : 부처님과 같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방편행을 갖추어 상모(相貌)가 결함(缺陷)이 없는 지위. ⑥정심주(正心住) : 용모가 부처님과 같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똑같은 지위. ⑦불퇴주(不退住) : 몸과 마음이 한데 모여 날마다 더욱 자라나고 물러서지 않는 지위. ⑧동진주(童眞住) : 그릇된 소견이 생기지 않고 보리심을 파하지 않는 것이 마치 동자가 천진하여 애욕이 없는 것과 같아서 부처님의 10신(身) 영상(靈相)이 일시에 갖추어지는 지위. ⑨법왕자주(法王子住) :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해[智解, 삼계(三界)를 분별하는 작용]가 생겨 다음 세상에 부처님 지위를 이을 지위. ⑩관정주(灌頂住) : 보살이 이미 불자가 되어, 부처님의 사업을 감당할만 하므로 부처님이 지수(智水)로써 정수리에 붓는 것이 마치 인도에서 왕자(王子)가 자라면 국왕이 손수 바닷물을 정수리에 부어 국왕이 되게 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 또 이것을 탁태(托胎)의 순서를 모방하여 처음 발심주에서 제4 생귀주까지를 입성태(入聖胎), 제5 구족방편주에서 제8 동진주까지를 장양성태(長養聖胎), 제9 법왕자주를 출성태(出聖胎)라고도 함. 혹은 보살의 10지(地)를 10주라고 한 데도 있다.

557) 십행(十行) : 보살이 수행하여야 하는 52단계 중, 제21위에서 제30위까지를 가르킨다. 이타행을 수행하는 위(位)임. 환희행(歡喜行)·요익행(饒益行)·무진한행(無瞋恨行)·무진행(無盡行)·이치란행(離癡亂行)·선현행(善現行)·무착행(無着行)·존중행(尊重行)·선법행(善法行)·진실행(眞實行).

558) 십회향(十廻向) :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階位)인 52위(位) 중에서 제31위에서 제40위까지. 10행위(行位)를 마치고 다시 지금까지 닦은 자리(自利)·이타(利他)의 여러 가지 행을 일체 중생을 위하여 돌려주는 동시에 이 공덕으로 불과(佛果)를 향해 나아가 오경(悟境)에 도달하려는 지위. 구호일체중생이중생상회향(救護一切衆生離衆生相廻向)·불괴회향(不壞廻向)·등일체제불회향(等一切諸佛廻向)·지일체처회향(至一切處廻向)·무진공덕장회향(無盡功德藏廻向)·입일체평등선근회향(入一切平等善根廻向)·등수순일체중생회향(等隨順一切衆生廻向)·진여상회향(眞如相廻向)·무박무착해탈회향(無縛無着解脫廻向)·입법계무량회향(入法界無量廻向).

559) 현밀(顯密) : 진언종에서 판단한 것. 일체의 불교는 현(顯)·밀(密)의 이교(二敎)로 나누어지며 자종(自宗)은 밀교가 되고 타종(他宗)은 모두 현교(顯敎)가 된다 함. 현교(顯敎)란 중생의 근기를 헤아려 보신(報身)·화신(化身)의 설법을 해서 단혹(斷惑)·증리(證理)·수인(修因)·증과(證果)를 나타내는 법문이다. 이것은 다른 이의 뜻을 따르는 교법이 되는 이유가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현교(顯敎)라 한다. 밀교(密敎)란 자수용(自受用) 법성신(法性身)이 자내증(自內證)의 경지를 그대로 설한 것을 말한다. 법신(法身)인 대일여래가 자권속(自眷屬)과 함께 자수용 법락(法樂)으로 설한 삼밀(三密)의 법문을 말한 것. 수타의설(隨他意說)인 밀교는 비밀 진실한 교라 한다.

560) 십육생(十六生) : 진언행자가 16대보살(大菩薩)의 16삼매(十六三昧)를 성취하여 원만한 대각(大覺)을 증(證)하는 것을 말함. 16삼매란 즉 인행(因行)으로 사전(四轉)의 공덕(功德)에 증입(證入)하여 차제(次第)로 점생(漸生)하는 것이 마치 달이 16분(分)에서 점차로 생(生)하여 원월(圓月)에 이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월광(月光)에 비유하여 십육생(十六生)이라 함.

1944년 여름　甲申夏
벽산한인 지음　碧山閒人 撰

참고
52위(五十二位) : 보살승菩薩乘의 개위階位를 밝힌 것. 모든 경론에서 설說한 여러 가지로 서로 같지 않다 함.『대일경大日經』은 10주住에 의지하여 10위位를 밝혔고, 또한 같은 경同經에는 10지地의 10위位를 밝혔으며,『승천왕반야경勝天王般若經』에서는 10지地의 10위位를 밝혔고,『지도론智度論』에서는 삼승이 합설合說한 10위位를 밝혔으며, 금광명경에는 10지地와 묘각妙覺의 11위位를 밝혔고, 유식론에서는 10주住와 10행行과 10회향廻向과 10지地와 묘각妙覺의 41위位를 밝혔으며, 지도론에는 등각等覺을 가입시키어 42位(四十二字門)를 밝혔고,『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에는 10신信・10주住・10행行・10회향廻向・10지地와 묘각妙覺의 51위位를 밝혔으며, 화엄경 또는『보살영락경菩薩瓔珞經』등에는 등각等覺을 가입시켜 52위位를 밝혔다.

『수릉엄경首楞嚴經』에는 등각等覺・묘각妙覺을 가입시켜 56위位로 밝혔음. 이상의 제위諸位를 범성凡聖으로 분별하면 대일경의 10위位 중에 처음 3위位는 범인凡人에 자리하고 뒤 7위位는 현성賢聖의 자리며, 지도론의 10위位는 처음의 2위位가 범부의 자리고 뒤의 8위位는 현성賢聖의 자리며,『승천왕반야경』・『금광명경』의 10위位와 11위位는 모두 성위聖位이며, 유식론의 41위位는 10주住・10행行・10회향의 30위位는 현위이며 10지와 묘각妙覺은 성위聖位다. 이는 천태天台의 별교別教와 화엄종교華嚴終教의 승乘의 자리다. 만일 2종宗의 원교圓教의 승위乘位에 따르면 모두 성위聖位가 된다. 지도론의 42위位는 또한 이를 따르면 알 수 있다. 화엄華嚴 등의 52위位는 처음 10신十信은 범위凡位가 되어 현성賢聖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며 10주住・10행行・10회향廻向의 3위三位는 별교別教와 종교終教에서 모두 현위賢位가 되고 원교圓教에서는 성위聖位가 된다. 뒤의 54위位・56위位도 이에 준하면 알 수 있다.

요컨대 현성賢聖의 위차位次는 모두 42위位다. 그러므로『요의경了義經』에『인왕仁王』・『화엄華嚴』・『영락瓔珞』・『우파기경優婆塞經』등 모두 42위 현성설賢聖說을 하였고 52위位란 말을 하지 않았다. 한 것. 이 가운데 법상종法相宗은 41위位를 쓰고 화엄의 시교始教는 52위位를 쓰며 그 종終과 원圓의 2교教는

42위位를 쓰고 천태天台의 별別과 원圓의 2교敎는 52위位를 쓴다. 지금 천태종天台宗에 의하여 보면 52위位를 7과科로 나누었고 또한 범성凡聖의 둘로 나뉘었다. 범凡과 성聖이 또한 각각 둘로 나누어진다.

천태4교위天台四敎位에 화엄의 10주住・10행行・10회향廻向은 현賢이 되고 10지地는 성聖이 되며 묘각妙覺은 불佛이 된다(곧 41위位). 『영락瓔珞』은 52위位를 밝혔고 『금광명경』에는 다만 10지불과十地佛果를 밝혔으며, 승천왕勝天王에는 10지地를 『열반경涅槃經』에는 5행行을 밝혔다. 이같이 모든 경전의 증멸增滅이 같지 않은 것은 계외界外의 보살이 기機의 이익을 따르는데 어찌 정설定說이 있겠는가? 그러나 깨달음에 위차位次를 각 경전을 두루 살펴보면 『영락경瓔珞經』 만한 것이 없다. 보살의 위차를 증명함證과 갈래침斷의 모양을 대략 밝혔다고 함.

제3편第三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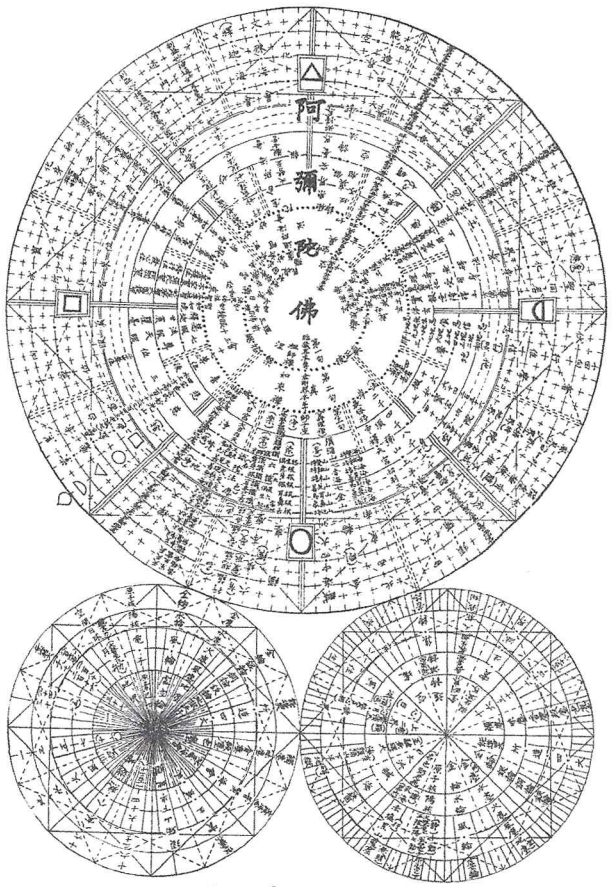
수릉엄삼매도결 상편

首楞嚴三昧圖訣 上篇

圖昧三嚴楞首

圖等性佛昧三吸子師昧三剛金賽羅波若般名又

位尊一十六千一會身成



無障礙蓮華三昧頌 歸命本覺心法身常住妙法心蓮臺本來具足三身佛三十七尊住心城普門塵數諸三昧遠離因果法然具無邊德海本圓滿還我頂禮心諸佛

法性偈三十句中八 一中一切多中一一即一切多即一一微塵中含十方一切塵中亦如是無量遠劫即一念一念即是無量劫九世十世互相即仍不雜亂隔別成

作寫 金華 釋清 釋陀

首楞嚴三昧圖

수릉엄삼매도

又名般若波羅蜜,金剛三昧,獅子吼三昧,佛性等圖

成身會[561]一千六十一尊位

우명반야바라밀,금강삼매,사자후삼매,불성등도

성신회1,061존위

무장애연화삼매송無障礙蓮華三昧頌[562]

귀명본각심법신歸命本覺心法身

본각심本覺[563]心의 법신法身에 귀명歸命하오니

상주묘법심연대常住妙法心蓮臺

묘법妙法의 심연대心蓮臺에 상주常住하여

본래구족삼신불本來具足三身佛

본래本來로 삼신불三身佛을 구족具足하고

삼십칠존주심성三十七尊住心城

여래如來의 삼십칠존三十七尊[564]이 심성心性에 머무르도다

---

561) (成身會) : 또는 근본회(根本會)·갈마회(羯磨會)라고도 함. 금강계구회만다라(金剛界九會曼荼羅)의 중앙에 있는 일회(一會)를 말함.

562) 송(頌) : 게(偈)와 같음. 게송(偈頌)이라고도 함. 운문(韻文) 시구(詩句).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고 교리를 노래하는 시. 십이부경(十二部經)의 하나.

563) 본각(本覺) : 현상계의 제상(諸相)을 초월한 곳에 있는 궁극의 깨달음. 또 이 깨달음의 보편성에 의해 인간은 타고난 대로 깨닫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깨달음. 부처님의 본래의 깨달음.

564) 삼십칠존(三十七尊) : 금강계만다라에서 37의 제존(諸尊). 37의 수는 37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4념처(四念處)·4정근(四正勤)·4여의족(四如意足)·5근(五根)·5력(五力)·7각지(七覺支)·8정도(八正道)].

보문진수제삼매普門塵數諸三昧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삼매三昧로

원리인과법연구遠離因果法然具

인과법因果法을 멀리 여의여 본래면목本來面目을 갖추니

무변덕해본원만無邊德海本圓滿

한량없는 덕해德海[565]는 본래本來로 원만圓滿하여

환아정례심제불還我頂禮心諸佛

내 마음 오로지 자성自性의 제불諸佛에 정례頂禮하노라.

삼십칠존三十七尊은 여래如來의 무량공덕無量功德이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566]에 상응相應하며

연화삼매경蓮花三昧經...역운亦云 무장애경無障礙經, 역운亦云

묘법연화삼매비밀삼마야경妙法蓮花三昧秘密三摩耶經[567]

진단震旦[568] 국중國中(국중에만) 유일부唯一部 지之 경야經也.(유일하게 있는 경전이다)

차경此經(이 경전은) 장경藏經(대장경) 내內에는 없는데

천대가경天臺家經 지상승旨相承 구결口訣 중中에 출出함.

---

565) (德海) : 부처님의 덕이 넓고 깊은 것을 바다에 비유.

566)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 :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한 실천 수행의 방법을 말함.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실천방법을 37로 정리한 것. 4념처(四念處)・4정근(四正勤)・4여의족(四如意足)・5근(五根)・5력(五力)・7각지(七覺支)・8정도(八正道)의 총계. 37각분(三十七覺分)과 같음.

567) 『묘법연화삼매비밀삼마야경(妙法蓮花三昧秘密三摩耶經)』: 1권. 당나라 불공(不空, 705-774) 번역. 『대연화삼매비밀삼마야경(大連花三昧秘密三摩耶經)』・『무장애경(無障礙經)』・『연화삼매경(連花三昧經)』이라고도 함. ≪만속장(卍續藏)≫ 제3책에 수록되어 있음. 밀교의 관점에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해석함. 전체가 금강살타(金剛薩)의 청문(請問)에 대일여래(大日如來)가 답(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자(阿字)의 심지(深旨, 깊은 뜻), 제바달다(提婆達多)의 본원(本源), 구원실성여래(久遠實成如來)의 존형(尊形, 존엄한 모습), 용녀(龍女) 및 초목(草木) 성불(成佛)의 밀주(密呪), 심진언(心眞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불공 스님은 진언종(眞言宗)의 부법(付法) 제6조임.

568) 진단(震旦) : 진(秦)의 음역으로 중국을 말함. 고대 인도인들이 중국을 가리킨 호칭.

경중經中(경전 내용 중에) 귀명歸命 본각심本覺心 법신法身 등等의
게문偈文 팔구八句는 현밀顯密극지極地를(현밀의 지극한 경지를) 설說함.
"녹왕선원鹿王[569]禪院 여의보주기如意寶珠記"에 출함出.

* 위 '무장애연화삼매송'은 淸자 華자 청화 큰스님께서 번역하신 메모지 내용입니다.

법성게法性偈[570] 30구三十句 중8中八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
하나에 모두 있고 많은데도 하나 있어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
하나가 바로 모두로 많은 것 또한 하나이니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한 티끌 작은 속에 세계를 머금었고

일체진중역여시一切塵中亦如是
모든 티끌마다 우주가 가득하네.

무량원겁즉일념無量遠劫卽一念
한량없는 긴 세월이 바로 한 생각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
한 생각이 또한 바로 한없는 세월

구세십세호상즉九世十世互相卽
九세와 十세[571]가 서로 한 줄기

---

569) (鹿王) : 32상(相)의 하나.

570) 법성게(法性偈) : 신라의 의상 스님이 중국에서 『화엄경(華嚴經)』을 연구하면서 그 뜻을 요약하여 게송으로 적은 노래.

571) 십세(十世) : 화엄종의 교학에 있어서 시간 구분. 과거·현재·미래의 3세(三世) 각각에 과거·현재·미래가 있다고 하고, 이러한 9세(九世)에 1세(一世)를 더하여 10세(十世)라고 함.

잉불잡난격별성仍不雜亂隔別成
그러나 섞지 않고 따로 나투네.

* 이 "법성게"는 淸자 華자 청화 큰스님께서 번역하신 것입니다.

제3편

수릉엄삼매도결首楞嚴三昧圖訣 상편上篇

* 수릉엄삼매 그림을 쉽게 보도록 요점을 간추리다.

본本 도결圖訣은 마음을 근본宗으로 삼고, 공空으로 본체體(원리)를 삼으며 성상性相(본체와 현상)으로 작용用(응용)을 삼음이라. 이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그리어 보인圖示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572]의 경계그림境界圖을 분명히 깨닫게了解 함이라.

서론序分의 이름名과 구절句과 글文

「제행諸行」 두 자는 이름名이요 「제행무상諸行無常」넉 자는 구절句이며, 「제행무상諸行無常 시생멸법是生滅法 생멸멸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樂」 열여섯 자는 글文일새, 자성自性(자기의 본성)의 자체體를 설명함이 이름名이요, 뜻을 나타냄이 구절句이며, 본체體와 작용用을 함께 보여준齊示 문자文字가 글文이니, 본편本篇은 수릉엄삼매도首楞嚴三昧圖에 들어 보인擧示 부처님과 조사佛祖의 약간의 이름名과 구절句을 원문原文 혹은 글을 지음撰文으로써 인용하여 증거로 삼아引證 본本 도결圖訣의 서론序分에 대신 함이니라.

---

572) (首楞嚴三昧) : 보살이 닦는 정(定)의 하나. 신역(新譯)으로는 수릉가마(首楞伽摩)라 함. 건상(健相))·견고(堅固)·용건(勇健)·건행(健行) 등이라 번역. 대개 십지(十地)의 보살을 건토(健土)로 하고서 그들이 닦는 정(定)이란 뜻. 이 정(定)은 장군이 군대를 이끌어 적을 무찔러 항복받는 것처럼 번뇌의 마군을 파멸하는 것이라 함. →수릉엄.

*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 -涅槃經四句偈-
"모든 존재는 無常하고 나고 죽는 법이니라. 나고 죽는 법이 다 하면
적멸의 낙이 되니라." -열반경사구게-

제1장 수릉엄 首楞嚴[573]

『수릉엄삼매경首楞嚴三昧經』[574] 가운데에 「보살菩薩이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를 얻으면 능能히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로써 겨자芥子씨가운데 들어가 모든 산山·내河·해日·달月·별들星宿로 하여금 모두 나타나게悉現 하되 원래와 같이 줄어들지 아니하여 모든 중생에게 보이게 하나니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의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세력勢力이 이와 같음이라」하시고,

『지도론智度論』[575] 47에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라는 것은 진나라秦말로는 건상健相이니, 모든 삼매三昧 행상行相(마음의 작용)의 깊고 얕음과 많고 적음을 분별하여 아는 것이 대장大將이 모든 병력의 많고 적음을 아는 것과 같다」하고 「다시 보살菩薩이 이 삼매三昧를 얻으면 모든 번뇌마煩惱魔와 마인魔人이 능能히 무너뜨리는壞 자가 없으니, 비유하건대 전륜성왕轉輪聖王[576]의 소중한

573) (首楞嚴) : 수릉가마(首楞伽摩). 번역하여 건상(健相)·건행(健行)·일체사경(一切事竟)이라 함. 불(佛)이 얻은 삼매의 이름. 건상이란 당기(幢旗)가 견고한데 비유한 것. 불덕(佛德)의 견고함을 제마(諸魔)들이 깨지 못한 것에 비유한 것이며, 일체사경이란 불덕(佛德)의 구경(究竟)을 말한 것.

574) 『수릉엄삼매경(首楞嚴三昧經)』: 방등부. 후진(後秦) 구마라집 번역. 『수릉엄경(首楞嚴經)』. 견의보살(堅意菩薩)이 삼매의 법을 물음에 대하여 부처님이 수릉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의(字義)를 널리 설하여 묘용(妙用)·위력(威力)을 나타내신 것.

575) 『지도론(智度論)』: 『대지도론(大智度論)』의 약명. 용수보살이 짓고 구마라집이 번역함. 『마하반야바라밀다경(摩訶般若波羅蜜多經)』을 자세히 해석한 것. →『대지도론(大智度論)』.

576) 전륜왕(轉輪王) : 전륜성왕·전륜성제(轉輪聖帝)라 번역. 줄여서 윤왕(輪王) 또는 비행황제(飛行皇帝)라고도 한다. 수미(須彌) 4주(四洲)의 세계를 통솔하는 대왕. 이 왕은 몸에 32상을 갖추고 즉위할 때에는 하늘로부터 윤보(輪寶)를 감득하고, 이 윤보를 굴리면서 사방을 위엄으로 굴복케 하므로 전륜왕, 공중으로 날아다니므로 비행황제, 중겁(增劫)에는 인수(人壽) 2만세 이상에 이르면, 이 왕이 세상에 나고, 감겁(減劫)에는 인수(人壽) 무량세에서 8만세까지의 사이에 나타난다 함. 윤보에는 금

장군寶將과 중심이 되는 군사主兵가 가는 곳과 이르는 곳에 능能히 패壞하고 굴복伏함이 없음이라」 하였으며, 『현응음의玄應音義』[577] 23에 「수릉가마首楞伽摩는 이와 같이 이르되 건행정健行定이오 또한 말하되 건상健相인 바, 예전에는 수릉엄首楞嚴也이라」 말하였고,

『열반경涅槃經』[578] 27에 「수릉엄首楞嚴이라는 것은 이름이 일체사경一切事竟(모든 것을 깨달아 마침)이니 엄嚴이라는 것은 이름이 견堅이라 일체를 깨달아一切畢竟 견고堅固함을 얻음이라. 이름이 수릉엄首楞嚴이라서 이와 같은 까닭에 수릉엄정首楞嚴定이라 말하는 것이며, 이름을 불성佛性[579]이라 하니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라는 것은 - 다섯 가지 이름이 있으니 하나는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요,

---

은・동・철의 넷이 있다. 금륜왕은 수미 4주를 통치, 은륜왕은 동・서・남 3주를, 도륜왕은 동・남 2주를, 천륜왕은 남섬부주의 1주를 통치한다고 함.

577)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현응음의(玄應音義)』] : 25권. 당나라 현응(玄應) 지음. 『현응음의(玄應音義)』를 말함. 정관(貞觀) 말년에 칙명으로 지은 것. 처음에 『화엄경(華嚴經)』으로 부터 『순정리론(順正理論)』까지 458권에 걸쳐 범어는 대역(對譯)하고, 알기 어려운 자구와 명목은 낱낱이 주석.

578)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 『열반경(涅槃經)』이라 약칭. 석존의 입멸(入滅)에 대해서 말한 경전. 여기에 소승, 대승의 두 가지 『열반경(涅槃經)』이 있다. 소승의 『열반경(涅槃經)』은 주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입멸 전후에 걸쳐 유행(遊行)・발병(發病)・순타(純陀)의 공양 최후의 유훈(遺訓) 멸후의 비탄 사리 8분(分) 등을 그 주요한 것으로 하고, 대승의 『열반경(涅槃經)』은 교리를 주로 하고 열반이란 사실에 불타론(佛陀論)의 종국 불교의 이상을 묘사했다. 즉 법신(法身)이 상주(常住)한다는 근저에서 불성(佛性)의 본구(本具)와 보편(普遍)을 역설. 적극적으로 열반을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 하여 소승의 소극적 열반론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다. 소승의 『열반경(涅槃經)』으로는『불반니원경(佛般泥洹經)』2권, 『대열반경(大涅槃經)』3권, 『반니원경(般泥洹經)』2권, 『장아함경(長阿含經)』 <제이분(第二分) 유행경(遊行經)> 등이 있다. 대승의 『열반경(涅槃經)』으로는 현존하는 것으로 『방등반니원경(方等般泥洹經)』2권, 『대반니원경(大般泥洹經)』6권, 『대열반경(大涅槃經)』40권, 『사동자삼매경(四童子三昧經)』 3권, 『대비경(大悲經)』 5권, 『대반열반경후분(大般涅槃經後分)』 2권, 남송(南宋)때에 혜관(慧觀)・혜엄(慧嚴)등이 담무참(曇無讖)의 번역을 법현(法顯)의 번역과 대조・수정한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36권 등이 있다.

579) 불성(佛性) : 불(佛)은 각오(覺悟)이다. 일체중생이 모두 각오(覺悟)하는 성품이 있으며 이를 불성이라 함. 성(性)은 불개(不改)의 뜻이며 인과(因果)를 통하여 고쳐지지 않는 자체를 성(性)이라 하며, 보리(麥)의 인(因), 보리(麥)의 과(果), 보리(麥)의 성(性)이 불개(不改)함과 같음. 『화엄경(華嚴經)』 39에 「불성은 심심(甚深)한 진법성(眞法性)이며 적멸(寂滅) 무상(無常)함이 허공과 같다」 하였고, 『열반경(涅槃經)』 27에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 여래는 상주하여 변이(變易)함이 없다」하였음.

두 번째는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이요, 세 번째는 금강삼매金剛三昧요, 네 번째는 사자후삼매獅子吼三昧요, 다섯 번째는 불성佛性이라. 그 지은 바 곳곳에 따라서 이름을 얻음이라」 하시니 수릉엄首楞嚴이란 새롭게新 말하되 수릉가마首楞伽摩로서 건상健相이라 건행健行이라 일체사경一切事竟이라 번역譯한 부처님이 얻은 삼매三昧이름이며, 건상健相이란 부처님 덕佛德이 견고堅固하여 모든 마魔가 능히 무너뜨리지 못함이요, 건행健行이란 모든 부처님 수행이 금강반야행金剛般若行과 같아서요, 일체사경一切事竟이란 부처님 덕佛德의 궁극의 경지究竟을 말함이니, 다시 말하면 일실상一實相(평등한 진여의 모습)인 일상一相[580]이요 일상一相인 건상健相일새, 곧 수릉엄首楞嚴이란 먼저 관념적觀念的(관찰, 사념함) 일상삼매一相三昧로써 건상健相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을 증명見證하고 건행健行인 반야般若를 오로지 행함一行으로써 이理와 사事[581]를 들어맞게契合하되 금강金剛과 같이 견고堅固함을 얻어서 곧卽 이理(절대 평등한 본체)가 곧 사事(차별적 현상)인 일체사一切事 구경究竟[582]에 막힘없이通達[583]함이니라.

---

580) (一相) : 무이(無二)의 상(相)을 말함. 곧 차별이 없는 제상(諸相)은 평등 일미다. 『법화경(法華經)』 <비유품(譬喩品)>에 「이는 모두 일상(一相) 일종(一種)이며, 성(聖)이 칭탄하는 것이다」 하였고, 『유마경(維摩經)』 <제자품(弟子品)>에 「신(身)이 불괴(不壞)하면 일상을 따른다고 하고 주(註)에 조(肇)가 말하기를 만물이 맛을 같이하면 이는 동관(同觀)이 아니며 일상(一相)이다. 그렇다면 신(身)은 곧 일상이다. 어찌 괴신멸체(壞身滅體)한 뒤에 일상을 말하겠는가」 하였음.

581) 이사(理事) : 이(理)와 사(事)를 아울러 일컫는 말. 이(理)는 절대 평등한 본체, 사(事)는 상대차별 현상.

582) 구경(究竟) : 무상(無常)·최상(最上)·구극(究極)·필경(畢竟)의 뜻 ①이사(理事)의 지극(至極), 구극(究極)의 경지, 상대(相對)를 초월한 경지. ②견성성불한 자리. ③천태종에서 세운 육즉위(六卽位)의 최고위. ④화엄종에서 세운 구경위(究竟位).

583) 통달(通達) : 이(理)와 사(事)에 통하여 막힘이 없는 것.

제1절　일행一行과 일상一相

『삼장법수三藏法數』[584] 4에 「일행삼매一行三昧라는 것은 오로지 일행一行[585]을 생각하여 올바른 선정正定을 닦아 익히修習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문수반야경文殊般若經』[586] 하下에 「법계法界는 일상一相이니 법계法界를 계연繫緣[587]함이 일행삼매一行三昧라 이름한다」 하시고, 「일행삼매一行三昧에 들어가는 자는 항하사恒沙[588] 모든 불법계佛法界[589]가 차별된 모습이 없음을 다 아니라」 하시며, 「선남자善男子 선여인善女人이 일행삼매一行三昧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응당 조용한 곳에서空閒 모든 산란한 생각을 버리고 상호相貌를 취하지 아니하며 마음으로 한 부처님을 붙잡아繫 오로지 명호名字를 부르면서稱 부처님 방향方所따라 몸을 단정히 바로 향하되 능히 한 부처님佛 생각이 계속念念 이어지면相續 즉시

생각 가운데念中 능히 과거過去 미래未來 현재現在의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리라」 하시니, 『기신론起信論』[590]에 「삼매三昧에 의지하

584) 삼장법수(三藏法數)』: 또는 『대명삼장법수(大明三藏法數)』 50권. 명나라 일여(一如) 등이 엮음.

585) 일행(一行) : 일사(一事)를 전행(專行)하는 것. 선도(善導)의 『관경소(觀經疏)』 1에 「성불(成佛)하는 법은 만행(萬行)이 원비(圓備)하여 극성(剋成)함을 요한다. 어찌 염불일행(念佛一行)으로 곧 성취(成就)를 바라겠는가」 하였음.

586) 『문수반야경(文殊般若經)』 : 『문수사리소설마하반야바라밀경(文殊師利所說般若波羅密經)』의 약칭 2권(二卷). 양(梁) 만타라선(曼陀羅仙)의 번역. 양(梁) 승가바라(僧伽波羅)가 번역한 『문수사리소설반야바라밀경(文殊師利所說般若波羅蜜經)』과는 동본(同本)으로 출간됨.

587) 계연(繫緣) : 널리 법계(法界)의 사물(事物)에 대하여 현념(懸念)하는 것.

588) 항사(恒沙) : 항하사(恒河沙)를 말함. 갠지스 강의 모래. 갠지스 강에 무수히 있는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무수한 모양을 말함.

589) 불법계(佛法界) : 불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세계.

590)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기신론(起信論)』] : 인도의 마명보살 지음. 진제(眞諦) 번역. 이것은 통론적으로 여러 대승경에 공통된 교리를 말하였으므로 대승통신론(大乘通申論)의 하나라 한다. 내용은 5분으로 나뉨. 1.인연분(因緣分)은 서분(序分 : 서론). 2.입의분(立義分), 3.해석분(解釋分), 4.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의 3부는 정종분(正宗分 : 본론), 5.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은 유통분(流通分 : 결론). 그 중에서 입의분 ·해석분은 교리론으로 1심(心)·2문(門)·3대(大)를 말하고, 수행신심의분은

는 연고로 바로 법계法界가 하나의 모습一相인 줄 알며 일체 모든 부처님佛의 법신法身과 중생의 몸衆生身이 평등平等하여 둘이 없음無二이라 말하며 곧 일행삼매一行三昧라 이름 하니 마땅히 알라 진여眞如가 바로 삼매三昧의 근본根本」이라 하였고, 『육조단경六祖壇經』[591]에 「만약에 어떠한 곳一切處에서도 걷고行 머무르고住 앉고坐 누움臥에 곧은 마음直心(보리심)이 순일純一하여 도량道場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바로 정토淨土[592]를 이루게 되니 일행삼매一行三昧라 이름한다」 하였고,

「만약에 어떠한 곳一切處에서도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저

4신(信)·5행(行)과 아미타불에 의한 정토왕생의 길을 말함. (1)다른 번역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2권(실차난타). (2)대표 주석서 :『대승기신론의소(大乘起信論義疏)』4권(혜원),『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2권(원효),『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3권(현수).

591) 육조(六祖) : 선종(禪宗)의 의발(衣鉢)을 상선(相傳)하여 육세(六世)가 된 것. 초조(初祖) 달마(達摩), 이조(二祖) 혜가(慧可), 삼조(三祖) 승찬(僧璨), 사조(四祖) 도신(道信), 오조(五祖) 홍인(弘忍), 육조(六祖) 혜능(惠能). 육조(六祖) 혜능(惠能) 대사(大師)의 성(姓)은 노씨(盧氏)며 신흥인(新興人)이다. 어머니를 하직(下直)하고 곧 황해동산(黃海東山)에 가서 참학(參學)하였고, 이미 법(法)을 얻고는 남해(南海) 법성사(法性寺)로 돌아와 동산법문(東山法門)을 열고 뒤에 보림사(寶林寺)로 돌아갔다. 어느 날 중인(衆人)에게 말하기를 「내 홍인대사(弘忍大師)의 법요(法要)와 의발(衣鉢)을 받았다. 지금 너희들은 신근(信根)이 순숙(純熟)하니 다만 요법(要法)만 설(說)하고 의발(衣鉢)을 전하지 않으련다.」 하더니 다음해 좌화(坐化)하였다. 조계사(曺溪寺)에 탑을 만드니 지금의 남화사(南華寺)다. 또한 천태종(天台宗) 형계(荊溪) 잠연(湛然)은 지자(智者) 대사(大師)로부터 육대(六代)에 해당하므로 육조대사(六祖大師)라 함.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1권(一卷). 원나라 종보(宗寶) 엮음.『육조단경(六祖壇經)』·『법보단경(法寶壇經)』·『단경(壇經)』이라고도 한다. 육조(六祖) 혜능(慧能)의 어요(語要)를 집록(集錄)한 것. ①행유(行由), ②반야(般若), ③의문(疑問), ④정혜(定慧), ⑤좌선(坐禪), ⑥참회(懺悔), ⑦기연(機緣), ⑧돈점(頓漸), ⑨선조(宣詔), ⑩부촉(咐囑). 모두 10문(門)으로 구성되어 있음.

592) 정토(淨土) : (1)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의 경지에 든 부처님이나 보살이 사는 청정한 국토. 번뇌의 더러움을 여읜 깨끗한 세계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 (2)서방에 있는 극락국토. 안양(安養)·안락국(安樂國)·낙방(樂邦) 등 이라고도 함.

591)『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유마경(維摩經)』] : 3권. 405년(후진 홍치 8년) 구마라집 번역.『불가사의해탈경(不可思議解脫經)』·『유마경(維摩經)』·『정명경(淨命經)』이라고도 한다. 유마 거사의 병중에 문수보살이 여러 성문(聲聞)과 보살들을 데리고 문병하러 갔다. 그때에 유마는 여러 가지 신통을 보이어 불가사의한 해탈상을 나타내고, 서로 문답하여 무주(無住)의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이 성립되는 것과, 삼라만상을 들어 모두 불이(不二)의 일법(一法)으로 돌려보내는 법문을 보였다. 최후에 유마는 잠자코 있어 말없이 있는 것으로써 불가언불가설(不可言不可說)의 뜻을 드러냄, 그 내용은 불국·방편·제자·보살·문질·부사의·관중생·불도·입불이문·향적보살행·견아촉불·법공양· 촉루의 14품으로 되어 있다. 이 경을 중국에서 번역한 것이 전후 7회. 그 중에서 구마라집 번역과 오나라 지겸(支謙) 번역 2권과 당나라 현장(玄) 번역 6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모양 가운데서 미워憎하는 마음과 사랑愛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며, 또한 취取하고 버리는捨 마음 없이 하고, 이익利益·무성함成·무너짐壞 등等의 현상事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한가히 편안安閒하며 편안히 고요恬靜하면서 텅 비어虛 융화融하며 담박澹泊함일새, - 이此를 일상삼매一相三昧」라 했으며, 『유마경維摩經』[593] <제자품弟子品>[594]에 「몸으로 부터於身 무너지지 아니하고不壞 일상一相을 따르라隨」 하심의 주註에 승조스님이肇[595]말하되 「만물萬物의 뜻旨이 같음齊이라 옳고是 그름非을 똑 같이 관찰同觀하는 것이 일상一相이니라.

그러한즉 몸身이 곧 일상一相이니 어찌豈 몸이 무너지고壞身 형상이 소멸滅體한 후後를 기다려待 일상一相이라 말謂하는가」 하였고 『법화경法華經』[596] <비유품譬喩品>[597]에 「모두가 일상一相인 근

---

592) (弟子品) : 『유마경(維摩經)』의 품명(品名)으로 제삼품(第三品)임. 여래(如來)가 유마거사(維摩居士)가 곤야리성(昆耶離城)에서 병들어 있음을 들으시고 오백제자(五百弟子)를 보내서 차례로 병을 위문케 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각 지난 날 거사(居士)에게 굴복당하여 병 위문을 갈 수 없다고 사양한 것. 이를 인하여 제자품(弟子品)이라 함.

593) 승조(僧肇) : (383 - 414) 중국 스님. 장안 사람. 구마라집 문하 4철(哲)의 일인. 처음에는 노장(老莊)의 학을 좋아하여 심요(心要)라 주장, 뒤에 지겸(支謙)이 번역한 『유마경(維摩經)』을 읽고 나서 불교에 귀의. 구마라습을 스승으로 섬기어 역경 사업에 종사. 교리를 잘 알기로 구마라집 문하에서 으뜸. 승략(僧䂮)·도항(道恒)·승예(僧叡)와 함께 구마라습 문하의 4철(哲)이라 부름. 진(晉)나라 의희(義熙) 10년에 장안에서 죽다. 저서는 : 『반야무지론』·『열반무명론』·『보장론』·『부진공론』·『물불천론』 등이 있다.

594) 『법화경(法華經)』[『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약칭. 대승경전의 대표. 7권 28품. 일불승(一佛乘)·회삼귀일(會三歸一)·제법실상(諸法實相)을 말한 경전.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번역 출판. 천태 지자는 『법화경(法華經)』의 가르침을 불교의 중심 사상으로 삼음. 천태종·법상종의 소의(所依) 경전.

595) <비유품(譬喩品)> : 『법화경(法華經)』 28품(二十八品) 중 제3품(第三品)에서, 부처님이 화택(火宅)의 비유(比喩)를 설(說)하여 <방편품(方便品)>에서 말한 삼승(三乘)의 방편교(方便敎) 그대로가 일승(一乘)의 진실교(眞實敎)라고 말한 것을 비교해 알게 한 부분.

596) 『법화문구(法華文句)』[문구(文句)] : 천태지자(天台智者)의 『묘법연화경문구(妙法蓮華經文句)』.

597) 일미 (一味) : 여래(如來)의 교법(敎法), 부처님의 교설(敎說)을 외면적(外面的)으로 관(觀)하면 다종다양(多種多樣)한 듯하나, 그 뜻은 하나라는 말. 비유하면 단맛과 같음. 교법(敎法)의 이취(理趣)는 오직 하나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일미(一味)"라 한다. 『법화경(法華經)』 <약초유품(藥草喩品)>에 「여래(如來)의 설법(說法)은 일상(一相)이요, 일미(一味)다」라고 하였고, 『열반경(涅槃經)』 5에 「또는 해탈(解脫)한 사람을 이름하여 일미(一味)라고 한다」 하였으며, 『심밀경(深密經)』 4에 「일체일미상(一切一味相)의 승의제(勝義諦)에 두루 하였다」라고 하였고, 『삼장법수(三藏法數)』 4에 「일미(一味)는 마치 법화(法華)의 일승삼교(一乘三敎)와 같다」라고 하였으며, 『법화경의소(法華經義疏)』 8에 「일미(一味)는 일지미(一智味)를 말한 것으로 일우(一雨)와 같다」라고 하였음.

본種이 하나一임을 성인聖所이 칭탄稱嘆한 바라」하시고, 『문구文句』598)(법화문구) 7상上에 「일상一相이란 중생의 마음이라 진여眞如 모습과 동일同一할새 이것이 일지一地요 일미一味599)라는 것은 일승一乘의 법法이니 같은 일리一理600)를 설명함이라. 이것이 일우一雨601)라」 했고, 『법화경의소法華經義疎』 8에 「일상一相이란 일실상一實相을(평등한 진여의 모습) 말함이라 일지一地602)와 일치함合也이요, 일미一味란 일지一智603)의 미味라 말謂하며 위上 일우一雨와 일치한다合也」 하였고, 『지도론智度論』 27에 「일상一相이란 이른 바 무상無相604)」이라 하였으니,

598) (一理) : 동일한 이성(理性). 『화엄대소(華嚴大疏)』 2에 「일리(一理)가 제평(齊平)하기 때문에 생계(生界)에 증감(增減)이 없음을 설(說)한다」고 하였음.

599) 일우(一雨) : 부처님이 비록 일미(一味)의 법(法)을 설(說)하나 중생(衆生)이 기연(機緣)에 따라서 차별(差別)이 생기는 까닭은 마치 초목(草木)이 비를 맞는 것과 같다는 비유.

600) 일지(一地) : 땅으로서 중생(衆生)의 불성(佛性)을 비유한 말. 일체(一切)의 초목(草木)의 종자(種子)가 모두 땅에 의(依)하여 태어나는 것처럼 일체(一切)의 선근공덕(善根功德)이 모두 한 불성(佛性)에 의(依)하여 생(生)하는 것에 비유. 『법화문구(法華文句)』 7에 「지(地)는 실상(實相)이다. 구경(究竟)에 가서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일(一)이라고 말한다」 하였고, 『법화의소(法華義疏)』 8에 「일상(一相)은 한 실상(實相)을 말하는 것인데 합(合)하여 일지(一地)이다」 하였음.

601) 일지(一智) : 『화엄경(華嚴經)』에 「일체(一切)의 모든 여래(如來)가 동일(同一)한 법신(法身)이요, 일심(一心)이요, 일지혜(一智慧)며, 역무외(力無畏)도 그렇다. 일불지(一佛智)는 즉 일체종지(一切種智)요, 한 적멸(寂滅)의 상(相)을 보아서 갖가지 행류(行類)의 상모(相貌)를 다 알 수 있으므로 일체종지(一切種智)라고 말한다. 이는 지관삼제(智觀三諦)로 만약 일상(一相) 적멸(寂滅)의 상(相)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중도(中道)를 관(觀)한 것이요, 만약 종종(種種)의 행류(行類)의 상모(相貌)를 다 알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바로 공(空)·가(假) 이제(二諦)를 쌍조(雙照)한 것이다」라고 하였음.

602) 무상(無相) : 진리(眞理)는 모든 상(相)을 여의었다는 말. 『무량의경(無量義經)』에 「무량의(無量義)는 일정(一定)한 법칙(法則)에 따라 생(生)한다. 그 한 법은 곧 무상(無相)을 말한다」 하였고, 『열반경(涅槃經)』 30에 「열반(涅槃)을 무상(無相)이라 한다. 무엇을 인연(因緣)하여 무상(無相)이라 하는가. 善男子는 십상(十相)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십(十)이 되는가. 색상(色相) ·성상(聲相)·향상(香相)·미상(味相)·촉상(觸相)·생주괴상(生住壞相)·남상(男相)·여상(女相)이 십상(十相)이다. 이 같은 상(相)이 없으므로 무상(無相)이라 한다」 하였으며, 『대승의장(大乘義章)』 2에 「무상(無相)의 해석(解釋)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창(理彰)에 따른 것으로서 이(理)는 모든 상(相)을 여의었으므로 무상(無相)이라 하고, 열반법상(涅槃法相)에 따라 해석(解釋)하는 것으로서 열반(涅槃)의 법(法)은 십상(十相)을 여의었으므로 무상(無相)이라 한다」 하였고, 『유마경(維摩經)』 <불이법문품(不二法門品)>에 「일상(一相)과 무상(無相)의 둘이 된다. 만약 일상(一相)을 알게 되면 곧 무상(無相)도 알게 된다. 무상(無相)을 취하지 아니하면 평등(平等)에 들어가며 불이문(不二門)에 들어가게 된다」 하였음.

바꿔 말하면換言 일상一相이란 관찰觀的이요 일행一行이란 생각念的(잊지 않는다)이다. 가령 끝없는 허공虛空에 맑은 물이 가득한데 일체一切는 거품泡沫이라 관찰觀함은 일상삼매一相三昧요 생각念함은 일행삼매一行三昧며, 헤아릴 수 없는 중생無數衆生의 덧없는 행동無常諸行을 미타彌陀의 위대한 모습一大行相이라 관찰觀함은 일상삼매一相三昧요 생각念함은 일행삼매一行三昧다. 그리하여 일상삼매一相三昧와 일행삼매一行三昧의 근본根本은 하나一요 근본根本을 구求하고 찾는索 방법方法은 끝限이 없다.

일체一切를 수은水銀의 흩어진 구슬散珠로, 가지가지形形 모양의 얼음덩어리氷塊로, 색색色色의 그림 그려진 족자畵幅로, 환사幻師의 환술幻術로, 놋쇠鍮物의 반상기飯床器로, 발우 안鉢盂內의 흰 밥으로, 허공虛空의 뜬 구름浮雲으로, 철물鐵物의 녹酸錆으로, 아지랑이陽炎로, 물과 달水月로, 또는 기타의 종종천만種種千萬에서 오직 법에 합당한合法的 것을 인연 따라 결택決擇[605]하고 그 화두話頭를 하나의 대상一境에 마음을 머물러서住 관찰觀而하고 생각하면念之, 거짓으로 하는 관찰假觀的인 일상삼매一相三昧가 원인因이 되어 결과果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을 보게見되고 생각으로 닦는念修的 일행삼매一行三昧가 원인因이 되어 결과果인 보현의 경계普賢境를 깨달음證이라.

제2절 삼매三昧

삼매三昧란 삼마제三摩提 또는 삼마제三摩帝라고도 말하고 마음

605) (決擇) : 결(決)은 결단(決斷), 택(擇)은 간택(揀擇)의 뜻. 의심(疑心)을 결단(決斷)하여 이치(理致)를 분별(分別)하는 지혜(智慧)의 작용(作用).

을 한 곳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음일새 정定이라, 관찰한 바所觀의 법法을 바르게 받을正受새 정수正受라, 난폭한 마음暴心을 조복調伏하고 굽은 마음曲心을 곧게 고르며調直 산란한 마음散心을 조정調定함일새 조직정調直定이라, 마음과 행心行[606]을 바른 진리正法에 일치合하는 의지처依處일새 정심행처正心行處라, 인연과 근심緣慮을 쉬어 그치게息止하고 마음心과 생각念을 응결凝結(엉기어 뭉침)함일새 식려응심息慮凝心이라, 마음을 평등平等하게 간직保持함일새 등지等持라, 선정 가운데定中에 진리의 즐거움法樂이 나타남일새 현법락주現法樂住라, 또 이타적利他的으로 보아 모든 부처님佛과 모든 보살菩薩이 유정계有情界[607]에 들어가서 평등平等하게 호념護念[608]하심일새 등념等念이라고도 번역譯하는 바, 요약要해서 말하면 바른正 삼매三昧란 법에 합당한合法的 한 화두一話頭를 지극한 마음誠心으로써 사유思惟하고 관찰觀察하되 계속하여勤續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不絶이 필요必要하니라.

제2장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이란 육바라밀六波羅蜜[609]이나 십바라밀十波羅

606) (心行) : (1)심(心)은 염염(念念)하여 천류(遷流)되는 것이므로 심행(心行)이라 함. 또한 선악(善惡)의 소념(所念)을 심행(心行)이라 함. 『법화경(法華經)』 <방편품(方便品)>에 「불(佛)께서 그의 심행(心行)을 알므로 대승(大乘)을 설(說)한다」 하였고, 『지관(止觀)』 5에 「법강(法綱)의 조목(條目)을 광시(廣施)하여 심행(心行)의 새(鳥)를 포착(捕捉)한다」 하였음. 『유마경(維摩經)』 <불국품(佛國品)>에 「중생(衆生)의 왕래(往來)하는 소취(所趣)와 심(心)의 소생(所生)을 선지(善知)한다」 하였고, 주(註)에 「육취(六趣)에 왕행(往行)하면 선악(善惡)을 모두 선지(善知)한다」하였음. (2)심중(心中)에서 염염(念念) 불망(不忘)을 심행(心行)이라 하며 선종(禪宗)에서 명심(明心)으로 견성(見性)하여 마음이 혼미(昏迷)하지 않게 하는 것. 『육조단경(六祖壇經)』에 「이 심행(心行)은 구념(口念)에 있지 않다」 하였음.

607) 유정계(有情界) : (1)그 행위(行爲)와 번뇌(煩惱)의 세력(勢力)에 의(依)하여 생(生)을 받는 자들이 사는 세계(世界)를 말하는데,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아수라(阿修羅)·인(人)·천(天)의 육종(六種)이 있다. [『대일경(大日經)』 <주심품住心品)] (2)유정(有情) 세간(世間)과 같음.[『구사론(俱舍論)』]

608) 호념(護念) : 불보살이 선행을 닦는 중생을 늘 잊지 않고 보살펴 주는 일.

609) 육바라밀(六波羅蜜) :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理想境)인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는 여섯 가지 방편. 수행하는 바라밀법의 6종. ①단나바라밀(檀那波羅蜜) : 자비로 널리 사랑하는 행위[보시바라밀

蜜[610] 가운데 여섯 번째第六를 함께 이르는 것共稱으로서 모든 바라밀波羅蜜 가운데 가장最 제일第一로 삼을새, 육바라밀六波羅蜜이란 곧 육근六根(여섯 가지 감각기관)·육경六境(여섯 가지 감각대상)·육식六識(여섯 가지 의식)의 모든 존재諸法가 본래 공本空한 그의 실상지實相智[611]로서 도피안到彼岸이라 하며, 십바라밀十波羅蜜이란 곧 십十은 만수滿數라 저彼 실상지實相智의 반야수행般若行을 원만히 성취成滿하여 사구경事究竟[612]함이니, 각기各其 순서次第의 방편(수단)을 보여서權示 반야般若의 작용用을 크게 나눔大別이라.

제1절 반야般若

반야般若를 반야班若·바야波若·발야鉢若·반라야般羅若·발라야鉢剌若·발라기양鉢羅枳孃·반뢰야般賴若·발신양鉢腎孃·바라양波羅孃이라고도 말하며, 혜慧라, 지혜智慧라, 명明이라 번역하며, 일체一切 허망虛妄한 모습相을 여읜 반야般若의 진실한 성품實性이 곧 중생衆生에게 본래 갖추어진本具 깨달은 바所證의 이치理와 본체體를 실상반야實相般若[613]라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을 관조觀照하는 진실한 지혜實智[614]를 관조반야觀照般若[615]라 하며, 모든 법諸法

(　　)]. ②시라바라밀(尸羅波羅蜜密) : 불교 도덕에 계합하는 행위[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 ③찬제바라밀(　提波羅蜜) : 여러 가지로 참는 것([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 ④비리야바라밀(毘梨耶波羅蜜) : 항상 수양에 힘쓰고 게으르지 않는 것[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 ⑤선나바라밀(禪那波羅蜜) : 마음을 고요하게 통일하는 것[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 ⑥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삿된 지혜와 나쁜 소견을 버리고, 참 지혜를 얻는 것[지혜바라밀(智慧波羅蜜)].

610) 십바라밀(十波羅蜜) : 바라밀은 도(度)·도피안(到彼岸)이라 번역. 보살은 이를 수행하여 중생을 제도하여 생사의 미해(迷海)를 벗어나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함. ①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 ②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 ③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 ④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 ⑤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 ⑥지혜바라밀(智慧波羅蜜). ⑦방편바라밀(方便波羅蜜). ⑧원바라밀(願波羅蜜). ⑨역바라밀(力波羅蜜). ⑩지바라밀(智波羅蜜).

611) 실상지(實相智) : 여여(如如)의 지(地)에서 여여(如如)의 경계를 깨닫는 것이 실상의 지(智)이다.

612) 사구경(事究竟) : 파라미타의 번역. 열반의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 바라밀다(波羅蜜多).

613) 실상반야(實相般若) : 3반야의 하나. 반야는 지혜 또는 명(明)이라 번역. 문자반야와 함께 반야에 의하여 관조(觀照)되는 경계로서 반야로 증득할 바 이체(理體). 천태종에서는 중도실상(中道實相)의 이치를 깨닫는 일체종지(一切種智)라 함. → 삼반야.

을 분별分別하는 권지權智[616]를 방편반야方便般若[617] 또는 문자반야文字般若라 하여 이상已上을 삼반야三般若라 하고 반야般若의 진실한 지혜眞智는 마음으로 인식하는 대상所緣[618]인 일체一切의 모든 존재諸法가 경계境界가 됨일새 4에 경계반야境界般若[619], 5에 난煖[620]·정頂[621]·인忍[622]·세제일법世第一法[623] 등의 모든 지혜智와 계

614) (實智) : 권(權)·실(實) 이지(二智)의 하나. 진제(眞諦)의 진리(眞理)를 깊이 깨달은 지혜(智慧).

615) 관조반야(觀照般若) : 삼종반야(三種般若)의 하나. 실상(實相)의 이(理)를 관조(觀照)하는 지혜(智慧). 즉 반야(般若)의 신체(身體).

616) 권지(權智) : 제법(諸法)의 실상(實相)을 체달함을 여래(如來)의 실지(實智)라 하고, 제종(諸種)의 차별(差別)을 체달함을 여래(如來)의 권지(權智)라고 함. 즉 실지(實智)는 체(體)요, 권지(權智)는 용(用)이다. 여래(如來)가 부처를 이룬 본체(本體)는 실지(實智)에 있고, 일대(一代)를 교화(敎化)한 묘용(妙用)은 권지(權智)에 있음.

617) 방편반야(方便般若)[문자반야(文字般若)] : 3반야의 하나. 문자반야. 문자는 반야를 나타내는 방편일 지언정 직접 반야는 아니나, 문자로 말미암아 반야가 생기므로 문자반야라 한다.

618) 소연(所緣) : 심식(心識)을 일컬어 능연(能緣)이라 하고 심식의 대(對)됨을 소연(所緣)이라 하며 연(緣)은 반연(攀緣)의 뜻이다.『구사론광기(俱舍論光記)』2에「연(緣)은 반연(攀緣)이다. 심(心)과 심소법(心所法)을 능연(能緣)이라 하고 그 대경(對境)을 소연(所緣)이라 하며 그것에 소연(所緣)이 되므로 소연(所緣)이라 한다. 심(心)과 심소법(心所法)의 성(性)은 영열(羸劣)하여 경(境)에 닿으면 바로 일어나는 것이 마치 파리한 사람이 막대가 없으면 걸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하였음.

619) 경계반야(境界般若) : 5종반야(五種般若)의 하나. 일체(一切)의 제법(諸法)은 반야(般若)가 대(對)하는 객관(客觀)의 경계(境界)가 되므로 일체제법(一切諸法)을 가리켜 경계반야(境界般若)라고 함. 반야(般若)는 능연[能緣 : 주관(主觀)]의 지혜(智慧)가 되고 제법(諸法)은 소연[所緣 : 객관(客觀)]의 경계(境界)가 됨. (『삼장법수(三藏法數)』20)

620) 난법(法) : 난(溌)은 난(煖)·난(暖)과 같음. 견도(見道)에 대(對)한 사가행위(四加行位)의 제일위(第一位). 총별(總別)의 염처(念處)를 거쳐 오로지 사제십육행상(四諦十六行相)을 관(觀)하는 지위(地位). 견도(見道)의 무루지(無漏智)가 발(發)하려면 먼저 상사(相似)한 지해(智解)가 생(生)하는데, 이는 마치 불이 일어나는데 먼저 따뜻한 기운이 있는 것과 같음.

621) 정법(頂法)[정위(頂位)] : 또는 정위(頂位)라 함. 사선근(四善根)의 하나. 사선근(四善根) 중에 난(煖)과 정(頂)의 이자(二者)는 동선(動善)이 되고 인(忍)과 세제일(世第一)의 이자(二者)는 부동선(不動善)이 됨. 이 동선(動善) 가운데 최극(最極)으로 마치 사람의 정(頂)과 같으므로 정법(頂法)이라 함.『구사론(俱舍論)』23에「동선근(動善根) 가운데 이 법(法)이 가장 훌륭하여 마치 사람의 정(頂 : 정수리)과 같기 때문에 정법(頂法)이라 함. 혹은 이에 따라 양쪽에 나아가고 물러남이 산정(山頂)과 같기 때문에 정(頂)이라 설(說)한다」하였으며,『유실론(唯識論)』8에「심사위(尋伺位)가 극(極)했기 때문에 다시 정(頂)이라 한다」하였음.

622) 인법(忍法) : 칠현위(七賢位)의 제육(第六). 사선근(四善根)의 제삼위(第三位)의 이름. 사제(四諦)의 이(理)를 받아들여 지(智)가 부동(不動)하므로 이(理)를 인(忍)이라 하고 지(智)를 법(法)이라고 한다.『구사론(俱舍論)』23에「이 정선근(頂善根)은 하중상품(下中上品)이 점차 증장(增長)하여 성만시(成滿時)에 이르러 선근(善根)이 생(生)하기 때문에 인법(忍法)이라 한다. 사제(四諦)의 이(理)를 능히 받아들인 것 가운데 이것이 가장 수승(殊勝)하기 때문이다」하였음.

623) 세제일법(世第一法) : 사가행위(四加行位)의 제4(第四). 이는 유루지(有漏智)의 최극(最極)이며 세속법중(世俗法中)의 제일(第一)이므로 세제일법(世第一法)이 된다.『구사론(俱舍論)』23에「이는 유루

戒[624]·정定·혜慧·해탈解脫·해탈지견解脫知見 등이 관조반야觀照般若인 동시에 지혜와 성품慧性의 권속眷屬이 됨일새 이를 권속반야眷屬般若[625]라 하여 모두都合 5종반야五種般若[626]라 일컫는稱 바, 본체體는 하나一요 작용用은 수 없이無數 많으니라.

(　　)이므로 세간(世間)이라 하고 이는 최승(最勝)이므로 제일(第一)이 된다. 이는 편법(徧法)이 세중(世中)에 승(勝)하므로 세(世)의 제일법(第一法)이 된다」 하였음. 이에는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차별(差別)이 있다.

*사가행위(四加行位) : 또는 사선근위(四善根位)·순결택분(順決擇分)이라 한다. 보살계위(菩薩階位)인 오위(五位)의 두 번째. 난(煖)·정(頂)·인(忍)·세제일(世第一) 등 사위(四位)는 십회향(十廻向)의 지위가 원만(圓滿)하여 다음 통달위(通達位)에 이르기 위해 특히 애써서 수행(修行)하는 자리.

624) 오분법신(五分法身) : 오종(五種)의 공덕법(功德法)으로 불신(佛身)을 이루기 때문에 오분법신(五分法身)이라 함. 소승(小乘)은 이것을 삼신중(三身中)의 법신(法身)이라 함. ①계(戒) : 여래(如來)의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이 일체과비(一切過非)를 여읨을 계법신(戒法身)이라 함. ②정(定) : 여래(如來)의 진심(眞心)이 적정(寂情)하여 일체망념(一切妄念)을 여의는 정법신(定法身)이라 함. ③혜(慧) : 여래(如來)의 진지(眞智)가 원명(圓明)하여 법성(法性)을 달관(達觀)함을 혜법신(慧法身)이라 함. 곧 근본지(根本智)다. ④해탈(解脫) : 여래(如來)의 심신(心身)이 일체(一切)의 계전(繫縛)을 해탈(解脫)함을 해탈법신(解脫法身)이라 함. 곧 열반(涅槃)의 덕(德)을 말함. ⑤해탈지견(解脫知見) : 이미 실해탈(實解脫)을 아는 것을 해탈지견법신(解脫知見法身)이라 함. 곧 후득지(後得智)를 말하는 것. 이 다섯 가지는 차례가 있어 계(戒)에 따라 정(定)이 생기고 정(定)에 따라 혜(慧)가 생기며 혜(慧)에 따라 해탈(解脫)을 얻으며 해탈(解脫)에 따라 해탈지견(解脫知見)이 생긴다. 앞의 세 가지는 인(因)에 따라 이름 한 것이며, 후(後)의 두 가지는 과(果)에 따라 이름한 것. 모두 불(佛)의 공덕(功德)이 된다. 이 오법(五法)으로 불신(佛身)을 이루는 것을 오분법신(五分法身)이라 함.『대승의장(大乘義章)』20에「이 오종(五種)의 분별(分別)을 나누어 법(法)이 궤(軌)가 된다는 뜻. 이는 오종성신(五種成身)의 궤(軌)이므로 법신(法身)이 된다 하며 신(身)은 체(體)다. 이는 오불체(五佛體)이므로 신(身)이라 한다」 하였고,『행종기(行宗記)』1에「오분법신(五分法身)에서 계정혜(戒定慧)는 인(因)에 따른 이름이고 해탈(解脫)과 해탈지견(解脫知見)은 과(果)에 따른 이름이다. 혜(慧)에 따라 혹(惑)을 단(斷)하고 혹(惑)을 단(斷)하여 혹(惑)이 없는 곳을 해탈(解脫)이라함. 묵(　)을 벗어나서 장(障)을 파(破)하고 돌이켜서 관심(觀心)을 조(照)함을 해탈지견(解脫知見)이라 한다」 하였음.

625) 권속반야(眷屬般若) : 오종반야(五種般若)의 하나.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 등의 모든 지혜나 계(戒)·정(定)·혜(慧)·해탈(解脫) . 해탈지견(解脫知見) 등을 말함. 이들은 모두 법(法)을 해조(解照)하는 지혜(智慧)의 권속이므로 권속반야(眷屬般若)라 함. [『금강경찬요간정기(金剛經纂要刊定記)』2].

66) 오종반야(五種般若) :『간정기(刊定記)』에서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다섯 종류로 분류한 것. ①일체의 모든 존재는 모두 공(空)이라 알고 일체의 거짓 양상을 떠난 실상반야(實相般若). ②관조(觀照)에 의해 사물은 고정된 모습·형태가 아니라 전부 공적(空寂)하다는 것을 아는 관조반야(觀照般若). ③문자는 반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본성은 공적(空寂)하다는 것을 아는 문자반야(文字般若). ④대상에 일정의 특질이 없이 다만 주관의 정신작용에 의해 그 대상의 의의를 나타내는 경계반야(境界般若). ⑤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계(戒)·정(定)·혜(慧)·해탈(解脫)·해탈지견은 일체의 존재를 관조하는 지혜의 권속(眷屬)이라는 것을 아는 권속반야(眷屬般若).

67) 대행(大行) : 보살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영원(永遠)에 걸쳐 여러 선행을 행하고 공덕을 쌓는 일. 대승의 실현.

제2절　바라밀波羅蜜

바라밀波羅蜜은 바라밀다波羅蜜多 또는 파라미다播囉弭多라고도 말하며 보살대행菩薩大行[627]의 명칭名稱이니 모습에 집착함이 있는有住相 선행善行보다 모습에 집착함이 없는無住相 대행大行이기 때문이라 보살菩薩의 대행大行은 능能히 일체一切 자행화타自行化他[628]의 사事(나타나는 현상)에 도달함究竟일새 사구경事究竟이며, 이 대행大行을 타고 능能히 나고 죽는生死 이 언덕에서 열반涅槃의 저 언덕彼岸에 도착함 일새 도피안到彼岸이라. 이 대행大行을 의지因하여 능能히 모든 존재諸法가 넓고 먼廣遠(광원廣遠에 '廣'자는 바라밀이란 뜻이 있습니다) 곳에 이를度새,

도무극度無極 또는 도度라 번역하며, 재시財施·무외시無畏施·법시法施의 대행大行을 보시布施[629] 또는 단바라밀檀波羅蜜이라 하고, 재가在家·출가出家·소승小乘·대승大乘의 모든一切 계율戒律을 잘 지니는能持 대행大行을 지계持戒 또는 시라바라밀尸羅波羅蜜이라 하고, 일체一切 정情(감정·생명)이 있는有 것의 욕설罵辱·때림擊打 등 또는 정 없는非情 것의 추위寒·더위熱·굶주림飢·목마름渴 등을 잘能 인내忍하여 받는受 대행大行을 인욕忍辱 또는 찬제바라밀羼提波羅蜜이라 하고,

---

628) (自行化他)[자리이타(自利利他)] : 자리이타(自利利他)와 같음. 보살(菩薩)의 만행(萬行)이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음.『법화문구(法華文句)』81에「구별하여 논(論)한다면 구업(口業)은 타(他)를 교화(敎化)함이며 자의(自意)는 자행(自行)이다. 통론(通論)한다면 삼업(三業)은 바로 자궤(自軌)로서 자행(自行)의 법(法)이며 삼업(三業)의 교조(敎詔)는 타(他)를 교화(敎化)하는 법(法)이다」하였다.『종경록(宗鏡錄)』34에「일심(一心)으로 자행화타(自行化他)를 요달(了達)한다」하였음.

629) 보시(布施) : ①재시(財施) : 삼시(三施)의 하나. 의복·음식·밭과 집·진보(珍寶) 등. 다른 사람에게 시여(施與)하는 것. ②무외시(無畏施) : 계행(戒行)을 지켜 살생하지 아니하는 일, 또는 중생을 온갖 두려움에서 구하여 건져줌. ③법시(法施) : 다른 사람에게 교법(敎法)을 말하여 선근(善根)을 자라게 하는 것. 또 법(法)을 말하여 주는 것.

몸과 마음 다해 부지런히 행하여精勵 앞 뒤前後의 5바라밀五波羅蜜을 닦아 나아가는進修 대행大行을 정진精進 또는 비리야바라밀毘梨耶波羅蜜이라 하고, 진리眞理를 사유思惟하여서 깨달음을 얻기 전證前의 산란한 마음散亂心을 그치는定止 긴요한 법要法이 되고 깨달음을 얻은 후證後에는 선정定에 들어入가는 대행大行이 될새 이를 선정禪定 또는 선바라밀禪波羅蜜이라 하고, 비로소 의혹을 끊고 이치를 깨달으면斷惑證理 도道에 들어감이요 도道에 들어간 후 모든 존재諸法에 통달通達하는 대행大行일새 이를 지혜智慧 또는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이라 하니, 이 여섯 가지 대행六大行을 겸하여 갖춘兼具 보살菩薩이 자리이타自利利他[630]를 원만히 성취成滿하여 열반언덕涅槃岸에 도착하나니 이름이 구경究竟이니라.

630) (自利利他) : 성문(聲聞)·연각(緣覺)의 행(行)은 자리(自利)가 되고, 제불(諸佛)·보살(菩薩)의 행(行)은 자리이타(自利利他)가 됨.『유교경(遺敎經)』에「자리이인(自利利人)의 법(法)이 모두 구족(具足)하니 내가 더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익 될 것이 없다」라고 하였음.

제3절 십바라밀十波羅蜜과 보살십지菩薩十地[631]

처음初에는 보살菩薩이 이미 탐貪하는 마음의 3분의 2를 제거하고 견혹見惑[632]을 파破할새 비로소 성자의 성품聖性[633]을 얻어서 아我·법法 이공二空[634]의 이치理를 깨닫고證 대환희심大歡喜이

631) (十地)[십성(十聖)] : 십성(十聖)이라고도 한다. 보살(菩薩)이 수행하는 계위(階位)인 오십이위(五十二位) 중 제사십일위(第四十一位)로 부터 제오십위(第五十位)까지. 이 십위(十位)는 불지(佛智)를 생성(生成)하고 능히 주지(住持)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일체중생(一切衆生)을 교화하여 이익(利益)을 주는 것이 마치 대지(大地)가 만물(萬物)을 싣고 이를 윤익(潤益)함과 같으므로 지(地)라 이름. 즉 ①환희지(歡喜地) : 처음으로 참다운 중도지(中道智)를 내어 불성(佛性)의 이치(理致)를 보고 견혹(見惑)을 끊으며 자리이타(自利利他)하여 희열(喜悅)에 찬 지위(地位). ②이구지(離垢地) : 수혹(修惑)을 끊고 범계(犯戒)의 죄(罪)를 없애어 몸을 청정(淸淨)하게 하는 지위(地位). ③발광지(發光地) : 수혹(修惑)을 끊어 지혜(智慧)의 광명(光明)이 나타나는 지위(地位). ④ 염혜지(焰慧智) : 수혹(修惑)을 끊어 지혜(智慧)가 더욱 성(盛)하는 지위(地位). ⑤난승지(難勝地) : 수혹(修惑)을 끊고 진지(眞智)·속지(俗智)를 조화하는 지위(地位). ⑥현전지(現前地) : 수혹(修惑)을 끊고 최승지(最勝智)를 내어 무위진여(無爲眞如)의 모양을 내는 지위(地位). ⑦원행지(遠行地) : 수혹(修惑)을 끊고 대비심(大悲心)을 일으켜 이승(二乘)의 오(悟)를 초월(超越)하여 큰 진리세계(眞理世界)에 도달하는 지위(地位). ⑧부동지(不動地) : 수혹(修惑)을 끊어 전진여(全眞如)를 얻으므로 다시 동요(動搖)되지 않는 지위(地位). ⑨선혜지(善慧地) : 수혹(修惑)을 끊어 불타(佛陀)의 십력(十力)을 얻고 기류(機類)에 대하여 교화(敎化)의 가부(可否)를 알고 설법(說法)하는 지위(地位). ⑩법운지(法雲地) : 수혹(修惑)을 끊고 끝없는 공덕(功德)을 갖추어 대자운(大慈雲)이 되는 지위(地位). 또 이것을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지혜(智慧)·방편(方便)·원(願)·력(力)·지(智)의 십바라밀(十波羅蜜)에 배대하기도 함. 그런데 보살(菩薩) 수행의 기간(期間)인 삼대아승기겁(三大阿僧祇劫) 중에서, 처음 환희지(歡喜地)까지의 수행(修行)에 일대아승기겁(一大阿僧祇劫), 제7지(第七地)까지의 수행(修行)에 제이대아승기겁(第二大阿僧祇劫)을 요(要)한다 함. 이상은 대승보살의 십지(十地)이고 이밖에 삼승(三乘)을 공통하여 세운 삼승공십지(三乘共十地)인 건혜지(乾慧地)·성지(性地)·팔인지(八忍地)·견지(見地)·박지(薄地)·이구지(離垢地)·이판지(已辦地)·지불지(支佛地)·보살지(菩薩地)·불지(佛地)도 있다.

632) 견혹(見惑) : ↔수혹(修惑). 견번뇌(見煩惱)·견장(見障)이라고도 한다. 견도위(見道位)에서 4제의 이치를 볼 때에 끊는 번뇌, 곧 진리가 밝혀지지 않은 미(迷). 그 자체에 신견(身見)·변견(邊見)·사견(邪見)·견취견(見取見)·계금취견(戒禁取見)·탐(貪)·진(瞋)·치(癡)·만(慢)·의(疑) 등 10종이 있다. 그러나 3계(界)에서 각기 4제를 관찰하여 끊는 번뇌는 각제(各諦)에서 제각기 다르므로 모두 88사(使)의 견혹이 된다. 욕계에는 고제(苦諦) 아래 10사(使), 집제(集諦)·멸제(滅諦) 아래 각 7사(使), 도제(道諦) 아래 8사(使), 도합 32사(使)가 있고, 색계·무색계에는 각기 욕계의 32사(使)에서 4사(使)를 제하고 28사(使), 도합 56사(使)가 있으므로 앞에 32사(使)와 합하여 88사(使)가 된다.

633) 성성(聖性)[정성(正性)] :『유식론(唯識論)』에서는 성성(聖性)이라 하고『구사론(俱舍論)』에서는 정성(正性)이라 하나 그 뜻은 같다.『유식론(唯識論)』에서는 무루지(無漏智)의 종자(種子)가 성성(聖性)의 체(體)가 된다 하고,『구사론(俱舍論)』에서는 번뇌(煩惱)를 여의는 것을 정성(正性)이 된다고 함.『유식술기(唯識述記)』말(末)에「곧 무루지(無漏智)·분별지(分別智) 등에 의(依)하여 오온(五蘊)의 종자(種子)를 구행(俱行)한 것은 성성체(聖性體)가 된다」하였고,『구사론(俱舍論)』10에「무엇이 정성(正性)이냐 하면 계경(契經)에 말하기를 탐(貪)도 단(斷)하여 남음이 없고 진(瞋)도 단(斷)하여 남음이 없으며 치(癡)도 단(斷)하여 남음이 없고, 일체번뇌(一切煩惱)를 모두 남김없이 단(斷)하는 것을 정성(正性)이라 한다」하였음.

634) 이공(二空) : 2종의 공(空). 인법이공(人法二空)의 약어. 아(我)·법(法)의 이공(二空) 생공(生空)과 법공(法空)·인아(人我)의 공(空)과 법아(法我)의 공(空). 아공[我空 : 인공(人空)·생공(生空)]은 나의 존

일어나니 환희지歡喜地요, 동시同時에 일체一切를 보호救護하여서 모습에 집착이 없는無住相 보시布施를 행行하고 이에 근거基하여 열반언덕涅槃岸에 도착到할새 단바라밀檀波羅蜜을 성취成就함이요,

2에는 나머지殘餘 약간一分의 탐하는 마음貪心을 제거除함에 따라 일찍이 견혹見惑을 비롯基하였던 사혹思惑[635]을 제거除하는 동시에 계바라밀戒波羅蜜을 성취成就할새, 헐뜯고毁 범犯하는 때를 여읜 몸으로 깊은 생각思念이 청정淸淨하니 이구지離垢地요,

3에는 화내는 마음嗔心을 억제抑制하고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을 성취成就하여서 체찰법인諦察法忍[636]을 얻으니 지혜智慧가 분명히 드러날顯發새 발광지發光地요,

4에는 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을 성취成就하니 지혜의 성품慧性으로 하여금 치성熾盛케 할새 염혜지燄慧地요,

5에는 화내는 마음嗔心의 근본根本이 제거除去되는 동시同時에 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을 성취成就하고 이理와 사事를 계합契合하여서 진속이지眞俗二智[637]의 어울림相應을 성공成功함에 따라 진사혹塵沙

오온(五蘊)의 임시 화합으로 상일주재(常一主宰)의 아(我)는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 즉, 실체적 자아의 관념을 부정하는 것. 법공(法空)은 개체를 구성하는 여러 법(法)도 자성(自性)이 아니라고 설한 것. 즉, 정신적·물질적인 모든 존재의 실재관념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개인 존재와 그 구성요소의 궁극적인 비실재성을 말함.

635) 사혹(思惑)[수혹(修惑)] : 미사(迷事)의 혹(惑). 사[事 : 현상(現像)]에 미혹(迷惑)하는 것으로 81품(八十一品)이 있다. 수혹(修惑)이라고도 함. 감각적(感覺的)·육체적(肉體的)·미혹(迷惑). 정의적(情意的)인 혹(惑). 점단(漸斷)임. [『사교의집주(四敎儀集註)』].

636) 체찰법인(諦察法忍) : 제법(諸法)의 본체(本體)가 생멸(生滅)하지 않는 이치를 자세히 관찰하여 그 진실함을 잘 이해하고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 법인(法忍)은 삼인(三忍)의 하나.

637) 진속(眞俗) : 인연(因緣)이 생(生)하는 사리(事理)를 속(俗)이라 하고,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이성(理性)을 진(眞)이라 한다. 그러므로 유(有)·공(空)·중(中) 혹은 공(空)·가(假)·중(中)의 삼자(三者)를 유(有)라 하고 또한 가(假)를 속(俗)이라 하며, 공(空)과 중(中)을 진(眞)이라 한다. 이는 상대(相對)하는 이름이므로 상대(相對)에 의(依)하여 중생(重生)하는 진(眞)과 속(俗)이 생하여 세(世)와 출세(出世)함에 이르고 혹은 재가(在家)와 출가(出家)의 이명(異名)이 된다 함. →이제(二諦).

惑[638]을 제거하게 되니 극난승지極難勝地요,

6에는 어떠한何等 탐하는 마음貪心과 화내는 마음嗔心 두 마음이 이미 다함盡에 따라 혜바라밀慧波羅蜜을 성취成就하니 최승지最勝智를 발하여 물듦染과 깨끗함淨이 없는 일진법계一眞法界[639]의 행상行相(마음작용)이 앞에 나타날現前 새 현전지現前地요,

7에는 탐貪하는 마음과 화嗔내는 마음이 이미已 다함盡에 따라 약간一分의 어리석은 마음痴心이 제거除去되니 대비심大悲心을 일으키어發 방편바라밀方便波羅蜜을 성취成就하고 이승二乘의 오직 자신만을 제도自度함을 멀리 여읠遠離새 원행지遠行地요,

8에는 이미 이승二乘을 멀리 여의고遠離 보살菩薩의 대원大願을 일으킨發지라 이 경지地[640]에서 원바라밀願波羅蜜을 성취成就하고 무상관無相觀[641]을 지어서 임운무공용任運無功用[642]을 계속相續할 뿐

638) (塵沙惑) : 진사(塵沙)와 같이 무한(無限)한 현실(現實)의 대상(對象)에 대하여 그때마다 정확(正確)히 판단(判斷)하고 대응(對應)할 능력(能力)이 없는 것을 지의(智)는 특히 진사혹(塵沙惑)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현실교화(現實敎化)의 장해(障害)가 되는 것이므로 화도장(化道障)의 혹(惑)이라고도 한다. 별교(別敎)의 사람들은 이 혹(惑)을 단절(斷切)한다 함. 삼혹(三惑)의 하나. 구사종(俱舍宗)에서의 불오염무지(不汚染無知), 유식학파(唯識學派)에서의 소지장(所知障)이라는 것과 같음. →삼혹(三惑)・불오염무지(不汚染無知)・소지장(所知障).

639) 일진법계(一眞法界)[제법실상(諸法實相)] : 화엄종(華嚴宗)에서 쓰는 극리(極理)를 말하는 것으로 천태가(天台家)에서 쓰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을 말함과 같음. 『유식론(唯識論)』 9에 「승의(勝義)의 승의(勝義)는 일진법계(一眞法界)를 말한다」 하였고, 『화엄대소(華嚴大疏)』에 「왕복(往復)함에 가이 없고, 동정(動靜)의 한 말이 중묘(衆妙)를 포함(包含)하여도 남음이 있고 언사(言思)를 초월(超越)하여 회출(廻出)하는 것은 그 오직 법계(法界) 뿐이다」 하였으며, 화엄대소초(華嚴大疏鈔)』 1에 「일진법계(一眞法界)로 현묘체(玄妙體)를 삼는다」 하였음. '사사(事事)와 물물(物物)과 일미(一微)와 일진(一塵)이 모두 족(足)히 일진법계(一眞法界)가 된다. 그 체(體)가 절대(絶待)이므로 일(一)이라하고 진실(眞實)하므로 진(眞)이라 하며 일체만법(一切萬法)을 융섭(融涉)하였으므로 법계(法界)라 한다'는 『화엄경(華嚴經)』의 일부 주석(註釋)이 있다. 『삼장법수(三藏法數)』 4에 「이(二)가 없으므로 일(一)이 되고 망(妄)하지 않으므로 진(眞)이 되며 교철융섭(交徹融攝)하므로 법계(法界)라 한다. 곧 이는 제불(諸佛)의 평등법신(平等法身)이며 본래부터 생(生)하지도 멸(滅)하지도 않으며 공(空)도 유(有)도 아니며 명(名)과 상(相)을 여의고 안[內]과 밖[外]이 없으며 오직 한 진실(眞實)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것을 일진법계(一眞法界)라 한다」 하였음.

640) 지(地) : 보살수행의 계위계제(階位階梯).

이니 부동지不動地요,

9에는 역바라밀力波羅蜜을 성취成就하고 열 가지 힘十力[643]을 구족具足하여서 어떠한 곳에서도一切處 제도할 수 있음可度과 제도할 수 없음不可度을 알아서知 능能히 설법說法할새 선혜지善彗地요,

10에는 장도무명障道無明[644]의 근본根本을 다 끊고斷盡 수용법락지受用法樂智와 성숙유정지成熟有情智로써 지바라밀智波羅蜜을 성취成就할새, 끝없는無邊 공덕功德을 구족具足하여 끝없는無邊 공덕수功德水를 출생出生함이 큰 구름大雲이 청정淸淨한 많은 물重水을 내는 것生과 같을새 법운지法雲地니, 뒤後(다음)의 4바라밀四波羅蜜이란 제6第六 혜바라밀慧波羅蜜을 해설開하여 십지十地에 짝지음配對한 것 이니라.

---

641) (無相觀) : 이공관(二空觀)의 하나. 성(性)은 체(體)가 없고 상(相)은 곧 무상(無相)이다. 유상(有相)이라 봄은 범부(凡夫)의 망정(妄情)이며, 망법(妄法)을 여읜 무상(無相)은 명안(明眼)에 공화(空華)가 없는 것과 같다. 이는 남산(南山)에서 세운 이관(二觀) 중(中)의 상공관(相空觀)이다.

642) 임운무공용(任運無功用) : 자기의 힘으로 조작(造作)하지 아니하고 일이 저절로 운행(運行)됨.

643) 십력(十力): 부처님이 가진 특유의 10종 지력(智力). 부처님이 전지자(全知者)인 것을 나타내는 힘. 10가지 지혜작용. ①처비처지력(處非處智力) : 도리에 맞는 것과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변별하는 힘. ②업이숙지력(業異熟智力) : 하나하나의 업인(業因)과 그 과[異熟]와의 관계를 여실히 알 수 있는 힘. ③정려해탈등지등지지력(靜慮解脫等持等至智力) : 사선(四禪)·팔해탈(八解脫)·삼삼매(三三昧)·팔등지(八等至)등의 선정(禪定)을 아는 힘. ④근상하지력(根上下智力) : 중생의 근기의 상하 우열을 아는 힘. ⑤종종승해지력(種種勝解智力) : 중생의 여러 가지 희망을 아는 힘. ⑥종종계지력(種種界智力) : 중생이나 모든 법의 본성을 아는 힘. ⑦변취행지력(遍趣行智力) : 중생이 여러 곳(지옥이나 열반)으로 향하는 것을 아는 힘. ⑧숙주수념지력(宿主隨念智力) : 자타(自他)의 과거세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힘. ⑨사생지력(死生智力) : 중생이 여기에서 죽어 그 곳에 태어나는 것을 아는 힘. ⑩누진지력(漏盡智力) : 번뇌를 끊은 경지(열반)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여실히 알 수 있는 힘.

644) 장도(障道) : 수도(修道)를 방해(妨害)하는 것, 즉 불도수행(佛道修行)의 장애(障碍).

제4절　십지十地의 폐립廢立[645]

환희지歡喜地 등의 십지十地에 폐廢함과 세움立의 두 문二門이 있으니, 그의 폐문廢門에서는 삼겁외三劫外에 십지十地를 세우지 아니하고 삼겁三劫[646]의 망령된 집착妄執을 끊고 십지十地를 깨달을究竟새 『비장기秘藏記』[647] 등의 말하는 바요, 세우는 문立門에서는 『대일경소大日經疏』[648]에 삼겁三劫의 삼망집三妄執[649]을 다 끊은 후에 십지十地를 세워서立 개발금강보장위開発金剛宝藏位[650]라 했으니, 이 폐廢함과 세움立 두 문二門이 있는 까닭은 십지十地에 천심淺深[651]이 있기 때문이라.

『대일경소大日經疏』 2에 첫 번째는 천략석淺略釈[652]이요 두 번

---

645) (廢立) : 두 물건을 비교하여 하나는 없애 버리고 하나를 두는 것. 천태종(天台宗)에서는 권교(權敎)를 폐(廢)하고 실교(實敎)만을 두는 것을 말하며, 정토종(淨土宗)에서는 염불(念佛)과 다른 선(善)한 일 하는 것과를 비교(比較)하여 다른 선(善)한 행(行)은 어렵고 못하다 하여 폐(廢)해 버리고 염불(念佛)은 쉽고 수승(殊勝)하다 하여 내세우는 것.

646) 삼겁(三劫) : 삼아승기겁삼무수겁(三阿僧祇劫三無數劫)이라 하며 보살이 수행하는 연한(年限)을 말함.

647) 『비장기(秘藏記)』: 2권(二卷)　일본 홍법대사(弘法大師)가 당(唐)나라에 체재(滯在)하며 기술(記述)한 것.

648) 『대일경소(大日經疏)』: 선무외(善無畏) 삼장(三藏)이 현종황제(玄宗皇帝)를 위하여 본경(本經)을 강설(講說)한 것을 일행(一行 : 대혜선사(大慧禪師)) 아사리(阿闍梨)가 기록함. 이본(異本)이 많음.

649) 삼망집(三妄執) : 밀가(密家)에서 세운 것. 육대혹(六大惑) 가운데 견혹(見惑)을 제(除)하고 남은 탐(貪)·진(瞋)·치(痴)·만(慢)·의(疑)의 오대혹(五大惑)에서 득(得)하는 백육십심(百六十心)을 망집(妄執)이라 하며, 이 망집(妄執)에는 ①추망집(麤妄執). ②세망집(細妄執). ③극세망집(極細妄執)이 있다. 이 추망집(麤妄執)을 도(度)하는데는 일아승기겁(一阿僧祇劫)이 걸리고, 삼망집(三妄執)을 도(度)하는 데는 삼겁(三劫)이 소요(所要)된다 함.

650) 개발금강보장위(開發金剛寶藏位) :『대일경(大日經)』에 삼망집(三妄執)을 끊는 것을 지전(地前)에 붙이고, 이 위에 다시 십지(十地)를 세우는 것을 개발금강보장위(開發金剛寶藏位)라 함. 이것은 개발대일금강보장(開發大日金剛寶藏)의 행위(行位)가 되기 때문임.

651) 천심(淺深)[천략(淺略)][심비(深秘)][천략심비(淺略深秘)][천략석淺略釋)][심비석(深秘釋)] : 천략심비(淺略深秘)의 준말. 천략과 심비를 일컬음. 16현문(玄門)의 하나. 천략석淺略釋)·심비석(深秘釋)이라고도 함. 밀교에서 경문의 뜻을 해석함에 있어, 글에 나타난 일반적인 뜻을 풀이한 것을 천략석이라 하고, 이면에 숨은 뜻을 예리한 근기를 위해서 풀이한 것을 심비석이라 한다.

652) 천략석(淺略釋) : 밀교(密敎)의 석례(釋例)를 이문(二門)으로 나뉨. ①천략석(淺略釋)은 세간통도(世間通道)의 석의(釋義)이며, ②심비석(深秘釋). 밀교(密敎)의 심리(深理)를 설명한 석의(釋義)다. 심비석(深秘釋) 가운데 다시 삼중(三重)의 천심(淺深)으로 나누어 모두 사중(四重)을 세웠다.『대일경소(大

째는 심비석深秘釈이라 운운云云하여 이 천심십지浅深十地에 열고 합開合하는 두 문兩門을 세웠으니立,

1에는 천략浅略의 십지十地를 합合하여 지전地前653)에 두고置 심비深秘의 십지十地를 해설開하여 개발금강보장위開発金剛宝藏位라 하며 2에는 심비深秘의 십지十地를 합合하여 불과佛果로 하고, 천략浅略의 십지十地를 해설開하여 세 가지三 망심妄心을 끊는 자리斷位라 하며 『대일경大日経』654)에 말한 바의 삼겁십지三劫十地란 이 두 가지 뜻意을 포함할새,

천략浅略의 십지十地를 지전地前에 합치合置하고 심비深秘655)의 십지十地를 지상地上656)에 해설하여 세움開立은 모든諸 소학파疏657)家의 흔한許多 주장合従説이요, 삼겁십지三劫十地의 건립建立이 약간多少은 같지 아니하나 미혹惑을 묶어서約 삼겁三劫으로 하고 위차位를 묶어서約 십지十地로 함은 오직 『비장기秘蔵記』에 말 한 바이니라.

)』 2「아사리(阿闍梨)가 전(傳)하는 것에 의하면 모두 이종석(二種釋)이 된다. 천략석(淺略釋)과 심비석(深秘釋)이다」 하였고, 『대일경소(大日經疏)』 3에 「이 경문(經文)에는 천략(淺略)과 심비(深秘)의 이석(二釋)이 있다. 심비석(深秘釋) 중에 다시 천심(淺深)이 있어 문득 그것을 피완(披翫)하는 자(者)는 밀호(密號)를 이해(解)하지 못한다」 하였음.

653) 지전(地前) : 보살수행(菩薩修行)의 계위(階位)인 52위(五十二位)에서 십지(十地) 이전의 십회향(十廻向)·십행(十行)·십주(十住)·십신(十信) 등을 말함.

654) 『대일경(大日經)』 : 본명(本名)은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7권(卷). 비로자나(毘盧遮那)는 일(日)의 별명(別名)이므로 『대일경(大日經)』이라 일컬음. 당(唐)나라 선무외(善無畏)의 번역. 전육권(前六卷)은 정경(正經)이며 제칠권(第七卷)은 공양법(供養法). 비밀부(秘密部) 삼경(三經)의 하나이며 태장계(胎藏界) 진언(眞言)의 본경(本經). 『금강정경(金剛頂經)』의 설(說)에 대하여 태장계(胎藏界)라 설함.

655) 심비(深秘) : 천략심비(淺略深秘)의 준말.

656) 지상(地上) : 보살(菩薩)이 일대아승기겁(一大阿僧祇劫)의 수행(修行)을 마치면 처음으로 일분(一分)의 혹(惑)을 끊고, 일분(一分)의 이(理)를 증(證)하는데 이를 환희지(歡喜地)라 하며 초지(初地)가 된다. 이상에 십지(十地)가 있는데 이대아승기겁(二大阿僧祇劫)의 행(行)을 채우고 불과(佛果)에 이른다. 그것에 의하여 초지(初地)이상은 지상(地上)이 되고 초지(初地) 이전은 지전(地前)이 됨. 지전(地前)이란 범부(凡夫)의 보살(菩薩)이며 지상(地上)이란 법신(法身)의 보살(菩薩)임.

657) 소(疏) : 주(註)에 가한 주(註). 고서(古書)에서 주(註)보다 더욱 상세한 주해(註解).

그리고 달마대사達磨大師의 『관심론觀心論』[658]에도 삼겁三劫을 삼혹三惑[659]에 묶고約 육바라밀六波羅蜜을 육처六處[660]에 묶음約이 있으나 밀교에서 깨닫고密證[661] 현교에서 해석함顯釋이 동시同時에 병행並行하니라.

658) 『 (觀心論)』 : 1권(一卷) 수(隋)나라 지의(智)의 저술. 내용은 삼십육간(三十六間)을 발(發)하여 간절히 관심(觀心)을 권(勸)한 것. 관정(灌頂)의 『관심론소(觀心論疏)』 5권이 있음.

659) 삼혹(三惑) : 불도(佛道)를 닦는 데에 장애(障礙)가 되는 세 가지 번뇌(煩惱). 우주(宇宙)의 진리(眞理)를 알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번뇌(煩惱)인 견사혹(犬使惑)과 보살(菩薩)이 중생(衆生)을 교화(敎化)할 때에 무량 무수(無數)한 법문(法門)을 알아 자유자재(自由自在)하게 구제(救濟)하지 못한다는 진사혹(塵沙惑)과 미의 근본(根本)을 이루어 지혜(智慧・知慧)의 밝음이 없는 번뇌(煩惱)인 무명혹(無明惑)을 말함.

660) 육처(六處)[육입(六入)] : 십이인연(十二因緣)의 하나. 육입(六入)이라고도 한다. 중생(衆生)이 모태내(母胎內)에서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육근(六根)을 구족(具足)하고 모태(母胎)에서 나오는 위(位)를 말한다. 처(處)는 십이처(十二處)의 처(處)로 육근(六根)・육경(六境)을 통칭(通稱)한 말이다. 근(根)과 경(境)은 식(識)을 생(生)하는 의처(依處)가 되므로 처(處)라고 말함. →육입(六入). →십이인연(十二因緣).

661) 밀증(密證) : 마음이 우주(宇宙)의 진리(眞理)에 합치하는 것.

제5절 삼독三毒[662] 육적六賊[663]

『관심론觀心論』에 「다시 질문하여 말하되, 위에서 말한 진여불성眞如佛性의 모든 공덕一切功德은 근본뿌리根[664](삼독심)를 깨달음의 원인因覺으로 삼으라爲 하시니 미심未審[665]이라, 무명의 마음無名之心인 일체一切의 모든諸 악惡은 무엇으로써以何 근본뿌리根를 삼으려爲 하는가? 답하여 말하되 무명無明의 마음心에 비록雖有 8만4천번뇌八萬四千煩惱인 정욕情欲의 무수히恒河沙(갠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많은 악衆惡이 무량무변無量無邊이나, 요점要을 취取하여 말言之하건대,

다 삼독三毒을 원인因으로 하여 근본根本으로 하니以爲, 그其 삼독

---

662) (三毒)[삼근(三根)] : 또는 삼근(三根). ①탐독(貪毒) : 인취(引取)의 마음을 탐(貪)이라 하며, 미심(迷心)으로 일체(一切) 순정(順情)의 경(境)을 대하여 인취(引取)하여도 싫음이 없는 것. ②진독(瞋毒) : 에분(恚忿)의 마음을 진(瞋)이라 하며, 미심(迷心)으로 일체(一切) 정(情)과 어긋나는 경(境)을 대하여 분노(忿怒)를 일으키는 것. ③치독(癡毒・痴毒) : 미암(迷闇)한 마음을 치(痴)라 하며, 심성(心性)이 암둔(闇鈍)하여 사리(事理)의 법(法)에 미혹(迷惑)되는 것. 또한 무명(無明)이라 함. 이에는 이종(二種)이 있다. 치독(痴毒)이 홀로 일어나는 것을 독두무명(獨頭無明)이라 하고, 탐독(貪毒)과 함께 일어난 것을 상응무명(相應無明)이라 함. 탐독(貪毒) 등은 반드시 치독(痴毒)과 상응(相應)하여 일어난다 함. 『지도론(智度論)』 31에 「나에게 이익(利益)이 있는 것은 탐욕(貪慾)을 생(生)하고, 나에게 거슬림이 있는 것은 진에(瞋恚)를 생(生)한다. 이 결과[結]은 지(智)를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고 광혹(狂惑)을 따라 생(生)하므로 치(癡)라 한다. 삼독(三毒)이 일체(一切) 번뇌(煩惱)의 근본(根本)이 된다」 하였고, 『대승의장(大乘義章』 5에 「이 삼독(三毒)은 삼계(三界)의 일체번뇌(一切煩惱)를 통섭(通攝)한다. 일체번뇌(一切煩惱)가 능히 중생(衆生)을 해(害)하는 것이 독사(毒蛇)와 같고 또한 독룡(毒龍)과 같다. 이러하므로 용(龍)에다 비유하여 독(毒)이라 한다」 하였으며, 『지관(止觀)』 5에 「사대(四大)는 신병(身病)이 되고 삼독(三毒)은 심병(心病)이 된다」 하였음.

663) 육적(六賊)[육진(六塵)] : 색(色)・성(聲) 등 육진(六塵)이다. 안(眼)등의 육근(六根)의 매(媒)가 되어 공능(功能)과 법재(法財)를 겁략(劫掠)하므로 육적(六賊)에 비유한 것. 『열반경(涅槃經)』 23에 「육대적(六大賊)은 곧 외육진(外六塵)이다.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이 이 육진(六塵)을 관(觀)하기를 육대적(六大賊)과 같다고 관(觀)한다. 왜냐하면 능히 일체제선법(一切諸善法)을 겁략(劫掠)하기 때문이다. 중략(中略) 육대적(六大賊)은 밤에만 관락(觀樂)한다. 육진악적(六塵惡賊)도 또한 이와 같아서 무명(無明)인 암(闇)에 처(處)하면 관락(觀樂)한다」 하였고, 『최승왕경(最勝王經)』 5에 「이 몸이 공취(空聚)와 같음은 알아도 육적(六賊)이 의지(依支)함은 알지 못한다. 육진제법(六塵諸法)이 근(根)에 의(依)한 것을 알지 못함도 이와 같다」하였으며, 『능엄경(嚴經)』 4에 「네 앞에 나타난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심(心)의 육(六)은 적매(賊媒)가 되어 스스로 가보(家寶)를 겁략(劫掠)한다」 하였음.

664) 근(根) : 근본 뿌리.

665) 미심(未審) : 일이 확실하지 않아 늘 마음이 놓이질 않음.

三毒이라는 것은 곧卽 탐貪하는 마음・화嗔내는 마음・어리석은痴 마음이라, 이此 삼독심三毒心이 자연自然 본래本來 갖추어 있어 일체一切 모든諸 악惡의 큰 나무뿌리大樹根와 같아猶如 비록雖 이 뿌리는 하나是一이나 잎葉과 가지枝가 나는 것所生이 그 숫자가 끝이 없어 저 삼독근三毒根인 하나一 하나一 뿌리根 가운데中에 모든諸 악업惡業 일어남이生 백천만배百千萬倍라도 그 이전보다 우월過於前하여 비유爲喩할 수 없음이라不可」「이와 같이 삼독三毒이 하나一의 본체本體로 부터於 스스로自 삼독三毒이 되어爲 육근六根에 따라應 나타날새現

또한 이름이 육적六賊이니, 육적六賊이라는 것은 곧 육식六識이라, 이 육식六識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根에 출입하여 만 가지 경계境然를 탐착貪着하며 악업惡業을 이루어 진여眞如 본체體를 장애障하는 고故로 육적六賊이라 이름하니 이 삼독三毒과 육적六賊으로써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미혹惑하고 혼란할새, 나고 죽음生死에 깊이 잠기어沈淪 육취六趣를 윤회輪廻하여 모든 고뇌苦惱를 받는 것이 마치 큰 강江河과 같음이라, 작은 샘小泉을 근원因原으로 하여 시냇물涓流이 끊이지 않고 흘러서不絶 그리하여乃能 못에 물이 가득하고彌漫 큰 물결波濤이 만리萬里나 가느니,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그 근원을 끊으면 바로 많은 흐름衆流이 모두다 그칠息새, 해탈解脫을 구求하는 자도 능히 삼독三毒을 바꾸어能轉(정화하여) 삼취정계三聚淨戒[666]를 행爲하고 능히 육적六賊을 바

666) (三聚淨戒) : 줄여서 3취계(聚戒)・3취(聚)・3종계장(種戒藏))이라고도 함. 취(聚)는 모임의 뜻. 대승의 보살이 지켜야 할 계법(戒法)으로 크게 나누어 2종류의 설이 있다. (1)『범망경(梵網經)』・『영락경(瓔珞經)』 등에서 말하는 대승의 것. 섭률의계(攝律儀戒)・섭선법계(攝善法戒)・섭중생계(攝衆生戒)를 말함. ①섭률의계(攝律儀戒) : 일체의 악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 부처님이 만든 계율을 지키고 악을 방지하는 것. 생명을 살해하는 것(不殺戒), 훔치는 것(不盜戒), 음욕(不淫戒), 거짓말(不妄語戒), 술을 판매하는 것(不酤酒戒), 타인의 죄나 잘못을 폭로하는 것(不說過罪戒),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을 욕하는 것(不自讚毁他戒), 재물이나 법을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不慳戒), 화가 나서 상대가 사과해도 용서하지 않는 것(不瞋戒), 불(佛)・법(法).・승(僧) 삼보를 비방하는 것(不謗三寶戒) 등을 금지하는 10종류의 무거운 금제계[禁制戒 : 십중계(十重戒)]와 48종류의 계율을 비롯하여 모든 과오를 벗어나는 계(戒)를 수지하는 것. ②섭선법계(攝善法戒) : 적극적으로 모든 제선(諸善)을 실행

꾸어能轉(정화하여) 육바라밀六波羅蜜을 행爲하면 자연自然스럽게 일체一切 모든諸 고통苦을 영구히永 여의느니라離」 하시니라.

제3장 사제四諦

사제四諦를 사진제四眞諦 또는 사성제四聖諦라고도 말하니 성자聖者가 보는 바의 진리眞理이기 때문이라.

1에 고제苦諦(괴로움에 대한 지혜)란 삼계三界 육취六趣(六途)의 과보報의 고통苦이니 미혹迷의 결과果요,

2에 집제集諦(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란 탐貪하는 마음과 화嗔내는 마음 등의 번뇌煩惱와 선善함과 악惡함의 모든 행위業로서 이 두 가지가 능能히 삼계三界 육취六趣의 과보報의 고통苦을 만나서 일으키므로集起 미혹迷의 원인因이요,

3에 멸제滅諦(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란 곧 열반涅槃으로서 열반涅槃이란 미혹의 행위惑業667)를 소멸滅하고 나고 죽는生死 고통苦을 여읜離 진공적멸眞空668)寂滅의 경계境界니 깨달음悟의 결과果요,

---

것임. ③섭중생계(攝衆生戒) : 일체의 중생들을 모두 완전히 섭수하여 널리 이익을 베푸는 것. 자비심을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진력하는 모든 이타행(利他行)을 말함. ①과 ②는 자리(自利)이고 ③은 이타(利他). 자리(自利) 중 ①은 파악(破惡) ②와 ③은 행선(行善)임. 모든 일체의 계법은 모두 이 3가지 속에 거두어지므로 섭(攝)이라 하고, 그 계법은 청정하므로 정계(淨戒)라 함. (2)『지지경(地持經)』·『유가론(瑜伽論)』 등에서 이야기하는 소승계율을 가미한 통삼승(通三乘)의 설. ①율의계(律儀戒) : 7중(衆)이 수지해야 할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로서 즉 소승계를 계승하여 지악문(止惡門)으로 함. ②섭선법계(攝善法戒) : 몸·말·뜻에 걸친 모든 선을 모두 수행하는 수선문(修善門). ③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 : 중생에게 널리 이익을 베푸는 권선문(勸善門). ②와 ③이 보살계의 성격을 특정 지우는데 그것은 ①을 수지한 후에 가상(加上)되는 것이고, 전체로써 통불교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 보살의 본연의 모습을 수행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도 함.

667) 혹업(惑業) : 미혹에 바탕을 둔 행위. 일반적으로 번뇌를 가리킴.

668) 진공(眞空): 유가 아닌 유인 묘유(妙有)에 대하여 공이 아닌 공을 말함. 이것이 대승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임. 진실의 공. 공이 철저한 것을 말함.

4에 도제道諦(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 닦음의 지혜)란 곧 팔정도八正道로서 능能히 열반涅槃에 통通하는 길道이니 깨달음悟의 원인因이니라.

이 가운데 처음 둘은 유전流轉[669]의 인과因果이니 곧 세간世間의 원인因과 결과果요, 뒤 둘은 환멸還滅[670]의 원인因과 결과果니 곧 출세간出世間의 원인因과 결과果로서 네四 가지를 모두 제諦(진리)라 함은 그 진리眞理가 진실로 지극至極하기 때문이요, 두 가지 모두共 과위果位(결과의 상태)를 앞세우고 인위因位(원인의 상태)를 뒤에 둠은 결과果는 보기가 쉽고 원인因은 알기 어려우므로 고통의 결과苦果를 먼저 보여 이를 버리고 떠나게厭離 한 후,

그 원인因을 끊어 소멸斷滅케 하며, 또는 열반涅槃의 묘과妙果(뛰어난 결과)를 먼저 얻기를 원하고 희망하게願樂 한 후 그 길道을 수행修行케 하심이니, 부처님佛께서 보리수나무菩提樹아래서 일어나시어 녹야원鹿野苑에 도착하시고 다섯 비구五比丘를 위하여 이 법法(진리)을 이와 같이 말하셨음으로, 부처님佛이 법륜法輪[671]을 굴리기轉 시작한 시초初라 말하니 수행자修者는 이 수도修道[672]에 의지하여 바라는 대로隨宜 멸滅(滅諦)을 증명證할지니라.

---

669) (流轉) : 미혹이 계속되는 것. 미망(迷妄)을 위한 육도(六道) 사생(四生)의 사이를 환생하고 미혹의 생사를 계속하는 것. 환생을 계속하여 미혹의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 미혹의 마음에 따르는 것. 윤회의 생존 생사의 갈림길 혹은 환멸의 대응어 윤회와 같음.

670) 환멸(還滅) : 생사를 초월함. 번뇌를 없애고 열반에 들어감. 유전(流轉)의 반대.

671) 법륜(法輪) : 윤(輪)은 인도 고대의 무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에 전환되어 전달되는 것을 바퀴에 비유한 것. 진리의 바퀴. 진실의 가르침. 부처님 및 불교의 상징.

672) 수도(修道) : 사제(四諦)를 관찰하는 것을 되풀이해 가는 단계.

제1절 팔정도八正道[673]

1에 정견正見(올바른 견해)이란 고苦·집集·멸滅·도道 사제四諦의 이치理를 보아 분명分明할새, 번뇌 없는 지혜無漏慧를 본체體로 하니 이것이 팔정도八正道의 본체本體요,

2에 정사유正思惟(올바른 사유)란 사제四諦의 이치理를 이미 보고 旣見 오히려 사유思惟하고 헤아리어籌量 진리眞理를 증장增長함이니 번뇌 없는 마음無漏心의 심소心所[674](심왕心王 소유所有의 별작용법別作用法)로써 본체體를 삼음이오,

3에 정어正語(올바른 언어)란 참 지혜眞智로써 입의 행위口業를 닦아서 일체비리一切非理의 말을 짓지 않음이니 번뇌 없는無漏 계戒로써 본체體를 삼음이요,

4에 정업正業(올바른 행위)이란 참 지혜眞智로써 몸身의 일체一切 바르지 않은 행위邪業를 제거除하여 청정淸淨한 몸의 행위身業에 머무름이니 번뇌 없는無漏 계戒로써 본체體를 삼음이요,

5에 정명正命(올바른 생활)이란 몸身·입口·뜻意의 세 가지 행위三業를 청정淸淨히 하되 바른 법正法에 따라順하여 생명을 살리고 活命 다섯 가지 바르지 않은 생활五邪命(천문天文·지리地理·사주四柱·상相·점占)을 멀리 여의어 번뇌 없는無漏 계戒로써 본체體를 삼음이요,

---

673) (八正道)[팔성도(八聖道)] : 팔성도(八聖道)라고도 씀. 이상(理想)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8가지 길. 8종의 실천 덕. 8종의 바른생활. 사(邪)를 여의므로 정(正)이라 하며 또한 성자의 도(道)이므로 성(聖)이라 함.

674) 심소(心所)[심소유법(心所有法)] : 심소유법(心所有法)의 준말. 마음에 속하는 것을 말함. 심 작용. 마음의 움직임. 정신현상. 정신작용. 심왕(心王)에 대칭하여 말함.

6에 정정진正精進(올바른 정진)이란 참 지혜眞智를 일으키어 활용發用하여 열반涅槃의 길道을 힘써 수행强修함이니 번뇌 없는無漏 정진勤으로써 본체體를 삼음이요,

7에 정념正念(올바른 새김)이란 진리眞理로써 바른 길正道을 기억憶하고 생각念할 뿐으로써 바르지 않은 생각邪念이 없으니 번뇌 없는無漏 생각念으로써 본체體를 삼음이요,

8에 정정正定(올바른 집중)이란 진실한 지혜眞智로써 번뇌 없는無漏 청정한淸淨 선정禪定에 들어감을 말함이니 번뇌 없는無漏 선정定으로써 본체體를 삼느니라.

이 여덟 가지 법法(진리)이 거짓과 바르지 않음邪非을 다 떠나므로 바름正이라 하고 능能히 열반언덕涅槃岸에 이르는 통로通路이므로 길道이라 하니라

모두 번뇌가 있는有漏것이 아닌 번뇌가 없는無漏 견도見道[675] 위차位에서의 수행법行法인 바, 정견正見 하나는 팔정도八正道 가운데 주체主體이므로 깨달음의 길道이요 나머지 일곱은 도분道分[676]이요 도지道支[677]니라.

---

675) (見道) : 사제(四諦)를 관찰하는 단계. 견소단(見所斷)의 번뇌를 잘라버리는 과정. 무루성도(無漏聖道)를 처음으로 발견하여, 성자의 무리에 든 위(位). 견제도(見諦道)라고도 함. 최후의 깨달음 과정. 소승에서는 예류향(預流向), 대승에서는 초지(初地)를 말함. 각각 이상(以上)을 성자(聖者)라고 함.『구사론(俱舍論)』에서는 사선근(四善根)의 제4인 세제일법(世第一法)의 직후에 무루(無漏)의 정지(正智)를 일으키고 십육심(十六心)에 의해 점차로 욕(欲)·색(色)·무색(無色)의 삼계(三界) 사제(四諦)를 깨닫는 가운데에 앞의 십오심(十五心)을 견도(見道)라 함. 유식설(有識說)에서는 오위(五位)의 제삼(第三)인 통달위(通達位)를 견도(見道)라고 함.

676) 도분(道分) : 깨달음의 과(果)를 초래하는 것.

677) 도지(道支) : 도(道)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부분.

제2절　12인연十二因緣

12인연十二因緣은 벽지불辟支佛[678]의 관법觀法으로서 새로운 번역新譯으로는 12연기十二緣起요 예전 번역舊譯으로는 12인연十二因緣이며 또는 인연관因緣觀이라 지불관支佛觀이라고도 하니라.

이는 중생衆生이 삼세三世를 건너다니면서涉 육도六途에 윤회輪廻하는 연기緣起 순서次第를 말한 것으로서,

1에 무명無明(무지. 진리를 모르는 것)이란 과거 세상過去世의 시작 없는 번뇌無始煩惱요,

2에 행行(행함)이란 과거세상過去世의 번뇌煩惱에 의지하여 지은 선악善惡의 행업行業이오,

3에 식識(인식)이란 과거세過去世의 행위業에 의지依하여 받는受 현재現在 수태受胎의 한 생각一念이오,

4에 명색名色(마음과 물질)이란 태중胎中에서 몸身과 마음心이 발육發育하는 단계位를 말함이니, 명名이란 곧 마음의 법心法[679]으로서 마음의 법心法이란 본체體로서 드러내 보이기 어렵고 다만 명名으로서 뜻을 설명한 바이므로 명名이라 하고 색色이란 곧 눈眼 등等의 몸身이요,

5에 육처六處(육근의 형성)란 육근六根이니 육근六根이 구족具足하여 장차將次 태胎에서 나오고자 하는 단계位요,

---

678) (辟支佛) : 스스로 깨달아 생사의 고해를 해탈하여 수행자의 궁극의 경지(아라한)를 증득하고 거기다 설법도 없이 교단을 조직하지 않고 단지 신자를 위하여 신통을 드러내 보이는 성자. 무불(無佛)의 세계의 세상에 나타나 스승과 친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연히 홀로 깨닫는 성자이기 때문에 독각(獨覺)이라 부름. 보살을 상근(上根), 성문을 하근(下根)이라 하며, 이것은 중근(中根)의 사람이다. 요컨대 소극적인 깨달음을 구하는 소승의 수행자. 12인연을 그 관법으로 함.

679) 심법(心法) : 마음. 심왕이라고도 함. 마음의 본체. 기능에 따라 심(心)·의(意)·식(識)이라 불림.

6에 촉觸(촉감)이란 2~3세 사이에서 사물事物에 대對하여 아직 고락苦樂을 식별識別할 수는 없고 다만 사물物에 접촉觸하고자 하는 단계位요,

7에 수受(느낌)란 6~7세 이후에 사물事物에 대對하여 즐거움樂과 고통苦을 식별하고 이를 감수感受[680]하는 단계位요,

8에 애愛(애착)란 14~15세 이후에 갖가지種種의 강성强盛한 애욕愛慾이 일어나는 단계位요,

9에 취取(취함)란 성인成人 이후에 애욕愛慾이 더욱 성尤盛함에 따라 모든 경계諸境에 빠져 들어馳驅 탐내는 바所欲[681]를 취하여 구하고자取求하는 단계位요,

10에 유有(있음)란 애취愛取의 번뇌煩惱에 의지하여 갖가지種種의 행위業를 지어 다음에 곧 올 세상當來의 결과果를 정定하는 단계位니, 유有란 곧 행위業로서 행위業가 능能히 다음에 곧 올 세상當來의 결과果를 함유含有함으로 유有라 이름함이요,

11에 생生(삶)이란 현재現在의 행위業에 의지依하여 미래未來의 태어남生을 받는 단계位요,

12에 노사老死(늙음과 죽음)란 다음 세상來世에서 늙어 죽는老死 단계位니,

이 가운데서 「무명無明(무지)과 행行(행함)」의 둘은 곧 미혹惑·행위業의 둘二로서 과거세過去世의 원인因에 속屬하고, 「식識(인식)·

680) 감수(感受) : 외계(外界)의 자극(刺戟)을 감각(感覺) 신경(神經)에 의(依)하여 받아들임 밖으로부터의 영향(影響)을 수동적(受動的)으로 받음.

681) (欲) : 육진(六塵)을 희구(希求)하는 마음.

명색名色(마음과 물질)·육처六處(육근형성)·촉觸(촉감)·수受(느낌)」의 다섯은 과거過去 미혹행위惑業의 원인因에 연유緣하여 받은 현재現在의 결과果에 속屬할새,

이는 과거와 현재가 한 번 겹친 인과過現一重因果이며, 또한「애愛(애착)·취取(취함)」의 둘은 현재現在의 미혹惑이요,「유有(있음)」란 현재現在의 행위業라, 이 미혹행위惑業가 현재 원인現在因에 연유緣하여 미래未來의 생生(삶)과 노사老死(늙음과 죽음)의 결과果를 깨달을感새, 이는 현재와 미래가 한 번 겹친 인과現未一重因果라, 위의 과거와 현재가 한 번 겹친過現一重것과 현재와 미래가 한 번 겹친 것現未一重을 합하여 부르기合稱를 과거·현재·미래가 반복되는 인과三世兩重因果라 하나니, 이 두 번 겹치는兩重(過現一重因果, 現未一重因果) 인과因果에 의지하여 윤회輪廻가 무궁無窮함을 알지니라.

현재現在의 미혹惑(애愛·취取) 행위業(유有)가 이미 현재現在의 고통의 결과苦果(識인식·名色마음과 물질·六處육근형성·觸촉감·受느낌)에서 생긴 것生을 볼진대, 과거過去의 미혹행위惑業도 역시 과거過去의 고통의 결과苦果에서 생겼음生을 알 것이며, 이미 현재現在의 고통의 결과苦果(식識 내지 수受)가 현재現在의 행위業(유有)를 일으키는生 것을 볼진대, 역시 미래未來의 고통의 결과苦果(생生·노사老死)가 미래未來의 행위業를 생기게生하는 것을 알지니라.

그러므로 이를 미루어 궁구推究하면 과거過去의 미혹행위惑業는 과거過去의 고통의 열매苦果에서 오고來, 미래未來의 고통의 열매苦果는 미래未來의 미혹행위惑業를 생기게 하여, 과거過去에 시작始이 없고 미래未來에 끝終이 없으니 이를 시작도 없고無始

끝도 없는無終 생사윤회生死輪廻라 하는 바,

벽지불辟支佛은 이를 관찰觀하여 한편으로는 나고 죽음生死을 싫어하고 한편으로는 항상 진실常實로 나我 라는 본체體가 없음을 인식함知으로써 드디어 미혹행위惑業를 끊고 열반涅槃을 증득證하나니, 이 가운데에서 원인因과 연유緣를 분별分別하면 행行(행함)과 유有(있음)와의 두 가지二支는 원인因이요, 무명無明(무지)·애愛(애착)·취取(취함)의 세 가지三支는 연유緣이며 나머지의 일곱 가지七支는 결과果이나, 결과果는 도리어 미혹행위惑業의 원인因을 일으키는 연유緣가 되므로 이를 연유緣가운데서 포섭攝하고 달리別 결과果의 이름名을 두지 않고 인연관因緣觀[682]이라 다만 칭單稱하느니라.

제3절 육취六趣(도途)

미혹迷한 중생衆生이 업인業因[683]으로 차별差別에 의지依하여 취향趣向하는 바, 여섯 곳六處이 있어 육취六趣라 혹或은 육도六途라 말하니,

1에 지옥취地獄趣[684]란 팔한八寒·팔열八熱 등의 고통 받는 곳으로서 땅 아래地下에 있으므로 지옥地獄이라 이름하며,

2에 아귀취餓鬼趣란 밥과 음식飯食을 항상恒 구求하는 귀신 무리鬼類가 사는 곳生處이니 인간의 세계人趣와 뒤섞여 있으나雜處

682) (因緣觀) : 십이인연의 도리를 관(觀)하여 우치를 없애는 관법. 연각(緣覺)은 이 명상법에 의하여 깨닫는다고 생각됨. 5정심관(五停心觀)의 하나 .

683) 업인(業因) :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의 원인이 되는 업(業). 고락의 보답을 받는 원인이 되는 선악의 행위.

684) 취(趣) : 중생이 번뇌에 의해 업을 만들어 그 혹업(惑業)에 이끌려 사는 곳. 이를 6종류로 나누어 6취(六趣)라고 함. 6도(六道)라고도 함.

가히 볼 수 없으며,

3에 축생취畜生趣란 방생취傍生趣라고도 이르는 바, 날 짐승과 길짐승禽獸이 사는 곳生處으로서 인간세계人界와 의지처依處가 많이許多 같아서同一 눈앞에 가히 볼 수 있으며,

4에 아수라취阿修羅趣란 항상恒常 화내는 마음嗔心을 품고 싸우길戰鬪 좋아하는 대력신大力神이 사는 곳生處으로서 깊은 산深山 깊은 계곡幽谷을 의지처依處로 하여 사람과 격리隔離하며,

5에 인취人趣란 사람 무리人類가 사는 곳生處으로서 염부제閻浮提 등等의 사대주四大洲에 나누어分 과보報에 따라 의지처依處를 구별區別하고 오직 신통력通力으로써 서로 통相通하며,

6에 천취天趣란 몸에 광명光明이 있고 또한 자연히 쾌락快樂을 받는 중생衆生을 천天이라 이름名하는 바, 욕계欲界에 여섯 곳六處이 있어 육욕천六欲天[685]이라 하며, 또한 색계色界와 무색계無色界가 다 그의 사는 곳生處이니라.

685) (六欲天) : 또는 욕계욕천(欲界欲天)·6천(天). 3계(界) 중 욕계에 딸린 6종 하늘. 이 하늘 사람들은 모두 욕락이 있으므로 욕천이라 한다. ①4왕천(四王天) : 수미산 제4층의 4면에 있는 지국천(동)·증장천(남)·광목천(서)·다문천(북)의 4왕과 그에 딸린 천중들. ②도리천(忉利天) : 33천이라 번역. 수미산 꼭대기에 제석천을 중심으로 4방에 8천씩 있다. ③야마천(夜摩天) : 선시천(善時天)·시분천(時分天)이라 번역. 때를 따라 괘락을 받으므로 이렇게 이름. ④도솔천(兜率天) : 지족(知足)이라 번역. 자기가 받는 5욕락에 만족한 마음을 내는 까닭에 이렇게 이름. ⑤화락천(化樂天) : 또는 낙변화천(樂變化天). 5욕의 경계를 스스로 변화시켜 즐김. ⑥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 다른 이로 하여금 자재하게 5욕 경계를 변화케 한다. 6천 중 4왕천은 수미산 허리에 있고,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에 있으므로 지거천(地居天), 야마천 이상은 공중에 있으므로 공거천(空居天)이라 함.

제4장 금강삼매 金剛三昧

삼승三乘의 수행인行人이 최후最後에 일체一切의 번뇌煩惱를 끊斷고 각각 그 구경과究竟果(佛果 : 최상의 깨달음)를 얻는 삼매三昧를 금강삼매金剛三昧라, 여금강삼매如金剛三昧라, 금강유정金剛喩定이라, 금강정金剛定이라 말하고 또 금강삼매金剛三昧를 세 가지三種로 차별하여 처음에 금강삼매를 성문보리聲聞菩堤라, 중간 금강륜삼매金剛輪三昧를 벽지불보리辟支佛菩提라, 뒤後에 여금강삼매如金剛三昧를 불무상보리佛無上菩提라 논論함도 있으니, 금강金剛이 능能히 일체一切에 막힘이 없음無碍과 같이如 능能히 일체一切 모든 존재諸法(현상諸法의 실상實相에)에 통달通達하기 때문이라.

『열반경涅槃經』[686] 24에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이 대열반大涅槃을 수행할 적에 금강삼매金剛三昧를 얻어서 이 가운데 안주安住하여 일체一切 모든 존재諸法를 능히 다悉能 깨뜨려 흩뜨린다.破散」시고,

『지도론智度論』 47에 「금강삼매金剛三昧者를 얻은 자는 비유하건대譬如 금강金剛이 만물을 무너뜨리지 아니함이 없을새無物不陷 이 삼매三昧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진리法에 통달通達하지 못함이 없고 모든 삼매三昧로 하여금 각각 그 작용用(응용)을 얻음

686) 『 (大般涅槃經)』 : 대반열반(大般涅槃)이란 범어(梵語) 마하반열반나(摩訶般涅槃那, Mahaparinirvara)의 번역으로서 대입멸식(大入滅息)·대멸도(大滅度)·대원적입(大圓寂入)의 뜻. 대(大)는 멸덕(滅德)을 아름답게 일컫는 말. 멸(滅)은 번뇌(煩惱)를 멸(滅)하고 심신(心身)을 멸(滅)했다는 뜻. 식(息)은 안식(安息)의 뜻. 도(度)는 생사(生死)를 뛰어 넘었다는 뜻. 원적(圓寂)은 공덕(功德)이 원만(圓滿)하여 제루(諸累)가 적멸(寂滅)되었다는 뜻. 입(入)은 멸(滅)에 돌아간다는 말.『열반현의(涅槃玄義)』에서는 마하반열반나(摩訶般涅槃那)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마하(摩訶)는 크다[大]는 뜻. 대(大)에 육(六)이 있고, 반(槃)은 들어간다는 것. 열반(涅槃)은 번역하여 멸(滅)이 되며 번뇌(煩惱)를 멸(滅)하며 생사(生死)를 멸(滅)하므로 멸(滅)이라 하며 중상(衆相)을 여의고 크게 적정(寂靜)하므로 또한 멸(滅)이라 한다. 나(那)는 식(息)의 이름. 구경해탈(究竟解脫)하여 영원히 멸식(滅息)하는 까닭이다. 어떠한 일을 식(息)하느냐 하면 번뇌(煩惱)를 식(息)하고 생사(生死)를 식(息)하고 일체(一切) 모든 행사(行事)를 식(息)한다.

이라」며, 또 「여금강삼매如金剛三昧를 얻은 자는 능히能 일체一切 모든諸 번뇌결사煩惱結使[687]를 깨뜨려서破 나머지遺餘가 없게 하니, 無有 비유하건대 석제환인釋帝桓因[688]이 금강金剛을 손에 잡고 아수라군阿修羅軍[689]을 깨뜨리는破 것 같이 바로卽時 수행인學人의 최후末後의 마음일새, 이 마음是心으로 부터從 세 가지三種 보리菩提 순서次第가 있으니 성문보리聲聞菩提와 벽지불보리辟支佛菩提와 불무상보리佛無上菩提」라 하였고,

『수릉엄경首楞嚴經』 6에 「이 모든 대중大衆이 지금 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未曾有[690] 일체一切 금강삼매金剛三昧를 두루 얻음普獲이라」시고

『지도론智度論』 34에 「지地란 모두皆是 다 중생衆生의 허광虛誑[691]된 행위業의 인연 과보因緣報인 고故로 있을 새有 그러므로 보살菩薩이라 말할 수 없음이라不能擧, 실상實相지혜신智慧身[692]이 성불成佛하고자 할欲 때時에, 이 때是時 앉아 있는 곳이坐處 - 금강金剛으로 변하나니變爲, 어떤 사람이 말하되, 땅土은 금륜金輪위에 있고

---

687) (結使) : 결(結)에는 구결(九結)과 십사(十使)가 있음. 모두 번뇌(煩惱)의 이명(異名). 심신(心身)을 계박하여 괴로운 결과를 맺으므로 결(結)이라 하고, 중생을 쫓아다니면서 중생을 부리므로 사(使)라 함.

688) 석제환인(釋提桓因) : 범어(梵語) 석가제바인다라(釋迦提婆因陀羅, Sakra-devanam Indra)의 음역. 석가는 이름이니 능(能), 제바는 천(天), 인다라는 주(主) 또는 제(帝)라 번역. 곧 능천주(能天主)라 함.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의 주(主)인 제석천을 말함. 줄여서 석제(釋帝)·제석(帝釋). 석제환인의 석은 석가에서, 제환은 제바에서, 인은 인다라에서 온 것.

689) 아수라(阿修羅)[수라(修羅)] : 6도(六道)의 하나. 10계(界)의 하나. 아소라(阿素羅)·아소락(阿素洛)·아수륜(阿須倫)이라 음역. 줄여서 수라(修羅). 비천(非天)·비류(非類)·부단정(不端正)이라 번역.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 인도에서 가장 오랜 신의 하나. 가장 수승한 성령(性靈)이란 뜻으로 사용. 이후에는 무서운 귀신으로 인식되었다.

690) 미증유 : 또는 희유(希有). 뜻밖의 일에 대한 총칭.

691) 허광 (虛誑) : 말하자면 악업번뇌(惡業煩惱)의 심정(心情)을 말함.

692) 지혜신(智慧身) : 십지(十地)가운데 초환희지 보살이 얻은 바라밀신(波羅蜜身) 가운데 하나.

금륜金輪은 금강金剛위에 있으며 금강 가장자리金剛際로 부터 연화대蓮花臺[693]가 나오는 것과 같다出如하여서, 직상지보살直上持菩薩이 앉아 있는 곳坐處이라 함몰陷沒하지 아니令不할새, 이와 같은 까닭에 이 도량道場에 앉아 있는 곳의坐處 - 이름이 금강金剛이 된다.」라고 하였고, * 함몰 : 모두 빠져 몰락함

『서역기西域記』 8에「보리수菩提樹 담垣 한 가운데正中에 금강좌金剛座가 있으니 옛날昔 현겁賢劫[694] 시초初에 천지天地와 더불어與 함께 일어나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의 가운데를 근거據之中하되 아래下로는 금륜金輪을 다極하고 위上로는 지제地際를(땅끝) 침범侵하여 금강金剛을 이룬 바所成요, 둘레周가 백여 걸음百餘步이라 현겁천불賢劫千佛[695]이 앉아서座之 금강정金剛定[696](金剛喩定・金剛三昧)에 들어갈入새, 그 연고로故 금강좌金剛座라 말曰하나니, 성자의 도聖道를 깨달證은 곳 또한亦 도량道場이다.」 말曰하였고

693) (蓮花臺) : 연화의 대좌(臺座). 이는 불보살이 앉는 자리임.

694) 현겁(賢劫) : 과거(過去)의 주겁(住劫)을 장엄겁(莊嚴劫)이라 하고, 미래(未來)의 주겁(住劫)을 성숙겁(星宿劫)이라 하며, 현재(現在)의 주겁(住劫)을 현겁(賢劫)이라 한다. 현재(現在)의 주겁(住劫) 이십증멸(二十增滅) 가운데 천불(千佛)이 출세(出世)하므로 칭찬(稱讚)하여 현겁(賢劫)이 된다 함. 또한 선겁(善劫)이라 함.『대비경(大悲經)』3에「아난(阿難)아, 무엇 때문에 이름을 현겁(賢劫)이라 하는가. 아난(阿難)아, 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겁(劫)이 되고자 할 때 모두가 하나의 물이 되었다. 때에 정거천(淨居天)이 천안(天眼)으로 이 세계(世界)가 오직 일대수(一大水) 뿐임을 보고 천지(千枝)의 모든 묘연화(妙蓮華)가 하나하나의 꽃에 각각(各各) 천엽(千葉)이 피어 금색광(金色光)이 대명(大明)하고 보조(普照)하며 향기(香氣)가 분훈(芬熏)하여 심히 사랑스럽고 즐거움을 보았다. 그 정거천(淨居天)이 이것을 보고 나서는 마음에 환희(歡喜)가 생기고 용약(踊躍)함이 한(限)이 없어 찬탄(讚嘆)하기를 "기이(奇異)하고 기이(奇異)하여 드문 일이며 드문 일이구나. 이 겁(劫) 가운데는 천불(千佛)이 있어 세상(世上)에 출흥(出興)할 것이다. 이 인연(因緣)으로 이 겁(劫)의 이름을 현겁(賢劫)이라 하였다」하였고,『비화경(悲華經)』5에「이 불(佛)의 세계(世界)를 사바(裟婆)라 할 것이다. 중략(中略) 때에 대겁(大劫)의 이름을 선현(善賢)이라 한다. 어떠한 인연(因緣)으로 겁명(劫名)을 선현(善賢)이라 하였는가. 이 대겁중(大劫中)에는 천세존(千世尊)이 있어 대비(大悲)를 성취(成就)하여 세상에 출현하기 때문이다」하였으며,『행종기(行宗記)』4에「자은겁장(慈恩劫章)에 이르기를 곧 이 주겁(住劫)을 현겁(賢劫)이라 한다. 이 세계(世界)가 이루어진 뒤에 천불(千佛)이 출세(出世)하여 현성(賢聖)이 많으므로 현겁(賢劫)이라 한다.」하였음.

695) 현겁천불(賢劫千佛) : 현재의 주겁(住劫)에 나타나는 천의 부처님. 구류손불・구나함모니불・가섭불・석가모니불・미륵불 등의 천불.

696) 금강유정(金剛喩定)[금강심(金剛心)][금강삼매(金剛三昧)] : 금강에 비유할 만한 견고함과 날카로움을 가지고 모든 미세한 번뇌를 잘라버리는 힘이 있는 선정(禪定). 금강심(金剛心)・금강삼매(金剛三昧)라고 함. 소승에서는 이것을 아라한향(阿羅漢向)의 최후라 하고, 대승에서는 이것을 등각(等覺)의 마음이라 함.

『구사론俱舍論』 11에는 「오직唯 이 대륙洲 가운데中에 금강좌金剛座가 있으니有 위上로는 지제地際(땅끝)를 다 하고窮 아래下로는 금륜金輪에 근거據함이라. 일체보살一切菩薩이 장차 바른 깨달음正覺에 오를 새, 모두皆 이 자리座上에 앉아서坐 금강유정金剛喩定을 일으키다起」 하였으니,

금강삼매金剛三昧란 먼저 금륜金輪을 보고見 본격적本格的 육안肉眼을 얻은 후에 금강계金剛界[697]의 천안天眼과 금강륜金剛輪의 법안法眼과 금강지金剛智(금강과 같은 지혜)의 혜안慧眼을 내면적으로 깨달아內證 대적실삼매大寂室三昧[698]로써 최후最後의 불안佛眼을 성취成就할지니라.

제1절 사자후삼매獅子吼三昧

금륜金輪 이상以上을 금강계金剛界라 하니,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지혜智와 덕德을 말開示한 부문部門으로서 여래如來의 내면적 깨달음內證의 지혜智와 덕德은 그 본체體가 견고堅固하여 일체一切의 번뇌煩惱를 꺾어 깨뜨리는摧破 뛰어난 작용勝用이 있기 때문이라.

금륜金輪이란 사바세계娑婆世界 일체중생一切衆生의 신근身根(촉각기관)인 동시同時에 정이 있는 것情有 정이 없는 것無情의 사대색신四大[699]色身의 있는 그대로 모습實相이라 보현색신삼매普現色身三

697) (金剛界) : 태장계(胎藏界)의 반대말. 대일여래의 지혜를 나타내며 이법(理法)을 나타내는 부분. 여래의 깨달음의 지덕(智德)은 견고하여 일체의 번뇌를 깨부수는 데 뛰어난 작용을 하므로 금강(金剛)이라 이름 지었음. 계(界)는 그 작용을 말함.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금강계만다라임.

698) 대적실삼매(大寂室三昧)[대적정(大寂定)] : 혹은 대적정(大寂定)이라 함. (1)대적정삼매(大寂定三昧)·대적정묘삼마지(大寂靜妙三摩地). 공(空)은 삼매(三昧)·삼마지(三摩地)의 역어(譯語). 여래(如來)가 드는 선정(禪定)을 말함. 일체(一切)의 산란(散亂)한 마음을 여의고 구경적정(究竟寂靜)에 도달함을 대적(大寂)이라 이름. (2)대열반(大涅槃)과 같음. 여래(如來)가 사라벽수(紗羅碧樹)에서 입멸(入滅)한 것을 대적공(大寂空). 즉 대열반(大涅槃)이라 함.

699) 사대(四大) : 지(地)·수(水)·화(火)·풍(風)이라 하는 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진 육체. 인간의 신체.

昧[700]의 근본根本이요, 금강륜삼매金剛輪三昧의 대상對象이라 금모수金毛數와 같은 일체중생一切衆生의 진실한 색신實色이요, 법신法身인 사자본신獅子本身일새 금모사자金毛獅子[701]요, 사자獅子가 한 번 으르릉一吼 거림에 온갖 짐승百獸이 숨을 죽이는 격으로 일체一切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에 돌아오고歸 중생衆生의 거짓모습假相이 숨어서 없어질새隱沒 사자후삼매獅子吼三昧니라.

제2절 사륜四輪

유정有情의 업력業力[702](행위의 힘)으로써 최하最下의 허공륜虛空輪에 의지依止하여 풍륜風輪을 일어나게 하니 그 넓이가廣 헤아릴 수 없음無數이요 두텁기厚가 16억 유선나十六億踰繕那[703]라.

이와 같이 풍륜風輪의 본체體가 긴밀緊密(밀접)하니 또한復是 이 어떤 물건인가何物. 이것이 대지사륜大地四輪[704] 가운데의 풍륜風輪

---

700) (普現色身三昧) : 보살(菩薩)이 이 삼매(三昧)를 얻으면 갖가지 색신(色身)을 나타내어 중생(衆生)을 화익(化益)하게 하므로 보현색신삼매(普現色身三昧)라 함. 묘음(妙音)·관음(觀音)의 제신(諸身)을 현(現)하는 것과 같다. 곧 이 삼매(三昧)의 역용(力用)에 의한 것.『법화경(法華經)』에서는 일체색신삼매(一切色身三昧)라 부른다.『법화경(法華經)』<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에「화덕보살(華德菩薩)이 불(佛)께 아뢰기를 "세존(世尊)께서는 이 묘보살(妙菩薩)이 깊이 선근(善根)을 심었으니 어떠한 삼매(三昧)에 주(住)하여 이같이 중생(衆生)을 도탈(度脫)시킴을 나타내었습니까" 하니, 불(佛) 선남자(善男子)야, 그 삼매(三昧)의 이름은 일체색신(一切色身)이니 묘음보살(妙音菩薩)이 삼매중(三昧中)에 주(住)하면서 무량중생(無量衆生)을 이같이 요익(饒益)하게 함이다"라고 대답하셨다 하였음.

701) 금모사자(金毛獅子) :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사자.

702) 업력(業力) : 업인(業因)이 보과(報果)를 가져오는 큰 힘을 말함. 선업(善業)에는 락과(樂果)를 생(生)하는 역용(力用)이 있고, 악업(惡業)에는 고과(苦果)를 생(生)하는 역용(力用)이 있다.『유부비나야(有部毘奈耶)』46에「부사의업력(不思議業力)은 아무리 멀어도 반드시 서로 견인(牽引)하기 때문에 과보(果報)가 성숙(成熟)할 때에는 피하려 해도 끝내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였음.

703) 유순(由旬) : 또는 유사나(踰闍那)·유선나(踰繕那)·유연(由延). 인도 리수(里數)의 단위. 성왕(聖王)의 하루 동안 행정(行程). 40리 혹은 30리에 해당. 또 대유순은 80리, 중유순은 60리, 소유순은 40리라고 한다. 1리도 시대를 따라 그 장단이 같지 않음. 1리를 360보(步), 1,080척이라 하면, 1유순은 6마일의 22분의 3에 해당.

704) 대지사륜(大地四輪) : ①풍륜(風輪) : 유정(有情)의 업력(業力)으로 먼저 최하(最下)인 허공(虛空)에 의지(依止)하여 풍륜(風輪)을 생(生)한다. 그 넓이가 끝이 없고 두께가 십육억유선나(十六億踰繕那)가 된다. 이 풍륜(風輪)은 그 체(體)가 견밀(堅密)하다. 가령 일대락건나(一大諾健那)가 금강륜(金剛輪)의 분위(奮威)로 치니 금강(金剛)이 부서졌으나 풍륜(風輪)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②수륜(水輪) :

이요, 또한 유정有情의 업력業力으로 큰 비구름大雲雨을 일으키어起 풍물風物위에 비를 내리니注 수륜이 모여積水輪 이룬成지라 이가 수륜水輪이오, 유정有情의 업력業力으로 다른 바람別風이 일어나起 이 물水을 잡아 치며搏擊 위로 이어서上結 금金을 이루니 이가 금륜金輪이라.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허공륜虛空輪위에 풍륜風輪이 있고 풍륜風輪위에 수륜水輪이 있고 수륜水輪위에 금륜金輪이 있고 금륜金輪위에 아홉 산과 그 산을 둘러싼 여덟 바다九山八海[705]가 있다 하신 최초初의 사륜四輪에 대對한 『구사론俱舍論』 <세간품世間品>에서 말한 바이니 참작參酌할지어다.

요要컨대 하늘天・땅地・해日・달月・별들星宿과 산山・내河・대지大地의 삼라만상森羅萬象과 준동함령蠢動含靈의 일체중생一切衆生의 몸身인 지성地性(단단한 성품)을 먼저 분석分析하자. 과학자科學者는 말하되 일체一切의 물체物體란 성분成分을 모아 쌓은 것集積이라 하여, 성분成分이란 분자分子[706]의 미세한 것이 합한微合 것이요,

분자分子란 각各 원소元素의 인연본체因緣體라 한다. 그리하여 다시 원소元素[707]를 파괴破壞할새 형상形과 자취跡도 없어지는 동시

(有情)의 업력(業力)으로 대운우(大雲雨)를 일으켜 풍물상(風物上)에 심어서 수륜(水輪)을 이룩하였다. 이 수륜(水輪)은 응결(凝結)하기 전(前)의 자리에 있으므로 깊이가 십일억이만유선나(十一億二萬踰繕那)가 됨. ③금륜(金輪) : 유정(有情)의 업력(業力)이 다른 바람을 일으켜 물위를 계박(繫縛)하므로 물위가 응결(凝結)하여 금(金)이 되고 숙유(熟乳)의 응결(凝結)이 막(膜)이 되므로 수륜(水輪)을 감(減)하여 그 두께가 팔억(八億)이 되고 그 나머지는 금륜(金輪)을 전성(轉成)하여 두께가 삼억이만(三億二萬)이 되어 수(水)와 금(金) 이륜(二輪)의 넓이는 같다. 그 직경(直徑)은 십이억삼천사백반(十二億三千四百半)이나 된다고 함. 이 3륜(三輪)에 의지(依支)한 허공륜(虛空輪)이 된다고 함. [『구사론(俱舍論)』 <세간품(世間品)』].

705) 구산팔해(九山八海) : 수미산 등 아홉 산과 그 산을 둘러싼 여덟 바다. 이것은 인도의 세계 구성설에 나타난 산과 바다의 총 수. 수미산 중심으로 그 둘레에 카데라산 또 그 둘레에 이사타라산・유건타란산・소달리사나산・안습박갈나산・나민타라산・비나다가산・작가라산이 차례로 둘러있고 산과 산 사이에는 각기 한 바다가 있으므로 모두 9산8해가 된다.

706) 분자(分子) : 몇 개의 원자(原子)가 모여 독립성을 가진 화학물질의 최소 입자(粒子).

707) 원소(元素) : 물건을 만들어 내는 근본이 되는 것 물건을 형성하는 근본이 되는 것. 화학적으로 성립과 구조가 가장 간단한 성분. 같은 원자(原子)만으로 구성되는 물질.

同時에 전자電子[708]와 양핵陽核이란 원자原子만 발견發見될 뿐이다. 또 원자原子의 핵체核體는 무엇이냐 하여 가칭假稱(임시臨時)의 원자핵原子核[709]을 구求하나 발견發見하지 못함이다. 보라! 이미 석존釋尊께서 이를 밝히시고 모든 보살菩薩이 덧붙여 알기 쉽게 설명한敷演 바다. 모든 법法(진리)은 인연因緣으로부터 일어나고 또한 인연因緣으로부터 소멸滅한다 하신 인연법因緣法의 매개체媒介體가 곧 원소元素였다. 과학자科學者는 일체一切가 공空에 돌아옴歸을 입증立證했다. 그러나 아직 바른 길正道은 모른다.

그리하여 유정有情 무정無情의 일체중생一切衆生이 의지하는 바의 드러난 세계顯界가 이대로 허공륜虛空輪이요, 허공륜虛空輪위에 풍륜風輪이란 곧 전자電子요, 풍륜風輪위에 수륜水輪이란 곧 양핵陽核이니라. 그리고 수륜水輪위에 금륜金輪이란 곧 구求하는 바의 원자핵原子核이다. 원자핵原子核인 금륜金輪은 오직 육안肉眼의 참된 성품實性을 회복回復하여야 확연히 볼 수 있다見證. 천하중생天下衆生의 육안肉眼이란 거짓 성품假性이니만큼 그의 참된 성품實性을 구求하는 것이 먼저 해결하여야 할 문제問題이다.

제3절 석공관 析空觀

땅地・물水・불火・바람風 사대적의四大的 그 성품性은 공대空大[710]와 합合하되 그 모양相은 땅의 성품地性的으로 환화幻化(변화하

---

708) (電子) : 소립자(素粒子)의 하나. 처음에는 음극선(陰極線) 입자(粒子)로 발견되어 후에 물질의 기본적 구성단위로서 개념이 확립되었음. 원자(原子)안에 그 원자 번호와 같은 수가 들어 있음. 음전하(陰電荷)를 띠고 있는 질량(質量)이 아주 작은 입자로서 원자핵(原子核)의 주위를 돌고 있음.

709) 원자핵(原子核) : 원자의 중핵(中核)이 되는 입자. 양성자(陽性子)와 중성자(中性子)가 강한 핵력(核力)으로 결합한 것으로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양(陽)의 전하(電荷)를 가짐. 원자의 지름의 일만 분의 일 이하임.

710) 공대(空大) : 허공이라는 원소. 모든 것에 널리 미치기 때문에 대(大)라 함. 5대의 하나. 방해받지 않는 것을 본질로 하고 방해하지 않는 것을 작용으로 함. 사물이 존재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임.

여)하여 중생衆生의 마음 본체心體를 음폐陰蔽하고, 물의 성품인水性的 탐하는 마음貪心과 불의 성품인火性的 화내는 마음嗔心과 땅의 성품인地性的 어리석은 마음痴心은 바람의 성품風性的으로 나타나니顯現, 요要는 먼저 땅의 성품地性을 분석分析하여서 사대상四大相(지·수·화·풍)을 깨뜨리고破 공성空性에 머무름이住 도道(깨달음)에 들어가는 첫걸음일새

하늘天·땅地·해日·달月·별들星宿과 산과 내·대지山河大地의 삼라만상森羅萬象과 사람과 축생人畜 내지乃至 꿈틀거리는 심령을 지닌 뜻이 있는 중생들蠢動含靈과 일체중생一切衆生의 몸身을 남김餘地 없이 파괴破壞하여 극유진隙遊塵정도程度의 성분成分으로 드러내고化, 다시 그의 $\frac{1}{7}$인 우모진牛毛塵의 분자分子로 드러내고化, 그 $\frac{1}{7}$인 양모진羊毛塵을 원소元素로 드러내고化, 그 $\frac{1}{7}$인 토모진兎毛塵의 전자電子로 드러내고化,

그 $\frac{1}{7}$인 수진水塵의 양핵陽核으로 드러내어化, 현재 살아 있는 세계顯界인 욕계의 티끌欲界塵을 사자분신격獅子奮迅格[711]으로 탈락脫落하고 그 $\frac{1}{7}$인 금진金塵의 원자핵原子核으로 드러내고化, 그 $\frac{1}{7}$인 미微의 식識(인식작용)알갱이로粒 드러내고化, 그 $\frac{1}{7}$인 극미極微의 물질色의 마지막究竟(궁극)으로 드러내고化, 그 $\frac{1}{7}$인 인허隣虛의 염심근染心根[712]으로 드러내어化, 색계의 티끌色界塵과 무색계無色界의 염분染分을 정화淨化하고,

711) (獅子奮迅) : 사자(獅子)가 분기(奮起)할 때 신모(身毛)가 다 꼿꼿이 서서 그 형세(形勢)의 신속용맹(迅速勇猛)함을 부처님의 위맹(威猛)에 비유(比喩)한 것.

712) 염심근(染心根) : 염심(染心)이 근(根)으로 변화한 것.

오히려 한 걸음 나아가進一步 진공계眞空界에 전입轉入한 후後 다시금 삼계三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을 올바르게 관찰正觀하여 그의 묘유妙有[713]를 관찰觀察할새 결과果가 진공묘유眞空妙有 관찰觀이요, 원인因이 석공관析空觀이니라.

제4절 사상 四相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에 「왜냐하면 수보리須菩提야 만약에 보살菩薩이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곧 보살菩薩이 아니니라」 하시고, 또 「수보리須菩提야 어떻게 생각하느냐於意云何. 육신의 상으로써可以身相 여래를 볼 수 있느냐見如來不 아니옵니다不也. 세존世尊이시여, 육신의 상으로써不可以身相 여래를 볼 수 없사옵니다.得見如來 왜냐하면 여래如來께서 말씀하신所說 바 육신의 상身相이 아니 옵니다卽非身相 부처님佛께서 수보리須菩提에게 말씀告하시길,

무릇 있는 바의 모든 상凡所有相이 다皆是 허망虛妄하니 만약若에 모든 상諸相이 상이 아닌 줄非相 돌이켜 보면見 곧卽 여래如來를 보느니라見」 하심은 「육조六祖스님이 주해解에서 말씀하시되, 중생과衆生 부처님의 성품佛性이 본래 다르지 아니하건만 네 가지 모양四相이 있는 연유로 하여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어가지 못하니 네 가지 상四相이 있으면 바로 중생衆生이요

네 가지 모양四相이 없으면 바로 부처님佛이라. 미혹迷하면 곧 부처님佛이 중생是衆生이요 깨달으면悟 곧 중생衆生이 부처님是佛이니라. 미혹한 사람迷人이 재보財寶 학문學問 족성族姓이 있음을

713) (妙有) : 모든 것이 실체가 없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모양.

믿고 모든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니輕慢 아상我相이라 이름하며, 비록 행동으로 어질고仁 의롭고義 예의 바르며禮 슬기롭고智 성실하고信 뜻意이 고상高하다 자부自負하나 널리普 공경敬을 행하지 아니하고,不行 나는我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을 이해解하고 행行한다고 말言하나 공경함이敬爾 일치하지 아니함不合이라 이를 인상人相이라 이름하며, 좋은 일은 자기한테 돌리고 나쁜 일은 다른 이에게 돌리는 사람은 중생상衆生相이라 이름하며,

경계에 대하여對境 취하고 버리는 분별이 있으면 수자상壽者相이라 이름 하니 범부凡夫의 네 가지 상四相이라 이르며, 수행인修行人도 또한 네 가지 상四相이 있으니 마음에 주체能와 대상所이 있어서 중생衆生을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는지라輕慢 아상我相이라 이름하며, 스스로 계戒를 지킴을 믿어恃持 계戒를 깨뜨린 자破를 가벼이輕 여기는 것을 인상人相이라 이름하며,

삼도三途의 고통을 싫어하여 모든 천상天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중생상衆生相이요, 마음에 오래 사는 것에 애착心愛長年하여 복福과 행위業를 부지런히 닦아勤修 모든 집착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수자상壽者相이니, 네 가지 상四相이 있으면 곧 바로 중생衆生이오, 네 가지 상四相이 없으면 곧 바로 부처님佛」이라 했고,

또「색신色身은 곧 상相이 있으며 법신法身은 곧 상相이 없으니 색신色身이라 하는 것은 사대四大가 화합和合하여 부모로부터 태어난 바라 육안肉眼으로 볼 수 있으며, 법신法身이라는 것은 형상形段이 있지 아니하여 청靑 황黃 적赤 백白색도 아니며 모든

얼굴 생김새相貌가 없어서 육안肉眼으로 능能히 볼 수 없으며 혜안慧眼으로야 비로서乃 능히能 볼 수 있으니見, 범부凡夫는 다만 색신여래色身如來만 보고 법신여래法身如來는 보지 못하니 법신法身은 허공虛空과 같음量等이라, 까닭에 부처님佛께서 - 수보리須菩提에게 묻되 "가히 육신의 상身相으로 여래如來를 볼 수 있는가" 하시니 수보리須菩提가 "범부凡夫의 알음알이 지혜知로는 다만 색신여래色身如來만 보고 법신여래法身如來는 보지 못하는 까닭에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함이라.

세존世尊이시여, "몸의 형상身相으로는 여래如來를 볼 수 없습니다." 하니, "색신色身은 바로 모습相이오 법신法身은 바로 성품性이라 일체一切의 선악善惡이 다 법신法身으로 비롯함盡由이요 색신色身으로 비롯함이 아니니不由, 법신法身이 만약에 악惡을 지으면 색신色身이 좋은 곳善處에 나지 않음이요, 법신法身이 선善을 지으면 색신色身이 나쁜惡 곳處에 떨어지지 않으니 범부凡夫는 오직 색신色身만 보고 법신法身은 보지 못함일 새,

형상에 머무름 없는無住相 보시布施를 하지 아니하며 일체一切 머무르는 곳處 에서於 평등平等한 행行을 행行하지 아니하며不能 일체중생一切衆生을 널리 공경하지 아니하거니와 법신法身을 보는 자는 바로 능히 형상에 머무름 없는無住相 보시布施를 행하며 바로 일체중생一切衆生을 널리 공경敬하며 바로 능히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을 수행修하여 바야흐로方 일체중생一切衆生의 동일同一한 참 성품眞性이 본래청정本來淸淨하여 더럽지垢穢 아니함을 믿어信 항하사恒沙의 묘용妙用(뛰어난 작용)을 구족具足하나니라.

여래如來의 법신法身을 나타내고자顯 한다면欲故 일체一切의 모든

형상諸相이 다 헛虛되고 망령妄되니 만약에 일체一切의 모든諸 형상相이 헛虛되고 망령妄되어 진실하지 않음不實을 깨달으면 바로 여래如來의 형상 없는無相 이치理를 보리라見" 하시니라.

제5절 금강계 오부 金剛界五部[714]

금강계金剛界란 시각始覺[715] 상전上轉[716]의 법문法門으로서 미혹이 있는在迷 9식九識[717]을 변화하여轉(淨化하여) 5종류五種의 과지果智(수행 결과로 얻은 지혜)를 성취成就함일새 5부五部에 분류分類하니

1에 연화부蓮華部란 중생衆生의 마음 가운데 본래 갖추어져

---

714) (金剛界五部) : 금강계(金剛界)는 시각전(始覺轉)의 법문(法門)이 되어 미(迷)에 있는 구식(九識)을 전화(轉化)하여 오종(五種)의 과지(果智)를 이루기 때문에 오부[五部, 연화부(蓮華部)·금강부(金剛部)·불부(佛部)·보부(寶部)·갈마부(羯磨部)]로 분류(分類)함.

오방(五方)·오지(五智)·오불(五佛)에 금강계오부(金剛界五部)를 배열하면 아래와 같다.

中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	대일(大日)	불부(佛部)
東	대원경지(大圓鏡智)	아촉(阿)	금강부(金剛部)
南	평등성지(平等性智)	보생(寶生)	보부(寶部)
西	묘관찰지(妙觀察智)	아미타(阿彌陀)	연화부(蓮華部)
北	성소작지(成所作智)	불공성취석가(不空成就釋迦)	갈마부(羯磨部)

715) 시각(始覺) : 일체중생(一切衆生)의 본성(本性)인 자성(自性)과 청정심(淸淨心)은 본래(本來) 조명(照明)의 덕(德)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본각(本覺)이라고 하며, 이 본각(本覺)의 내훈(內薰)과 사교(師敎)의 외연(外緣)에 따라 비로소 압구(壓求)의 마음을 일으키며 본각(本覺)에 순(順)하여 점점 각어(覺語)의 지(智)가 생(生)하므로 시각(始覺)이라 함. 곧 본성(本成)의 사덕[四德,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본각(本覺)이라 하고 시성(始成)의 사덕(四德)은 시각(始覺)이라 함. 『기신론(起信論)』에 「시각(始覺)의 뜻은 본각(本覺)에 의하므로 불각(不覺)이 있고 불각(不覺)에 의하므로 시각(始覺)이 있다」고 설(說)함.

716) 상전(上轉) : 본각(本覺)이 다른 사람을 교화(敎化)하여 아래를 향하는 것을 하전(下轉)이라 하고 시각(始覺)이 자리(自利)하여 위로 나아가는 것을 상전(上轉)이라 함. 또한 본각(本覺)의 근본(根本)을 배반(背返)하고 오도(五道)를 전전(轉轉)하는 것을 하전(下轉)이라 하며 시각(始覺)의 근본(根本)을 향하여 전전(轉轉)하는 것을 상전(上轉)이라 함.

717) 구식(九識) : 성종(性宗)의 학설(學說). ①안식(眼識) : 빛을 분별(分別)하는 것. ②이식(耳識) : 소리를 분별(分別)하는 것. ③비식(鼻識) : 냄새를 분별(分別)하는 것. ④설식(舌識) : 맛을 분별(分別)하는 것. ⑤신식(身識) : 감촉을 분별(分別)하는 것. ⑥의식(意識) : 모든 법진(法塵)을 분별(分別)하여 아는 것. ⑦말나식(末那識) : 아뢰야식(阿賴耶識)을 분별(分別)하여 실아(實我)로 삼는 것. ⑧아뢰야식(阿賴耶識) : 종자(種子)와 오근(五根)과 기계(器界)의 삼경(三境)을 분별(分別)하여 이를 생기게 하는 것. ⑨ 암마라식(菴摩羅識) : 무구식(無垢識)이라고도 하며, 진여(眞如 : 본체)를 식(識)으로 인정하여 만유(萬有)의 근원(根源)이라고 하는 것.

있는本有[718] 정보리심淨菩提心[719]의 청정淸淨한 이치理가 있어, 육도六途의 죽고 사는生死 진흙 가운데 있지만, 오염되지 않고不染 더러워지지 아니不垢함이 연꽃蓮華이 진흙 가운데 있되 오염되지 않고不染 더러워지지 아니不垢함과 같음이요

2에 금강부金剛部란 중생衆生 스스로의 마음自心의 이소理所가 본래 갖추어져 있는本有 지혜智가 있어, 죽고死 태어남生의 진흙泥 가운데中 수 없는 겁劫을 지나도 썩어서 없어지지 않거나不朽 무너지지 아니不壞한 것이, 금강金剛이 오랫長久동안 진흙 가운데 매몰埋沒되어도 썩어서朽 무너지지壞 아니함不과 같음이요,

3에 불부佛部란 이상已上의 이지理智(무루無漏의 지혜智慧)가 본래 갖추어져 있으나本有 범부위凡夫位에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과위果位[720]에 들어가서야 이지理智(無漏의 智慧)가 나타나顯現 정각의 대도覺道[721]가 원만圓滿함 때문이요,

4에 보부寶部란 부처님佛의 자증부自證部[722]로서 만덕萬德이 원만圓滿하여 복덕福德이 끝없음無邊 때문이요,

5에 갈마부羯磨部란 부처님佛의 화타부化他部[723]로서, 갈마羯磨란

718) (本有) : (1)본래부터 갖추어 있다는 뜻. 아무런 수양(修養)을 하지 않고도 선천적(先天的)으로 본래(本來) 구유(具有)하고 있는 덕성(德性). (2)사유(四有)의 하나.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몸, 이것이 업(業)을 짓는 근본이므로 이렇게 말함.

719) 정보리심(淨菩提心) : 진언(眞言) 수행자(修行者)가 처음 초지(初地)에 들어서 법(法)을 보고 도(道)를 밝히어 무개장삼매(無蓋障三昧)를 얻는 것을 정보리심(淨菩提心)이라 한다.『대일경소(大日經疏)』3에「처음 정보리심문(淨菩提心門)에 들어서 법(法)을 보고 도(道)를 밝히는 것이 마치 식종자가라라(識種子迦羅羅) 때와 같다」라고 하였음.

720) 과위(果位) : 인행(因行)이 성취되어 증득(證得)하는 불과(佛果)의 지위. →인위(因位)

721) 각도(覺道) : 정각(正覺)의 대도(大道).

722) 자증(自證) : 제일의(第一義)의 진리(眞理). 남[他]으로 부터 얻지 않고 스스로 증오(證悟)함을 자증(自證)이라 말함.『연밀초(演密鈔)』2에「자증(自證)이라 함은 다만 부처님의 자설(自說)은 남[他]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하였음.

작업作業[724]이라 번역하니 부처님佛이 중생衆生을 위爲하여 자비悲愍를 드리우시고垂 일체一切의 사업事業을 두루 이루게辦成하시기 때문이니, 처음初과 두 번째는 번뇌가纏 있는 인덕因德이요, 세 번째第三는 이지理智(無漏의 智慧)가 구족具足한 번뇌纏를 벗어난出 과위果位(부처의 경지)며, 뒤後의 둘二은 불부佛部 가운데 이리二利[725] 원만圓滿을 따로 말함이라別開.

제6절 오불좌 五佛座

1에 대일大日의 사자獅子 자리座니, 사자獅子가 모든諸 짐승獸의 왕王으로서 모든 짐승 가운데 돌아다니되遊行 두려움이 없듯이無畏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 모든 존재諸法의 왕王으로서 모든 존재諸法 가운데서 거리낌 없이無碍 자재自在하심으로써 사자獅子를 자리座로 하심이요,

2에 아촉阿閦의 코끼리象 자리座니, 의결義訣에 말하되 코끼리象의 힘씀力用은 모든 짐승諸獸 가운데 이를 넘는 자가 없을 새 그 견고한 힘堅力과 거리낌 없음碍無을 나타냄이라表幟, 토끼兎·말馬·코끼리象의 세 마리 짐승이 강물河水을 건너려 함에 코끼리 왕象王만이 홀로 그 밑에 이르러 모든 짐승諸獸 가운데 그 힘이 가장 큰 것이最大 금강부金剛部의 꺾어 깨뜨리는摧破 뛰어난 작용德用에 상응相應(일치)함이요,

---

723) (化他) : 남(他)을 교화(敎化)하는 것. →자행화타(自行化他).

724) 작업(作業) : 행위. 활동. 신체와 말에 의한 행위.

725) 이리(二利) : 자리(自利)와 이타(利他). 상구보리는 자리(自利)요 하화중생은 이타(利他)다. 소승의 행(行)은 오직 자리뿐이지만 보살의 행(行)은 이타까지 겸하였다. 『무량수경(無量壽經)』에 「자기도 이익 되게 하고 남도 이익 되게 하면 인아(人我)가 모두 이익 된다」라고 하였고, 『찬아미타불게(讚阿彌陀佛偈)』에 「자리이타함은 원만하다」라고 하였음.

3에 보생寶生의 말 자리馬座니, 의결義訣에 말하되 세간世間에 존귀尊貴한 길상吉祥은 말馬보다 우선함이 없고 또 말馬의 지혜慧 사용用에 있어서 세간世間에서 보배寶로 할새 보생불寶生佛의 관정법왕灌頂法王[726]이 이로써 자리座로 함이요,

4에 아미타阿彌陀의 공작孔雀 자리座니, 의결義訣에 말하되 세간世間에서 공작孔雀을 서금瑞禽이라 말하니 이 날짐승禽의 아름다운 모습麗狀이 갖가지種種의 색色을 갖추고 밝은 지혜明慧가 있어서 시의時宜(시기)에 잘 응善應할새 아미타阿彌陀의 전법륜왕轉法輪王이 이로써 자리座로 함이요,

5에 불공성취不空成就의 가루라迦樓羅[727] 자리座니, 의결義訣에 말하되 이 새鳥의 위력威力이 능能히 모든 용龍을 항복降伏시켜 모든 용龍이 사는 사대해四大海[728] 가운데 가루라迦樓羅새가 가는 곳에所向處 용龍이 곧 항복降伏할새, 불공불不空佛의 갈마왕羯磨王이로써 자리座로 함이니 일체一切 사람과 하늘 신들人天의 모든 용龍을 거두어 끌어 들여서攝引 깨달음菩提의 저 언덕彼岸에 이르게 함이니라.

---

726) (灌頂) : 원래 인도(印度)에서 왕(王)이 즉위(卽位)하였을 때 사해(四海)의 물을 정수리에 부어 축의(祝意)를 표하던 일. 전(轉)하여 전법(傳法)·수계(受戒)할 때 또는 수도자(修道者)가 일정한 계위에 오를 때 받는 자의 정수리에 향수를 붓는 일. 이에 마정관정(摩頂灌頂)·수기관정(授記灌頂)·방광관정(放光灌頂)의 세 가지가 있고 이외에 이종(二種)·사종(四種)·오종관정(五種灌頂) 등이 있음.

727) 가루라(迦樓羅) : 가류라(迦留羅)·아로나(嚕羅)·게로다(揭路荼)·가로다(加嚕荼)라고도 쓰고, 항영(項嬰)·대소항(大嗉項)·식토비고성(食吐悲苦聲)이라 번역. 또는 소발랄니(蘇鉢剌尼,)라 하고, 금시조(金翅鳥)·묘시조(妙翅鳥)라 번역. 용을 잡아먹는다는 조류(鳥類)의 왕. 독수리같이 사나운 새. 8부중(部衆)의 하나.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화(神話) 상의 동물. 고대 인도 사람은 새의 괴수로서 이러한 큰 새의 존재를 생각하고, 대승 경전 같은 데에 8부중(八部衆)의 하나로 자주 인용. 밀교에서는 이 새로써 대범천(大梵天)·대자재천(大自在天) 등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화현한 것이라 하고, 혹은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도 한다. 태장계 외금강부 중에 들어 있다.

728) 사대해(四大海) : 수미산(須彌山)의 사방에 있는 대해(大海)이다. 수미산은 사대해 중앙에 있으므로 사대해 가운데 각각 하나의 대해가 있고 사대해 밖에 철위산이 요위(繞圍)하고 있다고 함.

제7절　오지五智

현교顯教(드러낸 가르침)에서는 팔식八識을 굴려서轉(淨化하여) 네 가지 지혜四智를 이룬 구경究竟(궁극의 경지)의 보신여래報身如來를 세우고, 밀교密教(감춘 가르침)에서는 네 가지 지혜四智에 제 9식第九識을 굴린 바의所轉(淨化하여)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를 첨가하여 다섯 가지 지혜五智로 하고 금강계金剛界 지법신智法身[729]의 대일여래大日如來를 세우니,

1에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란 암마라식菴摩羅識(九識)을 굴린轉(淨化하여) 바로서 법계法界란 정식차별淨識[730]差別의 뜻義일새, 모든 존재諸法를 차별差別한 그 수數가 한량없는無量 법계체성法界體性이 곧 육대六大라 육대법계六大法界[731]의 삼매三昧에 머무름을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라 이름하고 방편구경方便究竟[732]의 덕德을 주主로 하며,

2에 대원경지大圓鏡智란 아뢰야식阿賴耶識(八識)을 굴린轉 바로서 법계法界의 만상萬象이 나타남顯現이 크고 둥근 거울大圓鏡과 같은 지혜智며,

3에 평등성지平等性智란 말나식末那識(七識)을 굴린轉 바로서 모든 존재諸法가 평등平等한 작용作用을 이룬 지혜智며,

---

729) (智法身) : 이법신(二法身)의 하나. 삼법신(三法身)의 하나. 수행(修行)에 의하여 시각(始覺)의 지혜(智慧)가 끝까지 이르러 본각(本覺)의 이치(理致)에 계합(契合)하고 이(理)와 지(智)가 서로 융통(融通)하여 색(色)과 심(心)이 둘이 아닌 지혜(智慧)가 나타나는 것을 말함. →법신(法身). →시각(始覺).

730) 정식(淨識) : 청정한 근본식(根本識).

731) 육대(六大法界) :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식(識)을 본체(本體)로 하고 그것으로 상징(象徵)되어 있는 진리의 색계(色界).

732) 방편구경(方便究竟) : 방편(方便)이 그대로 구경(究竟)이라는 것.

4.에 묘관찰지妙觀察智란 의식意識(六識)을 굴린 것으로서 모든 존재諸法의 불가사의妙함을 분별分別하여 많은 근기衆機를 관찰觀察하고 법法(진리 : 모든 존재의 實相)을 설법說하여 의심疑을 끊게斷하는 지혜智며,

5에 성소작지成所作智란 안식眼識 등等의 오식五識을 굴린轉 바로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훌륭한 행妙業을 성취成就한 지혜智라.

* 전(轉) : '굴리다'의 뜻이나, '정화淨化하다' 라고 하면 뜻이 잘 드러납니다.

이 다섯 가지 지혜五智는 한 몸一身에 갖춘所具 지혜와 덕智德이지만 중생衆生을 거두어들이고자引攝 본체本體에서 사방四方의 사지四智 사불四佛을 출생出生할새,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는 본위本位에 머무른住 중앙中央의 대일여래大日如來라 하고, 대원경지大圓鏡智에 유래由한 동방東方의 아촉여래阿閦如來는 보리심發菩提心[733]을 일으키는 덕德을 근본主으로 하며,

평등성지平等性智에 유래由한 남방南方의 보생여래寶生如來는 수행修行의 덕德을 근본主으로 하며, 묘관찰지妙觀察智에 유래由한 서방西方의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는 보리를 성취하는成菩提 덕德을 근본主으로 하며, 성소작지成所作智에 유래由한 북방北方의 불공성취여래不空成就如來는 열반에 들어가는入涅槃 덕德을 근본主으로 한다 하나, 이는 일종一種의 하전법문下轉法門에 속屬하고,

상전上轉[734]할 때時에는 중앙中央이 열반자리涅槃位요 북방北方이

733) (發菩提心) : 보리(菩提)는 무상(無上)의 정진도(正眞道)이다. 무상(無上) 정진도(正眞道)의 마음을 발구(發求)하는 것을 발보리심(發菩提心)이라 한다.『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삼자(三者)는 보리심(菩提心)을 발(發)하여 인과(因果)를 깊이 믿는 것이다」하였고,『무량수경(無量壽經)』에「집과 욕심(慾心)을 버리고 사문(沙門)이 되어 보리심(菩提心)을 발(發)하여 오로지 무량수불(無量壽佛)을 염(念)한다」하였으며,『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현의분(玄義分)]「함께 보리심(菩提心)을 발(發)하여 안락국(安樂國)에 왕생(往生)한다」하였음.

보리자리菩提位요 서쪽西方이 수행자리修行位요 동방東方이 발심자리發心位요 남방南方이 방편자리方便位니, 사방四方이란 현계顯界를 가리킴指이 아니요 밀계密界를 가리킴指이라.

북남北南은 상하上下요 서동西東은 좌우左右일새, 동쪽東 승신주勝身洲에서 발심發心하고 서쪽西 우화주牛貨洲에서 수행修行하고 북쪽北 단월주單越洲에서 보리를 성취하고成菩提 중앙中央의 열반자리涅槃位에 머무르며住 남쪽南 섬부주贍部洲의 중생衆生을 방편方便으로써 구제救濟할지니,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의 대일大日이 중앙中央에 자리位함은 앞前과 동일同一하되 사방四方의 배당配當은 다르니異라.

평등성지平等性智의 불공여래不空如來니 북상北上에, 성소작지成所作智의 보생여래寶生如來니 남하南下에, 대원경지大圓鏡智의 아촉여래阿閦如來니 우동右東에, 묘관찰지妙觀察智의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니 좌서左西에 자리位하고, 태장계胎藏界의 오대五大를 이에 배대配하면 중앙中央에 공대空大, 북방北方에 풍대風大, 서방西方에 화대火大, 동방東方에 수대水大, 남방南方에 지대地大가 해당當하니라.

그러한 즉 다섯 지혜五智란 곧 땅地·물水· 불火·바람風·빔空의 오륜관五輪觀으로써 먼저 자재自在를 얻은 뒤에 앞前 사대四大의 색온色蘊이 본래 공本空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에 입각立脚하고 색온色蘊에 근거根據한 수受(느낌)·상想(지각표시)·행行(의지와 구상)·식識(인식능력) 네 가지 무더기四溫의 물듦과 더러움染垢도 또한 공空한 진실한 모습의 지혜實相智인 청정한 마음淨心의 식

734) (上轉) : 본각(本覺)이 다른 사람을 교화(敎化)하여 아래를 향(向)하는 것을 하전(下轉)이라 하고 시각(始覺)이 자리(自利)하여 위로 나아가는 것을 상전(上轉)이라 함. 또한 본각(本覺)의 근본(根本)을 배반(背返)하고 오도(五道)를 전전(轉轉)하는 것을 상전(上轉)이라 함. →하전(下轉).

대識大와 아울러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육대六大로써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를 성취成就하고, 범부凡夫의 팔식八識을 굴려서轉(淨化하여) 보살菩薩의 네 가지 지혜四智를 이룰새, 여래의 다섯 가지 지혜五智如來라 부르니라稱.

제5장 불성 佛性

불생불멸不生不滅[735]인 법성法性[736]의 뛰어난 진리妙理를 이불성理佛性[737]이라 이름하고, 대원경지大圓鏡智 등等 네 가지 지혜四智의 종자種子를 행불성行佛性[738]이라 이름하는 바, 이 가운데에 이불성理佛性은 일체一切 유정有情을 모두 갖추되, 행불성行佛性은 갖춤具과 갖추지 못함不具의 다름別이 있으니 갖추지 못함不具은 영원히永 부처佛를 이루지 못함成不이요, 부처님의 성품佛性을 셋으로 나누어 이야기함도 있으니,

1에 자성주불성自性住佛性이란 일체중생一切衆生이 본래 갖추어

735) (不生不滅) : 생기는 일도 멸하는 일도 없는 것. 상주(常住)인 것. 깨달음의 경지를 형용하여 말함. 해탈의 경지.

736) 법성(法性) : 제법(諸法 :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의 진실한 본성. 만유(萬有)의 본체를 말하고 불교의 진리를 나타내는 말의 하나로 진여·실상·법계 등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한다.

737) 이불성(理佛性) : 행불성(行佛性)에 대한 말. 불성(佛性)의 이체(理體)는 이불성(理佛性)이 되고 그 불성(佛性)의 행업(行業)을 개발(開發)하는 것이 행불성(行佛性)이다. 법상종(法相宗)에서 영영 성불(成佛)하지 못하는 중생(衆生)이 있다고 말하며『열반경(涅槃經)』에 일체중생(一切衆生)이 모두 불성(佛性)이 있다는 말과 어긋나므로, 불성(佛性)에 이 이의(二義)를 세워서 회(會)한 것. 이불성(理佛性)이란 일체중생(一切衆生)이 비록 갖추었으나 행불성(行佛性)은 일체(一切)에 주변(周遍)하지 않으므로 성(成)과 불성(不成)이 있는 것임. →행불성(行佛性).

738) 행불성(行佛性) : 이불성(二佛性)의 하나. 사람마다 불성(佛性)이 있어서 거기에 의하여 대행(大行)을 발(發)하여 불과(佛果)를 감득(感得)하는 것을 행불성(行佛性)이라고 한다. 비록 불성(佛性)이 있더라도 다만 그 이(理)만을 갖추고 있고 이(理)를 일으키는 행(行)의 용(用)이 없는 것을 이불성(理佛性)이라고 한다. 이는 법상종(法相宗)에서 세운 것으로 이 법상종(法相宗)의 말은『열반경(涅槃經)』에서 이른바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고 한 이불성(理佛性)에 따라 말한 것이다. 만약 행불성(行佛性)에 의하여 말한다면 불성(佛性)이 없는 일류(一類)의 중생(衆生)이 있다. 다만 법상종(法相宗)에서는 중생(衆生)의 성품(性品)을 오종성(五種性)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보살정성(菩薩定性)과 부정성(不定性)가운데 보살부정성(菩薩不定性)만이 성불(成佛)할 수 있다고 하나, 이것 역시 이 견해(見解)를 의지한 것이다.『유식론추요(唯識論樞要)』에「열반(涅槃)은 이성(理性)과 행성(行性)가운데서 소분(少分)과 일체(一切)에 의한 것으로 오직 일(一)을 설(說)하였다」라고 하였음.

져本具있는 진여眞如는 자성自性에 항상 머물러常住 변화하지 않으며不變 고쳐지지도 않음不改이요

2에 인출불성引出佛性이란 중생衆生이 선정禪定을 닦아 익힐修習 때 본래 갖추어 있는本具 지혜智慧의 부처님 성품佛性을 끌어냄引出이요,

3에 지덕과불성至德果佛性이란 수행의 원인修因이 만족滿足하여 부처의 경지果位에 이를 때에 본래 갖추어 있는本有 부처님 성품佛性이 뚜렷이了了 나타날새顯現

불佛이란 깨달음覺悟의 뜻義으로서 일체중생一切衆生이 다 가지고 있는悉有 깨달음의 본성覺性을 불성佛性이라 이름 하니, 본성性이란 고치지 못한다不改는 뜻義으로서 인과因果를 통通하여 자기의 본성自性을 고치지 못함不改이라. 보리 원인因麥과 보리 결과果麥의 그 본성性을 고치지 못不改함과 같으니 본성性에 대對하여 부처님佛 본성性이요 형상相에 대對하여 여래如來니라.

제1절 삼인불성三因佛性과 5불성五佛性

『열반경涅槃經』에서 말한 바이니 일체一切의 어긋남邪과 거짓非을 여읜離 올바른中正 진여眞如에 의지依하여 법신法身의 깨달음의 공덕果德[739]을 성취成就할새 정인불성正因佛性[740]이라 이름하며, 진여眞如의 이理(이치)를 조료照了(현현顯現하는)하는 지혜智慧에 의지依하여 반야般若의 깨달음의 공덕果德을 성취成就할새 요인불성了因

739) (果德) : 과상(果上)의 공덕(功德). 열반(涅槃)의 사덕(四德)인 상(常)·락(樂)·아(我)·정(淨)의 사덕(四德)을 과덕(果德)이라 함. 결과에 따른 공덕(功德). 깨달음의 공덕.

740) 정인불성(正因佛性) : 삼인불성(三因佛性)의 하나. 온갖 중생(衆生)이 모두 가지고 있고 일체(一切)의 사(邪)된 것을 여읜 중정(中正)의 진여(眞如).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될 본성(本性)임.

佛性[741]이라 이름하고, 요인了因(발심의 종자)을 연조緣助(도와서)하여

바른 원인正因을 개발開發케 하는 일체一切의 선근공덕善根功德에 의지依하여 해탈解脫의 덕德을 성취成就할새 연인불성緣因佛性[742]이라 이름하며, 이상已上을 삼인불성三因佛性이라 말하며 뒤後에 둘二을 보태서加 오불성五佛性이라 말함도 있으니, 4에 과불성果佛性이란 보리菩提의 결과果로서 바른 깨달음正覺의 지혜智를 보리菩提라 말함이요, 5에 과과불성果果佛性이란 대열반大涅槃으로서 보리菩提의 지혜智로써 열반涅槃의 이理(이치)를 나타냄顯이라.

제2절 불성계佛性戒[743]

『범망경梵網經[744]』에서 말한說 바의 대승계大乘戒로서 불성계佛性戒를 불계佛戒라, 불승계佛乘戒라고도 이르니 일체중생一切衆生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本具 부처님의 성품佛性이 청정淸淨하여 때가 없어無垢 일체一切의 모든 허물諸過을 여읠離새 이 부처님 성품佛性을 본체體로 하여 불과佛果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요, 모든諸부

741) (了因佛性) : 삼인불성(三因佛性)의 하나, 정성(正性)을 요달(了達)한 각지(覺知)를 말함. → 삼인불성(三因佛性).

742) 연인불성(緣因佛性) : 오불성(五佛性) 가운데 제이(第二). 천태종(天台宗)에서 부처가 될 인(因)의 삼종(三宗) 중에 연(緣)이 인(因)을 도와 정인(正因)의 일체선근공덕(一切善根功德)을 개발(開發)하는 것. 이에 의하여 해탈(解脫)의 덕(德)을 성취(成就)하므로 연인불성(緣因佛性)이라 함.

743) 불성계(佛性戒) : 대승계의 통명(通名). 일체중생이 갖추고 있는 불성은 더러움이 없는 것으로 모든 잘못을 여의고 있음. 이 불성에 따라 제정한 계라는 뜻. 보살계와 동일.

744) 『범망경(梵網經)』 : 노사나불(盧舍那佛)이 설(說)한 <보살심지계품(菩薩心地戒品)> 제10(第十)의 약칭이다. 『범망경(梵網經)』은 본래(本來) 『화엄경(華嚴經)』과 동부(同部)였으나 모두 번역한다면 120권(百二十卷) 61품(六十一品)이 된다. 구마라집(鳩摩羅什) 삼장(三藏)이 장안(長安)에서 제경론(諸經論)을 번역할 때 최후(最後)에 역출(譯出)한 경중(經中)에 오로지 보살행지(菩薩行地)의 <보살심지계품(菩薩心地戒品)> 제10(第十) 일품(一品)만을 밝혔다. 이때 도융(道融)·도경(道顒)등 삼백여인(三百餘人)이 곧 보살계(菩薩戒)를 받고 각각 이를 외우며 이 품(品) 팔십일부(八十一部)를 써서 세상(世上)에 유통(流通)시켰다. 대범천왕(大梵天王)의 인다라망(因陀羅網)은 중중교철(重重交徹)하고 무상장애(無相障)한다. 제불(諸佛)의 교문(敎門)도 또한 중중무진(重重無盡)하고 장엄(莊嚴)한 법신(法身)이 장애(障閡)됨이 없으며 일부(一部)가 설명하는 법문(法門)도 중중무진(重重無盡)하여 범왕(梵王)의 망(網)과 같음에 비유한 것.

처님佛이 머무르는 일실상一實相[745](평등한 진여의 모습)의 깨끗한 계淨戒이기 때문이요 대승계大乘戒의 모든 것을 이름하니라.

『범망경梵網經』 하下에 「일체중생一切衆生이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이 있으니皆有佛性 일체一切의 의意(생각)와 식識(인식능력)과 색色(물질)과 마음心의 이 뜻是情(생각)과 마음是心이 모두皆가 불성계佛性戒 가운데中 들어감入이라」 하시고, 또 「일체一切의 마음心이 있는 자有者는 모두皆 부처님 계를 거두어攝佛戒 받으니應,

중생衆生이 부처님佛 계戒를 받으면受 바로卽 모든諸 부처님佛 자리位에 들어가리라入」하시며, 『대일경소大日經疏』 17에 「부처님佛은 일체一切 형상相을 여의고離 청정한淨 계戒에 머무를새住, 이른바所謂 모든諸 형상相을 여윈離 하나의 형상一相 하나의 맛一味이라, 만약에 능히 이와 같이 일체一切의 형상相을 여의고離 이 계戒에 머무르면住 이 계戒가 곧 바로 부처님 계佛戒라」 하니라.

제6장 삼신三身과 사토四土

삼신三身이란 부처님佛의 세 가지 몸(모양)三身을 말함이니 법신法·보신報·응신應 세 가지 몸三身은 그 이름을 『법화론法華論』(法華經論)[746]에서 취取하여 천태종台家에서 세운 것所立으로서 진眞[747](부처님의 진실한 몸)을 말하고開 응應[748](중생에 응하는 몸)을 합合

745) (一實相) : 평등한 진여의 모습.

746) 『법화경론(法華經論)』 : 2권(二卷). 후위(後魏)의 보리유지(菩提流支)·훈림(暈林) 등이 함께 번역하였다. 4~5세기경 유명한 논사(論師) 세친(世親)이 지음. 또는 『묘법연화경론우바제사(妙法蓮華經論優婆提舍)』라 한다. 서품(序品)·방편품(方便品)을 해석(解釋)하고 일곱 가지 비유(譬喩) 등을 간략히 밝혔다.

747) 진(眞) : (1)있는 그대로. (2)깨달음. 진리. ③궁극의 입장. 승의(勝義) (3)사제(四諦) (5)진여. 원성실성. 본각. 진실.

748) 응(應) : 중생의 마음에 따라 부처님이 보이는 것. 응현함. 중생에 따라 임시로 보이는 모습(應身이

한 세 가지 몸三身일새,

1에 법신法身이란 중도中道[749]의 본래 갖추어져 있는本有 만유의 본체理體요,

2에 보신報身이란 인행因行(佛이 되기 위한 수행) 공덕功德의 과보報로서 나타난顯發 부처님佛의 진실한 지혜實智라. 이를 둘로 나누어 안으로 증득內證한 진리의 즐거움法樂을 수용受用하는 몸身을 자수용보신自受用報身이라 이름하고, 초지初地 이상已上의 보살菩薩에 응應하여 나타나는現 보신報身을 타수용보신他受用報身이라 이름하니 이는 다음의 승응신勝應身과 같은 몸同體에 이름은 다른 것異名이요,

3에 응신應身이란 응화신應化身이라고도 이르니 이치와 지혜理智[750]는 둘이 아님不二의 묘체妙體(물物의 진정한 실체)로 부터 중생衆生을 교화하고 이끌기化導 위하여 가지가지種種로 응하여 나타나는應現 몸身이라. 이 또한 둘로 나뉘어 초지初地 이상已上에 응하여 나타남應現을 승응신勝應身이라 이름 하니 곧 위上의 타수용보신他受用報身이요, 초지 이전地前의 이승二乘과 범부凡夫에 응하여 나타남應現을 열응신劣應身이라 이름 하니 석가여래釋迦如來의 장육신丈六身이 바로 이것이라.

).

749) 중도(中道) : 2개의 것이 대립을 하지 않는 것. 단(斷)·상(常)의 이견(二見), 또는 유(有)·무(無)의 이변(二邊)을 떠난 치우치지 않는 중정(中正)의 도를 말함.

750) 이지(理智) : 이(理)는 소관(所觀)의 도리(道理)요, 지(智)는 능관(能觀)의 지혜(智慧)다. 이 둘이 서로 명합(冥合)한 것을 각오(覺悟)라고 말한다. 즉 이(理)에 의하여 지(智)를 내고 지(智)에 의하여 이(理)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지(智)에는 2종(二種)이 있는데, 유루(有漏)의 모든 지(智)를 사지(事智)라 하고, 무루(無漏)의 지(智)를 이지(理智)라고 말함. [『구사론(俱舍論)』 18].

이 세 가지 몸三身 가운데 법신여래法身如來를 비로자나毘盧遮那라 이름 하니 변일체처遍一切處라 번역하고, 보신여래報身如來를 노사나盧舍那라 이름 하니 정만淨滿 또는 광명변조光明遍照라 번역하고 응신여래應身如來를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라 이름 하니 능인적묵각能仁寂默覺 또는 도옥초度沃焦[751]라 번역하고, 이 삼신三身을 저彼 종宗에서(천태종) 세운 바所立에 의하여 4종의 국토四土(四種佛土)[752]에 배분配分하면 법신法身은 적광토寂光土[753]에, 보신報身은 실보토實報土[754]에, 승응신勝應身은 방편토方便土[755]에, 열응신劣應身은 동거토同居土[756]에 머무르니라.

자성自性·수용受用·변화變化 세 가지 몸三身은 그 이름을 『불지론佛地論』[757]과 『유식론唯識論』에서 취取하여 법상종法相宗[758]에서

751) 도옥초(度沃焦) : 구(舊) 『화엄경(華嚴經)』 <명자품(名字品)>에서 석가모니의 별호(別號)라고 함. 옥초(沃焦)는 큰 바다 가운데 있으며 만류(萬流)를 흡입(吸入)하는 초석(焦石), 중생은 오직 초석(焦石)과 같아서 다섯 가지 욕망에 부풀어 싫어하거나 만족할 줄을 모르나 오직 부처님은 이 욕심을 초월하였으므로 도옥초(度沃焦)라 한다.

752) 사종불토(四種佛土)[사토(四土)] : 천태종에서 석존일대의 교설을 장교(藏教)·통교(通教)·별교(別教)·원교(圓教)로 나눈 원칙에 따라 불토(佛土)도 범성동거토(凡聖同居土)·방편유여토(方便有餘土)·실보무장애토(實報無障碍土)·상적광토(常寂光土)로 나눈 것을 가리킨다.

753) (寂光土)[상적광토(常寂光土)] : 사토(四土)의 하나. 상적광토(常寂光土)의 약칭(略稱). 적정상주(寂靜常住)인 진리(眞理)와 지혜(智慧)가 일치된 각자(覺者)가 거주하는 세계로 곧 법신불(法身佛)의 세계.

754) 실보토(實報土)[실보무장애토(實報無障碍土)] : 사종불토(四種佛土)의 하나. 실보무장애토(實報無障碍土) 약칭. 중도(中道)의 이치(理致)를 증득(證得)한 자(者)가 가서 나는 정토(淨土).

755) 방편토(方便土)[방편유여토(方便有餘土)] : 방편유여토(方便有餘土)라고도 하며, 사토(四土)의 하나. 방편토(方便土)·유여토(有餘土)라고도 한다. 성문이나 연각으로 과(果)를 얻는 사람이나, 십지(十地) 이전 사람들이 가서 태어나는 삼계(三界) 밖의 정토(淨土). 이들은 모두 방편으로 공관(空觀)을 닦아서 견혹(見惑)·사혹(思惑)을 끊었으나 아직 중도관(中道觀)을 닦지 못하였으므로 무명의 번뇌를 끝까지 끊지 못하게 되어 그 국토를 방편유여토(方便有餘土)라 함.

756) 동거토(同居土)[범성동거토(凡聖同居土)] : 사토(四土)의 하나. 범성동거토(凡聖同居土)의 약칭.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삼계(三界) 안에 있는 세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동거예토(同居穢土 : 사바세계와 같은 국토)와 동거정토(同居淨土 : 서방 극락세계와 같은 국토)의 두 가지가 있음.

757) 불지론 : (1)『불지경(佛地經)』 1권(一卷). 당(唐) 현장(玄)의 번역. 내용은 부처님이 묘생보살(妙生菩薩)을 위하여 불지(佛地)의 오상(五相)과 청정법계(淸淨法界)의 4지(四智)를 설(說)한 것. (2)『불지경론(佛地經論)』 7권(七卷). 인도(印度) 친광등보살(親光等菩薩) 지음. 또는 불지론(佛地論)이라 하며 불지경(佛地經)을 수문해석(隨文解釋)한 것.

세운 바로서 이 또한 진眞(부처님의 진실한 몸)을 말하고開 응應(중생에 응하는 몸)을 합合한 세 가지 몸三身이니,

1에 자성신自性身이란 곧 위上의 법신法身이요
2에 수용신受用身이란 둘로 나뉘어 오직唯 부처님佛과 부처님佛의 경계境界로서 부처님佛 자신自身만이 수용受用하는 법락樂法의 부처님 몸佛身을 자수용신自受用身이라 이름 하니 이는 대원경지大圓鏡智의 변화한 바所變요, 또 초지初地 이상已上의 보살菩薩로 하여금 감응하여 수용感見受用하게 하는 법락法樂인 부처님의 몸佛身을 타수용신他受用身이라 이름 하니 위上의 승응신勝應身인 동시同時에 평등성지平等性智의 나타난 바所現요,

---

758) (法相宗) : 유식종(唯識宗)·응리원실종(應理圓實宗)·보위승교종(普爲乘敎宗)·유식중도종(唯識中道宗)·중도종(中道宗)이라고도 한다. 소의경전(所依經典)은『해심밀경(解深密經)』·『성유식론(成唯識論)』·『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인도에서는 무착·천친이 세우고 중국에서는 현장(玄奘)이 인도의 계현(戒賢) 논사(論師)에게 배워 가지고 와서 규기(窺基)에게 전하다. 규기는 자은사에 있었으므로 일명 자은종(慈恩宗)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원측(圓測)이 당나라에 가서 현장에게『유식론(唯識論)』·『유가론(瑜伽論)』을 배우고『유식소초(唯識疏抄)』를 지었다. 신라 경덕왕 때에 진표가 금산사에서 계법(戒法)과 점찰법(占察法)을 겸해 닦아 실행하고, 법상종의 종지를 제자 영심(永深)·보종(寶宗)·신방(信芳) 등에게 전하여 법주사·동화사 등에서 크게 떨쳤다. 이 종은 우주 만유의 본체보다도 현상을 세밀히 분류 설명하였으므로 법상종이라 하며, 유식종이라 함은 온갖 만유는 오직 식(識)이 변해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기 때문. 이 종파의 주장은 불교의 유식론으로서 만유는 오로지 아뢰야식으로 연기(緣起)한 것이라 한다. 그 연기의 주체인 능변(能變)의 시초는 제8식이요, 2능변은 제7식, 3능변은 통6식이라 하고, 이것들은 다 내심(內心)으로 외경(外境)을 변현하는 것이므로 삼계유일심(三界唯一心)·심외무별법(心外無別法)이라 말한다. 만유를 분류하여 오위백법(五位百法)으로 정하며, 만유의 참된 실재와 허망과를 밝히기 위하여 3성(性)을 말한다. 식(識)이 바깥 경계를 인식하는 과정에 나아가서는 이를 4분(分)으로 나누어 세밀히 설명하고, 유식의 이치를 깨달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오중유식관(五重唯識觀)을 세웠다. 중생의 해탈하는 방법에 나아가서는 5성(性)이 각각 다르다고 말하여 영구히 해탈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 또 그 종의 3승교만이 진실하고, 다른 종파의 1승교는 가설(假說)이라 하므로 일반에서 이 종을 권대승(權大乘)이라 일컫는다. 인도에서는 본래 중관종(中觀宗)에 대립하여 유가종이라 부르던 것인데, 불멸 후 900년경에 미륵이 중인도에 내려와서『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분별유가론(分別瑜伽論)』·『대장엄론(大莊嚴論)』·『변중변론(辯中邊論)』·『금강반야론(金剛般若論)』을 설하고, 무착·천친이 이를 이어받아『섭대승론(攝大乘論)』·『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혹은『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등을 지어 교의(敎義)를 발휘. 호법 등 10대 논사는 또 세친의『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을 주석(註釋)하여 유식의 이치를 크게 선정. 호법의 문하(門下)에 계현(戒賢)이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건너간 현장에게 그 법을 전하다. 현장은 돌아와 10대 논사의 해석을 합하여『성유식론(成唯識論)』을 짓고, 그 제자 규기는『유식술기(唯識述記)』·『장중추요(掌中樞要』를 지어 본종의 교의를 크게 이루었다. 이『장중추요(掌中樞要)』와 혜소(慧沼)의『유식요의등(唯識了義燈)』과 지주(智周)의『유식연비(唯識演秘)』는 유식의 3대소(大疏)라 하여 본종을 연구하는 좋은 재료가 되었다.

3에 변화신變化身이란 초지初地 이전已前의 보살菩薩 또는 이승二乘 범부凡夫와 모든 취諸趣(六趣 :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天)의 중생衆生에 대對하여 감응하여 나타나게感見 하는 가지가지種種의 변화신變化身인 동시同時에 성소작지成所作智의 나타난現所 바요 위上의 열응신劣應身이니라.

법法·응應·화化 세 가지 몸三身은 『최승왕경最勝王經』[759]에서 말한 바로서 진眞을 합合하고 응應을 말開한 세 가지 몸三身이니 자성신自性身과 자수용신自受用身을 합合하여 법신法身이라 이르고, 응화신應化身을 말하여開 타수용신他受用身을 응신應身, 변화신變化身을 화신化身이라 말 하니라.

그리고 법신法·보신報·화신化 세 가지 몸三身은 대소승大小乘이 통용通用하나 그 이름은 통通하고 그 뜻義은 달라서別 대승大乘은 이상已上 모든諸 뜻義을 포섭攝하되 소승小乘은 계戒·정定·혜慧·해탈解脫·해탈지견解脫知見 오품五品의 공덕功德을 법신法身이라 하고, 왕궁王宮에서 태어난生所 상호相好의 형상形을 보신報身이라 하며, 원숭이獼猴 등等으로 변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됨化現을 화신化身이라 말하니라.

제1절 법신法身의 체성體性[760]

법신法身의 본체 본성體性을 서술論함에 모든 종파諸家가 같지

---

759) 『 (最勝王經)』[『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의 약명(略名). 10권(卷). 당(唐)나라 의정(義淨)번역. 이 경(經)에 3본(本)이 있다. 제일(第一) 번역은 『금광명경(金光明經)』이라 하며 4권(卷)이 있고, 제2역(第二譯)은 『합부금광명경(合部金光明經)』이라 하며 8권(卷)이며, 제3역(第三譯)은 이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임. 나라를 수호하는 미묘한 경전으로 존숭을 받음.

760) 체성(體性) : 체(體)는 실체 본체. 성(性)은 체가 변하지 않는 것. 본성.

아니하니,

소승小乘은 이성理性[761](본성本性)을 논하지 아니不論하고 다만 계戒・정定・혜慧・해탈解脫・해탈지견解脫知見 오품五品의 공덕功德으로써 법신法身이라 하고 이를 오분법신五分法身이라 칭稱하며,

대승大乘의 모든 종파諸家가운데 삼론종三論宗[762]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으로서 법신法身이라 하니,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이란 모든 존재는 실체성이 없는諸法空 공리空理[763]로서 진공眞空 무상無相이 법신法身의 본체 본성體性일새 끝없는無邊 몸의 형상身相을 나타現낸다 함이오,

법상종法相宗은 법신法身을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一는 삼신三身을 모두 갖춘總具 법신法身이요, 하나一는 삼신三身 가운데의 법신法身이라. 총상總相[764]의 법신法身이란 청정법계淸淨法界의 진여眞如와 유위有爲・무위無爲에 대對한 사지四智 등等의 오법五法[765]을 법신法身이라 말함이오, 별상別相(하나하나)의 법신法身이란 오직 무위無爲의 진여眞如를 법신法身이라 말함이니 앞前에서 말함과 같으며,

화엄華嚴・천태天台 등等의 일승종一乘宗은 법신法身에 해섭該攝[766]

---

761) (理性) : 일심(一心). 본성. 이(理)와 성(性)은 동일. 성(性)은 변치 않는 것을 말함. 만상(萬象)의 체성(體性). 법성의 이치. 진여. 본래 갖추어 있는 이체(理體)로서 시종(始終) 변하지 않는 본성.

762) 삼론종(三論宗) : 불교 종파(佛教宗派)의 하나. 일명 성종(性宗)・공종(空宗)・파상종(破相宗)이라 한다. 인도(印度) 대승불교(大乘佛教)의 중관계(中觀系)・유가계(瑜伽系) 중의 중관계(中觀系)에서 시작되어 중국(中國)에서 크게 번성(繁盛)한 종파(宗派). 용수(龍樹)가 지은『중론(中論)』・『십이문론(十二門論)』과 제바(提婆)가 지은『백론(百論)』의 삼부(三部)를 주요 경전으로 하여 성립(成立)한 종파)로서 문수(文殊)・마명(馬鳴)・용수(龍樹)에 이르러 두 파(派)로 갈리어졌다.

763) 공리(空理) : 모든 법(法)은 실체(實體)가 없고 공(空)하다는 진리(眞理).

764) 총상(總相) : 모두에게 통하는 특질. 별상(別相)의 상대되는 말.

765) 오법(五法) : 오온(五蘊)을 말함.

766) 해섭(該攝) : 분상(分相)에 대하여 이르는 말. 모두 한데 합치는 것. 여러 가지 것을 차별적으로 보

과 분상分相의 두 문二門을 세운立것이나 분상문分相門[767]의 세 가지 몸三身가운데서 깨달은 바所證의 이치理를 법신法身이라 하고, 깨달은 주체能證의 지혜智를 보신報身이라 함이 법상종法相宗과 동일同一하나 그 이론理論에 있어 법상종法相宗과 같이 응연진상凝然眞常[768]의 진여眞如가 아니요,

화엄華嚴의 「만유萬有를 모두 갖춘總該 일진법계一眞法界[769]」라 함과 천태天台의 「모든 존재諸法를 원융圓融한 모든 존재諸法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이라 하는 것은 공리空理인 삼론가三論家가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이 아니요, 또 법상종法相宗과 같이 법신法身의 이치理는 무위無爲요 보신報身의 지혜智는 유위有爲라 하여 무위無爲·유위有爲의 본성의 모습性相이 각각 다르다 말함이 아니라,

진여眞如의 법法이 인연 따라隨緣 만덕萬德의 지혜의 모습智相[770]을 나타냄現일새, 이치와 지혜理智가 본래本 둘이 아니요不二 법성法性(진실한 본성)의 본체體에 스스로 능조能照의 지혜 작용智用을 겸하여 갖춘兼具것 일새, 이치理·지혜智가 본래本 하나의 본체一

않고 절대적(絶待的)인 하나로 융섭(融攝)하는 것을 말한다. 화엄종(華嚴宗)에서 말하는 삼승(三乘)·일승(一乘)등의 차별법(差別法)은 원래(原來) 별교(別教) 일승(一乘)을 벗어나지 않고 모두 화엄(華嚴)의 바다 가운데의 파란(波瀾)이므로 체(體)에 균(均)하여 그 차별상(差別相)을 없애고 모두 포라(包羅)하여 절대(絶對)의 하나로 융섭(融攝)하는 것을 말하며, 해섭문(該攝門)이란 분상문(分相門)에 대하여 이르는 말. 차별적(差別的)인 형형색색(形形色色)의 것을 절대유일(絶對唯一)한 것으로 통섭(統攝)하는 것을 말한다. 화엄종(華嚴宗) 현수(賢首)의 용어(用語)로 일승(一乘)의 밖에 삼승교(三乘教)를 인정하는 것을 분상교(分相教)라 하고, 일승교(一乘教) 안에 삼승교(三乘教)를 통섭(統攝)하는 것을 해섭문(該攝門)이라고 한다.『오교장(五教章)』1에 「보현문(普賢門) 가운데서 다시 이문(二門)을 짓는다. 하나는 분상문(分相門)이요, 또 하나는 해섭문(該攝門)이다」라고 하였음.

767) 분상문(分相門) : 화엄(華嚴)의 현수(賢首)가 별교일승(別教一乘)을 밝히고, 분상문(分相門) • 해섭문(該攝門)의 둘로 삼승(三乘)과 일승(一乘)의 차별(差別)을 밝혔으므로 분상문(分相門)이라 하며, 삼승(三乘)이 일승(一乘)임을 밝혔으므로 해섭문(該攝門)이라 함.

768) 응연진상(凝然眞常) : 작용(作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즉 불변(不變)한 모양.

769) 일진법계(一眞法界) : 유일 절대의 궁극의 진리.

770) 지상(智相) : 부처님의 광명을 말함. 이것은 불지(佛智)가 밖으로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임.

體라 이치理・지혜智가 모두 무위상주無爲常住[771]의 본래 그러한 것法爾이요 무작無作[772]이나 능조能照・소조所照와 능연能緣・소연所緣[773]의 의상義相(의미와 형상)에 의하여 법신法・보신報의 두 몸二身을 나눌 뿐이라 하며

진언종眞言宗[774]은 땅地・물水・불火・바람風・빔空・마음識의 육대六大[775]를 법신法身이라 말하고, 이 육대六大는 사법事法(드러난 법)이니만큼 법신法身에 본래本來 형상色相을 갖추具고 인격人格이 있다 함이 현교顯敎의 보화불報化佛[776]과 같다하여 육대六大는 걸림 없이無碍 들어갈涉人새, 차별差別하기 어려우나 앞에 오대五大를 자성신自性身인 이법신理法身 곧 태장계胎藏界의 대일大日이라 하고 제6第六의 식대識大를 자수용신自受用身인 지법신智法身 곧 금강계金剛界의 대일大日이라 하나니라.

771) (無爲常住) : 인연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

772) 무작(無作) : 인연(因緣)에 의(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생멸(生滅) 변화(變化)를 초월(超越)한 것

773) 능연(能緣) : 연(緣)은 반연(攀緣)한다는 뜻. 눈(眼)・귀(耳)・코(鼻) 등의 심식(心識)이 색(色)・성(聲)・향(香) 등의 외경(外境)을 반연(攀緣)하는 것을 능연(能緣), 외경(外境)을 소연(所緣)이라 함. 반연(攀緣)이란 심식(心識)이 홀로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외경(外境)을 반연하여 생(生)한다. 마치 노인(老人)이 지팡이를, 원숭이가 나무를 반연하는 것과 같음. ↔소연(所緣)

774) 진언종(眞言宗) : 또는 밀종. 761년(당나라 개원 4년) 선무외(善無畏) 삼장이『밀종론(密宗論)』을 번역함으로부터 중국의 진언종이 비롯됨. 금강지(金剛智) 삼장과 불공(不空) 삼장이 선양하여 오래도록 전해 내려옴. 우리나라에는 신라의 혜통(惠通)이 당나라에 가서 선무외에게서 인결(印決)을 얻어 가지고 664년(문무왕 4년)에 돌아온 것이 진언종의 시초. 명랑(明朗)도 당나라에 가서 신인(神印)을 얻어 가지고 돌아와 신인종을 세움. 밀본(密本)도 밀교 발전에 공헌함. 광학(廣學)과 대연(大緣)이 고려 초기 개성에서 현성사를 지어 밀교의 근본도량을 삼았으나 조선 초기에 없어지다.

775) 육대(六大) : 만물을 성립시킨, 만유의 본체인 여섯 가지 근본요소. 지대(地大)・수대(水大)・화대(火大)・풍대(風大)・공대(空大)・식대(識大) 이 여섯 가지는 각기 널리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大)라 함. 밀교에서는 이 여섯 가지를 대일여래의 상징이라고 간주함.

776) 보화불(報化佛) : 보신(報身)이나 화신(化身)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부처님.

제2절　사종四種의 오법신五法身[777]

1은 『보살영락경菩薩瓔珞經』[778]에서 말한바 일새, 그 1에는 여여지법신如如智法身이니 여여如如의 이치理를 깨달은證 진실한 지혜實智요, 2에는 공덕법신功德法身이니 십력十力·사무외四無畏 등等 일체一切의 공덕功德이요. 3에는 자법신自法身이니 지상보살地上菩薩[779]에 응하여 나타나는應現 응신應身으로서 천태天台의 승응신勝應身이오 법상法相의 보신報身 가운데 타수용신他受用身이며, 4에는 변화법신變化法身이니 천태종台家의 열응신劣應身이오 법상종法相家의 변화신變化身이며, 5에는 허공법신虛空法身이니 모든 형상諸相을 여읜離 여여如如의 이치理라.

이 가운데 여여지법신如如智法身과 공덕법신功德法身이란 보신報身으로서 보신의 덕報德을 지혜智慧와 공덕功德 둘로 나눔이요, 자법신自法身과 변화법신變化法身이란 응신應身으로서 응신의 덕應德을 지상地上과 지전地前의 뛰어남과 못함勝劣으로 나눔分이요, 허공법신虛空法身이란 곧 법신法身인 바 모두總 법신法身이라 이름 함은 다 이것이 법신法身의 덕상德相[780]임으로 써라.

---

777) (五種法身) : 부처님의 법신을 다섯 종류로 분류한 것, 여러 가지 설이 있음. ①법성생신(法性生身)·공덕법신(功德法身)·변화법신(變化法身)·허공법신(虛空法身)·실상법신(實相法身)을 말함. 「華嚴演義鈔」의 설. ②여여지법신(如如智法身)·공덕법신(功德法身)·자법신(自法身)·변화법신(變化法身)·허공법신(虛空法身)을 말함. 『영락경(瓔珞經)』의 설. ③자성법신(自性法身)·자수용법신(自受用法身)·타자용법신(他自用法身)·변화법신(變化法身)·등류법신(等流法身)을 말함. ④자성법신(自性法身)·수용법신(受用法身)·변화신(變化身)·등류신(等流身)·법계신(法界身)을 말함. ⑤오분법신(五分法身)과 같음.

778) 『보살영락경(菩薩瓔珞經)』[『영락경(瓔珞經)』][『대영락경(大瓔珞經)』][『현재보경(現在報經)』] : 『영락경(瓔珞經)』·『대영락경(大瓔珞經)』·『현재보경(現在報經)』이라고도 한다. 376년에 요진(姚秦)의 축불념(竺佛念) 번역(14권). 보살의 법(法), 육도(六道), 사제(四諦), 유식(唯識) 등의 여러 가지 법문(法門)을 설(說)한 경(經). 영락(瓔珞)은 보살(菩薩)의 10덕(德)으로써 그 체(體)를 장엄(莊嚴)했다는 뜻.

779) 지상보살(地上菩薩) : 보살 수행의 단계인 52위(位)중 초지(初地)이상의 지위에 있는 보살.

780) 덕상(德相) : 부처님의 뛰어난 모습.

2는 『분별성위경게分別聖位經偈』[781]에 자성自性 및 수용受用과 변화變化와 함께竝하는 같은 종류等流의 부처님 덕佛德이 36이요 모두皆 자성신自性身과 같아同서 법계신法界身과 함께竝 하는 까닭에故 37을 이룸成이라 하심과, 『예참경禮懺經』에 자성신自性身 외外에 법계신法界身을 달리 세움別立은 증거가 되는 글證文에 의하여 4신四身(自性・受用・變化・等流) 외外에 법계신法界身이 있음을 알고 이를 해석解釋한 『오륜구자명비석五輪九字明秘釋』에 의한 밀교密教의 세운 바所立 일새,

1에는 자성법신自性法身이니 이치理와 지혜智를 구족具足한 모든 부처님諸佛의 참 몸眞身이요 2에는 수용신受用身이니 자수용自受用과 타수용他受用을 겸兼한 법신法身이요 3에는 변화법신變化法身이니 본래 그대로의 모습法爾인 열응신劣應身이요 4에는 등류법신等流法身이니 본래 그대로의 모습法爾이 잠깐 나타나고暫現 빨리 숨는速隱 구계수류九界[782]隨類[783]의 등류신等流身이요 5에는 법계신法界身이니 곧 허공법신虛空法身이며,

3은 화엄종華嚴宗이 세운 것所立으로 1에는 법성생신法性生身[784]이니 그 출생生을 논술論하건대 여래如來의 몸身은 진실한 본성法性에서 출생出生함일새요, 2에는 공덕법신功德法身이니 그 덕목德目을 미루어 살피推察건대 여래가 이룬如來所成 만덕萬德일새요, 3

781) 『 (分別成位經)』[『금강정유가분별성위수증법문경(金剛頂瑜伽分別聖位修證法門經)』] : 『금강정유가분별성위수증법문경(金剛頂瑜伽分別聖位修證法門經)』의 약칭.

782) 구계(九界) : 10계(十界) 중 불계(佛界)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즉 지옥계에서 보살계에 이르기까지 9개를 말함. 이들 9계는 불계에 대한 방황 경계임.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수라(修羅)・인간(人間)・천상(天上)・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菩薩).

783) 수류(隨類) : 불(佛)・보살(菩薩)이 중생(衆生)의 류(類)와 같이 현형(現形)이 무수(無數)한 것.

784) 법성생신(法性生身): 법성으로부터 생긴 불신(佛身)을 말함. 2종 보살신 중 하나. 법성으로 난 몸이란 뜻. 이미 진여를 증득하여 3계에서 생사 유전하던 육신을 버리고 불생불멸하는 부사의변역신(不思議變易身)을 받은 보살.

에는 변화법신變化法身이니 그 근기機에 대對한 대처함應變을 논술論하건대, 감응하여感而 형상이 아닌 것은不形者 없고無 근기機而를 따라 응하지 않는 것은不應者 없을無새요, 4에는 실상법신實相法身이니 그 묘妙를 말하건대 불가사의不可思議일새요, 5에는 허공법신虛空法身이니 그 크기를 이르되稱 허공虛空에 가득彌滿하여 모든 것萬有[785]을 포괄包括할새라.

4는 소승小乘에서 세운 것所立으로 곧 오종법신五種法身이 이것이니라.

제3절 법신法身의 무상無相과 유상有相

『열반경涅槃經』 31에 「그러므로 열반涅槃은 형상이 없으니無相 선남자善男子야 열 가지 형상이 없는無十相 연고라 어느 것들이 열 가지가 되는가 이른 바所謂 물질의 형상色相·소리의 형상聲相·향기의 형상香相·맛의 형상味相·감촉의 형상觸相·태어남生·머무름住·무너지는 형상壞相·남자의 형상男相·여자의 형상女相이 열 가지 형상十相이라 이름 한다」 하시니,

곧 사바세계娑婆世界의 일체一切 헛되고 망령된 형상虛妄相을 여읜離 모든 존재는 실체성이 없는諸法空 일실상一實相(평등한 진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심에 의지依하여 법신法身은 물질도 아니며無色 형상도 없음無形이라 하고 물질 형상色相의 장엄莊嚴함이 없다無하나,

천태종台家은 이를 별교別教[786] 이하已下의 말說이라 폄하하고貶,

785) (萬有) :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원교圓敎의 지극한 뜻極意에 의依하면 법신法身이 결코 모습이 없는無相 것이 아니요 법성法性(진실한 본성)의 본체 이치體理에 의依(의보)·정正(정보), 색色·심心을 갖추어 진공무상眞空無相의 법성法性(진실한 본성)이 아닐새, 삼혹三惑[787]을 다한究竟 청정淸淨의 본성本性에 상주常住의 색심色心(물질色法과 정신心法)이 나타나顯現 의보依·정보正[788]의 두 진리二法도 마지막究竟(事理의 궁극)이 청정淸淨하다 말하고,

『법화경法華經』 <방편품方便品>[789]에 「이 법法(진리)이 주법위住法位[790]일새 세간상世間相이 항상 머무름常住[791]이라」하심과 같은同

---

786) (別敎) : 천태종(天台宗) 소화법(所化法) 사교(四敎)의 하나. 천태종(天台宗)에서 석존(釋尊)이 삼계(三界) 밖의 둔근중생(鈍根衆生)들에게, 만유(萬有)는 우리의 미(迷)한 소견(小見)으로 보면 사방면(事方面)에서는 차별(差別)이 있지만 이방면(理方面)으로 보면 평등(平等)하여 차별(差別)이 없으므로 이 미견(迷見)을 벗어나서 평등(平等)한 이치(理致)를 깨달으라고 가르친 교법이다. 이 교(敎)는 전(前)의 장교(藏敎)·통교(通敎)가 삼계(三界) 안의 좁은 세계관에 입각한 것임에 대하여 삼계(三界) 밖의 넓은 세계관(世界觀)에 위치하고, 또 차별(差別)한 사중(事衆)을 평등한 이체(理體)에 돌려보내어 사리(事理)의 상즉(相卽)을 말한 것. 뒤의 원교(圓敎)와 같이 융통 무애(無碍)한 이치에는 이르지 못하고, 또 장교(藏敎)·통교(通敎)·원교(圓敎)와는 다른 교(敎)이므로 별교(別敎)라 한다.

787) 삼혹(三惑) : (1)종의 근본적인 번뇌를 말함. 탐욕(貪慾)·진에(瞋恚)·우치(愚癡). (2)천태종에서는 견사혹(見思惑)과 진사혹(塵沙惑)과 무명혹(無明惑)을 말함. ①견사혹(見思惑)은 견혹(見惑)과 사혹(思惑). 견혹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사혹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고 일으키는 망상을 말함. ②진사혹(塵沙惑)이란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진사(塵沙)와 같이 무수한 법문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함. ③무명혹(無明惑)이란 천태종에서는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이(理)를 미(迷)하여 중도(中道)의 방해가 되는 미혹을 말함.

788) 의정(依正) : 바로 과거(過去)의 업(業)에 따라 나의 심신(心身)을 받는 것을 정보(正報)라 하고 그 심신(心身)이 의정(依正)하는 일체세간(一切世間)의 사물(事物)을 의보(依報)라 함. 『삼장법수(三藏法數)』 27에 「의(依)는 의보(依報)라 하며 즉 세간국토(卽世間國土)임. 신(身)의 소의(所依)가 되므로 의보(依報)라 하고 정(正)은 정보(正報)라 하며 곧 오음신(五陰身)이다. 바로 업력(業力)에 따라 이 몸을 감보(感報)하므로 정보(正報)라 함. 이미 능의(能依)의 몸이 있고 곧 소의(所依) 토(土)가 있으므로 국토(國土)를 보토(報土)라 한다」 하였고, 『행원품소초(行願品疏鈔)』 2에 「의(依)는 범성(凡聖)이 소의(所依)하는 국토(國土)로서 정(淨)하고 예(穢)하며 정(正)은 범성(凡聖)이 능의(能依)한 몸으로 인천(人天)의 남녀(男女)가 재가(在家)하거나 출가(出家)하면 외도(外道)의 제신(諸神)은 보살(菩薩)과 불(佛)이라 한다」 하였음.

789) 『법화경(法華經)』[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약칭. 대승경전(大乘經典)의 대표. 7권(卷) 28품(品). 일불승(一佛乘)·회삼귀일(會三歸一)·제법실상(諸法實相)을 말한 경전. 조선(朝鮮) 세조(世祖)때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번역 출판함. 천태지자(天台智者)는 『법화경(法華經)』을 불교(佛敎)의 중심사상(中心思想)으로 하였다. 천태종(天台宗)·법상종(法相宗)의 소의경전(所依經典). <방편품(方便品)>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법화경(法華經)』 이전에 말씀하신 삼승(三乘)의 교(敎)가 그대로 일승진실(一乘眞實)의 교(敎)인 것을 알린 편장(篇章).

(법화경)<제바품提婆品>에 「미묘微妙의 청정한 법신淨法身에 32상相을 갖추具니라」하심과,

『열반경涅槃經』 <교진여품憍陳如品>에 「색色(물질)이 곧是 무상無相이나 이 색是色을 소멸하는 원인因滅으로 하여 해탈解脫을 획득獲得하여 색色에 항상 머무름常住이라」 하심과

『인왕경仁王經』[792] <관공품觀空品>에 「법성法性(진실한 본성)의 오음五陰(五蘊)인 수受(느낌)·상想(지각표시)·행行(의지와 構想)·식識(인식능력)이 상常·락樂·아我·정淨이라」 하심을 인용하여 증거를 끌어냈으며,引證

사명존자四明尊者[793]도 『묘종초妙宗鈔』[794]의 가운데에 이와 같은 此等 글文을 인용引하여 적광寂光[795]은 형상이 있다有相는 뜻旨을 나타낸顯 바 일가一家의 불가사의妙한 뜻旨을 깊이 증거深符[796]하

790) (住法位) : 상주불멸(常住不滅)의 열반(涅槃)을 뜻함.

791) 세간상상주(世間相常住) : 이는 속제(俗諦)가 상주(常住)함을 보이는 금언(金言)으로 대승(大乘)의 극설(極說)이며 태가(台家, 천태종)의 안목(眼目)이다.『법화경(法華經)』<방편품(方便品)>에「이 법(法)은 주법위(住法位)이며 세간(世間)에 항상(恒常) 주(住)한다. 도량(道場)에서 자기(自己)를 알게 하고 도사(道師)가 방편(方便)을 설(說)한다」 하였음. 법위(法位)는 진여(眞如)이다. 법위(法位)에 주(住)하는 자(者)는 십계삼천(十界三千)의 제법(諸法)이 진여(眞如)에 주(住)함을 말한다. 곧 성(性)이 구비(具備)됨을 말함. 그러므로 진여(眞如)는 상주(常住)하고 세간(世間)의 상(相)도 또한 상주(相住)한다는 것.『지도론(智度論)』19에「중론에서 설한 열반은 세간과 다르지 않으며, 세간은 세간과 다르지 않다. 열반제와 세간제는 일제(一際)이며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792)『인왕경(仁王經)』: 2본(二本)이 있다. 구본(舊本)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으로『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佛說仁王般若波羅密經)』2권(卷), 신본(新本)은 불공(不空) 삼장(三藏)의 번역으로『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仁王護國般若波羅密多經)』2권(卷)이다. 인왕(仁王)은 당시(當時)의 16대국(大國)의 국왕(國王)이다. 불(佛)이 모든 왕(王)을 대하여 각각 그 나라를 수호(守護)하여 안온(安穩)하게 하기 위하여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密多)의 심법(深法)을 설(說)한 경문(經文)이다. 이 경(經)을 수지(受持)하거나 강설(講說)하면 7난(難)이 일어나지 않으며 재해(災害)가 생기지 않고 만민(萬民)이 풍락(豊樂)하므로 고래(古來)로 이것을 호국삼부경(護國三部經)의 하나라 함.

793) 사명존자(四明尊者) : 송(宋)나라 지예법사(智禮法師)가 사명산(四明山)에 거(居)하면서 천태(天台)의 정의(正義)를 넓혔으므로 호(號)를 사명존자(四明尊者)라 한다.

794)『묘종초(妙宗鈔)』: : 송(宋)나라 사명존자(四明尊者)가 천태(天台)의 관경소(觀經疏)를 해석하여 제목을 묘종초(妙宗鈔)라 하였음.

795) 적광(寂光) : 천태종에서 내세우는 사토(四土) 중 상적광토(常寂光土)의 준말. 진리와 지혜가 일치된 각자(覺者)가 거주하는 세계. 곧 법신불의 세계.

는 동시同時에 「만일萬一 조사의 책祖書 가운데 이성理性[797](본성)을 가리키어指 형상이 없는無相 적멸寂滅이라고 말함도 있는 것은 이성理性(본성)에는 물들고 장애하는染碍 모습相이 없을無새 이 정상情相(생각・번뇌)을 막는遮 차정문遮情門[798]의 일부분一端[799]이니 물들고 거리끼는染碍 정상情相(생각・번뇌)이 이미 없어짐旣亡에 따라 성구性具[800]의 미묘한 모습妙相이 두루 나타남彌顯을 마땅히 알라」하였으니, * 애碍 : 방해하다, 거리끼다

요要컨대 무상설無相說은 「무릇凡 있는 바所有 모든皆 형상相은 헛되고 망령됨이라是虛妄」 하심에 의依한 제법공諸法空에 치우치偏고, 유상설有相說은 「만약若에 모든 형상諸相이 형상이 아님非相을 보면見 곧卽 여래를 보리라見如來」 하심에 의依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에 치우침偏이 없지 아니하니不無 수행자修者는 스스로 깨달아自證 적발摘發[801]할 지어다.

제4절 법신설법法身說法

법신法身이 법法(진리)을 말說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밀교密敎에서 항상 말함常談이요, 법신法身은 법法(진리)을 말하지 않고無說 보신과 화신報化이 법을 말한다有說라고 하는 것은 현교顯敎의 일반

796) (符) : 증표(證票). 증거.

797) 이성(理性) : 일심(一心). 본성. 이(理)와 성(性)은 동일. 성(性)은 변치 않는 것을 말함. 만상(萬象)의 체성(體性). 법성의 이치. 진여. 성(性)은 변하지 않는 뜻. 본래 갖추어 있는 이체(理體)로서 시종 변하지 않는 본성.

798) 차정문(遮情門) : 정(情)을 막고 덕(德)을 나타내는 이문(二門)의 하나.

799) 일단(一端) : 한 끝. 사물의 일부분.

800) 성구(性具) : 또는 체구(體具)・이구(理具)라고도 함. 천태종의 교의(敎義)에서 어떠한 유정(有情)에도 그 본각(本覺)의 성(性)에 십계(十界) 삼천(三千)의 선악의 존재가 갖추어져 있는 것. 살고 살게 함이 보살계 이하 구법계(九法界)의 선악(善惡)삼천(三千)의 제법(諸法)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

801) 적발(摘發) : 숨겨있는 사물을 들추어 냄.

적으로 통용되는 교리通途인 바, 오직 천태종台家에서 법신法身은 법法을 말한다有說를 주장主張하여 「법신여래法身如來가 일체一切의 덕德을 갖춘具지라 어찌 설법說法의 뜻義이 없으랴」 말하고 법신설법法身說法으로써 하나의 종지一宗(종지宗旨)의 눈썹과 눈眉目[802]으로 하여(매우 가까운 것으로 하여) 현교顯와 밀교密의 가르침을 나누었으니分教, 부처님佛의 세 가지 몸三身 가운데 법신法身이 부처님佛의 참 몸眞身이요, 보신報・응신應 두 몸二身은 중생을 위하여 몸을 나타냄이라爲他現身[803] 중생衆生의 시기인연機緣[804](時機因緣)에 응應한 수타의隨他意[805]의 법法일새, 중생을 위해서 나타난 爲他現 보신報・응신應 두 몸二身이 법法(진리)을 말說하고 법신法身이란 진여법성眞如法性의 이체理體(萬有의 本體)라 적멸寂滅은 형상이 없을無相 뿐이오, 설법說法의 뜻義이 없다無 함은 현교顯教의 주장主張이요,

밀교密教의 주장主張은 「모든 존재諸法를 갖춘具 성性(본체)・상相(현상)이 항상 그러함常爾이라. 인人・법法이 둘이 아닐不二새 어찌 법신法身의 스스로 말함自說을 방해妨하랴. 타기他機에 투投하는(의역 :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수타의隨他意의 교문教門[806]이 아니요 자성신自性身의 스스로 말함自說일새, 십계十界가 모두悉皆 스스로의 성품自性에 머무는住 자리位인지라, 누가誰 능화能化[807](불보살)며 소

802) (眉目) : 매우 가까움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803) 위타현신(爲他現身) : 남을 위하여 몸을 나타냄.

804) 기연(機緣) : 중생에게 착한 바탕이 있어 부처의 교화를 받을 만한 인연이 있는 일.

805) 수타의(隨他意) : 수자의(隨自意)의 반대. 부처님이 설법하는 경우, 상대의 생각・소질・능력에 따라서 설하는 것.

806) 교문(教門) : (1)교상문(教相門)의 준말. 부처님의 교설(教說)에 관한 방면이란 뜻. 이론적인 방면. (2)천태대사의 경우에는 경전에 근거하여 가르침을 설하는 방면을 말함. (3)가르침의 문호(門戶). 즉 종지(宗旨). 부처님의 가르침.

807) 능화(能化) : 능히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사장(師匠)・교화자(教化者) 불・보살은 능화(能化)요 중생은 소화(所化)이다.

화所化(중생)뇨, 각자各者 내면적으로 깨달은內證 법문法門을 연출演함으로써 설법說法이라 말함이니 오직 스스로 깨달은 설법自證說法과 가지설법加持[808]說法이 있을有 뿐이라」 하니라.

수행자修者는 오직 『정명소淨名疏』에 「법신法身이 무연無緣(조건이 없음)에도 그윽하여冥資 일체一切가 말씀 없는無說 말씀說이시니 곧 이것이 법신설법是法身說法」이라 함과, 『사명교행록四明教行錄』 4에 「마땅히 알라當知. 티끌과 같은塵塵 무수한 세계刹刹가 함께 말씀俱說하고 함께 들어서俱聽 말씀하고說 듣고聽를 동시同時에 하니 불가사의 하구나,妙哉 이 경계此境여 가히 언어와 생각으로 찾을 수 없고不可以言想求을 가히 범부의 뜻으로 헤아릴 수 없다.不可以凡情測 이것이 커서 모든 것을 포섭한 법문大總相法門으로서 고요하고 항상 비추는寂而常照 법신法身 명자의 경계이다冥資之境也」(의역 : ① 법신의 아무도 모르는 경계이다. ② 그 현묘하고 풍요로운 경계이다.) 라고 함을 다시 음미吟味할진저.

제7장 본적이문 本迹二門

초지初地 이상已上의 법신보살法身菩薩[809]이나 부처님佛이 자기自己의 참된 몸實身에서 많은許多 응화應化[810]의 모습을 바꾸어서變作 중생衆生을 교화化導하는 뛰어난 덕妙德을 갖춘具 그 진실한 몸實身을 본지本地[811]라 말하고, 화신化身을 수적垂跡[812]이라 이르니 지

808) (加持) : 밀교에서는 부처님의 절대적인 자비가 신앙하는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어 수행자가 그 자비를 자신의 신심(信心)으로 감응하는 것을 말함.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그 몸과 말, 뜻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서 그곳에 부처님이 있게 하는 것. 「만다라와 인계(印契)와 진언으로서 표식한다」라고 함.

809) 법신보살(法身菩薩) : 보살의 하나. 또는 법신대토(法身大土). 일분(一分)의 무명(無明)을 단진(斷盡)하여 일분(一分)의 법성(法性)을 현현(顯現)하는 보살로 초지(初地)이상의 보살을 말함.

810) 응화(應化) : 부처나 보살이 중생제도를 위해 상대에 맞추어 여러 가지 몸을 나투어 보이는 것.

811) 본지(本地) : 소원(所願)하는 화신(化身)에 대하여 능원(能願)하는 본신(本身)을 본지(本地)라 함. 능원(能願)과 소원(所願)이 서로 중중(重重)히 바라보므로 본지(本地)도 또한 중중(重重)하여 일정하지

地란 능생能生[813]의 뜻義으로서 만물에 이익利物 되도록 근본 몸本身에서 끝없는 변화를萬化[814] 드리울새,垂

나타내는 것能現(주체)의 근본本을 본지本地라 하고 나타나게 된 것所現(대상)의 마지막末을 수적垂跡이라 이름하는 바, 근본本에서 적迹(나타난 모습)을 수垂(늘어뜨린다)하고 적跡에 인하여由 근본本을 아는知 일불一佛과 열 보살十菩薩의 뛰어난 덕妙德이니라.

그런데 이 본적本迹에 취就하여 천태종台家은 본고적하本高迹下[815]·본하적고本下迹高·본적구고本迹俱高·본적구하本迹俱下의 네 구절四句로써, 높고 낮음高下을 분별分別하니 초지보살初地菩薩이 2지二地의 몸身을 나타내現거나 혹或은 팔상성도八相成道[816]의 형상相

. 오직 불(佛)의 실상법신(實相法身)은 곧 궁극(窮極)의 본지(本地)이며 그것을 넘어서 다시 능현(能現)하는 실신(實身)이 없으므로 본지법신(本地法身)이라 하며 본지(本地)는 곧 법신(法身)이다. 도안(道安)의『사리예문(舍利禮文)』에「본지(本地)는 법신(法身)이며 법계(法界)는 탑파(塔婆)이다」하였고,『연밀초(演密鈔)』2에「본지법신(本地法身)은 곧 실상법신(實相法身)이다. 일진상(一眞相)은 만화(萬化)의 본(本)이 되는 것이 땅이 만물(萬物)을 의지함과 같다. 그러므로 본지(本地)라 한다. 법신(法身)은 이 실상(實相)으로 능히 만화(萬化)를 궤지(軌持)함을 말한다. 곧 이 궤지(軌持)는 가명(假名)이 신(身)이 되며 법(法)은 곧 신(身)이므로 본지(本地)는 곧 법신(法身)이다」하였음.

812) 수적(垂迹) : 불(佛)·보살(菩薩)의 본체를 본지(本地)라 하고 그 본체가 시현(示現)한 여러 가지 신(身)이 중생(衆生)을 제도(濟度)하는 것을 수적(垂迹)이라고 함. 불(佛)의 삼신(三身)가운데 법신(法身)과 보신(報身)은 본지(本地)가 되고 화신(化身)은 수적(垂迹)이 된다. 이 본지(本地)와 수적(垂迹)의 뜻은『법화경(法華經)』<수량품(壽量品)>에서 설(說)한 것. 또는『대일경(大日經)』태장계(胎藏界)의 사중만다라(四重曼荼羅)를 설(說)한 것으로 대승섭화문(大乘攝化門)의 추뉴(樞紐)이다. 태장계(胎藏界)의 제4중(第四重)은 외(外) 금강원(金剛院)이며 인도(印度) 고래(古來)의 제천신(諸天神)이 모두 총섭(總攝)되어 있다. 모두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수적(垂迹)이라 함.

813) 능생(能生) : 생기는 성질이 있는 것. 결과를 생기게 함.

814) 만화(萬化) : (1)중생을 인도하는 모든 행동. (2)만물로의 변화. 변화된 만물.

815) 본고적하(本高迹下) : 천태종(天台宗)에서 본적이문(本迹二門)의 고하(高下)를 논(論)하는데 사구(四句)를 세웠다. ①본고적하(本高迹下). ②본하적고(本下迹高). ③본적구고(本迹俱高). ④본적구하(本迹俱下). 본고적하(本高迹下)는 불(佛)이 보살(菩薩)의 신(身)을 시현(示現)함과 같음. 본하적고(本下迹高)는 보살(菩薩)이 불신(佛身)을 시현(示現)하는 것. 본적구고(本迹俱高)는 불(佛)이 불신(佛身)을 현(現)하는 것. 본적구하(本迹俱下)는 초지(初地)의 보살(菩薩)이 초지(初地)의 상(相)을 현(現)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불(佛)에서 신(身)을 나타내는 것을 본고적하(本高迹下)라 한다. 불(佛)이 신(身)보다 상위(上位)인 것.

816) 팔상성도(八相成道) : 불·보살이 이 세상에 출연하여 중생을 제도하려고 일생동안 나타내어 보이는 8종의 상. 여러 학설이 있다 (1)강도솔상(降兜率相)·탁태상(托胎相)·출생상(出生相)·출가상(出家相)·항마상(降魔相)·성도상(成道相)·전법륜상(轉法輪相)·입열반상(入涅槃相). (2)강도솔상·입태상(入胎相)·주태상(住胎相)·출태상(出胎相)·출가상·성도상·전법륜상·입열반상 (3)수태상

을 보이는 것示과 같음如은 본하적고本下迹高이며, 부처님佛이 법신法身에서 화신化身을 드리우고垂 관음보살觀音菩薩이 33신身[817]을 나타냄現과 같음如이 본고적하本高迹下일새, 이를 일반적으로通途하고 『법화경法華經』을 해석釋함에 본지문本地門과 수적문垂迹門의 두문二門으로써 크게 나누니大判, 한 경전一經(법화경) 28품品가운데 앞 14품品은 적문迹門의 서序(서론)·정正(본론)·유통流通(결론)의 셋 으로 나누고 뒤後 14품品은 본문本門의 셋으로 나눈 바,

적문迹門의 법화法華는 석가여래釋迦如來께서 성도成道 후後 법화모임 자리法華會座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餘年間에 있어 모든 경전의 설법說法에 취就하여 「삼승법三乘法은 방편方便이오 일승법一乘法은 진실眞實이라」 말하여 말한 바의 교리상教理上에 방편을 펴서 진실을 드러냄開權顯實[818]이요,

본문本門의 법화法華는 석가釋迦의 몸身을 취就하여 왕궁王宮에 태어나시고 가야伽倻에서 성도成道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이 몸此身은 나我의 진실한 몸實身이 아니라, 나我는 구원실성久遠實

( )·강생상(降生相)·처궁상(處宮相)·출가상·성불상·항마상·설법상·열반상 (4)재천상(在天相)·처태상(處胎相)·초생상(初生相)·출가상·좌도량상(坐道場相)·성도상·전법륜상·입열반상. (5)생천상(生天相)·처도솔천상·하천탁태상(下天托胎相)·출태상·출가상·항마상·전법륜상·입열반상. (6)주태상·영해상(嬰孩相)·애욕상(愛慾相)·낙고행상(樂苦行相)·성도상·전법륜상·입멸상(入滅相).

817) 삼십삼신(三十三身) : 관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33종류의 화신(化身). (1)불신(佛身)·(2)벽지불신(僻支佛身)·(3)성문신(聲聞身)·(4)대범왕신(大梵王身)·(5)제석신(帝釋身)·(6)자재천신(自在天身)·(7)대자재천신(大自在天身)·(8)천대장군신(天大將軍身)·(9)비사문신(毘沙門身)·(10)소왕신(小王身)·(11)장자신(長者身)·(12)거사신(居士身)·(13)재관신(宰官身)·(14)바라문신(婆羅門身)·(16)비구신(比丘身)·(16)비구니신(比丘尼身)·(17)우바새신(優婆塞身)·(18)우바이신(優婆夷身)·(19)인신(人身)·(20)비인신(非人身)·(21)부녀신(婦女身)·(22)동목천녀신(童目天女身)·(23)동남신(童男身)·(24)동녀신(童女身)·(25)천신(天身)·(26)용신(龍身)·(27)야차신(夜叉身)·(28)건달바신(乾闥婆身)·(29)아수라신(阿修羅身)·(30)가루라신(迦樓羅身)·(31)긴나라신(緊那羅身)·(32)마후라가신(摩喉羅伽身)·(33)집금강신(執金剛身). 『법화경(法華經)』 <보문품(普門品)>에 설명된 것에 근거함.

818) 개권현실(開權顯實)[개현(開顯)] : 권교(權教)의 방편(方便)을 펴서 진실(眞實)한 교리를 나타내 보이는 것. 부처님 일대(一代) 50년 동안 『법화경(法華經)』을 설(說)할 때까지의 40여 년 동안은 방편교(方便教)를 진실한 듯이 말하고, 방편(方便)을 방편(方便)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나 『법화경(法華經)』을 설하면서 삼승교(三乘教)는 방편(方便), 일승교(一乘教)는 진실이라 하여 방편(方便)을 펴서 진실(眞實)을 나타내는 것과 같음.

成819)의 법신法身으로서 중생衆生을 제도濟度하기 위爲하여 잠시一時 구제의 모습을 나타내고垂迹 가야성도伽倻成道한 응신應身 을 나타現내었을 뿐이라 하시며, 자기自己의 신상身上에 있어 나타난 모습을 펴서 근본을 드러냄이라開迹顯本820) 하신지라, 이와 같이 보건대以此見之 법화法華 이전已前부터 법화상法華上 방편權을 펴서 진실을 드러내는開權顯實821) 설법說法에 이르기까지 모두悉皆 수적신垂迹身의 수적설垂迹說이시요 후반後半이 본문本門822) 법화法華일새,

이 본적本迹823)(本地와 垂迹)의 뜻義은 부처님 몸 위佛身上의 진眞(부처님의 진실한 몸)·응應(중생에 응하는 몸) 두 몸二身 곧 법法·응應.(법신이 살며시 중생의 근기機에 따르는 것을 말함) 두 몸二身의 관계關係로서, 법화法華 이전已前에도 모든 대승경전大乘經에 이 뜻義이 널

819) (久遠實成)[구원고성(久遠古成)][구원성(久遠成)][구성(久成)] : 또는 구원고성(久遠古成)·구원성(久遠成)·구성(久成). 아득한 옛적에 깨달은 부처님이란 뜻. 석존(釋尊)이 보리수(菩提樹) 아래서 정각(正覺)을 이룬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方便)이고, 실(實)은 이미 아득한 옛적에 깨달은 부처님이라 말함과 같은 것. 또 아미타불(阿彌陀佛)은 10겁전(劫前)에 정각(正覺)을 이루었지만, 실은 그보다 먼 옛적에 성불(成佛)한 것을 구원실성(久遠實成)이라 함.

820) 개적현본(開迹顯本)[개삼현일(開三顯一)][개현(開顯)] : 또는 개근현원(開近顯遠). 『법화경(法華經)』의 앞 14품(品)에서는 석존(釋尊)이 옛적에 성불(成佛)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모두 석존(釋尊)은 가야성(伽倻城)에서 처음으로 성도(成道)한 부처님으로 믿고 있다. 뒤의 14품(品)에서 석존(釋尊)은 무량겁전(無量劫前)에 이미 성불(成佛)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가야(伽倻)에서 처음 성불(成佛)하였다고 믿던 중생의 무지(無知)한 소견을 없애주었다. 이같이 가야(伽倻)에서 성불(成佛)하였다는 무지한 소견을 제쳐놓고, 옛적에 성불(成佛)한 부처님을 나타낸 것을 이같이 이름.

821) 개권현실(開權顯實)[개삼현일(開三顯一)][개현(開顯)][개적현본(開迹顯本)] : 삼승(三乘)이 [權 : 가(假)]의 가르침이고, 일승(一乘)이 진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밝힌 것. 개(開)는 밝힌다는 의미. 삼승(三乘)은 모두 성동(性同, 본성이 같음)이라 함. 개삼현일(開三顯一)이라고도 함. 『법화경(法華經)』의 취의(趣意)를 지의(智)가 설한 말로, 개현(開顯)이라 약칭 함. 방편(方便)의 가르침이 막힌 것을 타개하고, 그 위에 진실의 이치를 나타낸다고 하는 뜻으로, 삼승 각기의 다른 실천의 도(道)를 닦고 있는 사람들이 『법화경(法華經)』의 위대한 정신을 아는 것에 의해 종래의 도(道) 그대로가 유일의 대승(大乘)이라고 체득(體得)시키는 것. 그 위에 역사상의 석존(釋尊)에 영구한 부처님의 의의(意義)를 발견하는 것을 말함. 개적현본(開迹顯本)이라고도 칭함.

822) 본문(本門) : 적문(迹門)의 대(對). 『법화경(法華經)』 28품(品)가운데 불신(佛身)의 본지(本地)와 본지법신(本地法身)의 덕(德)을 밝힌 후의 14품을 이름. 본지(本地). 본불(本佛)을 나타내 보이는 방편이라는 뜻.

823) 본적(本迹) : 본지(本地)와 수적(垂迹). 본지는 불·보살의 진실신(眞實身), 수적은 중생구제를 위해 불·보살이 잠정적으로 신명(神明)의 모습을 취해 나타나는 것.

리 퍼져瀰滿있으나 다만 대승보살大乘菩薩에 한정限하여 말할對說 뿐이요, 아직 이승二乘 범부凡夫에 대對한 설명說明은 아니하였으나, 이승二乘・범부凡夫에 대對해서도 말씀하여開說 증명證明하심은 본문법화本門法華의 말씀한 바所說 뿐이니라.

보살菩薩이 수기授記하여 성불한다는 것은作佛 이전已前의 모든 경전經에도 적지 않으나, 성문聲聞의 수기授記는 적문법화迹門法華[824]가 근본根本이 될지나, 삼매三昧 경계境界가 다소多少 차이差異가 있을 뿐이요, 모든 경전經이 같은 말씀이니라.

그러나 일상一相 일행一行인 일설一說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이란 불가사의不可思議로서 무량無量의 설법說法을 필요要하나 인과因果 자타自他(自行化他)를 총론總論함에 본本・적迹의 두 종二種이 있어서 각각 그 열 가지十 불가사의 不可思議 곧 십묘十妙[825]를 갖추니具라.

---

824) (迹門) : (1)본적이문(本迹二門)의 하나. 불(佛)의 응적[應迹, 적(迹)을 보여주는 것]. 구제활동(救濟活動)을 나타내는 방면(方面)이란 뜻. 이 세상(世上)에 모습을 나타낸 불(佛)은 근원적(根源的)인 불(佛)이 중생(衆生)을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본지(本地)로부터 적(迹)을 나타낸 것이라 하여 영원한 불(佛)의 응적(應迹)을 나타낸 방면(方面)을 이렇게 말한다. 본문(本門)의 대(對). [『본존초(本尊抄)』]. (2)『법화경(法華經)』 28품(品)가운데서 앞의 14품(品)을 말함. 원융삼제(圓融三諦)의 이치를 밝혔다 함. 이것은 구원겁전(久遠劫前)의 본불(本佛)에 대하여 이 세계(世界)에 탄생한 적불(迹佛)의 법문(法門)을 적문(迹門)이라 함.

825) 십묘(十妙)[본문십묘(本門十妙)][적문십묘(迹門十妙)] : 10가지의 불가사의한 것. 지의(智)가 『현의(法華玄義)』에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묘(妙)란 글자를 해석하여 설명한 것. 묘(妙)자를 해석할 적에 적문(迹門)의 10묘(妙)와 본문(本門)의 10묘(妙)를 말한 것. ⑴적문의 10묘는 「법화경」의 앞의 14품에 나타난 석존에 나아가 그 성도(成道)의 인과(因果)・ 자행화타(自行化他)에 대하여 10묘를 세운 것. 경묘(境妙)・지묘(智妙)・행묘(行妙)・위묘(位妙)・법묘(法妙)・감응묘(感應妙)・신통묘(神通妙)・설법묘(說法妙)・권속묘(眷屬妙)・이익묘(利益妙). ⑵본문(本門)의 10묘는 『법화경(法華經)』의 뒷 14품의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불(佛)에 나아가 자행(自行)의 인과(因果). 화타(化他)의 능화(能化). 소화(所化)에 대하여 묘부사의(妙不思議)를 말한 것. 본인묘(本因妙)・본과묘(本果妙)・본국토묘(本國土妙)・본열반묘(本涅槃妙)・본수명묘(本壽命妙)・본감응묘(本感應妙)・본신통묘(本神通妙)・본설법묘(本說法妙)・본권속묘(本眷屬妙)・본이익묘(本利益妙).

제1절　적문십묘迹門十妙

1에 경묘境妙[826]란 곧卽 이경理境(이치를 분별함)으로서 십여시十如等의 경계境[827]이니, 마음心과 부처佛와 중생衆生 이 세 가지는 차별差別이 없음을 가히 헤아릴 수 없음이라不可思議. 경전經에 「오직唯 부처님佛與과 부처님佛乃만이 모든 존재諸法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을 능히能 철저히 다함이라窮盡」 하시는 동시同時에 「이른바所謂 모든 존재諸法가 이와 같은 형상,如是相[828] 이와 같은 본성如是性[829] 등等이라」 이르심이 이것이라, 이에 여섯 경계六境가 또한 있으니 1에 십여十如(十如是)의 경계境, 2에 십이인연十二因緣의 경계境, 3에 사제四諦의 경계境, 4에 이제二諦[830]의 경계境 5에 삼제三諦[831]의 경계境, 6에 일제一諦[832]의 경계境이요,

---

826) (境妙) : 적문십묘(迹門十妙)의 지혜에 따라 관조하는 10묘(妙)・4제(諦)・3제(諦)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함. 이 대상은 실상(實相)이며 사려의 범위를 넘게 되므로 묘(妙)라 함.

827) 경(境) : 경계라고도 한다. (1)대상. 외계의 존재. 현상. 물(物). 사물. 외계의 사물. 감관(感官)과 마음에 의해 지각되고 사려되는 대상. 일반적으로는 귀・눈・코・혀・몸・의(意)의 6기관이 감각작용을 일으키는 대상 즉 6경(境)을 말함. 이들은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진(塵)이라 함. (2)뛰어난 지혜의 대상으로서 불법의 이치를 분별하는 것. 천태교의에서는 관불사의경(觀不思議境)으로서 실상의 이치를 관(觀)하는 것. (3)마음의 상태. 경지.

828) 여시상(如是相) :『법화경(法華經)』에서 설(說)한 십여시(十如是)의 하나. 상(相)은 상모(相貌). 아래로 지옥계(地獄界)로부터 위로 불계(佛界)에 이르기까지 여법(如法)히 갖가지 차별(差別)의 상모(相貌)를 밖으로 나타내는 것.

829) 여시성(如是性) :『법화경(法華經)』에서 설(說)한 십여시(十如是)의 하나. 성(性)은 성분(性分)으로서 내적(內的)으로 변이(變易)하지 않는 것. 아래로 지옥계(地獄界)로부터 위로 불계(佛界)에 이르기까지 여법(如法)히 각각 십계(十界)의 성(性)을 갖추어 시종변개(始終變改)하지 않는 것.

830) 이제(二諦) : ①속제(俗諦). 미정(迷情)으로 세간(世間)의 일을 보는 것. 이는 범속(凡俗)의 미정(迷情)에 순(順)하는 법(法)이므로 속(俗)이라 함. 그 범속(凡俗)의 도리(道理)로 결정(決定)하여 변동(變動)하지 않으므로 제(諦)라 함. 또한 이 사상(事相)은 속성(俗性)이 실(實)하므로 제(諦)라 함. ②진제(眞諦). 성지(聖智)로 보는 진실(眞實)한 이성(理性)이다. 이는 허망(虛妄)을 여의었으므로 진(眞)이라 하며 그 이(理)가 결정(決定)되어 변동(變動)이 없으므로 제(諦)라 함. 이 이성(理性)이 성(聖)에 실(實)하므로 제(諦)라 함.

831) 삼제(三諦) : 천태(天台)에서 제리(諦理)로 공제(空諦)・가제(假諦)・중제(中諦)를 말함. 혜문선사(慧文禪師)가 용수보살(龍樹菩薩)의『중관론(中觀論)』을 펴서 읽다가 <관사제품(觀四諦品)>에 이르러 「 인연(因緣)이 생(生)하는 법(法)은 내가 곧 공(空)임을 설(說)하며 이것을 가명(假名)이라 하고 또한 중도(中道)의 뜻이다 」 하는 게(偈)에 홀연(忽然)히 삼귀(三歸)의 묘지(妙旨)를 깨달아서 남악(南岳)의 혜사(慧思)에게 주었고 혜사(慧思)는 천태(天台)의 지의(智)에게 주었으므로 일가(一家)의 관문(觀門)이 이 게(偈) 30자(字)로 구경(究竟)의 감문(勘文)이 되었다.

2에 지묘智妙란 지智는 곧卽 경계境를 온전히 다 알아全知 일어나는起 지혜智로서 경계가 묘함境妙일새, 지혜 또한 따라서智亦隨, 함과 덮개가 서로 맞듯이函蓋相應 가히 생각 할 수 없으니不可思議, 경전經에「내가 얻은 바 지혜我所得智慧가 미묘하여 가장 제일이다微妙最第一」이르심이 이것이라.

3에 행묘行妙란 행行은 곧 닦은 바所修의 행行으로서 뛰어난 지혜妙智의 행行을 인도引導할새, 또한 따르는亦隨 행行은 가히 생각 할 수 없음이니不可思議, 경전經에「이 모든 도를 행하고 나서行此諸道已 도량에서 성과를 얻으리라道場得成果」이르심이 이것이라.

4에 위묘位妙란 위位는 곧 모든 수행諸行을 편력所歷한 수행단계 순서位次라, 십주十住에서乃至 십지十地까지 이是 행묘行妙[833]로써 일새, 깨달은 바所證의 위차位 역시亦 따르는隨 위차位는 가히 헤아릴 수 없음不可思議 이니 경전經에「이 실승을 타고 乘是實乘 사방에서 노닌다遊於四方.」이르심이 이것이요,

5에 삼법묘三法妙란 삼법三法은 곧 진성眞性・관조觀照・자성資成[834]의 세 가지 진리三法로서, 진성眞性은 바로是 이理(보편적 진리)

832) (一諦) : 이제(二諦)와 삼제(三諦)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구경(究竟)된 둘이 없는 실의(實義)를 말하며 일실제(一實諦)와 같다 함.『열반경(涅槃經)』13에「문수(文殊)가 불(佛)께 아뢰기를 "제일의중(第一義中)에 세제(世諦)가 있습니까 세제(世諦) 가운데 제일의(第一義)가 있습니까? 만일 있다고 한다면 곧 이 일제(一諦)이며 만약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여래(如來)는 허망설(虛妄說)이 아닙니까" 불(佛)께서 답(答)하기를 "세제(世諦)는 곧 제일의제(第一義諦)이다. 선방편(善方便)이 되기 때문에 중생(衆生)에게 수순(隨順)하여 이제(二諦)가 있다고 설(說)한다"」하였음.

833) 행묘(行妙) : 천태종에서 말하는 적문십묘(迹門十妙)의 하나. 지묘(智妙)와 경묘(境妙)에 의해 행하는 수행. 지(智)는 모두 묘(妙)에 있으며, 수행 또한 묘(妙)에 있기 때문이라 함.

834) 삼궤(三軌) : 천태종에서『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경전 제목[經題]의 묘(妙)를 해석함에 있어 십묘(十妙)를 말하는 가운데 삼법묘(三法妙)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3가지 궤범(軌範)의

요 관조觀照는 바로是 지혜慧며 자성資成은 바로是 선정定이니, 이 세 가지 진리三法는 부처님佛의 깨달은 바所證라 묘妙는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요不可思議,

6에 감응묘感應妙란 감感은 중생衆生이요, 응應은 부처님佛이라. 중생衆生이 능能히 원교의 근기圓機로써 부처님佛을 감응感하고 부처님佛은 곧 묘응妙應[835]으로써 응답應할새, 물水이 상승上昇하지 않고 달月이 하강下降하지 못하지만 그대로 한 개의 달一月이 많은 물衆水에 두루 나타나는普現 것과 같아如 묘妙는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不可思議 경전經에 「일체중생一切衆生이 모두 다 내 아들이라皆是吾子」 이르는 것이 이것이다.

7에 신통묘神通妙란 여래如來가 도모하지는 않지만無謨 응답應하는 이것이 선권善權[836]인 방편方便인지라, 기의機宜[837]에 알맞게稱適 모습을 바꾸어 나타냄變現이 자재自在하니 이것의 묘妙함이 가히 헤아릴 수 없음이라不可思議, 경전經에 「지금 불세존佛世尊께서 삼매三昧에 들어가자 가히 헤아릴 수 없는不可思議 희유한 일을 나타내신다現希有事」 하심이 이것이요,

8에 설법묘說法妙란 대大・소승小乘・편偏(偏教[838])・원圓(圓教)의 법法(진리)을 말씀說하셔 모두 다咸皆 중생衆生으로 하여금 부처님

뜻. ①진성궤(眞性軌) : 거짓이 아닌 불변의 진리성. ②관조궤(觀照軌) : 미정(迷情)을 깨트리고 진리를 나타내는 지혜의 작용 ③자성궤(資成軌) : 관조의 지용(智用, 지혜의 작용)을 자성하는 만행을 말한다. [법화현의(法華玄義)』5].

835) (妙應) : 보살에 대하여는 노사나불(盧舍那佛)의 신(身)으로 나타나고, 성문(聲聞)에 대하여서는 장육(丈六)의 신(身)으로 나타나는 것. 응(應)은 나타난다는 뜻.

836) 선권(善權)[선교방편(善巧方便)] : 부처님이 상대에게 응하여 방편을 궁리하는 것. 교묘한 수단. 선교방편(善巧方便)

837) 기의(機宜) : 중생. 각종의 기근(機根)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838) 편교(偏教) : 한쪽으로 기운 가르침. 소승. 혹은 대승종의 권교(權教)를 말 함.

佛의 지견知見[839]에 깨달아 들어가게悟入 하심이 묘妙를 가히 헤아릴 수 없음이라不可思議, 경전經에 「여래如來께서 갖가지種種 분별分別로 교묘하게巧 능히能 모든 존재諸法를 말씀說하셔서 언사言辭가 유연柔軟하며 가히可 중생의 마음衆心을 기쁘게悅 한다」 하심이 이것이요,

9에 권속묘眷屬妙란 부처님佛이 세상에 출연出世함에 따라 시방十方의 모든 큰諸大 보살菩薩님이 모두 오시어皆來 찬탄하고 보좌贊輔함이라, 혹或은 신통神通으로써 오시어 태어나시고來生 혹或은 숙원宿願[840]으로써 오시어 태어나시고來生 혹或은 응현應現[841]으로써 오시어서 태어나시고來生 하여 모두 권속眷屬이라 이름하니 묘妙는 가히 헤아릴 수 없음不可思議이요,

10에 이익묘利益妙란 부처님佛이 법法(진리)을 말씀說하셔서 일체중생一切衆生으로 하여금 모두 본래의 성품本性을 깨닫게開悟하고 부처님佛의 지견知見[842]에 들어가게 하심이, 비가 올 때 흡족하게 뿌리어普洽 대지大地가 이익利益을 입은蒙 것과 같으니 이것의 묘妙는 가히 헤아릴 수 없음不可思議이라.

---

839) (智見)[정지견(正智見)][지견(知見)] : 정지견(正智見), 또는 지견(知見)이라고도 함. 의식(意識)에 따르는 것을 지(智)라 하고 안식(眼識)에 따르거나 추구(推求)하는 것을 견(見)이라 하는데 모두 혜(慧)의 작용(作用)이다. 즉 인과(因果)의 이법(理法)에 대한 바른 인식(認識)을 말함. 『법화경(法華經)』 <방편품(方便品)>에 「불(佛)의 지견(知見)을 연다」 하였음.

840) 숙원(宿願) : 과거 세상으로부터의 염원. 아주 오래 전부터의 서원.

841) 응현(應現) : 불·보살이 중생의 소질에 따라 몸을 나타내는 것.

842) 지견(知見) : 지혜(智慧)에 의해서 보는 것.

제2절 경境

『금광명경金光明經』[843]에 「오직唯 여여如如와 여여지如如智[844]가 있어有 이것을 법신法身이라 이름 한다」 하심의 여여如如란 이理요 곧 경계境라 그리하여 여여如如의 이법신理法身[845]이 태장계胎藏界의 대일여래大日如來[846]요 여여如如의 지법신智法身[847]이 금강계金剛界[848]의 대일여래大日如來라.

그리고 지말무명枝末無明인 색色(물질)·성聲(소리)·향香(냄새)·미味(맛)·촉觸(감촉)·법法(진리)의 육경六境(육근의 여섯 종류의 대상)과 근본무명根本無明인 안眼(눈)·이耳(귀)·비鼻(코)·설舌(혀)·신身(몸)·

---

843) 『 (金剛明經)』: 이에 삼역(三譯)이 있으니 (1)북량(北涼)의 담무식(曇無讖)이 번역한 『금강명경(金剛明經)』(4권). (2)수(隋) 보귀(寶貴) 등이 전역(前譯)을 취하여 그 결품(缺品) 8권(卷)을 합입(合入)한 『합부금광명경(合部金光經)』. (3)당(唐) 의정(義淨)이 번역한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10권). 이다. 삼역(三譯) 가운데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10권)의 문의(文義)가 주밀(周密)하고 풍족(豊足)함. 『금강명경(金剛明經)』은 천태지자(天台智者)가 현의(玄義)와 문구(文句)를 설(說)한 후에 세상에 널리 유통(流通)함.

844) 여여지(如如智) : 여여(如如)한 이체(理體)에 매인 지(智)를 여여지(如如智)라 말하는 것. 『불성론(佛性論)』 2에 「여(如)라 말하는 것에 두 가지의 뜻이 있다. ①여여지(如如智)며 ②여여경(如如境)이다. 중략(中略) 이 여여지(如如智)로 여여경(如如境)을 일컫기 때문이다」 하였음.

845) 이법신(理法身) : 추상적인 진리신(眞理身, 부처님의 진정한 신체).진여의 이(理)를 법신이라 이름지은 것.

846) 태장계대일여래(胎藏界大日如來) : 이는 태장계(胎藏界) 중대(中臺) 팔엽원(八葉院)의 중존(中尊)으로 대자재천광대금광법계궁(大自在天廣大金剛法界宮)에서 본유(本有)한 이덕(理德)을 들어내는 이법신(理法身)이다. 이 또한 보살형(菩薩形)이며 머리에 발계(髮髻)를 쓰고 몸에는 경묘(輕妙)한 옷을 둘렀으며 손에는 법계정인(法界定印)을 맺고 있다. 윗몸이 금색(金色)이며 (혹(或)은 백색(白色)이라 함) 공자(*字)가 종자(種子)가 되고 솔도파(率都婆)가 삼매야형(三昧耶形)이며 밀호(密號)는 편조금강(遍照金剛)이라 함. 『대일경소(大日經疏)』 4에 「보련화대(寶蓮花臺) 보왕궁전(寶王宮殿)을 관(觀)하면 그 가운데 자리를 깔고 좌상(座上)에 백련대(白蓮臺)를 놓았다. 아자문(阿字門)으로 대일여래신(大日如來身)을 전작(轉作)하여 염부단(閻浮檀)의 자마금색(紫摩金色) 보살형(菩薩形)과 같다. 머리에 발계(髮髻)는 관(冠)을 쓴 것과 같으며 전신(全身)에 갖가지 색광(色光)을 방(放)하며 면곡의(綿穀衣)를 입고 있다. 이것은 수타회천(首陀會天)의 최정각(最正覺)을 이루는 표치(標幟) 이다. * 수타회(首陀會)는 번역하여 정거(淨居)라고 함. * 공자는 범어 공자를 말함.

847) 지법신(智法身) : 2법신의 하나. 수행에 의하여 시각(始覺)의 지혜가 끝까지 이르러 본각(本覺)의 이치에 계합하고 이(理)와 지(智)가 서로 융통하여 색과 심이 둘이 아닌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848) 금강계대일여래(金剛界大日如來) :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오대월륜(五大月輪)의 중앙륜(中央輪)에 봉안된 오존(五尊)의 중존(中尊)임.

의意(인식)의 육근六根(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이此 지地(땅)·수水(물)·화火(불)·풍風(바람) 사대四大가 거짓으로 모인假合 색온色蘊(물질 무더기)에 근거根據한 저彼 육식六識(알음알이)인 수受(느낌)·상想(인식)·행行(의지와 구상)·식識(인식능력) 네 가지 무더기四蘊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의 허공 꽃空華인 동시同時에 그대로 여여如如의 경계境요 형상相일새, 그의 본인本因(근본 원인)인 여여如如의 본성과 이치性理를 추구推究하고 또 실지로 수행하여서 깨달아야實證 한다.

생각컨대蓋 여시상如是相(모든 존재의 그대로의 형상)·여시성如是性(모든 존재의 그대로의 성품)·여시체如是體(모든 존재의 그대로의 본체)·여시력如是力(모든 존재의 그대로의 능력)·여시작如是作(모든 존재의 그대로의 작용)·여시인如是因(모든 존재의 그대로의 원인)·여시연如是緣(모든 존재의 그대로의 인연)·여시과如是果(모든 존재의 그대로의 결과)·여시보如是報(모든 존재의 그대로의 과보)·본말구경本末究竟(그대로의 종합(본체와 현상)이 구경으로 평등하다) 등等 모두 『법화경法華經』에서 말씀하신 십여十如[849](十如是)의 경계境는 실지로 수행하여 깨달은實證 후後 깨달음悟의 경계境요,

무명無明(무지)·행行(행함)·식識(인식)·명색名色(마음과 물질)·육처六處(육근형성)·촉觸(감촉)·수受(느낌)·애愛(애착)·취取(취함)·유有(있

849) (十如是)[십여(十如)] : 약(略)하여 십여(十如)라고 함. 『법화경(法華經)』 <방편품(方便品)>의 "제법(諸法) 여시상(如是相) 여시성(如是性) 내지(乃至) 구경(究竟)" 등에 근거하여 상(相)·성(性)·체(體)·력(力)·작(作)·인(因)·연(緣)·과(果)·보(報)·본래구경(本來究竟) 등 10종(種) 여시(如是)를 세우고, 온갖 법(法)도 모두 이 십여시(十如是)를 갖추었다 함. ①상(相) : 외적(外的)으로 볼 수 있는 모양. ②성(性) : 내적(內的)으로 변이(變易)하지 않는 성분(性分). ③체(體) : 상(相)·성(性)등이 서로 의지(依支)하는 주질물(主質物). ④력(力) : 체(體)에 갖추어 있는 힘. ⑤작(作) : 운동조작(運動造作). ⑥인(因) : 습인(習因)으로 직접원인(直接原因). ⑦연(緣) : 조인(助因)으로 인(因)을 도와서 과(果)를 부르는 간접원인(間接原因). ⑧과(果) : 직접원인(直接原因)에 의하여 생긴 결과(結果). ⑨보(報) : 보과(報果)로 연(緣)으로 생긴 결과(結果). ⑩본래구경(本來究竟) : 처음 상(相)으로부터 나중의 보(報)까지의 전부(全部)가 삼제(三諦)의 묘한 이치(理致)를 포함(包含)하여 구경(究竟)까지 평등(平等)함을 말하여 십연생구(十緣生句)를 관(觀)함. →십여(十如).

음)・생生(삶)・노사老死(늙음과 죽음) 등等 12인연지因緣支란 중생衆生의 삼세三世에 걸친涉 육도윤회六途輪廻의 연기순서次第緣起인 바 이를 관찰觀察하여 열반에 들기를入涅槃 구求하는 연각緣覺의 경계境요,

중생衆生의 생生(태어남)・로老(늙음)・병病(병듦)・사死(죽음) 네 가지 고통四苦을 주主로 한 모든 고통의 결과苦果의 집인集因(모인 원인)을 끊고斷 도를 닦아修道 열반을 증득證滅하는 고苦(괴로움에 대한 진리)・집集(괴로움이 일어남에 대한 진리)・멸滅(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도道(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닦음의 진리) 사제四諦란 이 관법觀法을 수행하여修 제법공諸法空[850]을 깨닫는證 성문聲聞의 경계境요,

색법色法이 공空일새 심법心法도 거짓假이라. 환상幻相・가명假名을 여읜離 모든 존재諸法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의 중도中道에 안주安住함은 공空・가假・중中 삼제三諦[851]의 경계境요,

중생衆生의 업력業力으로 공空에 의지依하여 있다有 라고 집착執着하는 속제俗諦를 이탈離脫하고 중도中道 실상實相의 진제眞諦(열반의 경지)에 착안着眼(성취할 기틀을 잡음)함은 진眞・속俗 이제二諦의 경계境요, 일제一諦의 경계境란 진제眞諦의 하나의 대상一境으로서,

---

850) 제법공(諸法空) :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851) (三諦) : 공(空)・가(假)・중(中)이라는 3가지 진리. 제(諦)는 진리라는 뜻. 진리의 3가지 모양. 이론적 해설로써는 제법(諸法 : 여러 가지 사물)은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그 자신의 자성(自性:그 자체)이 없기 때문에 공(空)인 공제(空諦). 이것은 확실한 진리이지만 우리들은 공(空)이라는 특수한 원리를 생각해서는 안 됨. 공이라는 것은 가명(假名 : 임시로 세워져 붙인 이름)이다. 공을 실체시해서는 안 된다(假諦). 그러므로 공은 다시 부정되어야 함(空亦復空). 공(空)을 공(空)으로 한 경지에 중도(中道)가 나타남. 인연소생(因緣所生)의 제법(諸法)을 공(空)이라 하므로 비유(非有)이고 또 비유(非有 : 空)를 공(空)이라 하므로 비공(非空)이고 이렇게 비유비공(非有非空)의 중도(中道)가 성립함(中諦). 즉 중도(中道)는 이중(二重)의 부정을 의미함. 천태종의 교설.

이상以上 다섯 가지 경계五境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을 목적目的한 미혹迷의 경계境이니라. * 오경五境 : 앞서 말한 5가지 경계.

그러나 미혹迷과 깨달음悟의 차이差가 있을有 뿐이요 경계境가 다른 것이異 아닐새, 경계境의 여여의 이치如如理를 증득證하고 깨달음悟의 여여의 지혜如如智가 생기生면 본적本迹 전체의 묘全妙를 파악把握할지니라.

제3절 본문십묘 本門十妙[852]

1에 본인本因(근본 원인)이란 본초本初(근본 처음)에 보리심菩提心을 내어發 보살도菩薩道를 수행한所修 원인因이요 또 본래 갖추어져 있는本具 원인因으로서 경전經에 「내가 본래 보살도를 수행할 때我本行菩薩道時에 성취한 수명所成壽命은 아직도 다 하지 못한 것今猶不盡이라」 하심이 이것이요,

2에 본과本果란 본초에 행한本初所行 원묘圓妙[853]의 원인因 그대로 계득契得(뜻이 통하여)하여 상常・락樂・아我・정淨[854]을 구경究竟(깨달은 경지에 이르다)할새니 참으로乃是 본래 갖춘本具 결과果로서 경전經에 「내가 성불하여 온지는我成佛已來 심히 먼 옛날甚大久遠이라」 하심이 이것이요,

---

852) (本門十妙) : 천태(天台)의 지의 (智)가 지은『법화현의(法華玄義)』에서『법화경(法華經)』의 제목 가운데 묘자(妙字)를 해석하면서 본문(本門)과 적문(迹門)에 각각 10종(種)의 묘(妙)를 세웠다.

853) 원묘(圓妙) : 천태종에서 원교의 원자를 해석하여 원묘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공(空)・가(假)・중(中)의 3체가 원융하여 불가사의한 것을 원묘(圓妙)라고 한다. 묘(妙)자는 불가사의 의 뜻.

854) 상락아정(常樂我淨) : 열반(涅槃)의 공덕(功德)을 말함. ①상(常) : 열반(涅槃)의 경지(境地)는 생멸변천(生滅變遷)함이 없는 덕(德). ②락(樂) : 생사(生死)의 고통(苦痛)을 여의어 무위안락(無爲安樂)한 덕(德). ③아(我) : 망집(妄執)의 아(我)를 여의고 팔대자재(八大自在)가 있는 진아(眞我) ④정(淨) : 번뇌(煩惱)의 더러움을 여의어 담연청정(湛然淸淨)한 덕(德)을 말함.

3에 국토國土란 사바세계娑婆가 곧卽 적광토寂光土라, 본인本因 본과本果를 본래 갖춘本具 적광토寂光土일새, 경전經에 「옛날부터自從時來 나는 이此 사바세계娑婆世界에 항상 머물면서常在 설법說法과 교화敎化를 하였다」 하심이 이것이요,

4에 감응感應[855]이란 능감能感(능히 느낄 수 있다는 뜻)·소응所應(중생을 향해 응해주는 바)의 고요한 본체寂體와 비추는 작용照用이 본래 갖추어져 있어本具 거울이 물건 대하는 것과 같음如鏡對物일새, 경전經에 「만약 중생若有衆生이 내가 있는 곳에 이르면來至我所 내가 부처의 눈으로써我以佛眼 그 믿음과其信等 모든 근기諸根의 뛰어남과 둔함利鈍을 꿰뚫어 봄觀이라」 하심이 이것이요,

5에 신통神通이란 이미 모든 근기諸根를 관찰觀察할새 본래 갖춘本具 자비慈悲 그대로 제도할 수 있는可度 중생衆生에게 통通하여, 그로 하여금 신비神秘의 경계境에 들어가게入 하실 새, 경전經에 「여래如來의 비밀秘密 신통력神通力이라」 하심과 「기신己身(부처님의 몸)과 타신他身[856](중생의 몸)을 나타내며示 부처의 몸으로 불사己事를 짓기도 하고 중생의 몸으로 불사를 짓기도他事」 하심이 이것이요,

6에 설법說法이란 부처님佛은 도량道場에 항상 머무르시고常住 항상常 법륜을 굴리실轉法輪새 사변四辯(법法·의義·사辭·요설무애변樂說無碍辯)[857]을 본래 갖추어本具 그 근기其機에 응하여 비출照應새, 중생衆

855) 감응(感應) : '느껴 응하다'의 뜻. 감응도교(感應道交). 부처님과 수행자의 마음을 교류하는 것. 중생의 신심(信心)·선근(善根)이 모든 부처님·보살에게 통하여 그 힘을 나타내는 것. 감(感)은 우리들 쪽에서이고 응(應)은 부처님 쪽에서이다. 라고 함. 중생의 신심이 진실하게 느껴져 부처님과 보살이 답하는 것.

856) 타신(他身) : 부처님이 몇 가지 형태를 취하여 나타낸 그 모습.

生이 각각 살아갈 바를 얻음各得其所이라. 경전經에 「이들此等은 나의 교화로我所化令 대도심을 발하여發大道心 지금 다今皆 불퇴不退[858]에 머무느니라住.」 하심이 이것이요,

7에 권속眷屬이란 본지本地는 일체중생一切衆生의 회향처廻向處요 귀의처歸依處일새 구계九界의 중생衆生이 곧 그 아들其子이요 권속眷屬이라, 경전經에 「이 모든此諸 보살菩薩은 하방下方의 공중空中에 머무르며住 이들이此等 나의 아들是我子이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我則其父다」 하심이 이것이요,

8에 열반涅槃이란 물 같은水的 실재의 나實我와 파도 같은波的 응화應化[859]일새, 인연이 있어有緣 이미 제도旣度하여 모두 열반에 들어감을 취함皆取入滅이라, 경전經에 「이제然今 실로 멸도하지 않으나非實滅度, 문득 말씀하시기를而便唱言 마땅히 멸도를 취한當取滅度 것이라」 하심이 이것이요,

9에 수명壽命이란 열반에 들어감入滅에 동반伴한 수명壽命의 길고 짧음長短이나 화불化佛[860] 그대로 본불本佛[861]의 권현權現[862]일

857) (四無礙辨)[사무애지(四無礙智)][사무애해(四無礙解)] : 사무애지(四無礙智)·사무애해(四無礙解)라고도 한다. 마음(心) 방면(方面)으로는 지(智)·해(解)라고 하고, 입(口) 방면(方面)으로는 변(辯)이라고 한다. ①법무애(法無礙)는 온갖 교법(敎法)에 통달(通達)한 것. ②의무애(義無礙)는 온갖 교법(敎法)의 요의(要義)를 아는 것. ③사무애(辭無礙)는 여러 가지 말을 알아 통달(通達)한 것. ④요설무애(樂說無礙)는 온갖 교법(敎法)을 알아서 그 기류(機類)가 듣기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재(自在)한 것.

858) 불퇴(不退) : 불퇴전(不退轉). 불도 수행과정에 있어서 이미 얻은 깨달음이나 공덕 그 지위를 잃지 않는 것. 초기불교에 있어서는 수행계위의 초급인 사선근(四善根)의 인위(忍位)에 이르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지만, 보살의 계위를 설명하는 것처럼 되고 나서 십주(十住)라는 초위(初位)의 제7번째를 불퇴위(不退位)라고 하게 되었음.

859) 응화(應化) :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

860) 화불(化佛) : 불(佛)·보살(菩薩)등의 신통력(神通力)으로 화작(化作)하는 불형(佛形)이다.『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 「무량수불신(無量壽佛身)은 백천만억야마천(百千萬億夜摩天)의 염부단(閻浮壇)의 금색(金色)과 같고 중략(中略) 그 부처님의 원광(圓光)은 백억삼천대천세계(百億三千大千世界)와 같

새, 경전經에 「곳곳處處 에서 설한有說 이름과 글자名字가 같지 않은不同 연기年紀(年代・年號)의 크고 작음大小이라」 하심이 이것이요,

10에 이익利益이란 본원本願이 통응通應하여 인연 있는有緣 권속眷屬을 이롭게饒益할새, 경전經에 「모두 환희歡喜를 얻음이라」 하심이라.

제4절 본적상섭 本迹相攝

적迹 가운데中 원인因을 말하고開(開 : 자세히 기술함) 결과果를 합合하니 곧 습과習果[863]와 보과報果[864]를 합合하여 삼법묘三法妙[865]라 하고, 본本 가운데中에서 원인因을 합合하여 결과果를 말開하니 곧 습과習果를 말開하여 보과報果를 나타내니出 국토묘國土妙가 이것이라, 또 적迹 가운데中엔 경境・지智・행行[866]・위차位를 명시

. 원광중(圓光中)에 백만억나유타(百萬億那由陀) 항하사(恒河沙)의 화불(化佛)과 같다」 한 『법화경(法華經)』 <보문품(普門品)>에 「만약 국토(國土)에 중생(衆生)이 있어 불신(佛身)의 득도(得度)를 응(應)하면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 곧 불신(佛身)을 나타내어 설법(說法)한다」 하였고,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 「마땅히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관(觀)하라. 이 보살(菩薩)은 신장(身長)이 팔십만억나유타유순(八十萬億那由陀由旬)이며, 중략(中略) 그 원광중(圓光中)에 오백화불(五百化佛)이 있어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과 같다 하나, 하나의 화불(化佛)에 오백화보살(五百化菩薩)이 있다」 하였음.

861) 본불(本佛) : 자기심내(自己心內)의 불성(佛性)을 가리켜서 본불(本佛)이라 함.

862) 권현(權現)[권화(權化)] : 권화(權化)와 같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신(神)으로 변현(變現)하는 것.

863) 습과(習果) : 등류과(等流果)의 구역(舊譯). 오과(五果)의 하나. 선악의 인(因)에서 생겨난 같은 종류의 선악의 과(果)를 말함. 등류과와 같음.

864) 보과(報果) : 선이나 악의 업인(業因)에 의지하여 받게 된 무기(無記)의 과(果). 이숙과(異熟果).

865) 삼법묘(三法妙)[삼궤(三軌)][경(境)・지(智)・행(行)] : 『법화현의(法華玄義)』에서 말한 적문십묘(迹門十妙)의 하나. 삼법(三法)은 삼궤(三軌)로 진성궤(眞性軌)・관조궤(觀照軌)・자성궤(資成軌)를 말한다. ①진성궤(眞性軌) : 일체법(一切法)의 체(體). 거짓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는 실성(實性). ②관조궤(觀照軌) : 미(迷)한 정(情)을 없애고 진리(眞理)를 개현(開現)하는 지혜(智慧)의 작용(作用). ③자성궤(資成軌) : 관조(觀照)하는 지혜(智慧)를 돕는 수행(修行). →십지(十地). →경(境)・지(智)・행(行).

明示하였으나 본本 가운데中에는 이를 통通하여 인묘因妙라 하고 과묘果妙는 곧 적迹 가운데中의 삼법묘三法妙며, 감응感應・신통神通・설법說法・권속眷屬의 사묘四妙는 본本・적迹이 서로 같다고相同 하니라.

그리고 본本 가운데中에 열반涅槃・수명壽命의 이묘二妙를 말開함은 석가불釋迦佛이 『법화경法華經』을 강설하는 법회法華會에 계셔서在 입멸入滅(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이루지 못하셨으나未遂 오랜 옛적久遠의 모든 부처님佛이신 가섭迦葉[867]・등명불燈明佛[868] 등等이 이미皆旣 『법화경法華經』을 강설하는 법회法華會에서 입멸入滅을 설파說破하셨을새, 본불本佛도 필시必是 입멸入滅하심을 전제前提로 하여 열어 내놓음開出이요, 적迹 가운데中에 이 뜻義이 없음은 석가불釋迦佛이 비록 입멸入滅을 선언唱言하시고 밀씀하시 바를 이루지 못하셨으나未遂 최후最後의 이익묘利益妙[869]와는 서로彼此

866) 경(境)・지(智)・행(行)[삼법묘(三法妙)][삼궤(三軌)] : 천태종(天台宗)에서 내세운 적문십묘(迹門十妙)가운데 삼법묘(三法妙)를 곧 삼궤(三軌)라 한다. 삼법(三法)이 가히 궤범(軌範)이 되므로 삼궤(三軌)라 한다. ①진성궤(眞性軌) : 허위(虛僞)가 없는 것을 진(眞)이라 하고, 고치지 않는 것이 성(性)이 됨은 진여실상(眞如實相)의 본체(本體)를 가리키는 것. ②관조궤(觀照軌) : 진성(眞性)을 달관(達觀)한 지혜(智慧)를 가리키는 것. ③자성궤(資成軌) : 관조(觀照)의 지(智)를 자조(資助)하여 진성(眞性)을 개발(開發)하도록 하는 만행(萬行)을 가리키는 것. 이 삼궤(三軌)에 차례대로 있는 경묘(境妙)・지묘(智妙)・행묘(行妙) 삼자(三者)를 말함. 이 삼궤(三軌)는 같고 다르지 않으며 종(縱)도 아니고 횡(橫)도 아니며 이자(伊字)의 삼점(三點)과 수라(首羅)의 삼목(三目)과 같으므로 삼법묘(三法妙)라 한다. 이 삼궤(三軌)가 일체(一切)의 삼법(三法)에 유통(類通)하므로 삼궤(三軌)의 법문(法門)이라 함. 『법화현의(法華玄義)』 5에 「삼법(三法)은 곧 삼궤(三軌)이다. 궤(軌)는 궤범(軌範)으로 도리어 삼법(三法)을 가히 궤범(軌範)할 수 있다. 중략(中略) 삼궤(三軌)는 진성궤(眞性軌)・관조궤(觀照軌)・자성궤(資成軌)라 하며 이름은 비록 셋이지만 이는 하나의 대승법(大乘法)이다」 하였고, 또는 「연(緣)에 따라 이름이 다르며 얻는 의의(意義)는 같다. 겨우 십조(十條)에 통(通)한다. 남은 것은 가령(可領)・삼도(三道)・삼식(三識)・삼불성(三佛性)・삼반야(三般若)・삼보리(三菩提)・삼대승(三大乘)・삼신(三身)・삼열반(三涅槃)・삼보(三寶)・삼덕(三德)・제삼법무량(諸三法無量)이며, 바로 10자(者)라 한 것은 그 대요(大要)를 열거(列擧)하여 시종(始終)을 밝힌 것이다」 하였음.

867) 가섭불(迦葉佛) : 현세인(現世人)의 수명이 이만세 대에 출세(出世)하여 정각(正覺)을 이룬 석가불 이전의 부처. 과거 칠불(七佛)의 한 분.)

840) 등명불(燈明佛) : 명등명불(明燈明佛)의 약칭. 과거에 출세(出世)하여 지금의 석가불이 육서상(六瑞相)을 나타냄과 같이 『법화경(法華經)』을 설한 분.

같으니라相同.

제8장 십불이문[870] 十不二門

형계荊溪의 잠연존자湛然尊者[871]가 밝힌所明 『법화현의法華玄義』[872]에서 본적本迹 십묘十妙를 해석釋하여 10가지十種의 불이문不二[873]門을

---

869) 이익묘(利益妙) : 중생이 부처님의 교화(教化) 이익(利益)을 받아 미혹을 깨뜨리고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불가사의 한 것을 말함. 『법화경(法華經)』 적문십묘의 하나.

870) 『 (十不二門)』 : 형계잠연(荊溪湛然)이 『법화현의(法華玄義)』에 나오는 10가지 불이문(不二門)을 해설한 것이다. 『법화현의(法華玄義)』에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묘(妙)를 해석하기 위해 적문(迹門) 10묘와 본문(本門) 10묘를 들었는데, 적문 10묘를 설명한 다음 본문 10묘로 들어가는 과정에 십불이문이 나온다. 색심(色心) 내외(內外)·수성(修性)·인과(因果)·염정(染淨)·의정(依正)·자타(自他)·삼업(三業)·권실(權實)·수윤(受潤)의 10가지를 말한다. 비록 양은 많지 않지만 『법화현의(法華玄義)』의 폭넓음을 알 수 있고, 『마하지관(摩訶止觀)』의 난해한 부문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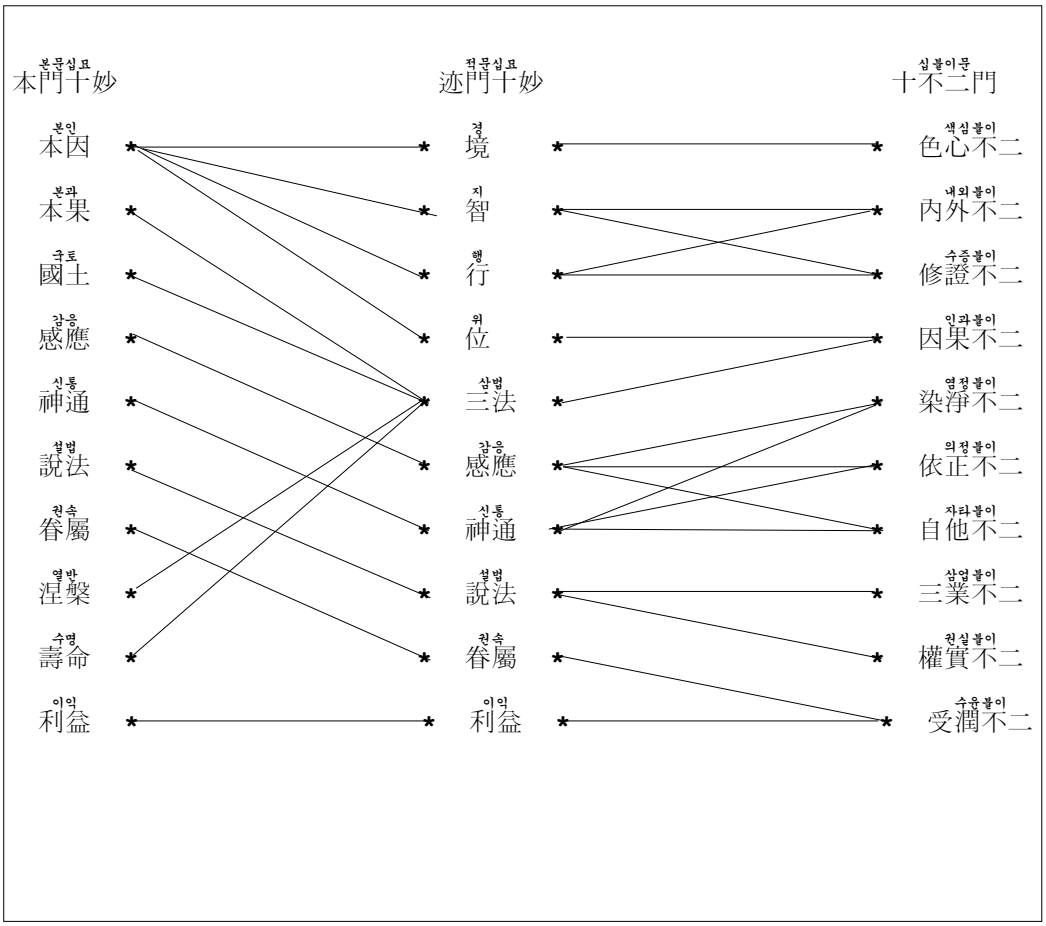
『법화현의(法華玄義)』에서 『십불이문(十不二門)』을 별도로 떼어내서 책으로 만든 이는 지관(止觀)이라는 설도 있고, 담연의 제자인 행만(行滿)이라는 설도 있다. 하지만 담연이 평소 '모두 불이문의 설과 같다'라고 말하는 등 불이문에 관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담연의 저술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본래의 제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책의 이름도 주석자에 따라 다르다. 원청(源淸)은 『법화십묘불이문시주지(法華十妙不二門示珠指)』라는 주석서를 냈고, 종욱(宗昱)은 『법화십묘본적불이문주(法華十妙本迹不二門註)』라는 제목의 주석서를 냈다. 책 제목이 십불이문이라 굳어진 것은 지례(知禮)의 『십불이문지요초(十不二門指要鈔)』라는 주석서가 널리 읽혔기 때문이다.

871) 잠연(潛然) : (711 - 782) 중국 스님. 속성(俗姓)은 척(戚)씨. 상주 형계(荊溪) 사람. 형계(荊溪)에 살았으므로 형계라 부르며 또 상주(湘州) 묘악사(妙樂寺)에 있었으므로 묘악대사(妙樂大師)라고도 한다. 처음 유교(儒敎)를 수교(修敎)했으나 당 개원(唐 開元) 15년(727년) 금화의 방암(方巖)에게 지관(止觀)을 배우고, 20세 좌계현랑(左溪玄朗)에게 교관(敎觀)을 배웠으며 38세에 중이 되다. 의흥 군산향(君山鄕) 정락사(淨樂寺)에 가서 담일(曇一)에게 율장(律藏)을 배우고 현랑(玄朗)이 죽은 뒤에는 교관(敎觀)을 다시 넓히기로 자임(自任). 천태종(天台宗)의 제오세(第五世)로서 종풍(宗風)을 선양(宣揚)하였다. 주역(註譯)을 많이 지어 지자(智者)의 주장을 보충(補充)하기에 노력하였으므로 후세에 그를 기주법사(記主法師)라 했다. 건중(建中) 3년 불롱장(佛隴莊)에서 죽다. 나이 72세.

872) 『법화현의(法華玄義)』[『묘법연화경현의(妙法蓮華經玄義)』]·[『법화경현의(法華經玄義)』]·[『현의(玄義)』]·[『묘법(妙法)』] : 20권(二十卷). 수(隋)나라 지의 (智) 지음. 『묘법연화경현의(妙法蓮華經玄義)』의 약칭(略稱). 『법화경현의(法華經玄義)』·『현의(玄義)』·『묘법(妙法)』 이라 함. 지의(智顗)가 『법화경(法華經)』에 대한 독특(獨特)한 견해(見解)를 피력(披歷)한 것이며, 일대불교(一代佛敎)에 대한 법화(法華)의 위치(位置)와 기견(己見)을 광설(廣說)한 것. 수(隋)나라 개황(開皇) 13년(593) 지의(智顗)의 강설(講說)을 관정(灌頂)이 기록(記錄)한 것. 내용(內容)은 칠번공해(七番共解)와 오중각설(五重各說)의 이종(二種)이 있고, 칠번공해(七番共解)는 석명(釋名)·변체(辨體)·명종(明宗)·논용(論用)·판교(判敎)의 오중(五重)을 표장(標章)·인증(引證)·생기(生起)·개합(開合)·요간(料簡)·관심(觀心)·회의(會意)의 칠번(七番)으로 공해(共解)한 것.

873) 불이(不二) : 다르지 않는 것. 동일. 동체(同體). 현실 세계는 여러 가지 사물이 서로 대립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두 고정되고 독립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은 하나라

세우고立 이를 한 생각一念의 마음心에 귀결歸結하여서 관법觀法의 대강大綱[874]을 보이시고 그 깊은 생각深意을 일으켰으니發 그의 본적本迹 십묘十妙와 십불이문十不二門에서 서로 포함되는 것相攝을 대조對照하여 그림으로 보이면圖示 왼쪽(아래와)과 같음이라.



1에 색심色心이란 색色은 형상이 있는有形질애質碍[875]의 법法으로서 지각知覺[876]의 작용用이 없으나, 마음心은 모양과 그 바탕形質이 없되 지각知覺 연려緣慮[877]의 작용用이 있는 것이요,

---

것.

874) 대강(大綱) : 법문의 대의(大義)를 그물의 벼릿줄에, 상세한 교의(教義)를 그물에 비유한 것.

875) 질애(質碍) : 동일시에 동일 장소를 차지 할 수 없는 것. 하나의 물건이 다른 물건을 방해 하는 것. 물질적인 장벽이 있는 것. 색의 특질.

876) 지각(知覺) : 여지념각(慮知念覺)의 약어 추량사유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분별하는 사고.

877) 연려(緣慮) : 마음으로 생각함. 제6식이 대상을 사려하는 것.

2에 내외內外란 외外는 중생衆生이나 모든 부처님諸佛의 의보依報며 내內는 오직 자기自己의 심법心法이요,

3에 수증修證이란 수修는 닦고 다스리는修治 조작造作의 공功이며 증證은 본래 있어서本有 고치지 못하는不改 체성體性(본성)을 깨달음證이요,

4에 인과因果란 인因은 능생能生(생기는 성질이 있다는 것)의 행行이며 과果는 소생所生(생겨지는 것)의 덕德이요,

5에 염정染淨이란 염染(물듦)은 무명無明의 작용用이며 정淨(깨끗함)은 법성法性(진실한 본성)의 작용用이요

6에 의정依正이란 이보二報의 의정依正(依報와 正報)이니, 의보依報는 중생衆生이 의지所依(근거)하는 국토國土와 생활을 위한 도구資具 등等이며 정보正報는 의지하는 당체能依의 몸身과 마음心이요

7에 자타自他란 삼법三法[878]에 취就하여 말論하건대 타他는 자기自己에 대對한 불법佛法과 중생법衆生法이며 자自는 이법二法[879]에 대對한 심법心法이요

8에 삼업三業이란 신업身業은 몸身의 움직임發動이며 구업口業은 입口의 움직임發動이며 의업意業은 생각意의 움직임發動이요

878) (三法) : (1)부처님 가르침의 3가지 방면. ①교법(敎法) : 석존의 가르침. ②행법(行法) :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행동. ③증법(證法) : 행동에 의해 얻는 깨달음. (2)경(經)·율(律)·논(論)을 말함.

879) 이법(二法) : 대립한 일대(一對)의 개념. 예를 들면 미혹과 깨달음. ①심법(心法)과 색법(色法). ②명법(名法)과 색법. ③염법(染法)과 정법(淨法). ④자득법(自得法, 불타의 증득한 법)과 본주법(本主法, 법계 本然의 법). ⑤승의법(勝義法)과 법상법(法相法). ⑥진법(眞法)과 망법(妄法). ⑦유위법(有爲法)과 무위법(無爲法). ⑧유루법(有漏法)과 무루법(無漏法).

9에 권실權實이란 권權은 9계九界와 7방편七方便[880]의 법法이며 실實은 불계원실佛界圓實[881]의 법法이요

10에 수윤受潤이란 비유譬喩의 이름으로서 수受는 영납領納[882]의 뜻이니 오승五乘[883]의 차별적差別的 능수能受[884]의 근기根機며, 윤潤(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더욱 윤택해진다는沾潤 뜻이니 여래如來께서 말씀하신 능윤能潤(은혜)의 법비法雨[885]라.

이의 10가지 모두十皆 불이不二라 이름함은 법화法華 이전已前은 색色·심心 등等에 대對하신 설법說法이 하나一하나一가 다르다隔異하여 둘二(두 가지 것의 대립)이라 하였으나, 법화法華에 이르러서는 하나一하나一 격이적편권隔異的偏權[886]의 법法 그대로의 모습實相의 이理(이치)를 개현開顯[887]하신지라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

---

880) (七方便) : 성자의 위[見道]에 들기 전의 3현위(三賢位)와 4선근위(四善根位)의 7가지 위(位). (1)소승의 7현위(賢位). 견도(見道)의 성위(聖位)에 들어갈 준비 시기이므로 칠 방편. (2)천태종에서 『법화경(法華經)』 <약초유품(藥草喩品)>에 있는 3초(草) 2목(木)의 뜻으로 말하는 것. 인승(人乘)·천승(天乘)·성문승(聲聞乘)·연각승(緣覺乘)·장교(藏教)·통교(通教)·별교(別教)의 보살승들.

881) 원실(圓實) : 원돈일실(圓頓一實)의 준말. 천태종의 교리를 말함.
*원돈(圓頓) : 원만돈족(圓滿頓足)의 뜻. 천태종의 용어. 모든 사물을 빠진 것 없이 원만하게 갖추고 즉시에 깨닫아 성불한다고 하는 뜻. 천태종에서는 『법화경(法華經)』을 원돈의 가르침이라 함.
*일실(一實) : (1)진여(眞如)를 말한다. 일(一)은 평등의 의미로 이 평등의 실상을 일실(一實)이라 한다. (2)일승의 가르침을 말한다. 단지 일승만이 진실한 까닭에 이와 같이 말한다.

882) 영납(領納) : 쾌감(快感), 불쾌감을 감하는 것. 수(受)의 정의.

883) 오승(五乘) : 사람들을 운반하여 이상의 세계에 도달시키는 5종류의 가르침. 일반적으로 성문 . 연각 . 보살의 3승에 인(人) 천(天)을 첨가시킨 것. 인승(人乘)·천승(天乘)·성문승(聲聞乘)·연각승(緣覺乘)·보살승(菩薩乘)의 5종류를 말함. 앞의 2개와 같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가르침을 세간승(世間乘)이라 하고 성문(聲聞)이하의 3개, 곧 미혹의 세계를 넘어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출세간승(出世間乘)이라고 함.

884) 능수(能受) : 감수(感受)하는 것.

885) 법우(法雨) : 법의 비(雨). 불법을 비에 비유한 것. 비는 중생을 적셔 이익을 주므로 이렇게 부름.

886) 격이적편권(隔異的偏權) : 공(空)이나 유(有)의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진실하지 못한 방편(方便)의 이치(理致)를 말함.

887) 개현(開顯)[개권현실(開權顯實)] : 개권현실(開權顯實)의 약어. 권(權, 방편)을 열어서 실(實,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 『법화경(法華經)』의 주된 뜻이라는 천태종의 해석을 가리킨 말. 석존(釋尊)은 『법화

로의 모습은諸法實相은 한결같이一如 평등平等한 하나의一 법法(진리)으로서 막혀서 통하지 아니한隔然不融 법法(진리)이 없을無새 모두總 불이不二라 이름하니라.

제1절 십무애十無碍

1에 용주무애用周無碍란 부처님佛이 무수한 국토刹塵 등等이 있는 곳處에서 법계신운法界身雲[888]을 나타내어現 끝없는無邊 업용業用[889]을 일으킴起이요,

2에 상변무애相遍無碍란 부처님佛이 시방十方의 일체세계一切世界에 한량없는無量 불국토佛刹에서 가지가지種種로 신통변화神變하여 모든皆是 여래如來가 몸을 받아 다시 태어나受生[890] 나타내 보이는示現 형상相이 있有되 형상相을 나타냄現에 따라隨 많은 형상衆相을 모두 갖출 새皆具 만덕萬德이 원만斯圓함이요,

3에 적용무애寂用[891]無碍란 부처님佛은 삼매三昧에 항상 머물러常住서 적寂(열반)에 방해됨이 없을 새爲寂不妨, 중생에게 이익 되게利物 사용하시니라化用. 곧 선정定과 작용用에 거리낌 없이無碍자재自在함이요,

4에 의기무애依起無碍란 부처님佛은 적용寂用에 무심無心하시되

(法華經)』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나타내고, 40여년의 설법은 이 진실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라 함.

888) 신운(身雲) : (1)무량 무수한 불신이 끝이 없음을 말함. (2)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뒤엎는 것이 구름과 같음을 말함. (3)제존이 많은 것이 구름 같다는 것을 말함.

889) 업용(業用) : 활용(活用)한다는 의미. 본성(本性)에 상대한다.

890) 수생(受生) : 생(生)을 받는다는 뜻. 태어나는 것.

891) 적용(寂用) : 진여(眞如)의 이(理)와 체(體)가 유위(有爲)의 제상(諸相)을 벗어나는 것을 적(寂)이라 하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선(善)이 나타나 작용하기 때문에 용(用)이라 함.

능能히 해인삼매海印三昧[892]의 힘力에 의지依하여 거리낌 없는無碍 작용用을 일으킴起이요,

5에 진응무애眞應無碍란 진眞은 곧 비로자나遮那의 참 몸眞身이오, 응應은 곧 석가釋迦의 응신應身이라. 참 몸眞身은 곧 본체體요 응신應身은 곧 작용用이니 온전한 본체體全가 작용을 일으킴而起用이라 작용用이 곧 본체體일새, 석가釋迦와 비로자나遮那가 원융圓融 자재自在하여 본래本 두 개의 본체二體가 없음無이요,

6에 분원무애分圓無碍란 분分은 곧 지분支分(부분)이오 원圓은 곧 온전한 몸全身이라 부분支分이 온전한 몸全身을 방해하지 아니하고不碍 온전한 몸全身이 부분支分을 방해하지 아니不碍할새, 비로자나遮那의 하나一 하나一의 몸의 부분身分인 손手・발足・눈眼・귀耳 또는 한 터럭一毛이라도 모두 비로자나遮那의 온전한 몸全身이기 때문이요,

7에 인과무애因果無碍란 부처님佛이 옛昔 적에 보살菩薩의 행行을 수행修하실 때 바라밀波羅蜜의 원인因을 수행修하여 바라밀波羅蜜의 결과果를 증득證하신지라, 받은 바所受의 보신報身과 이루어야 할所成 사업事業[893]도 역시亦是 시방十方 일체一切의 보살菩薩 신령身靈을 나타냄現이 자재自在하여 거리낌이 없음無碍이요,

8에 의정무애依正無碍란 의依는 의보依報라 곧 부처님佛이 의지하는所依 국토國土요, 정正은 정보正報니 곧 부처님佛이 스스로 의

892) (海印三昧) : 또는 해인정(海印定)이라고도 함. 부처님이 『화엄경(華嚴經)』을 설할 때에 들었던 삼매(三昧). 일체의 것(과거・현재・미래를 통한)이 마음속에 나타남. 인(印)은 베끼는 것. 대양(大洋)에 모든 사물이 골고루 깊게 배어 나오게 되는 (듯한) 마음의 고요함의 뜻. 화엄(華嚴)사상에서는 모든 것이 이것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고 함.

893) 사업(事業) : 행위, 일, 움직임, 이루어야 할 것.

지하는能依 색신色身일새, 의보와 정보依正가 서로 화합하여相入[894] 두二 지혜智가 거리낌이 없음無碍이요,

9에 잠입무애潛入無碍란 부처님의 지혜佛智가 중생衆生의 마음 안心內에 잠입潛入함이 여래장如來藏이라 중생衆生을 짓되作 자성自性을 잃어버리지 아니함不失이 큰 바다大海의 물水이 바람에 의지하여 파도를 만들되 습성濕性을 잃어버리지 아니함不失과 같음如이요,

10에 원통무애圓通無碍란 부처님佛은 큰 법계大法界를 융통融通하여 그 몸身을 짓作되 이理(보편적 진리)를 갖추지 아니함不具이 없고無 사事(차별적 현상)로 포섭되지 아니함不攝이 없을無새, 하나와 여럿一多, 의依와 정正, 인법人法, 인과因果가 서로彼此에 막힘이 없으니無碍 『화엄연의초華嚴演義秒』[895] 3의 말한 바所說이니라.

제2절 십무진장 十無盡藏[896]

1에 신장信藏이란 보살菩薩의 청정한 믿음淨信이 견고堅固하여 모든 존재는 실체성이 없음諸法空을 깨닫는解 마음心이 물러서지 退轉 않을새, 여래의 집如來家에 태어나生 믿고 이해함信解을 증장增長하는지라, 일체一切의 부처님 법佛法을 듣고 잊지 아니하고聞持 중생衆生을 위爲하여 들은 바所聞를 모두悉皆 믿고 이해信解하기 때문이요,

---

894) (相入) : 화엄교학에 있어서 그럭저럭 사물의 역할이 서로 융합하여 상섭자재(相攝自在)인 것을 등불의 빛이 서로 화합되는 것에 비유하여 말함.

895) 『화엄연의초(華嚴演義鈔)』[『대방광불화엄경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演義鈔)』] : 청량징관(淸凉澄觀)이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20권을 짓고, 다시 『대방광불화엄경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演義鈔)』 40권을 지어 스스로 그 소(疏)를 해석함.

896) 무진장(無盡藏) : 덕이 넓어 끝이 없음.

2에 계장戒藏이란 보살菩薩이 삼세제불三世諸佛의 무진정계無盡淨戒[897]를 받들어 지녀서奉持 원만히 갖추어具足圓滿(계율戒律을) 손상함毁犯이 없는無지라, 중생衆生이 잘못 생각하여顚倒[898] 파계破戒함을 염려念慮하고 보리菩提를 성취成就하여서 진실한眞實 법法을 말說함에 따라 일체一切의 잘못된 생각顚倒을 멀리 여의遠離게 하여 이 청정한 계淨戒를 함께 지키고자同護共持[899] 하기 때문이요,

3에 참장慚藏이란 보살菩薩이 과거過去를 기억하여 잊지 아니할憶念 때, 하늘과慚天 땅이 부끄러운愧地 줄을 알지 못不知하고 모든 권속眷屬에 대對하여 많은 악衆惡을 지은造 바, 지금今에야 모든 부처님諸佛이 알고知 있음을 깨달아覺得 부끄러운 마음慚心이 일어나는生지라 이를 드러내어發露 참회懺悔하고 범행梵行[900]을 수행修行하여 보리菩提를 증득證得하고 중생衆生을 위爲하여 진실眞實한 법法을 말씀說하여 부끄러움慚을 닦게修함이요,

4에 괴장愧藏이란 보살菩薩이 지난 옛날往昔을 스스로 부끄러워自愧하여 오욕五欲[901]을 위爲하여 중생衆生에게 악법惡法을 감행敢行한 더러운垢穢 몸身임을 깨닫는感 동시同時에, 모든 부처님諸佛이 알고知있음을 깨달음覺得에 따라 부끄러운 마음愧心이 일어나는지라,生 이를 드러내어發露 참회懺悔하고 맑고 깨끗한梵行 수행修行을 하여 빠르게速 보리菩提를 증득證得하고 중생衆生에게 진실眞實한 법法을 말씀說하시어 각자各自의 부끄러운 마음愧心이 또한

897) (無盡淨戒) : 다함이 없는 청정한 계.

898) 전도(顚倒) : 거꾸로 생각하여.

899) 동호공지(同護共持) : 보호하고 함께 지내다.

900) 범행(梵行) : 맑고 깨끗한 수행.

901) 오욕(五欲) : 오관(五官)의 탐욕. 오관의 욕망. 오관의 열락(悅樂). 눈・귀・코・혀・몸의 오관에 의한 색・소리・향기・맛・감촉이라는 오종의 감각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망. 총괄하여 세속적인 인간의 욕망.

일어나게亦生 함이요,

5에 문장聞藏이란 보살菩薩이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의 일체 모든 법諸法을 듣고聞 모든 부처님諸佛・보살菩薩・연각緣覺・성문聲聞의 출현出現과 입멸入滅을 모두 다悉皆 능히 아는지能知라, 중생衆生은 많이 듣지多聞 못하여 이 일체법一切法을 알지 못할不知새, 이를 염려念慮하여 마땅히 많이 듣고多聞藏 지니어持 보리菩提를 증득證得함에 중생衆生을 위爲하여 진실眞實한 법法을 말씀說하려하기 때문이요,

6에 시장施藏이란 보살菩薩의 품성稟性이 인자仁慈하여 일체一切 보시布施를 항상 행할常行새, 한 생각一念 뉘우치고 한탄하는 마음悔心恨이 없는지라, 과보果報의 뛰어남과 모자람勝劣을 구하지 아니 하고不求 다만 법계法界 중생衆生을 이익利益케 할 뿐일새요

7에 혜장慧藏이란 보살菩薩이 지혜智慧를 원만히 갖추어具足 세간世間・출세간出世間의 일체一切 모든 존재諸法를 아는知지라, 업보業報에 따라從 지은造 바의 모든 존재諸法는 모두 다悉皆 허위虛僞요 견고堅固하지 않음이라, 중생衆生으로 하여금 그 진실한 본성實性을 알게知 하고자 널리 연설廣爲演說하는 지혜智慧를 함장含藏함일새요,

8에 염장念藏이란 보살菩薩은 어리석음과 미혹함痴惑을 버리고 떠난捨離 청정한 생각淨念을 원만히 갖춘具足지라, 능能히 일생一生 또는乃至 백 천생百千生의 성주괴공成住壞空[902]인 일겁一劫 또는乃至 헤아릴 수 없는 겁無數劫에 있어 일체一切 모든 부처님諸佛이 세

902) (成住壞空) : 순서대로 우주성립・존속・파괴・공무(空無)한 것. 생멸변화(生滅變化)를 말함.

상에 출현出世하심을 기억하여 알고憶知 있으므로 모든 부처님諸佛의 명호名號와 수기授記와 수다라修多羅(경전) 등等의 12부경十二部經[903]을 말씀說하시고 또 모인 대중衆會의 근기와 성품根性을 다悉능能히 기억憶念함일새요,

9에 지장持藏이란 보살菩薩이 큰 위력大威力을 갖추어具 모든 부처님諸佛이 말씀하신 바所說의 수다라법修多羅法인 글의 구절文句과 의리義理(道理)를 한 생一生에 받아 지닐受持뿐 아니라 또는 수없는 생無數生에 받아 지니受持되 모든 부처님諸佛의 명호名號와 겁수劫數와 수기授記와 수다라修多羅 등等 무진無盡 무량無量의 모든 법문諸法門을 모두 다悉皆 받아 지닐受持새요,

10에 변장辯藏이란 보살菩薩이 대변재大辯才를 갖춘具지라 중생衆生을 위爲하여 모든 법諸法을 널리 연설廣爲演說하고 한 글一文 한 구절一句이라도 그 의리義理(道理)의 다 함이 없음無盡을 널리 열어서廣開 중생衆生의 근기根機에 따라 만족滿足을 주게與함일 것이니『화엄경華嚴經』20에 자세히詳 말씀說하시니라.

제3절 지장십륜 地藏十輪

지장십륜地藏十輪이란 곧 여래如來의 열 가지 힘十力인 바『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904] <십륜품十輪品>의 말씀說에는「전법륜왕轉

903) (十二部經) : 불전의 서술형. 또는 내용으로부터 12가지로 분류한 것. 각 경전에 따라 내용순서는 조금씩 다른데 ①수다라[修多羅, 계경(契經) 또는 경(經)], ②기야[祇夜, 응송(應頌) 또는 중송(重頌)], ③가타[伽陀, 풍송(諷頌) 또는 고기송(孤起頌)], ④니타나[尼陀那, 인연(因緣)], ⑤이제목다가[伊帝目多伽, 본사(本事)], ⑥사다가[闍多伽, 본생(本生)], ⑦아부달마[阿浮達磨, 미증유(未曾有)], ⑧아파타나[阿波陀那, 비유(譬喩)], ⑨우바제사[優婆提舍, 논의(論議)], ⑩우타나(優陀那, 자설(自說)), ⑪비불략[毘佛略, 방광(方廣)], ⑫화가라[和伽羅, 수기(授記)]의 12가지임. 이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정리한 것이 된다.

904) 『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대승대집지장십륜경(大乘大集地藏十輪經)』] : 10권.『대승대집지장십륜경(大乘大集地藏十輪經)』의 약칭. 당나라의 현장 번역. 부처님이 지장보살의 물음에 대하여 10종의 불륜(佛輪)을 설한 것. 십륜은 곧 부처님의 실력으로 하나하나의 힘을 전륜성왕에 비유한 것.

法輪王이 10가지十種 지혜의 힘智力으로써 국토國土의 인민人民을 권유勸諭하고 또 징계懲戒하여서 자기 국토自國土로 하여금 안락安樂을 증장增長하며 능能히 모든一切 원수와 적怨敵을 복종伏從케 하여 가지가지種種 복리福利를 얻음得으로써 이를 십왕륜十王輪이라 이름名한다」 할새, 여래如來께서도 10 가지十種 지혜의 힘智力을 성취成就하여 일체중생一切衆生 가운데에서 대범륜大梵輪[905]을 굴리轉실새 이를 10 가지十種의 불륜佛輪이라 이름名하나니 지장십륜地藏十輪이란 곧 이름과 구절名句 그대로 이해解하여 지성地性(땅의 일반) 내內에 함장含藏한 십륜十輪[906]을 증득證得하라 하신 밀의密意[907]를 분명히 알지니了知라.

제4절 십현문 十玄門[908](新十玄)

1에 동시구족상응문同時具足相應門이란 시방十方 삼세三世 일체一切의 모든 존재諸法는 연기緣起의 연緣(원인) 때문으로서所以緣 같은 시간同一時에 원만히 갖추어具足圓滿 그것과 이것이彼此 응하고 비추어照應 나타날새,顯現 일체一切의 모든 존재諸法는 같은 시간同一時의 같은 장소同一處에서 일대연기一大緣起가 갖추어具足 상응相應(동반)할새니, 당경唐經(80화엄, 新譯) <묘엄품妙嚴品>에 「일체법문一切法門의 무진해無盡海[909]가 한 법문 도량一法道場 가운데中 모두 모

905) (梵輪) : 법륜(法輪)의 다른 이름. 이 명칭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 부처님의 설법은 맑고 깨끗한 것이라는 뜻, 부처님이 범천의 청에 응하여 처음으로 법륜을 굴린 것이란 뜻, 세간에서 범천을 귀중하게 여기므로 이것을 순응하여 범륜이라 하였다는 것.

906) 십륜(十輪) : 곧 여래의 시방(十方)을 말함.

907) 밀의(密意) :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지 않는 것. 특별 취의(意)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 숨기고 있는 본의(本意).

908) 십현문(十玄門)[십현연기(十玄緣起)] : 화엄종에서 설하고 있는 사종법계(四種法界) 중에서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의 특징을 열 방면에서 설명한 것. 이것에 통하게 되면 화엄의 현해(玄海, 진리의 영역)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문(玄門)이라 이름 하였고, 이것이 10가지 특징으로 서로 연(緣)이 되어 다른 특징을 일으키는 고로 연기(緣起)라 칭함. 화엄종의 이조(二祖) 지엄(智儼)의 창창(創唱)에 의해 삼조(三祖) 현수(賢首)는 그것을 개선하였기 때문에, 전자를 고십현(古十玄), 후자를 신십현(新十玄)이라 칭함.

인다同會」하심이 이것是이요,

2에 광협자재무애문廣狹自在無碍門이란 일법一法[910]이 일체법一切法을 연기緣起할새 작용力用(활동)의 제한際限이 없음無을 광廣(광대함)이라 이름하고, 그러나 일법一法의 분한分限(분수)을 지키어守 본래의 위차本位를 파괴하지 않을不壞새 협狹(외연外延[911]이 좁은 것)이라 이름 하니, 분分(부분)은 곧卽 무분無分(전부)이오 무분無分(전부)이 곧卽 분分(부분)이라, 연기법緣起法이란 이와 같이如此 일법一法에 분分과 무분無分의 두 가지 뜻二義을 갖추具되 서로互相 방해 하지 않을不妨새요,

3에 일다상용부동문一多相容不同門이란 위上의 광협무애문廣狹無碍門에 의지依하건대 하나一의 세분勢分이 다른他 일체법一切法[912]에 들어入가고 일체법一切法의 세분勢分이 자체自의 하나一에 들어入가나, 하나一와 여럿多의 본래의 위차本位를 잃지 않으니不失 당경唐經(80화엄, 新譯)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에 「하나의一 국토國土로써 시방十方에 가득滿하고 시방十方이 하나에 들어入一가나 또한亦 남음이 있지 않다無餘하여 세계世界의 본래 모습本相도 또한 파괴하지 못하니不壞 비교할 수 없는無比 공덕功德인 까닭으로 능히 그러하다能爾」하심이 이것是이요,

---

909) (無盡海) : 무궁무진한 법을 바다의 깊고 넓음에 비유한 말.

910) 일법(一法) : 일사(一事), 일물(一物). 만법에 대해서 말한 것. 법은 법칙이 아니라 존재 사물의 의미. 하나의 일, 하나의 사물.

911) 외연(外延) : 개념(槪念)이 적용되는 사물전체 본디의 개념에 대한 일컬음. 본디의 조건에 대한 일컬음.

912) 일체법(一切法) : 일체제법·만법이라고도 함. 모든 것, 일체의 사물, 모든 현상, 물리적 . 정신적 모든 것, 일체의 현상적 존재를 말한다. 원뜻은 '연기(緣起)한 존재의 모든 것' 즉, 유위법(有爲法)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후에 이것과 대립하는 무위법(無爲法)을 더하게 되었다. 법에 관해서는 이외 여러 가지 분류의 방법이 있다. 일체법은 모두 소연(所緣, 대상)이 된다.

4에 제법상즉자재문諸法相卽自在門이란 위上의 일다상용문一多相容門에 의지依하건대 일법一法의 세력勢力이 일체법一切法에 들어갈入 때時에는 곧 일체법一切法 가운데의 일법一法이라 일체법一切法 외外에 일법一法의 본체體가 다시 없고更無, 일체법一切法이 일법一法에 들어入갈 때時에 일체법一切法을 일법一法에 전수全收한지라 능동能同의 일체법一切法은 허체虛體요 소동所同의 일법一法은 유체有體(존재 하는것)일새, 일허一虛 일실一實[913]이 상즉相卽[914]이니 두 거울이 서로 비추어二鏡相照 허와 실虛實이 화융和融함과 같으니 진경晋經(60화엄경, 舊譯) <십주품十住品>에 「하나가 곧 많음一卽是多이요, 많음이 곧 하나多卽是一라」하심이 이것이요

5에 은밀현료구성문隱密顯了俱成門이란 위上의 의문義門(의미의 분류)에 의하건대 일법一法이 일체법一切法에 즉卽(하나가 되는 것)할 때時엔 일체법一切法은 드러나고顯 일법一法은 숨隱으며, 일체법一切法이 일법一法에 즉卽(하나가 되는 것)할 때時에는 일법一法은 드러나고顯 일체법一切法은 숨어서隱, 드러남顯과 숨음隱의 두 모습二相이 동시同時에 구성俱成할새니 진경晋經(60화엄경, 舊譯) <현수품賢首品>에 「혹或 동쪽東方에서 정수正受(삼매)에 들어감을 보고見入 혹或 서쪽西方에서 삼매가 일어남을 보아서見三昧起 안근 가운데於眼根中 정수(삼매)에 들어감入正受이요 색법 가운데에於色法中 삼매가 일어남三昧起이라」 하심이 이것是이요,

6에 미세상용안립문微細相容安立門이란 위로부터上來 제2문第二門의 뜻義으로서 어떠한 미세微細한 가운데라도 일체一切 모든 존

913) (一虛一實) : 숨었다 나타났다 하여 본체(本體)를 잡기가 어려움.

914) 상즉(相卽) : 2개의 사실과 현상이 서로 융합하여 무차별(無差別) 일체(一體)가 되어 있는 것. 틀려 있지 않는 것. 융통.

재諸法를 함용含容하여 두두물물頭頭物物의 모두 다悉皆 나타남顯現이 거울 가운데鏡中에 만상萬像을 비추어 드러냄映現과 같으니 미세微細란 곧 한 터럭一毛 한 티끌一塵을 말함이라, 진경晋經(60화엄경, 舊譯) <비로자나품毘盧遮那品>에 「한 터럭一毛 구멍 가운데孔中에 한량없는無量 부처님 세계佛刹가 장엄莊嚴하고 청정淸淨하여 넓게曠然 안립安立한다」 하심이 이것이요

7에 인다라망법계문因陀羅網法界門이란 인다라망因陀羅網은 제석천帝釋天의 궁전宮殿에 매달린懸 구슬그물珠網로서 구슬구슬珠珠의 각각各各이 일체一切의 구슬 그림자珠影를 나타내니現 이는 곧 한 번 겹쳐一重 그림자가 나타남影現이라, 한 구슬一珠의 가운데에 나타나는現 일체一切의 구슬 그림자珠影요 또 모든 구슬諸珠의 영상影像이 일체一切의 구슬 그림자珠影를 겹쳐서 나타낼重現새, 각각各各 두 개가 겹친二重 그림자의 나타남影現이라 이와 같이 겹겹이重重비추어 나타남映現이 무진無盡 무궁無窮이니 모든 존재諸法의 하나一 하나一에 즉입卽入(相卽相入과 같음[915])함도 또한 이와 같아亦如是서 위上의 미세상용微細相容은 한 번 겹친一重 즉입卽入(相卽相入과 같음)일 뿐이요 아직 중중무진重重無盡[916]의 즉입卽入은 아니나 지금今의 비유譬喩로써 그 뜻義을 명시明示함이요,

---

915) (相卽相入)[원융(圓融)][융통(融通)][융즉(融卽)] : 화엄종 교학의 연기사상. 상즉(相卽)이라 함은 하나와 다수와의 관계를 진술한 것으로서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다수가 성립하고, 또 다수에 의해 하나가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와 다수는 밀접하여 떼어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상입(相入)이라 함은 하나에 있어서의 작용은 전체의 작용에 영향을 끼치고 전체의 작용으로부터 당연히 하나의 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밀접하여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 어떠한 사물, 예를 들면 책상에도 작용이 있으나 자체(그것)의 방면에서 모든 사물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상즉(相卽), 용(用, 작용)의 방면에서 모든 사물이 하나라는 것이 상입(相入)임. 실체를 부인하면 모든 사물이 그물의 눈과 같이 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함. 구체적인 개체의 존재와 작용은 그대로 전체에 있어서 존재와 작용이 된다고 하는 세계관임. 원융(圓融)·융통(融通)·융즉(融卽)이라고도 함.

916) 중중무진(重重無盡) :『화엄경(華嚴經)』<금사자장(金師子章)>에 따르면, 거울을 10개를 만들고, 중앙에 촛불을 놓으면, 그 빛이 거울에 반사된다. 그것이 또 다른 거울에 비춰지는 복잡하게 서로 어울리며 비쳐지는 것을 말함. 서로 관계하면서 제한이 없는 것. 끝없이 관계하고 있는 것. 삼라만상이 서로서로 한데 뒤섞여서, 하나로 융합되어 있어 구별할 수 없는 모양.

8에 탁사현법생해문託事顯法生解門이란 위로부터上來 밝힌 바所明의 제7문第七門에서 일체법一切法이 중중무진重重無盡으로 연기緣起한 진塵과 진塵의 법法과 법法이 다할 시盡是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917]임을 알아서知 일사一事와 일진一塵에 취就하여 무애법계無碍法界의 법문法門을 드러낼顯지니 곧 일체一切의 비유적으로 나타낸寄顯表示 법문法門이 모두皆是 이에 포섭攝함이요

9에 십세융법이성문十世融法異成門**(十世隔法異成門[918])**이란 위上의 8문八門이 원융무애圓融無碍의 모양相을 횡으로 보인橫示(공간상)것에 대對한 종으로 보인縱示(시간상) 법문法門으로서, 십세十世란 과거過·현재現·미래未 삼세三世에 각각 삼세를 갖출各具三世새 9세九世요 9세九世가 서로 간에 곧 들어갈相卽互入새 하나의一 총세總世라 총總(전체)과 별別(구별)을 합合한 십세十世니, 십세十世격연隔然**(?.격력隔歷[919])**의 법法이 동시同時에 구족具足하여 나타날顯現새 융법融法**(?.격법隔法)**이며 이성異成이란 별개別異의 법法이 동시同時에 성취成就할 새니, 『진경晋經』 <초발심공덕품初發心功德品>에 「무량겁無量劫이 바로是 한 생각一念임을 알고知, 한 생각一念이 곧 바로 무량겁無量劫임을 알아라知」 하심이 이것是이요

---

917) (事事無碍法界) : 일체의 사물은 모두 이(理)로부터 나타나 이(理)와 불이(不二)되므로, 이(理)가 평등한 것처럼 사(事)도 또한 평등하며, 갑의 사(事)와 을의 사(事)가 상즉무애(相卽無碍)라고 하는 것. 수파(水波)를 예로 들어 말하면, 물과 파도와의 상즉(相卽)을 한발 나아가 파도와 파도와의 상즉무애(相卽無碍)를 논하는 것. 현상계의 제사상(諸事象)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화엄종에서 말함.

918) 십세격법이성문(十世隔法異成門) : 사전에는 '십세격법이성문(十世融法異成門)'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엄 10현문(玄門)의 제9. 10세는 과거·현재·미래의 3세에 각각 3세를 나눈 9세와 이를 총괄하는 1세(1념)를 말함. 9세는 시간적으로 차별의 전후가 있거니와, 모두 1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모두 일념 중에 현현(顯現)하여 10세의 장단이 자재하게 원융하여 상즉상입(相卽相入)하는 것을 보인 것. 10세의 격한 법이 다르게 성취하는 문.

919) 격력(隔歷) : 사전에는 격력(隔歷)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융(圓融)에 상반 되는 말. 이사(理事) 또는 사사(事事)가 차제(次第) 격별(隔別)하여 서로 융통되지 않는 것. 천태종에서는 이것을 별법(別法) 법문이라 하며 원교(圓敎)의 원융무애에 상대한 말.

10에 주반원명구덕문主伴圓明具德門이란 이미 종縱(시간상) 횡橫(공간상)의 일대연기一大緣起인 만법萬法의 법法과 법法이 서로 통하여 交徹 일법一法에 다른 것他이 따라隨伴하여 연대(결속)連帶함일새, 주체主의 일법一法에 다른他 나머지 법餘法이 집중集中함이라. 한 예一例를 보이示면 일불一佛이 주체主가 되어 설법說法하면 다른他 일체불一切佛은 짝伴(하나)이 되고 다른 부처님他佛이 설법說法함에도 또한 이와 같으니 연기緣起의 법法은 서로互 주主(주체)와 짝伴(하나)이 되어互爲主伴 약속約束함과 같은如지라, 일법一法에 일체공덕一切功德을 원만히 성취圓滿成就하였으므로 훌륭하고 완전한 덕을 갖추었으니圓明具德 『탐현기探玄記』[920] 1과 『화엄현담華嚴玄談』[921] 6에 상세하게 설명詳說하였나니라.

제5절 현문무애십인 玄門無碍十因

(모든 법諸法이 무슨 까닭으로 사사무애事事無碍한가)

1에는 오직 마음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唯心所現故이니, 모든 법諸法의 본원本源[922]에 있어 다른 것別種이 각각 있지各有 아니함이라, 오직 하나唯一의 여래장심如來藏心[923]에서 연기緣起한 차별

920) 『 (探玄記)』[『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의 약칭. 총 20권으로 되어 있으며 당(唐)나라 현수(賢首) 지음. 동진(東晋)의 불태발타라(佛馱跋陀羅)가 번역한 60권 『화엄경(華嚴經)』을 해석(解釋)한 것. 제일권(第一卷)은 문전현의(門前玄義)라 하여 구문(九門)으로 나누어 이 경(經)의 요의(要義)를 갖가지의 방면(方面)으로 개론(槪論)하였다. ①교(敎)가 일어난 소유(所由), ②장부(藏部)의 소섭(所攝), ③입교(立敎)의 차별(差別), ④소피(所被)의 기(機), ⑤능전(能詮)의 교체(敎體), ⑥소전(所詮)의 종취(宗趣), ⑦구석제목(具釋題目), ⑧부류(部類)의 전역(全譯), ⑨문의(文義)의 분제(分齊), ⑩수문해석(隨文解釋)의 십문(十門)으로 나누어 그 현묘(玄妙)한 뜻을 설(說)하였다. 그리고 2권 이하는 본경(本經)의 문(文)을 따라 차례로 해석(解釋)하였음.

921) 『화엄현담(華嚴玄談)』 : 총 9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唐)나라 징관(澄觀) 지음. 『대방광불화엄경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 가운데서 화엄개설(華嚴槪說)에 관한 부분을 추려내서 모은 책. ①교기인연(敎起因緣), ②장교소섭(藏敎所攝), ③의리분제(義理分齊), ④교소피기(敎所被機), ⑤교체심천(敎體深淺), ⑥종취통국(宗趣通局), ⑦부류품회(部類品會), ⑧전역감통(全譯感通), ⑨총석경제(總釋經題), ⑩별해문의(別解文義)의 십부문(十部門)으로 나누다. 주역서(註譯書)로는 해연(解演)의 『화엄경현담결택(華嚴經玄談決擇)』(6권), 보서(寶瑞)의 『화엄현담회현기(華嚴玄談會玄記)』(40권) 등이 있음.

922) 본원(本源) : 우리들의 존재 기원. 본래 갖추고 있는 자성(自性) 청정심(淸淨心)을 말함.

923) 여래장(如來藏) : 여래의 태(胎)라는 뜻으로, 태(胎)란 모태와 태아의 어느 쪽을 의미함. 성장하여

差別의 법法일새, 이것과 저것이彼此 반드시必然 화융和融의 이理(이치)가 있음有이요,

2에는 법은 정성이 없기 때문法無定性924)故이니, 모든 법諸法은 여래장심如來藏心의 연기법緣起法이라, 본래本來에 모든 법諸法이 스스로의 성품自性이 없으며無 그와 내가彼此 화융和融하는 이理(이치)가 있음有이요,

3에는 연기의 모습에 따르기 때문緣起925)相由故이니, 연기緣起의 법法은 단독單獨으로 본체를 보전할保體 수 없고不得 반드시 서로 말미암아相由 그 본체體를 조금 이룰僅成새, 화융和融의 이理가 있음有이요,

4에는 진실한 법성(본성)이 융통하기 때문法性融通926)故이니, 진실한 법성法性(본성)은 본래本來 융통融通한 본성性일새, 본성性과 같이如 사事(차별적 현상)도 역시亦是 융통融通한 이理(근본도리)가 반

될 만 한 태아도, 그 태(胎)에 부처님이 머무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어느 쪽이든 간단히 마음으로써가 아니라 중생을 그 존재 가능성 전체에서 파악한 표현임. 동시에 구조적으로서는 객진번뇌(客塵煩惱)가 따라다니고 있는 상태로 부처님과 같지 않다. 범부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여래(부처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중생 중에 있는 여래가 될 만한 요인.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청정한 가능성을 가진 것. 만유(萬有)의 제상(諸相)이 성립하는 근원이라 생각되었다.

924) 정성(定性) : 본성(本性), 자성(自性), 고정적인 움직일 수 없는 본질.

925) 연기(緣起) : 인연생(因緣生)・연생(緣生) 인연법 모두를 말함. 다른 것과의 관계가 연이 되어 생기(生起)하는 것. A에 의[緣] 의해 B가 일어나는[起] 것. 무엇에 의해 일어난다는 뜻으로, 모든 현상은 무수의 원인[因]과 조건[緣]이 서로 관계해서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독립자존이 아니고, 제 조건과 원인이 없어진다면, 결과[果]도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 불교의 기본적 교설. 현상적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생겨나고 있는 것. 이론적으로는 항구적인 실체적 존재가 하나로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실천적으로는 이 인과관계를 밝히고, 원인과 조건을 없앰으로써 현상세계(고통의 세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지향함. 불교에서는 연기(緣起)하고 있는 사실 외에 고정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 일반적인 표현에 의하면 모든 것이 상대하는 것으로, 서로 맞당기고 밈으로써 성립하고 있는 것. 갖고 갖게 하는 관계. 후세에는 연기의 관념을 나누어 업감연기(業感緣起)・뢰야연기(賴耶緣起)・진여연기(眞如緣起)・법계연기(法界緣起)의 4종을 세우게 되었다.

926) 융통(融通) : 다른 별개의 것이 융화하여 장애가 없는 것. 양방이 서로 어우러져 완전하게 된다. 상즉상입(相卽相入)과 동일.

드시必然 있음有이요,

5에는 환몽과 같기 때문如幻夢故이니, 모든 존재諸法는 허가무실虛假無實[927]한 허깨비幻·꿈夢과 같을如새, 화융和融의 이理가 있음有이요,

6에는 그림자의 모습과 같기 때문如影像故이니, 모든 존재諸法가 일심계一心界[928]에서 연기緣起하여 존재存在한 그 형상形이 거울 가운데鏡中의 영상影像과 같을如새 화융和融의 이理가 있음有이라. 이상以上 여섯 가지 원인六因은 모든 존재諸法가 그 스스로自爾 덕상德相에 취就함이오 이하已下는 업의 작용業用의 무애無碍에 취就한 인유因由[929]를 설명說함이라.

7에는 원인은 한이 없기 때문因無限故이니, 보살菩薩이 원인 가운데因中에서 한없는無限 원인因을 수행修할새 결과果에 이르러至 반드시必然 무애無碍의 업의 작용業用을 얻을得새요,

8에는 부처님은 깨달음을 다하기 때문佛證窮故이니, 부처님佛은 참 성품眞性의 깨달음을 다 할證窮새 참 성품眞性과 같이如 업의 작용業用도 무애無碍함이요,

9에는 깊은 선정을 쓰기 때문深定用故이니, 깊고 미묘한深妙 선정력禪定力으로써 업의 작용業用의 무애無碍를 얻음得이요,

10에는 신통神通과 해탈解脫 때문故이니, 부사의不思議한 신통력

927) (虛假不實) : 거짓말.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 것을 외상(外相)으로만 나타냄.

928) 일심(一心) : 궁극적 근저로서의 마음. 만유의 실체(實體). 진여(眞如)를 말함.

929) 인유(因由) : 형식논리학의 중개념(中槪念)에 해당하는 것.

神通力은 중생物의 기반羈絆[930](굴레)을 여의어離 자유自由 자재自在할새 업의 작용業用의 무애無碍를 얻음得이니 『화엄현담華嚴玄談』 6에 상세詳하게 설명說하니라.

제6절 십무이 十無二

모든諸 불세존佛世尊의 10가지十種 무이행無二行[931]의 자재한 법自在法이 있으니,有

1에는 일체一切의 모든 부처님諸佛이 능히 다悉能 선설善說[932] 수기授記하신 말씀言說이 결정決定하여 무이無二함이요,
(이심(二心 : 眞心·妄心)하지 않는 것)

2에는 일체一切의 모든 부처님諸佛이 능히 다悉能 중생衆生의 마음과 생각心念에 수순隨順하여 그 뜻意으로 하여금 만족滿足케 하심이 결정決定하여 무이無二함이요,

3에는 일체一切의 모든 부처님諸佛이 능히 다悉能 삼세일체三世一切의 모든 부처님諸佛과 그 교화를 받는所化 일체중생一切衆生과 그 본성體性이 평등平等함을 아심知이 결정決定하여 무이無二함이요,

4에는 일체一切의 모든 부처님諸佛이 능히 다悉能 세간 법世法[933]과 모든 부처님諸佛의 진실한 본성法性에 차별差別이 없음無

930) (羈絆) : 굴레. 굴레를 씌우듯이 자유를 구속함.

931) 무이(無二) ; ①두 가지 것의 대립이 없는 것. 대립이 없음. 불이(不二). 단 하나. ②제이(第二)의 것이 없음. ③허망분별의 능취(能取)와 소취(所取)의 대립이 없는 것. ④이심(二心)이 없다는 뜻.

932) 선설(善說) : 잘 설명한 부처님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

933) 세법(世法) : 세간법의 준말. 세간의 일. 세간・세속의 일.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을 말함.

을 아심知이 결정決定하여 무이無二함이요,

5에는 일체一切의 모든 부처님諸佛이 능히 다悉能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부처님三世諸佛이 지니신所有 선근善根이란 같은同一 선근善根임을 아심知이 결정決定하여 무이無二함이요,

6에는 일체一切의 모든 부처님諸佛이 능히 다悉能 현생現生에 일체一切의 모든 법諸法을 깨닫고覺 그 뜻義을 연설演說하심이 결정決定하여 무이無二함이요,

7에는 일체一切의 모든 부처님諸佛이 능히 다悉能 과거過去· 미래未來 모든 부처님諸佛의 지혜慧를 현재現在에 구족具足하심이 결정決定하여 무이無二함이요,

8에는 일체一切의 모든 부처님諸佛이 능히 다悉能 과거·현재·미래三世 일체一切의 찰나刹那를 아심知이 결정決定하여 무이無二함이요,

9에는 일체一切의 모든 부처님諸佛이 능히 다悉能 과거·현재·미래三世 일체一切의 부처님 세계佛刹가 한 부처님 세계一佛刹가 운데中에 들어감入을 아심知이 결정決定하여 무이無二함이요,

10에는 일체一切의 모든 부처님諸佛이 능히 다悉能 과거·현재·미래三世 일체一切 부처님佛의 설법說法 그대로 한 부처님一佛의 설법說法임을 아심知이 결정決定하여 무이無二함이니 『종경록宗鏡錄』[934] 99에 상세하게 설명詳說하니라.

---

934) 『 (宗鏡錄)』: 100권. 북송의 연수(延壽) 지음. 대승교의 경론 60부와 중국·인도의 성현 3백인의 저서를 비롯하여 선승의 어록·계율서·속서(俗書)등을 널리 인용하고 방증(傍證)하여 선가에

제7절　십무의행 十無依行[935]

수행법行法에 의지依하여 공덕功德과 선근善根이 생기는生 바 그러하지 아니不然하고 혹或은 사견邪見에 인연緣하거나 악연惡緣에 의依하여 그 수행법行法이 공덕功德과 선근善根에 의지하지所依止 않음에 10가지十種가 있으니, 1은 의업意業(마음작용)은 파괴되지 않았으나不壞 가행加行(수행)이 파괴壞됨이요 2는 가행加行은 파괴되지 않았으나不壞 의업意業은 파괴壞됨이요 3은 가행加行·의업意業 모두 파괴됨共壞이요.

4는 계는 파괴되었으나戒壞 견見(견해)은 파괴되지 않음이요,見不壞 5는 견은 파괴되었으나見壞 계는 파괴되지 않음이요不戒壞 6은 계戒·견見이 모두 파괴됨共壞이요, 7은 가행加行·의업意業·견見·계戒가 모두 파괴되지 않았으나共不壞 악우의 힘惡友力에 의지依支함이요, 8은 선우의 힘善友力에 의지依支하나 우둔愚鈍함이요, 9는 가지가지種種 재보財寶를 많이 지니는 데衆具는 싫증남이 없이 만족無厭足하나, 정신이 혼미하여 어지러움을 추구追求迷亂[936]함이요 10은 많은 병衆病이 가까이 닥침逼近에 주술呪術과 사사祠祀(제사)로써 대對함이니라.

『대집지장십륜경大集地藏十輪經』[937] 5

말하는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온갖 것이 모두 법이다(心外無佛 , 觸目皆法)" 하는 뜻을 말한 책. 원나라 때에 대장경에 편입함. 고려장경과 신수대장경에도 실려 있음.

935) 십무의행(十無依行)[십무의지(十無依止)] : 또는 십무의지(十無依止)라고도 함. 수행법에 의하여 선근 공덕을 내는 소의처(所依處)가 되는 것. 그러나 혹은 사견이나 또는 악연으로 그 수행법이 선근 공덕의 소의처(所依處)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에 10종이 있어서 십무의행(十無依行)이라고 함.

936) 미란(迷亂) : 번뇌에 미혹하여 그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

937) 『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대승대집지장십륜경(大乘大集地藏十輪經)』] : 10권. 『대승대집지장십륜경(大乘大集地藏十輪經)』의 약칭. 당나라의 현장 번역. 부처님이 지장보살의 물음에 대하여 10종의 불륜(佛輪)을 설한 것. 십륜은 곧 부처님의 십력으로서 하나하나의 힘을 전륜성왕에 비유한 것.

제9장 법계 法界[938]

법계法界를 법성法性(진실한 본성)이라 실상實相(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도 이르는 동시同時에 그 뜻義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개大槪 두 가지 뜻義으로 해석解釋하여 하나는 사事(차별적 현상)에 취就하고 하나는 이理(보편적 진리)에 묶約으니, 사事의 법法이란 곧 제법諸法(모든 존재. 모든 현상)이요 계界(법성. 진여와 동일)란 곧 나눠진 세계分界라.

모든 존재諸法가 각자各自의 본체體가 나뉘어 있어別有 나눠진 세계分界가 같지 아니不同할새, 법法의 하나— 하나—를 법계法界라 이름함도 있고 삼라만상萬有을 모두 합하여總該 법계法界라 말함도 있으니, 화엄종嚴家에서 나눈所判 사종법계四種法界[939] 가운데 사법계事法界[940]가 이것이요 이理에 묶으면約 법상法相·화엄華嚴의 해석한 뜻釋意에 진여眞如의 이성理性(본성)을 지칭指稱하여 법계法界라 이르고 혹或은 법계法界를 진여법성眞如法性이라 실상實相이라 실제實際라고도 이르고云,

그 본체體가 하나—이며 계界란 인因(다른 것을 생성하는 원인)의 뜻

938) (法界) : 법은 본래 인간의 행위를 보존한다는 뜻을 지닌 말이나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의 근원을 뜻한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종교적인 본원을 의미하며, 여기에 경계라는 의미의 '계(界)'를 붙여 진리의 세계를 상징한다. 그래서 법계는 진여(眞如)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진리 자체로서의 부처, 즉 법신불을 뜻하기도 하며, 화엄교학(華嚴敎學)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세계를 뜻하기도 한다.

939) 사법계(四法界) : 화엄종에서, 차별무한의 우주를 사방 면에서 본 것. ①사법계(事法界) : 차별의 현상계를 말함. ②이법계(理法界) : 차별을 초월한 진리의 경계. ③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 : 현상계와 실체계가 일체불이(一體不二)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함. ④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 : 현상계가 곧 절대 불가사의의 경계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함.

940) 사법계(事法界) : 안전(眼前)으로 보는 부분의 사사물물(事事物物)의 차별적 현상의 세계. 현상 차별적인 면에서 본 전우주(全宇宙). 화엄종에서 설명하는 4법계 중 하나.

義으로서 모든諸 성자의 도聖道를 나오게生 할새 법계法界라 이름함도 있고, 또 계界란 성性[941]의 뜻義으로서 모든 존재諸法가 의지所依한 바의 본성性이라 곧 모든 존재諸法가 동일同一한 참 성품眞性일새 법계法界라 이름名함도 있느니라.

제1절 4종법계四種法界[942]와 입법계入法界[943]의 3관三觀[944]

일진여一眞如[945]의 법계法界란 삼라만상萬有을 모두 갖춘總該 궁극窮極의 진리眞理요 그 바른 모습義相을 분별分別함에 4가지四種가 있으니有,

1에 사법계事法界란 사事(차별적 현상)는 색심色心[946]이 만차萬差의

941) (性) : 본체. 본질. 자성. 원인. 불변하는 본성. 그것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특성. 고유의 성질. 외적 영향 관계가 어떻든 구애되지 않고 항상 동일한 본질.

942) 사법계(四法界) : 모든 존재를 현상과 본체의 두 측면에서 관찰하여 네 가지로 파악하는 화엄학의 관점.
①사법계(事法界) : 낱낱의 차별 현상.
②이법계(理法界) : 모든 현상의 본체는 동일함.
③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 : 본체와 현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서로 걸림 없는 관계 속에서 의존하고 있으므로 모든 존재는 평등 속에서 차별을 보이고, 차별 속에서 평등을 나타내고 있음.
④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 : 모든 현상은 걸림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융합하고 있음. 이것을 화엄의 법계연기(法界緣起)라고 함.

943) 입법계(入法界) :『화엄경(華嚴經)』에서는 법계(法界)라 하였고,『법화경(法華經)』에서는 실상(實相)이라 하였는데, 동체이명(同體異名)이다. 제법본진(諸法本眞)의 이(理)와 제불(諸佛) 소증(所證)의 경(境) 이 법계(法界)의 이(理)에 증입(證入)한 것을 입법계(入法界)라 한다. 화엄종(華嚴宗)에서 삼처(三處)의 입법계(入法界)를 다음과 같이 세움.[『화엄대소초(華嚴大疏鈔)』 7] ①상근(上根)의 보살(菩薩)이 초주(初住)의 위(位)에서 무명번뇌(無明煩惱)를 깨뜨리고 법계(法界)의 이(理)를 증득(證得)한 자리. ②중근(中根)의 보살(菩薩)인 상회향(上廻向)의 마지막 자리. ③하근(下根)의 보살(菩薩)인 초지(初地)의 자리.

944) 화엄종삼관(華嚴宗三觀) : 중국 화엄종의 초조 두순(杜順)이『화엄경(華嚴經)』에 의해 세운 것을 법계삼관(法界三觀)이라 함. 법계는 소관(所觀)의 경(境)이요, 삼관(三觀)은 능관(能觀)하는 마음이다. ①진공관(眞空觀) : 공무(空無)가 아닌 진공의 이치를 관하는 관법. 진여 평등한 이치가 삼라만상의 체성(體性)이며, 보편(普遍)하고 항상한 존재임을 관하는 것. ②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 : 이사무애법계를 말함. 차별 있는 사법(事法)과 평등한 이법(理法)은 분명하게 존재하면서도 서로 융합하는 것임을 관(觀)함. ③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 : 우주간의 온갖 물건이 서로서로 일체를 함용(含容)하는 것으로 관(觀)함.

945) 일진여(一眞如) : 일진법계(一眞法界)는 차별이 없음을 뜻함. 일진법계란 유일절대의 궁극의 진리.

사물事物로서 곧 소나무松는 소나무松요 대나무竹는 대나무竹라 차별差別하여 눈앞眼前에 나타나는現 것者이니, 연기緣起가 그 모양相이라. 이此 법계法界의 계界란 분계分界의 뜻義으로서 모든 존재諸法의 분계分界를 차별差別하는 법계法界요,

2에 이법계理法界란 이理(보편적 진리)는 진여眞如 평등平等의 이치理로서 미륵彌勒도 진여如요 범부凡夫도 진여如라 법계法界가 평등平等하여 일진여一眞如의 이理니, 형상 없음無相이 그 형상其相이라. 이此 법계法界의 계界란 본성性의 뜻義으로서 진여眞如는 모든 존재諸法의 본성體性일새 그 본성其性이 같은同一 한 법계法界요,

3에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란 색이 곧 공色卽是空이오 공이 곧 색空卽是色이라 이理(보편적 진리)와 사事(차별적 현상)의 서로 통함交徹이 물이 곧 물결水卽波이요 물결이 곧 물波卽水과 같아서如 서로 융합해互融 있는 그 형상其相이라. 이此 법계法界의 계界란 분分(법성이 나타남)과 성性(법성. 진여와 동일)의 두 가지 뜻二義을 갖추어서具 분계分界의 사상事相(작용의 모습)과 본성體性의 진여眞如가 원융하여 거리낌 없는圓融無碍 법계法界요,

4에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란 만법萬法은 이성理性(본성)에서 연기緣起한 것者이라 이성理性(본성)이 원융圓融함과 같이如 일어난所起 바의 사상事相(작용의 모습)도 거리낌이 없어無碍서 한一 부모父母에서 태어난 형제자매兄弟姉妹의 혈육血肉이 서로 통하여相通 화융和融의 한 맛一味과 같을如새 차이가 있으나 서로 영양을 미치고 있음差卽涉入[947]이 그 모습相이라, 이 또한 분分·성性의 두 가지

946) 색심(色心) : 색법(色法)과 심법(心法). 곧 유형(有形)의 물질(物質)과 무형(無形)의 정신(精神)

947) (涉入) :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어떤 영향이나 작용 등이 대상에 가해지다. 간섭하고 관

뜻義을 갖추어具 차별差別의 사상事相도 이성理性과 같이如 사사事事가 거리낌 없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無碍涉入 법계法界라.

대개蓋 일진법계一眞法界에서 이 4종법계四種法界의 뜻을 나누는義分 까닭은所以 일진법계一眞法界에 진여眞如[948] • 생멸生滅[949]의 두二문門이 있으니 곧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의 두 뜻二義이라, 그 수연隨緣의 뜻을義邊 취取하여 사법계事法界를 세우고立 불변不變의 뜻義邊을 취取하여 이법계理法界를 세우立며 그 두 문二門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涉入 뜻義邊을 취取하여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를 세우고立 다시 생멸문生滅門에서 사사섭입事事涉入의 뜻을義邊 취取하여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를 세운立 바 진여문眞如門에서 이이섭입理理涉入의 뜻을義邊 취取하여 이이무애법계理理無碍法界를 세우지 아니한不立 것은 이理란 본래本來 평등平等하여 섭입涉入을 다시 의논論할 차별差別의 이치理가 없기無 때문이라.

그리고 이상以上 4종법계四種法界 가운데 제1법계第一法界를 제외除한 다음後 3법계三法界에서 3가지三種 관법觀法을 세우니,立 1에 진공절상관眞空絶相觀[950]이란 곧 이법계理法界요 2에 이사무애관理事無碍觀[951]이란 곧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요 3에 주변함용관周遍

948) 진여문(眞如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말하는 일심(一心)의 본체(本體)인 진여(眞如)의 부문(部門). 문(門)은 차별(差別)과 통입(通入)의 두 뜻이 있다. 본체(本體)인 진여(眞如)와 현상(現像)인 생멸(生滅)의 두 방면이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진여(眞如)의 방면(方面)으로는 오계(悟界)에 이르는 정법(淨法)을 낸다는 뜻으로 문(門)이라 함.

949) 생멸문(生滅門) : 여래장(如來藏)의 일심(一心)이 인연을 따라 생멸하여 차별의 상(相)을 일으키므로 생멸문이라 함. 진여와 무명이 상훈(相熏)하는 것. 곧 무명이 진여를 훈(熏)하여 유전(流轉)의 염법(染法)이 생기고, 진여가 무명을 훈(熏)하여 환멸(還滅)의 정법(淨法)을 일으킨다. 이것이 수연진여(隨緣眞如)가 되어 무명의 연(緣)인 진여와 화합한다. 그러므로 진여문은 여래장심(如來藏心)의 체(體)가 되고, 생멸문은 여래장심의 상(相)이 된다.

950) 진공관(眞空觀) : 화엄종에서 세운 삼관(三觀)의 하나. 공(空)·무(無)가 아닌 진공(眞空)의 이치(理致)를 관하는 관법(觀法). 진여(眞如) 평등한 이치(理致)가 삼라만상의 체성(體性)이며 보편(普遍)하고 항상한 존재(存在)임을 관(觀)하는 것. →삼관(三觀).

951) 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 : 화엄종에서 세운 법계삼관(法界三觀)의 하나. 평등한 진체(眞體)가 이(理)

含容觀952)이란 곧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라, 이를 화엄종華嚴宗의 "화엄법계삼관華嚴法界三觀"953)이라 이르는稱 화엄종 수행자本宗行者의 관법觀法이 이것이라. 점차漸次 닦아 익혀修習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의 경계境에 들어入감을 그의 지극至極(궁극의 이름)이라 말云하니 곧 화엄華嚴의 입법계入法界가 이것是이니라.

제2절 10법계十法界와 9계九界

10법계十法界란 4종법계四種法界를 횡橫(공간상)으로 하여 화엄종嚴家이 세운 바所立이니,

1에 불법계佛法界란 스스로도 깨닫고自覺·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고覺他·깨달은 행覺行954)이 함께 원만共滿한 경계境界요,

---

되고 유의(有爲)의 형상이 사(事)가 된다. 이(理)는 수(水)와 같고 사(事)는 파(波)와 같다. 곧 평등(平等)의 이(理)에 즉(卽)하면 만차(萬差)한 일이 있고, 만차(萬差)한 사(事)에 즉(卽)하면 평등(平等)의 이(理)가 있다. 이같은 사리(事理)가 교철(交徹)하여 진속(眞俗)이 원융(圓融)한 뜻을 관(觀)하는 것을 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이라 함. →삼현문(三玄門).

952) 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 : 화엄종 법계 삼중관문(三重觀門)의 하나. 우주만상(宇宙萬象)이 서로 주변(周遍)하고 함용(含容)함을 관(觀)하는 것. →삼관(三觀)

953) 화엄법계(華嚴法界) : 대승의 궁극(窮極)의 이(理)를 말한다. 『법화경(法華經)』에서는 실상(實相)이라 하고, 『화엄경(華嚴經)』에서는 법계(法界)라고 한다. 법계는 그 체(體)를 따라 이름한 것이요., 실상(實相)은 그 뜻을 따라서 칭(稱)한 것이니 그 실(實)은 하나다. 『화엄경(華嚴經)』은 이 법계(法界)로써 체(體)를 삼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법계(法界)의 이(理)를 밝힘에 불과하기에 화엄법계라고 말한 것이다. 법계(法界)를 4종으로 다음과 같이 나눔. ①사법계(事法界) : 우주만유(宇宙萬有)의 개별상(個別相) 특수성(特殊性)이니 곧 차별적(差別的 방면(方面)인 현상계(現象界). 경험계(經驗界)를 말한다. ②이법계(理法界) : 우주만유(宇宙萬有)의 근본(根本)인 무차별상(無差別相) 보편성(普遍性)이니, 곧 평등적(平等的) 방면(方面)인 본체계(本體界). 근본원리(根本原理)이다. ③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 : 사(事)인 현상(現象)과 이(理)인 본체(本體)는 서로 독립(獨立)되어 관계(關係)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융통무애(融通無礙)해서 현상(現象)이 곧 실재(實在)라는 것. ④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 : 사(事)인 현상(現象)과 이(理)인 본체(本體)가 상즉(相卽)할 뿐 아니라 일선(一線)에서 펑행(平行)하는 여러 선(線)이 서로 평행(平行)하는 것 같이 현상(現象)과 현상(現象)도 또한 상즉(相卽)하여 무애(無礙)함을 말한다. 이 사법계(四法界) 가운데서 제일(第一)의 사법계(事法界)를 제외(除外)한 다른 삼법계(三法界)에서 차례로 진공절상관(眞空絶相觀)·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의 삼종관법(三種觀法)을 세우니 이것이 화엄법계(華嚴法界)의 삼관(三觀)이다. 화엄종(華嚴宗) 수행인(修行人)이 이 관법(觀法)을 점차로 닦아서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의 경계(境界)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극측(極則)을 삼음. →법계(法界)

954) 각행(覺行) : 또는 보리행이라고도 함. 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보살의 불도 수행.

2에 보살법계菩薩法界란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얻기 위하여爲 육바라밀을 원만히六度萬行 수행修하는 경계境界요,

3에 연각법계緣覺法界란 열반에 들기入涅槃 위爲하여 부처님 계신在佛 당시當時에는 12인연관十二因緣觀을 수행修하고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시대無佛時代에는 전생 인연宿因[955]으로써 인연관因緣觀 혹或은 꽃이 날리고 잎이 떨어지는飛花落葉 등等의 외연外緣에 인因하여 스스로 수행自修하여 홀로 깨닫는獨覺 경계境界요,

4에 성문법계聲聞法界란 부처님이 계신在佛 당시當時에는 열반에 들기入涅槃 위爲하여 사제四諦의 관법觀法을 수행修하고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시대無佛時代에는 불도佛道(부처님의 도)의 소리聲로써 일체一切로 하여금 듣게聞 하여 보물나라寶所[956]에 모두 돌아오게悉歸 함이 대승성문大乘聲聞이며 기타其他는 소승성문小乘聲聞의 경계境界요,

5에 천법계天法界란 상품上品의 10선十善과 선정禪定을 함께 수행兼修하고 천계天界에 태어나生 고요하고 묘한靜妙 즐거움樂을 받는受 경계境界요,

6에 인법계人法界란 5계五戒 또는 중품中品의 10선十善[957]을 수

955) (宿因) : 숙인(숙세・전생)에 심은 업인(業因)으로 선(善)・악(惡)에 공통(共通)된 일. 『화엄경(華嚴經)』 75에 「숙인(宿因)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고, 『구법고승전(求法高僧傳)』에 「숙인(宿因)이 감회(感會)하여 금세(今世)에 과보(果報)로 눈앞에 나타난다」라고 하였음.

956) 보소(寶所) : 보물나라. 진귀한 보물이 있는 장소. 열반에 비유.

957) 십선(十善) : 열 가지 선한 행위. 십악(十惡)의 반대. 십악이란, 살생(殺生)・투도(偸盜)・사음(邪淫)・망어(妄語)・양설(兩舌)・악구(惡口)・기어(奇語)・탐욕(貪慾)・사견(邪見)을 말함. 이상의 10악을 행하지 않는 것. 불살생(不殺生)에서 불사견(不邪見)까지를 십선이라 함. ①죽이지 않는다, ②훔치지 않는다, ③사음하지 않는다, ④망어하지 않는다, ⑤욕하지 않는다, ⑥기어하지 않는다, ⑦양설하지 않는다, ⑧탐욕하지 않는다, ⑨화내지 않는다, ⑩사견을 품지 않는다.

행修하여 사람 가운데 고통과 즐거움苦樂을 받는受 경계境界요,

7에 아수라법계阿修羅法界란 하품下品의 10선十善을 행行하여 신통력의 자재通力自在를 얻은得, 사람이 아닌非人 경계境界요,

8에 아귀법계餓鬼法界란 하품下品의 5역五逆이나 10악十惡을 범犯하여 배고프고 목마른飢渴 고통苦을 받는受 악귀惡鬼의 경계境界요,

9에 축생법계畜生法界란 중품中品의 5역五逆[958]이나 10악十惡을 범犯하여 먹고 먹히는呑噉殺戮 고통苦을 받는受 짐승畜類의 경계境界요,

10에 지옥법계地獄法界란 상품上品의 5역五逆과 10악十惡을 범犯하여 춥고 더움을 울부짖는寒熱叫喚 고통苦을 받는受 최하最下의 경계境界라,

요要컨대 과보를 받는感報 계분界分[959]에 10가지十種가 같지 않을不同새, 10법계十法界라 말하나, 이理에 있어 하나의 법계單一法界에 10계十界를 각각 갖추어各具 오직 인법계人法界에서 10법十法의 경계境界를 구분區分하고, 이를 크게 나누면大別 불구경각佛究竟覺의 깨달은 경계悟界와 기타其他 구계九界의 미혹한 경계迷界로 나눌分 뿐 일새 미혹한 경계迷界를 구계九界라고도 총칭總稱하나니 이理(보편적 진리)와 사事(차별적 현상)가 계합契合하니라.

---

958) (五逆) : 5가지의 역죄(逆罪). ①어머니를 살해하는 것. ②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③성자를 살해하는 것. ④부처님의 신체를 상처 입혀 출혈시키는 것. ⑤교단의 화합 일치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

959) 계분(界分) : 욕계(欲界)와 색계(色界)와 무색계(無色界)의 3개 세계. 계(界)는 분(分)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숙어로 하여 계분(界分)이라 함.

제10장　십신十身[960]

『화엄경華嚴經』에서 두 종류二種의 십신十身을 말씀하셨으니 1은 융삼세간십신融三世間十身이요 2는 부처님이 갖추신佛具 십신十身이니

1에 중생신衆生身이란 육도六途의 중생衆生이요 2에 국토신國土身이란 육도중생六途衆生의 의지처依處요 3에 업보신業報身이란 위上의 두 신二身(중생신·국토신)이 태어난生 업인業因[961]일새,

이상以上의 삼신三身(중생신·국토신·업보신)은 물듦(집착·번뇌)染分에 속屬하고 4에 성문신聲聞身이란 사제를 관하는諦觀 등等으로써 열반涅槃을 구求하는 자者요 5에 독각신獨覺身이란 참선參禪 등等으로써 홀로 스스로 수행하여 깨닫는獨覺自修 자者요 6에 보살신菩薩身이란 육도六度 등等으로써 보리菩提를 구求하는 자者요 7에 여래신如來身이란 불도 수행을 원만히 완성하여 부처를 이룬因圓果滿 묘각불신妙覺佛身이요

8에 지신智身이란 부처님 몸에 갖춘佛身所具 깨달음能證의 진실한 지혜實智요 9에 법신法身이란 부처님 몸을 갖춘佛身所具 깨달은 바所證 진리眞理일새 이상以上 육신六身은 정분淨分에 속屬하고, 10에 허공신虛空身이란 물듦과 청정染淨의 둘로 나뉜二分 형상相

960) (十身) :『화엄경(華嚴經)』에서 설하는 십종(十種)의 불신(佛身). 보통은『화엄경공목장(華嚴經孔目章)』에서 보이는 이종(二種)의 십신을 사용함. (1)해경(解境)의 십불(十佛). 이것은 보살의 깨달은 지혜에 의해 모든 것을 부처님으로 본 것으로『화엄경(華嚴經)』27에 나오는 중생신(衆生身)・ 국토신(國土身)・업보신(業報身)・성문신(聲聞身)・벽지불신(壁支佛身)・보살신(菩薩身)・여래신(如來身)・지신(智身)・법신(法身)・허공신(虛空身)을 말함. (2)행경(行境)의 십불(十佛) 이것은 보살의 수행이 완성된 부처의 경계를 가리키는 것으로『화엄경(華嚴經)』37에 나오는 정각불(正覺佛)・원불(願佛)・업보불(業報佛)・주지불(住持佛)・화불(化佛)・법계불(法界佛)・심불(心佛)・삼매불(三昧佛)・성불(性佛)・여의불(如意佛)을 말함.

961) 업인(業因) :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의 원인이 되는 업(業).

을 여읜離 물듦과 청정染淨에 의지한 바所依 주변법계周遍法界[962]로서 모양이 없는無形量 실체實體라 모든 형상諸相이 여읨離을 나타내어表 허공虛空이라 이르는云 것은 융삼세간십신融三世間十身인 바,

이此 십신十身의 제2第二인 국토신國土身은 곧 국토세간國土世間의 근본根本이오, 제1第一인 중생신衆生身과 제3第三인 업보신業報身 제4第四인 성문신聲聞身 제5第五인 독각신獨覺身 제6第六 보살신菩薩身은 중생세간衆生世間이오. 다음後 4신四身(여래신如來身·지신智身·법신法身·허공신虛空身)은 정각세간正覺世間일새, 이 십신十身은 삼세간三世間을 융섭融攝(융통하여 융합하는 것)한 비로정각毘盧正覺(비로자나불)의 본체體임으로 융삼세간融三世間의 십신十身이라 말云하고,

또 이 십신十身은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963]의 깨달음의 본체覺體임을 깨닫는解知 객관所知 경계境임으로 해경解境의 십신十身[964]이라고도 말云하며, 이 십신十身 가운데 제7第七 여래신如來身 위上에 십신十身을 세워서立 부처님이 갖춘佛具 십신十身이라 말云하는

962) (周遍法界) : 법신대일여래(法身大日如來)의 공덕이 널리 무변(無邊)의 일체 만유(萬有)에 미치는 것.

963)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 빛나는 것의 음역. 원래는 태양의 뜻으로 불지(佛智)의 광대무변함을 상징, 화엄교의 본존. 무량겁해(無量劫海)에 공덕을 닦아 정각(正覺)을 취하는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의 교주. 천엽(千葉)의 연화(蓮華)에 앉아 오른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왼손은 여원인(與願印)을 함.『화엄경(華嚴經)』과『범망경(梵網經)』에서 설함. 법상종에서는 노사나(盧舍那)·석가불(釋迦佛)을 수용(受用)하여 변화이신(變化二身)이라 하고, 비로사나불(毘盧舍那佛)을 자성신(自性身)이라 하여 구별하고, 천태종에서는 비로사나불(毘盧舍那佛)·노사나불(盧舍那佛)·석가불(釋迦佛)을 법신(法身).보신(報身).응신(應身)의 삼신(三身)에 배치하여 구경(究竟)의 묘경(妙境)에 현현(顯現)하는 것을 비로사나불(毘盧舍那佛)이라 함. 밀교에서는 대일여래(大日如來)와 동체라 함.

964) 해경십불(解境十佛)[해경십신(解境十身)][융세간십신(融世間十身)] : 해(解)란 깨닫는 것. 오해조료(悟解照了)의 뜻. 화엄종의 교의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보면 모든 것이 부처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부처의 십신체(十身體)를 세움. 행경십불(行境十佛)의 상대어. 또는 해경십신(解境十身)·융세간십신(融世間十身)이라고 함. 화엄종에서 진실한 지해(智解)로써 법계(法界)를 볼 때에는 만유(萬有)는 모두 불신(佛身)이라 하여, 이것을 10종으로 나눈 것. 중생신(衆生身)·국토신(國土身)·업보신(業報身)·성문신(聲聞身)·연각신(緣覺身)·.보살신(菩薩身)·여래신(如來身)·지신(智身)·법신(法身)·허공신(虛空身). 화엄(華嚴)의 깨달음에 의하면 중생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부처임. 유정비정동시성도(有情非情同時成道)라 함.

바, 이 십신十身에 취就하여 경전 가운데經中 세 곳三處에서 말씀說하신 이름名字이 조금 다르나稍異 구경舊經(60화엄)26의 말씀하신 바所說에 의거據하건대,

1에 보리신菩提身이란 뒤後에 정각불正覺佛이라 말云하여 범어梵와 한자漢가 서로 다를相異 뿐이며 팔상성도八相成道의 바른 깨달음正覺을 나타내어 보이신示現 부처님 몸佛身이라 세간世間에 머무르시되住 열반涅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不着 생사生死에도 집착하지 아니不着하시며 집착함이 없는無着 길道에 오르셔乘 바른 깨달음正覺을 크게 이루大成었으므로 무착불無着佛이라 정각불正覺佛이라고도 말云하나 그 뜻意은 같고,同

2에 원신願身이란 뒤에 말하되後云 원불願佛로서 도솔천兜率天에 태어나신生 원불신願佛身이요

3에 화신化身이란 뒤에 말하되後云 화불化佛 또는 열반불涅槃佛로서 왕궁王宮에 태어나신生 화신化身인 바 화化란 열반涅槃을 반드시 보이기 때문이요,必示

4에 주지신住持身이란 뒤에 말하되後云 주지불住持佛 또는 지불持佛로서 멸후滅後에는 법신사리法身舍利[965]로써 불법佛法을 주지住持[966]함이요

5에 상호장엄신相好莊嚴身이란 뒤에 말하되後云 업보불業報佛로서 끝없는無邊 상호相好로써 장엄莊嚴하는 불신佛身인 바 이는 곧 만

965) (法身舍利) : 부처님이 설한 중도실상(中道實相)의 진리.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정리해 둔 경권(經卷).

966) 주지(住持) : 안주하여 법을 보존(保存)한다는 뜻.

행萬行의 업인業因(선악의 과보를 일으키는 원인)에 응답應酬한 공덕功德인 업보業報의 불신佛身이요

6에 세력신勢力身이란 뒤에 말하되後云 마음에서 나타나는 부처님心佛으로서 부처님佛의 자비한 마음慈心으로써 일체一切를 거두어 살펴 다스리기攝伏 때문이요,

7에 여의신如意身이란 신역新譯(80화엄)의 의생신意生身이오 뒤에 말하되後云 여의불如意佛[967]로서 지전地前, 지상地上의 보살菩薩에 대對하여 뜻대로如意 나타내어 보이시는現示 부처님 몸佛身이요,

8에 복덕신福德身이란 뒤에 말하되後云 삼매불三昧佛로서 삼매三昧에 항상 머무르시니常住 삼매三昧는 곧 최상最上의 복덕福德이기 때문이요,

9에 지신智身이란 뒤에 말하되後云 성불性佛[968]로서 사지四智 등等 본래 있는本有 성품 덕性德을 갖추고具 계시기 때문이요,

10에 법신法身이란 뒤에 말하되後云 법계 부처님法界佛으로서 지신智身[969]의 깨달은 바所了의 본성本性인 바,

이를 법신法·응신應·화신化 삼신三身에 나뉘면配 법신法身과 지신智身은 법신法身이요, 세력신勢力身·여의신如意身·주지신住持身·보리신菩提身은 응신應身이요, 화신化身·상호장엄신相好莊嚴身·원

967) (如意佛) : 화엄교학에서 설하는 행경십불(行境十佛)의 하나. 부처님은 자재신력(自在神力)이 있어 뜻대로 되는 것.

968) 성불(性佛) : 화엄종에서 설하는 행경십불(行境十佛)의 하나. 불변의 진리를 조명하는 지혜를 그 실체로 하는 부처님. 법신(法身).

969) 지신(智身) : 화엄종의 교학에서 말하는 해경십불(解境十佛)의 하나. 완전한 지혜를 불신(佛身)으로 하는 것.

신願身・복덕신福德身은 화신化身이며, 또 이 십신十身을 위上의 해경십신解境十身에 대對하여 행경십신行境十身이라 말하니 수행修行하여서 감득感得하는 부처님佛의 십신十身이시기 때문이라.

제11장 진여眞如

진여眞如란 범음梵音[970]의 부다다타다部多多他多로서 『금강경金剛經』[971]의 범본梵本에 진여성眞如性이라 번역譯하니 진眞이란 진실眞實의 뜻義이요 여如란 여상如常(변천하지 않는)의 뜻義이라.

모든 존재諸法의 본성體性이 허망虛妄함을 여읜離 진실眞實이기 때문에 진眞이오, 참 성품眞性이 항상 머물러常住 변화하지도 않으며 고쳐지지도 않기不變不改 때문에 여如니 혹或은 원성실성圓成實性[972]이라, 법성法性이라, 실상實相이라, 불성佛性이라, 여래장如來藏이라, 법계法界라, 법신法身이라,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라고도 말하는데 본체는 같으나同體 이름은 다른異名 바 『기신론起信論』에 소위所謂 진생미분眞生[973]未分(未分 : 나누어지지 않은)의 일심一心인 일

970) (梵音) : 브라흐만의 좋은 음성. 범왕(梵王)의 음성이라는 뜻.

971)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금강경(金剛經)』] :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금강경(金剛經)』이라고도 한다. 그 내용은 석존께서 사위국에 있는 기원정사에서 수보리 등을 위하여, 처음에 경계가 공(空)함을 말하고, 다음에 혜(慧)가 공(空)함을 보이고, 뒤에 보살공(菩薩空)을 밝힌 것으로, 공혜(空慧)로써 체(體)를 삼고 일체법 무아의 이치를 말한 것이다. 이 경은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강설하였고, 특히 선종에서 중요시 여긴 것으로 구마라집 외에 여러 사람이 번역을 하였는데, 북위(北魏) 보리유지(菩提流支)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수나라 달마급다(達磨笈多)의 『금강능단반야바라밀경(金剛能斷般若波羅蜜經)』, 진나라 진제(眞諦)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당나라 현장(玄奘)의 『능단금강반야바라밀다경(能斷金剛般若波羅蜜多經)』, 당나라 의정(義淨)의 『능단금강반야바라밀경(能斷金剛般若波羅蜜經)』 등의 5가지가 있으며 이는 인도에서도 특히 유가사파(瑜伽師波)에서 연구되어 그 주석서로 범어원전, 한역, 서장어역 등이 현재 전하고 있다.

972) 원성실성(圓成實性) : 삼성(三性)의 하나. 진여(眞如)・실상(實相)・법계(法界)・법성(法性)・열반(涅槃)은 모두 동체이명(同體異名)임. 원만(圓滿)・성취(成就)・제법(諸法)・공덕(功德)의 실성(實性)이 되므로 원성실성이라 함. 그 갖춘 덕(德)을 따르는 것.

973) 진생이문(眞生二門) :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설한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을 합하여 진생이문이라 한다. 곧 만유의 본체인 중생심의 이면(二面)을 나타낸 것으로 절대평등의 이체(理體)인 심진여문과 무명망집으로 일어난 생멸심과 온갖 차별현상인

진여一眞如가 이것이요是 이진여二眞如라(진여를 2종으로 나눈 것) 함은 여러 가지가多種 있으니,

1에는 수연진여隨緣眞如와 불변진여不變眞如로서 무명無明의 인연緣에 따라隨 9계九界[974]의 망령된 법妄法을 행起할새 수연진여隨緣眞如요 인연에 따라隨緣 망령된 법妄法을 이루되成 그 참 성품眞性은 변함이 없을不變새 불변진여라,不變眞如 인연을 따르는隨緣 의변義邊[975]으론 진여眞如가 곧 만법萬法이요 불변不變의 의변義邊으론 만법萬法이 곧 진여眞如라 하니 화엄종교華嚴終教와 천태별교天台別教에서 이상已上 말하는 바所談요,

2에는 공진여空眞如와 불공진여不空眞如로서 진여眞如의 염법染法을 여읨離이 밝은 거울明鏡과 같을如새 공진여空眞如요 진여眞如의 정법淨法에 일체一切를 갖춤具이 밝은 거울明鏡에 만상萬像을 나타냄現과 같을如새 불공진여不空眞如라 하니 『기신론起信論』 등等의 말한 바所說요,

3에는 청정진여淸淨眞如와 염정진여染淨眞如로서 이此는 위上의 수연진여隨緣眞如와 불변진여不變眞如의 다른 이름異名이니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976] 3에서 나타냄出이요,

4에는 유구진여有垢眞如와 무구진여無垢眞如로서 중생이 갖춘

생멸문을 가리킴.

974) (九界) : 10계중 불계(佛界)를 제외하고 나머지 9계. 즉 지옥에서 보살계에 이르기까지의 9계를 말함. 이들 9계는 불계(佛界)에 상대한 방황의 경계임.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수라(修羅)・인간(人間)・천상(天上)・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菩薩).

975) 의변(義邊) : 도리(道理)의 가[邊]. 의리(義理)의 변방(邊方)을 말함.

976)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 : 10권. 신라의 월충이 저술하였다는 설과 인도의 용수보살이 저술하였다는 설이 양립하고 있음. 줄여서 『석론(釋論)』이라 함.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해석한 책.

바衆生所具의 진여眞如를 더러움이 있음有垢이라 말하고 모든 부처님이 나타낸 바諸佛所顯의 진여眞如를 더러움이 없음無垢이라 말함謂이니 『대승지관大乘止觀』 2에 말함說이요,

5에는 재전진여在纏眞如와 출전진여出纏眞如로서 이此는 위上의 유구진여有垢眞如와 무구진여無垢眞如의 다른 이름異名이니 『기신론소起信論疏』에 나타냄出이요,

6에는 생공진여生空眞如와 법공진여法空眞如로서 인아人我의 공空함이 드러나게 되는所顯 진여眞如를 생공生空[977]이라 말하고 법아法我[978]의 공空함이 드러나게 되는所顯 진여眞如를 법공法空이라 말함謂이니 『유식론唯識論』의 말한 바所說요,

7에는 의언진여依言眞如와 이언진여離言眞如로서 진여眞如의 본체體가 본래本來 말言辭의 모양相과 마음과 생각心念의 모양相을 여의었을離새 이언진여離言眞如요 거짓이름假名의 말言說에 의지依하여 그 형상相이 드러날顯새 의언진여依言眞如니 역시亦是 『기신론起信論』의 말 한 바所說요,

8에는 안립진여安立眞如와 비안립진여非安立眞如로서 이는 앞前의 의언진여依言眞如와 이언진여離言眞如의 다른 이름異名이니 『탐현기探玄記』 등等의 말한 바所說요,

9에는 상대진여相待眞如와 절대진여絶待眞如로서 이는 위上의 안립진여安立眞如와 비안립진여非安立眞如의 다른 이름異名이니 『화엄

977) (生空)[중생공(衆生空)][아공(我空)][인공(人空)] : 중생공(衆生空)의 약칭. 또는 아공(我空)·인공(人空)이라고도 함. 중생은 오온(五蘊)이 임시로 화합하여 성립한 것으로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함. 아(我)는 공(空)이라고도 하는 것.

978) 법아(法我) : 제법(諸法)의 자성(自性). 인아(人我)의 대응어. 각종의 법에 실체가 있다고 하는 법집(法執).

대소초華嚴大疏鈔』[979]의 말한 바所說이니라.

제1절 3진여三眞如와 7진여七眞如

1에 무상진여無相眞如란 변계소집遍計所執(망상된 것)의 허상虛相이 없는無 모든 존재諸法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을 말함이요,

2에 무생진여無生眞如란 실제로는 태어남實生이 없는無 모든 존재諸法의 인연으로 태어남因緣生을 말함이요,

3에 무성진여無性眞如란 망령된 생각이 집착하는 바妄情所執의 본성實性이 없는無 말도 없고 생각도 끊어짐言亡慮絶을 말함이니, 이상 3진여三眞如는 『유식론唯識論』에서 말 한 바所說의 3무성三無性[980]에 의지依하여 세운立 것이며,

1에 선법진여善法眞如란 진여眞如가 인연따라隨緣 선법善法을 이룬成 진여眞如요,

2에 불선법진여不善法眞如란 진여眞如가 인연따라隨緣 불선법不善法을 이룬成 진여眞如요,

3에 무기법진여無記法眞如란 진여眞如가 인연 따라隨緣 무기의

---

979) 『 (華嚴大疏鈔)』[『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의 약칭. 90권. 징관이 『화엄대소(華嚴大疏)』를 해석한 것.

980) 삼무성(三無性) : 법상종에서 미(迷)·오(悟)의 일체 모든 법을 유(有)의 관점에서 변계(遍計)·의타(依他)·원성(圓成)으로 나눔에 대하여, 공(空)의 관점에서 3무성을 세우는 것. ①상무성(相無性) :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의 것은 미정(迷情)의 앞에 나타나는 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니, 노끈을 잘못 보아 뱀으로 여기지만 뱀의 자성이 없는 것. ②생무성(生無性) : 여러 인연에 의하여 성립되는 의타기성(依他起性)의 것은 일시적 가현(假現)한 모양에 불과하여 실성(實性)이 없으니, 노끈은 삼[麻]과 실체가 없는 것. ③승의무성(勝義無性) : 진여는 원만 상주하는 것으로 만유의 근원인 원성실성, 곧 절대법이므로 아무런 모양도 없음을 말함. 삼[麻])에서 노끈과 뱀의 모양을 인정하기 어려움에 비유한 것. →삼성(三性)

법無記法[981]을 이룬成 진여眞如니, 이상 3진여三眞如는 『잡집론雜集論』[982]에 드러남出이니라.

그리고 『해심밀경解深密經』 <분별유가품分別瑜伽品>과 『유식론唯識論』 8에 7진여七眞如를 설명說하니 1에 유전진여流轉眞如란 유위법有爲法의 쉼 없는 변천流轉의 실성實性(본성)이요,

2에 실상진여實相眞如란 이무아二無我(人無我와 法無我) 경계境의 실성實性(본성)이요

3에 유식진여唯識眞如란 염정법染淨法 유식唯識의 실성實性이요,

4에 안립진여安立眞如란 고제苦諦의 실성實性(본성)이요,

5에 사행진여邪行眞如란 집제集諦의 실성實性(본성)이요,

6에 청정진여淸淨眞如란 멸제滅諦의 실성實性(본성)이요,

7에 정행진여正行眞如란 도제道諦의 실성實性인 바 유전流轉·안립安立·사행邪行의 세 가지 진여三眞如는 부처님佛에게 합당하지 아니不當하고, 실상實相·유식唯識·청정淸淨의 세 가지 진여三眞如는 근본지根本智[983]의 경계境이며, 나머지餘의 4진여四眞如는 후득지後得智[984]의 경계境라 전문詮門에 요약要約한 뜻의 설명義說으로서 7진여七眞如를 설명說하나, 설명詮을 폐廢하고 진여如의 본체體를 논論하면 7이 곧七卽 하나一如[985]니라.

---

981) (無記法) : 무기(無記)의 법(法)인 것. 선(善)도 악(惡)도 아닌 것.

982)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아비달마잡집론(阿毘達磨雜集論)』][『잡집론(雜集論)』][『대법론(大法論)』] : 16권(卷). 안혜(安慧)보살이 짓고 당(唐)의 현장(玄奘)이 번역함. 약하여 『아비달마잡집론(阿毘達磨雜集論)』·『잡집론(雜集論)』·『대법론(大法論)』이라 함. 무착(無着)의 『대승아비달마집론(大乘阿毘達磨集論)』을 해석한 것.

983) 근본지(根本智)[정지(正智)][진지(眞智)][무분별지(無分別智)] :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지혜. 정지(正智)·진지(眞智)·분별지(無分別智)와 같음. 나중에 후득지(後得智)를 생기게 하는 기본이 되므로 이처럼 말함.

984) 후득지(後得智)[여량지(如量智)][권지(權智)][속지(俗智)] : 근본지(根本智)보다 나중에 얻어지는 지(智). 중생제도(衆生濟度)에 작용하는 지혜. 근본지(根本智)의 반대어. 또는 여량지(如量智)·권지(權智)·속지(俗智). 근본지에 의하여 진리를 깨달은 뒤에, 다시 분별하는 얕은 지혜를 일으켜서 의타기성(依他起性)의 속사(俗事)를 요지(了智)하는 지혜.

제2절 보살십지菩薩十地 소득所得의 십진여十眞如

* 보살이 십지에서 얻는 열 가지 진여

1에 변행진여遍行眞如란 아(공)·법(공)我法두 공二空의 나타난 것所顯으로서 일법一法에 모든 존재諸法를 함장含藏할새 모든 행遍行이 아님이 없기 때문이요, * 遍 : 두루 편, 변

2에 최승진여最勝眞如란 끝없는無邊 덕德을 구족具足하여 일체법一切法에서 가장 수승最勝하기 때문이요,

3에 승류진여勝流眞如란 이 진여眞如 소류所流의 교법敎法이 지극至極히 수승殊勝하기 때문이요,

4에 무섭수진여無攝受眞如란 아집我執 등等의 매임繫屬이 없기無 때문이요,

5에 무별진여無別眞如란 안眼 등等 이류異類[986]의 차별差別이 없기無 때문이요,

6에 무염정진여無染淨眞如란 본래의 성품本性이 원래元來 물들지 아니無染할새 다시 세척하여 청정洗淨하게 할 수 없기無 때문이요,

7에 법무별진여法無別眞如란 모든 존재가諸法 가지가지種種로 안립安立하되 그 본성性에 있어 다름別異이 없기 때문이요,

---

985) 일여(一如) : 진여(眞如)의 이치(理致)가 평등(平等) 무차별(無差別)하여 둘이 아니고 하나임.

986) (異類) : 서로 다른 생류(生類).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축생, 아귀, 그 밖에 다른 것.

8에 부증감진여不增減眞如란 청정함과 물들음淨染에 따른隨 증감增減의 집착執을 여읜離것으로 이의 또 다른 이름又名인 상토자재소의진여相土自在所依眞如를 깨달으면證得已 몸 형상身相을 나타내고現 국토國土를 나타냄現에 자재自在를 얻기得 때문이요.

9에 지자재소의진여智自在所依眞如란 이 진여眞如를 깨달으면證得已 무애해無碍解[987]의 자재自在를 얻음得으로 써요

10에 업자재등소의진여業自在等所依眞如란 이 진여眞如를 깨달으면證得已 일체一切 신통神通의 작업다라니정문作業多羅尼定門에서 모두皆 자재自在를 널리 얻기普得 때문이요,

진여眞如의 본성性은 진실로 차별이 없지만實無差別 수승한 덕勝德에 따라隨 10가지十種를 세우立니라

천태가台家는 이를 별교別教의 십지十地에서 얻은 바所得라 말하고, 법화法華에서 말 한바所說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唯佛與佛 능히乃能 궁구하여 다하신窮盡 제법실상諸法實相[988] 여시如是 등等의

---

987) (無碍解)[무애변(無碍辯)][사무애변(四無碍辯)][사무애지(四無碍智)][사무애해(四無碍解)][사변(四辯)] : 무애변(無碍辯)이라 함. 사무애변(四無碍辯·사무애지(四無碍智)·사무애해(四無碍解)라고도 함. 사변(四辯)이라 줄여서 말함. 네 종류의 장애 없는 자유, 자재로운 이해 표현능력이라는 뜻. 불·보살의 설법에 있어서 지변(智辯)을 뜻의 작용이라고 하는 점에서 해(解), 혹은 지(智)라 함. ①법무애(法無碍) : 가르침에 막힘이 없는 것. ②의무애(義無碍) : 가르침이 나타내는 뜻의 내용을 알아 막힘이 없는 것. ③사무애(辭無碍) 또는 사무애(詞無碍) : 제방(諸方)의 언어에 통달하여 자재로운 것. ④낙설무애(樂說無碍) 또는 변무애지(辯無碍智) : 이상의 세 종류의 지(智)로서 중생을 위해 자재로 설하는 것.

988) 제법실상(諸法實相) : 우주(宇宙) 간(間)의 모든 사물(事物)이 진실(眞實)한 자태(姿態)로 있는 일. 인연(因緣)에 의(依)하여 이루어진 모든 현상(現象)인 제법은 일시적(一時的)인 것으로 실체(實體)가 없으며 제법의 본질(本質)은 공리(公理), 즉 실상(實相)이라는 뜻. 대승불교(大乘佛教)의 표식으로 모든 존재(存在)의 평등(平等)한 본성(本性). 종파(宗派)에 따라 해석(解釋)이 다름. 진실상(眞實相)

십여시十如是를 원교圓敎의 십진여十眞如라 이르며稱, 십여시十如是와 십진여十眞如란 이름과 뜻名義이 서로 같다相同고 말하고 이를 무작無作[989]의 무작無作이라 말하나謂 십진여十眞如는 몸으로 증명身證하는 경계境界요 십여시十如是는 도를 깨닫는悟道 경계境界니라.

그리고 1에 진여眞如 2에 법계法界 3에 법성法性 4에 불허망설不虛妄說 5에 불변이성不變異性 6에 평등성平等性 7에 이생성離生性 8에 법정法定 9에 법주法住 10에 실제實際 11에 허공계虛空界 12에 부사의계不思議界 등等을 12진여十二眞如라 혹或은 12무위十二無爲라, 12공十二空이라, 이름名하니 이는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증명身證[990]心悟하는 증오證悟의 경계境界니라.

제 12장 인忍

『유가론瑜伽論』[991]에 「어찌하여 인이라 이름 하는가云何名忍 스

989) (無作)[무위(無爲)] : 작용이 없는 것.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작위(作爲)가 없는 것. 무위(無爲).

990) 신증(身證) : 아직 몸이 남아 있으므로 몸으로 그것을 증명한다는 뜻. 『성실론(成實論)』에서 말하는 27현성(賢聖)의 하나. 멸진정(滅盡定)에 들어가 몸으로 적정락(寂靜樂)을 얻은 불환과(不還果)의 성자를 말함.

991)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 100권. 미륵보살이 설(說)한 것을 당나라 현장이 번역함. 삼승(三乘)의 행인(行人)을 유가사(瑜伽師)라함. 유가사가 의(依)하고 행(行)해야 되는 경계(境界)의 17취(聚)인 유가사지(瑜伽師地)를 유가사의 지(地)라 한다. 유가사가 행(行)할 17지(地)를 밝혔으므로 유가사론이라 함. 17지(地)는 제1(第一) 오식신상응지(五識身相應地)에서 17 무여의지(無餘依地)에 이르는 것. 『현응음의(玄應音義)』 20에 「유가(瑜伽)는 번역하여 상응(相應)이라 하며 일체(一切)의 승(乘)·경(境)·행(行)·과(果)등의 소유(所有)한 제법(諸法)을 모두 상응(相應)이라 함. 경(境)은 마음과 상응(相應)하므로 경상응(境相應)이라 부르며, 행(行)은 일체행(一切行)을 말하며 이 행(行)과 이(理)가 상응하므로 행상응(行相應)이라 하고, 과(果)는 삼승성과(三乘聖果)를 말하며 이는 과위(果位)의 모든 공덕이 다시 서로 부순(符順)하므로 과상응(果相應)이라 한다. 사지(師地)의 사(師)는 삼승행자(三乘行者)를 말하며 문사(聞思)등에 따라 차례로 습행(習行)한다. 이와같이 유가(瑜伽)의 수분(隨分)이 만족하여 전전(轉輾)하여 제중생(諸衆生)을 조화(調化)하므로 유가사라 하고 사(師)는 사람에게 도(道)를 가르친다는 말이다. 구경(舊經) 가운데 관행행자(觀行人者)라 한 것이며 지(地)는 경계에 의(依)하여 행(行)하는 것. 혹은 소섭(所攝의 뜻이라 하며 이는 유가사가 행(行)하는 경계이므로 지(地)라 함. 곧 17지(地)」라 하였음. 불(佛)이 서거(逝去)한지 천년(千年) 중(中)에 무착보살(無著菩薩)이 아유타국(阿踰陀國) 강당(講堂)에서 야마천에 올라가 미륵보살에게 받아서 밤낮으로 대중을 위하여 선설(宣說)한 것. 주석서로는 당나라 현장(玄奘) 번역의 『유가사지론석(瑜伽師地論釋)』, 당나라 규기(窺基)의 『

스로 분하여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서自無憤勃 다른 이의 원한을 갚지 아니할不報他怨새 까닭에故 인이라 이름한다名忍」라고 하였고,『유식론唯識論』9에「인忍이란 성내는 마음 없이以無嗔 정진精進하여 지혜를 살피되審慧 그곳及彼에서 일어난所起 삼업三業에 처한 본성處性」이라 하였고,『대승의장大乘義章』9에「혜심慧心[992]의 안법安法함이 이름 하여 인名之爲忍이라 한다」하였고,

같은同(대승의장) 11에「법法(진리)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에 안주安住함이 인忍이라 한다」하였으니, 도리道理에 안주安住하여서 마음心이 움직이지 아니不動함이 인忍일새 도리道理를 본체體로 하여 성내지도 아니하고不嗔 괴로움도 없음不惱이 두二인忍 가운데中 중생인衆生忍이오

그 무생無生[993]의 법리法理에 안주安住하여 마음心이 움직이지 아니不動함이 무생법인無生法忍이며, 또 질병疾病이나 물水과 불火이나 칼刀과 몽둥이杖에 많은 고통衆苦이 핍박逼迫하되 법法에 머물러住 이를 잘 견디어 내어安忍 편안히恬然 움직이지 아니不動함이 앞前의 중생인衆生忍인 동시同時에 안수고인安受苦忍[994]이요,

법法을 관찰觀察하여 마음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의 이理에 안주安住함이 앞前의 무생법인無生法忍인 동시同時에 관찰법인觀察法忍[995]이며, 저彼 중생인衆生忍인 안수고인安受苦忍에 두二인忍이 또

(瑜伽論略纂)』·『유가론겁장송(瑜伽論劫章頌)』, 신라 둔륜(遁倫)의 『유가론기(瑜伽論記)』 등이 있음.

992) 혜심(慧心) : 몸과 마음이 명료하여 능히 사리를 달관하는 것. 마음이 현명하다.

993) 무생(無生) : 모든 법의 실상(實相)은 나고 사라짐 없다는 뜻.

994) 안수고인(安受苦忍) : (1)3인(忍)의 하나. 질병·물불[水火]·칼 등의 고통이 있더라도 참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 (2)부처를 이루겠다고 하는 큰 뜻을 세워 추위·더위 등의 고통을 참는 것.

995) 관찰법인(觀察法忍) : 보살이 닦는 2인(二忍)의 하나. 모든 법의 체성(體性)이 불생불멸(不生不滅)함을 관찰하고 안연인가(安然忍可)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함.

있으니有 사람人을 공경恭敬·공양供養함에 있어서 잘 참아서能忍 집착執着하지 않음이 하나一요 사람人의 성냄嗔과 욕설罵·때림打과 훼방害으로 부터 성냄嗔과 원한恨이 일어나지 아니함不生이 그 둘二이며, 무생법인無生法忍인 관찰법인觀察法忍에 두二 인忍이 역시亦 있으니有 하나一는 비심법非心法(非心 : 마음에 없다란. 의미)의 추위와 더위寒熱, 바람과 비風雨, 배고픔과 목마름飢渴, 늙고老·병들고病·죽음死 등等으로 부터 잘 견디어能忍 괴로움과 원망惱怨이 없으며, 둘二은 심법心法(마음의 본체)인 성냄嗔恚과 걱정과 근심憂愁 등等의 모든 번뇌諸煩惱로 부터 싫어하거나 멀리함厭棄이 없음이라.

그러나 인욕忍辱에 한계限가 있고 법法을 알지 못하면不知 범부凡夫요 법을 관찰하되 인욕하지 못하면觀法而不能忍 소승小乘이며, 능히 잘 인욕하여 마음이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아니하면能忍而安住不動 대승大乘인 동시同時에 바야흐로 가히方可謂之 인忍이라 할 수 있다.

제1절 삼인三忍[996]과 사인四忍[997]

삼인三忍에 여러 가지種種가 있으나 이는 『무량수경無量壽經』[998]

---

996) (三忍) : (1)진리를 깨닫는 3종류의 지혜. ①법인(法忍) : 진리를 깨닫는 지혜. ②신인(信忍) : 신심에 의해 얻은 지혜. ③순인(順忍) : 진리에 순종하는 지혜. (2)『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 위제희부인(韋提希夫人)이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 선도(善導)는 다음 3인(忍)이라 함. 희(喜)와 오(悟)와 신(信). 신심(信心)의 기쁨과 불지(佛智)를 깨닫는 마음과 본원(本願)을 믿는 생각에 마음이 귀결되는 것.

997) 사인(四忍) : 인(忍)은 인가(忍可)·안인(安忍)의 뜻으로, 보살이 도리에 안주(安住)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무생법인(無生法忍).무멸인(無滅忍).인연인(因緣忍).무주인(無主忍). ①무생법인 : 만유제법의 자성은 공공적적(空空寂寂)하여 본래 무생(無生)이라고 인가하는 것. ②무멸인 : 무생과 함께 무멸(無滅)이라고 인가하는 것. ③인연인 : 만유는 모두 인연이 화합하여 가(假)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본래 자성이 없다고 인가하는 것. ④무주인 : 만유제법은 본래 무주(無主)라고 인가하여 마음에 집착이 없고 다른 생각이 섞이지 않은 것.

998) 『무량수경(無量壽經)』[『대무량수경(大無量壽經)』][『대경(大經)』][『쌍권경(雙卷經)』] : 2권. 조위(曹魏)

제48원第四十八願[999]에 성문자聲聞者가 삼법인의 원을 얻는다는得三

강승개(康僧鎧)번역. 『대무량수경(大無量壽經)』·『대경(大經)』·『쌍권경(雙卷經)』이라고도 한다. 정토 3부경의 하나. 석존이 왕사성의 기사굴산에서 아난을 대고중(對告衆)으로 그 출세의 본뜻인 타력(他力)의 법문을 설한 것. 상권에는 여래 정토의 인과(因果), 곧 아미타불이 본디 법장보살이던 때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의 처소에서 48의 큰 서원을 세우고 영겁을 두고 수행하던 것과, 그 수행에 따라 서원이 이루어져 지금은 아미타불이 되어 서방(西方)에 정토를 마련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나무아미타불"의 6자 명호를 듣고 믿게 하여 구제하는 것을 말하다. 하권에서는 중생이 왕생하는 인과(因果), 곧 중생이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는 데는 염불왕생과 제행(諸行)왕생의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 중생이 정토에 왕생한 뒤에 받는 여러 가지 과덕(果德)을 밝히다. 이 경은 예전부터 5존(存) 7결(缺)이라 하여, 전·후 12회에 걸쳐 중국에서 번역되었다고 전한다. 근년에 네팔에서 이 범본(梵本)이 발견되어 막스 뮐러(Max Müller)가 이를 영역(英譯)하여 간행. 이 경은 중국에 전해지자 티베트에서도 번역되어 전파.

999) 사십팔원(第四十八願) : 아미타불이 과거세에 법장보살이었을 때에 세웠던 원(願)을 말함. 요혜(了慧)의 『 (無量壽經鈔)』에 의하면, (1)무삼악취원(無三惡趣願), (2)불편악취원(不便惡趣願), (3)실개금색원(悉皆金色願), (4)무유호추원(無有好醜願)), (5)숙명지통원(宿命智通願), (6)천안지통원(天眼智通願), (7)천이지통원(天耳智通願), (8)타심지통원(他心智通願), (9)신경지통원(神境智通願), (10)속득루진원(速得漏盡願), (11)주정정취원(住正定聚願), (12)광명무량원(光明無量願), (13)수명무량원(壽命無量願), (14)성문무수원(聲聞無數願), (15)권속장수원(眷屬長壽願), (16)무제불선원(無諸不善願), (17)제불칭양원(諸佛稱揚願), (18)염불왕생원(念佛往生願), (19)내영인접원(來迎引接願), (20)계념정생원(係念定生願), (21)삼십이상원(三十二相願), (22)필지보처원(必至補處願), (23)공양제불원(供養諸佛願), (24)공구여의원(供具如意願), (25)설일체지원(說一切智願), (26)나라연신원(那羅延身願), (27)소수엄정원(所須嚴淨願), (28)견도량수원(見道場樹願), (29)득변재지원(得辨才智願), (30)지변무궁원(智辨無窮願), (31)국토청정원(國土淸淨願), (32)국토엄식원(國土嚴飾願), (33)촉광유연원(觸光柔軟願), (34)문명득인원(聞名得忍願), (35)여인왕생원(女人往生願), (36)상수범행원(常修梵行願), (37)인천치경원(人天致敬願), (38)의복수염원(衣服隨念願), (39)수락무염원(受樂無染願), (40)견제불토원(見諸佛土願), (41)제근구족원(諸根具足願), (42)주정공불원(住定供佛願), (43)생존귀가원(生尊貴家願), (44)구족덕본원(具足德本願), (45)주정견불원(住定見佛願), (46)수의문법원(隨意聞法願), (47)득불퇴전원(得不退轉願), (48)득삼법인원(得三法忍願)이라고 함. 각각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1)극락 정토에는 악한 세계가 없기를 원하며, (2)극락에 왕생하는 사람 악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3)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금색 몸 빛 이루기를 원하며, (4)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모습이 같기 원하며, (5)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숙명통을 성취하기 원하며, (6)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천안통을 얻기 원하며, (7)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천이통을 얻기 원하며, (8)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타심통을 얻기 원하며,(9)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신족통을 얻기 원하며, (10)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나라는 생각이 없기를 원하며, (11)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원하며, (12)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광명이 한량없기를 원하며, (13)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수명이 한량없기 원하며, (14)극락 국토에는 성문(聲門)이 많기를 원하며, (15)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중생마다 장수하기 원하며, (16)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착한 이름 얻기 원하며,(17)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칭찬하기 원하며, (18)열 번의 염불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며, (19)임종할 때에 아미타부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하며, (20)염불하는 모든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며, (21)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묘한 상을 구족하기를 원하며, (22)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일생보처에 오르기를 원하며, (23)새벽마다 시방 세계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를 원하며, (24)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며, (25)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근본 지혜를 얻기 원하며, (26)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부서지지 않는 몸을 얻기 원하며, (27)극락 국토에는 장엄이 한량없기를 원하며, (28)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보배나무를 보고 깨닫기를 원하며, (29)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훌륭한 변재를 갖추기를 원하며, (30)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거룩한 설법 한량없기를 원하며, (31)국토가 청정하여 두루 비치기를 원하며, (32)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거룩한 음성이 두루 하기를 원하며, (33)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광명을 받아 안락을 얻기 원하며, (34)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法忍願 것을 열거擧하여 제1법인第一法忍・제2법인第二法忍・제3법인第三法忍이라 말씀言하실 따름이요, 그其 이름名을 말하지 아니하실不擧새 이에 취就하여 모든 해석諸解이 같지 아니하니,不同 법위法位[1000]는 말하되 「이는 『인왕경仁王經』에 말씀說하신 오인五忍의 처음 3初三으로서 곧 복인伏忍・신인信忍・순인順忍」이라 하였고, 경흥憬興[1001]은 말하되 「이는 복인伏忍 가운데의 하下・중中・상上 삼인三忍」이라 하였고, 현일玄一[1002]은 말하되 「이는 하설下說의 음향인音響忍・유순인柔順忍・무생인無生忍의 3三」이라 했으니 역시亦是 『무량수경無量壽經』에 「극락에 태어나는往生極樂 사람人은 7가지 보배 숲七寶樹林에서 나는 음성音聲을 듣고聞 3가지三種의 인忍을 얻는다得」 하여서,

1에 음향인音響忍이란 소리의 울림音響의 원인由으로 진리眞理

다 생멸 없는 진리를 성취하기 원하며, (35)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모두 다 여자의 몸 받지 않기를 원하며, (36)모두 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성인의 과보를 얻기 원하며, (37)하늘과 사람들이 모두 와서 공경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며, (38)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저절로 의복이 얻어지기를 원하며, (39)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저절로 마음이 조촐하기를 원하며, (40)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보배나무를 보고 무량불토를 보기 원하며, (41)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육근이 구족하기를 원하며, (42)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해탈 얻기를 원하며, (43)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훌륭하고 귀한 몸을 받기 원하며, (44)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모두 다 좋은 마음씨가 구족되기를 원하며, (45)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모두 다 부처님을 지성으로 받들기를 원하며, (46)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모두 다 마음대로 법문을 듣기 원하며, (47)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모두 다 보리에서 물러서지 않기 원하며, (48)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생사 없는 진리를 얻기 원함.

1000) 법위(法位) : 신라 후기의 승려로, 문무왕 때(661 - 681) 경흥(憬興)의 『무량수경연의술문찬(無量壽經連義述文贊)』에 그의 저술이 많이 인용되고 있을 뿐,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음. 저술로는 『무량수경의소(無量壽經義疏)』(2권)가 있으나 전하지 않음.

1001) 경흥(憬興) : 신라 승려. 속성은 수(水). 웅천주(熊天州) 사람. 18세에 출가. 3장(三藏)에 통달.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신문왕 때에 국로(國老)가 되다. 삼랑사(三郎寺)에서 오로지 저술에만 힘쓰다. 그 학설은 대개 법상종(法相宗). 저술로는 『대열반경소(大涅槃經疏)』・『법화경서(法華經疏)』・『구사론초(俱舍論鈔)』・『금광명경약의(金光明經略意)』・『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아미타경약기(阿彌陀經略記)』・『관정경소(灌頂經疏』・『십이문다라니경소(十二門陀羅尼經疏)』・『약사경소(藥師經疏)』・『무량수경연의술문찬(無量壽經連義述文贊)』・『대승기신론문답(大乘起信論問答)』・『유가론소(瑜伽論疏)』・『성유식기(成唯識記)』・『유식추요기(唯識樞要記)』・『유식론폄량(唯識論貶量)』・『현양론소(顯揚論疏)』 등이 있음.

1002) 현일(玄一) : 신라시대의 승려로, 일본의 고기록(古記綠)에 신라의 스님이라 나와 있을 뿐,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음. 저술로는 『법화경소(法華經疏)』・『무량수경기(無量壽經記)』・『관무량수경기(觀無量壽經記)』・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열반경요간(涅槃經料簡)』・『범망경소(梵網經疏)』・『유가론소(瑜伽論疏)』・『중변론요간(中邊論料簡)』 등이 있으나, 『무량수경기(無量壽經記)』 상권만 현존함.

의 깨달음을 얻음悟得이요,

2에 유순인柔順忍이란 이치를 깨달은悟理 지혜의 마음慧心 그대로 진리眞理에 수순隨順할 따름이요,

3에 무생법인無生法忍이란 무생無生의 본성實性을 깨닫고證 모든 형상諸相을 여의離는 도를 깨닫는悟道 것이 극진한 데까지 이름至極이며,- 『사익경思益經[1003]』 4 <인법품忍法品>에 「보살菩薩의 4가지 법四法이 있으니有 계를 범한毁禁 죄罪를 떠나게出 한다」 하시고 보살菩薩의 4가지 인四忍을 말씀說하시니,

1에 득무생인得無生忍이란 일체一切 모든 존재諸法의 스스로의 성품自性이 공적空寂하여 본래本來에 나지 않음不生이요,

2에 득무멸법인得無滅法忍이란 일체一切 모든 존재諸法가 원래元來 나지 않음無生이라 역시亦是 소멸함도 없음無滅이요,

3에 득인연인得因緣忍이란 일체一切 모든 존재諸法가 모두 다皆是 인연因緣의 화합和合에 의지依하여 일어날生 따름일새 스스로의 성품自性이 없기無 때문이요,

4에 득무주인得無住忍이란 모든 존재諸法가 머무르고 집착함住着이 없음無을 무주無住라 하며, 보살菩薩이 이의 네 가지 인四忍을 깨달으면證 능能히 훼범毁犯[1004]과 금계禁戒[1005]의 죄罪를 벗어

1003) 『 (思益經)』[『사익범천소문경(思益梵天所問經)』] : 『사익범천소문경(思益梵天所問經)』의 약칭. 4권. 구마라집이 번역함. 망명(網明)과 사익범천 등을 위하여, 만유제법의 공적한 이유를 말하고, 대승의 실의(實義)를 설하여 소승의 편협함을 파하였음.

1004) 훼범(毁犯) : 계율(戒律)을 손상 시키는 것.

1005) 금계(禁戒) : 계율. 경계. 계율의 규정. 아님을 금지하고 악을 경계하는 것.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

나게 한다超出 하시니 곧 실상참회實相懺悔니라.

제2절 오인五忍[1006]과 십삼관문十三觀門

구역舊譯『인왕경仁王經』 <교화품敎化品>에 「부처님이 대왕에게 말씀佛言大王하시기를 다섯 가지 인五忍이 곧是 보살菩薩의 법法이니 복인伏忍의 상上·중中·하下와 신인信忍의 상上·중中·하下와 순인順忍의 상上·중中·하下와 무생인無生忍의 상上·중中·하下와 적멸인寂滅忍의 상上·하下를 모든 부처님諸佛과 보살님菩薩이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을 수행한修 이름이 된다名爲」 하시고, 같은同(인왕경) <수지품受持品>에 「석가모니大牟尼께서 말씀言하시되 또有 13관문十三觀門[1007]을 수행함에 있어有修行 모든 선남자諸善男子가 대법왕이 되므로爲大法王

습인으로 부터從習忍 금강정에 이르기까지至金剛頂[1008] 모두 법사가 됨皆爲法師이니, 이를 의지依持하여 설 수 있으니建立 너희들汝等

할 계율.

1006) 오인(五忍) :『인왕경(仁王經)』에서 보살의 계위를 5종류로 나눈 것. 복인(伏忍)·신인(信忍)·순인(順忍)·무생인(無生忍)·적멸인(寂滅忍). ①복인(伏忍) : 번뇌를 끊지 못하였으나 관해(觀解)를 익혀 이를 굴복시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지위. 곧 10주(住)·10행(行)·10회향(廻向)의 보살. ②신인(信忍) : 관하는 마음이 진전되어 증득(證得)할 법을 믿고 의심치 않는 지위. 곧 초지(初地)·이지(二地)·삼지(三地)의 보살. ③순인(順忍) : 전의 믿음에 의하여 다시 나은[勝] 지혜를 연마하여 무생(無生)의 증과(證果)에 순하는 지위. 곧 4지(地)·5지·6지의 보살. ④무생인(無生忍) : 제법무생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지위. 곧 7지(地)·8지·9지의 보살. ⑤적멸인(寂滅忍) : 종종의 번뇌를 끊어버리고 청정무위(淸淨無爲) 담연적정(湛然寂靜)에 안주(安住)하는 지위. 곧 10지(地)·등각(等覺)·묘각(妙覺)의 지위.

1007) 십삼관문(十三觀門) :『인왕경(仁王經)』에서 말하는 삼현(三賢)·십성(十聖)의 수행법을 십삼관문이라 한다. 이를 오인(五忍)에 배열하면 복인(伏忍)·신인(信忍)·순인(順忍)·무생인(無生忍)의 각 상·중·하 삼인(三忍)이 12가 되며, 또한 적멸인(寂滅忍)의 하인(下忍)을 더하여 13이 된다.

1008) 금강정(金剛頂) : 금강계의 제경(諸經)과 제회(諸會)의 통칭. 금강계의 법에 십만 게송과 18회를 모두 금강정(金剛頂)이라 한다. 금강에는 견고(堅固)와 이용(利用)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실상의 불가사의한 이체(理體)가 견고하여 상주하며, 여래의 지용(智用)이 예리(銳利)하여 혹장(惑障)을 깨뜨리는 데 비유한 것. 정(頂)은 최상(最上)·존승(尊勝)의 뜻으로 이 법이 모든 대승 가운데서 가장 우수하여 위가 없는 것이 마치 사람의 이마와 같다는 말.

대중大衆은 마땅히 부처님을 공양하듯이應如佛供養 그를 공양하라.而供養之 마땅히應 백만억천百萬億天의 향香과 묘화妙華를 지니고持 받들어라奉上」 하시고 같은同(『인왕경』) 가상嘉祥의(가상(吉藏스님) 소疏[1009]에 「복인伏忍의 상上・중中・하下 자者는 습인習忍이 하下요 성인性忍이 중中이오 도종인道種忍이 상上이라 삼현위三賢位에 있음在이요,

신인信忍의 상上・중中・하下 자者는 초지初地가 하下요 2지二地가 중中이요 3지三地가 상上이며 순인順忍의 상上・중中・하下 자者는 4지四地가 하下요 5지五地가 중中이오 6지六地가 상上이며 무생인無生忍의 상上・중中・하下 자者는 7지七地가 하下요 8지八地가 중中이오 9지九地가 상上이며 적멸인寂滅忍의 상上・하下자者는 10지十地가 하下요 불지佛地(부처님의 경지)가 상上이라」 하였으니

1에 복인伏忍이란 습인習忍・성인性忍・도종인道種忍의 삼현위三賢位에 있는在 보살菩薩이 아직 번뇌煩惱의 종자種子는 끊지 못하나未斷 이를 눌러서制伏 일어나지 못하게不起 하는 인忍이요,

2에 신인信忍이란 초지初地부터 3지三地까지에서 탐하는 번뇌貪惑를 남김없이 끊고斷盡 참 성품眞性을 보아見 바른 믿음正信을 얻는 인忍이요,

3에 순인順忍이란 4지四地부터 6지六地까지 화내는 번뇌嗔惑를 남김없이 끊고斷盡 보리菩提의 도道에 따라順 무생無生의 과果에 향하여 나가는趣向 인忍이요,

---

1009) 『　　(仁王經疏)』[가상소(嘉祥疏)] : 『인왕경소(仁王經疏)』. 삼론종(三論宗)의 개조(開祖)인 길장(吉藏)의 소(疏). 길장이 오랫동안 가상사(嘉祥寺에) 주석하였기 때문에 가상소(嘉祥疏)라 이름 함.

4에 무생인無生忍이란 7지七地부터 9지九地까지 어리석은 번뇌痴惑를 남김없이 끊고斷盡 모든 존재諸法의 무생無生 이치理에 깨달아 들어가는悟入 인忍이요,

5에 적멸인寂滅忍이란 10지十地와 묘각妙覺에서 열반涅槃의 적멸寂滅에 구경究竟(이른. 도달한)한 인忍이라. 인忍은 인가忍可 또는 안인安忍(끝까지 참는 것)의 뜻義으로서 그 이치理를 결정決定하고 움직이지 않을不動새, 13관문十三觀門이란 위上의 14인十四忍 중中, 상上 적멸인寂滅忍의 묘각위妙覺位를 제외除한 13인十三忍의 수행법修法이라. 13관문十三觀門으로써 수행修하는 자者를 대법왕大法王이라 말씀하시고 부처님과 같이 공양如佛供養하라시니라.

제3절 십인十忍과 십사인十四忍

1에 음성인音聲忍이란 상上의 음향인音響忍이요
2에 순인順忍이란 상上의 유순인柔順忍이요
3에 무생인無生忍이란 상上의 무생인無生忍이요

4에 여환인如幻忍이란 모든 존재諸法가 인연因緣에 의지依하여 일어날生새 참된 본성實性이 없이無 변화幻化[1010]하는 본성性이 공적空寂함과 같은猶如양 분명히 통달了達하고 이를 신인信忍함이요,

5에 여염인如焰忍이란 일체一切의 경계境界가 아지랑이陽焰의 본성本性이 공적空寂함과 같은如양 분명히 통달了達하고 이를 신인信忍함이요, * 신인(信忍) : 진리를 확신함.

6에 여몽인如夢忍이란 일체一切의 망심妄心은 꿈같은 경계夢境의

1010) 환화(幻化) : 우주(宇宙) 만물(萬物)이 환상과 같이 변화(變化)하는 일.

진실眞實이 없음無과 같은如양 분명히 통달了達하고 이를 신인信忍함이요,

7에 여향인如響忍이란 일체一切 세간世間의 언어言語 음성音聲은 인연화합因緣和合에 의依하여 일어날生새 골짜기 울림谷響이 진실眞實이 없음無과 같은如양 분명히 통달了達하고 이를 신인信忍함이요,

8에 여영인如影忍이란 색신色身은 오음五陰(五蘊)이 쌓이고 모여積集 이룰成새 본체本體의 없음無이 그림자影와 같은如양 분명히 통달了達하고 이를 신인信忍함이요,

9에 여화인如化忍이란 세간世間의 모든 존재諸法는 없으면서 문득 있고忽無而有 있으면서 도리어 없어지는 것有而還無이, 본체體에 진실眞實이 없기無에 가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化事과 같은如양 분명히 통달了達하고 이를 신인信忍함이요,

10에 여공인如空忍이란 세간世間 출세간出世間 가지가지種種의 모든 존재諸法는 허공虛空에 색상色相이 없음無과 같은如양 분명히 통달了達하고 이를 신인信忍함이니,

이상已上 십인十忍은 『화엄경華嚴經』[1011]에서 명백히 가리킴指掌[1012]과 『삼장법수三藏法數』[1013]에 논論함이오 삼현십성三賢十聖을

1011) 『 (大方廣佛華嚴經)』[『화엄경(華嚴經)』 : 줄여서 『화엄경(華嚴經)』. 크고 방정(方正)하고 넓은 이치를 깨달은 부처님의 꽃같이 장엄한 경이란 뜻. 동진(東晋)의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것은 60권, 당나라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은 80권, 당나라 반야가 번역한 것은 40권(입법계품만). 80권으로 된 것은 39품을 7처 9회에 설하다. 보리장회 6품, 보광명전회 6품, 도리천궁회 6품, 야마천궁회 4품, 도솔천궁회 3품, 타화천궁회 1품, 보광명전회 11품, 또 보광명전회 1품, 서다림회 1품.

1012) 지장(指掌) :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뜻으로 아주 쉽거나 명백함을 이르는 말.

1013) 『삼장법수(三藏法數)』[『대명삼장법수(大明三藏法數)』] : 『대명삼장법수(大明三藏法數)』의 약칭 50

13인十三忍이라 말씀하시고 이에 정각인正覺忍을 더加하여 14인十四忍이라 하심은 『인왕경仁王經』 10에 말씀說 하시니라.

제13장 56위五十六位[1014]와 사만성불四滿成佛[1015]

보살승菩薩乘의 수행 단계階位에 있어 모든諸 경經과 논論에서 말하는所說바가 여러 가지種種로 같지 아니不同하니, 『대일경大日經』에서는 십주十住의 십위十位 또 십지十地를 말씀說하시고, 『승천왕반야경勝天王般若經』[1016]에서는 십지十地의 십위十位만을 말씀說하시고 『금광명경金光明經』에서는 십지十地와 묘각妙覺의 11위位를 말씀說하시고,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에서는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묘각妙覺의 51위位를 말씀說하시고, 일부一部의 『화엄경華嚴經』과 『보살영락경菩薩瓔珞經』 등等에는 등각等覺을 더加하여 52위位를 말씀說하시고,

『수릉엄경首楞嚴經』에는 난煖·정頂·인忍·세제일世第一의 사선

. 명나라의 일여(一如)등이 엮음.

1014) 오십육위(五十六位) : 보살의 단계를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回向), 사선근(四善根), 십지(十地), 등각(等覺), 묘각(妙覺)으로 분류한 것. 『수능엄경(首楞嚴經)』에서 말함.

1015) 사만성불(四滿成佛) : 신만(信滿)·해만(解滿)·행만(行滿)·증만(證滿) 성불을 말함. ① 신만성불 : 10신(信)의 만위(滿位). 곧 최상위에서 만법이 불생불멸하고 청정하고 평등함을 믿어 구할 바가 없는 것. ②해만성불 : 10주(住)의 만위에서 깊이 모든 법의 체성인 진여를 깨달아 생사·열반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두려운 마음과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 ③행만성불 : 등각위(等覺位)에서 무명 번뇌가 모두 끊어져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것과, 수행이 완성되는 것. ④증만성불 : 묘각위(妙覺位)에서 부사의한 불과(佛果)를 증득하는 것.

1016) 『승천왕반야바라밀경(勝天王般若波羅蜜經)』[『승천왕반야경(勝天王般若經)』] : 7권(卷). 반야부(般若部). 보월파수나(普月婆首那) 번역. 『승천왕반야경(勝天王般若經)』이라 한다. 발파라천왕(鉢婆羅天王)을 대고중(對告衆)으로 하여 심심반야(甚深般若)와 그 수습(修習)의 법(法)등을 설(說)한 것.

근四善根을 더하여加 56위位를 말씀說하심에 대對하여, 『유식론唯識論』에는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묘각妙覺의 41위位를 설명說明하고, 『지도론智度論』에는 이에 등각等覺을 더하여加 42위位를 설명說明한 바, 이상已上의 모든 위차諸位(수행단계)를 취就하여 범부凡·성인聖을 분별分別하면, 『대일경大日經』에서 설명한 바所說의 십위十位가운데 처음初 3위三位는 범위凡位요 뒤後 7위七位는 현성위賢聖位며, 『승천왕반야경勝天王般若經』의 십위十位와 『금광명경金光明經』의 11위位는 모두 다 성위聖位며, 『지도론智度論』에서 설명한 바所說의 십위十位 가운데 처음初 2위二位는 범위凡位요 뒤後 8위八位는 현성위賢聖位며, 『유식론唯識論』에서 설명한 바所說의 41위位가운데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의 30三十은 현위賢位요 십지十地 묘각妙覺은 성위聖位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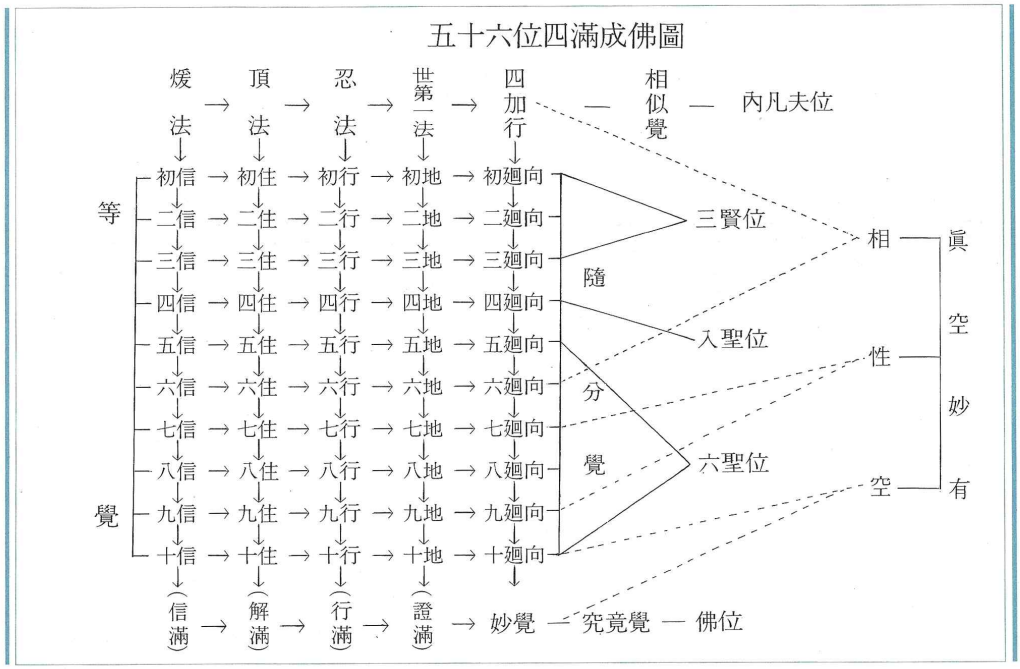
이는 곧 천태별교天台別教[1017]와 화엄종교華嚴終教[1018]의 승위乘位(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단계)에 일치合하나, 만일萬一 두 종二宗(천태별교·화엄종교) 원교圓教의 승위乘位에 의依하면 모두 다悉皆 성위聖位(三乘이 깨달음을 얻는 位) 라, 『지도론智度論』에서 설명한 바所說의 42위位도 이에 의거準하여 알知지오, 화엄華嚴·영락瓔珞 등等의 52위位가운데 처음初 십신十信은 범위凡位(凡夫의 位)요 십주住·십행行·십회향廻向 3위三位는 별교別教와 종교終教에서는 현위賢位요 원교圓教에서는 성위라聖位 하며 십지十地·등等·묘妙의 12위十二位는 이교二教(權教와 實教.頓教와 漸教)나 원교圓教(완전한 가르침)

1017) 별교(別教) : 천태종에서 설하는 화법(化法) 사교(四教)의 제3. 한 보살의 가르침. 점차로 수행하여 단계적인 깨달음을 거쳐 부처가 되기에 이른다. 사교(四教) 중 전후의 삼교와 다른 가르침. 앞의 장(藏)·통(通), 뒤의 원교와 다른 까닭에 별교라고 이름 짓는다.

1018) 종교(終教) : 화엄종에서 내세우는 오교(五教)의 하나. 대승종극(大乘終極)의 가르침의 의미. 진여연기(眞如緣起)를 설명하고 일체의 모든 중생의 성불을 살하고 논(論)한 『능가경(楞伽經)』·『승만경(勝鬘經)』·『기신론(起信論)』·『보성론(寶性論)』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나 성위聖位라 할새 56위五十六位도 이에 의거準하여 알知지라.

요要컨대 모든 설명說이 차이差異남은 곧 수행修·깨달음證에서 먼저先와 나중後을 말함이니, 다음次을 참작參酌하여 먼저 수행修·깨달음證의 원교의 참된 의의圓義를 음미吟味하고자 노력努力할것이요, 십회향十廻向을 십지十地의 앞前과 뒤後에 둠은 인과因果의 차이差가 있을有 뿐이니라.



285 第三篇 首楞嚴二昧圖訣 上

제1절 가행加行의 사선근四善根[1019]

난煖이란 색음色陰의 울타리區宇를 타개打開하는 전상前相(원인)이요 정頂이란 욕계정천欲界頂天인 연려緣慮[1020]의 질다質多[1021] 심상心

1019) 사선근(四善根) :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 성위(聖位)에 도달할 준비하는 네 가지의 위(位)를 말함.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을 말함.

1020) 연려(緣慮) : 마음으로 생각함. 유식설에 의하면 제6식이 대상을 사려하는 것.

1021) 질다(質多) : 마음이라 한역함. 제식(諸識)의 통명(通名)으로 일컬어지지만 유식설(唯識說)에서는 심(心)·의(意)·식(識)을 따로 하여 질다심(質多心)을 제8식의 특별한 이름으로

相을 구름을 걷고披雲 달을 보는見月 격格으로 바로 보는直見 법상法相이요, 인忍이란 이 수행 단계位에서 욕계欲界의 거짓 형상假相은 허공虛空과 같음如을 분명히 통달了達하여 이를 신인信忍함이요

세제일世第一이란 욕계세간欲界世間의 정법頂法[1022]에 안주安住하고 동요動搖가 없어無 세간世間의 제일법第一法일새이니,

구사종俱舍宗[1023]에서는 사제관四諦觀으로써 16행상十六行相[1024]을 관찰觀察하고, 성실종成實宗[1025]에선 무상관無常觀[1026]으로써 오온五

함.

1022) 정법(頂法)[정위(頂位)] : 사선근(四善根)의 제2위. 또는 정위(頂位)라고도 함. 인위(忍位)에 들어 퇴타(退墮)함이 없는 견도(見道)에 이르든지, 또는 난위(煖位)에 빠지든지 하는 중간의 위(位). 동요가 있고 불안정한 선근 가운데, 최상의 선근(善根)을 낳는 절정(絶頂)의 위(位)이고, 전진할까 후퇴할까 하는 경계에 있어, 사제십육행상(四諦十六行相)을 닦는다. 이 위(位)에 이르면 후퇴하여 지옥에 떨어져도 선근을 끊는 일이 없다.

1023) 구사종(俱舍宗) : 세친(世親)이 지은 『구사론(俱舍論)』을 근본 경전으로 하고 세운 종(宗). 소승교에 속한 설일체유부종(說一切有部宗)의 일파. 불멸 후 9백년 경 세친(世親)이 『비바사론(毘婆沙論)』을 연구하여 의심을 품고, 경부(經部)를 배우면서 그 장점을 취하여 『비바사론(毘婆沙論)』을 비평, 마침내 새로운 기축(機軸)을 열다. 그 뒤 덕혜(德惠)·세우(世友).안혜(安慧) 등이 주석서를 지어 한 때 인도에 성행. 진(陳)나라 563년[천가(天嘉) 4년] 진제(眞諦)가 『구사론(俱舍論)』을 번역, 비로소 중국에 전파됨. 현장(玄奘)이 다시 번역하자 『구사론(俱舍論)』의 연구가 성행. 그 문하에 원유(元瑜)·신태(神泰)·보광(普光)·법보(法寶)등이 나서 『구사론기(俱舍論記)』(보광)·『구사론소(俱舍論疏)』(법보) 등을 지어 『구사론(俱舍論)』 연구가에게 좋은 길잡이가 됨.

1024) 십육행상(十六行相) : 사제(四諦)의 경(境)을 관(觀)하는 데에 16가지의 행상(방법)이 있는 것을 말함. 첫째로는 고제(苦諦)에 관하여, 모든 법은 생멸하기 때문에 비상(非常)이며, 핍박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고(苦)이고, 자기를 위한 절대적 근거는 아니므로 공(空)이며, 상주하는 유일한 본체적 존재가 아니므로 비아(非我)라고 관(觀)함. 둘째로는 집제(集諦)에 관하여, 일체의 혹업(惑業)은 고과(苦果)를 낳는 인(因)이며, 고과(苦果)를 나타나도록 하는 집(集)이고, 고과를 상속시키는 생(生)이며, 고과를 성립시키는 연(緣)이라고 관(觀)한다. 셋째로는 멸제(滅諦)에 관하여, 멸제(滅諦)는 육체적 계박(繫縛)이 다한 멸(滅)이며, 번뇌가 요란하지 않은 정(靜)이고, 일체의 과환(過患)이 없는 묘(妙)이고, 모든 액난에서 벗어난 이(離)라고 관(觀)한다. 넷째로는 도제(道諦)에 관하여, 도제(道諦)는 멸로 들어가는 도(道)이며, 정리(正理)에 들어맞는 여(如)이며,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행(行)이고, 생사를 초월케 하는 출(出)이라고 관(觀)한다.

蘊을 관찰觀察하여 비슷한相似 열반지涅槃智가 일어남을生 네 가지 품으로四品 나누어分 하下를 난법煖法, 중中을 정법頂法, 상上을 인법忍法, 상상上上을 세제일법世第一法이라 이름하고, 법상대승法相大乘[1027]은 처음初의 명득정明得定을 난법煖法, 명증정明增定을 정법頂法, 인순정印順定을 인법忍法, 무간정無間定을 세제일법世第一法이라 칭稱하며, 또 성문聲聞·독각獨覺·불佛 삼승三乘에 3품三品의 사선근四善根이 있으니,有 성문聲聞과 부행독각部行獨覺[1028]은 난煖·정頂 두 선근二善根 이생已生[1029]의 수행단계位에서 정각위正覺位에 전입

1025) 성실종(成實宗) : 하리발마(訶梨跋摩)가 지은 『성실론(成實論)』을 근본 경전으로 삼는 종지(宗旨). 4세기경 하리발마가 『성실론(成實論)』을 지은 데서 시작. 412년[후진(後秦) 홍시(弘始) 14년)] 구마라집이 번역. 승예가 강의를 계속하여 도고·승역·법운·지장·혜민 등이 전력을 기울여 선전하여 매우 융성. 수나라 당나라 때 와서는 점점 쇠운에 빠지다.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혜관(慧灌)이 수나라에 가서 가상사 길장에게 삼론종과 성실종의 깊은 뜻을 배워오고, 신라의 원광은 진(陳)나라에 가서 이 종을 전해오고, 원효도 『성실론소(成實論疏)』 10권을 지었다. 이 종의 교의(教義)는 소승 비담(毘曇)의 일파로부터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아공(我空) 밖에 법공(法空)을 말하였으므로, 그 실천문에서는 2공관(空觀)을 철저히 하고, 3종심(種心)을 멸하는 동시에 3계(界)를 여읜다고 하며, 향상수행(向上修行)의 과정을 27위(位)로 나눈다.

1026) 무상관(無常觀) : 모든 것이 무상함을 터득하는 명상.

1027) 법상대승(法相大乘) : 법상종은 대승교이므로 법상대승이라 함. 법상종(法相宗)·유식종(唯識宗)·응리원실종(應理圓實宗)·중도종(中道宗)이라고도 한다. 소의경전(所依經典)은 『해심밀경(解深密經)』·『성유식론(成唯識論)』·『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이다. 인도에서는 무착·천친이 세우고, 중국에서는 현장(玄奘)이 인도의 계현론사(戒賢論師)에게 배워 가지고 와서 규기(窺基)에게 전하다. 규기가 자은사에 있었으므로 일명 자은종(慈恩宗)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원측(圓測)이 당나라에 가서 현장에게 『유식론(唯識論)』·『유가론(瑜伽論)』을 배우고 『유식론소(唯識論疏)』를 지었다. 신라 경덕왕 때에 진표가 금산사에서 계법(戒法)과 점찰법(占察法)을 겸해 닦아 실행하고, 법상종의 종지를 제자 영심(永深)·보종(寶宗)·신방(信芳) 등에게 전하여 법주사.동화사 등에서 크게 떨쳤다. 이 종은 우주 만유의 본체보다도, 현상을 세밀히 분류 설명하였으므로 법상종이라 하며, 유식종이라 함은 온갖 만유는 오직 식(識)이 변해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종파의 주장은 불교의 유식론으로서 만유는 오로지 아뢰야식으로 연기(緣起)한 것이라 한다.

1028) 부행독각(部行獨覺) : 2종 독각의 하나. 여러 사람이 한 곳에 수행하면서도, 교(敎)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는 이들. 동료를 조직하여 수행하는 독각(獨覺).

1029) 이생(已生) : 법(法)이 미래(未來)에 생길 상위(相位)에서 현재위(現在位)에 유지(流至)하는 일찰나(一刹那). 즉 현재(現在)란 말과 뜻이 같음.

轉入하나니 이는 만일萬一 부처를 이루기成佛 전에前 인忍을 얻기 가得 불가不可할새, 이는 악취惡趣[1030]를 이탈已脫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스스로 업력에 의해 태어나게 하는利物化生 것을 할 수 없기不能 때문이라.

그러한 즉,然則 난煖·정頂·인忍의 삼법三法은 중생을 이익利生되게 하는 활동化用이 필요하지 않는不要 독각獨覺으로 바뀌며轉成[1031] 인각독각麟角獨覺[1032]과 부처님佛은 난煖 등等의 선근善根에서 보리菩提를 이루기成까지 한 자리一座에서 떠나지 아니할새,不離 사선근四善根에 물러날轉退 이치理가 없음이라.無

제2절 십신十信[1033]

부처님佛의 교법敎法에 들어가고자入 하는 자者는 먼저 십신十信으로써 하는 바 깨닫기 전證前에는 미혹한 믿음迷信이요 깨달은 후證後에는 바른 믿음正信이라, 십신의 수행단계信位에서 벌써 범부와 성인凡聖이 구별區別되니 주의注意할지어다.

1에 신심信心이란 일체一切의 망상妄想을 남김없이 소멸滅盡하고 중도中道 순진純眞함을 말云함이요,

1030) 악취(惡趣) : 나쁜 곳. 악업의 결과로서 중생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는 뜻. 악업의 결과로 받는 생존의 상태. 고통의 생존. 행위의 업보로 태어나는 미혹의 세계. 악도라 하며 지옥·아귀·축생을 3악취라 한다. 5악취에서 수라(修羅)를 넣은 것을 육도(六道)라 하며 인간은 육도(六道)를 윤회한다.

1031) 전성(轉成) : 기능이나 상태 등이 바뀌어 다른 것이 됨.

1032) 인각유독각(麟角喩獨覺) : 부행독각(部行獨覺)의 반대어. 기린의 뿔이 하나인 것 같이 한 사람이 홀로 있어 수증(修證)함을 비유.

1033) 십신(十信) : 보살이 행해야 하는 52계단 가운데 최초의 10계단을 가리킴. 초심의 구도자가 닦아야하는 10종의 마음.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는 것은, 우선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서 마음을 10종으로 나눈 것.

2에 염심念心이란 참된 믿음眞信이 명료明了하여 일체一切에 원통圓通[1034]할새, 많은幾多 생사生死를 지나더라도經 현생現生의 한 생각一念을 잊지遺忘 않음이요,

3에 정진심精進心이란 묘원순진妙圓純眞의 정명精明(매우 깨끗하고 밝음)으로써 진실하고 청정함眞淨에 나아감進趣이요,

4에 혜심慧心이란 마음心의 정미精함이 앞에 나타날現前새 순수하고 참된純眞 지혜智慧가 자연自然 발기發起함이요,

5에 정심定心이란 밝은 지혜智明를 간직하여 잊어버리지 아니할執持 새, 주변周遍이 담적湛寂하여 마음心이 한 경계一境에 항상 머무름常凝이요,

6에 불퇴심不退心이란 선정의 빛定光이 발명發明할새 밝은 성품明性에 깊게 들어가서深入 오직 나아감만 있고有進 물러섬은 없음無退이요,

7에 호법심護法心이란 마음心이 좋아져進 편안安然할새 일체一切 불법佛法을 잘 지니고保持 시방여래十方如來와 기분이 소통氣分交涉함이요,

8에 회향심廻向心이란 밝은 깨달음覺明을 잘 지니고保持 능能히 불가사의한 힘妙力으로써 부처님 빛佛光을 돌이켜 비추어廻照 깨닫고感 부처님佛께 향向하여 안주安住함이요,

---

1034) 원통(圓通) : 절대의 진리는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걸쳐져 있다는 뜻. 불보살의 깨달은 경지.

9에 계심戒心이란 마음의 빛心光이 면밀히 돌아密廻 무위無爲에 안주安住하여 잃어버림遺失이 없음無이요,

10에 원심願心이란 계戒에 머물러住 자재自在할새, 시방十方에 지내되遊 모두 다悉皆 원願에 따름隨이니라.

제3절 십주 十住[1035]

십주住란 여법한 이해如法解에 입각立脚함이니,

1에 발심주發心住란 신심信心의 작용用으로 들어가涉入 한 마음一心을 완성시키는圓成 수행단계位요,

2에 치지주治地住란 마음心이 밝고 청정함明淨이 유리琉璃 안內에 깨끗한 금精金을 나타냄現과 같이如 앞前의 묘심妙心으로써 다스리는履治 경지境地를 말云함이요,

3에 수행주修行住란 앞前의 경지地를 널리 보고 알아涉知 명료明了할새 시방十方에 두루 돌아다니되遊履 머무르고 거리낌留碍이 없음이요,

4에 생귀주生貴住란 부처님佛의 기분氣分을 받아서受 서로가彼此 그윽히 통冥通[1036]할새, 비로소 여래종如來種(깨달음의 종자)에 들어

1035) 십주(十住) : 보살이 수행하는 52단계 중 제11위에서 제20위까지를 가리킴. 마음을 진실의 공리(空理)에 안주하는 것.

1036) 명통(冥通) : 현실적인 본연의 상태에서 상대를 여읜 것을 명(冥), 이르는 곳에 융통하여 자유자재인 것을 통(通)이라 함.

감入이요,

5에 방편구족주方便具足住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방편方便을 구족具足할새 여래의 행동如來行動이요,

6에 정심주正心住란 행동行動에 제한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모습心相도 부처님佛과 동일同一함이요,

7에 불퇴주不退住란 몸과 마음身心이 일치合一하여 나날이日日 증장增長함이요,

8에 동진주童眞住란 부처님이 갖춘佛具 십신十身을 일시一時 구족具足함이요,

9에 법왕자주法王子住란 생귀주生貴住까지를 입성태入聖胎라 말云하고 동진주童眞住까지를 장양성태長養聖胎라 이르고謂 이 주住에서는 형상相形이 구족具足하여 비로소 태에서 나옴出胎이라.

* 이것을 탁태(托胎)의 순서를 모방하여, 처음 발심주에서 제4 생귀주까지를 입성태(入聖胎), 제5 구족방편주에서 제8 동진주까지를 장양성태(長養聖胎), 제9 법왕자주를 출성태(出聖胎)라고도 함.

10에 관정주灌頂住란 보살菩薩이 이미 불자佛子가 되어 능能히 불사佛事를 행行함에 부처님佛이 지혜의 물智水로써 관정灌頂[1037]함이니 찰제리刹帝利[1038] 왕자王子의 관정을 받은 것受職灌頂과 같음如

1037) 관정(灌頂) : 머리에 물을 붓는 것. (1)원래 인도 국왕 즉위나 입태자(立太子)의 때 행하던 의식. 4대해(四大海)의 물을 가지고 머리 꼭대기에서 붓고 축의(祝意)를 표현했다. (2)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살이 최종직위(제10地)에 들어갈 때, 모든 부처님이 지혜의 물[智水]을 그 머리 꼭대기에 붓고, 법왕(法王)의 직(職)을 받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취의(趣意)를 비겨 말했다.

1038) 찰제리(刹帝利) : 크샤트리아. 인도에 있어서 4성의 제2계급. 바라문의 다음에 위치한

이니라.

제4절　십행十行[1039]

1에 환희행歡喜行이란 불자佛子(보살의 통명)가 된 보살菩薩이 여래如來의 뛰어난 덕妙德으로써 시방十方에 수순隨順하기 때문이요,

2에 요익행饒益行이란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이익利益케 하기 때문이요,

3에 무진한행無嗔恨行이란 스스로도 깨닫고自覺 다른 이도 깨닫게覺他 함에 어김違逆이 없으니無 또는 무에한無恚恨이라 무위역無違逆이라고도 말云함이요,

4에 무진행無盡行이란 중생衆生의 근기와 무리機類에 따라隨 그 其 몸身(형상)을 나타내되現 삼세三世가 평등平等하여 시방十方에 통달通達할새　이타利他 행行이 끝이 없음無盡이요,

5에 이치란행離痴亂行이란 여러 가지種種의 법문法門이 같지 않더라도不同 일체一切가 합동合同하여 착오差誤가 없음無이요,

6에 선현행善現行이란 이미 혼란하고 어리석음痴亂을 여읠離새 능能히 같은 무리同類가운데에 다른 모습異相을 나타내고現 하나 一 하나一의 다른 모습異相에 같은 모습同一相을 나타내어現 같고 다름同異이 원융圓融함이요,

---

왕족. 무인의 계급. 세속에 있어서 지배계급.

1039) 십행(十行) : 보살이 수행하여야 하는 52단계 중 제21위에서 30위까지를 가리킨다. 이타행(利他行)을 수행하는 위(位).

7에 무착행無着行이란 시방허공十方虛空에 티끌微塵까지 만족滿足하고 하나하나 티끌 가운데一一塵中에 시방세계十方界를 나타내現되 티끌세계塵界(俗世)에 머무르고 거리낌留碍이 없음無이요,

8에 존중행尊重行이란 난득행難得行이라고도 말云하니 앞前의 여러 가지種種 현행現行은 오직 반야般若를 관조觀照하는 힘力일새 육바라밀六度 가운데 특特히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을 존중尊重함이요,

9에 선법행善法行이란 원융圓融의 덕德으로써 능能히 시방十方 모든 부처님諸佛의 본보기軌則를 완전하게 실현現成함이요

10에 진실행眞實行이란 앞前의 원융한 덕상圓融德相은 하나一하나一 모두皆是 청정한 무루淸淨無漏로서 일진무위一眞無爲[1040]의 실성實性(참된 본성)일새 본래本來부터 변함없음이니라.如常

제5절 십지심十地心

보살菩薩의 십지十地는 이미 2장二章 3절三節에 간략히 서술略述한 바라 이此에 그의 다른 이름異名인 십지심十地心의 이름과 숫자名數만 열거列擧하니, 1에 초지初地의 사무량심四無量心[1041]은 종

1040) 일진무위(一眞無爲) : 일진법계 그 자체의 본래의 모습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는 것을 말함.

1041) 사무량심(四無量心) : 직역하여 사무량(四無量)이라고 함. 또 사범주(四梵主)라고도 함. 네 가지의 광대한 마음. 네 가지의 헤아릴 수 없는 이타(利他)의 마음. 자(慈, 우애의 마음)·비(悲,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동정)·희(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쁨)·사(捨, 모든 구애를 버리는 것)의 마음을 무량으로 일으켜서, 무량의 사람들을 깨우침으로 이끄는 것.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①자무량(慈無量) : 자비를 주는 것이 한이 없는 것.

자種子요, 2에 2지二地의 십선심十善心은 싹芽이요, 3에 3지三地의 명광심明光心은 꽃 봉우리苞요, 4에 4지四地의 염혜심焰慧心은 잎葉이요,

5에 5지五地의 대승심大勝心은 꽃花이요, 6에 6지六地의 현전심現前心은 열매果요, 7에 7지七地의 무생심無生心은 수용종자受用種子요, 8에 8지八地의 부사의심不思議心은 두려움 없는無畏[1042] 것에 의지依를 삼음이라爲 열매 가운데果中之 열매果요 9에 9지九地의 혜광심慧光心은 나아가 부처님 지혜가 일어나기를 구함이 있음이라有進求佛慧生 최승심最勝心이요, 10에 십지十地의 수위심受位心은 곧 결정심決定心인 바,
이에 이심二心은 제8第八 심心 가운데에서 나왔으나開出 하나一 하나一 경지地 가운데에 이에 십심十心이 또한 있으니亦在 이는 『영락본업경瓔珞本業經』 상上과 『대일경소大日經疏』 3에 상세하게 설명詳說하였나니라.

---

②비무량(悲無量) :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한이 없는 것. ③희무량(喜無量) : 중생에게 즐거움이 있는 것을 시샘하지 않는 것이 한이 없는 것. ④사무량(捨無量) : 원한 등으로 인한 차별의 상(相)을 버리고 평등하게 이롭게 하는 것이 한이 없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자애・동정・기쁨・평등심의 네 가지.

1042) 무외(無畏) : 두려움이 없는 것, 흔들림 없는 자신감. 불보살의 덕의 하나로 설법에 있어서 4가지 흔들림 없는 자신(自信)을 사무외(四無畏)라 한다. 어떤 일이든 두려움 없이 자신(自信)을 가지고 안심하고 용감하게 법을 설하는 것.

제6절　십회향十廻向[1043]과 등묘等妙[1044]

1은 구호일체중생회향救護一切衆生廻向이요, 2는 불괴회향不壞廻向이요 3은 등일체불회향等一切佛廻向이요, 4는 지일체처회향至一切處廻向이요, 5는 무진공덕회향無盡功德廻向이요, 6은 입일체평등회향入一切平等廻向이요, 7은 수순중생회향隨順衆生廻向이요, 8은 진여상회향眞如相廻向이요, 9는 무박무착회향無縛無着廻向이요, 10은 법계무량회향法界無量廻向으로서,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이 원인因이 되고 십지十地가 결과果가 될 때時는 이의 원인因이 결과果에 대對한 십회향十廻向이요, 십지十地까지 인위因位[1045]가 될 때時에는 묘각妙覺[1046]에 대對한 십회향十廻向일새, 십주十住 혹或 십지十地의 열 가지 수행 단계十位만으로 간략約하게 하심은 그 뜻意에 있어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 다섯 가지五重의 열 가지 수행 단계十位요,

열 가지 수행 단계十位를 56五十六으로 말開하심은 10가지十重의

1043) 십회향(十廻向) :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階位)인 52위(位) 중에서 제31위에서 제40위까지, 10행위(行位)를 마치고, 다시 지금까지 닦은 자리(自利)・이타(利他)의 여러 가지 행(行)을 일체중생을 위하여 돌려주는 동시에 이 공덕으로 불과를 향해 나아가 오경(悟境)에 도달하려는 지위.

1044) 등묘(等妙) : 등각(等覺)과 묘각(妙覺)의 약어. 보살 계위(階位) 52위중 제51번째와 52번째. 궁극적인 최후의 깨달음.

1045) 인위(因位) : 원인의 상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또 인지(因地)라고도 한다. 깨달음 이전. 수행시대. 수행하고 있을 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리.

1046) 묘각(妙覺) : (1)부처님의 불가사의 절묘한 무상의 깨달음. 깨달음 그 자체. (2)보살 52위(位)・42지(地)의 하나. 보살수행의 최후의 위(位)로 번뇌를 단절하여 지혜가 원만하게 갖추어진 위(位)를 말함. 등각(等覺)상의 위(位).

다섯 수행 단계五位에 앞뒤前後를 첨가加하심인 바, 그 후後에 다른 말異說의 번거로움煩을 요구要함은 먼저 닦고先修 뒤에 깨달음後證에 입각立脚함이니라. * 중重 : 거듭할 중. 겹치다. 층層.

그리고 등각위等覺位를 더하고 빼심加減은 등각等覺(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境界를 별도로 보일別示 때時에는 첨가加하고 모든 수행 단계諸位의 수분각隨分覺[1047]이 될 때時엔 빼며減, 묘각妙覺은 모든 수행 단계諸位를 완성 시키는圓成 의미意味일 때時에는 빼減고 인위因位에 대對하여 별도로 보일別示 필요必要가 있을 때時에는 첨가加한 바 수행자修者는 마땅히 닦음과 깨달음修證에 대한 원교의 참된 의의圓義를 음미吟味하는 동시同時에 십十의 위묘位妙[1048]를 자세히 관찰할諦察지니라.

제14장 삼계三 界

범부凡夫가 생사왕래生死往來하는 세계世界를 셋三으로 나누니,分

1에 욕계欲界란 음욕淫慾과 식욕食慾을 주主로 하고 모든 욕심諸欲이 따르는從 정이 있는有情(情 : 마음·생명) 세계世界로서, 위上로는 육욕천六欲天으로 부터 가운데中는 사람의 세계人界인 사대주四大洲를 지나經서 아래로는 무간지옥無間地獄[1049]에 이르기至까지를 말云함이요,

---

1047) 수분각(隨分覺) : 초지(初地)에서 등각(等覺)까지의 보살이 일분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아직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말함.

1048) 위묘(位妙) : 적문십묘(迹門十妙)의 하나. 위(位)는 수행의 단계. 수행이 이미 심원(深遠)하고 뛰어나 있으면, 체득한 위치도 또한 심원하고 최승(最勝)한 까닭에 이렇게 말함.

1049) (無間地獄) : 8열지옥(八熱地獄)의 제8. 또 무구(無救)라고도 한역함. 괴로움을 받는 일이 끊임없기[無間] 때문에 또한 즐거움이 섞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간(無間)으로 부름. 격렬한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세계. 극고(極苦)의 지옥에서 7중(重)의 철성(鐵城)이 있는데 동(銅)이 끓어 죄인을 죽임. 오역죄(五逆罪) 외에 대승을 비방한 자가 떨어짐.

2에 색계色界란 색色은 질애質碍[1050]의 뜻義으로서 형상이 있는有形 물질物質을 말함이니, 이 세계此界는 욕계欲界 위上에 있어在 음욕婬・식욕食 두二 가지 욕심欲을 주主로 한 모든 탐욕諸欲을 여읜離 생명이 있는有情 세계世界로서 신체身體나 의지처依處나 물질적物質的 물物은 모두總 특히 뛰어나고殊妙 훌륭하므로精好, 이 색계色界를 선정禪定의 얕고 깊은淺深 거칠고 묘함麤妙에 따라 4급四級의 4선천四禪天[1051]이라 혹或은 정려靜慮(선정)라 말하고 이 가운데에서 혹或은 16천十六天을 세우며立 혹或은 17천十七天을 세우며立 혹或은 18천十八天을 세움立이요,

3에 무색계無色界란 물질적物質的인 색色이 모두 다 없을都無새 신체身體나 의지처依處가 없고無 오직 심식心識으로써 깊고 미묘한深妙 선정禪定에 머무를住 따름이라 다만 과보果報가 색계色界보다 수승勝한 뜻義에 취就하여 그 위上에 있다在 하심이니 이에

1050) (質碍) : 형질(形質)이 있으므로 서로서로 장애가 되는 것.

1051) 선천(四禪天)[사정려천(四靜慮天)] : 신역(新譯)은 사정려천(四靜慮天)이라 하며 사종선정을 수(修)하여 소생(所生)하는 색계의 사천처(四天處)이다. 분별(分別)의 수(受)와 관각(觀覺)을 말함. ①초선천(初禪天) : 초선(初禪)이상이 분단식(分段食)을 기다리지 아니하므로 비(鼻) 설(舌)의 이식(二識)이 없으며 오직 안(眼)・이(耳)・신(身)・의(意)의 사식(四識)이 희수(喜受)하여 의식과 상응(相應)한다. 또한 각(覺).관(觀)의 두 가지는 중국 살바다부(薩婆多部, 說一切有部)에서 범중(梵衆)과 범보(梵輔)의 이천(二天)을 세웠고, 경부(經部, 經量部)와 상좌부(上座部)는 대범천(大梵天)을 가(加)하여 삼천(三天)이라 하였다. 살바다부(薩婆多部)는 이것을 범보천(梵輔天) 가운데 섭수(攝收)해 버렸다. 그러므로 초선천(初禪天)에 이천(二天)이 있다. ②이선천(二禪天) : 이선(二禪)이상은 또한 안(眼)・이(耳)・신(身)의 삼식(三識)이 없고 겨우 의식(意識)의 하나가 있다. 인(因)하여 오직 희사(喜捨) 이수(二受)가 있어 의식(意識)과 상응(相應)하여 안(眼) 등 오식(五識)이 없으므로 낙수(樂受)가 없다. 또한 의식의 희열(怡悅)이 추대(麤大)하므로 이는 의수(喜受)이며 낙수(樂受)가 아니다. 다만 관(觀)과 각(覺) 둘이 없으며 이 땅에는 유소광(有少光)・무량광(無量光)・극광정(極光淨, 光音)의 삼천(三天)만이 있다. ③삼선천(三禪天) : 이 또한 겨우 의식(意識)이 있어 낙사이수(樂捨二受)가 위와 상응(相應)한다. 이 땅의 의식이 희열(怡悅)하는 상(相)이 지극히 정묘(淨妙)하므로 세워서 낙수(樂受)가 되며 이 땅은 또한 소정(少淨)・무량정(無量淨)・변정(遍淨)의 삼천(三天)이 있다. ④사선천(四禪天) : 이는 또한 겨우 의식(意識)이 있어 오직 사(捨)와 수(受)가 상응(相應)한다. 살바다부(薩婆多部, 說一切有部))와 경부(經部, 經量部)에서는 무운(無雲)・복생(福生)・광과(廣果)・무번(無煩)・무열(無熱)・선견(善見)・선현(善現).・구경(色究竟)의 8천(天)을 세웠고, 상좌부(上座部)에서는 이에 다가 무상천(無想天을 더하여 9천(天)이 된다. 그러므로 살바다부에는 16천(天)이 있으며 경부에는 17천(天)이 있고 상좌부에는 18천(天)이 있어서 대승 유식에서는 상좌부의 뜻과 같이 18천(天)이 된다 하였음.

역시亦是 사천四天이 있어有 혹或은 사무색四無色이라 사공처四空處[1052]라 말하는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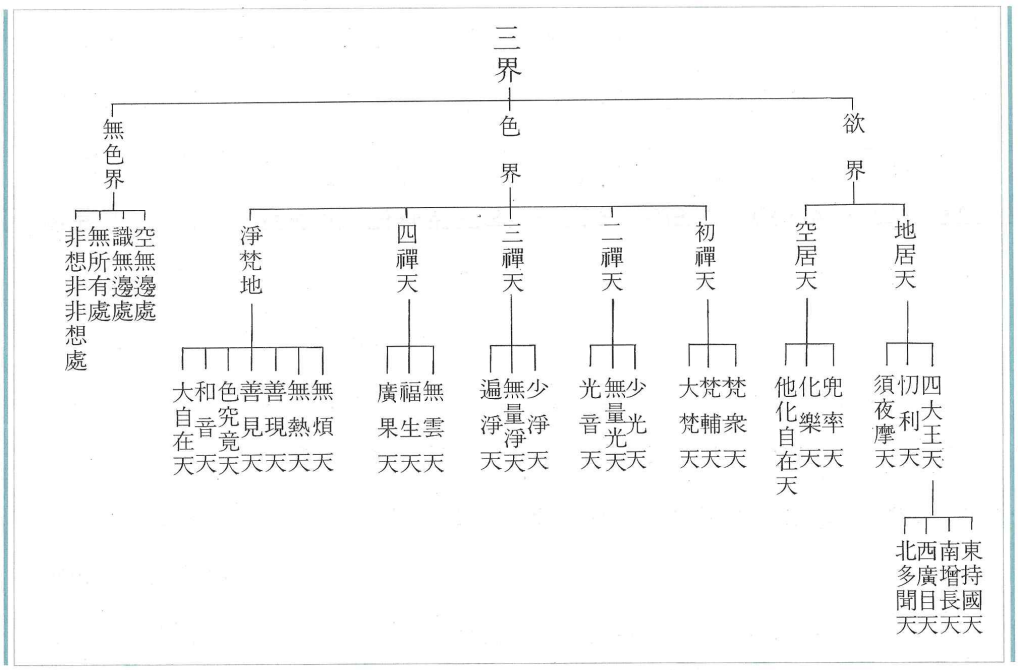
요要컨대 삼계三界란 색음色陰을 소각銷却하는 3품三品의 정도程度를 보이는示 것者으로서 지말무명枝末無明인 육경六境(여섯 가지 감각대상)이 욕계欲界요 근본무명根本無明인 육근六根(여섯 가지 감각능력)이 색계色界(물질세계)요 수受(느낌)·상想(知覺)·행行(形成)·식識(意識)의 물든 마음染識인 육식六識(여섯 가지 인식)이 무색계無色界라. 육경六境(감각대상)·육근六根(감각능력)·육식六識(인식)의 18천十八天으로 색계色界를 무색계無色界까지 연장延長함이 법과 일치法合하니

거칠고 큰麤大 욕계欲界와 세미細微한 무색계無色界는 색계色界에 근거立脚한 선정禪定으로써 분명分明히 스스로 깨달아自證 획정劃定(확정)할 것이요, 동시同時에 욕계欲界의 사대적四大的(地·水·火·風) 가상假想인 육경六境(감각대상)이 허망虛妄하여 실답지 않음不實을 신인信忍(진리를 확신한)한 4선근四善根이 신위信位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을 깨달아證

이 경지地에 머물러住 이치를 알고 수행함이 한결같음으로서解

1052) (四空處)[사무색(四無色)] : 또는 사무색(四無色)이라 하며 무공계(無空界)의 사처(四處)를 말하는 것. ①공무변처(空無邊處) : 줄여서 허공처(虛空處). 또는 공처(空處). 허공무변정(虛空無邊定)을 닦아 생기는 천처(天處)이다. ②식무변처(識無邊處) : 줄여서 식처(識處). 심식무변정(心識無邊定)을 닦아 생기는 천처(天處)이다. ③무소유처(無所有處) : 심식무소유정(心識無所有定)을 닦아서 생기는 천처(天處)이다. ④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 또는 비유상비무상처(非有想非無想處) : 이 천처(天處)에서 나는 사람은 정심(定心)이 심묘(深妙)하고 상념(想念)이 가장 미열(微劣)하여 추상(麤想)이 없으므로 비상(非想)이라 하며 세상(細想)이 아니므로 비비상(非非想)이라 한다. 이 사처(四處)는 오온(五蘊)에서 색온(色蘊)이 없는 것으로 수(受) 상(想)·행(行)·식(識)의 사온(四蘊)이 가화합(假和合)하여 정보(正報)하므로 색신(色身)이 없고 또한 의보(依報)할 국토와 궁전이 없으므로 무색계(無色界)라 하며 또는 공처(空處)라 한다. 인(因)하여 국토를 사처(四處)로 나누지 못하므로 인행(因行)의 선정에 따라 과(果)를 설(說)하여 사처(四處)의 분별을 세운 것. 그 가운데 앞 셋은 소수(所修)하는 인행(因行)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며 법계를 차례로 올라가는 것. 그러나 부종(部宗)에 따라 같지 않다. 유부(有部)·경부(經部)·유식(唯識)은 모두 무색법(無色法)이며, 있으면 모두 변현(變現)된 것이다. 대중부(大衆部)에는 세색(細色)이 있고 추색(麤色)이 없으며, 또한 『열반경(涅槃經)』에는 세색(細色)의 설(說)이 있다 함.

行一如 수受(느낌)·상想(知覺)·행行(形成)·식識(意識) 사음四陰의 멸진滅盡에 따라 상常·락樂·아我·정淨을 성취成就할새, 이름名이 사만성불四滿成佛의 묘각妙覺인 바 해오解悟[1053]에 있어 한 생각一念에 삼계三界를 초월超越 할 수 있으나 증오證悟[1054]에 있어서 계분界分[1055]이 본래 있으니本有 삼계三界를 그림으로 보이면圖示 왼쪽(아래와)과 같다如左.



제1절 사선정四禪定

앞前의 사선근四善根[1056]이란 곧 땅地·물水·불火·바람風 사대四大의 현계顯界(지금 살고 있는 세상)인 색온色蘊을 타성일편打成一

1053) (解悟) : 도리를 깨달아 아는 것.

1054) 증오(證悟) : 깨닫는 것. 진리를 인식하고, 이해함과 동시에, 완전히 몸에 익히는 것.

1055) 계분(界分) :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3계. 세계. 계(界)는 분(分)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숙어로 써 계분(界分)이라 함.

1056) 사선근(四善根) :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 성위(聖位)에 이르는 준비(加行)를 하는 네 가지의 위(位)를 말함. 난(煖) 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을 말함.

片[1057]하는 경계境界요,

사선정四禪定이란 밀계密界의 그 진실한 색實色을 깨달아 보는證見 동시同時에 수受(느낌)·상想(知覺)·행行(形成)·식識(意識) 네 무더기四蘊의 4선四禪[1058]으로써 상常·락樂·아我·정淨 4덕四德의 사정四定[1059]에 전입轉入하는 경계境界니, 곧 사무색四無色[1060]의 일상경계境界一相를 관찰觀察함은 사선四禪이요, 그의 사유思惟로써 일행一行함은 사정四定이라.

공무변처空無邊處[1061]를 관찰觀하고 생각念하여 색계色界의 금진

1057) (打成一片) : 일체(一切)의 정량(情量)과 계교(計較)를 버린 하나의 천차만별한 사물이다. 타(打)는 별 뜻이 없고 무슨 일에 의하든지 그 일을 하는 것을 타(打)라 한다. 무문관(無門關) 제(第) 1칙(則) 평(評)에「오래 오래 순순(純純)히 익으면 자연(自然)히 안과 밖이 일편(一片)을 타성(打成)하여 벙어리가 꿈을 꾼 것과 같아서 다만 자기만 알고 있을 뿐이다」하였음. 잡념을 떨치고 일 자체에 온전히 몰입한 상태, 좌선에 들어 자타의 대립이 사라진 경지, 마음과 사물이 차별이나 대립을 넘어 하나가 된 경지를 이르는 말.

1058) 사선(四禪)[사선정(四禪定)] : 색계(色界)에 있어서 네 가지의 단계적 경지. 초선(初禪)부터 제4선까지를 말함. 욕계(欲界)의 미혹을 뛰어넘어 색계(色界)에 생겨나는 4단계의 명상을 말함. 네 가지의 선(禪)의 단계. 4단계로 이루어진 명상. 정신통일의 4단계. 네 가지의 마음 통일. 사선정(四禪定)이라고도 함. ①초선(初禪) : 각(覺) 관(觀)·희(喜)·낙(樂)·일심(一心)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짐. ②제이선(第二禪) : 내정(內淨)·희(喜)·락(樂)·일심(一心)의 네 가지로 이루어짐. ③제삼선(第三禪) : 사(捨)·염(念)·혜(慧)·낙(樂)·일심(一心)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짐. ④제사선(第四禪) : 불고불락(不苦不樂)·사(捨)·염(念)·일심(一心)의 네 가지로 이루어짐.

1059) 사정(四定) : 유식종에서 가행위(加行位)의 4선근(善根)을 닦을 때에 그 체(體)인 명득정(明得定)·명증정(明增定)·인순정(印順定)·무간정(無間定)을 말함. ①명득정 : 난위(煖位)에서 하품(下品) 심사관(尋伺觀)으로 대경의 공무(空無)함을 관하는 정(定). ②명증정 : 정위(頂位)에서 상품 심사관으로 대경의 공무함을 관하는 정. ③인순정 : 인위(忍位)에서 하품 여실관(如實觀)을 일으켜 대경의 공무함을 인정하고, 뒤에 자기 심식(心識)의 공무함을 관하여 인정하는 정. ④무간정 : 세제일위(世第一位)에서 상품 여실지(如實智)를 일으켜 자기의 심식이나, 그 대경이 모두 공무함을 인가(印可) 인허(認許)하는 정. 여기서 바로 견도(見道)에 들어가 진리를 보게 된다.

1060) 사무색(四無色)[사무색정(四無色定)] : 사무색정(四無色定) 이라고도 함. 무색계에 있어 네 가지 단계적 경지. 공무변처(空無邊處)로부터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까지 세움. 형태에 구애되지 않는 네 가지 마음에 비유. 공무변처(空無邊處)·식무변처(識無邊處)·무소유처(無所有處)·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의 네 가지 선정을 말함. 선정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물질적인 속박을 받지 않게 된 경계를 4단계로 나눈 것.

1061) 공무변처(空無邊處)[무량공처(無量空處)] : 무량공처(無量空處)라고도 함. 물질적 존재가 절대무(絶對無)인 공간의 무한성에 대한 삼매(三昧)의 경지. 욕계(欲界)와 색계(色界)에서 일체의 물질적인 형태를 벗어나 일체의 작의(作意)가 없고, 무변(無邊)의 공을 관(觀)하는 장소. 또 거기에서의 선정(禪定). 무색계(無色界)의 4군데(四處)중 첫 번째. 형태가 있는 이 육신을 싫어하고, 무한의 큰 공[大空]

상金塵相을 보고見 욕계欲界의 허망한 형상虛妄相을 모조리 쓸어버려一掃 열반계涅槃界의 정덕淨德을 깨달음證은 초선정初禪定이요, 식무변처識無邊處[1062]를 관찰觀하고 생각念하여 미진微塵의 아누색阿耨色을 보는見 동시同時에 물의 성품인水性的 수음受陰을 걷고 청정한 마음淨心의 아덕我德을 깨달음證은 2선정二禪定이요,

무소유처無所有處[1063]를 관찰觀하고 생각念하여 색구경色究竟(형상의 마지막)의 극미상極微相을 보는見 동시同時에 불의 성품인火性的 상음想陰을 변화轉(정화하여)하여 한 줄기 빛一道光明의 상덕常德을 깨달음證은 3선정三禪定이요,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1064]를 관찰觀하고 생각念하여 미세하고 미세한微微 인허상隣虛相을 보는見 동시同時에 바람 성품인風性的 행음行陰을 변화轉(정화하여)하여 낙덕樂德을 깨달음證은 사선정四禪定일새, 사선정四禪定이란 곧 사바세계娑婆가 곧卽 적광토寂光土[1065]임

동경하며, 큰 공은 무한이라는 견해를 가질 때 생기는 장소이므로 이렇게 부름. 무색계에는 공간적인 장소는 없으나 과보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처(處)라고 함.

1062) 식무변처(識無邊處)[식처(識處)] : 식처(識處)라고도 함. 공무변처(空無邊處)를 넘어 식(識)을 무변(無邊)이라고 관(觀)하는 선정. 인식작용의 무한성에 대한 삼매(三昧)의 경지. 외부의 허공의 상(相)을 멀리하고 내부의 식(識)을 관(觀)하여 식(識)이 무변(無邊)이라는 생각을 이루는 것.

1063) 무소유처(無所有處) : 어떠한 것도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삼매(三昧)의 경지. 무색계(無色界) 사처(四處) 중의 제3무색계(無色界)의 선정(禪定) 중 제3에 위치하는 것.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관찰하는 것.

1064)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 : 표상(表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표상이 없는 것도 아닌 삼매(三昧)의 경지. 모든 무소유상(無所有想)을 초월하여, 상(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경지. 또는 제일유(第一有)·유정천(有頂天)이라고도 이름 붙인다. 무색계(無色界)의 제사천(第四天)으로, 삼계(三界)의 최정부(最頂部)·욕계(欲界)·색계(色界)같은 조상(粗想)의 번뇌가 없기 때문에 비유상(非有想)이라 하고, 세상(細想)의 번뇌는 없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무상(非無想)이라 함. 비유상(非有想)인 까닭에 외도(外道)는 여기를 참 열반의 경지라 하고, 비무상(非無想)인 까닭에 불자(佛者)는 여기를 역시 생사의 경지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명승(明勝)의 상(想)은 없지만[非想], 열매(劣昧)의 상(想)은 있는[非非想] 상태. 조(粗)의 상(想)에는 없고, 세(細)의 상(想)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선정처(禪定處).

1065) 사바즉적광(娑婆即寂光) : 고난에 가득 찬 이 사바세계(裟婆世界)가 즉, 이 이상 없는 적광정토(寂光淨土)라고 하는 뜻. 부처님이 증득하신 진리를 인격적으로 간주(看做)하여 법신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상적광토를 세운 것. 이것은 요컨대 부처님이 보는 세계, 실상 진여의 이치를 이렇게 이름한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적광토의 소재(所在)는 진여가 있는 곳이니, 구경(究竟)에는 우주

을 보고見 사바세계娑婆世界[1066] 그대로 극락세계極樂世界[1067]임을 깨달음證이니라.

그리하여 욕계欲界의 미혹의 그물惑網을 벗어나超脫 색계色界에 태어나며生 모든 공덕諸功德이 생기는生 의지依地[1068] 근본根本이 되는지라 사선정四禪定을 본선本禪이라고도 이르니稱, 몸身에 떨림動・가려움痒・가벼움輕・몸이 무거움重・서늘함冷・몸이 뜨거움煖・몸이 깔깔함澁・몸이 미끄러움滑의 여덟 가지 촉감八觸이 일어나고,生 마음心에 빔空・밝음明・선정定・지혜智・좋은 마음善心・부드러움柔軟・즐거움喜・기쁨樂・해탈解脫・경계상응境界相應의 열 가지 공덕十功德이 일어남生은 초선정初禪定에 돌입入한 증상證相[1069]이며,

초선初禪부터 맡고鼻・맛 보는舌 두二 식識(認識作用)이 없고無, 2선二禪부터는 다섯 가지 인식작용五識을 모두 여의고離 다만 의식意識만 있으니,有 혹或은 보고眼・듣고耳・닿는身 3三가지 식識의

말하는 것인즉, 사바세계에도 적광토가 있는 것이니, 이를 사바즉적광이라 한다.

1066) 사바(娑婆) : 인토(忍土)・감인토(堪忍土)・인계(忍界)라고 한역함. 어원적으로는 「참다」의 의미로, 이 세계. 이 세계의 중생은 안으로는 여러 가지 번뇌가 있고 밖에는 풍우한서(風雨寒暑)가 있어서, 고뇌를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한다. 이 세계. 현실의 세계. 석존이 나타나 교화하는 세계.

1067) 극락(極樂) : 또 안양(安養)・안락국(安樂國).・량수불토(無量壽佛土)・무량광명토(無量光明土)・무량청정토(無量淸淨土).・화장세계(蓮華藏世界)・밀엄국(密嚴國)・청태국(淸泰國)이라고도 함. 아미타불의 정토. 단순히 정토라고도 함. 서쪽을 향하여 십만 억의 불국토를 지나면 저쪽 편에 있는 나라. 여러 가지 고통이 없고, 단지 즐거움만이 있으며, 아미타불은 그곳에 계시면서 항상 설법을 한다고 함.『아미타경(阿彌陀經)』에는 이 정토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 하였는데, 지금도 또한 아미타불은 여기에서 설법을 한다고 함. 이 나라에 태어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즐거움을 받는다고 함. 예를 들면 부처님 몸과 같이 32상과 신통을 얻고, 5관(官)의 대상은 모두 미묘하고, 즐겁고, 마음대로 법을 듣고, 부처님에게 공양하면 깨달음이 열린다고 함. 단, 이 정토에는 변지(邊地)・의성(疑城)・태궁(胎宮)등이라고 불리는 변두리가 있어서, 아미타불의 구제에 의혹을 품은 사람이 여기에 태어난다고 함. 행(幸)이 있는 곳.

1068) 의지(依地) : 심신(心身)이 의존할 곳. 의신(依身)에 대해서 의지처가 되는 정(定)을 지(地)에 비유하는 말.

1069) 증상(證相) : 이해를 본질로 하고 있는 것.

희수喜受가 있어서有 의식意識과 상응相應하고 의식意識의 낙수樂受가 있어서有 3三 가지 식識과 상응相應하는 바, 의식意識의 희열喜悅이 크고 거칠麤大새 희수喜受요 낙수樂受가 아니로되, 3선三禪에는 역시亦是 의식意識만이 있어서有 낙樂·사捨 두 수二受가 상응相應하되 기뻐하고 만족한怡悅 형상相이 지극히至極 깨끗하고 맑을淨妙새 낙수樂受며, 4선四禪에는 역시亦是 의식意識뿐이오 오직 사수捨受[1070]와 상응相應(통)할 뿐이니라.

그리고 모습相에 있어 4선四禪에 각각 3급의 위차가三級式 있고有 본성性에 있어 4급四級 또는 8급八級을 말하는 바, 하늘天이란 밀계密界의 지상地相으로서 색계色界 12천十二天에 무색계無色界의 정범지淨梵地를 첨가加하여 색계色界라 총칭總稱함도 있으니 곧 선정禪定의 순서次序니라.

그런데 사대四大의 실색實色인 줄 시인是認할 뿐 이오 사대四大의 허망한 형상虛相을 여읜離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임을 감득感得하지(깨닫치) 못함은 범부凡夫의 소견所見이기 때문이요, 사음四陰을 사덕四德으로 전환轉換하지 못함은 외도外道의 얕은 생각淺見이며, 다만 근기根機에 있을 따름이요, 삼계三界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 아는了知 동시同時에 사선정四禪定을 외도선外道禪[1071]이라 폄하하고,貶 근래近來의 죽은 선死禪 곧 무기정無記定(응답 없는 선정)이나 망상정妄想定인, 올바르지 못한 선정邪定의 수행修行을 잘하는 일能事로 스스로 인정自認하는 아양승啞羊僧[1072]을 경계警戒하노라.

1070) (捨受) : 유쾌하지도 불쾌하지도 않는 감각.

1071) 외도선(外道禪) : 인도의 외도에 의해서 실천된 선정(禪定)의 총칭. 요가의 선 등을 가리킴.

1072) 아양승(啞羊僧) : 4종승(四種僧)의 하나. 아양은 벙어리 염소. 아주 어리석은 수행승이 선악의 계율을 분별치 못하여 범하고도 참회할 줄 모르는 것을 염소가 죽어도 소리를 못내는 데 비유한 것.

사선정四禪定이란 삼승성자三乘聖者가 받들어 수행供修하는 근본선根本禪임을 다시 음미再吟味하기 바라며 멸진정滅盡定을 거쳐 최후의 깨달음을 성취究竟成就할지니라.

제2절 멸진정滅盡定[1073]

『대승의장大乘義章』[1074] 2에 「멸진정자滅盡定者는 모든 성인諸聖人이 마음과 생각을 써서患心勞慮 잠시 심식心識(마음. 모든 차별적 인식)을 소멸함暫滅心識을 말함이니, 하나의 유위一有爲의 색심법이 아닌 것非色心[1075]法을 얻어서得 심처心處를 영보領補(령領 : 깨닫다. 마음속으로 알아차리다)함을 이름名이 멸진정滅盡定이라.」 하였고, 같은同 9(대승의장)에 「멸수상자滅受想者는 수受(느낌) · 상想(知覺) 두 음二陰을 한편으로 대하여偏對 이름을 드러냄彰名이라, 상想(知覺)이 끊어지고想絶 수受(느낌)가 없어져受亡 이름名이 멸수상滅受想이요, 멸진정자滅盡定者는 일체一切가 통하고 대하여通對 일심一心과 심수법心數法[1076]으로 이름을 드러냄이니以彰名也 마음과 심법心及心法의 일체가 함께 죽어一切俱亡 멸진이라 이름한다名爲滅盡」 하였으며,

『구사론俱舍論』 5에 이와 같이 말하건대 「다시 별법別法(다른 실체)이 있으니 능히 마음心과 마음 작용心所으로 하여금 소멸滅함을 이름이 무상정無想定[1077]이요, 이와 같이如是 다시 별법別法(다른

1073) (滅盡定) : 마음의 작용이 모두 다해버린 삼매(三昧). 6식의 마음작용이 멸해 없어진 정신통일. 불환과(不還果) 이상의 성자가 마음의 안정감을 구하기 위해, 지식상(止息想)의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 정(定). 또는 멸수상정(滅受想定)이라고도 함.

1074) 대승의장(大乘義章) : 20권(券). 수(隋)나라 정영사(淨影寺)의 혜원(慧遠)이 지음. 내용은 교의(敎義)를 담경(談驚)·의표(義票)·낙긴(樂緊)·정진(淨緊)·잡취(雜聚)로 나누어 대소승의 법상(法相)을 해석한 것.

1075) 색심(色心) : 색법(色法)과 심법(心法). 물(物)과 심(心). 물질과 정신.

1076) 심수법(心數法) : 신역(新譯)에서는 심소(心所), 또는 심소유법(心所有法)이라 함. 마음의 작용.

실체)이 있으니 능히 마음心과 마음작용心所으로 하여금 소멸滅함일새 이름이 멸진정滅盡定이라」, 하였고 같은同 『술기述記』[1078] 7본七本에 「저彼 마음心과 마음작용心所의 소멸滅을 이름이 멸정滅定이요, 언제나 마음에 항상 일어나는恒行 물들고 오염染汚된 마음心 등等이 소멸滅한 까닭故에 곧卽 이 또한此亦 멸수상정滅受想定이라 이름名한다」하여,

멸진정滅盡定을 멸수상정滅受想定이라고도 이름名하고, 육식六識(意識)의 마음心과 마음작용心所을 멸진滅盡하는 선정禪定의 이름으로서 그 가행방편加行方便에 특特히 수受(느낌)의 마음작용心所과 상想(知覺)의 마음작용心所을 싫어하고 꺼려서厭忌 이를 소멸滅함일새 가행加行에 따른從 멸수상정滅受想定이요, 불환과不還果 이상以上의 성자聖者가 열반涅槃에 잠시 들어가는假入 생각想을 일으키어起 이 선정定에 들어감일 새, 가장 긴 기간極長이 7일七日이라 멸진정滅盡定인 듯 이해解하나,

다시 말하면換言 멸진정滅盡定이란 색음色陰을 멸진滅盡함에 따라 수受(느낌)・상想(知覺)・행行(形成)・식識(意識) 사음四陰의 물든 마음染心을 멸진滅盡하는 삼매三昧의 이름名이니, 초初・2지二地에서 색음色陰을 3三・4지四地에서 수음受陰을 5五・6지六地에서 상음想陰을 7七・8지八地에서 행음行陰을 9九・십지十地에서 식음識陰을 상하품上下品의 10가지十重 다섯 수행단계五位로 멸진滅盡함이요

1077) (無想定) : 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날 인(因)이 되는 정(定)으로, 심(心)・심소(心所). 즉 모든 마음의 활동작용을 휴식하게 하는 선정(禪定). 무의식의 법열(法悅). 무의식에 이를 정도의 극도의 정신집중. 무의식의 망아(忘我). 소승유부(小乘有部)의 아비달마에서는 14의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의 하나. 유식설(唯識說)에서는 24의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의 하나. 이무심정(二無心定)의 하나. 무상천(無想天)의 중생 선정(禪定)과 무상(無想)인 선정(禪定)이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음.

1078) 술기(述記) : 자은(慈恩)대사의 유식론(唯識論) 술기(述記)를 말한다.

또는 십신위十信位에서 색음色陰을 십주위十住位에서 수음受陰을 십행위十行位에서 상음想陰을 십회향위十廻向位에서 행음行陰을 십지위十地位에서 식음識陰을, 다섯 가지五重는 십위十位(위位 : 수행단계)로 멸진滅盡함이니, 열 가지 가운데十重 오위五位는 십주위十住位부터 다섯 가지五重(남은) 십위十位는 3지三地부터 순서次第로 멸진滅盡함이니라.

곧, 먼저 수행하고 뒤에 깨달음先修後證과 먼저 깨달은 후에 뒤에 수행하는先證後修 분별別은 말할 것도 없이姑捨 색온色蘊 또는 이에 염오染汚(물들어 더러운)한 사온四蘊의 물든 마음染心을 멸진滅盡하고 청정한 마음淨心에 머물러서住 상락常樂의 일대인아一大人我[1079]를 성취成就하는 멸진삼매滅盡三昧의 이름名이니라,

그리하여 4선四禪·4정四定에 이를 첨가加하고 9차제정九次第定[1080]이라 칭稱하는 바, 4선四禪·4정四定은 삼승성자三乘聖者와 외도外道가 함께 수행共修하나 제9第九의 멸진정滅盡定은 성자聖者에 제한限하는 동시同時에 외도外道는 법상法相에만 제한限하고 정도正道에 있지 아니하며不在 근기根機에 따라 순서대로 점차 수행함次第漸修 또는 중간 중간 뛰어넘음間超과 문득 뛰어넘음頓超의 분별別이 있느니라.

제3절 도솔兜率 내원內院

도솔兜率이란 상족上足이라, 묘족妙足이라, 지족知足이라, 희족喜足

1079) (人我) : 개인 존재로서의 나. 우리 몸속에 실재(實在)하여 망상하게 되는 실재아(實在我). 상키아학파에서 말하는 순수정신.

1080) 구차제정(九次第定) : 소승(小乘)의 좌선(坐禪) 방법(方法)으로 사선(四禪)과 사공처(四空處)와 멸진정(滅盡定)을 합한 구종(九種)의 선정(禪定). 소승(小乘)에서는 초선(初禪)에서 이선·삼선 등의 차제(次第)를 세우고, 최후로 멸진정(滅盡定)에 이르는 것을 구차제정(九次第定)이라 함.

이라 번역譯하는 바 욕계欲界의 야마천夜摩天[1081]과 낙변화천樂變化天[1082]의 중간中間에 있는在 제4중第四重(층)의 하늘 처소天處로서 안과 바깥 처소內外處를 나누어分, 그 내원內院을 미륵보살彌勒菩薩[1083]의 정토淨土라 말云하고 외원外院을 천중天衆의 욕락처欲樂處라 이르며,謂 도솔내원兜率內院이란 보살菩薩의 최후 몸最後身이 머무르는 곳住處이라 석가여래釋迦如來께서도 보살의 몸菩薩身으로 최후最後에 이곳에 머무르시다住가 그 생生을 끝내시고終 인간人間에 하생下生하시어 성도成道하신지라,

지금只今 미륵보살彌勒菩薩의 최후 몸最後身이 머무시는住 정토淨土인 바 저 하늘彼天에서 사천세간四千歲間을 그곳에 머무르신住 후後 인간人間에 하생下生하시어 용화수龍華樹[1084] 아래下에서 성불成佛하시니 저 하늘彼天의 4천세四千歲는 인간人間의 56억 7천만세五十六億七千萬歲에 해당當한다 말씀說하셨나니라.

그리고 『보요경普曜經』[1085] 1에는 「그其 도솔천兜率天에 대천궁

1081) (夜摩天) : 육욕천(六欲天)의 제3. 시기[時分]를 알아 오욕(五欲)의 즐거움을 받는다. 그 하루 밤낮은 인간세계의 200년에 해당하며, 2천세의 수명을 유지한다고 함.

1082) 낙변화천(樂變化天)[묘변화천(妙變化天)][화락천(化樂天)] : 또는 묘변화천(妙變化天)이라고도 함. 육욕천(六欲天)의 제5. 스스로 오욕(五欲)의 대상을 화작(化作)하고, 그것을 스스로 향수(享受)하는 천(天). 화락천(化樂天)과 동일.

1083) 미륵보살(彌勒菩薩) : 자씨(慈氏)라고도 한역함. 현재는 보살 그대로 그 정토의 도솔천(兜率天)에서 천인(天人)을 위해 설법하고 있지만, 석가불(釋迦佛)의 예언에 의해 그 수(壽)가 4천세(인간의 56억 7천만년)가 다한 때, 이 세상에 하생하여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成佛)하고, 삼회(三會)에 걸쳐 설법한다는 약속임. 그 때는 부처님의 자격을 얻고 나서 미륵불이라고 칭하여짐.

1084) 용화수(龍華樹) : 분나가수(樹)라고도 함. 미륵보살이 그 아래에서 깨닫게 된다는 나무. 혹은 용족(龍族)이 존중하는 나무. 또 그 형태가 용의 백보(百寶)를 토하는 모습과 닮은 나무라고도 함.

1085) 보요경(普曜經) : 서진의 축법호가 번역하였다(308년). 8권으로서 『방등본기경(方等本起經)』이라고도 한다. 그 내용은 석존의 탄생으로부터 출가, 행도(行道), 항마, 성정각(成正覺) 내지 초전법륜까지의 사적을 말한 것이다. <논강신품>에서 <촉루품>까지 30품으로 되어 있다. 다른 번역으로는 『방광대장엄경(方廣大莊嚴經)』이 있고 범본은 1877년 미도라 씨가 새긴 것과 1902년 레후만 씨가 새긴 것이 있고, 후고 씨는 1848년 서장 변역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1892년에는 다시 범본에서 번역하였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불교유적 보로부두르에는 이 경에서 말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 돌에 새긴 것이 있다.

大天宮이 있으니有 이름을 말하기名曰를 고당高幢이라, 광장廣長이 2천 5백 6십리二千五百六十里인 바 보살菩薩이 항상 앉아 계시고常坐 모든 천인天人을 위하여爲諸天人 경전을 널리 설하여 나타낸다敷演經典」 하시고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1086]에는 「이 때爾時에 이 궁此宮에 한 큰 신이 있으니有一大神 이름名이 로도발제牢度跋提라,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卽從座起 시방 부처님께 두루 예불遍禮十方佛하고 서원을 널리 일으키되發弘誓願, 만약 나의 복덕若我福德이 마땅히 미륵보살을 위해應爲彌勒菩薩 선법당이 잘 조성되도록造善法堂 나의 이마 위로부터令我額上 자연히 구슬이 나오게自然出珠 하소서, 이미 발원을 마침旣發願已에 이마 위額上에서 자연히自然 5백 개의 보배구슬이 나옴出五百寶珠이라」하시고, 「또 변화化하여 49중四十九重[1087](층)의 미묘微妙한 보배 궁이寶宮 됨이라」 말씀說하신 부처님의 깊은 뜻密意을 파악把握할지니라.

그리하여 『금강정경金剛頂經』 1에 「수미로정須彌盧頂에 가서 금강마니보봉金剛摩尼寶峰 누각樓閣을 참배詣함이라」 하심과 『섭진실경攝眞實經』[1088]에 「이때時에 박가범薄伽梵[1089]이 묘고산정妙高山頂의 3십 3천 제석천궁三十三天[1090]帝釋天宮 가운데中 마니최승루각摩尼最勝

1086) 『 (彌勒上生經)』 : 『미륵육부경(彌勒六部經)』의 하나. 자세히는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의 약칭. 455년(송나라 효건 2년)에 저거경성(沮渠京聲) 번역. 미륵보살이 있는 도솔천의 장엄이 수승한 모양을 말하고, 이 관(觀)을 하는 이는 그 하늘에 왕생하게 된다는 것과, 다음에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나게 된 인연을 기록하고 또 미륵보살의 공덕을 말한 경.

1087) 사십구중마니전(四十九重摩尼殿) : 49중(重)의 보궁(寶宮)을 말하는 것. 도솔천상(兜率天上)의 오백억천자(五百億天子)가 각각(各各)의 이마 위[額上]에 백억마니보주(百億摩尼寶珠)가 나와서 미륵보살(彌勒菩薩)을 위(爲)하여 49층(層) 본전(寶殿)을 지었다고 함.

1088) 『섭진실경(攝眞實經)』[『제불경계섭진실경(諸佛境界攝眞實經)』] : 『제불경계섭진실경(諸佛境界攝眞實經)』의 약칭. 당나라의 반야유가 번역. 금강계 37존의 결인(結印)과 공양의식 등을 설한 것.

1089) 박가범(薄伽梵) : 부처님의 칭호. 부처님의 다른 이름. 세존. 뛰어난 자. 번뇌를 타파한 자, 여러 가지 덕을 지닌 자.

1090) 삼십삼천(三十三天)[도리천(忉利天)] : 6욕천(六欲天)의 하나. 수미산(須彌山)의 정상에 있는 하늘. 중앙에 제석천(帝釋天)이 있고 정상 4방으로 8명의 천인(天人)이 있으므로 합해서 33천(天)이 된다. 도리천(忉利天)이라고도 함. 베다신화에서 신들은 33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관념을 받아들인 것임.

樓閣에 머무르실住새 삼세三世의 모든 부처님諸佛이 항상 설법하시는 곳常說處이라」 하신 지극한 뜻極義을 관찰하여 파하고觀破 수행修行의 일보一步를 나아감進이 긴요緊하니라.

제15장 수미산須彌山

수미須彌란 묘고妙高라, 묘광妙光이라, 안명安明이라, 선적善積이라, 선고善高라, 번역譯하는 바 기세계器世界[1091]의 맨 아래最下에 풍륜風輪, 그 위에 수륜水輪, 그 위에 금륜金輪이 있고, 그 위에 아홉 산과 그 산을 둘러싼 여덟 바다九山八海가 있으니, 지쌍持雙·지축持軸·담목擔木·선견善見·마이馬耳·상비象鼻·지변持邊·수미須彌의 여덟 산八山과 여덟 바다八海와 철위산鐵圍山과 아울러 아홉 산九山과 여덟 바다八海요, 아홉 산九山과 여덟 바다八海의 중심中心이 수미산須彌山인데 물의 깊이入水가 8만유순八萬由旬[1092]이오 물 밖의 높이出水가 8만유순八萬由旬이며 그 정상頂上이 제석천帝釋天[1093]의 거처하는 곳所居이요,

그 산의 중턱半腹은 사대왕천四大王天이 거처하는 곳所居으로서 그 주위周圍에 칠향해七香海와 칠금산七金山[1094]이 있고,有 제 칠금산第七金山의 바깥外에 큰 바다鹹海가 있어서有 그 바깥 둘레外圍가 철위산鐵圍山이며 큰 바다鹹海의 사방四方에 섬부주贍部洲(염부제閻浮提) 등等 네 개의 대륙이四大洲 있느니라.

1091) (器世間)[기세계(器世界)] : 기세계(器世界)라고도 함. 자연세계·무생물계·물질세계. 세계를 유정세계(有情世界)와 기세계(器世界)로 나누어 기세계는 산하·대지·초목 등으로 유정이 들어가 사는 그릇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음. 의보(依報)와 정보(正報)와의 사이에서는 의보가 됨.

1092) 유순(由旬) : 또는 유순(兪旬) . 유순(揄旬)·유연(由延)·혹은 유사나(踰闍那)라 하고, 신칭(新稱) 유선나(踰繕那)라 하며, 이정(里程)을 계산(計算)하는 수목(數目)으로 제왕이 하루 행군하는 거리다. 혹은 40리(里)라 하고 혹(或)은 30리(里)라 함.

1093) 제석천(帝釋天) : 범천(梵天)과 함께 불법의 수호신.

1094) 칠금산(七金山) : 수미산을 위요(圍繞)하는 칠중(七重)의 산을 말함. 모두 광명이 있기 때문에 금산이라 이름 함.

그리고 수미산須彌山의 물위 높이水上高가 3백 36만리三百三十六萬里라 함과 사보합성四寶合成이라는 말說이 있으니有 『유마경維摩經』 주註 1에 「승조스님이 말하 길肇曰 수미산須彌山은 곧 제석천帝釋天이 머무르는所住 금강산金剛山也[1095]이요 진나라 말秦言로 묘고妙高니, 큰 바다 가운데 있어處大海之中 물水의 위上 네모난 높이方高가 3백 36만리三百三十六萬里」라 하였고 『승만보굴勝鬘寶窟』[1096] <중본中本>에 「수미須彌란 이 말此言은 묘고妙高요

또한 이름이 안명安明이요 또 말하되 선적善積인 바, 임공林公의 수미류須彌留 이 말此言은 선고善高니 3백 36만리三百三十六萬里」라 하였고 『서역기西域記』 1에 「소미로산蘇迷盧山은 당나라 말唐言로 묘고산妙高山이니 옛날에 말하되舊曰 수미須彌와 또 말하되 수후루須[1097]婁는 모두 다皆 잘못 전함訛略이요 네 가지 보석四寶이 합성合成하여 큰 바다 가운데 있다在大海中」라 하였고, 『혜림음의慧琳音義』 1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或云 수미산須彌山과 미루산彌樓山은 모두皆 범음梵音의 소리가 맴돌되聲轉 바르지 못함不正이요,

바르게 말한正云 소미로蘇迷嚧란 당나라 말로唐云 묘고산妙高山이니, 네 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까닭에四寶所成故 묘妙라 말함이요 많은 산을 지나 드러남出過衆山이라 고高라 말함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或云 묘광산妙光山이란 네 가지 색의 보석四色寶으로써 광명光明이 각각 다르게 세상을 비추므로各異照世故 이름이

1095) (金剛山)[철위산(鐵圍山)] : 철위산(鐵圍山) 라고도 함. 수미산설(須彌山說)에 따르면(의하면) 세계의 외곽에 높이 솟은 산. 바닷물을 비유해서 흐르지 않는 것은 이 산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라 함. 금강불괴(金剛不壞)인 까닭에 금강산이라고 이름 붙여짐.

1096) 『승만보굴(勝鬘寶窟)』 : 3권. 수(隋)나라의 길장(吉藏)이 엮음. 『승만경(勝鬘經)』을 자세히 해석한 것.

1097) [1097] 후자 머리움직임 후.

묘광妙光이다」라 했음이라.

제1절 수미사층급須彌四層級

소미로산蘇迷嚧山(수미산)에 네四 개의 층급層級이 있으니 수제水際(수면)로부터 제1층第一層을 다盡하기까지 십천유선나十千踰繕那(유순과 동일)의 양量이 있는지라, 이와 같이如是 또는 제4第四의 층層을 다盡하기까지 또한 그러한 바 이의 4층급四層級은 묘고산妙高山의 곁側傍에서 나와서出 그 절반 아래下半를 둘러싸고 있으니圍繞, 처음最初의 층급層級은 물이 흘러나오기出水가 16천十六千이요, 제2第二・제3第三・제4第四의 층급層級은 그 순서次第와 같이如 8천八千・4천四千・2천二千이라 그에 약차신藥叉神[1098]이 있으니 견수堅手라 이름名함은 첫 층급初層級에 머무르고住 지만持鬘이라 이름名함은 제第 2층급二層級에 머무르고住 항교恒憍라 이름名함은 제第 3층급三層級에 머무住를새 이의 셋三은 모두 다皆是 사대천왕四大天王[1099] 소속所屬의 대중大衆이요, 제사第四의 층급層級은 사대천왕四大天王과 그 모든諸 권속眷屬이 함께 있음共居이라.

묘고산妙高山 4외四外의 층급層級에 사대왕 대중四大王衆과 그 권속眷屬이 있는居 것과 같이如, 지쌍持雙 지축持軸 등等의 칠금산七金山에도 천인의 무리天衆가 또한 있는亦居지라, 모두 다皆是 사대왕 부류四大王所部가 나누어준 땅封邑이요, 땅地에 의지依하여 삶으로써住 사대왕중천四大王衆天이라 이름名하니 욕계천欲界天 가운데에

1098) (夜叉) : 8부중(部衆)의 하나. 약차(藥叉).열차(閱叉)라 음역. 위덕(威德)・포악(暴惡)・용건(勇健)・귀인(貴人)・첩질귀(捷疾鬼)・사제귀(祠祭鬼)라 번역. 나찰과 함께 비사문천왕의 권속으로 북방을 수호. 이에 천야차(天夜叉)・지야차(地夜叉)・허공야차(虛空夜叉)의 3종이 있다. 천야차・허공야차는 날아다니지마는 지야차는 날지 못한다.

1099) 사대천왕(四大天王)[사천왕(四天王)] : 사천왕(四天王)이라고도 함. 제석천(帝釋天)의 신하로 지국천(持國天).・증장천(增長天)・광목천(廣目天)・다문천(多聞天)을 말함.

서 이 하늘天이 가장 넓으니라最廣. 이는 『구사론俱舍論』 11과 『정법념경正法念經』[1100] 22 또는 24에 자세히 설명詳說하셨나니라.

제2절 지옥地獄

수미산須彌山 절반 아래下半 곁傍係에 팔한지옥八寒地獄(여덟 가지 심한 추위로 고통 받는 지옥)과 팔열지옥八熱地獄(여덟 가지 뜨거운 열기로 고통 받는 지옥)이 공간과 시간을 아울러橫豎 순서대로 펼쳐次第있고, 팔열지옥八熱地獄에 각각各各 16十六의 유증지옥遊增地獄(그곳에 노닐어 그 고통을 더하는 지옥)이 있으니有, 하나의 큰 지옥一大地獄의 네 문四門에 각각各各 당외증熭煨增과 시분증屍糞增과 봉인증鋒刃增과 열하증烈河增의 네 곳四處이 있을有새, 합合하여 십육처十六處요 팔대지옥八大地獄의 16유증十六遊增을 모두 합都合하여 1백 28一百二十八의 유증지옥遊增地獄이 있느니라有.

그리하여 팔한지옥八寒地獄이란 1에 알부타頞部陀는 포皰라 번역譯하니 지극한 추위極寒가 몸을 다그치며逼身 몸에身上 물집皰이 생기기生 때문이요, 2에 니랄부타尼剌部陀는 포포胞皰라 번역譯하니 혹심한 추위嚴寒가 몸을 다그치며逼身 몸에 물집이 생기고 찢어짐身分皰裂이오, 3에 알찰타頞哳陀와 4에 확확바臛臛婆와 5에 호호바虖虖婆의 셋三(알찰타·확확바·호호바)은 추위가 닥쳐逼寒 입안에서口中 이와 같이한 다른 소리異聲를 지르고發,

6에 올발라嗢鉢羅는 청련화靑蓮華라 번역譯하니 혹심한 추위嚴寒가 핍박逼迫하여 몸이 끊어지고 찢어짐身分折裂이 청련화靑蓮華와

1100) 『 (正法念處經)』: 70권. 원위의 구담반야유지 번역. 7단으로 나누어 선악의 업에 의하여 받는 과보에 차별 있음을 말하고, 각처의 형편을 자세히 말하였음.

같음如이요, 7에 발특마鉢特摩는 홍련화紅蓮華라 번역譯하니 몸이 끊어지고 찢어짐身分折裂이 홍련화紅蓮華와 같음如이요, 8에 마하발특마摩訶鉢特摩는 대홍련화大紅蓮華라 번역譯하니 몸이 끊어지고 찢어짐身分折裂이 대홍련화大紅蓮華와 같음如이며

팔열지옥八熱地獄이란 1에 등활지옥等活地獄은 유정중생有情衆生이 여러 가지種種로 잘리고 갈리고 찔리는 고통所剌磨擣(소랄마도)을 받다가遇 잠시 서늘한 바람暫吹凉風으로 깨어나면蘇甦 전과 같음如前이요, 2에 흑승지옥黑繩地獄은 먼저 검은 끈黑繩으로써 몸을 묶고支體 저울에 단秤量 후後에 톱으로 자르기 때문이요,鋸 3에 중합지옥衆合地獄은 많은衆多 고문 도구苦具가 모두 와서俱來 몸을 다그치되逼身 서로 합하여 해치며衆合相害,

4에 호규지옥號叫地獄은 많은 고통衆苦이 핍박逼迫할새 기이奇異하게 슬프게 울며悲號 원망스럽게 부르짖는怨叫 소리聲를 내며發, 5에 대규지옥大叫地獄은 혹독히 심한 고통劇苦이 핍박逼迫할새 시간을 끌며延 큰 울음소리大哭聲를 내며發, 6에 염열지옥炎熱地獄은 화염火炎이 몸에서 일어나起身 주위周圍에 치성熾盛할새 고통스런 열苦熱에 견디기가 어려우며難堪, 7에 대열지옥大熱地獄은 호흡呼吸이 뜨거운 열大熱로 변화化하기 때문이요, 8에 무간지옥無間地獄은 고통만 받을受苦뿐이오 고통이 쉬는捨苦 시간時間이 없기無 때문이라.

제3절 사주지옥四洲地獄

수미산須彌山 사방四方의 큰 바다鹹海에 네 개의 큰 섬四大洲이 있으니,

1에 남쪽 섬부주南贍部洲[1101] 혹 남쪽 염부제南閻浮提란 수풀林이

나 혹或은 과일菓로써 이름을 세움立名이요

2에 동쪽 승신주東勝身洲[1102] 혹或 동쪽 불바제東弗婆提란 몸의 형상身形이 수승殊勝할새 승신勝身이라고도 이름함이요,

3에 서쪽 우화주西牛貨洲[1103] 혹或 서쪽 구타니西瞿陀尼란 소牛를 무역貿易하기 때문이요,

4에 북쪽 구로주北瞿盧洲[1104] 혹或 북쪽 울단월北鬱單越이란 사주四洲 가운데中에 국토國土가 최승最勝할새 승처勝處(뛰어난 곳)라고도 이름을 번역譯名하는 바, 이 사주四洲에 지옥地獄을 안배按配하면 동쪽 승신주東勝身洲와 서쪽 우화주西牛貨洲에는 변지옥邊地獄만 있고 정지옥正地獄은 없으며無 남쪽 섬부주南贍部洲에는 정正·변邊의 두兩 지옥地獄이 함께 있고俱有 북쪽 구로주北瞿盧洲에는 두兩 지옥地獄이 함께 없느니라.俱無

1101) (閻浮提) : 염부주(琰浮洲)·염부제병파(閻浮提 波)라 하고, 신칭(新稱) 섬부주(贍部洲)라 하며, 수미산의 남방에 있는 대주(大洲)의 이름. 곧 우리들의 주처(住處)임. 염부(閻浮)는 신칭(新稱) 섬부(贍部)라 하며 나무이름이다. 제(提)는 제병바(提鞞婆)의 약(略)이며 번역하여 주(洲)라 함. 이 주의 중심에 염부수(閻浮樹)의 숲이 있으므로 주(洲)의 이름이 됨. 또한 남방에 속(屬)하므로 남염부제(南閻浮提)라 함.『지도론(智度論)』35에「염부제(閻浮提)는 염부수(閻浮樹)의 이름. 그 숲은 무성하며 이 수(樹)는 임중(林中)에서 가장 크므로 제(提)는 명(名)을 주(洲)라 한다」하였다.

1102) 동승신주(東勝身洲) : 수미 사주(四洲)의 하나. 또는 동불(東弗)·파제(婆提)·동비제하(東毘提訶)·수미산 동쪽으로 칠금산(七金山)과 철위산(鐵圍山) 사이 짠물 바다 가운데 있으며 사람들이 사는 세계. 이 땅 사람들은 몸이 매우 훌륭하므로 승신주(勝身洲)라 한다. 땅의 생김새는 동쪽이 좁고 서쪽이 넓어서 세로와 넓이가 구천유순(九千由旬)이며 반달 모양. 수명은 250세. 키는 8주(肘).

1103) 서우화주(西牛貨洲)[서구타니(西瞿陀尼)][서구야타주(西瞿耶陀洲)] : 서구타니(西瞿陀尼)의 번역된 이름. 또는 서구야타주(西瞿耶陀洲)라고도 한다. 수미산의 서쪽에 있는 대주(大洲)를 말하며 그 곳의 풍속이 소가 많아서 소를 마치 화폐처럼 사용하여 시장에서 다른 물품과 교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함.『구사론(俱舍論)』11에「서우화주(西牛貨洲)는 지형(地形)이 둥글어 마치 만월(滿月)같은데 직경(直徑)이 2500이요 주원(周圓)이 7천(千) 반(半)이다」라고 하였다.『구사송소(俱舍頌疏)』<세간품(世間品)>에「서우화주(西牛貨洲)는 소로써 화폐(貨幣)로 쓰기 때문에 우화주(牛貨洲)라 이름했다」라고 하였음.

1104) 북구로주(北瞿盧洲) : 울다라구루(鬱多羅拘樓)라 하며 번역하여 북승처(北勝處)·북승생(北勝生)·북고상(北高上)이라 한다. 수미 서주(西洲), 수미산 북방(北方), 제칠금산(第七金山)과 대철위산(大鐵圍山) 사이에 큰 바다가 있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인취(人趣)등이 사는 곳.

제4절 전법륜轉法輪[1105]의 윤왕輪王[1106] 만다라사륜曼荼羅四輪[1107]

전법륜轉法輪의 사륜四輪과 전륜왕轉輪王의 사륜四輪과 만다라曼荼羅의 사륜四輪을 구별하여 말하면別示

1에 금강륜金剛輪이란 동방東方 아촉불阿閦佛의 법륜法輪[1108](교화와 설법)이요 2에 보륜寶輪이란 남방南方 보생불寶生佛의 법륜法輪이오 3에 법륜法輪이란 서방西方 아미타불阿彌陀佛의 법륜法輪이요 4에 갈마륜羯磨輪이란 북방北方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의 법륜法輪이니 이는 전법륜轉法輪의 사륜四輪이며,

1에 금륜金輪이란 금륜왕金輪王의 사주四洲, 2에 은륜銀輪이란 은륜왕銀輪王의 서西·동東·남南 삼주三洲, 3에 동륜銅輪이란 동륜왕銅輪王의 동東·남南 이주二洲, 4에 철륜鐵輪이란 철륜왕鐵輪王의 남섬부南贍部 일주一洲 등等을 영유領有(소유하다)한 표치標幟(표지)니 이는 전륜왕轉輪王의 윤보輪寶[1109]며,

---

1105) (轉法輪) : 부처님의 교법을 법륜이라 하고, 교법을 설(說)함을 전법륜(轉法輪)이라 함. 륜(輪)이란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윤보(輪寶)로 회전(廻轉)과 연최(碾摧)의 이의(二義)가 있는데, 사천하(四天下)를 회전(廻轉)하여 모든 원적(怨敵)을 연최(碾摧)하며 부처님의 교법도 또한 일체중생계를 회전하여 모든 번뇌를 최파(摧破)하기 때문에 비유하여 법륜(法輪)이라 함. 전(轉)이란 교법(敎法)을 설(說)함에 비유함이니, 자심(自心)의 법(法)을 굴려 타인의 마음에 옮기는 것이 흡사 전차륜(轉車輪)과 같음.

1106) 윤왕(輪王)[전륜왕(轉輪王)][전륜성왕(轉輪聖王)] : 윤보(輪寶)를 굴리면서 일체(一切)를 굴복하고 수미(須彌) 사주(四洲)를 통솔하는 대왕(大王).

1107) 만다라사륜(曼荼羅四輪) : 일본존(一本尊)은 황색이며 지륜만다라(地輪曼荼羅)에 주(住)하며 그 모양은 방형(方形)이며 이름은 금륜(金輪)이다. 이본존(二本尊)은 백색(白色)이며 수륜만다라(水輪曼荼羅)에 주(住)하며 그 모양은 원형(圓形)이며 이름은 수륜(水輪)이다. 삼본존(三本尊)은 적색(赤色)이며 화륜만다라(火輪曼荼羅)에 주(住)하며 그 모양은 삼각형(三角形)이며 이름은 화륜(火輪)이다, 사본존(四本尊)은 흑색(黑色)이며 풍륜만다라(風輪曼荼羅)에 주(住)하며 그 모양이 반월형(半月形)이요 이름은 풍륜(風輪)이다.

1108) 법륜(法輪) : 부처의 교화(敎化)와 설법(說法)을 전륜성왕의 윤보가 산과 바위를 부수고 거침새 없이 나아감에 비유(比喩·譬喩)하여 일컫는 말.

1109) 윤보(輪寶) : 전륜왕의 칠보(七寶)의 하나. 금(金)·은(銀)·동(銅)·철(鐵)의 네 종이 있음. 변하여 성왕(聖王)의 뜻.

1에 본존本尊[1110]이 황색黃色일새 지륜만다라地輪曼荼羅에 머무르니住 네모난 모양方形의 금륜金輪이요, 2에 본존本尊이 흰색白色일새 수륜만다라水輪曼荼羅에 머무르니住 원형圓形의 수륜水輪이요, 3에 본존本尊이 붉은 색赤色일새 화륜만다라火輪曼荼羅에 머무르니住 삼각형三角形의 화륜火輪이요, 4에 본존本尊이 검은 색黑色일새 풍륜만다라風輪曼荼羅에 머무르니住 반월형半月形의 풍륜風輪이라 이는 사종四種의 만다라曼荼羅니 윤원구족輪圓具足[1111]의 뜻義이니라.

제16장 만다라曼荼羅

만다라曼荼羅란 예전 번역舊譯에는 단壇이라 또는 도량道場이라 번역譯하니 이는 본체體에 취就한 바른 뜻正意이요 새로운 번역新譯에는 윤원구족輪圓具足이라 또는 취집聚集(모음)이라 번역譯하니 이는 뜻義에 취就한 본래의 뜻本義이라.

곧 네모나고 둥근方圓 흙 단土壇을 쌓고築 제존諸尊을 이에 안치安置하여 음식을 공양齋供함은 이 만다라曼荼羅의 본체本體로써 단壇 가운데에 제존諸尊의 모든 덕諸德을 모아서聚集 일대법문一大法門을 이루니成 수레바퀴통轂·바퀴의 테輞·바퀴살輻의 세 가지가 원만히 구족具足圓滿하여 수레바퀴車輪를 이룸成과 같으니如

1110) (本尊)[본사(本師)][본불(本佛)] : 본사(本師)·본불(本佛)이라고도 함. 공양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되는 존상. 근본으로서 존경하고 숭상하는 것.

1111) 윤원구족(輪圓具足)[만다라(曼荼羅)] : 만다라(曼荼羅)를 번역한 말. 륜(輪)은 거륜(車輪)으로 거륜(車輪)의 곡(轂, 바퀴통)·망(輞, 바퀴테)·복(輻, 바퀴살) 등과 같이 제상(諸相)이 원만구족(圓滿具足)한 것. 만다라(曼荼羅)는 제불여래(諸佛如來)의 진실공덕(眞實功德)이 원만구족하여 흠결(欠缺)이 없는 것.『대일경소(大日經疏)』3에「시방세계(十方世界)의 미진수(微塵數)의 대비만행바라밀문(大悲萬行波羅蜜門)은 화장(華藏)과 같고 삼승(三乘) 육도(六道)의 무량응신(無量應身)은 근경(根莖)과 조엽(條葉)이 발휘(發暉)하여 상문(相問)함과 같다. 이 같은 중덕(衆德)이 윤원주비(輪圓周備)하므로 만다라라 한다」하였고 같은 곳[『대일경소(大日經疏)』3]에「만다라는 취집(聚集)이다. 여래의 진실공덕(眞實功德)이 일처(一處)에 집재(集在)하여 내지(乃至) 시세계(十世界)의 미진주수(微塵輳數)의 차별지인(差別智印)은 윤원복주(輪圓輻輳)한다. 익복대일심왕(翼幅大日心王)은 일체중생이 보문(普門)에 진취(進趣)하므로 만다라라 설(說)한다」하였음.

곧 만다라曼荼羅의 뜻義으로서 항상 불리는常稱 만다라曼荼羅란 이를 그림으로 그린圖畵 것이니 사종만다라四種曼荼羅 가운데 대만다라大曼荼羅에 해당該當한 대만다라大曼荼羅니라.

1에 대만다라大曼荼羅란 제존諸尊을 모두 모아總集 단장壇場함과 그及其 제존諸尊의 형체形體와 함께 그 단장竝其壇場의 전체全體 또는 제존諸尊을 한분 한분 그린圖畵 것者이니 곧 만다라曼荼羅의 총체總體일새 대大요, 대大란 5대五大[1112]의 뜻義이요 또 광대廣大의 뜻義이라 다른他 삼종三種도 5대에 매어 이루어진五大所成 것이지만 특特히 총체總體인 광대廣大의 의변義邊(義理의 가장자리)을 취取하여 대大라 이름名함이요,

2에 삼매야만다라三昧耶曼荼羅란 제존諸尊의 손手이 잡은執持 기장器杖[1113]과 인계印契[1114]를 그린繪畫 것者이니 여기서 삼매야三昧耶란 본서本誓[1115]의 뜻義으로서 제존諸尊의 본서本誓를 표치標幟(표시)

1112) 오대(五大)[오대종(五大種)][오륜(五輪)] : (1)만물의 구성요소인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을 말함. 지・수・화・풍(四大)에 공(空)을 더한 5가지의 원소. 5가지의 주요한 원소의 뜻으로, 오대종(五大種)이라고도 함. 그것 자체가 물질인 동시에 모든 물질을 형성하는 작용이 있는 지대(地大)와 수대(水大)와 화대(火大)와 풍대(風大)와 공대(空大). 공대(空大)는 물질적인 것으로서의 허공을 말함. (2)밀교에서는 지대(地大)는 방형(方形)으로 황색, 수대(水大)는 원형으로 백색, 화대(火大)는 삼각으로 적색, 풍대(風大)는 반월형(半月形)으로 흑색, 공대(空大)는 보주형(寶珠形)으로 청색임. 이 오대(五大)에 오색(五色)・오불(五佛)・오명(五明)・오지(五智)등을 배(配)함.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삼매야형(三昧耶形)인 오륜탑파(五輪塔婆)는 이 5가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오륜(五輪)과 같음.

1113) 기장(器杖) : 무기를 총칭함. 악지(惡知)와 악각(惡覺)을 퇴치하는 기구.

1114) 인상(印相)[모다라(母陀羅)][모다라(牟陀羅)] : 상인(相印)・밀인(密印)・계인(契印)・수인(手印)・인계(印契)・인(印)이라고도 함. 모다라(母陀羅)・모다라(牟陀羅)라고 음역된다. 인장(印章)을 누르는 것에서 밀교에서는 표식(標識)의 뜻으로 읽고, 또한 제존(諸尊)의 내증(內證)・본서(本誓)를 나타내는 외상(外相)으로 하고 있다. 불・보살의 내면적인 깨달음을 나타내는 형태. 이것에는 유상(有相)과 무상(無相)의 구별이 있어, 무상(無相)은 손에 연결되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하고, 유상(有相)의 인(印)은 손의 형태와 조합된 것 외에 막대기・칼・연(蓮) 등의 소지물로도 표현한다. 밀교(密敎)에서 특히 중시되고 행자가 인(印)을 맺고, 진언(眞言)을 외우고, 뜻으로 본존(本尊)을 관(觀)하면, 법신(法身)에 합성(合成)할 수 있다고 한다.

하여 천마天魔는 물론勿論이오 제존諸尊 자신自身도 이를 어기지違越 않는다는不能 서약誓約의 표치標幟(표시)이기 때문이요,

3에 법만다라法曼荼羅란 제존諸尊의 종자種子를 글씨와 그림으로 그린書畵 진언眞言과 모든 경전一切經의 문자文字와 뜻과 이치義理이기 때문이요,

4에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란 갈마羯磨는 작업作業의 뜻義으로서 곧 쇠를 녹여 기물을 만드는鑄造 형상形像이니 제존諸尊의 위의威儀와 작업作業을 진흙·찰흙泥塑 등等으로 주조鑄造함이니, 이 사만四曼 가운데中 처음初의 일一은 총체總體요 뒤後의 삼三은 별덕別德이라.

『비장기초秘藏記鈔』 2에 「이 사만四曼을 사四의 지인智印」이라 했고, 『제부요목諸部要目』[1116]에 「일체一切의 인계印契는 일체一切 진리의 본질法要이니 사지인四智印[1117]으로 거두어들일攝盡새 대지인大智印이란 다섯 가지 모양五相으로 본존本尊을 이룸成이 유가瑜伽[1118]이고 삼매야인三昧耶印이란 두 손二手으로써 화합和合하여

1115) 본서(本誓) : 불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서원. 부처님과 보살이 과거세상에서 부처가 되려고 뜻을 두었던 수행시대에 발원한 근본서원.

1116) 『제부요목(諸部要目)』[『다라니문제부요목(陀羅尼門諸部要目)』] : 『다라니문제부요목(陀羅尼門諸部要目)』의 약칭. 1권. 당 불공(不空) 번역. 진언제부(眞言諸部)에서 그 요의(要義)를 별기(別記)한 것.

1117) 사지인(四智印) : 일체의 인계(印契)와 일체의 법요(法要)가 사지인(四智印)에 모두 총섭되어 있다는 뜻. ①대지인(大智印) : 다섯 가지 상(相)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을 말함. ②삼매야인(三昧耶印) : 제존(諸尊)이 가지고 있는 삼매야형으로 5고도(五鈷刀)와 연화의 종류이며, 제존(諸尊)의 손으로 맺는 인계(印契)를 말하는 것. ③법지인(法智印) : 본존의 종자를 말하는 것으로 또는 법신의 삼마지(三摩地)이며, 현밀(顯密) 일체의 계경(契經)과 다라니를 말함. ④갈마지인(羯摩智印) : 제존의 위의(威儀) 작업을 말하는 것. 또는 4종 만다라를 말함. 인(印)은 결정하여 고치지 못한다는 뜻이며, 지(智)는 결단하여 여럿 가운데서 골라 택한다는 뜻이다. 4종 만다라는 부처님의 내덕(內德)을 표시하여 결정하며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한 각각 그 덕을 지켜서 결단 선택하므로 지인(智印)이라 부른다.

1118) 유가(瑜伽) : (1)마음을 다 잡는 것. 어떤 목적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힘을 집중한다는

금강박金剛縛[1119]을 발생發生한 인계를 이룸成印이요 법지인法智印이란 본존本尊의 종자種子인 법신法身의 삼마지三摩地인 일체계경一切契經[1120]의 글 뜻文義이요,

갈마인羯磨印이란 두ㄴ 금강권金剛拳[1121]으로써 잡고 있는執持 기장器杖과 같은如 표치標幟(표시)니 몸과 같은如身 위의형威儀形」이라 하였고, 『비장기본秘藏記本』에 「사종만다라四種曼荼羅의 1인 대만다라大曼荼羅는 5대五大이니 회상繪像(그림으로 그린 불상) 형체形體 등等을 말함이요, 2인 삼매야만다라三昧耶曼荼羅는 제존諸尊이 잡고 있는所執持 병기와 의장器杖의 인계印契요, 3인 법만다라法曼荼羅는 종자요,種子[1122]也 4인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는 위의이다威儀也」라 했으니 유가사瑜伽師[1123]는 마땅히 참작參酌할지어다.

그리고 이체理體(萬有의 본체)의 태장계胎藏界 만다라曼荼羅[1124]와

뜻. 마음의 통일. 명상. 뜻을 제어하여 마음의 통일을 도모하는 수행법. 요가의 목적은 명상에 의해 적정(寂靜)의 신비경(神秘境)에 들어가 절대자와의 합일(合一)을 실현하는 데 있음. (2)상응하는 것. 진언행자(眞言行者)의 신(身)・구(口)・의(意)의 작용이 부처님의 신(身)・구(口)・의(意)의 작용과 합치하는 것.

1119) 금강박(金剛縛) : 양손을 합쳐 손가락을 각각 끼는 인(印)의 이름.

1120) 계경(契經)[수다라(修多羅)] : 수다라(修多羅). 석존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기술한 경전(經典)・경문(經文)은 사람들의 소질에 들어맞고, 이(理)에 합당하기 때문에 계(契)라 함. 진리를 모아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경(經)이라고 함. 또는 경전의 총칭.

1121) 금강권(金剛拳) : 4종권(拳)・6종권(拳)의 하나. (1)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쥐고 주먹을 만든 것. (2)분노권(忿怒拳)이라고도 함. 엄지손가락을 쥐고, 주먹을 만들고, 둘 째 손가락 끝을 마디에 대고 세우는 것.

1122) 종자(種子) : 밀교에서 상징적 의의를 갖는 것으로서 해석된 하나하나의 문자. 불・보살 내지 각종사항을 표시하는 산스크리트 문자를 말함.

1123) 유가사(瑜伽師) : (1)요가를 행하는 사람. 관행자(觀行者). (2)밀교의 행자(行者). 삼밀(三密) 유가(瑜伽)를 행하기 때문.

1124)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 구명(舊名)은 대비태장생만다라(大悲胎藏生曼荼羅).『대일경(大日經)』에 기초하여 부처님의 보리심이 어머니의 태내 같은 대비심의 도움에 의해 교화 활동하는 의미를 표시한 것. 그림은 위를 동쪽으로 하고, (1)중태팔엽원을 중심으로 4중으로 나란히 12원으로 구획함. 중앙에 대일여래, 그 별덕(別德)을 사불(四佛)・사보살(四菩薩)에 상징하여 주위로 배열함. (2)변지원(遍知院). (3)연화부원((蓮華部院, 觀音院))은 관음이 주존(主尊). (4)금강수원(金剛手院, 薩陀院)은 금강살타가 주체. (5)지명원(持明院, 五大院, 忿

지덕智德의 금강계金剛界 만다라曼荼羅[1125]와 태胎·금金 양부兩部의 이중만다라二重曼荼羅[1126]와 세존世尊의 일체지분一切支分이 모두 다 皆悉 여래의 몸을 출현出現如來之身하신다 하신 지분생만다라支分生曼荼羅[1127]와 사바세계娑婆가 곧卽 적광토寂光土인 정토만다라淨土曼荼羅[1128]와 십법계十法界의 십계만다라十界曼荼羅[1129] 등等의 경계境界를 스스로 깨달아自證 밝게 구별할지了別어다.

뿐만 아니라 성자聖者의 법호法號나 또는 경전의 제목經題과 어떠한 삼매三昧 이름名이라도 한 번 들으면一聞 문득 깨닫느니라便

怒院)은 여기에 오대분노(五大忿怒)를 안치함. (6)석가원(釋迦院)은 석가를 주체. (7)지장원(地藏院)은 지장보살이 주존. (8)허공장원(虛空藏院)은 허공장보살이 중심. (9)제개장원(除蓋障院)은 제개장보살이 주체. (10)문수원(文殊院)은 문수보살을 중심. (11)소실지원(蘇悉地院). (12)외금강부원(外金剛部院, 最外院). 합계 4백 14존을 그림으로 표시함. [『태장계만다라초(胎藏界曼荼羅鈔)』].

1125)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 양부만다라(兩部曼荼羅)의 하나.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는 9회로 조직되었으므로 9회 만다라 또는 9종 만다라라고 한다. 법신여래의 깊은 지혜의 세계를 금강에 비유하여 상징화한 것이 이 만다라. 9회를 설명하는 데 종인향과(從因向果)의 차례와 중생 교화 곧 종과향인(從果向因)의 차례가 있다. 종과향인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 (1)갈마회(羯磨會). (2)삼마야회(三摩耶會). (3)미세회(微細會). (4)대공양회(大供養會). (5)4인회(印會). (6)1인회. (7)이취회(理趣會). (8)항삼세갈마회(降三世羯磨會). (9)항삼세삼마야회(降三世三摩耶會).『금강정경(金剛頂經)』에 근거함.

1126) 이중만다라(二重曼荼羅) : 태금(胎金) 양부만다라는 각각 천략(淺略)과 비밀의 양중(兩重)이 있다. 태장계(胎藏界)에 있는 것은『대일경(大日經)』<구연품(具緣品)>에 설한 것으로, 대일이 아미타삼마지(阿彌陀三摩地)에 주(住)하여 나타낸 가지경계(加持境界)다. 이는 삼부중(三部中)의 연화부만다라(蓮華部曼荼羅)로 천략만다라(淺略曼荼羅)다.『대일경소(大日經疏)』6에「청색(靑色)은 무량수(無量壽)의 색(色)이며 이미 금강실제(金剛實際)에 이르러 곧 방편(方便)으로 가지(加持)하여 대비만다라(大悲曼荼羅)를 보현(普現)함이 정허공중(淨虛空中)에 만덕(萬德)을 구함(具含)함과 같기 때문이다」하였음.

1127) 지분생만다라(支分生曼荼羅) : (1) (行者)의 몸 위에 오불(五佛)의 종자(種子)를 늘어놓고 자지분(自支分)에서 제존(諸尊)을 유출(流出)하는 것,『대일경소(大日經疏)』3에「경(經)에 이르기를 "세존(世尊)의 일체지분(一切支分)은 모두 여래의 몸을 출현(出現)한다"」하였음. (2)행자(行者)의 신상(身上)에 오불(五佛)의 종자(種子)를 포열(布列)하고 인(因)하여 지분(支分)으로부터 제존(諸尊)을 유출(流出)함.

1128) 정토만다라(淨土曼荼羅) : 관경만다라(觀經曼荼羅)의 다른 이름. 정토변상(淨土變相) 가운데 아미타불阿彌陀佛)의 정토(淨土)인 극락세계의 모양을 그린 만다라를 말함.

1129) 십계만다라(十界曼荼羅)[십계대만다라(十界大曼荼羅)] : 십계대만다라(十界大曼荼羅)와 같음. 십계(十界)의 부처님 상(相)을 그린 대만다라.

了.

수릉엄삼매도결首楞嚴三昧圖訣 상上 종終

병술년丙戌(1946년) 봄春 운문암雲門庵에서於 벽산한인碧山閒人 찬撰

두 번째 교정 출판하면서

『금강심론金剛心論 읽기』는 첫 번째로 제주 자성원(2006년)시절부터 신심하나 가지고 번역하기 시작하여 애월 고내봉 토굴(2009년)에서 탈고脫稿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살림살이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차 이번에 『운문암雲門庵 금강심론金剛心論』과 『태안사泰安寺 금강심론金剛心論』을 정리 출판하면서 그 동안의 오류誤謬와 오자誤字를 바로잡고 주註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금강심론』을 번역하기는 역부족力不足함을 절실히 느끼며 부끄럽지만 일보 전진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금강심론金剛心論』을 다시 한 번 정독하면서 금타金陀대화상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보리방편문菩堤方便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리방편문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릉엄삼매도결首楞嚴三昧圖訣』을 지으시고 『우주宇宙의 본질本質과 형량形量』 역시 맨 마지막 부분은 보리방편문 내용과 일치합니다. 『금강심론金剛心論』은 저도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전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 두 구절 이해한다면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루한 교정 작업에 동참하여주신 보원普圓스님, 광주에 문수현文守炫거사님 진주에 인성認性보살님 그리고 제주에 송종화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2019년 3월

연지당蓮池堂 본연本然합장合掌

번역하는데 인용한 책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8년

中韓辭典 고려대학교 2003년

漢韓辭典 금성교과서주식회사 1994년

佛敎大辭典 명문당 1999년

佛敎大辭典 홍법원 2003년

佛敎辭典 동국역경원 2001년

佛光大辭典 불광출판사 1995년

密敎辭典 홍법원 1998년

圓通佛法의 要諦 성륜각 2000년

「일인전一人傳에 일인도一人度」에 나오는 경전經典과 논論

＊금광명경金光明經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수릉엄삼매경首楞嚴三昧經 ＊문수반야경하文殊般若經下

＊수릉엄경首楞嚴經 ＊무량수경無量壽經 ＊사익경思益經.

＊승천왕반야경勝天王般若經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승만경勝鬘經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법화경法華經. ＊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

＊보요경普曜經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

＊법화경의소法華經義疏 ＊인왕경仁王經.

＊불공견색심주왕경不空羂索心呪王經 ＊범망경梵網經
＊범망경하梵網經下 ＊보살영락경菩薩瓔珞經
＊열반경涅槃經
＊화엄경華嚴經 ＊화엄대소초華嚴大疏秒
＊해심밀경解深密經. ＊영락본업경瓔珞本業經
＊유마경維摩經
＊묘법연화삼매비밀삼마야경妙法蓮花三昧秘密三摩耶經
＊육조단경六祖檀經 ＊최승왕경最勝王經 ＊예참경禮懺經
＊대집지장십륜경大集地藏十輪經 ＊정법염경正法念經
＊대일경大日經 ＊대일경소大日經疏
＊정명소淨名疎 ＊석마하연론釋摩河衍論 ＊유식론唯識論
＊유가론瑜伽論 ＊기신론起信論 ＊기신론소起信論疏
＊지도론智度論
＊정리론正理論 ＊관심론觀心論 ＊섭론攝論 ＊법화론法華論
＊구사론俱舍論 ＊현응음의玄應音義 ＊법화현의法華玄義
＊삼장법수三藏法數 ＊불지론佛地論 ＊가상소嘉祥疏
＊화엄현담華嚴玄談 ＊화엄연의초華嚴演義秒
＊종경록宗鏡錄 ＊탐현기探玄記 ＊대승지관大乘止觀
＊비장기秘藏記 ＊제부요목諸部要目
＊서역기西域記 ＊광기光記 ＊증도가證道歌
＊분별성위경게分別聖位經偈 ＊오륜구자명비석五輪九字明秘釋
＊묘종초妙鍾鈔 ＊사명교행록四明教行錄 ＊잡집론雜集論
＊대승의장大乘義章 ＊승만보굴중본勝鬘寶窟中本
＊혜림음의慧琳音義

제4편第四篇

우주宇宙의 본질本質과 형량形量

* 금타金陀 대화상님께서 1942년 6월 일본어로 저술한 「신설新説 우주宇宙の본질本質と형량形量」은 청화 큰스님께서 1974년 5월 경기도 광명시 도덕산 성도원聖道園에서 처음으로 번역 출판하셨고 1979년 영암 월출산 상견성암에서 출판한 「금강심론金剛心論」에 교정 수록하여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머리말 (1)

인류人類는 오랜 역사적歷史的 과정過程을 통通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험난險難한 시련試鍊과 빛나는 발전發展을 거듭하여 현대現代의 풍요豐饒한 과학문명科學文明을 이룩하였으나 인간人間의 진정眞正한 해방解放과 평화平和와 복지福祉는 아직도 요원遼遠한 지평선地平線을 망연茫然히 바랄 뿐이다.

그것은 정녕 문명文明의 주인공主人公이 되어야 할 인간자신人間自身이 거대巨大한 기계문명機械文明의 조림稠林속에서 자아自我를 상실喪失하고 지향감각志向感覺이 마비痲痺된 채 도리어 물량物量의 생산生産과 소비消費의 노예奴隸로 전락轉落하여 상호불신相互不信과 분열分裂과 불안不安의 심각深刻한 역사적歷史的 위기危機에 직면直面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무한無限한 인격人格을 지닌 고귀高貴한 인간정신人間精神을 소외疎外한 가치관價値觀의 전도顚倒에서 오는 필연적必然的인 과보果報가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유물주의唯物主義와 관능향락官能享樂의 심연深淵에서 허덕이는 현대現代의 위기危機를 극복克服하는 지상과제至上課題는 먼저 인간존재人間存在의 자아회복自我回復과 인격완성人格完成의 기반基盤 위에서 이루어지는 진정眞正한 인생관人生觀의 확립確立이 선행先行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존재人間存在의 실존實存과 우주만유宇宙萬有의 본질本質을 가장 성실成實하고 철저徹底하게 구명究明하여 어디까지나 의義롭고 정당正當하게 생활生活한 산 증거證據를 우리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여러 현성賢聖들의 거룩한 자취에서 구求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特히 인간정신人間精神의 절대적絶對的 존엄성尊嚴性을 유아독존적唯我獨尊的으로 증오證悟하고 도파道破한 대표적代表的인 교의敎義가 불교佛敎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성人間性의 깨달음을 완성完成한 도인道人의 경계境界에는 상락아정常樂我淨과 대자대비大慈大悲를 구족具足한 영생해탈永生解脫의 청복淸福과 아울러 모든 신통지혜神通智慧에 자재自在하는 삼명육통三明六通과 우주宇宙의 일체만사一切萬事에 통달무애通達無碍하는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원만圓滿히 갖춘다는 불전佛典의 중설부언重說附言들을 일별一瞥하더라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 무한無限한 지혜공덕智慧功德을 간직한 인간성人間性의 존엄尊嚴을 실증적實證的으로 증명證明하고 물질物質의 본질本質을 구명究明하여 보다 높은 차원次元에서 오만傲慢한 유물주의唯物主義와 과학기술科學技術을 지양止揚하여 인류人類의 영원永遠한 복지福祉를 향도嚮導하는 현대적現代的인 구세달인救世達人의 출현出現을 간절懇切히 갈망渴望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歷史的 교망翹望[1130]에 수응酬應[1131]하는 듯 천행天幸히도 고故 금타화상金陀和尙께서 출흥出興하시어 수십년數十年을 두고 좌선坐禪의 노勞를 감행敢行하시고 일체현상一切現象의 성상性相을 두루 통달通達한다는 왕삼매王三昧 곧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를 증득證得하시어 일찌기 석존釋尊께서 능엄경楞嚴經에서 밝히신 바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를 얻으면 사바세계娑婆世界를 보는 것이 마치 장중掌中의 암마라과庵摩羅果를 보는 듯 소상분명昭詳分明하다"는 금언金言과도 같이 우주宇宙의 본질本質과 형량刑量을 천안天眼으로 통관通觀하시어 철두철미徹頭徹尾 근원적根源的인 도리道理의 법수法數에 입각立脚하여 수리적數理的으로 체계화體系化하시고 아울러 인간人間의 업력業力과 신통력神通力과 자성불自性佛의 무한無限한 공능功能 등等을 또한 수리화修理化하는 등等 과학자科學者의 상대적相對的인 경험지식經驗知識을 보완補完하는 동시同時에 인간정신人間精神의 무한無限한 가능성可能性을

1130) 교망(翹望) : 대단히 기다림.

1131) 수응(酬應) : 남의 요구(要求)에 응(應)함.

여실如實히 증명證明하심은 실實로 천지天地를 진감震撼하는 일대성사一大盛事가 아닐 수 없으며 인간성人間性의 현묘玄妙한 존엄尊嚴에 대對하여 새삼 경각발분警覺發奮되지 않을 수 없으니 바야흐로 물량物量의 철옥鐵獄과 기계機械의 가쇄枷鎖에 얽매여 자아상실自我喪失의 심각深刻한 고뇌苦惱에 멍든 현대인現代人에게 반드시 신생부활新生復活의 감로법문甘露法門이 될 것을 믿어 마지않는다.

그러나 금타화상金陀和尙의 파천황破天荒[1132]의 천문교설天文敎說이 다만 개념적槪念的이고 사변적思辨的인 소산所産이 아닐 뿐 아니라 분석과학적分析科學的인 시도試圖와는 그 차원次元을 달리한 순수직관적純粹直觀的인 선정禪定을 통通한 통찰洞察이기 때문에 그 내용內容에 있어 현행現行 천문학天文學과는 저으기 상이배치相異背馳된 경정逕庭이 있음은 도리어 당연當然한 일 일 것이며 현행現行 천문학天文學 또한 아직도 의회가정疑懷假定(의심하고 가정함)의 영역領域을 벗어나지 못함은 사실事實이니 모름지기 진지眞摯한 구도인求道人의 자세姿勢에서 허심탄회虛心坦懷한 마음으로 숙독음미熟讀吟味한다면 반드시 귀중貴重한 조도助道의 승연勝緣이 될 것을 확신確信하는 바이다.

그리고 금타화상金陀和尙의 역작力作에는 본本 저술외著述外에도 수행방편문修行方便門인 "일인전一人傳에 일인도一人度" "관음문자觀音文字" "해탈십육지解脫十六地" 등等과 가위可謂 팔만장경八萬藏經을 망라網羅하고 진여실상眞如實相 곧 인간본성人間本性의 상징도象徵圖라 할 수 있는 "수릉엄삼매도首楞嚴三昧圖" 및 "수릉엄삼매도결首楞嚴三昧圖訣" 등等 현세대現世代에 시기상응時機相應한 귀중貴重한 유고遺稿들이 있으나 경제사정經濟事情으로 인因하여 뒤로 미루게 됨을 한탄恨歎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 금타화상金陀和尙 유고遺稿의 일부一部인 당시當時 일본어

1132) 파천황(破天荒) : 천지개벽(天地開闢) 이전(以前)의 혼돈한 상태(狀態)를 깨뜨려 연다는 뜻으로, 이제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행(行)함을 이르는 말.

日本語로 된 "우주宇宙의 본질本質과 형량形量"만을 번역飜譯 상재上梓함에 있어 많은 시혜施惠를 베풀어 주신 장덕성화張德性華 청신녀淸信女와 장세열거사張世熱居士를 비롯한 여러 조연助緣 법우法友들에게 충심衷心으로 감사感謝의 합장合掌을 올린다.

1974년年 5월月

성도원聖道園에서

석청화釋淸華 합장合掌

머리말 (2)

금타金陀 화상和尙께서 저술著述한 바, 미증유未曾有한 파천황破天荒의 우주론宇宙論은 단순한 사변적思辨的인 소산所産이 아닐 뿐 아니라, 경험經驗 과학적科學的인 시도試圖와는 그 차원次元을 달리한 순수純粹 직관적直觀的인 현묘玄妙한 선정禪定을 통通한 통찰洞察이기 때문에, 그 내용內容에 있어 현행現行 천문학天文學과 현격懸隔한 차이差異가 있음은 도리어 당연當然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현대천문학現代天文學 또한 아직도 암중모색暗中摸索의 영역領域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實情이니, 설사設使 금타金陀 화상和尙의 천문설天文說이 하나의 가설假說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너무나 거창巨創하고 합리적合理的인 체계體系를 어느 뉘라서 감敢히 부정否定할 수가 있을 것인가?

또한, 화상和尙의 우주론宇宙論은 어디까지나 불설佛說에 그 근저根柢를 두었으며, 불교佛敎 우주관宇宙觀인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 곧 10억億 우주宇宙에 관關한 초유初有의 체계화體系化임을 감안할 때, 참으로 귀중貴重한 불교佛敎 문헌文獻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특特히 불교인佛敎人으로서는 불교佛敎 우주관宇宙觀에 대對한 깊은 고려考慮없이 다만 일지반해一知半解한 천문상식天文常識만으로 천박淺薄한 비판批判을 함부로 한다면, 도리어 방불훼법謗佛毁法의 허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화상和尙의 우주론宇宙論이 저으기 난해難解한 것은 천문학天文學 본래本來의 성격상性格上 어쩔 수 없을 뿐 아니라, 본本 저술著述이 구체적具體的인 주해註解가 없는 원리原理만의 논술論述이기 때문에 부득이不得已한 일이니, 모름지기 진지眞摯한 구도인求道人의 자세

姿勢로 숙독熟讀 음미吟味한다면, 반드시 귀중貴重한 조도助道의 자량資糧이 될 것을 확신確信하는 바이다.

후학後學 청화淸華 합장合掌

서 문 序 文

일미一微를 오견誤見하면 망상妄想이 되고, 정견正見하면 진각眞覺이 된다. 일체一切 만사萬事가 자기自己의 견해見解에 의依하여 진망眞妄이 간별揀別될 뿐 일미一微나 일체一切에 본래本來 진망眞妄이 없으며 기세간器世間 (현상계現象界) 이대로가 일진법계一眞法界로서 일체중생一切衆生이 일불一佛의 화신化身이며, 개별적個別的 화신化身이 바로 본신本身의 불佛임을 망각忘却하고, 전도망상顚倒妄想하여 미혹인迷惑人이 되고 스스로 범부凡夫라 이름하나 일대인一大人에게는 성범聖凡이 없다.

"만약 사람이 삼세三世의 일체一切가 불佛임을 요지了知하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성法界性을 관觀할지니, 일체一切가 유심唯心의 소조所造니라." (약인욕료지若人欲了知 삼세일체불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應觀法界性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함은 화엄게華嚴偈이다.

법계성法界性을 견見하고 그 이하以下는 색법色法으로써 전간全揀하며, 이상以上은 심법心法으로 전수全收하니, 색즉시공色卽是空이요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 공空이란 색애色礙가 없는 부단공不但空인 진공眞空을 말하며, 색色이란 질애質礙이면서 그림자와 같이 진공체眞空體의 묘용妙用인 가상假相을 말하므로, 즉체卽體 즉용卽用으로서 성性·상相이 일여一如며, 즉심즉불卽心卽佛이므로, 삼세三世 일체一切가 보현경普賢境이다.

그러나, 미혹인迷惑人은 대일심체大日心體가 질애적質礙的 그림자에 가리워, 진지眞智의 증명證明이 없이 망견妄見을 세워서 진리眞理라고 생각하며, 주객主客이 전도顚倒한 사실事實마저 부인否認한다.

이에, 몇 가지 예例를 들면, 열熱이 지륜계地輪界(지구地球와 지구地球의 반경半徑을 배증倍增한 구상球狀의 허공신虛空身을 운云함) 자신自身

의 열熱임을 모르고, 열원熱源이 태양太陽에 있다고 하며, 광명光明 또한 지구地球 자아自我의 광명光明임을 모르고 태양太陽이 광원光源이라 한다. 그리고, 월月은 태양太陽의 반영체反映體라 한다.

그러나, 만근輓近 비행술飛行術이 발달發達하자, 태양을 향하여 상승上昇할수록 냉기冷氣가 다가오고, 또한 어둠을 느끼며, 달밤에는 온기溫氣가 느껴지는 사실事實은 무슨 이유理由인가? 또는 월月의 상현上弦과 하현下弦이 지구地球의 그림자에 가리운 표징表徵이라 하는데 과연 의문이 없을 것인가?

현대現代 과학科學 문명文明을 자랑하면서, 아직도 은하수銀河水가 무엇임을 분명分明히 알지 못하며, 일월성수日月星宿가 어째서 허공虛空에 부유浮遊하고 있는지, 그리고 좌전左轉 또는 우전右轉하지 아니치 못할 이유理由가 나변那邊에 있는지, 이에 대對한 해명解明이 애매曖昧하며, 역년일시曆年一時가 365일日과 6時 미만未滿임을 경험經驗하면서, 태양太陽과 지구地球의 거리距離와는 무관無關한 사실事實이라 생각하고,

굳이 지구地球 반경半徑의 23440배倍라 말하며, 빛(광光)이 태양太陽에서 지구地球까지 여행旅行하는 데, 8분分 20초秒 걸린다고 한다. 아무튼 숫자數字는 형식과학形式科學에 속屬하나 요要는 주관점主觀點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問題이다.

이십세기二十世紀 문명文明이 여지껏 우주宇宙를 해부解剖하지 못하며, 육안肉眼의 실성實性을 회복回復한 천안天眼에 의依해서만 발견發見할 수 있는, 양핵陽核의 칠분일七分一에 해당該當하는 금진金塵, 곧 원자핵原子核의 본질本質을 분석과학分析科學에 의依하여 발견發見하려고 허로虛勞를 비費함은, 정안正眼이 있는 자者 입을 삼가고 있을 수 없으니, 정견正見 있는 인사人士는 채찍을 들고 일어서라! 그리고 성인

聖人들이 인정認定한 바, 장구長久한 세월歲月을 두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된 정신문명精神文明을 등장登場시켜라!

본설本說 "우주宇宙의 본질本質(법계성法界性)과 형량形量(행상行相)"인 편언片言 척구隻句가 만萬에 일一이라도 정도正道를 지시指示하는 조도적助道的 자량資糧이 될 수 있다면, 행심幸甚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본설本說을 육절六節로 대별大別하고 백항百項으로 소분小分하였으나, 일관一貫된 도리道理로 시종始終하였으며, 더욱이 태장계胎藏界의 수치數値로써 일률적一律的으로 계산計算한 숫자數字이므로, 백百 중中 그 일一을 인정認定할 때, 백百을 또한 부인否認할 수 없을 것이므로, 췌언贅言이면서 이를 부언附言하는 바이다.

임오壬午[1133] 6월月 9일日

어於 정읍井邑 내장산內藏山 벽련선원碧蓮禪院 석釋 금타金陀 식識

[1133] 1942년.

풀어 읽는 서문序文

한 티끌一微도 잘못 보면誤見하면 망상妄想이 되고, 바로 보면正見 참된 깨달음眞覺이 된다. 일체一切 만사萬事가 자기自己의 견해見解에 의지依하여 진실함과 망령眞妄됨이 분별揀別될 뿐 한 티끌一微이나 일체一切에 본래本來 진실함과 망령됨眞妄이 없으며 기세간器世間<현상계現象界> 이대로가 오직 하나인 참된 세계一眞法界[1134]로서 일체중생一切衆生이 한 부처님一佛의 화신化身이며, 개별적個別的 화신化身이 바로 본래 몸本身의 부처님佛임을 망각忘却하고, 잘못 헛되이 생각顚倒妄想하여 미혹인迷惑人이 되고 스스로 범부凡夫라 이름 하나 위대한 사람一大人에게는 성인과 범부聖凡가 따로 없다.

"만약 사람이 과거·현재·미래三世의 일체一切가 부처님佛임을 깨닫고자了知하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法界性을 관찰觀할지니, 일체一切가 오직 마음唯心의 지은 바所造니라."<약인욕료지若人欲了知 삼세일체불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應觀法界性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이라 함은 화엄게華嚴偈이다. 법계의 성품法界性을 보고見 그 이하以下는 물질 법色法으로써 온전히 분별全揀하며, 이상以上은 마음 법心法으로 전부 거두어全收, 물질이 바로 공色卽是空이요 공이 바로 물질空卽是色이라, 공空이란 물질적 장애色礙가 없는 부단공不但空[1135]인 참된 공眞空[1136]을 말하며, 물질色이란 질애質礙[1137]이면서 그림자와 같이 참된 공의 본체眞空體에 묘한 작용妙用인 거짓모양假相을 말하므로, 곧 본체卽體가 바로 작용卽用으로서 성품性과 모양相이 한결같으며一如, 곧 마음

1134) 일진법계(一眞法界) : 오직 하나인 참된 세계. 곧 절대 무차별의 우주 실상이다.

1135) 부단공(不但空) : 필경공(畢竟空)·무소득공(無所得空)이라고도 한다. 유(有)를 인정치 않는 공(空)을 단공이라 함에 대하여, 그 공도 역시 공(空)하다는 절대 부정(否定)의 공을 부단공이라 함.

1136) 진공(眞空) : ⑴비유(非有)의 유(有)인 묘유(妙有)에 대하여 비공(非空)의 공(空)을 이르는 말. ⑵진여(眞如)의 실성(實性)이 모든 중생의 미혹한 생각을 여의어 있는 상태.

1137) 질애(質礙) : 색법(色法)이 가지고 있는 성질로써 질량(質量)에 있어 서로 장애되는 것.

이 바로 부처卽心卽佛이므로, 과거・현재・미래三世 일체一切가 보현경계普賢境[1138]이다.

그러나 미혹인迷惑人은 큰 빛 마음의 본체大日心體가 질애적質礙的 그림자에 가려 참된 지혜眞智의 증명證明이 없이 망령된 견해妄見를 세워서 진리眞理라고 생각하며, 주인과 손님主客이 뒤바뀐顚倒 사실事實마저 부인否認한다.

이에, 몇 가지 예例를 들면, 열熱이 지륜계地輪界<지구地球와 지구地球의 반경半徑이 갑절로 늘어난倍增 둥근 모양球狀의 허공신虛空身을 말云함> 자신自身의 열熱임을 모르고, 열의 근원熱源이 태양太陽에 있다고 하며, 광명光明 또한 지구地球 자아自我의 광명光明임을 모르고 태양太陽이 빛의 근원光源이라 한다. 그리고 달月은 태양太陽의 빛이 반사한 본체反映體라 한다.

그러나 몇 해 전 부터輓近 비행술飛行術이 발달發達하자, 태양을 향하여 상승上昇할 수록 냉기冷氣가 다가오고, 또한 어둠을 느끼며, 달밤에는 온기溫氣가 느껴지는 사실事實은 무슨 이유理由인가? 또는 달月의 상현上弦(음력 매달 7~8일경에 나타나는 달의 형태. 둥근 쪽이 아래로 향한다)과 하현下弦(음력 매달 22~23일에 나타나는 달의 형태. 활 모양의 현(弦)을 엎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이다)이 지구地球의 그림자에 가린 표징表徵(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이라 하는데 과연 의문이 없을 것인가?

현대現代 과학科學 문명文明을 자랑하면서, 아직도 은하수銀河水가 무엇임을 분명分明히 알지 못하며, 해와 달 그리고 별日月星宿이 어째서 허공虛空에 떠다니고浮遊 있는지, 그리고 왼쪽으로 돌고左轉 또는

1138) 보현경계(普賢境界) : 널리 원융한 교(敎)를 신수(信受)하는 이가 깨닫는 경지.

오른쪽으로 돌지右轉 아니할 이유理由가 어디那邊에 있는지, 이에 대對한 해명解明이 애매曖昧하며, 일 년曆年 한 때一時가 365일日과 6시時 미만未滿임을 경험經驗하면서, 태양太陽과 지구地球의 거리距離와는 관계없는無關 사실事實이라 생각하고, 굳이 지구地球 반경半徑의 23440배倍라 말하며, 빛<광光>이 태양太陽에서 지구地球까지 여행旅行하는데, 8분分 20초秒 걸린다고 한다. 아무튼 숫자數字는 형식과학形式科學에 속屬하나 중요한 것은要 주관점主觀點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問題이다.

이십세기二十世紀 문명文明이 여태껏 우주宇宙를 해부解剖하지 못하며, 육안肉眼의 실성實性(본성)을 회복回復한 천안天眼[1139]에 의지依해서만 발견發見할 수 있는, 양핵陽核[1140]의 $\frac{1}{7}$에 해당該當하는 금진金塵[1141], 곧 원자핵原子核[1142]의 본질本質을 분석과학分析科學에 의지依하여 발견發見하려고 헛된 노력虛勞을 소모費함은, 바른 눈正眼이 있는 자者 입을 삼가고 있을 수 없으니, 정견正見 있는 인사人士는 채찍을 들고 일어서라! 그리고 성인聖人들이 인정認定한 바, 오랜長久 세월歲月을 두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된 정신문명精神文明을 등장登場시켜라!

본설本說 "우주宇宙의 본질本質<법계성法界性[1143]>과 형량形量<행상行

1139) 천안(天眼) : 오안의 하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환히 보는 신통한 마음의 눈이다. 천도(天道)에 나거나 선정(禪定)을 닦아서 얻게 되는 눈이다.

1140) 양핵(陽核) : 양전기를 띤 핵이라는 뜻으로, '원자핵'을 이르는 말.

1141) 금진(金塵) : 또는 동진(銅塵)·철진(鐵塵)·투금진(透金塵). 인도에서 쓰던 수량의 단위. 금의 가장 작은 가루로 자유롭게 몸속을 지나갈 만큼의 크기를 말함. 극미(極微)의 49배, 미(微)의 7배, 지절(指節)의 40, 354, 307분의 1에 해당.

1142) 원자핵(原子核) : 원자의 중심부를 이루는 입자. 양자와 중성자가 강한 핵력으로 결합한 것으로 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양(陽)의 전하를 갖는다. 크기는 원자의 1만분의 1 정도이나 질량은 원자 질량의 99% 이상이다.

1143) 법계성(法界性) : 법계(法界)와 법성(法性)을 합하여 법계성이라 함. 법계는 즉 법성이라

相[1144]>"인 한 마디 말片言 짧은 문구隻句가 만萬에 하나一라도 정도正道를 가리켜 보이며指示 도를 이루는데助道的 자재와 양식資糧이 될 수 있다면, 다행스럽기幸甚 그지없다.

그리고 본설本說을 6절六節로 크게 나누고大別 백가지 항목百項으로 작게 분류小分하였으나, 한결같은一貫 도리道理로 시종始終하였으며, 더욱이 태장계胎藏界[1145]의 수치數値로써 일률적一律的으로 계산計算한 숫자數字이므로, 백百 가운데中 그 하나一를 인정認定할 때, 백百을 또한 부인否認할 수 없을 것이므로, 쓸데없는 말贅言이면서 이를 덧붙여 말附言하는 바이다.

1942년壬午 6월月 9일日

정읍井邑 내장산內藏山 벽련선원碧蓮禪院에서於 석釋 금타金陀 식識

1144) 행상(行相) : ⑴소승에서는 주관의 인식 대상, 곧 객관의 사물이 주관인 마음 위에 비친 영상(影像)을 말함. ⑵대승에서는 주관의 인지하는 작용을 말하니 곧 마음에 비친 객관의 영상을 인식하는 주관의 작용.

1145) 태장계(胎藏界) : 밀교의 2대 법문(大法門)의 하나. ↔금강계(金剛界). 태장계에는 함섭(含攝 : 머금다)과 섭지(攝持 : 지니다)의 두 가지 뜻이 있음. 어머니의 태 안이 아이를 잘 보호하여 키우는 기능이 있는 것같이, 일체 중생에게는 본래적으로 평등하게 대일여래의 이성(理性)을 함장하여 섭지하고 있음을 비유해서 태장계라 함. 이것은 대일여래의 이성적(理性的) 부문. 곧 본래부터 있는 영원한 깨달음.

1. 근계謹啓[1146]

아룁니다.
더욱 청안(淸安)하심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삼가 말씀드리건대, 조선불교중앙선원 금타(金陀)스님의 저술 「신설 우주의 본질과 형량」 책 한 권을 드립니다. 이 책은 이십 여 년간 불교의 깊은 연구를 쌓아 좌선 7년의 고행을 감행해온 결정체이며, 저자는 아래의 기문(記文:「신설 우주의 본질과 형량」에 붙여)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단공(不但空 : 절대 부정의 空)의 모든 무애(無礙)를 사실과 대조하여 과학자의 경험(經驗)/지식(知識)을 보충함과 동시에 진리에 입각하여 차이점을 나타낸다면, 태양이 열의 근원 또는 빛의 근원이지 않고 달이 열의 근원체로써 해는 차가움의 근원체라는 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차이점을 수학이론으로 규명하는 등, 백 가지에 달하는 결실로 학계를 동요하게 할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나, 더 나아가 청년학도의 이 진지한 새 연구가 높은 평판을 받기를 바라기에 요청하는 바이며 아울러 그 뜻이 잘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삼가 글월을 갖춥니다.

소화 십육년(서기 1941년) 5월 X일
경성부 조선불교사 사장 나카무라 켄타로

2. 기記

기록
「신설 우주의 본질과 형량」에 붙여
저자는 말한다. 원자핵은 사대(四大) 가운데 물기운이며, 전자(電子)는 불기운, 그 움직이는 힘은 바람기운, 중성진(中性塵)은 흙기운이 되어, 이 부처님의 이른바 소조사대(所造四大)는 과학에 의존하여 해부되어지거나 해서, 그리하여 앞으로의 문제는, 능조사대(能造四大)로 하여금 철학을 통하여

1146) 1941년(소화16년) 출판한 일본어 "우주의 본질과 형량" 책 앞부분 근계(謹啓 : 편지 첫머리에 쓰는 한문 투의 말)와 기(記) 부분 번역한 것입니다. "우주의 본질과 형량"의 중요 부분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청화큰스님께서 번역한 태안사 본 서문은 194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정하건데 1941년 1차로 발행하고 1942년 2차 출판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과학이나 색법(色法)의 한 단계를 규명하여, 세속에 접근해서 참된 것과 속된 것을 타파하여, 우선 건혜지(乾慧地 : 지혜는 깊으나 아직 법성을 깨닫지 못한 단계)로 오르게 하는 큰 깨달음의 기초를 쌓게 함을 요하는, 과학의 본보기를 널리 알릴 수 있다면 현 시대에 있어 요구되는 장소의 원자핵, 발견하기 어려운 그 미세한 원자핵은 불교 이야기의 금진(金塵 : 금의 가장 작은 가루로 자유롭게 몸속을 지나갈 만큼의 크기를 말한다. 극미의 49배)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천안(天眼 : 5안의 하나)에 의지하는 것만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으로 이 금진(金塵)을 0으로 하여, 형이상(形而上)
형이하(形而下)라고 하려 한다면,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인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사실 또한 명백한 우주의 본질, 즉, 법계성(法界性)을 보아 그 형량(形量)이 도리에 의지하는 법계의 행상(마음에 비치는 객관적인 것)이나 밝은 곳으로 누누이 도달한다면, 만상(萬像)을 관조함에 만족하리라.

권 두 卷頭

수 묘 게 數妙偈

일시불공만법기언 一是不空萬法起焉
만십구공비공이공 滿十俱空非空而空
이가상응비본비적 二假相應非本非迹
삼법전전인과동시 三法輾轉因果同時

본구사대거상오위 本具四大居常五位
사대호인이팔성실 四大互因二八成實
칠의일실육륜상전 七依一實六輪常轉
이사삼삼호위인과 二四三三互爲因果

오위삼법함장일실 五位三法含藏一實
구과팔인포화상주 九果八因包和常住
태장십육수연비주 胎藏十六隨緣比周
일지삼수오화칠풍 一地三水五火七風

삼오위본일칠시적 三五爲本一七示迹
칠삼만수오일과반 七三滿數五一過半
만자욕평과반생의 滿者欲平過半生歪[1147]
이구일지십오금강 離垢一地十五金剛

등체금진변만시방 等體金塵遍滿十方
일체만유수기분자 一切萬有隨器分資
수현차신내외정의 雖現此身內外正依

1147) : 기울 왜, 외. 영인본, 태안사 금강심론에는 의로 표기.

지수화풍사계섭지 地水火風四界攝持

금진합공성상난분 金塵合空性相難分
세근추경은현좌우 細根麁境隱顯左右
금진일칠편성수진 金塵一七便成水塵
삼칠음화오칠양성 三七陰火五七陽性

칠칠기풍우칠화토 七七起風又七化土[1148]
지진오분사수일화 地塵五分四水一火
좌전수지인동척이 左轉水地引同斥異
우전풍화인이척동 右轉風火引異斥同

지하풍동수탐화진 地下風動水貪火嗔
연기약존연멸약망 緣起若存緣滅若亡
은성현상이명일실 隱性顯相二名一實
욕은무내욕현무외 欲隱無內欲顯無外

1148) 줄친 7줄 부분은 일본어 "우주의 본질과 형량"의 수묘게 부분이 다른 곳. 현 "우주의 본질과 형량"의 자료는 1. 본정 거사님이 일본대학 도서관에서 카피한 일본어 "우주의 본질과 형량" 2. "벽산선요"에 일본어 "우주의 본질과 형량" 3. 청화 큰스님께서 1974년에 번역한 번역본 "우주의 본질과 형량이 있습니다. 수묘게를 비교해보면 벽산선요에 있는 수묘게와 청화 큰스님께서 번역한 수묘게가 일치합니다. 추정하건데 1차로 우주의 본질과 형량을 50부 발행 연구용으로 일본 각 대학에 보내고 그 후 2차 발행 시 교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차

. 머리말
. 서문
. 권두卷頭 (수묘게數妙偈)

제1第一. 열요列曜의 형태形態와 비량比量

1. 일日의 심공心空과 면극面隙은 월月이 지구地球를 포출抱出한 적문迹門이다.
2. 월두月頭의 첨상尖相은 일日로부터의 추출상抽出相으로서 월고月尻의 공동空洞은 지구地球가 부판剖判된 적인跡印이다.
3. 지구地球가 난형卵形임은 월月을 모의模擬한 때문이며, 지장심주地藏心珠는 선천先天의 유물遺物이다.
4. 지구地球와 일구日球
5. 월月의 구적求積
6. 일日・월月・지地의 비比
7. 일日・지地 간間의 거리距離
8. 월月・지地 간間의 거리距離와 일日・월月 간間의 거리距離
9. 월저月底 요처凹處의 천심淺深 및 그 용적容積
10. 지구地球의 궤도軌道와 공전公轉의 도수度數

11. 양陽・음력陰曆 시분時分의 차差 및 일삭망간一朔望間에 있어서의 지구地球의 진도進度
12. 일삭망一朔望 간間에 진進하는 월도月途의 길이
13. 월月의 십회十回 우전右轉에 반伴한 지구地球의 좌전左轉 횟수回數
14. 지구地球 공전公轉 오회五回로서 일구日球가 일회一回 좌선左旋한다.
15. 항성恒星 역시亦是 선회旋廻한다.
16. 지구地球가 사전私轉하기 7^{16}회回로서 공겁空劫이 된다.

17. 성成・주住・괴壞・공空 사겁四劫의 기간期間
18. 주겁住劫 중中 과거過去 현재現在 미래未來 삼겁三劫의 기간期間
19. 우리(아我) 우주宇宙의 일원一圓
20. 일체日體 7배倍의 질량質量을 유有한 성무계星霧系

21. 월체月體 55배倍의 질량質量을 유有한 화성계火星界
22. 월체月體 9배倍의 질량質量을 유有한 월세계月世界
23. 월체月體 36배倍의 질량質量을 유有한 목성木星의 구우區宇
24. 월체月體 20배倍인 사대四大 금성金星과 지체地體
    128배倍인 8위八位의 금성金星
25. 지체地體 944배倍의 질량質量을 유有한 47四七성수계星宿界
26. 지체地體 8배倍인 지륜계地輪界
27. 열요列曜 공형空型의 양상樣相
28. 내주內宙 외우外宇와 은하수銀河水
29. 항성恒星과 유성遊星

30. 칠요七曜의 차별差別
31. 사대四大 객진客塵
32. 열요列曜 윤계輪界의 밀도密度
33. 윤계輪界와 광명光明
34. 좌선진左旋塵과 우선진右旋塵
35. 자금진磁金塵과 전금진電金塵
36. 우주宇宙의 원동력原動力

제2第二. 지진세계地塵世界와 지구地球

37. 지하地下의 6급층六級層과 지상地上의 6륜권六輪圈
38. 지구地球의 해체解體
39. 지상地上 6륜권六輪圈의 체적體積
40. 윤권별輪圈別 지진地塵의 분포分布

41. 윤권별輪圈別 지진地塵 체적體積의 비율比率
42. 지륜계地輪界의 4대진四大塵과 냉冷·열량熱量
43. 월하月下 십계十界의 상거相距와 지구地球
목성木星 간間의 연락선連絡線
44. 47四七 성수계星宿界의 질량質量
45. 47四七 성수계星宿界 질량質量의 차별差別

제3第三. 수진水塵 세계世界와 일구日球

46. 일신日身의 8급八級 분개分開
47. 일심日心에서 지궤地軌까지의 경우經由 구우區宇
48. 일심日心에서 허무계虛無界까지의 거리距離
49.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까지의 거리距離
50. 일심日心에서 가공계假空界까지의 거리距離
51. 우주宇宙의 극중極中에서 극변極邊까지의 거리距離

52. 일구日球의 해체解體
53. 수성계水星界 18개계十八個階의 구우區宇에 있는
전全 수성水星의 위수位數
54. 수성군水星群의 총체적總體積과 별체적別體積
55. 가공계假空界 4개급四個級 34개三十四個 계별階別의 총總 수진량水塵量
56. 진공계眞空界의 수진량水塵量과 성무계星霧系의 총總 질량質量

제4第四. 화진세계火塵世界와 월요月曜

57. 9개호九個皞의 거리距離의 질량質量
58. 월세계月世界에서 목성木星의 구우區宇를 넘어
화성계火星界까지의 거리距離
59. 화성火星 내계內界 하下 2개층二個層 13개단十三個段의 화진량火塵量
60. 화성火星 외계外界 하下 2개층二個層 13개단十三個段의 화진량火塵量

61. 화성火星 내계內界 상上 3개층三個層 12개단十二個段의 구우區宇에 있어서의 화성火星의 위수位數
62. 화성火星 외계外界 상上 3개층三個層 12개단十二個段의 구우區宇에 있어서의 화성火星의 위수位數
63. 화성火星의 총별總別 체적體積과 총화진량總火塵量
64. 전자電子의 양量과 전파電波가 미치는 구역區域

제5第五. 풍진세계風塵世界와 목성木星

65. 목성木星 구우區宇 하下 5개층五個層의 음성陰性 화진량火塵量
66. 목성木星 구우區宇 상上 3개층三個層에 있어서의 3품三品 목성木星의 체적體積과 그 음성陰性 화진火塵
67. 일구日球의 냉량冷量과 인력량引力量
68. 성무계星霧系의 냉량冷量과 인력량引力量
69. 우주宇宙의 좌선진左旋塵에 말미암은 수평력량水平力量

70. 화성계火星界의 열량熱量과 동력량動力量
71. 월세계月世界의 열량熱量과 동력량動力量
72. 목성木星 구우區宇의 음성陰性 열량熱量과 정력량靜力量
73. 전全 우주宇宙에 있어서의 우선右旋 척력량斥力量
74. 전全 우주宇宙에 있어서의 좌선左旋 인력량引力量
75. 월月로 하여금 목성木星과 역선力線을 연계連繫시키는 지륜계地輪界의 인력량引力量과 냉량冷量

76. 지륜계地輪界의 양성陽性 화진火塵과 음성陰性 화진火塵의 분량分量
77. 지륜계地輪界의 풍진량風塵量과 냉열冷熱의 체적體積
78. 지륜계地輪界의 동력動力과 정력靜力 또는 우선右旋 풍력량風力量과 척력량斥力量
79. 47四七 성수계星宿界의 냉량冷量과 인력량引力量

80. 47四七 성수계星宿界의 양성兩性 열량熱量과 풍진량風塵量
81. 47四七 성수계星宿界의 동력動力과 정력靜力 또는 풍력량風力量

제6第六. 금진세계金塵世界와 금성金星

82. 사대금성四大金星과 8위금성八位金星의 총별總別 체적體積
83. 열요列曜 또는 유질流質 근거根據의 전체적全體積
84. 우주宇宙의 금진량金塵量
85. 냉화冷化 금진金塵
86. 열화熱化 금진金塵
87. 중화中和 금진金塵
88. 냉력화冷力化 금진金塵
89. 열력화熱力化 금진金塵

90. 월月의 열력熱力으로 말미암은 토성계土星界의
냉광화冷光化 금진金塵
91. 일日의 냉력冷力에 유由한 토성계土星界의 열광화熱光化 금진金塵
92. 금성金星 또는 토성계土星界에 있어서의 일광日光과
월광月光의 비량比量
93. 에테르와 금진金塵

94. "이—자"와 금진金塵
95. 식력識力과 신력神力
96. 식광識光과 지광智光
97. 지력智力과 신통력神通力
98. 보살菩薩 십력十力과 여래如來 십력十力
99. 식신識神의 역량力量과 업력業力
100. 금진金塵과 대천세계大千世界

우주宇宙의 본질本質과 형량形量

제1第一. 열요列曜의 형태形態와 비량比量

1. 일日(태양太陽)의 심공心空과 면극面隙은 월月이 지구地球를 포출抱出한 적문迹門이다.

일면日面에 흑점黑點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지구地球 36배倍 용적容積의 공극空隙으로서 요판凹版의 용형龍型과 유사類似하고 또한 중심中心에는 지구地球 180배倍 용적容積의 공간空間이 있어서 입인상立人像의 주형鑄型에 유사類似한데 이는 지구地球 216배대倍大의 월月이 지구地球를 안(포抱)고 나온 공적空跡으로서 공적空跡의 $\frac{5}{6}$가 일심日心이 되고 $\frac{1}{6}$이 면문面門이 되어버린 형업形業이다.

그리고 일구日球는 지구地球의 27000배대倍大의 체적體積이 유有하므로 선천先天의 일구日球 일원一圓의 반경半徑 1080 중中 36이 지구地球, 180이 월신月身, 864가 일신日身의 윤곽輪廓이 되므로 지구地球는 1, 월月은 5, 일日은 24의 비율比率이 되며 따라서 전반경全半徑의 $\frac{4}{5}$는 일신日身, $\frac{1}{5}$은 월신月身과 지구地球가 되고 월月·지地 합상반경合相半徑의 $\frac{5}{6}$는 월신月身이며 $\frac{1}{6}$은 지구地球가 된다. 그러므로 후천後天의 반경半徑 36이 역시亦是 지구地球, 216이 월체月體, 1080 그대로가 일구日球가 되며 일日의 심공心空과 면극面隙은 월체月體의 $\frac{5}{6}$와 $\frac{1}{6}$ 즉卽 월月과 지구地球와의 반경半徑의 비比로써 배분配分한 적문迹門이다.

따라서, 지구地球 반경半徑의 6배倍가 월月의 반경半徑이며 지구地球

반경半徑의 30배倍가 일구日球의 반경半徑이 되므로, 지구地球의 단면적斷面績 또는 표면적表面積의 6^2배倍가 월月의 그것이고 30^2배倍가 일구日球의 그것이며, 체적體積은, 지구地球의 6^3배倍가 월月이 되고 30^3배倍가 일日이 된다.

그리고 일日 반경半徑이 월月 반경半徑의 5배倍가 되므로 평면平面은 월月의 5^2배倍가 일日이며 입체立體는 월月의 5^3배倍가 일日이 되므로 각기各其 반경半徑을 시示한 이상以上 쇄론鎖論할 나위도 없이 요인了認할 수 있을 것이다.

요要컨대, 지아地兒가 월태月胎에 싸여(포包) 일복日腹에서 분만分娩된 생유生有와 중유中有에 있어서의 삼위三位의 비량比量이다.

2. 월두月頭의 첨상尖相은 일日로부터의 추출상抽出相으로서 월고月尻의 공동空洞은 지구地球가 부판剖判된 적인跡印이다.

월면月面에 구름이 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구地球가 월月에서 최후最後 부판剖判한 형적形跡으로서 소위所謂 지구地球의 주형鑄形이므로 공동空洞의 벽면壁面은 지구면地球面과 요철凹凸 상반相反하여 공동空洞의 철처凸處는 지구地球의 강江·해海가 되고 요처凹處는 산악山岳이 되므로 그 용적容積은 지구地球의 체적體積과 상등相等하고 공동空洞의 최심처最深處가 $4\frac{19}{36}$, 최천처最淺處가 $\frac{163}{360}$, 평균平均 깊이가 $2\frac{353}{720}$이 된다.

그리고, 요처凹處의 면적面積은 전면全面의 약約 $\frac{1}{5}$에 해당該當하며 요처凹處와 요처凹處 아닌 곳과의 비比는 1 : 4가 되어 표단형瓢簞形(표주박)이 되며 배상背上의 상태狀態는 추형錐形인데 그 형모形貌가 납

변衲弁(고깔)과 상등相等하다. 그리고 종단면縱斷面은 삼각형三角形, 횡단면橫斷面은 체차遞差를 유有한 원형圓形으로서, 월저月底의 직경直徑은 월두선月頭先 직경直徑의 10배倍가 되고 저반경底半徑은 일반경日半徑의 $\frac{1}{3}$이며 상반경上半徑은 $\frac{1}{30}$이 되므로 그 첨상尖相을 상상想像하기에 족足하다.

월반경月半徑 216이란 이를 평균平均한 것이며 월저반경月底半徑과 등等한 월반고月半高인 360의 $\frac{3}{4}$과 $\frac{19}{36}$가 역점力點이 되어 목성木星과 지구地球사이의 역선力線을 죄어 맴과 동시同時에 역점力點을 반경半徑으로한 역대力帶의 길이가, 월月 자체自體의 회전廻轉에 따른 월도月途에 있어서의 준척準尺이 되므로 그것이 추유錐揉의 형形임은 전후前後가 합치合致하며 비록 척력斥力이 강强한 월月이라 할지라도 인성引性이 풍부한 일신日身에서 장기간長期間을 요要하여 추출抽出된 형모形貌로서 형모形貌 자체가 월月의 화성火性임을 상징象徵하고 수성水性인 일구日球의 원상圓相과 배대配對한다.

3. 지구地球가 난형卵形임은 월月을 모의模擬한 때문이며, 지장심주地藏心珠는 선천先天의 유물遺物이다.

지구地球의 남극南極은 월月의 태중胎中에 있을 때 첨단尖端인 상방上方을 향向한 곳이며 북극北極은 지구地球가 하수下垂해서 팽만膨滿된 것이므로 남극南極은 북극北極에 비比하여 저으기 첨삭적尖削的으로서 화체火體를 상징象徵하고 북극北極은 남극南極에 비比하여 평만적平滿的으로서 수체水體를 상징象徵한다. 그리고 남북南北의 경經이 길고 동서東西의 위緯가 짧으므로 이것이 난형卵形이 되며 종경縱徑의 비比 9와 횡경橫徑의 비比 8로 이루어진 타원형楕圓形이다.

따라서 8과 9와의 적수積數 72로써 평균平均 직경直徑으로 하고

반경半徑 36의 근수根數 6이 지장심주地藏心珠의 반경半徑이 되며, 30의 지신地身, 180의 월신月身, 864의 일신日身으로 하여금 포옹抱擁된 선천先天의 유일唯一 심주心珠이다. 그리고 그 6^2이 지반경地半徑, 6^3이 월평균반경月平均半徑, $6^3 \times 5$가 일반경日半徑이 되며, 일반경日半徑의 10배倍(만수滿數), 월평균반경月平均半徑의 배10倍, 지반경地半徑의 10배倍를 신장伸張한 선천先天 반경半徑의 만수滿數에서 지장심주地藏心珠의 법력점法力點인 $\frac{1}{6}$과 지구地球의 역점力點인 지반경地半徑의 $\frac{1}{4}$과 월체月體의 역점力點인 월평균반경月平均半徑의 $\frac{3}{4}$을 끌어 당긴 길이가 내주內宙의 반경半徑이 되고 등거리等距離의 길이를 외우外宇로 연장延長함이 우주宇宙의 반경半徑이 되어 대계大界의 윤곽輪廓이 정定해짐과 동시同時에 지地・월月・일日의 삼대三大를 이루고 열요列曜가 그 분分을 수守한다.

그리고 지장심주地藏心珠의 6^3인 지구地球 체적體積의 1080배倍의 지진地塵이 토성세계土星世界(8위八位 금성金星을 포함包含)를 구성構成하고, 지구地球 체적體積의 6^3인 월체月體, 9배倍의 화진火塵이 월세계月世界가 되며, 월체月體 55배倍의 화진火塵이 화성세계火星世界가 되고, 월체月體의 20배倍가 사대四大 금성金星이 되며, 월체月體 36배倍의 음성陰性 화진火塵이 목성木星의 구우區宇가 되는데, 이를 합合하면 월체月體의 125배倍인 일구日球 일개一個의 체적體積에 상당相當하며, 다시 일구日球 7배倍의 수진水塵이 성무계星霧界가 되므로 지장심주地藏心珠의 반경半徑인 6은 실實로 우주宇宙 총력량總力量의 근수根數다.

그리고 지구地球 체적體積의 $\frac{1}{6^3}$에 상당相當한 체적體積이 지구地球의 중심中心에 진공眞空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장심주地藏心珠라 칭稱하며 진공眞空이란 "다만(단但) 공空"이 아닌 때문이다.

4. 지구地球와 일구日球

⒜ 9×8 = 72 = 36×2 지구地球의 평균직경平均直徑

⒝ $36 = 6^2$ 지구地球의 평균반경平均半徑

⒞ $36\times\frac{22\times2}{7} = \left(\frac{1584}{7}\right) = 226\frac{2}{7}$ 지구地球의 평균주위平均周圍

⒟ $36^2\times\frac{22}{7} = \left(\frac{28512}{7}\right) = 4073\frac{1}{7}$ 지구地球의 평균단면적平均斷面績

⒠ $4073\frac{1}{7}\times4 = \left(\frac{114048}{7}\right) = 16292\frac{4}{7}$ 지구地球의 표면적表面積

⒡ $36^3\times\frac{22\times4}{7\times3} = \left(\frac{4105728}{21}\right) = 195510\frac{6}{7}$ 지구地球의 체적體積

⒢ $6^3\times5 = 1080$ 일구日球의 반경半徑

⒣ 1080×2 = 2160 일구日球의 직경直徑

⒤ $2160\times\frac{22}{7} = \left(\frac{47520}{7}\right) = 6788\frac{4}{7}$ 일구日球의 주위周圍

⒥ $1080^2\times\frac{22}{7} = \left(\frac{25660800}{7}\right) = 3665828\frac{4}{7}$ 일구日球의 단면적斷面績

⒦ $3665828\frac{4}{7}\times4 = 14663314\frac{2}{7}$ 일구日球의 표면적表面積

⑴ $1080^3\times\frac{22\times4}{7\times3} = \left(\frac{110854656000}{21}\right) = 5278793142\frac{6}{7}$ 일구日球의 체적體積

⑽ $\frac{886837248}{21}$(월月의 체적體積)$\times\frac{5}{6} = \frac{739031040}{21} = 35191954\frac{2}{7}$ 일심日心 공간空間의 용적容積

⑾ $\frac{886837248}{21}\times\frac{1}{6} = \frac{147806208}{21} = 7038390\frac{6}{7}$ 일면공극日面空隙의 용적容積

⑿ 2160(일구日球의 직경直徑) ÷ 72(지구地球의 평균직경平均直徑) = 30배倍

⒀ $\frac{47520}{7}$(일구日球의 주위周圍) ÷ $\frac{1584}{7}$(지구地球의 주위周圍) = 30배倍

(q) $\frac{25660800}{7}$(일구日球의 단면적斷面績) ÷ $\frac{28512}{7}$

(지구地球의 평균단면적 平均斷面績)= 900배倍

(r) $\frac{102643200}{7}$(일구日球의 표면적表面積) ÷ $\frac{114048}{7}$

(지구地球의 표면적表面積) = 900배倍

(s) $\frac{147806208}{7}$ 1149)(일구日球의 표극용적表隙容積 ÷ $\frac{4105728}{21}$

(지구地球의 체적體積) = 36배倍

(t) $\frac{739031040}{21}$(일구日球의 이공용적裏空容積) ÷ $\frac{4105728}{21}$

(지구地球의 체적體積) = 180배倍

(u) $\frac{110854656000}{21}$(일구日球의 체적體積) ÷ $\frac{4105728}{21}$(지구地球의 체적體積)

= 27000배倍

5. 월月의 구적求積

(a) $6^2 = 36$ 월月의 상저반경上底半徑

(b) $36 \times 2 = 72$ 월月의 상저직경上底直徑

(c) $36 \times 10 = 360$ 월月의 하저반경下底半徑

(d) $360 \times 2 = 720$ 월月의 하저직경下底直徑

(e) $6^3 = 216$ 월月의 평균반경平均半徑

(f) $216 \times 2 = 432$ 월月의 평균직경平均直徑

(g) $360 \times \frac{3}{4} + \left(1 - \frac{17}{36}\right) = 270\frac{19}{36}$ 월月의 역대반경力帶半徑

(h) $270\frac{19}{36} \times 2 = 541\frac{1}{18}$ 월月의 역대직경力帶直徑

(i) $72 \times \frac{22}{7} = \frac{1584}{7} = 226\frac{2}{7}$ 월두月頭의 주위周圍

(j) $720 \times \frac{22}{7} = \frac{15840}{7} = 2262\frac{6}{7}$ 월저月底의 주위周圍

1149) 오자. 일본어 원문에는 $\frac{147806208}{21}$

(k) $432 \times \frac{22}{7} = \frac{9504}{7} = 1357\frac{5}{7}$ 월月의 평균주위平均周圍

(l) $541\frac{1}{18} \times \frac{22}{7} = \frac{107129}{63} = 1700\frac{29}{63}$ 월체력대月體力帶의 길이

(m) $432^2 \times \frac{22}{7} = \frac{1026432}{7} = 146633\frac{1}{7}$ 월月의 평균단면적平均斷面績

(n) $146633\frac{1}{7} \times 4 = 586532\frac{4}{7}$ 월月의 표면적表面積

(o) $360^2 \times \frac{22}{7} = \frac{2851200}{7} = 407314\frac{2}{7}$ 월저月底의 면적面積

(p) $216^3 \times \frac{22\times4}{7\times3} = \frac{886837248}{21} = 42230345\frac{1}{7}$ 월月의 체적體積

6. 일日 · 월月 · 지地의 비比

(a) 2160(일구日球의 직경直徑) ÷ 432(월月의 평균직경平均直徑)=5배倍

(b) $\frac{47520}{7}$(일구日球의 주위周圍) ÷ $\frac{9504}{7}$(월月의 평균주위平均周圍) = 5배倍

(c) $\frac{25660800}{7}$(일구日球의 단면적斷面績) ÷ $\frac{1026432}{7}$

(월月의 평균단면적平均斷面績) = 25배倍

(d) $\frac{102643200}{7}$(일구日球의 표면적表面積) ÷ $\frac{4105728}{7}$

(월月의 표면적表面積) = 25배倍

(e) $\frac{110854656000}{21}$ (일구日球의 체적體積) ÷ $\frac{886837248}{21}$

(월月의 체적體積)=125배倍

(f) 432(월月의 평균平均직경直徑) ÷ 72(지구地球의 평균직경平均直徑) = 6배倍

(g) $\frac{9504}{7}$(월月의 평균平均주위周圍) ÷ $\frac{1584}{7}$(지구地球의 평균주위平均周圍) = 6배倍

(h) $\frac{15840}{7}$(월月의 저면底面 주위周圍) ÷ $\frac{1584}{7}$(지구地球의 평균주위

平均周圍) = 10배倍

(i) $\frac{1026432}{7}$(월月의 평균단면적平均斷面績) ÷ $\frac{28512}{7}$(지구地球의 평균단면적平均斷面績) = 36배倍

(j) $\frac{2851200}{7}$(월月의 저면적底面積) ÷ $\frac{28512}{7}$(지구地球의 평균단면적平均斷面績) = 100배倍

(k) $\frac{4105728}{7}$(월月의 표면적表面積) ÷ $\frac{114048}{7}$(지구地球의 표면적表面積) = 36배倍

(l) $\frac{886837248}{21}$(월月의 체적體積) ÷ $\frac{4105728}{21}$(지구地球의 체적體積) = 216배倍

7. 일日·지地 간間의 거리距離

(a) 1080(일반경日半徑) × 10 + 216(월평균반경月平均半徑) × 10 + 36(지구반경地球半徑) ×10 = 13320 일지간日地間의 신만거리伸滿距離

(b) 216(월평반月平半) × $\frac{3}{4}$(월력月力의 비比) + 36(지반地半) × $\frac{1}{4}$(지력地力의 비比) + $\frac{1}{6}$(지장심주地藏心珠의 법력점法力點) = 171 $\frac{1}{6}$ (월月의 역力과 지구地球의 역力에 의依하여 인축引縮된 거리距離)

(c) 216(월평반月平半) × $\frac{1}{4}$(월력月力의 보비補比) + 36(지반地半) × $\frac{3}{4}$(지력地力의 보비補比) = 81 일구日球의 인력引力에 의依하여 단축短縮되고 또는 법력法力에 의依하여 신장伸長할 수 있는 증감한도增減限度의 거리距離

(d) 13320(일지간日地間의 신만거리伸滿距離) - 171 $\frac{1}{6}$(월月 또는 지구地

球의 역力에 의依하여 인축引縮된 거리距離) = 13148 $\frac{5}{6}$ 일지력점간日地力點間의 평균거리平均距離

(e) 13148 $\frac{5}{6}$ (일지력점간日地力點間의 평균거리平均距離) + 81(일지간日地間 신장한도伸長限度의 거리距離) = 13239 $\frac{5}{6}$ 일지간日地間이 최원最遠이 되었을 때의 거리距離(대한절大寒節)

(f) 13148 $\frac{5}{6}$ (일지력점간日地力點間의 평균거리平均距離) - 81(일지간日地間 단축한도短縮限度의 거리距離) = 13067 $\frac{5}{6}$ 일日·지地 간間이 최근最近이 되었을 때의 거리距離(대서절大暑節)

(g) 13148 $\frac{5}{6}$ (일지력점간日地力點間의 평균거리平均距離) - 1080(일반경日半徑) - 36(지반경地半徑) = 12032 $\frac{5}{6}$ 일日·지地 양면간兩面間의 평균거리平均距離

8. 월月·지地 간間의 거리距離와 일日·월月 간間의 거리距離

(a) 13148 $\frac{5}{6}$ (일日·지地 간間의[1150] 평균거리平均距離) × $\frac{1}{6}$ (지장심주地藏心珠 법력法力의 비比) = 2191 $\frac{17}{36}$ 월月·지地 간間의 거리距離 (지구 地球의 중심中心에서 월月 체력점體力點까지의 거리距離[1151])로서 하시何時도 변동變動이 없음.

(b) 13148 $\frac{5}{6}$ (일日·지地 간間의 평균거리平均距離) × $\frac{5}{6}$ (지장심주地藏心珠 법력法力의 보비補比) = 10957 $\frac{13}{36}$ 일월간日月間 최근最近이 될 때

1150) 74년 번역. "일지간日地間의 평균거리平均距離", 상견성암 번역 "일日·지地 간間의 평균거리平均距離", 태안사 번역 "일日·지력점간地力點間의 평균거리平均距離". (b),(c)도 동일

1151) 태안사 번역본에 추가.

의 거리距離.

⑹ 13148 $\frac{5}{6}$ (일지간日地間의 평균거리平均距離) + 2191 $\frac{17}{36}$ (월지간月地間의 거리距離) = 15340 $\frac{11}{36}$ 일월간日月間 최원最遠이 되었을 때의 거리距離

⑺ 2191 $\frac{17}{36}$ (월지간月地間의 거리距離) ÷ 36(지반地半) = 60 $\frac{1133}{1296}$ 배倍

⑻ 10957 $\frac{13}{36}$ (일월간日月間 최근거리最近距離) ÷ 216(월평반月平半) = 50 $\frac{5665}{7776}$ 배倍

⑼ 15340 $\frac{11}{36}$ (일월간日月間 최원거리最遠距離) ÷ 216(월평반月平半) = 71 $\frac{144}{7776}$ 배倍

⑽ 2191 $\frac{17}{36}$ (지구地球의 중심中心에서 월체력점月體力點까지의 거리距離) + 270 $\frac{19}{36}$ (월체月體의 역점力點에서 월月의 중심中心까지의 거리距離) = 2462 지구地球의 중심中心에서 월月의 중심中心까지의 거리距離

⑾ 2462(지월중심간地月中心間의 거리距離) - 360(월체月體의 반고半高) - 36(지반경地半徑) = 2066 지면地面에서 월면月面까지의 거리距離

9. 월저月底 요처凹處의 천심淺深 및 그 용적容積

⑴ 2191 $\frac{17}{36}$ (지심地心에서 월체력점月體力點까지의 거리距離) - 36(지반地半) = $2155\frac{17}{36}$ 월月의 역점力點에서 지면地面까지의 거리距離, 또는 월月의 역점力點에서 지반地半의 길이를 연장延長한 점點에서 지심地心까지의 거리距離

(b) $6^3 \times 10 = 2160$ 월저月底에 동혈洞穴이 없을 경우 월月의 역점力點에서 지면地面까지의 거리距離 또는 월月의 역점力點에서 $31\frac{17}{36}$을 연장延長한 가력점假力點에서 지심地心까지의 거리距離

(c) 2160(월저月底에 동혈洞穴이 없을 경우 가력점假力點에서 지심地心까지의 거리距離) - $2155\frac{17}{36}$(월月의 역점力點에서 지면地面까지의 거리距離) = $4\frac{19}{36}$ 월저月底 동혈洞穴의 최심처最深處로서 지地·월月 부판剖判 당시當時의 최후분계最後分界이며 성겁成劫 초기初期에는 지구地球가 일日·월月의 최중最中에 내포內包되어 있었으나, 점차漸次 노출露出됨에 따라 월체月體 척성斥性과의 임계선臨界線을 보인 최후最後의 한계限界가 되는 적인跡印의 최심처最深處다.

(d) $4\frac{19}{36}$(월저요처月底凹處의 최심처最深處) × $\frac{1}{10}$(월체月體 성만成滿의 비比) = 1152)동혈洞穴의 최천처最淺處

(e) $\left\{4\frac{19}{36}$ 洞穴(동혈)의 最深處(최심처) + $\frac{163}{360}$ 洞穴(동혈)의 最淺處(최천처)$\right\}$ ÷ 2 = $2\frac{353}{720}$ 동혈洞穴의 평균平均 깊이

(f) $\frac{4105728}{21}$(지구地球의 체적體積으로서 이것이 동혈洞穴의 용적容積) ÷ $\frac{1793}{720}$(평균平均 깊이) = $78509\frac{24783}{37653}$ 월면月面에 구름 낀 것처럼 보이는 동혈洞穴의 표장表張 면적面積으로서 월저月底 전면적全面積의 약約 $\frac{1}{5}$이다

(g) $407314\frac{2}{7}$(월저月底의 전면적全面積) - $78509\frac{24783}{37653}$(동혈洞穴의 표장表張 면적面積) = $328804\frac{23628}{37653}$ 월저月底의 요처凹處가 아닌 면적面積으로서 동혈洞穴 표장表張 면적面積의 약約 4배倍이다.

1152) 원문에는 = $\frac{163}{360}$ 동혈의 최천처.

10. 지구地球의 궤도軌道와 공전公轉의 도수度數

(a) $13148\frac{5}{6}$(일지간日地間의 평균거리平均距離로서 이것이 지구궤도地球軌道의 내륜內輪 즉卽 내주內宙의 반경半徑) × 2 = $26297\frac{2}{3}$ 내주內宙의 직경直徑으로서 우리 우주宇宙의 반경半徑과 등等하며 내주반경內宙半徑의 길이를 외우外宇에 연장延長시킨 것이다.

(b) $26297\frac{2}{3}$(지구地球 궤도軌道 내륜內輪의 직경直徑) × $\frac{22}{7}$(원주율圓周率) = $\frac{1735646}{21}$ = $82649\frac{17}{21}$ 이것이 내주內宙와 외우外宇와의 분계선分界線인 지구地球 궤도軌道의 길이다.

(c) $\frac{1735646}{21}$(지구地球 궤도軌道의 길이) ÷ $\frac{1584}{7}$(지구地球의 평균주위平均周圍) = $\frac{78893}{216}$ = 365.245 37 0 [1153] 지구地球 궤도軌道 일주一周의 사전횟수私轉回數로서 이것이 태양력太陽曆의 일시日時

(d) $13148\frac{5}{6}$(일日 지심간地心間의 평균거리平均距離) ÷ 36(지반경地半徑 = 365.245 37 0

(e) $2191\frac{17}{36}$(일日 지간地間의 거리距離) ÷ 6(지장심주地藏心珠의 반경半徑) = 365.245 37 0

(f) $10957\frac{13}{36}$ (일日 월간月間 최근最近의 거리距離) ÷ {36 地半(지반) − 6 地藏心珠(지장심주)의 半徑(반경)} = 365.245 37 0

일지간日地間의 거리距離에 대對한[1154] 지구地球 반경半徑의 배수倍數인

[1153] 365.245370 중 3자 위에 점(.) 7 그리고 0자 위에 점(.)을 찍었음 c, d, e, f도 동일 11번 a, b도 동일. (순환소수, 반복되는 수)

(d)와 (e)는 지구地球 공전도수公轉度數의 윤합輪合을 증證한다. 종래從來 일지간日地間의 거리距離가 지반경地半徑의 23440배倍라 함과 같은 운운云云의 설說은 도리道理에 불합리不合理하므로 태양력太陽曆의 일수日數가 23440개일個日이 될 때까지 보류保留할 문제問題이다.

11. 양陽·음력陰曆 시분時分의 차差 및 일삭망간一朔望間에 있어서의 지구地球의 진도進度

(a) 365.245 37 0(양력陽曆의 일시日時) × $\frac{1}{36}$(일구日球의 흑룡신黑龍身에 대한 지구地球의 비比) = 10.1457047325∞ 양력陽曆에 대한 음력陰曆의 차差

(b) 365.245 37 0(양력陽曆의 일시日時) × $\frac{35}{36}$(일구日球의 흑룡신黑龍身에 대한 지구地球의 보비補比) = 355.0996656378∞ 음력陰曆의 일시日時

(c) $\frac{1735646}{21}$(지궤地軌의 길이) × $\frac{35}{36}$(흑룡신黑龍身에 대한 지구地球의 보비補比) × $\frac{1}{24}$(음력陰曆 전삭망全朔望에 대한 일삭망간一朔望間의 비比) = $\frac{4339115}{1296}$ = $3348\frac{107}{1296}$ 일삭망一朔望 간間에 있어서의 지구地球의 진도進度

12. 일삭망一朔望 간間에 진進하는 월도月途의 길이

(a) $2191\frac{17}{36}$(지地 월月 간間의 거리距離) × 2 = $4338\frac{17}{18}$ 이것이 지구地球를 번궐繁橛로 하여 월月이 인회引廻하는 윤곽輪廓의 직경直徑으로서 월月 활동活動 구우區宇의 폭幅이다.

(b) 1155) $\left\{ \frac{157786}{36} \text{月(월)旋廻(선회)輪廓(윤곽)의 直徑(직경)} \div \frac{4339115}{1296} \text{一朔望(일삭망)間(간)의 地球(지구)進度(진도)} \right\}$

1154) "대對한" 태안사 번역본에 추가.

× $\frac{7}{10}$(구고勾股[1156]에 대한 현弦[1157]의 비比) = $\frac{70135877}{12960}$ = $5411\frac{9317}{12960}$ 대각對角 직경 直徑

(c) $\frac{70135877}{12960}$(대각직선對角直線) × $\frac{11}{7}$(반원율半圓率) = $\frac{110213521}{12960}$ = $8504\frac{1681}{12960}$ 이것이 지궤地軌를 심봉心棒으로 하여 월月이 나선형螺旋形으로 전우간방前右間方을 향向하여 곡진曲進하는 고선孤線의 길이로서 일삭망一朔望 간間에 진進하는 월도月途의 길이이다.

13. 월月의 십회十回 우전右轉에 반伴한 지구地球의 좌전左轉 횟수回數

(a) $\frac{110213521}{12960}$(일삭망一朔望 간間에 진進하는 월도月途의 길이) ÷ $\frac{107129}{63}$(월체력대月體力帶의 길이) = $\frac{771494647}{154265760}$ = 5.001∞ 이것이 일삭망간一朔望間[1158]에 있어서의 월月의 우전右轉 횟수回數이며 5회강回强으로서 삭朔이 되고 10회강回强으로서 망望이 된다. 또한 2.5회回와 7.5회回로서는 조감潮減을 보게 된다.

(b) $\frac{4339115}{1296}$(일삭망간一朔望間에 있어서의 지구地球의 진도進度) ÷ $\frac{1584}{7}$(지구地球의 평균주위平均周圍) = $\frac{30373805}{2052864}$ = 14.7958194015∞ 이것이 월체우전月體右轉 5회강回强에 대한 지구地球의 좌전횟수左轉回數로서 즉卽 일삭망간一朔望間의 평균일시平均日時다.

(c) 14.79581940157(일삭망간一朔望間의 평균일시平均日時) × 2 = 29.5916388031∞ 일삭일망一朔一望의 평균월령平均月令으로서 이것

1155) 원문에는 직경 + $\frac{4339115}{1296}$ 로 표시.

1156) 구고(勾股) : 직각 삼각형의 옛 이름.

1157) 현( ) : 직각 삼각형의 사변(斜邊) 즉 빗변.

1158) 운문암, 견성암 금강심론에는일삭망간(一朔望間). 태안사 금강심론에는 일삭간(一朔間).

이 월체月體 십회강우전十回强右轉에 반伴한 지구地球의 좌전左轉 횟수回數다.

14. 지구地球 공전公轉 5회回로서 일구日球가 일회一回 좌선左旋한다.

(a) $\frac{47520}{7}$(일구日球의 주위周圍) × $\frac{1}{5}$ = $1357\frac{5}{7}$ 지구1회地球一回의 공전公轉에 대한 일구좌선日球左旋의 도수度數로서 월月의 평균주위平均周圍의 길이와 등等함.

(b) 81(일日 지地 간間 신축한도伸縮限度의 거리距離) × $\frac{1}{49}$(일구日球 원심응변圓心應變 한도限度의 비比) = 1.653∞ 일구日球 원심응변한도圓心應變限度의 거리距離로서 $\frac{9^2}{7^2}$의 한도내限度內에서 구심점球心點을 바꾸는데 이것이 일구1회좌선日球一回左旋에 있어서의 한도限度이다.

(c) $\frac{47520}{7}$(일구日球의 주위周圍) × 5 = $\frac{237600}{7}$ = $33942\frac{2}{7}$ 수성계水星界 제1계第一階의 수성水星이 그 내주內周를 일주一周함에 대하여 일구日球가 5회回 좌선左旋하는 연도수延度數로서 월月 평균주위平均周圍의 25배倍 연장延長한 것과 상등相等하며 지구地球의 25회回 공전公轉을 요要한다.

15. 항성恒星 역시亦是 선회旋廻한다.

(a) $25217\frac{2}{3}$(일구日球의 중심中心에서 수성계水星界 제1계第一階의 내주변제內周邊際까지의 거리距離) × $\frac{22\times2}{7}$ = $158511\frac{1}{21}$ 일구日球의 5회좌선回左旋에 대하여 제1계第一階의 수성水星이 차此 내주內周의 길이인 궤도軌道를 일주一周한다.

⑹ $25253\frac{2}{3}$(일구日球의 중심中心에서 수성계水星界 제2계第二階의 내주변제內周邊際까지의 거리距離) × $\frac{22\times2}{7}$ = $158737\frac{1}{3}$ 제1계第一階의 수성水星이 그 궤도軌道인 내주內周를 5회五回 선회旋廻하면 제2계第二階의 수성水星이 제2계第二階의 궤도軌道인 그 내주內周의 길이를 일주一周한다. 이와 같이 하계下階의 수성水星이 5주周할 때마다 상계上階의 수성水星이 일주一周하면서 단단段段히 올라가서 제14계第十四階의 수성水星이 3회回 회주廻周할 시간時間이 경과經過하면 공겁空劫의 최기最期가 된다.

16. 지구地球가 사전私轉하기 7^{16}회回로서 공겁空劫이 된다.

⑷ 7^{16} = 33232930569601 이것이 성겁成劫의 초기初期에서 대천세계大千世界가 전부全部 공空이 될 때까지의 지구地球 사전私轉을 요要하는 횟수回數로서 즉卽 성成·주住·괴壞·공空 사겁四劫 기간期間의 일시日時이다.

⑹ 33232930569601(사겁四劫 기간期間의 일시日時) ÷ $\frac{78893}{216}$(양력陽曆 일년간一年間 일시日時) = $90987958412\frac{35900}{78893}$ 년年

⑹ $5^{15}\times3$ = 91552734375 성무계星霧系의 항성恒星인 수성계水星界 제14계第十四階의 수성水星이 그 궤도軌道인 내주內周를 선회旋回하기 3회回를 요要하는 연수年數이다.

⑹ 91552734375(성겁成劫 초기初期에서 공겁空劫 최기最期까지의 연수年數) - $90987958412\frac{35900}{78893}$(성겁成劫으로부터 온전히 공空이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 = $564775962\frac{42993}{78893}$ 대천세계大千世界가 온전히 공空이 되어 차기성겁次期成劫까지 경과經過하는 기간期間의 연수年數

17. 성成·주住·괴壞·공空 사겁四劫의 기간期間

⑷ 7^{10} = 282475249 성겁成劫 초기初期부터 성겁成劫 종기終期까지의 일수日數로서 이를 성겁成劫 10기十期라 한다.

⑸ 7^{14} - 7^{10} = 677940597600 주겁住劫 4기四期의 일수日數

⑹ 7^{15} - 7^{14} = 4069338437094 괴겁壞劫 1기一期의 일수日數

⑺ 7^{16} - 7^{15} = 28485369059658 공겁空劫 1기一期의 일수日數

⑻ 282475249(성겁10기成劫十期의 일수日數) ÷ $\frac{78893}{216}$(양력陽曆 일년간一年間 일수日數) = $773384\frac{69872}{78893}$ 년年

⑼ 677940597600(주겁住劫 4기四期의 일수日數) ÷ $\frac{78893}{216}$ = $1856123725\frac{45175}{78893}$ 년年

⑽ 4069338437094(괴겁壞劫 1기一期의 일수日數) ÷ $\frac{78893}{216}$ = $11141382662\frac{59138}{78893}$ 년年

⑾ 28485369059658(공겁空劫 1기一期의 일수日數) ÷ $\frac{78893}{216}$ = $77989678639\frac{19501}{78893}$ 년年

⑿ $90987958412\frac{35900}{78893}$(4겁四劫 16기간十六期間의 연수年數) + $564775962\frac{42993}{78893}$(차기次期 성겁成劫까지 경과기간經過期間의 연수年數) = 91552734375년年

18. 주겁住劫 중中 과거過去·현재現在·미래未來 삼겁三劫의 기간期間

⑷ 7^{12} - 7^{10} = 13558811952 과거過去 장엄겁莊嚴劫의 일수日數로서 $37122474\frac{40350}{78893}$ 년年

⑸ 7^{13} - 7^{12} = 83047723206 현재現在의 현겁賢劫 일수日數로서

$227375156\frac{30188}{78893}$ 년年

(c) $7^{14} - 7^{13} = 581334062442$ 미래未來 성수겁星宿劫의 일수日數로서 $1591626094\frac{53530}{78893}$ 년年

19. 우리(아我) 우주宇宙의 일원一圓

(a) $13148\frac{5}{6}$(일日·지간地間의 거리距離로서 지구地球 궤도軌道의 내륜內輪 곧 내주內宙의 반경半徑) × 2 = $26297\frac{2}{3} = \frac{78893}{3}$ 내주반경內宙半徑의 등거리等距離를 외주外宙에 연장延長한 거리距離이므로 이것이 아我우주宇宙 일원一圓의 반경半徑이 된다.

(b) $\frac{78893}{3}$(우주宇宙의 반경半徑) × 2 = $\frac{157786}{3} = 52595\frac{1}{3}$ 우주宇宙의 직경直徑

(c) $52595\frac{1}{3}$(우주宇宙의 직경直徑) × $\frac{22}{7} = \frac{3471292}{21} = 165299\frac{13}{21}$ 우주宇宙의 주위周圍

(d) $\left(\frac{78893}{3}\right)^2 \times \frac{22}{7} = \frac{136930319878}{63} = 2173497140\frac{58}{63}$ 우주宇宙의 단면적斷面績

(e) $\left(\frac{78893}{3}\right)^2 \times \frac{22\times4}{7} = \frac{547721279512}{63} = 8693988563\frac{43}{63}$ 우주宇宙의 표면적表面積

(f) $\left(\frac{78893}{3}\right)^3 \times \frac{22\times4}{7\times3} = \frac{43211374904540216}{567} = 76210537750511\frac{479}{567}$ 이것이 아우주我宇宙의 전체적全體積으로서 일체만유一切萬有의 속색束索이다.

(g) $\frac{157786}{3}$(우주宇宙의 직경直徑) ÷ 72(지구직경地球直徑) = $730\frac{53}{108}$ 배倍

(h) $\frac{3471292}{21}$(우주宇宙의 주위周圍) ÷ $\frac{1584}{7}$(지구地球의 주위周圍) =

$730\frac{53}{108}$ 배倍

(i) $\frac{136930319878}{63}$ (우주宇宙의 단면적斷面績) ÷ $\frac{28512}{7}$

(지구地球의 단면적斷面績) = $533616\frac{92675}{128304}$ 배倍

(j) $\frac{547721279512}{63}$ (우주宇宙의 표면적表面積) ÷ $\frac{114048}{7}$

(지구地球의 표면적表面積) = $533616\frac{92675}{128304}$ 배倍

(k) $\frac{43211374904540216}{567}$ (우주宇宙의 체적體積) ÷ $\frac{4105728}{21}$

(지구地球의 체적體積) = $389802074\frac{10397959}{13856832}$ 배倍

(l) $\frac{157786}{3}$ (우주宇宙의 직경直徑) ÷ 432(월月의 평균직경平均直徑) =

$121\frac{485}{648}$ 배倍

1159) 한 줄 누락

(m) $\frac{136930319878}{63}$ (우주宇宙의 단면적斷面績) ÷ $\frac{1026432}{7}$

(월月의 평균단면적平均斷面績) = $14822\frac{3171971}{4618944}$ 배倍

(n) $\frac{547721279512}{63}$ (우주宇宙의 표면적表面積) ÷ $\frac{4105728}{7}$

(월月의 표면적表面積) = $14822\frac{3171971}{4618944}$ 배倍

(o) $\frac{43211374904540216}{567}$ (우주宇宙의 체적體積) ÷ $\frac{886837248}{21}$

(월月의 체적體積) = $1804639\frac{5625916472}{23944605696}$ 배倍

(p) $\frac{157786}{3}$ (우주宇宙의 직경直徑) ÷ 720(월月의 저면직경底面直徑) =

$73\frac{53}{1080}$ 배倍

(q) $\frac{3471292}{21}$ (우주宇宙의 주위周圍) ÷ $\frac{15840}{7}$ (월月의 저면주위底面周圍) =

1159) 원문 ( ) $\frac{3471292}{21}$ (宇宙の周) ÷ $\frac{9504}{7}$ (月の平均周囲) = $121\frac{485}{648}$ 倍

$73\frac{53}{1080}$ 배倍

(r) $\frac{136930319878}{63}$ (우주宇宙의 단면적斷面績) ÷ $\frac{2851200}{7}$

(월月의 저면적底面積) = $5336\frac{2145539}{12830400}$ 배倍

(s) $\frac{157786}{3}$ (우주宇宙의 직경直徑) ÷ 2160(일구日球의 직경直徑) = $24\frac{1133}{3240}$ 배倍

(t) $\frac{3471292}{21}$ (우주宇宙의 주위周圍) ÷ $\frac{47520}{7}$ (일구日球의 주위周圍) = $24\frac{1133}{3240}$ 배倍

(u) $\frac{126930319878}{63}$ (우주宇宙의 단면적斷面績) ÷ $\frac{25660800}{7}$

(일구日球의 단면적斷面績) = $592\frac{104788739}{115473600}$ 배倍

(v) $\frac{547721279512}{63}$ (우주宇宙의 표면적表面積) ÷ $\frac{102643200}{7}$

(일구日球의 표면적表面積) = $592\frac{104788739}{115473600}$ 배倍

(w) $\frac{43211374904540216}{567}$ (우주宇宙의 체적體積) ÷ $\frac{110854656000}{21}$

(일구日球의 체적體積) = $14437\frac{42606299527}{374134464000}$ 배倍

20. 일체日體 7배倍의 질량質量을 유有한 성무계星霧系

일구日球는 우주宇宙의 중앙中央에 처處하고, 성무계星霧系는 변방邊方의 외루外壘가 된다. 그리고, 일체日體 7배倍의 질량質量으로써, 극변極邊에 연沿하여 일구日球의 반경半徑에 상당相當한 거리距離의 두께(厚:후)를 갖는다. 이를 삼분三分하면, 극변極邊으로부터 216은 질신質身이 멸진滅盡한 곳이므로 멸진계滅盡界 또는 진공계眞空界라 운云하고,

그 다음의 432는 일신日身 두께(厚후)의 $\frac{1}{2}$인 내륜신內輪身의 7배倍에 상당相當한 수진水塵이 충전充塡되어 있을 뿐 성체星體가 없으므로 무성계無星界 또는 가공계假空界라 하고, 그 다음의 432는 일구표륜신日球表輪身의 7배倍에 상당相當한 수진水塵이 성체成體하여 동계同界 수성군水星群의 전체적全體積이 되며, 통通 18계十八階 4급별四級別 5548788위位의 수성水星이 배포配布되어 있어, 그 형形이 모두 일구日球와 같으며, 개별個別 체적體積의 $\frac{5}{750}$는 심공心空이 되고, $\frac{1}{750}$은 면극面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일구日球와 같이 수진체水塵體의 좌선구左旋球이므로 인력引力이 풍부豊富하고 일구日球와 상사相俟하여 서로 견제牽制하므로 열요列曜 또는 만물萬物이 그 있을 바를 득得하여 안립安立하고 일구日球 또한 중앙中央에 처處할 수 있게 됨은 변방邊方이 일치一致하여 서로 견제牽制하는 힘의 조합釣合에 의依한 것이며, 내주內宙와 외우外宇와의 계선界線인 지구地球의 궤도軌道는 일구日球와 수성간水星間에 서로의 견인력牽引力에 의依한 조합선釣合線이므로, 우선右旋의 월체月體 또는 화성火星의 척력斥力과 상사相俟하여 지구地球가 좌전左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事實이 된다.

21. 월체月體 55배倍의 질량質量을 유有한 화성계火星界

$\frac{3}{3^6-3^2}$, $\frac{4}{3^7-3^3}$, $\frac{5}{3^8-3^4}$, $\frac{8}{3^9-3^5}$, $\frac{9}{3^{10}-3^2}$, $\frac{10}{3^{11}-3^3}$, 등等 6품六品의 화성火星 264960위位의 전全 체적體積이 월체月體의 39배倍에 상당相當하며 모두가 각개各個 체적體積의 $\frac{1}{216}$이 하방下方에 공동空洞이 개開하고 또한 추형錐形이 되어 월체月體를 닮았으며, 월체月體와 같이 우선右旋 우향右向의 화진체火塵體이므로 척력斥力이 풍부豊富하고, 일구日球 또는 수성군水星群의 좌선左旋 인력引力과 상사相俟하여 우주

宇宙의 풍진風塵이 동動하므로 지구地球 또한 회전廻轉한다.

좌선左旋하는 수진체水塵體 등等이 서로 견인牽引하는 조합釣合에 의依하여 풍진風塵이 동動하는 공간空間 동양同樣의 지궤地軌를 중심中心으로 하고, 우선右旋 우향右向하는 화진체火塵體가 척력斥力을 발發하여 수평선상水平線上에 기울음(歪왜)을 생生하므로 차此 기울음에 의依하여 수평적水平的 작용作用이 상기相起하여 뒷 정리整理를 다함과 동시同時에 부평浮萍과 상등相等한 지구地球는 그 파문波紋의 와渦에 말려서 소위所謂 사전私轉이 되고, 월月 또는 화성군火星群의 전진前進에 의依하여 지궤地軌 선상線上에 공전公轉이란 치차齒車의 적跡이 찍혀지면서 중심中心 탑塔인 일구日球를 축軸으로 하여 내주內宙 외우外宇의 계선界線을 밟아 돌게 되므로 화진체火塵體의 강력强力한 정도程度를 추찰推察할 수가 있다.

그리고, 화성계火星界 5개층個層 중中 상上 3개층個層이 화성군火星群이 의거依據하는 곳이며 하下 2개층個層이 월체月體 16배倍의 화진火塵이 잠겨 있는데 공共히 내주內宙 외우外宇의 계선界線을 넘을 수 없으나 그 궤軌는 월月과 함께 하므로 화성계火星界는 내계內界와 외계外界가 자연自然히 간별揀別된다.

또한 상기上記 6품六品의 화성火星 역시亦是 전前 3품三品은 내계內界의 3개층個層을, 후後 3품三品은 외계外界의 3개층個層을 소의所依로 하며 화진火塵 또한 내계內界는 하下 1층層에 월체月體의 1배倍, 2층層은 2배倍이며, 외계外界의 하下 1층層은 월체月體의 6배倍, 2층層은 7배倍가 된다.

22. 월체月體 9배倍의 질량質量을 유有한 월세계月世界

월月의 중심점中心點으로부터 1080을 반경半徑으로 한 구우區宇를

월세계月世界라 하며, 차此 두께(厚𠈌)에서 월체月體의 반고半高인 360을 공제控除한 720의 사이에 8개단個段이 있는데 등거리等距離의 일단一段마다 월체月體 일개一個에 상당相當한 화진火塵이 월체月體를 떠나지 않고 내외계內外界를 통通하여 그 행동行動을 월月과 함께 하므로 차此를 월륜신月輪身이라 하며, 이에 월구月區를 넣어서 9단段이 있으므로 월하月下 십계十界에 대對하여 월상月上 구호九皞라고 한다.

23. 월체月體 36배倍의 질량質量을 유有한 목성木星의 구우區宇

월상月上 구호九皞에 접接하여 역시亦是 1080의 두께(厚𠈌)인 목성木星의 구우區宇가 있으며, 유성遊星 전계全界를 일단一團이 되게 하는 공능功能의 주인공主人公인 주성主星 1위一位는 월月 체적體積의 6배倍를 유有하나, 월체月體와 상반相反해서 좌선체左旋體임과 동시同時에 음성陰性 화진火塵의 능형체菱形體이므로 각各 첨단尖端은 음극陰極이 되고 하방下方 일각一角은 양극陽極인 월두月頭의 첨단尖端을 상대相對로 하여 서로 흡인吸引하며 배방背方의 3개각三個角은 후방後方 3개三個 목성木星 때문에 동성同性 상배척相排斥되어 좌선左旋 우전右轉됨과 동시同時에 제3층第三層 9위九位의 목성木星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중층中層 3위三位 목성木星 때문에 상上 하층下層의 10위十位 목성木星이 좌선左旋 우전右轉됨에 따라 월체月體와 화성火星의 우선右旋 우전右轉에 마력馬力을 가加하게 된다. 더욱이 동同 구우區宇의 화진火塵 역시亦是 음성陰性이므로 상방上方 화성계火星界를 끌어 들이는데 조력助力하여 월月로 하여금 토성계土星界와 그 역선力線을 끌어당겨 유성遊星 전계全界가 일단一團이 된다.

그리고 제2층第二層 3위三位의 목성木星은 각각各各 월체月體의 $\frac{7}{3}$배倍이고 제3층第三層의 9위九位는 $\frac{8}{9}$배倍이며 동구同區 8개층個層 중中

하下 5개층個層의 질량質量은 순차順次와 여如히 1, 2, 3, 4, 5배倍이므로 합合하여 월체月體의 15배倍가 되고 주성主星 일위一位와 종성從星 12위十二位의 체적體積은 월체月體의 21배倍이며 모두 합合하여 36배倍가 된다.

24. 월체月體 20배倍인 사대四大 금성金星과 지체地體 128배倍인 8위八位의 금성金星

월체月體 5배倍의 체적體積을 유有한 금성金星 4위四位가 일륜계日輪界에 연沿하여 정正 사방四方에 배위配位되어 일日 월月의 중간中間을 수守하며, 또한 지구地球 128배倍인 8위八位의 금성金星이 월구月區와 토성계土星界와의 중간中間을 호護한다. 그리고 우주宇宙 전계全界에 있어서의 총總 금진金塵의 겨레(族족)로서 나타나 일체一切 만유萬有가 만유萬有가 되게 하는 에너지를 맡으며 그 형태形態는 난형卵形이고 체적體積의 $\frac{1}{216}$이 심공心空이 되어 있다.

25. 지체地體 944배倍의 질량質量을 유有한 47四七성수계星宿界

월체月體 5배倍에 상당相當한, 지체地體의 1080배倍 중中 8위八位 금성金星의 분分 128과 지륜계地輪界 분分 8을 공제控除한 944가 47성수계四七星宿界를 구성構成하며 그 중中 4가 47四七 성수星宿 중中 제1第一의 4개성四個星 체적體積, 8이 제2第二의 4개성四個星, 12가 제3第三의 4개성四個星, 16이 제4第四의 4개성四個星, 20이 제5第五의 4개성四個星, 24가 제6第六의 4개성四個星, 28이 제7第七의 4개성四個星의 체적體積으로서 112가 전체적全體積이며, 그 7배七倍인 784가 28수二十八宿 윤계輪界 내內의 지진량地塵量이고 48은 토성계土星界의 유통流通 지진량地塵量이다. 28수二十八宿는 지구地球와 한 가지 토성土星으로서 윤계輪界 내內에는 반드시 지진地塵을 요要한다.

26. 지체地體 8배倍인 지륜계地輪界

1이 지구地球가 되고 7이 윤계輪界 내內의 지진地塵이다. 지구地球는 토성계土星界의 중앙中央을 점占하고 나아가서는 전全 유성계遊星界의 번궐繁橛이 되며 유성계遊星界는 지구地球를 중심中心으로 선회旋廻하면서 일구日球를 돌게 되므로 지구地球는 실實로 우주宇宙의 초점焦點이다.

지륜계地輪界는 지구地球 본위本位의 소우주小宇宙로서 지반경地半徑 등거리等距離의 길이를 연장延長한 외우外宇가 윤계輪界이므로 지구地球는 내주內宙에 유類한다. 차此 지륜계地輪界의 인력引力에 의依하여 유성계遊星界의 중축中軸에 그 역선力線을 끌어당겨 일단一團이 되며 또한 지륜계地輪界의 척력斥力에 의依하여 광光을 발發하고 풍風이 기起한다.

지륜계地輪界 내內의 소우주小宇宙와 외계外界의 대우주大宇宙를 별도別途로 취급取扱하여 무리無理 없을 정도程度이며 윤계선輪界線을 한도限度로 하여 세력권勢力圈을 달리하므로 계외界外는 좌선력左旋力에 지배支配되고 계내界內는 우선력右旋力에 지배支配된다.

27. 열요列曜 공형空型의 양상樣相

일구日球의 공심空心은 여래상如來像, 동표극同表隙은 용형龍形, 월月의 공동空洞은 사자형獅子形, 화성火星은 36수獸를 비롯하여 곤충昆蟲에 이르기까지 각종各種 각양各樣의 동물動物의 형型이 모양 지어 지고 수성계水星界 하下 제1급성第1級星에는 기형적畸形的 인형人形으로서, 우두인신牛頭人身 또는 마두인신馬頭人身, 쌍두雙頭 혹或은 다두多頭, 다수

多手, 다족多足, 합배合背 등等의 기형畸形이 현現하고

제2급성第二級星에는 정상적正常的 인형人形이나 통속通俗 인형人形이며, 제3급성第三級星에는 승형僧形, 제4급성第四級星에는 보살상菩薩像이며, 목성木星의 중심中心에는 개개個個의 상형象形이고, 또한 사대四大 금성金星에는 보살상菩薩像이며, 8위八位의 금성金星에는 도장刀杖을 지持한 역사상力士像이 잠겨 있고 47四七 성수星宿의 중심中心에는 왕후王侯의 상像이며 지구地球의 심구心球는 승형僧形이다. 그리고 가공계假空界에는 체體를 이루지 않고 문채紋彩가 나타나 있는데 각종各種 각양各樣의 식물植物이 그려져 있다.

28. 내주內宙 외우外宇와 은하수銀河水

지구地球 궤도軌道의 내부內部를 내주內宙라 하고 내주內宙 반경半徑의 등거리等距離를 연장延長한 것이 외우外宇이므로 외우外宇의 체적體積은 내주체적內宙體積의 7배倍이다. 그리고 일체日體의 7배倍가 성무계星霧系가 되어 일日 반경半徑 등거리等距離의 두께(厚亨)를 가지고 변방邊方을 지키며 우주宇宙의 일기一氣를 수평水平케 하므로 내주內宙 수진水塵의 자기磁氣는 일구日球를 향向하려 하고 외우外宇 수진水塵의 자기磁氣는 변방邊方을 향向하려 한다.

따라서 그 분제선分際線인 궤도軌道 위에 반횡半橫이 된 지륜계地輪界 또한 그 기氣에 승乘하여 소위所謂 성층권成層圈 내內에 있어서 단체單體의 자孳(존재형태存在形態...역자주譯者註)가 분제分齊되고 지구地球의 상하부上下部가 좌우左右 즉卽 내주內宙와 외우外宇와의 사이가 갈라진다. 그리고 변방邊方의 성무계星霧系가 지상地上에서 바라보면 안개(霧:무)와 같이 인정認定되는데 이는 수성계水星界의 배후背後에 있는 가공계假空界(은하수銀河水)의 가면假面이며, 성률星栗은 5548788위位나 되는 수성군水星群의 모습이다.

29. 항성恒星과 유성遊星

유성계遊星界에 있어서 일정一定 장소場所에 항재恒在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을 항성恒星이라 운云하며 그렇지 않음을 유성遊星이라 운云하나, 실實은 모두 다 유성遊星임을 인정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항성恒星이라고 하면 일구日球와 수성水星을 말하나 차此 역시亦是 유성계遊星界에 대對해서만 항성恒星이 되며 그 자신自身은 항성恒星이 아니기 때문이다.

토성계土星界의 남북두南北斗 14성星은 지구地球와 함께 일일一日 일회一回 사전私轉하나 동서두東西斗 14성星은 1일一日에 그 궤도軌道를 일주一周하고 이렇게 하기 7회回로서, 목성木星이 월두月頭를 잡아 당기며 월륜계月輪界를 일주一周하므로 월면月面이 지면地面의 장소場所에 따라서 조면照面을 달리하여 삭망朔望의 차差가 있으며, 두선頭先의 향방向方에 의依하여 월면月面의 연緣에 가리워서 상현上弦 또는 하현下弦이 되므로

월月 자체自體는 하시何時도 영허盈虛의 차差가 없고, 또한 지구地球의 그림자에 말미암지 않은 사실事實이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기 7회回로서 화성火星이 자구自區를 일주一周하게 되므로써 유성遊星은 항성恒星에 대對하여 문자文字 그대로 유성遊星인 것이다.

30. 칠요七曜의 차별差別

일구日球를 일요日曜, 월체月體를 월요月曜, 화성火星을 화요火曜, 수성水星을 수요水曜, 목성木星을 목요木曜, 금성金星을 금요金曜, 토성土星을 토요土曜라 운云하며 이것이 7七이므로 7요七曜라 위謂한다. 그리고 열요列曜의 수數가 기다幾多 유有할지라도 다만 7요七曜에 포섭되며 일日·수水 2요二曜의 전全 질량質量과 토요土曜 질량質量의 $\frac{4}{5}$는 수진

水塵의 계통系統이며, 월月·화火·목木 삼요三曜의 전全 질량質量과 토요土曜 질량質量의 $\frac{1}{5}$은 화진火塵의 계통系統이고, 금성金星 또한 그 비율比率은 토요土曜와 등等하나 수水·화火 2진二塵의 자성自性 계통系統이 아니라 이것이 금진金塵의 본성本性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差異가 있을 뿐이다.

일日·수水 2요二曜를 항성恒星의 계열系列, 월月·화火·목木·토土 4요四曜를 유성遊星의 계열系列로 한다면 금성金星은 절대絶對 항성恒星이라 할 것이며, 일日·수水·목木·토土 4요四曜와 8위八位 금성金星과 사대금성四大金星은 좌선체左旋體, 월月·화火 2요二曜 우선체右旋體이며, 일日·수水 2요二曜는 냉체冷體, 월月·화火·목木 3요三曜는 열체熱體, 금金·토土 2요二曜는 온체溫體가 된다.

그리고 항성군恒星群은 수좌반守座班이므로 좌座를 옮기지 않고 좌선左旋하고 유성군遊星群은 이동반移動班으로서 우향右向 전진前進하면서 각각刻刻 그 처소處所를 변동變動한다. 그러나 항성恒星이 수좌반守座班임은 유성遊星의 이동반移動班에 대對해서만 그 궤軌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31. 사대四大 객진客塵

일구日球 체적體積의 9배倍(월月의 1125배倍, 지地의 243000배倍)가 우주宇宙 전계全界에 있어서의 전질량全質量(근금진根金塵)의 체적體積에 상당相當하며, 그 내역內譯의 $\frac{8}{9}$이 수진水塵 체적體積, $\frac{1}{9}$의 $\frac{4}{5}$가 화진火塵 체적體積, $\frac{1}{5}$이 지진地塵 체적體積이므로, 수진水塵 체적體積은 월체月體의 1000배倍, 화진火塵 체적體積은 월체月體의 100배倍, 지진地塵 체적體積은 월체月體의 25배倍가 되고, 다시 지진地塵 체적體積의 $\frac{4}{5}$가

수진水塵, $\frac{1}{5}$이 화진火塵이 된다.

그리고 수진水塵 체적體積의 3배倍가 냉량冷量의 체적體積, 화진火塵 체적體積의 5배倍가 열량熱量의 체적體積이 되고, 냉량冷量 체적體積과 열량熱量 체적體積의 차差인 월체月體 2500배倍는 이것이 냉량冷量의 잉여剩餘가 아니라 풍진량風塵量이 된다.

수진水塵이 냉성冷性을 기起하고 화진火塵이 열성熱性을 발發하므로 동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動함에는 풍성風性을 빌지 않을 수 없으므로 냉冷・열熱 양성兩性이 상살相殺되면 다 함께 없어져서 풍진風塵만 남게 되는데, 지地・수水・화火・풍風 사대四大의 객진客塵이 이것이다. 만약 온량溫量을 구求하려면 지진량地塵量의 7배七倍를 요要한다.

32. 열요列曜 윤계輪界의 밀도密度

열요列曜 자체自體 반경半徑의 길이를 연장延長하여 자체적自體積의 7倍배를 증가增加한 것이 자체自體의 질량質量 또는 다른 고정질량固定質量이 서로 융통融通하는 구역區域이므로 자체自體 질량質量의 밀도密度와 윤계輪界 내內의 밀도密度는 언제나 일치一致한다.

일요日曜와 수요水曜는 수진水塵인 요체曜體 1과 냉량冷量 3이 질량質量의 비比가 되고, 윤계輪界의 체적體積에 비比하여 $\frac{4}{8}$ 곧 0.5의 밀도密度를 보이며, 월月・화火 2요二曜는 화진火塵인 요체曜體 1과 열량熱量 5가 질량質量의 비比가 되고 윤계輪界의 체적體積에 비比하여 $\frac{6}{8}$ 곧 0.75의 밀도密度를 보인다. 그리고 금성金星 또한 지금진地金塵인 요체曜體 1과 온량溫量 7이 질량質量의 비比가 되고 $\frac{8}{8}$ 곧 1이 그 밀도密度이나, 지구地球와 47四七 성수星宿는 온량溫量의 대신代身으로 동성

同性인 제2第二의 지진地塵을 요要하여 윤계輪界를 성成하므로 요체曜體 1과 질質의 7과가 질량質量이 된다.

그런데 일日・수水 2요二曜는 구형球形으로서 윤상輪相 또한 구형球形이며, 월月・화火 2요二曜는 추형錐形, 목요木曜는 능형菱形, 금金・토土이요二曜는 윤상輪相 역시亦是 난형卵形이다. 그리고 색상色相 또한 요체曜體에 따라서 다르며, 월月・화火 이요二曜는 적색赤色 목요木曜는 와사색瓦斯色, 토요土曜는 황색黃色을 다분多分히 띠었는데, 차此 현상現象은 황혼黃昏에 볼 수 있고 또한 타他에 6색六色이 있어서 7색七色을 주색主色으로 하여 그 종색從色이 무수無數이며, 일日・수水 2요二曜는 정백색淨白色으로서 잡색雜色이 없으므로 자紫・남籃・청靑・녹綠・황黃・주朱・홍紅인 소위所謂 태양太陽 "스펙트럼"은 차此 일구日球의 냉광冷光으로 말미암은 지륜계地輪界의 "스펙트럼"임을 알 수 있다.

33. 윤계輪界와 광명光明

열요列曜 어느 것이나 광명光明 없는 것이 없다. 그리고 요체曜體의 대소大小를 불구不拘하고 그 광량光量이 각자各自의 윤계輪界를 넘지 않음을 원칙原則으로 하며, 일日・월月 또한 그러하다. 타계他界에 있어서 그 광체光體는 인정認定되나 그 광량光量이 자륜계自輪界를 넘어서 타계他界에 도到한다 함은 도리道理가 불허不許하므로 자계自界의 광명光明을 자계自界가 받는 것이다.

특히 냉체冷體인 일日・수水 2요二曜는 정광靜光인 동시에 열체熱體에 비比하여 미광微光이다. 그러나 열체熱體와 한 가지 상광常光으로서 기멸起滅이 없다.

그런데 토성계土星界는 열체熱體인 월月에 면面하면 자계自界의 냉체冷體가 열력熱力에 유발誘發되어 냉광冷光을 발發하고, 냉체冷體인 일

구日球에 면面하면 자계自界의 열체熱體가 반동反動해서 척력斥力이 허許하는 한限 이를 발發하여 윤계선輪界線에 이르러 자계自界의 인력引力과 합류合流하여 되돌아오는데, 마치 수중水中에 있어서의 발광체發光體의 전반사全反射 작용作用과 유사類似하므로 인유引喩하기에 족足하다.

특히 일구日球는 결백색潔白色으로서 잡색雜色이 없으므로 7색七色의 "스펙트럼"이 있을 도리道理가 없으며, 지륜계地輪界는 청靑・황黃・적赤・백白・흑黑의 5색五色이 혼화混和되어 있어 5자승自乘의 지수指數가 불어남에 따라 무량색無量色이 있게 된다.

만약 일구日球가 지구地球에 대對하여 광원光源이라고 한다면, 우선于先 지륜계地輪界에 주야晝夜의 별別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광원光源이 물체物體보다 소小할 시時는 본음本陰은 어디까지나, 널려지나 광원光源이 대大할 시時는 본음本陰은 물체物體의 배후背後 혹或은 어느 거리距離에 있어서 소멸消滅한다" 함은 물리학상物理學上의 정의定義인데, 대량大量인 일구日球의 질량質量은 지구地球 질량質量의 324439배倍라고 운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구日球가 지구地球에 대對하여 열원熱源이라고 한다면 지구地球는 화취火聚가 되어서 그 일부一部도 냉각冷却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34. 좌선진左旋塵과 우선진右旋塵

지진地塵의 $\frac{4}{5}$는 수진水塵이며 $\frac{1}{5}$은 화진火塵이므로 이를 해체解體할 경우는 지성地性을 얻을 수가 없다. 수진水塵 혹或은 화진火塵의 진체塵體란 또한 지성地性을 대帶하므로 지성地性을 떠나서는 수水・화火 이진二塵을 인정認定할 수가 없다. 냉열冷熱의 차差가 풍진風塵이

므로 수水·화火 이진二塵을 인정認定하지 않고서는 풍진風塵을 찾을 수가 없다.

아무튼 사대진四大塵이 일신一身이 되어 떠날 수 없는 사실事實이므로 사대四大를 또한 객진客塵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 같이 일금진一金塵의 사대四大 작용作用이다. 좌선左旋 금진金塵이 수진水塵이며 우선右旋 금진金塵이 화진火塵이다. 그리고 그 진체塵體가 지성地性이며 좌선左旋 혹或은 우선右旋이 풍성風性으로서, 좌선左旋은 우선右旋에 대對해서만 좌선左旋, 우선右旋은 좌선左旋에 대對해서만 우선右旋이다. 결국結局 좌우左右의 명名과 선회旋廻의 상相이 남을 뿐으로서 명名·상相을 떠나면 공空인 것이다.

그러나 다만 공空(但空단공)이 아닌, 질신質身의 궁경窮竟으로서 분석分析할 수 없는 하나의 주진主塵을 이에 금진金塵이라 운云한다.

그리고 좌선진左旋塵은 동성상인同性相引, 이성상척異性相斥의 특성特性이 있고, 우선진右旋塵은 동성상척同性相斥, 이성상인異性相引의 특성特性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4성四性의 차별差別이 기起하므로 동성상인同性相引을 수성水性, 이성상척異性相斥을 지성地性, 동성상척同性相斥을 화성火性, 이성상인異性相引을 풍성風性이라 운云하므로, 4진四塵이라 할지라도 일금진一金塵이 좌선左旋 혹或은 우선右旋으로 말미암아 사상四相을 정呈하는 것이다.

35. 자금진磁金塵과 전금진電金塵

좌선左旋 금진金塵이 우선右旋 금진金塵에 대對하여 자기磁氣가 생生하고, 우선右旋 금진金塵이 좌선左旋 금진金塵에 대對하여 전기電氣를 발發하므로 좌선左旋 금진金塵을 자기진磁氣塵, 우선右旋 금진金塵을 전기진電氣塵이라 말한다.

그리고 일구日球와 수성水星은 좌선체左旋體이므로 우선체右旋體인 월月 또는 화성火星에 대對하면 자기磁氣가 생生하여 이것이 인력引力이 되고, 우선체右旋體는 좌선체左旋體에 대對하여 전기電氣를 발發하여 이것이 척력斥力이 된다.

요要컨대 자기磁氣는 좌선력左旋力에 반伴하고, 전기電氣는 우선력右旋力에 반伴한다. 따라서 우주宇宙의 평형적平衡的 인력引力은 성무계星霧系 좌선진체左旋塵體의 자기磁氣에 말미암은 좌선력左旋力이며, 기울음(歪:왜)을 생生하는 척력斥力은 유성계遊星界 우선진체右旋塵體의 전기電氣에 말미암은 우선력右旋力이다.

36. 우주宇宙의 원동력原動力

월체적月體積의 3000배倍에 상당相當한 전냉량全冷量의 3^{10} = 59049배倍인 월체적月體積의 177147000배倍가 인력引力 총량總量으로서 월체적月體積의 500배倍인 전열량全熱量의 5^6 = 15625배倍 곧 7812500배倍가 척력斥力 총량總量이며, 양자兩者의 차差인 169334500이 좌선左旋 풍력風力이므로, 지구地球 또한 이 좌선左旋 풍력風力으로 말미암아 좌전左轉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구日球의 인력량引力量인 125×3×59049 = 20268375와 월체月體의 척력량斥力量인 1×5×15625 = 78125와의 차差인 20190250의 좌선左旋 풍력風力이 목성木星에 영향影響하여 목성木星이 전全 우주宇宙의 좌선左旋 풍차風車가 되고 유성계遊星界의 수반首班인 월月을 견제牽制하면서 토성계土星界의 좌선력左旋力과 합세合勢해서 중中을 득得함으로써 만유萬有가 안립安立할 수 있는 것이다.

제2第二. 지진세계地塵世界와 지구地球

37. 지하地下의 6급층六級層과 지상의 6륜권六輪圈

⒜ 6(지장심주地藏心珠의 반경半徑) + 6(지각地殼 제1중第一重의 두께) + 6(지각地殼 제2중第二重의 두께)+ 6(지각地殼 제3중第三重의 두께) + 6(지각地殼 제4중第四重의 두께) + 6(지각地殼 제5중第五重의 두께 곧 지표각地表殼의 두께) = 36 지구地球의 반경半徑
⒝ 6(지상地上 제1륜권第一輪圈의 두께) + 6(지상地上 제2륜권第二輪圈의 두께)+ 6(지상地上 제3륜권第三輪圈의 두께) + 6(지상地上 제4륜권第四輪圈의 두께) + 6(지상地上 제5륜권第五輪圈의 두께) + 6(지상地上 제6륜권第六輪圈 즉卽 지륜계地輪界 말권末圈의 두께) = 36지상地上 6륜권六輪圈의 두께 즉卽 지면地面에서 지륜계地輪界까지의 거리距離로서 지구地球 반경半徑과 등等함.
⒞ 36(지구地球의 반경半徑)+36(지상地上 6륜권六輪圈의 두께)=72 지심地心에서 지륜계선地輪界線까지의 거리距離로서 이것이 지륜계地輪界의 반경半徑이다. (지구地球의 직경直徑과 등等함)

38. 지구地球의 해체解體

⒜ 6(지장심주地藏心珠의 반경半徑)^3 × $\frac{88}{21}$(구형입체율球形立體率) = $905\frac{1}{7}$ 지장심주地藏心珠의 체적體積으로서 지구地球 체적體積의 $\frac{1}{216}$에 상당相當함.

⒝ (12^3-6^3) × $\frac{88}{21}$ = 6336 지각地殼 제1중第一重의 체적體積

⒞ (18^3-12^3) × $\frac{88}{21}$ = $17197\frac{5}{7}$ 지각地殼 제2중第二重의 체적體積

⒟ (24^3-18^3) × $\frac{88}{21}$ = $33490\frac{2}{7}$ 지각地殼 제3중第三重의 체적體積

⒠ (30^3-24^3) × $\frac{88}{21}$ = $50451\frac{17}{21}$ 지각地殼 제4중第四重의 체적體積

(f) $(36^3-30^3)\times\frac{88}{21}=87129\frac{19}{21}$ 지각地殼 제5중第五重의 체적體積

(g) $36^3\times\frac{88}{21}=195510\frac{6}{7}$ 지심地心과 지신地身이 일체一體가 된 지구地球의 전체적全體積

(h) $\left\{36^3-\left(35\frac{5}{6}\right)^3\right\}\times\frac{88}{21}=2702\frac{71}{81}$ 지각地殼 제5중第五重에 속屬한 지표地表의 체적體積

(i) $\left\{\left(36\frac{5}{6}\right)^3-\left(35\frac{4}{6}\right)^3\right\}\times\frac{88}{21}=2677\frac{482}{567}$ 지각地殼 제5중第五重에 속屬한 내지표內地表의 체적體積

39. 지상地上 6륜권六輪圈의 체적體積

(a) $(42^3-36^3)\times\frac{88}{21}=114953\frac{1}{7}$ 지상地上 제1륜권第一輪圈의 체적體積

(b) $(48^3-42^3)\times\frac{88}{21}=155350\frac{2}{21}$ 지상地上 제2륜권第二輪圈의 체적體積

(c) $(54^3-48^3)\times\frac{88}{21}=194035\frac{1}{21}$ 지상地上 제3륜권第三輪圈의 체적體積

(d) $(60^3-54^3)\times\frac{88}{21}=245293\frac{5}{7}$ 지상地上 제4륜권第四輪圈의 체적體積

(e) $(66^3-60^3)\times\frac{88}{21}=299602\frac{2}{7}$ 지상地上 제5륜권第五輪圈의 체적體積

(f) $(72^3-66^3)\times\frac{88}{21}=359341\frac{5}{7}$ 지상地上 제6륜권第六輪圈의 체적體積

(g) $72^3\times\frac{88}{21}=1564086\frac{6}{7}$ 이것이 지구地球를 포함包含한 지륜계地輪界의 전체적全體積으로서 지구地球 체적體積의 8배倍에 상당相當함.

(h) $1564086\frac{6}{7}$(지륜계地輪界의 전체적全體積) - $195510\frac{6}{7}$(지구地球의 체적體積) = 1368576 지상地上 6륜권六輪圈의 전체적全體積

(i) $\left\{\left(36\frac{1}{6}\right)^3-36^3\right\}\times\frac{88}{21}=2728\frac{11}{567}$ 지상地上 제1륜권第一輪圈에 속屬한

성층권成層圈 체적體積

(j) 1160) $\left\{\left(36\frac{2}{6}\right)^3-\left(36-\frac{1}{6}\right)^3\right\}\times\frac{88}{21}=2753\frac{158}{567}$ 지상地上 제1륜권第一輪圈에 속屬한 제2성층권第二成層圈 체적體積

1161)※ 1368576 지상地上 6륜권六輪圈의 체적體積으로서 지구地球의 7배倍에 상당相當한 등체적等體積의 지진地塵이 충전充塡된 구역區域이다.

40. 윤권별輪圈別 지진地塵의 분포分布

(a) $905\frac{1}{7}$ (지장심주地藏心珠의 체적體積) × 7 = 6336 제6륜권第六輪圈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b) 6336(지각地殼 제1중第一重의 체적體積) × 7 = 44352 제5륜권第五輪圈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c) $17197\frac{5}{7}$ (지각地殼 제2중第二重의 체적體積) × 7 = 120384 제4륜권第四輪圈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d) $33490\frac{2}{7}$ (지각地殼 제3중第三重의 체적體積) × 7 = 234432 제3륜권第三輪圈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e) $50451\frac{17}{21}$ (지각地殼 제4중第四重의 체적體積) × 7 = $353162\frac{2}{3}$ 제2륜권第二輪圈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f) $87129\frac{19}{21}$ (지각地殼 제5중第五重의 체적體積) × 7 = $609909\frac{1}{3}$ 제1륜권第一輪圈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1160) ($36\frac{1}{6}$)3 -가 빠짐)

1161) 일본어 원문에는 없는 추가 분

(g) $195510\frac{6}{7}$ (지구地球의 체적體積) ×7 = 1368576 6개六個 윤권輪圈의 전지진全地塵 체적體積

(h) $2702\frac{71}{81}$ (지표地表의 체적體積) × 7 =[1162] $18902\frac{11}{81}$ 성층권成層圈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i) $18920\frac{11}{81}$ (성층권成層圈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 $905\frac{1}{7}$ (지장심주地藏心珠의 체적體積과 등等한 성층권내成層圈內의 단체량單體量) = $19825\frac{158}{567}$

이것이 성층권내成層圈內 전지진全地塵 체적體積이며 개벽開闢 당시當時 지장심주地藏心珠의 체적體積과 등等한 단체單體의 질質이 그 법력점法力點인 $\frac{1}{6}$에 상당相當한 성층권成層圈의 두께를 한도限度로 하여 가중加重 분포分布된 것이다.

(j) $2677\frac{482}{567}$ (내지표內地表의 체적體積) × 7 = $18744\frac{77}{81}$ 제2급第二級 성층권成層圈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41. 윤권輪圈 별別 지진地塵 체적體積의 비율比率

(a) $\left\{609909\frac{1}{3}\right.$ 一輪圈(제일륜권)의 地塵(지진)體積(체적)+ $905\frac{1}{7}$ (성층권成層圈 내內의 가중加重 분포分布된 단체량單體量) $\}$ ÷ $114953\frac{1}{7}$ (제1륜권第一輪圈의 체적體積) = 5.3136 제일륜第一輪 내內 지진地塵 체적體積의 비율比率

(b) $353162\frac{2}{3}$ (제2륜권第二輪圈 내內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 $155350\frac{2}{21}$ (동권同圈의 체적體積) = 2.34393 제2륜권第二輪圈 내內 지진地塵 체적體積의 비율比率

[1162] 원문에는 $18920\frac{11}{81}$

(c) 234432(제3륜권第三輪圈 내內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 $194035\frac{1}{21}$ (동권同圈의 체적體積) = 1.20958 제3륜권第三輪圈 내內 지진地塵 체적體積의 비율比率

(d) 120384(제4륜권第四輪圈 내內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 $245293\frac{5}{7}$ (동권同圈의 체적體積) = 0.49077 제4륜권第四輪圈 내內 지진地塵 체적體積의 비율比率

(e) [1163]44532(제5륜권第五輪圈 내內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 $299602\frac{2}{7}$ (동권同圈의 체적體積) = 0.14804 제5륜권第五輪圈 내內 지진地塵 체적體積의 비율比率

(f) 6336(제6륜권第六輪圈 내內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 $359341\frac{5}{7}$ (동권同圈의 체적體積) = 0.01763 제6륜권第六輪圈 내內 지진地塵 체적體積의 비율比率

(g) $1564086\frac{6}{7}$ (지륜계地輪界의 총總 지진地塵 체적體積) ÷ $1564086\frac{6}{7}$ (지륜계地輪界의 총체적總體積) = 1 이와 같이 지륜계地輪界와 동일비율同一比率이 되나, 지성地性이 체體를 성成하여 차별差別의 윤층輪層이 생生함에 따라, 6개六個 윤층輪層이 평균平均 0.6에 가까운 과량過量의 숫자數字를 보임으로써 제2성第二性을 현現한다. 이러한 제2성第二性이 나타남이 성겁후成劫後의 주상住相으로서 이것이 자멸自滅함을 괴겁壞劫의 멸상滅相이라 운云한다. 그리고 공겁空劫에는 오로지 1이 된다.

(h) $\left\{18920\frac{11}{81}$ 成層圈(성층권)內(내)의 地塵量(지진량)+

1163) 원문에는 44352.

$905\frac{1}{7}$ 同圈內(동권내)의 單體量(단체량)} ÷ $2728\frac{11}{567}$ (동권同圈의 체적體積) = 7.26728 성층권成層圈 내內 지진地塵 체적體積의 평균平均비율比率

(i) $18744\frac{77}{81}$ (제2성층권第二成層圈 내內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 $27531\frac{158}{567}$[1164](동권同圈의 체적體積) = 6.80823 제2성층권第二成層圈 내內 지진地塵 체적體積의 평균平均 비율比率

(j) 7.26728(성층권成層圈의 비율比率) - 6.80823(차급次級의 비율比率) = 0.45905 이것이 성층권成層圈 내외內外 밀도密度의 차差인데 숫자數字의 차差보다도 단체單體 유무有無가 중대重大한 차差이다.

42. 지륜계地輪界의 사대진四大塵과 냉열량冷熱量

(a) $195510\frac{6}{7}$ (지구地球의 체적體積) × 8 = $1564086\frac{6}{7}$ 지륜계地輪界의 총總 지진地塵 체적體積

(b) $1564086\frac{6}{7}$ (지륜계地輪界의 총總 지진地塵 체적體積) × $\frac{4}{5}$ = $1251269\frac{17}{35}$ 수진水塵 계통系統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c) $1564086\frac{6}{7}$ (지륜계地輪界의 총總 지진地塵 체적體積) × $\frac{1}{5}$ = $312817\frac{13}{35}$ 화진火塵 계통系統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d) $1251269\frac{17}{35}$ (지륜계地輪界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7 × 3 = $26276659\frac{1}{5}$ 동계同界 냉량冷量

1164) 견성암 금강심론에는 $2753\frac{158}{567}$ 태안사 금강심론에는 $27531\frac{158}{567}$

⑹ $312817\frac{13}{35}$ (지륜계地輪界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49 × 5 = 76640256 동계同界 열량熱量

⑺ 76640256 (동계同界 열량熱量) - $26276659\frac{1}{5}$ (동계同界 냉량冷量) = $50363605\frac{4}{5}$ 지륜계地輪界의 우선右旋 풍진량風塵量

⑻ $1564086\frac{6}{7}$ (지륜계地輪界의 총總 지진地塵 체적體積) × 343(7^3) = 536481792 동계同界의 총總 지진량地塵量

⑼ 536481792 (동계同界 총總 지진량地塵量) × $\frac{4}{5}$ = $429185433\frac{3}{5}$ 동계同界 수진水塵 계통系統의 지진량地塵量

⑽ 536481792 (동계同界 총總 지진량地塵量) × $\frac{1}{5}$ = $107296358\frac{2}{5}$ 동계同界 화진火塵 계통系統의 지진량地塵量

43. 월月 하下 십계十界의 상거相距와 지구地球 목성木星 간間의 연락선連絡線

⑷ 36(지심地心에서 지면地面까지의 거리距離) × 2 = 72 지심地心에서 지륜계선地輪界線까지의 거리距離로서 지장심주地藏心珠의 반경半徑인 6의 12배倍다.

⑸ 72(지심地心에서 지륜계선地輪界線까지의 거리距離) + 10(47四七성수계星宿界와의 간격間隔 거리距離) = 82 지심地心에서 제1第一 4성계四星界의 내주內周까지의 거리距離

⑹ 82 + {36 ×3(제1第一 4성계四星界의 두께)} = 190 지심地心에서 제1第一 4성계四星界 외주外周까지의 거리距離

⑺ 190 + 5(간격거리間隔距離) = 195 지심地心에서 제2第二 4성계四星界 내주內周까지의 거리距離

⑻ 195 + 36 × 4 = 339 지심地心에서 제2第二 4성계四星界 외주外

周까지의 거리距離
⑹ 339 + 5 = 344 지심地心에서 제3第三 4성계四星界 내주內周까지의 거리距離
⑺ 344 + 36 × 5 = 524 지심地心에서 제3第三 4성계四星界 외주外周까지의 거리距離
⑻ 524 + 5 = 529 지심地心에서 제4第四 4성계四星界 내주內周까지의 거리距離

⑼ 529 + 36 × 6 = 745 지심地心에서 제4第四 4성계四星界 외주外周까지의 거리距離
⑽ 745 + 5 = 750 지심地心에서 제5第五 4성계四星界 내주內周까지의 거리距離
⑾ 750 + 36 × 7 = 1002 지심地心에서 제5第五 4성계四星界 외주外周까지의 거리距離
⑿ 1002 + 5 = 1007 지심地心에서 제6第六 4성계四星界 내주內周까지의 거리距離

⒀ 1007 + 36 × 8 = 1295 지심地心에서 제6第六 4성계四星界 외주外周까지의 거리距離
⒁ 1295 + 5 = 1300 지심地心에서 제7第七 4성계四星界 내주內周까지의 거리距離
⒂ 1300 + 36 × 9 = 1624 지심地心에서 제7第七 4성계四星界 외주外周까지의 거리距離
⒃ 1624 + 10(8위八位 금성계金星界와의 간격間隔 거리距離) = 1634 지심地心에서 8위八位 금성계金星界 내주內周까지의 거리距離

⒄ 1634 + 36 × 10 = 1994 지심地心에서 8위八位 금성계金星界 외주外周까지의 거리距離
⒅ 1994 + 108(월구月區와의 간격間隔 거리距離) = 2102 지심地心에서 월면月面까지의 거리距離

(s) 2102 + $4\frac{19}{36}$(월면月面 요처凹處의 최심처最深處) = $2106\frac{19}{36}$ 지심地心에서 월면月面의 최심처最深處까지의 거리距離

(t) $2106\frac{19}{36}$ + $84\frac{34}{36}$(월면月面 심처深處에서 역점力點까지의 거리距離) = $2191\frac{17}{36}$ 지地의 중심中心에서 월月의 역점力點까지의 거리距離로서, 월月에 대對한 지구地球 인력引力의 초점焦點이다.

(u) $2191\frac{17}{36}$ + $270\frac{19}{36}$(월月의 역점力點에서 중심中心까지의 거리距離) = 2462 지地 · 월심月心 간間의 거리距離.

(v) 2462 + 360(월月의 반고半高) = 2822 지심地心에서 월두月頭의 끝까지의 거리距離

(w) 2822 + 720(월상月上 구호九暐의 거리距離에서 월月의 반고半高를 감減한 거리距離) = 3542 지심地心에서 월세계月世界의 외곽外廓 즉卽 목성구우木星區宇의 내주內周 변제邊際까지의 거리距離

44. 47四七 성수계星宿界의 질량質量

(a) $195510\frac{6}{7}$(지구地球의 체적體積으로서 제1第一 4성계四星界 일위一位의 토성土星 체적體積과 등等함) × 4 = $782043\frac{3}{7}$ 제1第一 4성四星의 체적體積

(b) $195510\frac{6}{7}$(제1성第一星의 체적體積) × 2 = $391021\frac{5}{7}$ 제2성第二星의 체적體積

(c) $391021\frac{5}{7}$(제2성第二星의 체적體積) × 4 = $1564086\frac{6}{7}$ 제2第二 4개성四個星의 체적體積

(d) $195510\frac{6}{7}$ × 3 = $586532\frac{4}{7}$ 제3성第三星의 체적體積

(e) $586532\frac{4}{7}$(제3성第三星의 체적體積) × 4 = $2346130\frac{2}{7}$ 제3第三 4개성四個星의 체적體積

(f) $195510\frac{6}{7}$ × 4 = $782543\frac{3}{7}$ 1165) 제4성第四星의 체적體積

(g) $782043\frac{3}{7}$ × 4 = $3128173\frac{5}{7}$ 제4第四 4개성四個星의 체적體積

(h) $195510\frac{6}{7}$ × 5 = $977554\frac{2}{7}$ 제5성第五星의 체적體積

(i) $977554\frac{2}{7}$ × 4 = $3910217\frac{1}{7}$ 제5第五 4개성四個星의 체적體積

(j) $195510\frac{6}{7}$ × 6 = $1173065\frac{1}{7}$ 제6성第六星의 체적體積

(k) $1173065\frac{1}{7}$ × 4 = $4692260\frac{4}{7}$ 제6第六 4개성四個星의 체적體積

(l) $195510\frac{6}{7}$ × 7 = 1368576 제7성第七星의 체적體積으로서 지륜계地輪界 윤회輪廻의 전지진全地塵 체적體積과 상등相等함

(m) 1368576(제7성第七星의 체적體積) × 4 = 5474304 제7第七 4개성四個星의 체적體積

(n) $195510\frac{6}{7}$ × 112 = 21897216 28수二十八宿의 전체적全體積

(o) 21897216 × 7 = 153280512 28수二十八宿 윤계내輪界內의 지진地塵 체적體積

(p) $195510\frac{6}{7}$ × 48 = $9384521\frac{1}{7}$ 전全 토성계土星界 유통流通 지진地塵 체적體積

(q) 21897216(28수二十八宿의 전체적全體積) + 153280512(동성同星 윤계내輪界內의 전지진全地塵 체적體積) + $9384521\frac{1}{7}$(유통流通 지진地塵이1166) 체적體積) = $184562249\frac{1}{7}$ 47四七 성수계星宿界의 전全 지진地塵 체적體積

1165) 원본에는 $782043\frac{3}{7}$

1166) 태안사 본에는 "지진地塵이" 상견성암 본에는 "지진地塵의"

45. 47四七 성수계星宿界 질량質量의 차별差別

(a) $184562249\frac{1}{7}$ (47四七 성수계星宿界의 전全 지진地塵 체적體積) × $\frac{4}{5}$ = $147649799\frac{11}{35}$ 47四七 성수계星宿界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b) $184562249\frac{1}{7}$ (47四七 성수계星宿界의 전全 지진地塵 체적體積) × $\frac{1}{5}$ = $36912449\frac{29}{35}$ 47四七 성수계星宿界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c) $147649799\frac{11}{35}$ × 7 = $1033548595\frac{1}{5}$ 동계同界 수진량水塵量

(d) $36912449\frac{29}{35}$ × 49 = $1808710005\frac{3}{5}$ 동계同界 화진량火塵量

(e) $1033548595\frac{1}{5}$ × 3 = $3100645785\frac{3}{5}$ 동계同界 냉량冷量

(f) $1808710005\frac{3}{5}$ × 5 = 9043550028 동계同界 열량熱量

(g) 9043550028 - $3100645785\frac{3}{5}$ = $5942904242\frac{2}{5}$ 동계同界의 우선右旋 풍진량風塵量

(h) $184562249\frac{1}{7}$ × 343(7^3) = 63304851456 동계同界의 지진地塵 총량總量

(i) 63304851456 × $\frac{4}{5}$ = $50643881164\frac{4}{5}$ 동계同界 수진水塵 계통系統의 지진량地塵量

(j) 63304851456 × $\frac{1}{5}$ = $12660970291\frac{1}{5}$ 동계同界 화진火塵 계통系統의 지진량地塵量

제3第三. 수진水塵 세계世界와 일구日球

46. 일신日身의 8급八級 분개分開

⒜ 216(우주宇宙의 극중極中인 일심日心의 반경半徑으로서 극변極邊의 구우區宇인 진공계眞空界의 후厚와 등等함) + 108(일신日身 8중八重의 등차거리等差距離로서 가공계假空界 4급四級의 구우區宇와 수성계水星界 4급四級 구우區宇의 등차거리等差距離 등等과 등等함) = 324 일심日心에서 일신日身의 제1중第一重까지의 거리距離로서 극변제極邊際에서 가공계假空界의 제4급第四級 구우區宇까지의 거리距離와 등等함.

⒝ 324 + 108 = 432 일심日心에서 일신日身의 제2중第二重까지의 거리距離로서 극변제極邊際에서 가공계假空界의 제3급第三級 구우區宇까지의 거리距離와 등等함.
⒞ 432 + 108 = 540 일심日心에서 일신日身의 제3중第三重까지의 거리距離로서 극변제極邊際에서 가공계假空界의 제2급第二級 구우區宇까지의 거리距離와 등等함.
⒟ 540 + 108 = 648 일심日心에서 일신日身의 제4중第四重까지의 거리距離로서 극변제極邊際에서 가공계假空界의 제1급第一級 구우區宇까지의 거리距離와 등等함.

⒠ 648 + 108 = 756 일심日心에서 일신日身의 제5중第五重까지의 거리距離로서 극변제極邊際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4급第四級 구우區宇까지의 거리距離와 등等함.
⒡ 756 + 108 = 864 일심日心에서 일신日身의 제6중第六重까지의 거리距離로서 극변제極邊際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3급第三級 구우區宇까지의 거리距離와 등等함.
⒢ 864 + 108 = 972 일심日心에서 일신日身의 제7중第七重까지의

거리距離로서 극변제極邊際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2급第二級 구우區宇까지의 거리距離와 등等함.

⑹ 972 + 108 = 1080 일심日心에서 일신日身의 제8중第八重의 계한界限인 일면日面까지의 거리距離 즉卽 일구日球의 반경半徑으로서 극변제極邊際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1급第一級 구우區宇 내주內周까지의 거리距離이므로 이것이 전성무계全星霧系의 두께(厚𠯿)와 등等함.

47. 일심日心에서 지궤地軌까지의 경유經由 구우區宇

⑻ 1080(일구日球의 반경半徑) × 2 = 2160 일심日心에서 일륜계선日輪界線까지의 거리距離로서 극변제極邊際에서 허무계虛無界의 중단中段 내주內周까지의 거리距離와 등等함.

⑼ 2160 + $966\frac{5}{6}$(일륜계日輪界에 연沿한 사대금성四大金星의 두께(厚𠯿)로서 허무계虛無界 하단下段의 후厚와 등等함) = $3126\frac{5}{6}$ 일심日心에서 사대금성계四大金星界의 외주外周 또는 유성遊星 내계內界의 외주外周까지의 거리距離로서, 극변제極邊際에서 허무계虛無界의 내주內周 또는 유성遊星 외계外界의 외주外周까지의 거리距離와 등等함.

⑽ $3126\frac{5}{6}$ + 7560(유성遊星 내계內界의 외주外周에서 일日 월月 간間 최근最近으로 되었을 경우의 월심月心까지의 거리距離로서, 이것이 유성계遊星界의 반경半徑이므로, 유성遊星 외계外界의 외주外周에서 일日 월月 간間 최원最遠으로 되었을 경우의 월심月心까지의 거리距離와 등等함) = $10686\frac{5}{6}$ 일日 월심月心 간間 최근最近으로 되었을 경우의 거리距離로서 최원最遠으로 되었을 경우의 월심月心에서 극변제極邊際까지의 거리距離와 등等함.

⑾ $10685\frac{5}{6}$ + $270\frac{19}{36}$(월심月心에서 역점力點까지의 거리距離) =

$10957\frac{13}{36}$ 최근最近으로 되었을 경우의 일심日心에서 월月의 역점力點까지의 거리距離로서, 최원最遠의 경우 극변제極邊際에서 월月의 역점力點까지의 거리距離와 등等함.

(e) $10957\frac{13}{36}$ + $2191\frac{17}{36}$ (지궤地軌의 중심中心인 지심地心에서 월月의 역점力點까지의 거리距離) = $13148\frac{5}{6}$ 이것이 일구日球의 중심中心에서 지궤地軌 즉卽 지구地球 중심中心까지의 거리距離로서 극변제極邊際에서 지심地心까지의 거리距離와 상등相等하므로 지궤地軌가 우주宇宙의 극중極中과 극변極邊과의 간間 절반切半인 내주內宙 외주外宙의 계선界線이다.

※ 주註 : 유성계遊星界의 반경半徑 : -7560
일구日球 반경半徑의 7배倍
월세계月世界 반경半徑의 7배倍
목성木星 구우區宇 후厚의 7배倍

48. 일심日心에서 허무계虛無界까지의 거리距離

(a) $13148\frac{5}{6}$ (일日 지심간地心間의 거리距離) + 2462(지地 월심간月心間의 거리距離) + 7560(월심月心에서 유성遊星 외계外界까지의 거리距離) = $23170\frac{5}{6}$ 일심日心에서 유성遊星 외계外界의 외주外周 즉卽 허무계虛無界의 내주內周까지의 거리距離

(b) $23170\frac{5}{6}$ + $966\frac{5}{6}$ (허무계虛無界 하단下段의 후厚로서 사대금성계四大金星界의 후厚와 등等함) = $24137\frac{2}{3}$ 일심日心에서 허무계虛無界 하단下段까지의 거리距離

(c) $24137\frac{2}{3}$ + 540(허무계虛無界 중단中段의 후厚로서 일륜日輪의 후厚

와 $\frac{1}{2}$과 등等) = $24677\frac{2}{3}$ 일심日心에서 허무계虛無界 중단中段까지의 거리距離

(d) $24677\frac{2}{3}$ + 540(허무계虛無界 상단上段의 후厚로서 중단中段과 등等함) = $25217\frac{2}{3}$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내주內周 즉卽 허무계虛無界 외주外周까지의 거리距離

(e) $966\frac{5}{6}$ ÷ 1 = $966\frac{5}{6}$ 허무계虛無界 하단下段의 단층거리單層距離

(f) 540 ÷ 2 = 270 허무계虛無界 중단中段 2개층二個層의 등차거리等差距離

(g) 540 ÷ 3 = 180 허무계虛無界 상단上段 3개층三個層의 등차거리等差距離.

49.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까지의 거리距離

(a) $25217\frac{2}{3}$(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내주內周까지의 거리距離) + 36(수성계水星界 4개급중四個級中 제1第一 하단下段 3개계三個階의 등차거리等差距離) = $25253\frac{2}{3}$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 4개급四個級 18계十八階 중中 제1第一 하계下階까지의 거리距離

(b) $25253\frac{2}{3}$ + 36 = $25289\frac{2}{3}$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2계第二階까지의 거리距離

(c) $25289\frac{2}{3}$ + 36 = $25325\frac{2}{3}$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3계第三階까지의 거리距離

(d) $25325\frac{2}{3}$ + 27(제2급第二級 4개계四個階의 등차거리等差距離) = $25352\frac{2}{3}$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4계第四階까지의 거리距離

(e) $25352\frac{2}{3}$ + 27 = $25379\frac{2}{3}$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5계第五階까지의 거리距離

(f) $25379\frac{2}{3}$ + 27 = $25406\frac{2}{3}$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6계第六階까지의 거리距離

(g) $25406\frac{2}{3}$ + 27 = $25433\frac{2}{3}$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7계第七階까지의 거리距離

(h) $25433\frac{2}{3}$ + $21\frac{9}{15}$(제3급第三級 5개계五個階의 등차等差 거리距離) = $25455\frac{4}{15}$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8계第八階까지의 거리距離

(i) $25455\frac{4}{15}$ + $21\frac{9}{15}$ = $25476\frac{13}{15}$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9계第九階까지의 거리距離

(j) $25476\frac{13}{15}$ + $21\frac{9}{15}$ = $25498\frac{7}{15}$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10계第十階까지의 거리距離

(k) $25498\frac{7}{15}$ + $21\frac{9}{15}$ = $25520\frac{1}{15}$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11계第十一階까지의 거리距離

(l) $25520\frac{1}{15}$ + $21\frac{9}{15}$ = $25541\frac{10}{15}$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12계第十二階까지의 거리距離

(m) $25541\frac{10}{15}$ + 18(제4급第四級 6개계六個階의 등차거리等差距離) = $25559\frac{2}{3}$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13계第十三階까지의 거리距離

(n) $25559\frac{2}{3}$ + 18 = $25577\frac{2}{3}$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14계第十四階까지의 거리距離

(o) $25577\frac{2}{3}$ + 18 = $25595\frac{2}{3}$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15계第十五階까지의 거리距離

(p) $25595\frac{2}{3}$ + 18 = $25613\frac{2}{3}$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16계第十六階까지의 거리距離

(q) $25613\frac{2}{3}$ + 18 = $25631\frac{2}{3}$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17계第十七階까지의 거리距離

(r) $25631\frac{2}{3}$ + 18 = $25649\frac{2}{3}$ 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의 제18계第十八階까지의 거리距離

50. 일심日心에서 가공계假空界까지의 거리距離

(a) $25649\frac{2}{3}$(일심日心에서 수성계水星界까지의 거리距離) + 108(가공계假空界의 4개급四個級의 등차等差 거리距離) = $25757\frac{2}{3}$ 일심日心에서 가공계假空界의 제1第一 하급下級까지의 거리距離

(b) $25757\frac{2}{3}$ + 108 = $25865\frac{2}{3}$ 일심日心에서 가공계假空界의 제2급第二級까지의 거리距離

(c) $25865\frac{2}{3}$ + 108 = $25973\frac{2}{3}$ 일심日心에서 가공계假空界의 제3급第三級까지의 거리距離

(d) $25973\frac{2}{3}$ + 108 = $26081\frac{2}{5}$ 일심日心에서 가공계假空界의 제4급第四級까지의 거리距離

(e) 108 ÷ 7 = $15\frac{3}{7}$ 제1급第一級 7개계七個階의 등차等差 거리距離

(f) 108 ÷ 8 = $13\frac{1}{2}$ 제2급第二級 8개계八個階의 등차等差 거리距離

(g) 108 ÷ 9 = 12 제3급第三級 9개계九個階의 등차等差 거리距離

(h) 108 ÷ 10 = $10\frac{4}{5}$ 제4급第四級 10개계十個階의 등차等差 거리距離

51. 우주宇宙의 극중極中에서 극변極邊까지의 거리距離

(a) $13148\frac{5}{6}$(일日 지심간地心間의 거리距離) + 10022(지심地心에서 유성遊星 내외계內外界 공共 외주外周까지의 거리距離) + $2046\frac{5}{6}$(허무계虛無界의 후厚로서, 일구日球를 제除한 일륜계日輪界의 후厚와 사대금성계四大金星界의 후厚를 합合한 것과 등等함) + 432(수성水星의 후厚) + 432(가공계假空界의 후厚) = $26081\frac{2}{3}$ 일심日心에서 가공계假空界까지의 거리距離로서 극변제極邊際에서 일신日身 내계內界까지의 거리距離와 등等함

(b) $26081\frac{2}{3}$ + 216(진공계眞空界의 후厚로서 일심日心의 반경半徑과 등等함) = $26297\frac{2}{3}$ 우주宇宙의 극중極中인 일구日球의 중심中心에서 극변極邊인 진공계眞空界의 단제斷際까지의 거리距離로서 이것이 아我 우주宇宙의 반경半徑임은 전술前述과 여如함

(c) $26297\frac{2}{3}$ - $13148\frac{5}{6}$(내주內宙의 반경半徑) = $13148\frac{5}{6}$ 외우外宇의 후厚

52. 일구日球의 해체解體

(a) $42230345\frac{1}{7}$ 일구日球의 공심량空心量으로서 월月의 체적體積과 등等함

(b) $100297069\frac{5}{7}$ 일신日身 제1중第一重의 체적體積으로서 가공계假空界 제4급第四級 수진水塵의 $\frac{1}{7}$

(c) $195315346\frac{2}{7}$ 일신日身 제2중第二重의 체적體積으로서 가공계假空界 제3급第三級 수진水塵의 $\frac{1}{7}$

⑷ $321996381\frac{5}{7}$ 일신日身 제3중第三重의 체적體積으로서 가공계假空界 제2급第二級 수진水塵의 $\frac{1}{7}$

⑸ 480380176 일신日身 제4중第四重의 체적體積으로서 가공계假空界 제1급第一級 수진水塵의 $\frac{1}{7}$

⑹ $670406729\frac{1}{7}$ 일신日身 제5중第五重의 체적體積으로서 수성계水星界 제4급성第四級星 전체적全體積의 $\frac{1}{7}$

⑺ $892116041\frac{1}{7}$ 일신日身 제6중第六重의 체적體積으로서 수성계水星界 제3급성第三級星 전체적全體積의 $\frac{1}{7}$

⑻ 1145498112 일신日身 제7중第七重의 체적體積으로서 수성계水星界 제2급성第二級星 전체적全體積의 $\frac{1}{7}$

⑼ $1430552941\frac{5}{7}$ 일신日身 제8중第八重의 체적體積으로서 수성계水星界 제1급성第一級星 전체적全體積의 $\frac{1}{7}$

⑽ $5278793142\frac{6}{7}$ 일구日球의 전체적全體積으로서 성무계星霧系 전全 수진水塵 체적體積의 $\frac{1}{7}$ 임.

53. 수성계水星界 18개계十八個階의 구우區宇에 있는 전全 수성水星의 위수位數

⑴ 2088960(제1계第一階의 성수星數) + 1392640(제2계第二階의 성수星數) + 696320(제3계第三階의 성수星數로서 제1급第一級 3개계三個階의 급차수級差數) = 4177920 제1급第一級 3개계三個階의 전성수全星數로서 $4^{11} - 4^{7}$한 것에 상당相當함.

⑹ 417792(제4계第四階의 성수星數) + 313344(제5계第五階의 성수星數) + 208896(제6계第六階의 성수星數) + 104448(제7계第七階의 성수星數로서 제2급第二級 4개계四個階 성수星數의 등차급수等差級數) = 1044480 제2급第二級 4개계四個階 구우區宇의 전성수全星數로서 4^{10} - 4^{6}한 것과 등等함.

⑹ 87040(제8계第八階의 성수星數) + 69632(제9계第九階의 성수星數) + 5224[1167](제10계第十階의 성수星數) + 34816(제11계第十一階의 성수星數) + 17408(제12계第十二階의 성수星數로서 제3급第三級 5개계五個階의 등차급수等差級數) = 261120 제3급第三級 5개계五個階 구우區宇의 전성수全星數로서 4^{9} - 4^{5}한 것과 등等함.

⑹ 18648(제13계第十三階의 성수星數) + 15540(제14계第十四階의 성수星數) + 12432(제15계第十五階의 성수星數) + 9324(제16계第十六階의 성수星數) + 6216(제17계第十七階의 성수星數) + 3108(제18계第十八階의 성수星數로서 제4급第四級 6개계六個階 성수星數의 등차급수等差級數) = 65268 제4급第四級 6개계六個階의 전성수全星數로서 4^{8} - 4^{4} - 12와 등等함.

⑹ 4177920(제1급第一級 3개계三個階 구우區宇의 전성수全星數) + 1044480(제2급第二級 4개계四個階 구우區宇의 전성수全星數) + 261120(제3급第三級 5개계五個階 구우區宇의 전성수全星數) + 65268(제4급第四級 6개계六個階 구우區宇의 전성수全星數) = 5548788 수성계水星界 4개급四個級 18개계十八個階 구우區宇의 총성수總星數로서 (4^{8} + 4^{9} + 4^{10} + 4^{11}) - (4^{4} + 4^{5} + 4^{6} + 4^{7}) - 12 한 것과 상당相當함. 4^{4}은 가공계假空界의 제4급第四級, 4^{5}은 제3급第三級, 4^{6}은 제2급第二級, 4^{7}은 제1급第一級 등等의 배분配分이나 당체當體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控除하며, 12+二는 4급성四級星의 배위配位임과 동시同時에 목성木星 구우

1167) 원문에는 52224.

區宇 주성主星 외外의 종성從星 12위十二位의 분分이므로 이것 또한 공제控除함.

54. 수성군水星群의 총체적總體積과 별체적別體積

⑷ 10013870592(1급성一級星의 총체적總體積) ÷ 4177920(제1급성一第級星의 총수總數) = $2396\frac{3574272}{4177920}$ 1급성一級星 균별均別의 체적體積

⑹ 8018486784(2급성二級星의 총체적總體積) ÷ 1044480(2급성二級星의 총수總數) = $7677\frac{13824}{1044480}$ 2급성二級星 균별均別의 체적體積

⑹ 6244812288(3급성三級星의 총체적總體積) ÷ 261120(3급성三級星의 총수總數) = $23915\frac{127488}{261120}$ 3급성三級星 균별均別의 체적體積

⑹ 4692847104(4급성四級星의 총체적總體積) ÷ 65268(4급성四級星의 총수總數) = $71901\frac{12636}{65268}$ 4급성四級星 균별均別의 체적體積

⑹ 10013870592(1급성一級星의 총체적總體積) + 8018486784(2급성二級星의 총체적總體積) + 6244812288(3급성三級星의 총체적總體積) + 4692847104(4급성四級星의 총체적總體積) = 28970016768 수성水星 4개급四個級의 총체적總體積

55. 가공계假空界 4개급四個級 34三十四개個 계별階別의 총總 수진량水塵量

⑷ 3362661232(제1급第一級 7개계七個階의 총總 수진水塵 체적體積) + 2253974672(제2급第二級 8개계八個階의 총總 수진水塵 체적體積) + 1367207424(제3급第三級 9개계九個階의 총總 수진水塵 체적體積) + 702079488(제4급第四級 10개계十個階의 총總 수진水塵 체적體積) = 7685922816 가공계假空界 4개급四個級 34개계三十四個階 구우區宇의 총總 수진水塵 체적體積으로서, 수진水塵의 계통系統인 오직 질質만 있을

뿐 하나도 성체星體는 없다고 할지라도 34三十四 계단階段 별別로 기괴氣塊의 자체孳體가 성신成身하여 우주宇宙 전구역全區域(일심日心과 진공계眞空界를 제외除外)을 유통流通하면서 외루外壘가 되므로, 이를 계단별階段別로 취급取扱하는 것이다.

(b) 840665308(가공계假空界 제1계第一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720570264(제2계第二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600475220(제3계第三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4803880176[1168](제4계第四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360285132(제5계第五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240190088(제6계第六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1200995044[1169](제7계第七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으로서 제1급第一級 7개계七個階의 급차수級差數) = 3362661232 제1급第一級 7개계七個階 구우區宇의 전수진全水塵 체적體積

(c) $500883260\frac{16}{36}$(제8계第八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138272852\frac{32}{36}$[1170](제9계第九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375662445\frac{12}{36}$(제10계第十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313052037\frac{28}{36}$(제11계第十一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250441630\frac{8}{36}$(제12계第十二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187831222\frac{24}{36}$(제13계第十三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125220815\frac{4}{36}$(제14계第十四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62610407\frac{20}{36}$(제15계第十五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으로서 제2급第二級 8개계八個階의 급차수級差數) = 2253974672 제2급第二級 8개계八個階의 전수진체적全水塵體積

(d) $273441484\frac{36}{45}$(제16계第十六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243059097\frac{27}{45}$(제

1168) 원본에는 480380176

1169) 일본어 원본, 태안사 본은 1200995044 벽산선요에서는 120095044

1170) 일본어 원본에는 $438272852\frac{32}{36}$

17계第十七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212676710\frac{18}{45}$(제18계第十八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182294323\frac{9}{45}$(제19계第十九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159911936(제20계第二十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121529548\frac{36}{45}$(제21계第二十一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91147161\frac{27}{45}$(제22계第二十二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60764774\frac{18}{45}$(제23계第二十三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30382387\frac{9}{45}$(제24계第二十四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으로서 제3급第三級 9개계九個階의 급차수級差數) = 1367207424 제3급第三級 9개계九個階의 전수진全水塵 체적體積

(e) 127650816(제25계第二十五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114885734\frac{22}{55}$(제26계第二十六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102120652\frac{44}{55}$(제27계第二十七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89355571\frac{11}{55}$(제28계第二十八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76590489\frac{33}{55}$(제29계第二十九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63825408(제30계第三十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51060326\frac{22}{55}$(제31계第三十一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38295244\frac{44}{55}$(제32계第三十二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25530163\frac{11}{55}$(제33계第三十三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12765681\frac{33}{55}$[1171](제34계第三十四階의 수진水塵 체적體積으로서 제4급第四級 10개계十個階의 급차수級差數) = 702079488 제4급第四級 10개계十個階 구우區宇의 전全 수진水塵 체적體積

56. 진공계眞空界의 수진량水塵量과 성무계星霧系의 총總 질량質量

1171) 금강심론에는 $12765081\frac{33}{55}$

(a) $42230345\frac{1}{7}$(월月의 체적體積과 등等한 일구日球 표리表裡 공간空間의 체적體積) × 7 = 295612416 진공계眞空界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b) 295612416(진공계眞空界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7685922816(가공계假空界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28970016768(수성계水星界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36951552000 성무계星霧系의 총總 수진水塵 체적體積

(c) 36951552000 × 7 = 258660864000 성무계星霧系의 총總 수진량水塵量

(d) 258660864000 × 3 = 775982592000 성무계星霧系의 총總 냉량冷量

(e) 258660864000 (성무계星霧系의 총總 수진량水塵量) + 775982592000 (동냉량同冷量) = 1034643456000 성무계星霧系의 총總 질량質量

제4第四. 화진세계火塵世界와 월요月曜

57. 구개호九個皞의 거리距離와 질량質量

(a) 360(월月의 중심中心에서 하저下底 또는 상저上底까지의 거리距離로서 이것이 제1호第一皞) + 90(제2호第二皞의 후厚로서 이것이 여타餘他 8개호八個皞의 등거리等距離의 후厚) = 450

월심月心에서 제2호第二皞까지의 거리距離

(b) 450 + 90 = 540 월심月心에서 제3호第三皞까지의 거리距離

(c) 540 + 90 = 630 월심月心에서 제4호第四皞까지의 거리距離

(d) 630 + 90 = 720 월심月心에서 제5호第五皞까지의 거리距離

(제2第二에서 제5第五까지가 제2륜第二輪)

(e) 720 + 90 = 810 월심月心에서 제6호第六皞까지의 거리距離

(f) 810 + 90 = 900 월심月心에서 제7호第七皞까지의 거리距離

⑹ 900 + 90 = 990 월심月心에서 제8호第八暈까지의 거리距離
⑹ 990 + 90 = 1080 월심月心에서 제9호第九暈까지의 거리距離(제7第七에서 제9第九까지가 제3륜第三輪)

(i) $42230345\frac{1}{7}$(월月의 체적體積과 등等한 9개호별九個暈別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9 = $380073106\frac{2}{7}$ 9개호九個暈 삼륜신三輪身의 화진火塵 체적體積으로서 $\frac{1}{9}$이 제1륜신第一輪身인 월체月體임

(j) $380073106\frac{2}{7}$ × 49 = 18623582208 월세계月世界의 화진량火塵量

18623582208 × 5 = 93117911040 월세계月世界의 열량熱量

⑹ 18623582208(화질火質) + 93117911040(열량熱量) = 111741493248 월세계月世界의 질량質量

58. 월세계月世界에서 목성木星의 구우區宇를 넘어 화성계火星界까지의 거리距離

⑹ 1080(월세계月世界의 반경半徑) + 1080(목성木星 구우區宇의 후厚) = 2160 월세계月世界에서 목성木星의 구우區宇를 넘어서 화성계火星界 내주內周 변제邊際까지의 거리距離

⑹ 2160 + $38\frac{4}{7}$(화성계火星界 제1층第一層 7개단七個段의 급차級差 거리距離로서 이것이 제1단第一段의 후厚) = $2198\frac{4}{7}$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5개층五個層 25개단二十五個段 중中 제1第一하단下段까지의 거리距離

(c) $2198\frac{4}{7}$ + $38\frac{4}{7}$ × 2 = $2275\frac{5}{7}$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2단第二段까지의 거리距離

(d) $2275\frac{5}{7}$ + $38\frac{4}{7}$ × 3 = $2391\frac{3}{7}$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3단第

三段까지의 거리距離

(e) $2391\frac{3}{7}$ + $38\frac{4}{7}$ × 4 = $2545\frac{5}{7}$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4단第四段까지의 거리距離

(f) $2545\frac{5}{7}$ + $38\frac{4}{7}$ × 5 = $2738\frac{4}{7}$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5단第五段까지의 거리距離

(g) $2738\frac{4}{7}$ + $38\frac{4}{7}$ × 6 = 2970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6단第六段까지의 거리距離

(h) 2970 + $38\frac{4}{7}$ × 7 = 3240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7단第七段까지의 거리距離

(i) 3240 + $51\frac{3}{7}$(제2층第二層 6개단六個段의 급차級差 거리距離로서 이것이 동계同界 제8단第八段의 후厚) = $3291\frac{3}{7}$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8단第八段까지의 거리距離

(j) $3291\frac{3}{7}$ + $51\frac{3}{7}$ × 2 = $3394\frac{2}{7}$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9단第九段까지의 거리距離

(k) $3394\frac{2}{7}$ + $51\frac{3}{7}$ × 3 = $3548\frac{4}{7}$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10단第十段까지의 거리距離

(l) $3548\frac{4}{7}$ + $51\frac{3}{7}$ × 4 = $3754\frac{2}{7}$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11단第十一段까지의 거리距離

(m) $3754\frac{2}{7}$ + $51\frac{3}{7}$ × 5 = $4011\frac{3}{7}$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12단第十二段까지의 거리距離

(n) $4011\frac{3}{7}$ + $51\frac{3}{7}$ × 6 = 4320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13단第十三段까지의 거리距離

(o) 4320+72(제3층第三層 5개단五個段의 급차級差 거리距離로서 이것이 동계同界 제14단第十四段의 후厚) = 4392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14단第十四段까지의 거리距離

⑼ 4392+72 × 2 = 4536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15단第十五段까지의 거리距離

⑽ 4536+72 × 3 = 4752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16단第十六段까지의 거리距離

⑾ 4752+72 × 4 = 5040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17단第十七段까지의 거리距離

⑿ 5040+72 × 5 = 5400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18단第十八段까지의 거리距離

⒀ 5400+108(제4층第四層 4개단四個段의 급차級差 거리距離로서 이것이 동계同界 제19단第十九段의 후厚) = 5508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19단第十九段까지의 거리距離

⒁ 5508+108 × 2 = 5724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20단第二十段까지의 거리距離

⒂ 5724+108 × 3 = 6048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21단第二十一段까지의 거리距離

⒃ 6048+108 × 4 = 6480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22단第二十二段까지의 거리距離

⒄ 6480+180(제5층第五層 3개단三個段의 급차級差 거리距離로서 이것이 동계同界 제23단第二十三段의 후厚) = 6660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23단第二十三段까지의 거리距離

⒅ 6660+180 × 2 = 7020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24단第二十四段까지의 거리距離

⒆ 7020+180 × 3 = 7560 월심月心에서 화성계火星界
제25단第二十五段까지의 거리距離

59. 화성火星 내계內界 하下 2개층二個層 13개단十三個段의 화진량火塵量

(a) $1508226\frac{120}{196}$(내계內界 제1층第一層 7개단七個段 화진火塵 체적體積의 급차級差로서 이것이 제1단第一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3016453\frac{44}{196}$(내內 제2단第二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4524679\frac{164}{196}$(내內 제3단第三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6032906\frac{88}{196}$(내內 제4단第四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7541134\frac{12}{196}$(내內 제5단第五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9049359\frac{132}{196}$(내內 제6단第六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10557586\frac{56}{196}$(내內 제7단第七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42230345\frac{1}{7}$ 내계內界 제1第一 하층下層 7개단七個段 구우區宇의 화진火塵 체적體積으로서 월月의 체적體積과 등等함

(b) $42230345\frac{1}{7}$(내계內界 제1층第一層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49 = 2069286912 화성火星 내계內界 제1층第一層의 화진량火塵量으로서 월月의 화진량火塵量과 등等함

(c) $4021937\frac{93}{147}$(내계內界 제2층第二層 6개단六個段 화진火塵 체적體積의 급차級差로서 이것이 내內 제8단第八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8043875\frac{39}{147}$(내內 제9단第九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12065812\frac{132}{147}$(내內 제10단第十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16087750\frac{78}{147}$(내內 제11단第十一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20109688\frac{24}{147}$(내內 제12단第十二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24131625\frac{117}{147}$(내內 제13단第十三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84460690\frac{2}{7}$ 화성火星 내계內界 제2층第二層 구우區宇 화진火塵의 체적體積

으로서 월체月體의 2배二倍

(d) $84460690\frac{2}{7}$(내內 제2층第二層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49 = 4138573824 화성火星 내계內界 제2층第二層 구우區宇의 화진량火塵量으로서 월체月體 화진량火塵量의 2배倍

(e) $126691035\frac{3}{7}$(화성火星 내계內界 하下 2개층二個層의 월체月體 3배倍와 등等한 화진火塵 체적體積) × 49 = 6207860736 화성火星 내계內界 하下 2개층二個層의 화진량火塵量으로서 월月의 3배倍

60. 화성火星 외계外界 하下 2개층二個層 13개단十三個段의 화진량火塵量

(a) $9049359\frac{132}{196}$(외外 제1第一 하층下層 7개단七個段 화진火塵 체적體積의 급차級差로서 이것이 외外 제1단第一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18098719\frac{68}{196}$(외外 제2단第二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27148079\frac{4}{196}$(외外 제3단第三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36197438\frac{136}{196}$(외外 제4단第四段의 화진체적火塵體積) + $45246798\frac{72}{196}$(외外 제5단第五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1172] + $54296158\frac{8}{190}$[1173](외外 제6단第六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63345517\frac{140}{196}$(외外 제7단第七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253382070\frac{6}{7}$ 화성 외계火星外界 제1第一 하층下層 구우區宇 화진火塵의 체적體積 (월月의 6배倍)

(b) $14076781\frac{5}{7}$(외계外界 제2층第二層 6개단六個段의 급차級差인 화진火塵의 체적體積으로서 이것이 외外 제8단第八段 화진火塵의 체적體積) +

1172) 금강심론에는 이 부분 누락.

1173) 일본어 원본에는 $\frac{8}{196}$

$28153563\frac{3}{7}$(외外 제9단第九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42230345\frac{1}{7}$(외外 제10단第十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56307126\frac{6}{7}$(외外 제11단第十一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70383908\frac{4}{7}$(외外 제12단第十二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84460690\frac{2}{7}$(외外 제13단第十三段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295612416 화성火星 외계外界 제2층第二層 구우區宇 화진火塵의 체적體積으로서 월체月體의 7배倍

(c) $548994486\frac{6}{7}$(월체月體 13배倍와 등等한 화성火星 외계外界 하下 2개층二個層 구우區宇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49 = 26900729856 화성火星 외계外界 하下 2개층二個層 화진량火塵量으로서 월月의 13배倍

61. 화성火星 내계內界 상上 3개층三個層 12개단十二個段의 구우區宇에 있어서의 화성火星의 위수位數

(a) 48(내계內界 제3층第三層 5개단五個段 성수星數의 급차級差로서 이것이 내內 제14단第十四段의 화성수火星數) + 96(내內 제15단第十五段의 성수星數) + 144(내內 제16단第十六段의 성수星數) + 192(내內 제17단第十七段의 성수星數) + 240(내內 제18단第十八段의 성수星數) = 720 화성火星 내계內界 제3층第三層 5개단五個段에 있어서의 화성수火星數로서 $3^6 - 3^2$과 등等함

(b) 216(내계內界 제4층第四層 4개단四個段 성수星數의 급차級差로서 이것이 내內 제19단第十九段의 성수星數) + 432(내內 제20단第二十段의 성수星數) + 648(내內 제21단第二十一段의 성수星數) + 864(내內 제22단第二十二段의 성수星數) = 2160 화성火星 내계內界 제4층第四層 구우區宇의 전성수全星數로서 $3^7 - 3^3$과 등等함

⑹ 1080(내계內界 제5층第五層 3개단三個段 성수星數의 급차級差로서 이것이 내內 제23단第二十三段의 성수星數) + 2160(내內 제24단第二十四段의 성수星數) + 3240(내內 제25단第二十五段의 성수星數) = 6480 화성火星 내계內界 제5층第五層의 전성수全星數로서 $3^8 - 3^4$과 등等함

⑺ 720(내內 제3층第三層의 성수星數) + 2160(내內 제4층第四層의 성수星數) + 6480(내內 제5층第五層의 성수星數) = 9360 화성火星 내계內界 상上 3개층三個層 12개단十二個段에 있어서의 전성수全星數

62. 화성火星 외계外界 상上 3개층三個層 12개단十二個段의 구우區宇에 있어서의 화성火星의 위수位數

⑻ 1296(외계外界 제3층第三層 5개단五個段 성수星數의 급차級差로서 이것이 외外 제14단第十四段의 화성수火星數) + 2592(외外 제15단第十五段의 성수星數) + 3888(외外 제16단第十六段의 성수星數) + 5184(외外 제17단第十七段의 성수星數) + 6480(외外 제18단第十八段의 성수星數) = 19440 화성火星 외계外界 제3층第三層 5개단五個段 구우區宇에 있어서의 전화성수全火星數로서 $3^9 - 3^5$과 등等함

⑼ 5904(외계外界 제4층第四層 4개단四個段 성수星數의 급차級差로서 이것이 외外 제19단第十九段의 성수星數) + 11808(외外 제20단第二十段의 성수星數) + 17712(외外 제21단第二十一段의 성수星數) + 23616(외外 제22단第二十二段의 성수星數) = 59040 화성火星 외계外界 제4층第四層 구우區宇의 전성수全星數로서 $3^{10} - 3^2$과 등等함

⑽ 29520(외계外界 제5층第五層 3개단三個段 성수星數의 급차級差로서 이것이 제23단第二十三段의 성수星數) + 59040(외外 제24단第二十四段의 성수星數) + 88560(외外 제25단第二十五段의 성수星數) = 177120 화성火星 외계外界 제5층第五層 구우區宇의 전성수全星數로서 $3^{11} - 3^3$과 등等

함

⑷ 19440(외外 제3층第三層의 전성수全星數) + 59040(외外 제4층第四層의 전성수全星數) + 177120(외外 제5층第五層의 전성수全星數) = 255600 화성火星 외계外界 상上 3개층三個層의 전화성수全火星數

⑸ 9360(화성火星 내계內界 상上 3개층三個層 전성수全星數) + 255600(화성火星 외계外界 상上 3개층三個層의 전성수全星數) = 264960 화성火星 내외계內外界 상上 3개층三個層 12개단十二個段의 총성수總星數로서 $(3^6 - 3^2) + (3^7 - 3^3) + (3^8 - 3^4) + (3^9 - 3^5) + (3^{10} - 3^2) + (3^{11} - 3^3)$과 등等함. 그리고 $-(3^2 + 3^3 + 3^4 + 3^5)$는 무성無星 구우區宇로서 실수實數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控除해야 하며 후後의 $-(3^2 + 3^3) = -36$은 토성계土星界의 28수二十八宿와 8위八位 금성金星이 된다.

63. 화성火星의 총별總別 체적體積과 총화진량總火塵量

⑷ $126691035\frac{3}{7}$(월체月體 3배倍와 등等한 화성火星 내계內界 제3층第三層 구우區宇의 전성全星 체적體積) ÷ 720(동구우同區宇의 전성수全星數) = $175959\frac{27}{35}$ 내계內界 3층성三層星의 균별均別 체적體積

⑸ $337842761\frac{1}{7}$(월체月體 8배倍와 등等한 화성火星 외계外界 제3층第三層 구우區宇의 전성全星 체적體積) ÷ 19440(동구우同區宇의 전성수全星數) = $17378\frac{101088}{136080}$ 외계外界 3층성三層星의 균별均別 체적體積

⑹ $168921380\frac{4}{7}$(월체月體 4배倍와 등等한 화성火星 내계內界 제4층第四層 구우區宇의 전성全星 체적體積) ÷ 2160(동구우同區宇의 전성수全星數) = $782043\frac{648}{15120}$ 내계內界 4층성四層星의 균별均別 체적體積

⑺ $380073106\frac{2}{7}$(월체月體의 9배倍와 등等한 화성火星 외계外界 제4층第四

層 구우區宇의 전성全星 체적體積) ÷ 59040(동구우同區宇의 전성수全星數) = $6437\frac{228384}{413280}$ 외계外界 4층성四層星의 균별均別 체적體積

(e) $211151725\frac{5}{7}$(월체月體 5배倍와 등等한 화성火星 내계內界 제5층第五層 구우區宇의 전성全星 체적體積) ÷ 6480(동구우同區宇의 전성수全星數) = $32585\frac{6480}{45360}$ 내계內界 5층성五層星의 균별均別 체적體積

(f) $422303451\frac{3}{7}$(월체月體 10배倍와 등等한 화성火星 외계外界 제5층第五層 구우區宇의 전성全星 체적體積) ÷ 177120(동구우同區宇의 전성수全星數) = $2384\frac{34560}{123984}$ 외계外界 5층성五層星의 균별均別 체적體積

(g) $126691035\frac{3}{7}$(내內 3층三層의 전성全星 체적體積) + $337842761\frac{1}{7}$(외外 삼층三層의 전성全星 체적體積) + $168921380\frac{4}{7}$(내內 4층四層의 전성全星 체적體積) + $380073106\frac{2}{7}$(외外 4층四層의 전성全星 체적體積) + $211151725\frac{5}{7}$(내內 5층五層의 전성全星 체적體積) + $422303451\frac{3}{7}$(외外 5층五層의 전성全星 체적體積) = $1646983460\frac{4}{7}$ 월체月體 39배倍와 등等한 화성火星 264960위位의 전체적全體積

(h) $1646983460\frac{4}{7}$(화성火星 전체적全體積) × 49 = 80702189568 화성火星 전체全體의 총화진량總火塵量

64. 전자電子의 양量과 전파電波가 미치는 구역區域

(a) 2069286912(월체月體의 화진火塵) + 16554295296(월月의 8배倍와 등等한 월세계月世界의 산화진량散火塵量) + 6207860736(월月의 3배倍와 등等한 화성火星 내계內界 하下 2개층二個層의 화진량火塵量) + 26900729856(월月의 13배倍와 등等한 화성외계火星外界 하下 2개층二

個層의 화진량火塵量) + 80702189568(월月의 36배[1174]倍와 등等한 화성火星 전체全體의 화진량火塵量) = 132434362368 월月의 64배倍와 등等한 월세계月世界와 화성계火星界의 총總 화진량火塵量으로서 이것이 곧 양계兩界의 전자량電子量이다. 화진火塵이란 전자電子의 본명本名인 것이다

⑹ 43455025152(월月의 21배倍와 등等한 목성木星 13위位의 화진량火塵量) + 31039303680(월月의 15배倍와 등等한 목성木星 구우區宇 하下 5개층五個層의 화진량火塵量) = 74494328832 월月의 36배倍와 등等한 목성木星 구우區宇의 화진량火塵量 곧 전자량電子量

⑹ 132434362368(월月의 64배倍와 등等한 월세계月世界와 화성계火星界의 화진량火塵量) × 5 = 662171811840 양성열량陽性熱量으로서 즉卽 양전량陽電量$(\frac{4}{5})^2$

⑹ 74494328832(월月의 36배倍와 등等한 목성木星 구우區宇의 화진량火塵量) × 3 = 223482986496 음성열량陰性熱量으로서 즉卽 음전량陰電量$(\frac{3}{5})^2$

⑹ $211151725\frac{5}{7}$(월체月體 5배倍와 등等한 토성계土星界 지진地塵의 체적體積과 8위八位 금성金星의 체적體積) × $\frac{1}{5}$ × 49 = 2069286912 월月과 등等한 화진량火塵量

⑹ 2069286912(토성계土星界와 8위八位 금성계金星界의 화진량火塵量) × $(\frac{4}{5})^2$ = $1324343623\frac{17}{25}$ 양전량陽電量

⑹ 2069286912 × $(\frac{3}{5})^2$ = $744943288\frac{8}{25}$ 음전량陰電量

⑹ 1080(월세계月世界의 반경半徑 또는 목성木星의 구우區宇 또한 화성

1174) 원본에는 39배

계火星界 5개층五個層과 등거리等距離인 후厚) × 7 = 7560 월月을 중심中心으로 한 유성계遊星界의 반경半徑으로서 차此 반경半徑인 일원一圓이 언제나 전파電波가 미치는 구역區域이므로 지면地面에서의 최원最遠이 7560 + 2462(지地 월심月心 간間의 거리距離) - 36(지반경地半徑) = 9986으로서 최근最近이 7560 - 2462 + 36 = 5134이다

(i) $7560^3 \times \frac{88}{21}$ = 1810626048000 차此가 유성계遊星界의 전체적全體積으로서 전파電波가 미치는 구역區域이므로 차此 구역외區域外에는 전자電子가 없다. 전자電子가 없는 구역區域에도 이-자(수진水塵의 극성極性)는 있으나 전파電波는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이-자가 없으면 전파電波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자는 수진水塵의 극성極性이므로 수진水塵이 포진布陣된 가공계假空界 이내以內가 그의 구역區域으로서 식광력識光力이 미치는 한도限度이다. 오직 대천세계大千世界를 일원一圓으로 할 수 있음은 지광력智光力에 한限한다.

제5第五. 풍진세계風塵世界와 목성木星

65. 목성木星 구우區宇 하下 5개층五個層의 음성陰性 화진량火塵量

(a) $42230345\frac{1}{7}$(월月의 체적體積과 등等한 목성木星 구우區宇 제1층第一層의 화진火塵 체적體積으로서 이것이 동구同區 8개층八個層의 급차級差다) + $84460690\frac{2}{7}$(월체月體의 2배倍와 등等한 동同 제2층第二層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 $126691035\frac{3}{7}$(월체月體의 3배倍와 등等한 동同 제3층第三層 화진火塵의 체적體積) + $168921380\frac{4}{7}$(월체月體의 4배倍와 등等한 동同 제4층第四層 화진火塵의 체적體積) + $211151725\frac{5}{7}$(월체月體의 5배倍와

등等한 동同 제5층第五層 화진火塵의 체적體積) = $633455177\frac{1}{7}$ 월체月體의 15배倍와 등等한 목성木星 구우區宇 하下 5개층五個層 화진火塵의 체적體積

⑹ $633455177\frac{1}{7}$(월체月體의 15배倍와 등等한 목성木星 구우區宇 하下 5개층五個層 화진火塵의 체적體積) × 49 = 31039303680 목성木星 구우區宇 하下 5개층五個層 화진량火塵量
⑹ 31039303680 × 3 = 93117911040 동음성同陰性 열량熱量(음전량陰電量)

66. 목성木星 구우區宇 상上 3개층三個層에 있어서의 3품三品 목성木星의 체적體積과 그 음성陰性 화진火塵

⑻ $253382070\frac{6}{7}$ 월체月體의 6배倍와 등等한 목성木星 구우區宇의 제6층第六層에 있어서의 주성主星 체적體積
⑹ 295612416(월체月體의 7배倍와 등等한 동同 제7층第七層에 있어서의 자종성子從星 3위位의 체적體積) ÷ 3 = 98537472 자종성子從星인 일위一位의 체적體積
⑹ $337842761\frac{1}{7}$(월체月體의 8배倍와 등等한 동同 제8층第八層에 있어서의 손종성孫從星 9위位의 체적體積) ÷ 9 = 37538084 손종성孫從星인 1위一位의 체적體積

⑹ $253382070\frac{6}{7}$(주성主星 1위一位의 체적體積) + 295612416(자종성子從星 3위三位의 체적體積) + $337842761\frac{1}{7}$(손종성孫從星 9위九位의 체적體積) = 886837248 월체月體의 21배倍와 등等한 목성木星 13위十三位의 전체적全體積
⑹ 886837248(월체月體의 21배倍와 등等한 목성木星 13위十三位의 전

체적全體積) × 49 = 43455025152 목성木星 13위位의 화진량火塵量(전자량電子量)
(f) 43455025152 × 3 = 130365075456 음성陰性 열량熱量(음전량陰電量)

67. 일구日球의 냉량冷量과 인력량引力量

(a) $5278793142\frac{6}{7}$(월체月體 120배倍와 등等한 일구日球의 체적體積) × 7 = 36951552000 일구日球의 수진량水塵量
(b) 36951552000 × 3 = 110854656000 일구日球의 냉량冷量
(c) 110854656000 × 59049(3^{10}) = 6545856582144000 일구日球의 인력량引力量

68. 성무계星霧系의 냉량冷量과 인력량引力量

(a) 28970016768(수성水星 5548788위位의 전체적全體積) +
7685922816(가공계假空界 4개급四個級 전수진全水塵의 체적體積) +
295612416(진공계眞空界 희수진稀水塵의 전체적全體積) =
36951552000 성무계星霧系 전수진全水塵의 체적體積
(b) 36951552000 × 7 = 258660864000 성무계星霧系의 총수진량總水塵量
(c) 258660864000 × 3 = 775982592000 성무계星霧系의 총냉량總冷量
(d) 775982592000 × 59049(3^{10}) = 45820996075008000 성무계星霧系의 총인력總引力으로서 일구日球 인력량引力量의 7배倍

69. 우주宇宙의 좌선진左旋塵에 말미암은 수평력량水平力量

(a) 6545856582144000(일구日球의 인력량引力量) +

45820996075008000(성무계星霧系의 인력량引力量) = 52366852657152000 우주宇宙 중앙中央의 좌선일구左旋日球와 변방邊方 좌선左旋 성체星體 또는 좌선진左旋塵 간間에서 동성同性 상인相引하는 좌선左旋의 원칙原則으로 말미암아 서로 견인牽引하는 수진水塵의 수평력량水平力量이 이것이다.

70. 화성계火星界의 열량熱量과 동력량動力量

(a) $2322668982\frac{6}{7}$(월체月體의 39배倍와 등等한 화성火星 264960위位의 전체적全體積과 월체月體의 16배倍와 등等한 화진火塵의 전체적全體積) × 49 = 113810780160 화성계火星界의 화진량火塵量
(b) 113810780160 × 5 = 569053900800 화성계火星界의 열량熱量
(c) 569053900800 × 15625(5^6) = 8891469200000000 화성계火星界의 총總 동력량動力量

71. 월세계月世界의 열량熱量과 동력량動力量

(a) $380073106\frac{2}{7}$(월月의 체적體積과, 월체月體의 8배倍와 등等한 제2第二, 제3第三 윤신輪身의 체적體積) × 49 = 18623582208 월세계月世界의 화진량火塵量
(b) 18623582208 × 5 = 93117911040 동계同界 열량熱量
(c) 93117911040 × 15625(5^6) = 1454967360000000 월세계月世界의 총總 동력량動力量

72. 목성木星 구우區宇의 음성陰性 열량熱量과 정력량靜力量

(a) $1520292425\frac{1}{7}$(월체月體의 21배倍와 등等한 목성木星 13위位의 체적體積과, 월체月體의 15배倍와 등等한 화진火塵의 체적體積) × 49 =

74494328832 동구同區 화진량火塵量

⑹ 74494328832 × 3 = 223482986496 동구同區 음성열량陰性熱量

⑹ 223482986496 × 15625(5^6) = 3491921664000000 동구同區의 정력량靜力量

73. 전全 우주宇宙에 있어서의 우선右旋 척력량斥力量

⑻ 8891469200000000(화성계火星界의 동력량動力量) +
1454967360000000(월세계月世界의 동력량動力量 =
10346436560000000 유성계遊星界의 총總 동력량動力量

⑹ 10346436560000000(유성계遊星界의 총總 동력량動力量) -
3491921664000000(목성木星 구우區宇의 정력량靜力量) =
6854514896000000 유성계遊星界의 잉여동력剩餘動力이 전우주全宇宙에 있어서의 척력량斥力量이다. 목성木星의 구우區宇가 화성계火星界와 월세계月世界와의 중간中間에 끼어 있어 $\frac{1}{4}$은 월세계月世界에서, $\frac{3}{4}$은 화성계火星界에서 그 척력斥力을 흡수吸收하고 필경畢竟 월체月體의 28배倍에 등等한 화성火星의 척력斥力만 존재存在한다

74. 전全 우주宇宙에 있어서의 좌선左旋 인력량引力量

⑻ 52366852657152000(일구日球를 조합점釣合點으로 하는 성무계星霧系의 수평력량水平力量)-6854514896000000(유성遊星 동력動力의 잉여剩餘 척력량斥力量) = 45512337761152000 수평력량水平力量의 잉여剩餘 그대로가 우주宇宙의 전全 인력량引力量으로 나타난다

75. 월月로 하여금 목성木星과 역선力線을 연계連繫시키는 지륜계地輪界의 인력량引力量과 냉량冷量

⑻ $1251269\frac{17}{35}$(지륜계地輪界의 수진水塵 체적體積) × 7 = $8758886\frac{2}{5}$

지륜계地輪界의 수진량水塵量

(b) $8758886\frac{2}{5}$ × 3 = $26276659\frac{1}{5}$ 지륜계地輪界의 냉량冷量

(c) $26276659\frac{1}{5}$ × 59049(3^{10}) = $1551610449100\frac{4}{5}$ 동계同界의 인력량引力量

76. 지륜계地輪界의 양성陽性 화진火塵과 음성陰性 화진火塵의 분량分量

(a) $312817\frac{13}{35}$(지륜계地輪界의 화진火塵 체적體積) ×49 = $15328051\frac{1}{5}$ 지륜계地輪界의 화진량火塵量

(b) $15328051\frac{1}{5}$ × $(\frac{4}{5})^2$ = $9809952\frac{96}{125}$ 지륜계地輪界의 양성陽性 화진량火塵量

(c) $15328051\frac{1}{5}$ × $(\frac{3}{5})^2$ = $5518098\frac{54}{125}$ 지륜계地輪界의 음성陰性 화진량火塵量

77. 지륜계地輪界의 풍진량風塵量과 냉열冷熱의 체적體積

(a) $9809952\frac{96}{125}$ × 5 = $49049763\frac{105}{125}$ 동계同界의 양성陽性 열량熱量

(b) $5518098\frac{54}{125}$ × 3 = $16554295\frac{37}{125}$ 동계同界의 음성陰性 열량熱量

(c) $65604059\frac{17}{125}$(동계同界 음양성陰陽性의 열량熱量) - $26276659\frac{1}{5}$(동계同界의 냉량冷量) = $39327399\frac{117}{125}$ 동계同界 우선右旋 풍진량風塵量

(d) $1251269\frac{17}{35}$(동계同界 수진水塵의 체적體積) × 3 = $3753808\frac{16}{35}$ 동계同界의 냉체적冷體積

(e) $312817\frac{13}{35}$(동계同界 화진火塵의 체적體積) × 5 = $1564086\frac{6}{7}$ 동계同界의 열체적熱體積

(f) $3753808\frac{16}{35}$ - $1564086\frac{6}{7}$ = $2189721\frac{3}{5}$ 지륜계地輪界를 범람汎濫하는 좌선左旋 풍진風塵의 체적體積

(g) $2189721\frac{3}{5}$ ÷ $1564086\frac{6}{7}$ (동계同界의 열체적熱體積 즉卽 계내우선界內右旋 풍진風塵의 체적體積) = $\frac{7}{5}$ 지륜계地輪界의 냉열冷熱로 말미암은 계외界外 좌선左旋의 풍진風塵과 계내界內의 비比는 $\frac{5}{7}$ 다.

78. 지륜계地輪界의 동력動力과 정력靜力 또는 우선右旋 풍력량風力量과 척력량斥力量

(a) $49049763\frac{105}{125}$ (동계同界의 양성열량陽性熱量) × 15625(5^6) = 766402560000 지륜계地輪界 내內의 동력량動力量으로서 동계同界 화진량火塵量의 5만배五萬倍에 상당相當함.

(b) $16554295\frac{37}{125}$ (동계同界의 음성열량陰性熱量) × 15625(5^6) = 258860864000[1175] 동계同界의 정력량靜力量

(c) 766402560000(동계同界의 동력動力) - 258660864000(동계同界의 정력靜力) = 507741696000 동계同界의 척력량斥力量으로서 이것이 바로 우선右旋 풍력량風力量이므로 뇌정풍우雷霆風雨 또는 지륜계地輪界에 있어서의 만물萬物의 생멸生滅을 맡은 원동력原動力이다.

79. 47四七 성수계星宿界의 냉량冷量과 인력량引力量

(a) 21897216 (47성수四七星宿의 전체적全體積으로서 지구地球 체적體積의 112배倍) + 153280512 (47성四七星 윤계내輪界內의 지진地塵 체적體積으로서 지구地球 체적體積의 784배倍) + $9384521\frac{1}{7}$ (동계同界 유통流通 지진地塵의 체적體積으로서 지구地球 체적體積의 48배倍) =

1175) 원본에는 258660864000

$184562249\frac{1}{7}$ 동계同界 지진地塵의 전체적全體積(지구地球의 944배倍)

⑹ $184562249\frac{1}{7}$ × 343(7^3) = 63304851456 동계同界의 지진량地塵量(질량質量)

⑹ 63304851456 × $\frac{1}{49}$ = 1291935744 동계同界의 수진량水塵量

⑹ 1291935744 × 3 = 3875807232 동계同界의 냉량冷量

⑹ 3875807232 × 59049(3^{10}) = 228882541242368 동계同界의 인력량引力量

80. 47四七 성수계星宿界의 양성兩性 열량熱量과 풍진량風塵量

⑹ 63304851456(동계同界의 지진량地塵量) × $\frac{1}{7}$ = 9043550208 동계同界의 화진량火塵量

⑹ 9043550208 × $(\frac{4}{5})^2$ = $5787872133\frac{3}{25}$ 양성陽性 화진火塵

⑹ 9043550208 × $(\frac{3}{5})^2$ = $3255678074\frac{22}{25}$ 음성陰性 화진火塵

⑹ $5787872133\frac{3}{25}$ × 5 = $28939360665\frac{3}{5}$ 양성陽性 열량熱量

⑹ $3255678074\frac{22}{25}$ × 3 = $9767034224\frac{16}{25}$ 음성陰性 열량熱量

⑹ $38706394890\frac{6}{25}$(동계同界의 양성兩性 열량熱量) - 3875807232(동계同界의 냉량冷量) = $34830587658\frac{6}{25}$ 동계同界의 우선右旋 풍진량風塵量

81. 47四七 성수계星宿界의 동력動力과 정력靜力 또는 풍력량風力量

⑹ $28939360665\frac{15}{25}$(동계同界 양성陽性의 열량熱量) × 15625(5^6) = 452177510400000 동계同界의 동력량動力量

⑹ $9767034224\frac{16}{25}$(동계同界 음성陰性의 열량熱量) × 15625(5^6) = 152609909760000 동계同界의 정력량靜力量

⑹ 452177510400000(동력動力) - 152609909760000(정력靜力) = 299567600640000 동계同界의 풍력량風力量

제6第六. 금진세계金塵世界와 금성金星

82. 사대금성四大金星과 8위금성八位金星의 총별總別 체적體積

⑷ $42230345\frac{1}{7}$(월月의 체적體積) × 20 = $844606902\frac{6}{7}$ 4대금성四大金星의 총總 체적體積

⑹ $844606902\frac{6}{7}$ ÷ 4 = $211151725\frac{5}{7}$ 동同 균별均別의 체적體積(월체月體의 5배倍)

⑹ $195510\frac{6}{7}$(지구地球의 체적體積) × 128 = $25025389\frac{5}{7}$ 8위금성八位金星의 총總 체적體積

⑹ $25025389\frac{5}{7}$ ÷ 8 = $3128173\frac{5}{7}$ 동균별同均別의 체적體積(지체地體의 16배倍)

⑹ $844606902\frac{6}{7}$ + $25025389\frac{5}{7}$ = $869632292\frac{4}{7}$ 4四, 8금성八金星의 총總 체적體積(지구地球 체적體積의 4448배倍)

83. 열요列曜 또는 유질流質 근거根據의 전체적全體積

⑷ $5278793142\frac{6}{7}$(일구日球의 체적體積) + 28970016768(수성水星의 총

수總數 5548788위位의 전체적全體積) + 7685922816(가공계假空界 4개급四個級 구우區宇 총수진總水塵 근거根據의 체적體積) + 295612416(진공계眞空界 희수진稀水塵의 근거根據 체적體積) = $42230345142\frac{6}{7}$ 수진근거水塵根據의 총체적總體積으로서 이것이 수근水根인 제1종자第一種子의 전체적全體積(일체日體의 8배倍로서 월체月體의 1000배倍)

⑹ $42230345\frac{1}{7}$(월月의 체적體積) + $1646983460\frac{4}{7}$(화성총수火星總數 264960위位의 전체적全體積) + $675685522\frac{2}{7}$(화성계火星界 유통화진流通火塵의 근거根據 체적體積) + $337842761\frac{1}{7}$(월세계月世界 화진火塵의 근거체적根據體積) = $2702742089\frac{1}{7}$ 양성화진陽性火塵 근거根據의 총체적總體積으로서 이것이 양성화근陽性火根인 제1종자第一種子의 전체적全體積(월체月體 64배倍)

⑹ 886837248(목성木星 13위位의 전체적全體積) + $633455177\frac{1}{7}$(목성木星 구우區宇 음성화진陰性火塵의 근거체적根據體積) = $1520292425\frac{1}{7}$ 음성화진陰性火塵 근거根據의 총체적總體積으로서 이것이 음성화근陰性火根인 제1종자第一種子의 전체적全體積(월체月體의 36배倍)

⑹ $195510\frac{6}{7}$(지구地球의 체적體積) + 1368576(지륜계地輪界 지진地塵 근거根據의 전체적全體積) + 21897216 (47성수四七星宿의 전체적全體積)+ 153280512 (47성四七星 윤계輪界 내內 지진地塵 근거根據의 전체적全體積) + $9384521\frac{1}{7}$(토성계土星界 유통流通 지진地塵의 근거체적根據體積) = 186126336 지진地塵 근거根據의 총체적總體積으로서 이것이 지근地根인 제1종자第一種子의 체적體積(지체地體의 952배倍)

(e) $869632292\frac{4}{7}$(4四, 팔금성八金星의 전체적全體積) + 186126336(지진地塵 근거根據의 전체적全體積) = $1055758628\frac{4}{7}$ 수水 화火 이진二塵의 중성진中性塵 근거根據의 전체적全體積으로서 이것이 수水 화火 불이근不二根인 제1종자第一種子의 전체적全體積[1176](월체月體의 25배倍)

(f) $47509138285\frac{5}{7}$ 이것이 우주宇宙 전全 질량근거質量根據의 체적體積으로서 질質의 의거依據가 되는 제1종자第一種子인 등체금진等體金塵의 일부분一部分이다.

[1177]※ $47509138285\frac{5}{7}$ = $42230345142\frac{6}{7}$(수근水根) + $2702742089\frac{1}{7}$(양화근陽火根) + $1520292425\frac{1}{7}$(음화근陰火根) + $1055758628\frac{4}{7}$(수水 화火 불이근不二根)

84. 우주宇宙의 금진량金塵量

(a) $76210537750511\frac{479}{567}$(아我 우주宇宙의 전체적全體積으로서 이것이 등체等體 금진金塵의 총량總量) - $47509138285\frac{5}{7}$(열요列曜 또는 유질流質 근거根據의 전체적全體積) = $76163028612226\frac{74}{567}$ 아우주我宇宙의 총總 금진량金塵量에서 총總 질근質根의 제1第一 종자種子인 근금진根金塵을 제除한 이것이 순수純粹 에너지를 공급供給하는 경금진境金塵의 총량總量이다

(b) $76163028612226\frac{74}{567}$(경금진境金塵의 총량總量) ÷ $76210537750511\frac{479}{567}$(근경根境 2구二具의 총總 금진량金塵量) × 100 = 99.938% 경금진境金塵의 백분비百分比

1176) 원본, 상견성암 본에는 체적(體積)

1177) 일본어 원본에는 없는 추가분.

(c) $47509138285\frac{5}{7}$(근금진根金塵의 총량總量) ÷ $76210537750511\frac{479}{567}$(근경根境 2구二具의 총總 금진량金塵量) × 100 = 0.062% 근금진根金塵의 백분비百分比

85. 냉화冷化 금진金塵

(a) $42230345142\frac{6}{7}$(수진水塵이 의거依據한 제일第一 종자량種子量) × 7 = 295612416000 일실一實에 의依하여 수성화水性化된 제2第二 종자량種子量으로서 이것이 총總 수진량水塵量

(b) 295612416000(수성水性인 제2第二 종자량種子量) × 3 = 886837248000 제2성第二性인 수진水塵의 냉량冷量으로서 이것이 냉화금진冷化金塵이다. (냉성冷性의 에너지)

86. 열화熱化 금진金塵

(a) $4223034514\frac{2}{7}$(화진火塵이 의거依據한 제일第一 종자량種子量) × 49 = 206928691200 일실一實에 의依하여 화성화火性化된 제2第二 종자량種子量으로서 이것이 총總 화진량火塵量

(b) 206928691200(화성火性인 제2第二 종자량種子量) × $\left(\frac{4}{5}\right)^2$ = 132434362368 양성陽性 화진火塵

(c) 206928691200 × $\left(\frac{3}{5}\right)^2$ = 74494328832 음성陰性 화진火塵

(d) 132434362368(양성陽性 화진火塵) × 5 = 662171811840 양성陽性 열량熱量

(e) 74494328832(음성陰性 화진火塵) × 3 = 223482986496 음성陰性 열량熱量

(f) 662171811840(양화陽火) + 223482986496(음화陰火) =

885654798336 제2성第二性인 음양陰陽의 열량熱量으로서 이것이 열화熱化 금진金塵(열성熱性의 에너지)

87. 중화中和 금진金塵

(a) $1055758628\frac{4}{7}$(중성진中性塵이 의거依據한 제1第一 종자량種子量) × 343(7^3) = 362125209600 일실一實에 의依하여 수화水火 양성兩性의 중성中性이 된 지진地塵 총량總量

(b) 362125209600(수화水火 중성中性의 지진량地塵量) × $\frac{4}{5}$ = 289700167680 수진水塵 계통系統의 중성中性 금진金塵

(c) 362125209600 × $\frac{1}{5}$ =72425041920 화진계통火塵系統의 중성금진中性金塵

(d) 362125209600(중성지진中性地塵) × 7 = 2534876467200 수화水火 중성화中性化 금진金塵

88. 냉력화冷力化 금진金塵

(a) 886837248000(냉화금진冷化金塵) × 59049(3^{10}) = 52366852657152000 아우주我宇宙의 냉력화冷力化 금진金塵(냉력冷力 에너지)

89. 열력화熱力化 금진金塵

(a) 885654798336(열화熱化 금진金塵) × 15625(5^6) = 13838356224000000 열력화熱力化 금진金塵(열력熱力 에너지)

90. 월月의 세력勢力으로 말미암은 토성계土星界의 냉광화冷光化 금진金

塵

⑷ 289700167680(수진水塵 계통系統의 중성中性 금진金塵) × $\frac{1}{49}$ = 5912248320 4四, 8금성八金星과 토성계土星界의 수진량水塵量

⑸ 5912248320 × 3 × 5 × 7 = 620786073600 월月의 열력熱力에 유由한 금성계金星界 또는 토성계土星界의 냉광화冷光化 금진金塵 즉卽 월광량月光量

⑹ 620786073600 × $\frac{1}{4}$ = 155196518400 8위금성八位金星 또는 토성계土星界의 월광량月光量

⑺ 155196518400 × $\frac{119}{135}$ = 136802856960 토성계土星界의 월광량月光量

⑻ 136802856960 × $\frac{1}{119}$ = 1149603840 지륜계地輪界의 월광량月光量

1178) ※ 135 = 128 + 7, 119 = 112 + 7, 8위금성八位金星은 지구地球의 128배倍, 토성계土星界는 지구地球 112배倍

91. 일日의 냉력冷力에 유由한 토성계土星界의 열광화熱光化 금진金塵

⑷ 72425041920(화진火塵 계통系統의 중성中性 금진金塵) × $\frac{1}{7}$ = 10346434560 사四, 8금성八金星과 토성계土星界의 화진량火塵量

⑸ 10346434560 × 5 × 3^2 × 7^7 = 3834330190580736000 일日의 냉력冷力에 유由한 금성계金星界 또는 토성계土星界의 열광화熱光化 금진金塵 즉卽 일광량日光量

⑹ 3834330190580736000 × $\frac{1}{4}$ = 958582547645184000 8위금성八位金星 또는 토성계土星界의 일광량日光量

1178) 원문에는 없음.

⑷ 95858254764518400 × $\frac{119}{135}$ = 84497276422056960 토성계土星界의 일광량日光量

⑸ 84497276422056960 × $\frac{1}{119}$ = 710061146403840 지륜계地輪界의 일광량日光量

92. 금성金星 또는 토성계土星界에 있어서의 일광日光과 월광月光의 비량比量

⑷ 3834330190580736000(금성金星 또는 토성계土星界에 있어서의 일광총량日光總量) ÷ 620786073600(동同 월광총량月光總量) = $617657\frac{1}{4}$ 배倍, 곧 월광력月光力을 1로 할 때 이에 대한 일광력日光力의 배수倍數

93. 에테르와 금진金塵

⑷ 295612416000(아我 우주宇宙에 있어서의 총수진總水塵 즉卽 수성水性 금진량金塵量) + 206928691200(동총화진同總火塵 즉卽 화성火性 금진량金塵量) = 502541107200 아我 우주宇宙에 있어서의 수화水火 양성兩性 금진金塵의 총량總量

⑸ 502541107200 × 3 × 5 = 7538116608000 수화水火 양성兩性의 조화調和 금진金塵인 에테르의 총량總量

94. "이—자"와 금진金塵

⑷ 295612416000(수성水性 금진金塵의 총량總量) × 3 ×5 × 7^7 = 36517430486483200000 아我 우주宇宙에 있어서의 이-자의 총량總量

⑸ 36517430486483200000 ÷ $76210537750511\frac{479}{567}$(이-자의 근거根據인

우주宇宙 등체금진等體金塵의 총량總量) = 47916.48 이-자의 강도强度

95. 식력識力과 신력神力

(a) $76210537750511\frac{479}{567}$(우주宇宙 등체等體의 금진량金塵量)×5×7= $2667368821267914\frac{46}{81}$ 아우주我宇宙에 있어서의 신력량神力量

(b) $2667368821267914\frac{46}{81}$ × 3 = $8002106463803743\frac{57}{81}$ 아우주我宇宙에 있어서의 식력량識力量

96. 식광識光과 지광智光

(a) $76210537750511\frac{479}{567}$(우주宇宙 등체等體의 금진량金塵量) × 3 × 5 = $1143158066257677\frac{381}{567}$ 아우주我宇宙에 있어서의 식광량識光量

(b) $1143158066257677\frac{381}{567}$(식광識光) × 7 × 10 = $80021064638037437\frac{1}{27}$ 아우주我宇宙에 있어서의 지광량智光量

97. 지력智力과 신통력神通力

(a) $8002106463803743\frac{57}{81}$(식력량識力量) × 10 = $80021064638037437\frac{1}{27}$ 아우주我宇宙에 있어서의 지력량智力量(지광량智光量과 등等함)

(b) $80021064638037437\frac{1}{27}$(지광력智光力) × $\frac{1}{30}$ = $2667368821267914\frac{46}{81}$ 신통력神通力

98. 보살菩薩 십력十力과 여래如來 십력十力

(a) $80021064638037437\frac{1}{27}$ (아우주我宇宙에 있어서의 지광력智光力 그대로가 화엄華嚴 신력神力으로서 이것이 보살십력菩薩十力) × 10 = $800210646380374370\frac{10}{27}$ 이것이 일우주一宇宙에 있어서의 여래如來의 십력十力으로서 대천세계大千世界에 통通하여 여래如來의 묘광妙光 또한 동일同一하다

(b) $800210646380374370\frac{10}{27}$ (여래如來의 십력十力) × $\frac{1}{100}$ = $8002106463803743\frac{57}{81}$ 일우주一宇宙에 있어서의 식력識力 그대로가 천신天神 지기地祇의 역용力用이다

99. 식신識神의 역량力量과 업력業力

(a) $8002106463803743\frac{57}{81}$ (천신天神 지기[1179]地祇의 역용力用이 식력識力이므로 이것이 바로 식신識神의 역량力量이다) × $\frac{1}{3}$ = $2667368821267914\frac{46}{81}$ 일우주一宇宙에 있어서의 신통력神通力 그대로가 업력業力이다.

(b) $2667368821267914\frac{46}{81}$ (신력神力 즉卽 신통력神通力) × 30 = $80021064638037437\frac{1}{27}$ 보살菩薩의 십력十力

100. 금진金塵과 대천세계大千世界

(a) $76210537750511\frac{479}{567}$ (일우주一宇宙의 체적體積으로서 이것이 일체一切의 근거根據인 등체等體의 금진량金塵量) × 1000000000(1000^3) =

1179) (地祇) : 지신(地神), 땅을 다스리는 신령.

$762105377505118447971 78\frac{74}{567}$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의 근거根據인 십억十億 우주宇宙의 전체적全體積으로서 이것이 무량無量 무변無邊의 세계해世界海에 부구浮漚가 되어 아우주我宇宙와 성成·주住·괴壞·공空 4겁四劫의 기간期間을 함께 한다.

(b) $762105377505118447971 78\frac{74}{567} \times 7 = 533473764253582913580246\frac{518}{567}$

십억우주十億宇宙에 따른 윤계輪界의 체적體積

(c) $762105377505118447971 78\frac{74}{567} + 533473764253582913580246\frac{518}{567} =$

$6096843020040947583774 25\frac{25}{567}$ 이것이 여기에 취급取扱하는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이다. 마치 무량무변無量無邊의 금해金海에 십억十億의 금구金漚가 부유浮遊하고 있는 중中에, 또한 무량無量의 금구金漚가 인다라망因陀羅網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다. 실제實際는 일우주一宇宙의 80억八十億 배倍이나 대수大數로써 백억百億 세계世界라 운云한다.[1180]

1180) 부분은 청화 큰스님께서 빨강색 볼펜으로 선을 그어 중요성을 표시. "마치 무량무변의 금빛 바다에 십억의 거품이 떠다니고 있는 가운데 한량없는 금빛거품이 인다라망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다 실제(實際 : 진여의 법성)는 한 우주 80억배이나 큰 수로써 백억세계라고 한다. "

卷末

華嚴偈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般若偈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涅槃偈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